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661-01

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전승과 보전 사업 2  
- 제주 목축 문화 구술 자료

# 물은 땀나게 부리곡 쉐는 세나계 부리라

2020

연구 책임: 김순자  
공동 연구: 김미진 김영란 부영심 오경임  
연구 보조: 현혜림 서수빈 현혜경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                      |
|----------------------|
| 발간 등록 번호             |
| 79-6500000-000661-01 |

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전승과 보전 사업 2  
- 제주 목축 문화 구술 자료

# 물은 뜨겁게 부리곡 쉐는 세나게 부리라

연구 책임: 김순자

공동 연구: 김미진, 김영란, 부영심, 오경임

연구 보조: 현혜림, 서수빈, 현혜경



# 〈차 례〉

## I. 연구 개요

|                         |    |
|-------------------------|----|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 5  |
| 2. 연구 기간 .....          | 5  |
|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   | 5  |
| 4. 연구진 .....            | 7  |
| 5. 주요 연구 내용 .....       | 7  |
| 6. 기대 효과 .....          | 8  |
| 7. 자료 사진 .....          | 9  |
| 7.1.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  | 9  |
| 7.2. 서귀포시 하원동 .....     | 13 |
| 7.3.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 | 18 |
| 7.4.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  | 22 |

## II. 제주 목축 문화 구술 자료

|                                  |     |
|----------------------------------|-----|
| 1.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목축 문화 구술 .....    | 29  |
| 2. 서귀포시 하원동 목축 문화 구술 1 .....     | 212 |
| 3. 서귀포시 하원동 목축 문화 구술 2 .....     | 269 |
| 4.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목축 문화 구술 1 ..... | 333 |
| 5.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목축 문화 구술 2 ..... | 395 |
| 6.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목축 문화 구술 .....    | 453 |



# I. 연구 개요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제주 사람들은 예로부터 ‘구덕’, ‘웅기’, ‘갯’, ‘불미’, ‘초가’, ‘갈옷’, ‘목축’, ‘사냥’ 등의 독특한 민속 문화를 만들어왔음. 이들 문화는 민속학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방언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전통 문화의 원형인 제주어 자료로는 제대로 구축된 바 없어 시급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사라지는 제주의 전통 문화와 관련한 전승자를 대상으로 제주 전통 문화 관련 제주어 자료를 연차적으로 조사하여 제주 사람들의 삶과 문화, 나아가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구축하고자 함.
- 이 사업은 제주 중산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축’ 관련 자료를 채록하여 집대성하고 목축 문화 관련 어휘를 조사·대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목축 문화와 언어를 비교·분석하고자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동서남북 네 곳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음.

## 2. 연구 기간

2020년 5월 15일~2020년 12월 31일

## 3.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 3.1. 조사 지역: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중산간 지역인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서귀포시 하원동,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개 지점임.
- 3.2. 조사 대상: 네 개의 조사 지역 출신으로 현재 목축 일을 하거나 과거에 목축 관련 일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제보자는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4명, 서귀포시 하원동 3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4명, 조천읍 선흘리 4명 등 15명임.

### 3.3. 조사 일시: 문헌조사와 9차례의 현지 조사를 함.

다음은 마을별 제보자, 조사 현황임.

〈표 1〉 마을별 제보자, 조사 현황

| 번호 | 제보자 | 성별 | 출생 연도 | 조사 일시                                         | 조사 마을 |
|----|-----|----|-------|-----------------------------------------------|-------|
| 1  | 박성희 | 남  | 1936  | 2020. 6. 10.<br>2020. 6. 19.<br>2020. 7. 3.   | 산양리   |
| 2  | 함신생 | "  | 1932  |                                               |       |
| 3  | 양창일 | "  | 1944  |                                               |       |
| 4  | 강병호 | "  | 1957  |                                               |       |
| 5  | 강상흥 | "  | 1941  | 2020. 8. 14.<br>2020. 11. 5.<br>2020. 12. 15. | 하원리   |
| 6  | 강희수 | "  | 1943  |                                               |       |
| 7  | 원수윤 | "  | 1958  |                                               |       |
| 8  | 김승남 | "  | 1940  | 2020. 11. 19.<br>2020. 12. 15.                | 수망리   |
| 9  | 김창언 | "  | 1947  |                                               |       |
| 10 | 김두생 | "  | 1942  |                                               |       |
| 11 | 김재종 | "  | 1968  |                                               |       |
| 12 | 고경수 | "  | 1930  | 2020. 11. 16.<br>2020. 12. 18.                | 선흘리   |
| 13 | 고병문 | "  | 1942  |                                               |       |
| 14 | 고성찬 | "  | 1944  |                                               |       |
| 15 | 양중옥 | "  | 1952  |                                               |       |

3.4. 조사 방법: 조사는 강영봉·김순자(2016)의 《제주어구술채록질문지》(제주특별자치도·제주대학교국어문화원)의 ‘제1부 구술’ ‘4. 들일’ 중 관련 문항 ‘소 기르기’, ‘말 기르기’, ‘떡이’ 등 21개 문항의 질문을 기초로 하여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나 어휘가 나오면 추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함. 조사는 “쉐는 어떻 질러수과?”, “쉐 종류에 따라은에 이름들도 트나지 예?”, “질들이는 건 어떻헤마씨?”, “목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헤마씨?”처럼 제주어로 묻고 제주어로 구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온전한 목축 문화와 목축 관련 어휘 등을 채록할 수 있도록 함.

## 4. 연구진

〈표 2〉 연구진 현황

| 구분       | 이름  | 소속                  | 연구 역할                    |
|----------|-----|---------------------|--------------------------|
| 연구책임     | 김순자 | 제주학연구센터장            | 총괄, 조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
| 공동연구     | 김미진 |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연구책임, 조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
|          | 부영심 |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해설사      | 조사, 전사, 집필               |
|          | 김영란 | 시인                  | 조사, 전사, 집필               |
|          | 오경임 | 동화작가                | 조사, 전사, 집필               |
| 연구보조     | 현혜림 |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 사진 및 영상 촬영, 정리           |
|          | 서수빈 |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        | 사진 및 영상 촬영, 정리           |
|          | 현혜경 |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        | 사진 및 영상 촬영, 정리           |
| 감수<br>위원 | 강영봉 | (사)제주어연구소 이사장       | 자문 및 감수                  |
|          | 강만익 | 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br>특별연구원 |                          |

## 5. 주요 연구 내용

- 5.1. 주요 연구 내용: 목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채록함. 조사 지점별로 △마소를 길렀던 경험 △마소 종류 △먹이 △목장 관리 △ 도구 등
- 5.2. 녹음 및 영상 장비: 소니 PCM-A10 녹음기, 캠코더 캐논 FDR-AX100을 이용하여 녹음 및 영상 촬영을 하였고, 자료화하여 향후 교육 자료, 콘텐츠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진은 카메라와 휴대 전화 등을 활용하여 촬영함.
- 5.3. 전사: 채록 자료는 한글로 전사하여 목축 관련 구술자료집을 발간하고 제주학 아카이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휘와 용례 자료 등은 《제주어대사전》 집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전사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를 의미함. 조사자가 여럿일 때는 @1, @2...처럼 표시하고, 제보자가 여럿일 때는 #1, #2, #3...처럼 나타냄.
- 5.4. 결과물
- 1) 책자: 제주 목축 문화 구술자료집 《물은 뚝나게 부리곡 쉼은 세나게 부리라》 발간 외
  - 2) 녹음·영상·사진 자료



〈표 3〉 조사 마을별 성과물

| 조사마을     | 성과물     |         |       |               |
|----------|---------|---------|-------|---------------|
|          | 녹음(시간)  | 영상(시간)  | 사진(점) | 자료집           |
| 한경면 산양리  | 8:25:59 | 8:13:42 | 290   | 구술자료집 외<br>1건 |
| 서귀포시 하원리 | 4:39:19 | 4:17:41 | 478   |               |
| 남원읍 수망리  | 3:27:46 | 3:25:39 | 195   |               |
| 조천읍 선흘리  | 3:04:09 | 3:00:31 | 80    |               |

## 6. 기대 효과

- 제주 목축과 관련한 어휘와 민속 등을 망라한 이 조사를 통해 제주 중산간 사람들의 삶과 문화, 제주어, 제주민속 등을 담아낸 자료를 구축하고 제주 전통 문화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음.
- 사라져가는 제주 전통 목축과 관련한 어휘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함으로써 제주어와 목축 관련 제주 민속 등을 콘텐츠화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연구자들의 연구 자료와 교육 자료로 활용 가능함.
- 구술 채록된 자료는 전사하여 구술 자료로 구축하고, 관련 어휘와 용례, 사진 자료 등은 《제주 어대사전》 발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7. 자료 사진

### 7.1.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 7.1.1. 조사 장면



한경면 산양리 조사 장면(2020. 6. 10.)



한경면 산양리 조사 장면(2020. 7. 3.)

### 7.1.2. 제보자



제보자 박성희 씨



제보자 함신생 씨



제보자 양창일 씨



제보자 강병호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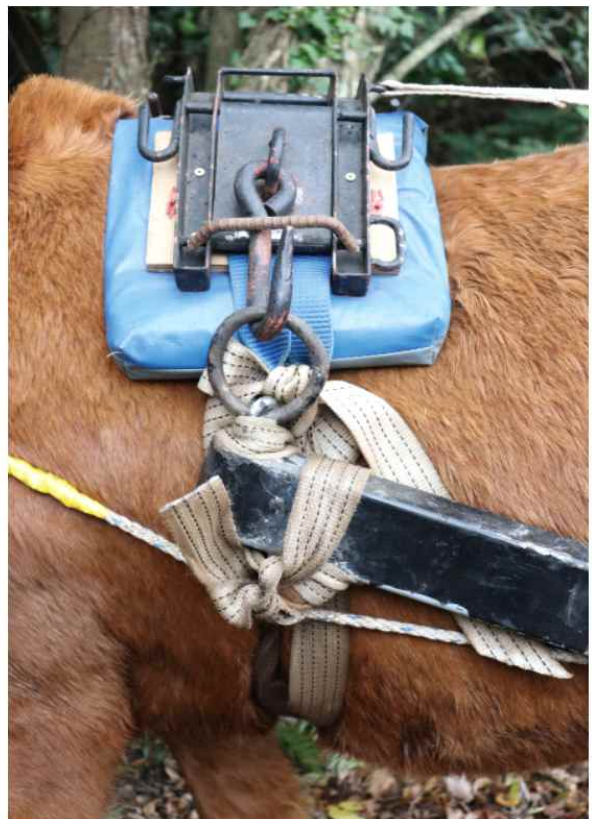
### 7.1.3. 목축 관련 시설 및 도구 사진



한경면 산양리 '큰영곳의 활성화'를 위해 운행하는' 물마차



'물녹대'



마차를 끌기 위한 '물질매'





강병호 소장 '몰질메'와 '몰좁게'



강병호 소장 '몰질메'



강병호 소장 몰좁게'



강병호 소장 '몰늑대'



강병호 소장 '몰안장'



## 7.2. 서귀포시 하원동

### 7.2.1. 조사 장면



서귀포시 하원동 조사 장면(2020. 8. 14.)



서귀포시 하원동 조사 장면(2020. 12. 15.)

### 7.2.2. 제보자



제보자 강상흥 씨



제보자 원수윤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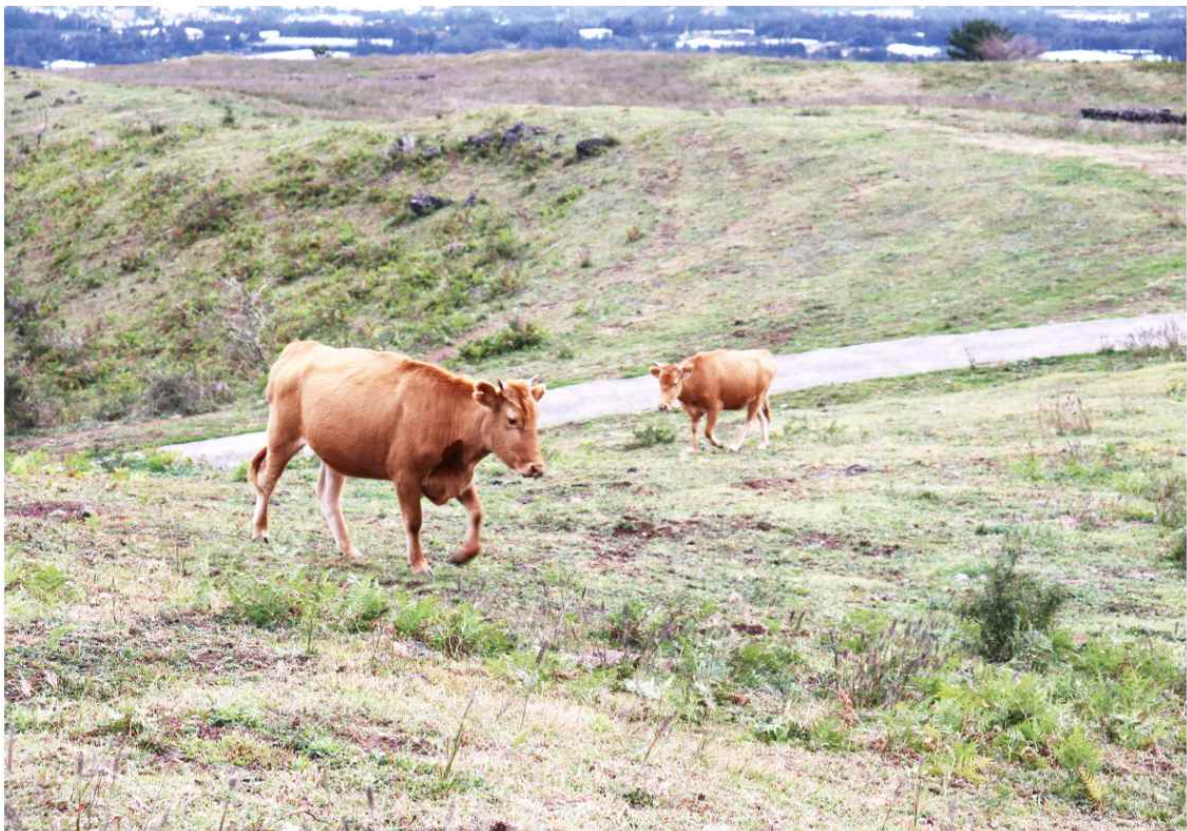
제보자 강희수 씨



### 7.2.3. 목축 관련 시설 및 도구 사진



하원공동목장 전경



하원공동목장에 방목 중인 소





하원공동 목장의 물통



강상흥 소장 '잠대'





원수윤 소장 낙인(하원)



강상흥 소장 '보섭'



강상흥 소장 '구레'와 '구레덕석'



강상흥 소장 '멜망탱이'



강상흥 소장 '덩드렁'



강상흥 소장 '덩드렁마개'



### 7.3.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 7.3.1. 조사 장면



남원읍 수망리 조사 장면(2020. 11. 19.)



남원읍 수망리 조사 장면(2020. 11. 19.)



### 7.3.2. 제보자



왼쪽부터 제보자 김창언 씨, 김승남 씨, 김재종 씨



제보자 김두생 씨

### 7.3.3. 목축 관련 시설 및 도구 사진



남원읍 수망리 소재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가축시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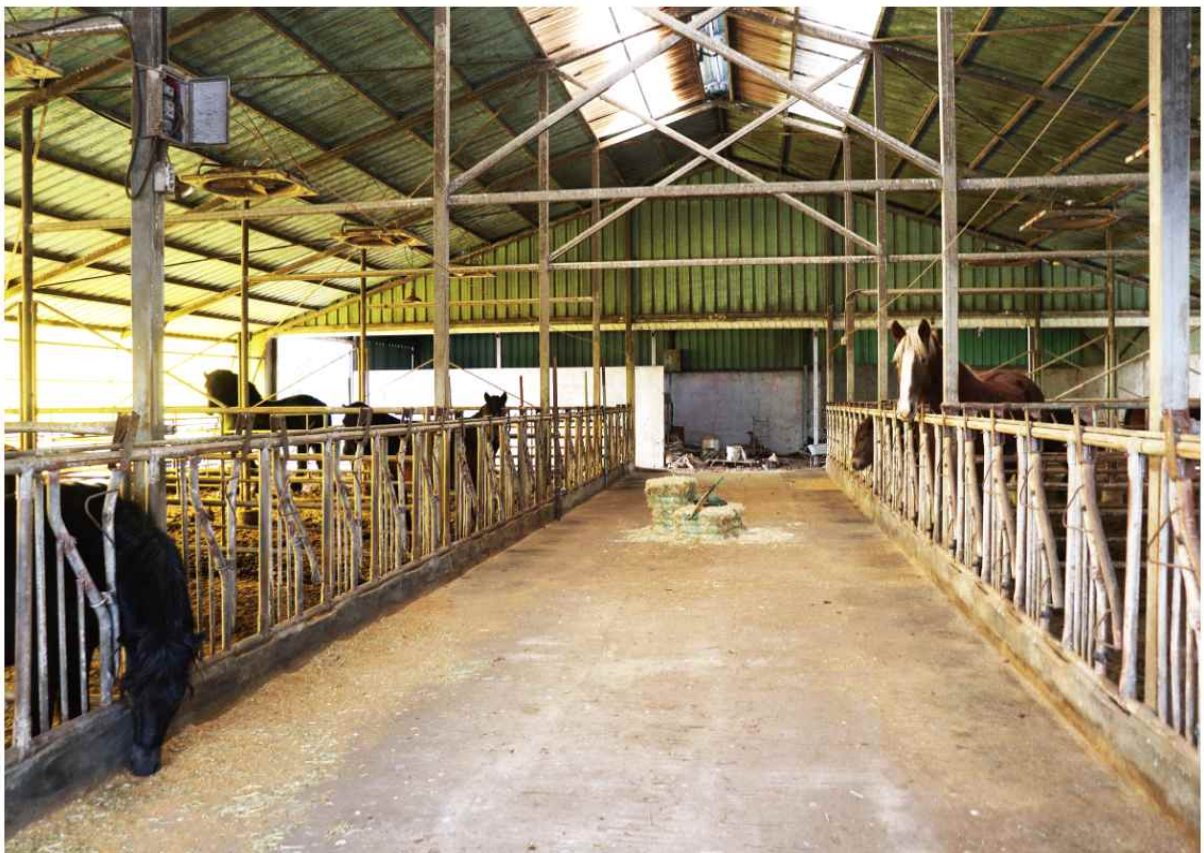


서귀포축산농협 가축시장





서귀포시축산농협 가축시장 내부와 소



서귀포시축산농협 가축시장 내부와 말



## 7.4.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 7.4.1. 조사 장면



조천읍 선흘1리 조사 모습(2020. 11. 16.)



조천읍 선흘1리 조사 모습(2020. 12. 18.)



#### 7.4.2. 제보자



제보자 고경수 씨



제보자 고병문 씨



제보자 고성찬 씨



제보자 양중옥 씨



#### 7.4.3. 목축 관련 시설 및 도구 사진



조천읍 선흘1리 고경수 씨



조천읍 선흘1리 고경수 소유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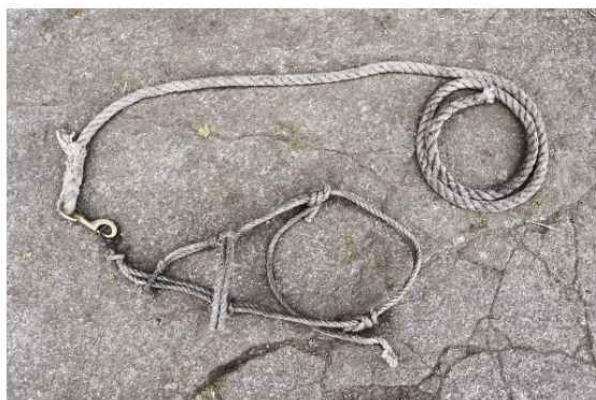
조천읍 선흘1리 고경수 씨 축사 내부



고경수 씨 소장 '녹대' 등



고경수 씨 소장 낙인(두)



고경수 씨 소장 '녹대'와 '물석'



고경수 씨 소장 '글쟁이'





## II. 제주 목축 문화 구술 자료





## 1.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목축 문화 구술

- 조사 일시: 2020. 6. 10., 6. 19.
- 조사 장소: 산양리 경로당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부영심 @4 김영란 @5 오경임
- 제보자: #1 박성희 #2 강병호 #3 함신생

- 
- 조사 일시: 2020. 6. 19., 7. 3.
  - 조사 장소: 산양리 경로당 마당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부영심 @4 김영란 @5 오경임
  - 제보자: #1 박성희 #2 강병호 #4 양창일

### 제보자

@1 그 지금까지 살명은엿 어떤 일 행 살아수과?

#1 나 개인적으로?

@1 예.

#1 어린 땀 뭉 그럭저럭 부모 슬하에 살았지마는 그자 옥은 후에는 결혼지후에는 농사짓고 살았지.

@1 예, 농사짓고. 계난 옛날 헛던 농사 다하고.

#1 보리, 조, 고구마, 유채, 콩 요런 거.

@1 예, 다른 일은 안 해봤수가?

#1 다른 일이라곤 엇엇지, 여기는.

@1 경 해도 마을 이장도 하고 이런 거도 오래 하영 헛잖아양?

#1 응. 그런 것도 오륙 년 헛고.

@1 으.

#1 그것은 옛날이면 옛날이라 할 수 잇지마는 칠십 년대니까.

@1 예.

#1 칠십사 년도에 저, 박정희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 그때가 칠십팔 년이던가?

@3 칠십구 년.

@1 예.

#1 팔 년.

@1 응.

#1 칠십사년 십이월 이십오일부터니까 한, 한 오 년 심바람허곡.

@1 응.

#1 하긴 그전에도 동네 심바람은 산림계장이라든 알까.

@1 어. 옛날 난 저기 못허게.

#1 으응 그렇지. 그 행정 산림계장이 아이고.

@1 으.

#1 동네 이장, 구장 같이. 동네 리 내에서 산림계장. 쟁 군대갓다 와서 곧 오니까 걸 씩우 길래 한 사 년 것도 심바람 해보고. 이 근래 이 소나무들이.

@1 예.

#1 우리 새신약도.

@1 으.

#1 아주 그 민둥산이랴어.

@1 예.

#1 다 잔디밭. 켄디 그 당시엔 육십 년대 저기 다 심어 가지고, 그 산림계장할 때. 그때 이젠 이름도 잊어불엇네이. 조천에, 임 누군가가 묘목장살 헛어.

@1 으.

#1 그렇게 허면 알 거라이, 옛날. 그 분이 묘목 그 삼나무 같은 저 축백, 해송 묘목 놔 가지고 다 분배해서 다 심었는데 지금 저 어디야 협재, 금릉.

@1 예.

#1 거기 그 이 소나무들이 지금 그 모래밭이니까 흠 굶진 앓았지만은 다 그 우리가 그때 심은 거. 육십 년대에.

@1 아버지가 곱읍디다.

#1 예, 사방공사로.

@1 워령헛다고예.

#1 예, 우리가 그 당시에는 순경들 지배받을 때니까 사삼사건 당시. 그 당시가 정심 싸갈 게 없어, 아침저녁도 굶는 송년인데, 이젠 점심을 싸오라면은 점심 싸 갈 게 있어야지 조반도 굶은 사름들이.

@1 응.

#1 순경들이 그 인솔 하에 다니니까 이젠 발로 차고 욕을 많이 헛거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뒷날은 그 동고랑.

@1 예.

#1 벤포밧그 대로 줄은, 줄은 거. 동고랑을 보파리에 싸 가지고 등갈등갈 차가든 빈 것 읊은 것 다 알거든. 덩갈딩갈 헤가든. 쟁 발로 차 가지고 웨 빈 거냐 허니까, 싸울 게 없어 가지고 빈 거다 그 대답을 헐라니 눈물이 나지. 그렇게 허면서 그 심은 남덜.

@1 응.

#1 그래도 그런 분수도 모르로 나무들은 무성허게 자라.(웃음)

@1 맞아, 게난 그때 그 산림계장 역할은 어떤 역할이라났수가?

#1 역할이라든 그런 그 묘목이 나오든 그 아주 불모지에다가 선택해 가지고 지주하고 언약해서. 당신네 밧은 에 불모지니까 이 흠 산림녹화를 시켜야 웬다. 이러든 아, 이제 승낙하



면은 그당시에 분수 계약을 했어. 삼십년 해연 했는데. 이렇게 문서 작성해 가지고 당신 누구 밧인데 예, 몇 번지 몇 평. 이제 그 해송이든 해송, 삼나무든 예, 삼나무 심었다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삼십년 분수 계약을 딱 해서 산림계장하고 개인.

@1 응.

#1 그 계약서 도장 날인하고. 이젠 하등이 그게 성립은 안 됐는데 나무들은 컷지만은 이젠 한참 도산해서 이 커 가나니까 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좋은 법이 사팔공 그 법에다가 이젠 하간 이 삼, 켜이, 따비, 호미, 뭐 낫 ㄱ튼 걸 다 그 만들어 주면서 농사 지라. 그런 불모지를다가 싹 개간해서 이 예 흥년.

@1 응.

#1 흥년을 예, 해소 시켜라. 그러니까 그 열싸 좋다고 그 나무덜 비어두고, 불 부쳐두고. 그런 디 이제 개간해 가지고 농사를 저보니까 그렇게 잘 된다 말하여.

@1 으.

#1 그때 흥년이 싹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배부르 했지.

@1 아까 삼춘 새신악이렌 헛잖아예?

#1 응.

@1 새신악은 옛날 이 연화동서도 경 불런?

#1 예.

@1 새신악 헛수가?

#1 그것이 요즘말로 옛날에 새신악이렌 안 허곡, 구식 말로.

@1 으.

#1 새신오름, 새신오름. 게니 그 뭐 새가 뭐 텅엘 짓었다고 해 가지고 조소악이라는데 글자 풀이로는.

@1 응.

#1 게난 이제는 보통 새신악이 이름 뒤흔었어.

@1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풍갈 때는 새신오름 간텐 헛주.

#1 으, 새신오름, 새신오름. 게난 우리 옛날 우리 사투리.

@1 예.

#1 게니 그 뜻을 생각허니, 그 옛날 해 붉은 혈 때다가 그런 뜻이 잇는디 저 가마봉은 가마 많이 보이니까 가마봉이고, 요건 새가 많이 보여 새신오름이렌 헛다지마는, 그것은 으, 말장시덜 중간 말이고. 그 구식 그 구학문이나 이 좀 가진 어르신들이 곤는 말은 새가 그, 짓을 짓다고, 텅에 짓어 가지고 알 까고 그렇게 해나니까 새신오름이렌 헛다니 우리도 확실힌.

@1 응.

#1 뭇 그 연구진덜 같이 케케 묻진 안 헛으니까 그냥 대강 귀로만 들어서 지내오는 거지.

@1 그러면.

#1 우선 사투리로는 그자 새신오름, 새신오름.

@1 으, 게니깐 이제 우리는 제주도 말. 이 산양에서 골앗던예, 그 말로만 골아주면 뉘는 거예?

#1 게난 새신오름.

## 쉐 질루기

@1 예, 쉐는 어떻 질좌낫수과? 쉐도 하영 질좌?

#1 쉐들은 그 옛날에는 부릉이덜.

@1 예.

#1 대부분 부릉이라든 슷소.

@1 으.

#1 밧 가는 슷소. 슷소 한 마리만 예, 질루고, 여기가 대부분 한 육십 호 칠십 호 처음은 하다가 예, 육 개 반인디 지금도 반은 육개 반인디 들도나도 안 헤여.

@1 으.

#1 돌아가 버리고 젊은이들은 출타헤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예, 호당 소 혼 머리 썩 질좌는데, 또 준비 못 해서 없는 집도 많고. 또 그 여자덜 홀할머니덜 또 소들 못 질루고 이렇게 하다가 예, 그 저 사팔 년도에 소개헤 가지고 어, 오십 년대 뉘 가니까 조금 그 개발 성이 뉘 가지고 암소도.

@1 예.

#1 충분히 밧 갈 수 있다. 암소는 예, 새끼 나 가지고 가정 수입도 올릴 수 있다. 이젠 영 깨달음이 시작뉘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썩 그 슷소들을 이제 환태헤 가지고. 암소들을 질좌서 새끼 나서 팔아서 큰 재산이 뉘지. 밧도 사고.

@1 응.

#1 자녀덜 공부도 시키고. 경헐 그 전에는 그 사팔 년 전에는 보통 슷소만 지르니까 슷소도 저 어린 소들 송아지 키워 가지고.

@1 예.

#1 이제 그 너무 그 으, 슷소들은 밧테 갈 때나 들에 나가든 비둔해 가지고.

@1 예.

#1 완력해서 이제 사름덜이 버치니까 다 불까 불엇어.

@1 으.

#1 그 요 이 집 곁에 그 터가 그런 하르방이 살단 집인데, 글로 동네 소들을 다 모여다가 불까서 질루고, 그러든 순허거든, 일은 잘허고.

@1 으.

#1 그렇게 하다가 이젠 그 소개해서 재건헐 다음부터는 이젠 수익성도 알아야뉘겟다, 사람이 깨닫게 뉘 가지고, 아, 이제랑 암소덜을 지르자.

@1 으.

#1 겐디 슷소 지루는 집안이 별로 엇엇거든, 겐 암술 지루니 어떤 그 성적 좋은 소들은 금년 나고 새해 나고 새해 나고 거보고 곱새끼라든다.

@1 으.

#1 곱빼기, 곱빼기 내놓든[나노든] 어떤 하르방은 다섯여섯 마리까지 소를 끌어 다녀. 예 미 하나민 줄줄줄 뉘 쫓으니까.

@1 응.



#1 그런 집안도 잇곡, 어떤 집안은 또 이제 새길 나도 두 설만 나쁜 돈이 어려우니까, 돈이 급하니까 우선 팔고 보자 해서, 팔아서 보통 하나 두 갠 지루고. 그랬다가 또 이젠 이것이 막 발전돼 가니까 개인이 목장돼 불었어, 개인 집에.

@1 으.

#1 소막을 이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일로 이레 쭉런히 아버지도 그렇게 헛지마는.

@1 예, 예.

#1 그때는 뭐 다 알 테지아.

@1 예.

#1 그전엔 그전엔 몰랐지마는 그럴 때는 소 하나 두 개 지를 때는 혼자 끌어 다니면서 어디 길가 같은 디서, 또 물흙 같은 디서 풀 뜯어서 이제 낮 뉘 가문 들어오고 헛지마는 많이 해 가니까 그게 힘들거든. 뭐 그 곡식밭디도 후려들랴 하고 말야. 그러니까 이젠 모듬떼를 해 가지고 목으로 갈라 가지고, 열 집, 열다섯 집 뭐 아니몬 일고으답 집이라도 우리 같이 수눌어서 허자. 오늘날 내가 볼 테니까 널랑 너가 보라, 또 다음은 너가 보라, 돌아가면서 쉼테를 보기 시작했어.

@1 으.

#1 그 당시는 새신오름. 이제 꽃, 꽃자왈.

@1 으.

#1 그런 디 가서 해천 맥이다가 들어오고. 이젠 짓도 해 보니 혼자만 바쁘다 말이야. 정심도 먹어야 뉘곡, 정심 먹으레 와보몬 남으 이제 그 곡식밭디 가서 곡식 먹어서, 곡식 이제는 이놈이 자식 근무 태만이다 곡식 벤상해라 허니 안 뉘겟다, 아 이제 둘이 벅해서.

@1 응.

#1 교대하면서 밥도 먹곡. 이제 저 소 맥이자 허니까 아, 거 좋다 해서 내중에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또 욕심쟁이들은 욕심이 아니지 그게 발전이지. 이 소를 두 개, 세 개 지르다가 열 개씩 지르는 사름도 잇단 말이야. 야, 이젠 너무 소떼가 뉘서 안 뉘겟다 이젠 확대하자, 저 웃꽃자왈을 남의 동네 저 신평, 구억리 같은 디.

@1 응.

#1 부락에 가서 임대 내다가 목장을.

@1 으.

#1 임대 내다가 거기서 질렀어. 이젠 최종적은 둘이 일 개 조로 허는디 이제 저녁은 먹고 가지만은 아침까지 아니몬 그 정심 먹을 식량 그 밥까지 싸 가면서 그 담요테기나 곤곡, 그 들에서 소 맥일 때는 보통 여름이니까 춥진 않지. 그래도 모기 방지라든지 좀 이슬 방지는 해야 뉘니까 담요테기나 하나 가지고 가서 둘이 잠자면서.

@1 으.

#1 소도 질라 나고. 그러다가도 그 옛날 어른덜 말따나 도둑을 맞젠 허몬 뉘 도둑 하나가 열이 지켜도 못 현다.

@2 예.

#1 개도 안 짖는다 뉘 이런 말 잇는데 그래도 그런 순간에도 소를 끌어가서 잡아먹어 불어.

@1 으.

#1 우리 동네도 한 두 머리카락이 그렇게나 잃어 가지고 변상도 한 예가 잇는디 그런 저런 역사가 헐라하면 상당히 재밌어.

@1 예, 예. 우리가 그런 역사를 좀 다까 보젠.

#1 으.

@1 이거 조사를 허는 거마썸.

#1 그러니까 그런 건 몇 월 메칠이라든지 또 도둑놈이 누구라든지 요것까지는.

@1 못허곡.(웃음)

#1 흘 수가 엇지.

### 곱새끼

@1 계난 아까 그 말허던 가운데 곱새끼.

#1 응.

@1 예, 곱새끼에 대행 다시 한 번 곱아줍서.

#1 연련이[열녀니] 나는 거.

@1 으, 계니까 연련이[연녀니] 나는 거.

#1 거를 곱새끼라고.

@1 곱새끼라고. 연련이 나는데 이게 이 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도.

#1 응.

@1 흐 살예, 터울 허면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삼 년, 사 년 이렇게 나는 쉼들도 잇어마썸?

#1 응, 사름도 연련이 나는 사람 간혹 잇지?

@1 예.

#1 한꺼번에 두 개, 세 개 나는 사람도 잇고.

@1 예.(웃음)

#1 (웃음)

@1 쉼도 경 험니까?

#1 응, 쉼도 쌍둥이도 나곡.

@1 아, 쉼 쌍둥이 낫덴 험 말은 잘 안 들어봐신디, 삼춘 봐난?

#1 으, 이 동네도 몇 개 낫주.

@1 아, 그 쉼 쌍둥이 나면은?

#1 아까 으섯 개 지룬덴 험 하르방도 쌍둥이 나나고.

@1 으.

#1 또 요 알목예, 알목이라든 허주만은 요 앞일 보고 알목이라고 허는디 그 집의 할망은 쌍둥이 낫거든.

@1 으.

#1 손지가 궤상헌 놈이라.

@1 으.



#1 아버지는 스태에 죽어 버리고, 할아버지 댁에서 이제 어린 때 커났는디 이 쌍둥일 나  
니깐 이놈이 술도 좋아하고, 이젠 아버지영 할머니 말을 잘 안 들어. 참 우리보단 알이지마  
는 죽어불었는디 죽은 사름 거느리기가 안 뻘지마는 이것도 하나 역사니까.

@1 예.

#1 이젠 곱새길 나니까 거 돈은 별로 웃인 놈이거든. 술도 잘 먹어. 겐디 돈은 엇어도 뭇  
부디 도둑질은 안 허는디 안 먹은 날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줍아톨르든 어린 때 술 안  
먹을 때 미성년 때라도 기여, 기여 나 아텔 먹으라, 먹으라. 안 줄 수가 엇거든. 너무.

@1 으.

#1 깡 놀아 부니까. 뭇 노동이나 시킨 일은 안 허곡 공부도 허렌 허든 공부도 싫고.

@1 으.

#1 먹는 거만 그런 아인데. 흐 번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무사 허니까. 송아기 쌍둥이  
나민 집안 망헌텐 허난 하난 치와 불어야 뉘마썸.

@1 예.

#1 아니, 손지 말 안 들으민 안 뉘는 하르방이니까 게든 어떻 헤영 치울 말고 허난, 저거,  
저 이름 거느리면서 자기가 잡아먹기 기려운 거주마는 누가 풀렌 허난 풀아 불게. 게건 니가  
알앙 허라. 우영팻디 간 잡아먹어 불언.

@1 (웃음)

#1 게난 이 동네 사름은 큰 화젯거리라. 이젠 역사에 남양은 안 뉘지마는.

@1 예, 예.

#1 옛날 이렇게도 재미있는 일이 잇다고.

@1 게든 그런 그 쉼 쌍둥이 나면 안 좋텐 현 말은 이십니까?

#1 예.

@1 아.

#1 게도 그것도 우리 낳기 전에.

@1 예.

#1 케케묵은 옛날 말이지.

@1 으.

#1 우리 난 후에는 더 돈 벌어.

@1 으.

#1 또 우리 사름도 그냥 노래 뭇, 뭇 잇잖여. 그 지집아이덜 들락귀는 것덜. 그런 거 보든  
얼마나 멋져.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무대에서 노래 불러 가든.

@1 (웃음)

#1 (웃음)

@1 맞아.

#1 그러니 가네만 쌍둥이 가순 줄 알앗더니 이제 연령 많은 그 부인덜토.

@1 예.

#1 뭇 팀이 잇고.

@1 게난 어쨌든.

#1 옛날에도 쌍둥이는 잇곡.

@1 예. 췌 곱새끼라고 한다고예?

#1 으.

@1 오늘 하나.

#1 연연이 나는 걸 곱새끼.

@1 예. 게난.

#1 우리 사름은 좀 영리하니까 년생이라고 하지. 연년생.

@1 연년생.

#1 응.

@1 으, 근데 곱새끼라고 저기를 해예. 알았수다.

#1 거 진짜 사투리 말이지.

@1 예, 저도 조사 하영 텅겨 봐신디 곱새끼란 말은 오늘 처음 들언.

#1 게민 나도 옛날 사름이네이.

@1 (웃음) 그 췌도 게니까 예전에는 부릉이 그 질루당은에 이제 암췌로 옮겨갓잖아예?

#1 어.

### 췌 종류

@1 이제 그 옮겨 갓는데. 그 췌도 종류가 으라 개 아니? 부릉이도 잇고 암췌도 잇고.

#1 게.

@1 어떤 종류들?

#1 그게 부릉이가 솟소.

@1 예.

#1 그게 사팔년 전 오십년 전에 지루고.

@1 으.

#1 오십년 대 이상은 암소로 이제 갈아메와 가지고 기르기 시작헸다 이거지.

@1 으.

#1 그때부터 우리 농사도 더 확대해서 허곡.

@1 그 털 색깔에 따랑도 불르는 이름.

#1 으.

@1 잇엇지예?

#1 응.

@1 어떤 것덜 잇어났수과?

#1 부릉이가 보통 황소라 하지.

@1 예.

#1 황소는 이렇게 노란췌.

@1 예.

#1 누를 황 제니까.

@1 예, 예.

#1 노랑쉐를 황쉐라 하고.  
 @1 그걸 또 부릉이렌도 허잖아예?  
 #1 응. 수커나 암커나 색깔은 마찬가지로.  
 @1 예.  
 #1 여자도 마찬가지로 아니. 사람도.  
 @1 으.  
 #1 흔히 노란쉐는 황소.  
 @1 예.  
 #1 노랑쉐.  
 @1 노랑쉐엔 허지예?  
 #1 응. 영 허곡. 또 소는 보통 붉은 쉐 없어. 적쉐라는 건 엇는디, 흑쉐.  
 @1 흑쉐.  
 #1 검은쉐.  
 @1 예.  
 #1 또 이제 노랑 털에 검은색 저 호랭이 같이. 그 표범 같이 검은 안 찍뒹 호랑이 같이  
 줄줄이 허는 게 있어 그런 거 보고 속쉐라고.  
 @1 으, 속쉐라고 하고예.  
 #1 으.  
 @1 그 속쉐도 있고, 속쉐 말고 그 얼룩얼룩헌.  
 #1 어럭쉐.  
 @1 어럭쉐.  
 #1 응. 말도 마찬가지로 어럭말.  
 @1 예.  
 #1 또 그러고 희도 안 허곡 검도 안 허고 저 쥐색깔 재색깔 요런 쉐도 잇거든.  
 @1 예.  
 #1 재쉐엔 허고.  
 @1 건 재쉐?  
 #1 으.  
 @1 게난.  
 #1 노랑쉐, 검은쉐.  
 @1 속, 속쉐.  
 #1 노랑쉐 ㄱ라 황쉐엔도 허고.  
 @1 예.  
 #1 노랑쉐렌도 허고.  
 @1 예.  
 #1 속쉐.  
 @1 재쉐.  
 #1 으, 재쉐.



@1 으.

#1 또 들엔 가든 또 이름이 더 많아.

@1 예, 들은 이땅 또 들어볼 거예. 그다음에 그거는 털 색깔에 행은에 허고.

#1 응.

### 뿔 이름

@1 그다음엔 뿔. 뿔 모양에도 이름 짓는 거 합디다.

#1 그렇지, 뿔이.

@1 으.

#1 아주 크도 안허고 아주 그, 저 소싸움이라 허지.

@1 예.

#1 찔레혈 무끼가 아닌 그자 자기 그 소라는 뜻에서 뿔만 나온 게 있어. 그 단닥뿔이라고 해.

@1 으, 단닥뿔.

#1 으, 으. 요만히 쪼그만.

@1 쪼그만 이렇게. 으으, 그냥 요렇게 행은에 쪼그, 쪼근만 뿔 거예? 단닥뿔.

#1 그러고 이제 저 뭐야 이 말 귀ㄴ치 아주 하늘로 관작 솟은 게 있어, 영.

@1 으.

#1 이렇게 숙이면 아주 무섭게 관작 솟은 거 천상뿔이라고.

@1 예.

#1 건 하늘 쏜다는 말로 그자 천, 천상뿔.

@1 천상뿔, 예. 그다음. 영 오그, 영 오그라진 것도 있지 아녀우파?

#1 그런 건 뭐 정상, 정상으로 허는디.

@1 으.

#1 뭐 앞더레 오그라지나 뒤터레 오그라져저 소 보면서 현상 보면서 허니까.

@1 으.

#1 그게 아까 단닥뿔이다, 천상뿔이다 요렇게 그 명사는 아니.

@1 응.

#1 그 현상 보면서 짓는 말이지.

@1 예, 그리고 그 뿔도 이렇게 흔들흔들허는 쉼도 잇잖아예?

#1 그런 것까진.

@1 그건 모르고.

#1 건 어떻게 싸움허다가 좀 부상당헌 거나 허지. 원래 그렇게 뿔게 원래 좀 썸 거 보고 쉼뿔 같이 뿔 썸다 요런 말 잇잖여.

@1 예.

#1 원래가 든든하게 마련.

@1 경해근에 삼춘 단닥뿔.

#1 거 소위 쉼뿔도 더운 때 빠라 이런 말이 잇는데. 무슨 일이 잇으면 닥친 때 해결허라

이런 말인데. 게니 그 굳세단 말이거든. 식으면은 안 떨어진다.

@1 으.

#1 빠지 못한다.

@1 으.

#1 든든할 때 막 귀서 이 뿔은 털어나 뉘니까. 쉼볼도 더운데 빠라는 게 바로 그 뜻.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해결해야지 널모리 흘치지 말라.

@1 응.

#1 이런 뜻이지.

@1 쉼볼도 더운 데 빠라.

#1 으.

@ 예, 그.

#1 무슨 문제는 미루지 말라. 이거지.

@1 게니까 옛날 쉼볼도 빠났수과?

#1 그렇지.

@1 그 빵은에 무시거 허연?

#1 으라 가지 썰지. 저 문돌철귀라든 알까.

@1 예. 돌절귀.

#1 문을 영 올라가민 아래 뱅뱅 도는 데.

@1 예, 예, 예, 예.

#1 그런 밑에.

@1 으.

#1 나문 허든 땃 년 안 해서 가불아 불거든.

@1 아.

#1 다이연, 닳아져서 없어지니까 그런 밑에 툇허게 놓곡. 똥고랑허니까.

@1 예, 돌철귀로도 쓰고.

#1 으, 요만이 노프게.

@1 예.

#1 그런 디도 허고. 저 이 쉼줄 땡 때.

@1 으.

#1 뭇라고 허든 땡까. 요렇게 해서 그 이어 가지고 뱅뱅.

@1 예, 고리.

#1 돌아야 뉘. 소나 말이나 자기대로 땡대로 움직이니까 그 줄이.

@1 예.

#1 꼬아진다 말여.

@1 쉼석에 연결하는 줄.

#1 연결허든, 어.

@1 예.

#1 그 뿔은 썰니까.

@1 으.

#1 요만큼 이제 넵게 싸 가지고 구멍 뚫어서.

@1 예.

#1 요걸 뱅뱅 돌게.

@1 으.

#1 그러든 소는 아무리 감장 뗏 번 거꼴로나 느다 도나 돌거든. 그렇지 않으믄 베가 막 꼬아정.

@1 예, 예, 예.

#1 그런 데도 들고.

@1 계난 그거를 연결해 주는 저기 이름은 뭐렌 굴안마썸?

#1 것ㄴ라 뒷엔 허믄 뒷나. 철물점에 가믄 철물점 상점주들은 알 텐디. 나가 그 돌려주는 고리도 만들고.

@1 응. 돌려주는 꼴히주 뒷.

(중간 생략)

@1 계난 그 이제 아까 쉼 종류예, 뿔 종류엔 단닥뿔도 잇고?

#1 으.

@1 그다음예.

#1 단닥뿔은 자끄만헌 거.

@1 자끄만헌 거고

#1 ㄴ세, 굴은 건 자작뿔.

@1 자작뿔.

#1 뒷터레 영.

@1 뒷로 영 헌 거 자작뿔.

#1 그런 건 절대 싸움은 못헤여. 일은 잘 허는디.

@1 예. 예. 이렇게 딱헌 거는 천상뿔.

#1 으 우터레.

## 쉼 용도

@1 예, 알아수다. 자작뿔하고예. 그다음예 그 쉼은 보통 어, 처음에는 부랭이 헐 때는 용도가 뒷라난마썸?

#1 일, 일소.

@1 일소. 계난 일 허면 어떻.

#1 어, 밧 갈고, 밧 가는 거 우선.

@1 으.

#1 이 뿔뿔이도 지곡. 뿔뿔에 알아?

@1 예.

#1 뿔뿔에도 메왕.

@1 허곡.



#1 히고, 옛날 구루마는 드물었지.  
 @1 예.  
 #1 옛날 구루마질 하고 밧 갈고 그자.  
 @1 그냥 짐도 시경 날르지 안헐?  
 #1 그렇지. 짐도 시끄고.  
 @1 예.  
 #1 짐 시끄는 것ㄴ랑 질메엔 곤고.  
 @1 으.  
 #1 쉼질메, 물 짐 시끄는 건 물질메.  
 @1 게영 그런 식으로 이제 쉼, 그 밧 갈았던 얘기 좀 해 줘서?  
 #1 그러니까 우선 밧 가는 게 주 목적.  
 @1 으.  
 #1 겐디 그 아무 때도 흠어멍덜은 잇거든. 그 옛날부터 이 남자들이 오래 못살게 댜 모양 이라.  
 @1 으.  
 #1 흠아방이엔 말은 벨론디이 잇긴 잇어도.  
 @1 예.  
 #1 보통 그자 흠어멍, 흠어멍 영. 겐 흠어멍들은 상당히 칭원허거든.  
 @1 으.  
 #1 옛날은이 아주 곱아서 모르게 가는 사름도 잇긴 잇었지만 여자 밧 간다는 건 말이 아니거든.  
 @1 으.  
 #1 겐디 그 밧 갈철만 나면은 어느 남자한테 가근에 스정헐 밧을 갈고. 같은 연거리 비슷헌딘 소문이나 날까 해서 무섭곡. 또 거시기도 히고. 약간 게 스뭇 늙은이나.  
 @1 으.  
 #1 그 연령 상하를 뒤서 어린 장남이나 빌젠 허민 그게 고민이라. 이 또 흐루 빌어서 밧 갈젠 허민 요즘같이 그 돈이란 게 엇어 놓니까 순전 수늬뽕이.  
 @1 으.  
 #1 주 목적. 워낙 또 부제 흠어멍은 곡식으로 주는 예도 잇고. 게니 하루 빌어서 밧 갈믄 하루 가서 겐질메줘야 댜여, 여자는.  
 @1 으.  
 #1 게니 어떤 또 독헌 그 장남은, 남자는 하루로 텍 안 맞아. 밧 가는 것과 겐질메는 게 같으냐. 곱빼기 메어 달라는 사름도 잇주마는 그것은 쪼끔 남자가 보외에 소문난 사름.  
 @1 으.  
 #1 누겐 빌민 곱빼기 일 헤드렌 허여.  
 @1 으.  
 #1 흠어멍끼리 통허는 말이라. 게니 건 저 사름 빌영 허진 말라, 허진 못 히고 유사시엔 급헐 때는 흘 수 엇이 빌영 해야 댜니까 그런 풍향도 잇었고. 남자덜은 댜나마나 그자 자기

대로 밧갈 걸로만 헛는다.

@1 게난 그 밧갈 때 암쉐허고 부렁이허고는 어땡 차이가 나마씨?

#1 부렁이가 약간 곱 같지.

@1 으.

#1 쉼에 메지마는. 쉼에도 메고 그 사람보고 장남이라는다.

@1 예.

#1 장남에도 메지.

@1 으.

#1 밥은 잘 먹고 밧은 많이 못 가는 사람이 있어. 그걸 젓 장군 일 병신.

@1 다시 한 번 예. 뭐라고?

#1 밥은 많이 먹고 양은 크고.

@1 응.

#1 일은.

@1 못 허는 사람.

#1 잘 못한다. 젓 장군 일 병신.

@1 응.

@3 (웃음)

#1 우리 동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 일 병신이렌 헛어. 똥싸기엔, 일 똥세기.

@1 으, 일똥세기.(웃음)

#1 으.

#3 일 못 허는 거보고 일똥세기엔.

#1 나무레는 말이지.

@1 일똥세기렌도 굴아낫구나예? 으.

#1 그것은 이 하르방 말이고.

@1 예. (웃음) 그렇지. 그렇지.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젓장군.

#1 게니 장군 말을 들젠 허든 아무 때도 특수 중에서도 특수해야 장군이 똤는 거니까. 똤 똤 먹으든 장군이엔 아니 헛어. 장군 말은 혼 말은 먹어야.

@1 예.

#1 이 이웃 동네 저 저지 큰 동네주마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좀 잇엇어. 좀 벨량도 추허 게 지우고 현 사람인디 좀 그 삶은 돛고기를 혼 말 먹엇다는 사람 있어.

@1 으.

#1 고기 혼 말. 게 건 우리 안 보니까 어떤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도 보외에 먹은 사람이 잇지. 우리 동네도 현재도 저 그런 난 자꾸 우시겔 허는데, 이 똤지갈비라든 여기서 보통 한두 대든 죽허지 았으카?

@1 으.

#1 한 똤든 충분헐 거라, 여자들은. 난 이제 갈비 구운 거 혼 하나. 가위로 찢든 거 두 개 든 난 충분헌 사람인디 그런 걸 스무 개 먹든 사람이 있어.

@1 으.

#1 이 동네도.

@1 예.

#1 것도 거짓말 같으니. 쟁 난 그놈한테 하난 죽었는디. 아, 저 그 혹시 알 거라, 저 우리 스춘 저 다리 불구자 현 아이.

@1 이름 무시거과?

#1 박○○이.

@1 으, 잘.

#1 작년에 돌아가 불었는디.

@1 으.

#1 저 느 꼰꼰이 앓아근에 다리 경 뺑신뒤여도 술 먹는 건 장군이여 허난. 에이구, 말 맙서. 가이 일름 이제 ○○엔 현 아인디 이제 오름 동네 사는디.

@1 으.

#1 ○○ 나보다 곱 먹읍니다. 쟁 그놈들 둘이 가면은 갈비 스무 대 아니믄 안 나온다 이 거여, 갈비칩이 강.

@1 으.

#1 쟁 난 느네 갈비 스무 델 먹나니 어떻 먹나게. ○○한테 들으니깐. 말 맙서, 나보다 ○○인 더 웃질이우다. (웃음) 들끼리 둘이덜 서로덜 수눌멍덜 허주게. 게니 워낙 잘 먹는 사름 들은 그렇다고 께네들이 장군급은 아니주마는. 옛날도 약간 그 것 장군이엔 허믄 지물차룽으로 밥 하난 먹어 불어.

@1 응.

#1 지물차룽이렌 허믄.

@1 동고령 아니고 지물차룽.

#1 지물차룽.

@1 예.

#1 이만큼.

@1 으.

#1 동고랑이렌 허민 보통 이 정도.

@1 예. 이보단 흐썸 더 족지.

#1 족은 거.

@1 예.

#1 큰 것도 족은 것도 잇고.

@1 으.

#1 두이 서이 먹는 거 조금 크고 조금 크고.

@1 예, 예.

#1 그거 지정 규격이 아니니까.

@1 응, 쟁 지물차룽으로 하나 먹어불어예. 그 쉼을 이용허젠 허면 질도 들어야 델 거 아니라예? 쉼 ㄱ리치는 거?



#1 그렇지.

### 쉐 ㄹ리치기

@1 쉐 ㄹ리첿엇던 거. 거 곶아 줍서.

#1 그것도 저 이 요즘은 기젠디. 기계를 그 운전수가 예, 그 부리기 나름이라고. 질들인단 말.

@1 예.

#1 거나 마찬가지로. 소도 으망진 사람. 기술자, 요즘 말허믄.

@1 으.

#1 그런 사람 ㄹ리친 건 말도 잘 듣고 일도 잘허곡.

@1 으.

#1 조금 게으르고 그 것 장군 일 병신 요런 사람이나 ㄹ르친 건 일도 허당 실프민 설러 불곡 즈물아 가민 그냥 갈게 도망가젠만 허곡. 쉐도 벨 놈의 쉐가 다 잇어.

@1 응.

#1 익숙은 사람 잘 ㄹ르친 것은 멍에 싹우민 ㄹ닥ㄹ닥. 그만 허젠 허기 전에는 ㄹ닥ㄹ닥 말 잘 듣는다. 그래서 사람만 뉘믄 ㄹ르첿어.

@1 사람에, 으?

#1 사람이믄 세 설.

@1 세 설예.

#1 세 설 뉘야 사람인데. 경 행 ㄹ르치는 게 우선 그 멍에 싹와 가지고.

@1 예.

#1 멍엔 알지이?

@1 예.

#1 멍에 싹와 가지고 돌부터 꺾어. 그 기합이지.

@1 으.

#1 질레 드러 돌아다니는 거라. 요즘 ㄹ치 질도 매끈하지 아녀지. 순전히 자같이 울통불통.

@1 예.

#1 고저가 심허고 그런 질레 뎡기면서 타글락타글락허민 여기 멍에특을 낸단 말이여.

@1 예, 예.

#1 그게 멍에특을 내와사, 멍에특을 내와사. 말은 또 그 무주에밀 하늘 우터레 보기 위해서.

@1 으.

#1 주둥이를 하늘 우터레 가게 해서 낭에 돌아메서.

@1 응.

#1 죽을 때까지 못 전디게 굴면서 이제 처음 질들이기 시작허고.

@1 으.

#1 우리 이장님 오신다.

@1 예, 아까 계난 질들일 때, 예? 질들일 때.

#1 으.

@1 명예록, 명예록 나게시리 이제 하는 거잖아예? 그니깐 쉼 질들이는 거하고 뭘 질들이는 게 아까 뜨나텐 햇잖아예?

#1 그렇지게.

## 뭘 ㄴ리치기

@1 계난 그, 그 뭘 질들이는 거를 다시 혼 번 곱아줘 봅서.

#1 뭘은 우린 좀 소질이 엇으니까 잘 모른디, 늬 허는 거 보고 말로만 들으니까 뭘은 이제, 연령은 뭇 아니라도 요기 누구 잘 아는 사람이 잇는디 ○○는, ○○는 뭘을 잘 뭉치고 허니까 옛날.

@1 으. 아, 그 분 지금도 계셔마씨?

#1 옛날부터 우선권 그 큰.

@1 아, 나중에 그 분 한 번.

#1 으. 큰 문제는.

@1 오십센 험서.

#1 말은 말은 흥여서 ㄴ르치고.

@1 예.

#1 뚜드리면서 욱 허면서 ㄴ르치라 이거여.

@1 응.

#1 내가 너보다 웃줄이다, 이걸 나타내고. 쉼 옛날부터도 아주 힘쎈고 허니까 무서웠던 모양이라. 쉼은 달래 ㄴ리치라. 우선 속담에 이런 말이 잇어.

@1 으.

#1 이게 우선권 거 진리, 진리 처음이고.

@1 으.

#1 쉼은 왕, 왕, 왕, 나 말 잘 들으라이, 요거 해도라, 저거 해도라 이렇게 사정으로.

@1 으. 경 허여야 뉘고.

#1 가르쳐야 뉘고, 말은 너 이 자식 나 말 안 들으민 죽어. 꿈쩍도 마. 이 무릎으로 꿇꿇이 옆구리 차고.

@1 으.

#1 또 이 입으로 귀 물어뜯고 피가 나도. 저 이디 스서로 살아난 사람은 그 피나게 몰귀 물어뜯어.

@1 아.

#1 경흐믄 뭘이 이 사람은 이거 상대 못 흘 사람이구나. 보기만 해도 달달달달 떨거든.

@1 응.

#1 그렇게 ㄴ르치라고. 계니 말을 타도.

@1 예.

#1 일을 부려도, 이 땀이 잘잘 흐르게.

@1 으.

#1 이 말 땀은 거품이거든. 이 살타구니에 보든 거품이 바각바각 물어.

@1 응.

#1 소는 버치면은, 버치면은 표시가 땀이 안 나, 밤에는 땀 나지마는.

@1 응.

#1 세 낸다 말이여. 세 내가민 야 나가 과히 부렸다.

@1 으.

#1 소 버치게 굴었다, 요건 아는 거. 쟁 말은 땀나게 부려야 돼고, 쉼은 세나게 부리라.

@1 응.

#1 건 과히 부리라는 말인데.

@1 응.

#1 쟁 그런 게 딱나고, 제일 그 말과 소 반대는 뿔나고 아이 나는 요거나 마찬가지로 반대.

@1 예.

#1 달래 부리고.

@1 후리멍?

#1 말은 흥여서 때리면서.

@1 흥이멍예?

#1 가르치고.

## 쉐 나이

@1 예. 게든 그, 그 쉼예, 그 나이 세는 거, 아까 사름 나왔거든예?

#1 으.

@1 흔 설부터 행은에 세 봅서.

#1 어, 흔 설 나쁜 금싱.

@1 금싱.

#1 으. 또 두 설 새해는 다간.

@1 다간.

#1 세 설 나면은 사름, 나름, 다습, 으습. 게든 일고, 으다, 아흙, 열.

@1 게난 으습까지만.

#1 으.

@1 썸구나예?

#1 어, 칠습, 팔습, 구습은 잘 안 써.

@1 어, 쓰기는 써?

#1 금싱, 어?

@1 쓰기는 써마씨?

#1 아니, 그 순서를.

@1 어.

#1 우리가 생각흐든 차례는 그렇게 해야 돼는디.



@1 응.

#1 왜 그렇게 안 허느냐 현 건 우린 모르지.

@1 예.

#1 기냥 보통 부르기는 으습까진 해여. 으섯 설까지.

@1 어.

#1 칠습, 팔습이엔 말은 안 들어보고 안 쓰고.

@1 그자 일고 여덟?

#1 어.

@1 어.

#1 또 이진 송아지를 말한 거고.

## 돌 나이

@1 예.

#1 말은 금싱은 마찬가지로.

@1 으.

#1 이수, 삼수, 스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1 으.

#1 경 행 구수, 십수엔은 아녀. 팔수까진 흐는다.

@1 응.

#1 아홉 설 으남은 낫어.

@1 으남은 낫어.

#1 영.

@1 췌는 몇 슬꺼지 삼니까?

#1 이십 년을 보통 허는다.

@1 응.

#1 게도 텔레비 ㄱ튼 디 보민 이십오 년을 말허여.

@1 응, 삼춘네들은.

#1 여기서는 스무 해까지 부린 사름은 엇어.

@1 응.

#1 열 설 지나가믄 팔아쫓혀 버리지.

@1 응, 돌은?

#1 돌은 오래 살아.

@1 으.

#1 게메 건 확실힌 모르겟는다. 돌은 삼십 년도 부린덴 해도 우린 돌도 부려 나지 아녀니  
까 그자 넘어가는 말로만 들언.

@1 그, 췌 ㄱ리치기 전에 췌는 무신 췌렌 험니까?

#1 생췌.

@1 생췌.

#1 으.

@1 새썰에는 안 곱아?

#1 새썰엔도 허지.

@1 어.

#1 새썰, 생썰.

@1 으.

#1 그렇게.

@1 계난, 그르치기.

#1 어.

@1 질들이지 안흔 거예?

#1 어, 다간까지. 이년 생겨지 말허는 거지.

(중간 생략)

@1 그, 그치룩 헤영은에 이제 흐고예, 썬 질들여난 다음엔 밧 갈 거 아니예?

#1 으.

### 쟁기 서끄기

@1 계몬 잠대 메왕은에 저기를 하는데, 그 잠대는 어떻 저기 만들어나수과? 잠대 서끄는 거?

#1 쟁기 서끄는 건.

@1 으.

#1 그 ○○ 큰아버지도 쟁기 서껏주마는 또 하르부지 모르지이?

@1 예, 우리는 돌아가서 부난.

#1 어, 하르부지는 뭘 기술자냐면 목수라.

@1 어.

#1 큰 목순데, 물레.

@1 예.

#1 물레라든 저 옛날은 목화 심어서 이 베 찢지이? 미녕.

@1 예, 미녕.

#1 어, 그걸 실 빼는 그, 질처음 목화를 따 오면은 벌에 올려 가지고 이젠 그 씨와 솜을 분리시키는 걸 브른다 흐여. 멘네 브른다.

@1 예.

#1 켄디 그 이름이, 그.

@1 브르는물레.

#1 어, 브르는물레.

@1 예.

#1 멘네 브르는물레. 그 기계가 물레.

@1 예.

#1 이제 경운기 이 자동차는 이제 그 이름 부르듯이 명칭이 물레라이.

@1 응.

#1 경 영영 돌려가민 그 남을 뭐랄까 삼, 삼각 요렇게 헤 가지고 요것에 요렇게 물려 가지고.

@1 예, 예, 예.

#1 톱니바퀴지.

@1 예.

#1 이 자룩으로 돌리면은 이거 두 개가 요런 걸로 흐른 똑ㄴ찌 돌아간다 말이여. 요 두 개가.

@1 예.

#1 이진, 요렇게 돌고 이진 또 요렇게 돌고 흐른 그 앞으로 물리든 뒤로 이제 웨 저 숨은 멘네는 목화는 나가고 씨는 앞으로 떨어지고. 이, 것을 보고 구름은 밋밋 벨은 독독.

@1 응.

#1 그런 말도 있어.

@2 무신거마씨? 벨?

@1 벨, 벨.

@2 별.

@1 다시, 다시 흐 번 돌아봅서. 구름은.

#1 그건 목화를 보고.

@1 예.

#1 목화가 씨 떨고 나가가니까 구름 같다 말이여.

@1 예.

#1 몽게구름.

@1 예.

#1 저 가을.

@1 으.

#1 그런 그, 비늘구름.

@1 응.

#1 그니 구름이라 허고, 구름은 밋밋.

@1 응.

@2 밋밋.

#1 벨은 독독.

@1 으.

#1 그 목화씨가 앞으로 떨어지니까.

@1 벨 떨어지는 것처럼.

@2 별처럼.

#1 별 떨어진다.

@1 응, 지난번에도 그 금등 할 때도 구름이라고 표현을 헛잖아?

@2 아.

@1 잊어분 거봐 지가 써뒀.(웃음) 게니까.  
 #1 그런 건 아무나 못 햏여.  
 @1 예게.  
 #1 요, 그 저 톱니바퀴 삼각이.  
 @1 예, 예.  
 #1 그게.  
 @1 이렇게.  
 #1 요렇게 돌릴라면 그게 상당히 아무나 못 햏곡 또, 이 물레, 물렛귀라는데.  
 @1 물렛귀, 예.  
 #1 또 이쪽에 그 목화 까는 건 살[쌀]이라 햏여.  
 @1 예, 물렛살?  
 #1 물렛살.  
 @1 예.  
 #1 물렛살은 보통 냅은 안 뒀어. 딱 그 씨와 목화가 구분이 잘 안 뒀어. 딱 부떠가지고  
 요게 돌아가든 그 목화가 같이, 이.  
 @1 응.  
 #1 부떠 가지고 돈다 말이여.  
 @1 예.  
 #1 그러면 이게 좁혀서 이, 멘네 블라지지 아니거든.  
 @1 어.  
 #1 것ㄴ라 멘네 브른다는데.  
 @1 예.  
 #1 씨와 목화 그 분류햏는 걸.  
 @1 으.  
 #1 영 브른다고는 햏는디 브르는물레.  
 @1 예, 브르는물레.  
 #1 그니 그게 어려와. 그 살[쌀] 만드는 게 이, 아주, 기술.  
 @1 게난 그걸 무슨 냅으로 햏수과? 것도 약간 영 꼬고 영 꾸부러졌잖아, 이렇게?  
 #1 어, 어, 어.  
 @1 파배기처럼 뒀잖아예?  
 #1 어, 이 살[쌀]은 꾸부러진 게 아니라 바른 거지마는.  
 @1 으.  
 #1 손으로.  
 @1 예.  
 #1 이제 톱으로 이렇게 그.  
 @1 톱내.  
 #1 햏집을 내.  
 @1 어.



#1 험집 내든 더 그 목화가 부들 거 아녀?  
 @1 예.  
 #1 거니 요즘 뭐 빼빠랄까.  
 @1 으.  
 #1 그런 그 기구를 밀어 가지고 매끈하게.  
 @1 예.  
 #1 게니 밀려주면서 부뜨지랑 말라. 요런 저, 요것도 거꿀 낙다가 있어.  
 @1 예.  
 #1 우린 몰라.  
 @1 예.  
 #1 놈 흔 거 본 뿐이주.  
 @1 예.  
 #1 그렇게 험니까 쥔 기술. 또 아까 밧 가는 그 쟁기.  
 @1 예.  
 #1 쟁기 매는 것도, 집 짓는 건 아무라도 목수들은 보통 허지마는.  
 @1 으.  
 #1 쟁기는 아무 목수나 못 흔여.  
 @1 으.  
 #1 것도 큰아버지가 잘했고.  
 @1 우리 큰아버지가 잘해놨수과?  
 #1 어, 아버지 물림해서.  
 @1 아.  
 #1 목수질했지.  
 @1 예, 예.  
 #1 겐디 하르부지나 아부지나 작은아버지나, 다 목수. 게니 나무한티는 역적이지. 진 거 다 찢라 버리니까. (웃음)  
 @1 어. (웃음) 나무안티는.  
 #1 (웃음)  
 @1 그러네. 으, 아부지한티 그 말은, 할아버지가 그런 걸 헛텐. 영 침주고 영 잘 보고.  
 #1 응.  
 @1 영 흔는 건 잘헛텐 허는데, 그 말은 안 곶아줍디다. 이제 강 들어봐야켜.  
 #1 응, 들어봐. 나 말이 그짓말이가. (웃음) 연화동 가니까 영 곶안게 무사 그 말은 안 곶  
 읍디가 헛영.  
 @1 겐니깐.  
 #1 아, 가이가 어떻 허연 것까지 알아신고 헐 거라. (웃음) 아니, 아버지넌 우리보고 가이  
 엔 허주게.  
 @1 예, 맞습니다.  
 #1 ○○야, ○○야 허니까.

@1 예. 계난 이제 그런 식으로 허는데.

#1 응.

@1 그 잠대 서끌 때는 보통, 이제 이 잠대 서끄젠 허면 저기 큰엉곳을 가얏 거 아니파?  
무신 낭으로 보통 멘들엇덴 헉디가?

#1 그계 거 감은가시낭.

@1 예.

#1 감은가시낭이라든 여기 많아, 헌디 우리 곳에는 그렇게 좋은 나무가 좀 잘 안 나와.

@1 아.

#1 그 쪼끔 비뚤어진 건 목수들이 다 다듬으면서 곧게 만들지마는 목시란 게 먹술 놓면은.

@1 예.

#1 곧듯이, 곧게 만드는 건디 보통 이 드르에선 어려와.

@1 으.

#1 경이, 특별한 이 육지 같은데, 지픈 꽃디 가쁜 한라산 같은 데 가서 헤 오는데.

@1 응.

#1 이젠 그런 낭이 어려우니까 이제 다음은 소리낭으로 헉기 시작헐어.

@1 예, 소리낭.

#1 소리낭은 여기 저 상수리나무라고 알까.

@1 상수리?

#1 참, 참나무라고 할까.

@1 참나무, 상수리 비슷허게.

@3 상수리.

@1 소리낭도 잇곡.

@4 어.

@1 소리낭으로도 하영 헛텐예?

#1 어, 어.

@1 예.

#1 소리낭으로 헉는디, 또 소리낭을 꺾질 뻗겨다가.

@1 예.

#1 솜비줄.

### 솜비줄 드리기

@1 응, 솜비줄.

#1 솜비줄, 으, 멍에서 저, 땡기는 줄.

@1 예, 예.

#1 양쪽에.

@1 예, 그 이만큼.

#1 어.

@1 갑 드령 허겄네? 그럼?

#1 어, 어.  
 @1 예.  
 #1 그것을 나대로 찍어 가지고, 작작 한 발씩 질게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1 예.  
 #1 속만 놔두고.  
 @1 응.  
 #1 아주 그 제일 피부.  
 @1 으.  
 #1 그 껍질은 못 쓰고 이 한 번 정도 껍질을 벗겨두고 속에 그, 살.  
 @1 예, 예.  
 #1 모죽이라든 돼지. 살, 살로만 이제 벗겨다가 또 걸 잘게 찢어.  
 @1 예, 솥양.  
 #1 어, 솥을 수깅진 엇는디, 잘게 두드리면서 찢어 가지고 이제도 그걸 모두쳐서 이제 새끼 꼬듯이.  
 @1 으.  
 #1 꼬는 거라, 손으로.  
 @1 응.  
 #1 쟁 그게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어. 우리 동네도 그런 거 만드는 하르방이 셋는디 이 손심이 아주 썰야 돼.  
 @1 응.  
 #1 손, 툇, 손힘이 세야 그걸 불끈 쥐어 가지고, 이 데우데길 걸 이렇게 삼겹을 꼬아야 될 거니까.  
 @1 예, 예. 삼겹 드리는 거.  
 #1 어, 쟁쟁쟁 쉼 것들을 합쳐 가지고 이만큼 만들어서 이것도 삼겹을 드려야 돼니까. 삼겹 드리꼭 또 이음새.  
 @1 예.  
 #1 꼬트머리는 또 고, 고리를 만들어야 돼니까, 이것도 아주 큰 기술이고.  
 @1 예.  
 #1 게니 상당히 공들지.  
 @1 으.  
 #1 쟁 그걸 만들라면 산에 가서 그 소리낭 껍질을 벗겨다가.  
 @1 예.  
 #1 이젠 즈질이 깨어서 덩드렁이라고 있어.  
 @1 예.  
 #1 덩드렁이 바로 먹돌.  
 @1 예.  
 #1 놔서 덩드렁마개로 패어.  
 @1 응.

#1 마께도 이거 보통 이 소나무론 안 돼.  
 @1 예.  
 #1 그다음 참나무.  
 @1 응.  
 #1 가시나무나 그런 켜나무로 두드려 가지고 두드려 가면은 어깨도 아프지. 그게 공들여서 솜비질을 만들었어.  
 @1 응.  
 #1 밧 갈 그 연장을 만들고.  
 @1 게난 그 솜비줄을 만드니까 평생을 쓰는 거잖아예?  
 #1 그렇지.  
 @1 예, 오래도록.  
 #1 응, 갱헐 흐 뉘에 불이나 태우지 아녕 그게 닳아서 없앨 정도라면은 나는 굴아보질 못 헛어.  
 @1 예.  
 #1 허는 걸 몰라.  
 @1 그러니까.  
 #1 요런 그, 이음, 것 ㄴ, 고리.  
 @1 고리는.  
 #1 고리 ㄴ튼 딴 이제는 그런 고기가 없는데.  
 @1 예.  
 #1 비껴.  
 @1 예.  
 #1 바다에.  
 @1 예, 비껴.  
 #1 도롱이.  
 @1 응.  
 #1 그놈으 그, 가죽을 뱃겨서 뉘렸다가 이, 이 감아.  
 @1 예.  
 #1 고릴 좀 크게 만들어서. 감아서 허면은 이것이 닳지[달지] 말라고.  
 @1 응.  
 #1 닳지[달지] 말라고, 그렇게 허니까 내가 밧 갈기 꾀나 부니까. 그게 어디로 갖는지 모르겟는디 없어졌지마는 거 닳아서 잊어져 보진 안 헛어.  
 @1 응.  
 #1 그렇게 아주 오래 가.  
 @1 게니까 여기서는 솜비줄을 그 소리낭 껍데기로 헤 갖고 헛다라는 거라예?  
 #1 응.  
 @1 아.  
 #1 그 껍데기라믄 말이 쪼끔.



@1 속, 속살.  
 #1 어, 속살이지.  
 @1 예, 예, 예.  
 #1 응.  
 @1 게난 맨 가운데껏 거만 빼고.  
 #1 으.  
 @1 것깍질 빼고 섬유질로 이렇게.  
 #1 어, 그렇지.  
 @1 예, 예. 아 그렇게 이제 그 소리낭허고 솜비줄[솜비쥬] 멘들고 그다음에 그 저 아까 잠  
 대예?  
 #1 응.

### 잠대 부분 명칭

@1 잠대 이런 부분 명칭들도 다 알아집니까?  
 #1 뱃.  
 @1 예, 그거 한번.  
 #1 그 제일 그 잠대에다가 그 골라 허는 것은 성에라고 해서 제일 긴 거.  
 @1 예, 성에 맨 위에.  
 #1 여기서 소, 소에까지 연결시키는 거 그것을 성에라 하고.  
 @1 이게 성에, 예.  
 #1 으. 또 그다음에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꾸부러진 거.  
 @1 예.  
 #1 이걸 보고 무클이라 하여.  
 @1 무클.  
 #1 또 무클과.  
 @1 가운데 연결해 주는 거.  
 #1 예, 꺾사 연결허는 것을 성에라고 하여.  
 @1 아니.  
 #1 설칫.  
 @1 아, 설칫.  
 #1 어.  
 @1 예, 설칫.  
 #1 어. 연락헨 완?  
 #2 예. 이장님 전화와십디다.  
 @1 아, 아까 틀예?  
 #1 어.  
 @1 으, 이레 오십서. 이레 앓앙, 앓앙 이십서.  
 #1 옛날 이 물 다루는 방식 뭐 헨.

#2 아이고, 거 무신거.  
 #1 우리 왕초가 이웃집이 잇다고 허난.  
 #2 아니, 거 무슨.  
 #1 이 말 끝나건 대답혀여.  
 #2 예.  
 @1 삼춘예, 이게 성예?  
 #1 그렇지. 이거, 다 왔구나게.  
 @1 이거 성예. 이건 육지식인게 이거 보니까 흠뽀.  
 #1 응, 이거 들을 필요없네, 다.  
 @1 이 동네 이건 놈이 동넷 거.  
 #1 어.  
 @1 표준어 요거 봅서. 몽클 써수게. 이거 무클.  
 #1 무클.  
 #2 무클.  
 @1 예, 무클. 그다음에 요거는 설칫.  
 #1 으, 설칫. 또 요거 양주머리.  
 @1 양주머리.  
 #1 영 현 거.  
 @1 예, 여기, 여기는?  
 #1 요거, 보섭.  
 @1 예, 보섭 위에는?  
 #1 벳.  
 #2 벳.  
 @1 예, 벳. 벳하고 보섭은 저기 이, 벳을 연결허젠 허민 뭐가 필요헉니까?  
 #1 아, 이건 그자 아, 벳코.  
 @1 벳코가 잇고.  
 #1 어.  
 @1 예.  
 #1 벳, 벳에다가 요런 구멍이 네 개 잇거든.  
 @1 예, 예.  
 #1 그레 끈해서 요렇게 헤 가지고.  
 @1 응, 그제 벳코고.  
 #1 또 요런 이, 나무로 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1 두 개 영?  
 #2 벳칼.  
 #1 어, 도메 시기는 거.  
 @1 어.  
 #1 그걸 벳칼.

@1 벵칼.  
 #1 어.  
 @1 그다음에 요 낭 잇잖으꽈?  
 #2 아, 건.  
 @1 무사 영 그.  
 #2 도망 못 가게.  
 #1 이, 이건 우리 식 아니.  
 @1 이건 육짖 겨우다, 보난.  
 #1 게메 육지식.  
 @1 우린 길게 해서 이렇게.  
 #1 우린 이거고, 겨난 육지는 그대로 요게 없어.  
 @1 응.  
 #1 양주머리가.  
 @1 예.  
 #1 요렇게 심어 가지고 요렇게 해서 밧 갈거든.  
 @1 그 벵틀레는 뉘우꽈?  
 #1 벵틀레가 요.  
 #2 벵받이.  
 @1 벵바드랭이?  
 #1 설칫에서.  
 @1 어.  
 #2 꼬부라진 거, 기억 자로 꼬부라진 거 있어.  
 @1 예. 기억 자로.  
 #1 요렇게 흔 거 있어.  
 @1 응.  
 #1 벵이 이렇게.  
 @1 넘어가지 안허게.  
 #1 벵바드랭이.  
 @1 벵바드랭이.  
 #2 벵바대.  
 @1 벵바대. 벵바대, 벵바드랭이 뉘, ㄴ튼 말이란예?  
 #1 것도 요디 못이 있어.  
 @1 예, 뜸?  
 #1 설칫못.  
 @1 설칫못.  
 #1 으, 또 요 닭은 못이 또 요디 있어.  
 @1 예.  
 #1 요, 성에 꼬트머리.

@1 예.  
 #1 들벙이쁠.  
 @1 들벙이쁠. 게난 땀을 여기서 설치뭇이렌 허는구나.  
 #1 으.  
 @1 저기 잠대 이거 조절허는 거예?  
 #1 아니, 아니.  
 @1 영 꽃양은예.  
 #1 어, 어, 어. 요것을 벗어나지 말게.  
 @1 예, 예, 예.  
 #1 그러면 요 사이에 이것이 갖다왔다, 갖다왔다 헤이?  
 @1 예.  
 #1 요 쉼은 동겨가면은 이견 이 느려오지는 안 햏여 올라가긴 헤도.  
 @1 예.  
 #1 이견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 설칫뭇.  
 @1 어, 설칫뭇.  
 #1 또 요 설칫뭇과 이 성엿 사이에 틈이 잇어야 뉘.  
 @1 예.  
 #1 밧이 갈기 좋은 밧이 잇고, 갈기 나쁜 밧이 잇어. 갈기 존 밧디 가서는.  
 @1 으.  
 #1 이제 땀을 놔서 햏고.  
 @1 으.  
 #1 갈기 나쁜 밧, 자갈이나 많고, 막 보섭이 안 드는 밧이 잇어. 이, 장남 벳부기가 벳겨  
 질 정도.  
 @1 예.  
 #2 안 뇌근예.  
 #1 그런 디는 땀을 앓아 붙어.  
 @1 땀을 앓아 붙고.  
 #2 웨냐햏면 이렇게 벌리지믄 판 데로 들어가고.  
 #1 이 간격을 넓히라 이거지.  
 @1 예, 예.  
 #2 올리민 수평햏게 날라가거든.  
 @1 게믄 다시 한 번예. 삼춘, 설칫뭇.  
 #1 설칫뭇은 요디 요만인 햏 거.  
 @1 예.  
 #1 설칫뭇, 요디 요 오리목 걸리는 건 들벙이쁠.  
 @1 들벙이쁠.  
 #1 어.



### 멍에 부분 명칭

@1 예. 오리목 걸리는 거예? 그다음에 이렇게 멍에 잇으면 이 오리목은 무신걸로 만들어 수과?

#1 오리목도 마찬가지로. 소리낭.

@1 소리낭, 으.

#1 경 행 우리 대에 이, 신식대에 뒤편이니까 이 로프줄덜.

@1 응.

#1 이제 그 나이롱줄.

@1 나이롱줄들.

#1 으, 그건 신세대고.

@1 예, 예.

#1 옛날에는 약간.

#2 솜비줄.

@1 응.

#1 그 솜비줄은 그걸로 만들어.

@1 예, 소리낭으로.

#1 쟁 그거 못 허든 보통 이.

@1 푸숨줄도 아까.

#1 이디 너딩이라든.

@1 너딩.

#1 줄, 줄.

@1 줄쟁이낭.

#1 줄쟁잇줄.

@1 예.

#1 줄쟁잇줄허고 요 솜비줄과 요, 이제 이.

@1 오리목허고.

#1 아니, 저

#2 멍에.

#1 이, 꼬트머리.

@1 예. 들벙이코.

#1 군코라고 잇어야 뒤편, 요만큼.

@1 예.

#1 그러면 요 오리목에서.

@1 응.

#1 이제 요 요거 뭐여?

#2 거 머엔 험니까?

@1 버을레.

#1 벌레. 아, 맞아.

@1 버을레, 저기 이.  
 #1 별레.  
 @1 예, 낭, 낭으로 저기.  
 #1 요건 삼각이고 이딘 괄작해야 됩니까.  
 @1 예.  
 #1 좁히지 말라는 거지.  
 @1 예.  
 #1 이만큼 간격을 정하는 거. 그 사이에 연결하는 짓은 군코엔 햏여.  
 @1 군코. 예. 게난 군코를 갖고 저 이, 오리목줄을 넓게도 햏고, 얇게도 햏는 거?  
 #1 이 솜비줄과.  
 @1 응.  
 #1 이 아까 이 버을레 사이에 연결햏는 게 군코.  
 @1 아, 그 연결하는 끈, 그거를?  
 #1 어.  
 @1 예, 예.  
 #1 이 솜비줄에 이 저 버을레를 직접 연결시켜 불민은 이것이 그 뻗어져서 안 됩. 자꾸 유도리가 있어야지.  
 @1 예, 예, 예.  
 #1 요리요리 갖다왔다 흔들리게. 그것이 군코.  
 @1 예, 그다음에 또 배 아래로 이렇게 다리 넘어가지 못햏게.  
 #1 이 밧 갈 때는 배 아래가 등더레 걸려야 됩. 등쾌라고.  
 @1 등쾌.  
 #1 으.  
 @1 등으로 이렇게예?  
 #1 으, 쟁 등쾌가 등에 너미 등에 과작이 부떠야지 너무 길게 햏 불민 솜비줄은 내려오고.  
 @1 응.  
 #1 이게 놀아서 조름더레 가 불어.  
 @1 응.  
 #1 게 그걸 고정시켜 못햏게 또 일로 이레 연결햏는 아주 가는 끈이 있어.  
 @1 예.  
 #1 노, 그것이.  
 #2 등바대에는 안 햏는가?  
 #1 아니, 아, 이건 등쾌고 등쾌친.  
 @1 등쾌친, 어.  
 #1 등쾌친.  
 @1 게난 그 등쾌친이 이제 그 멍에햏고 ㄱ찌 연결됩니까?  
 #1 이것이 이 밧터레 조름더레 넘어가지 말라.  
 @1 예, 예.

#1 고정해라.  
 @1 응.  
 #1 보통 앞더레는 안 가니까.  
 @1 예, 예.  
 #1 그리고 저, 요 이, 이걸 또 솜비줄 매는 거 멩에.  
 @1 멩에.  
 #1 긴 거.  
 @1 예.  
 #1 또 멩에에서 이거.  
 @1 목에.  
 #1 소 모가지에 줍질라진 거, 줍게.  
 @1 줍게, 예.  
 #1 또 요, 줍게를 요렇게 해서 또 꼬메는 끈이 있어.  
 @1 으, 으.  
 #1 줍게친.  
 @1 줍게친예?  
 #1 어.  
 @1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무껴주는 거예?  
 #2 무껴주는 거.  
 #1 어.  
 @1 줍게친.  
 #1 어, 또 이제 쉼 코 꺾는 거.  
 @1 응, 코 꺾는 거는 무시거렌 해? 그냥?  
 #1 코꺾엔 허주, 코꺾.  
 @1 응.  
 #1 코꺾시냐? 안 해서냐?  
 @1 으.  
 #1 또 새췌는 코 아이 꺾은에 ㄴ르치질 못하여.  
 @1 응.  
 #1 말 잘 안 들엉.  
 @1 예, 워냐믄 췌 안, 그 코 꺾는 거면 그 낭으로 이렇게 코 꺾잖아예?  
 #1 어.  
 @1 그냥 줄로도 하기도 해주만.  
 #1 어. 처음은 새끼로 해서 여기 그 구멍을 췌게 놔야.  
 @1 응.  
 #1 췌게 해서 고정시경 해 놔야 처음에는, 이 그, 갓을 저 맥바농이라는데.  
 @1 예, 맥바농.  
 #1 어, 맥바농으로 꺾어서 이제 그 짝으로.

@1 응.  
 #1 새끼 그늘게 꼬아서 이제 또 코 꿰었다가 이제는 그것이 썩어.  
 @1 응.  
 #1 썩으믄 허영게 저 고름, 고름 끼면서.  
 @1 예.  
 #1 그럼 소는 성가셔도 한꺼번에 흐는 사람도 잊지마는 속속 빼면서 그 구멍을 늘려.  
 @1 아.  
 #1 그러면 항상 그 소는 늙어 죽을 때 구멍이 훨씬 풀려 잊지.  
 @1 응.  
 #1 그니 이젠 오래 가면은 새끼로 허면 썩어서.  
 @1 안 돼니까.  
 #1 어, 끊어지니까 그 윤노리라고 나무.  
 @1 예, 윤노리낭.  
 #1 나무 헤다가 곱게 오그려서 그 어린 순 나는 거.  
 @1 예.  
 #1 그런 거 헤다가 그 즈게나 마찬가지로. 즈게도 윤노리나문데.  
 @1 으.  
 #1 게서 그걸 똥그랗게 곱게 만들어 가지고 흐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거 텔레비도 나와 거.  
 @1 예, 예, 예. 게믄 그 멍에 할 때, 멍에로 사용허는 그 낭은 무슨 낭으로 씹니까?  
 #1 그것은 원래는 이 나무뿌리로 헐다는데 소나무뿌리.  
 @1 으.  
 #2 가벼운 걸로.  
 #1 이.  
 #2 찢기고 가벼운 걸로.  
 #1 찢 다 이거지.  
 @1 응.  
 #1 그거 뱃 아니 맞아본 거. 땅 속에서 허는디, 그건 이제 옛날 아주 처음뿐이고 차차 이젠 헤 가니까 그 목수들이 알아서 영 낭 봐서 적당흐믄 뭘 감나무 그튼 거 요런 나무만 아 니믄 찢긴 나무라야 돼니까.  
 @1 응.  
 #1 보통 소나무로 여기서는.  
 @1 거난 다른 데 가면은 낭예? 오동낭명에 이런 말 허든데.  
 #1 어.  
 @1 여기도 오동낭이 이수과?  
 #1 잇어났주.  
 #2 가벼우니까.  
 @1 아.



#2 가볍게 허니까.  
 @1 원래 제주도는 오동낭이 엇텐 흐는데.  
 #1 잇어났어.  
 @1 오동낭 잇어나수과?  
 #1 어.  
 @1 머귀낭흐고 오동낭은 어떻 트난 겨우파?  
 #1 머귀낭은 뜨나지. 머귀낭은 아주 그 속은.  
 @1 구린 거.  
 #1 어, 많이 구리는데 그건 같아도 머귀낭은 가시가 데작데작 부떠.  
 @1 으.  
 #1 오동낭은 가시가 없어. 아주 선히게, 매끈히게 올라가.  
 @1 아, 옛날도 오동낭은 잇텐 헛구나예?  
 #1 잇엇어.  
 @1 제주도.  
 #1 아, 우리.  
 #2 옛날.  
 #1 우리 우영에도.  
 #2 무겁지 아니허니까제.  
 @1 예.  
 #1 우리, 우영에도 제일 질라났는데.  
 @1 아, 오동낭예?  
 #1 어. 그 오동낭은 저 관.  
 @1 예.  
 #1 소문나게 오동낭관을 쓰지.  
 @1 으.  
 #1 겐디 저디 장의사털 오동널이 아니라도 오동널이엔 속이는 디가 잇어.  
 @1 으.  
 #1 우리 인간은 아주 못이 백혔으니까 오동낭이 좋다 해서.  
 @1 예.  
 #1 관.  
 #2 관.  
 #1 오동낭 아니라도 이거 오동낭이라고.  
 #2 (웃음)  
 #1 그 요즘 상제들은 모르거든.  
 @1 응.  
 #1 금이엔 해도 금인가 허지.  
 @1 예, 맞아마십.  
 #1 뭐 금들은 잘 알주마는.

@1 (웃음)

#2 금도 모릅니다게.

#1 게서 으 오동낭명예를 췌, 췌고로 헛지.

@1 응.

#1 젠디 오동낭 하나 결점이 또 그 뭐라나, 죽이는 기술이 하나 있어.

@1 응.

#1 오동낭이엔 혼 건 그 개우리.

@1 예.

#1 바다고기.

@1 응.

#1 게우리 뼈를다가 지르면 죽나 이거여. 그런 말을 들었는디, 이제.

#2 막 두렁청이

#1 이제 ○○이 사는 집이 나 난 집이거든.

#2 예.

#1 그게 삼일삼칠번진데, 그디 강은에 그 다음이 ○○이네 과수원인디, 건 우리 건데, 오동나무가 있어. 오동낭 이제 크면은 찢르면은 또 이 멍쿠실낭ㄱ치.

@1 응.

#1 순이 저 이 문살[문쌀]같이 관작 대같이 올라.

@1 응.

#1 순이 잘 나. 일 년에 클만이 크고 허는 건데, 이젠 이 밧과 이 밧 사이에 이런 담줄에 다가 오동낭이 잇이니까 그거 우리 아릅으론 ㄱ득게 술전 아주 멋진 건디, 그 즈꿏디 그디 육깃사름이 왕 사는디, ○○아방, ○○.

#2 예.

#1 ○○가 그 즈꿏디 사는디.

#2 아, 예.

#1 그 오동나무 앞은, 이파리가 이만큼 허거든.

@1 응.

#1 연잎같이.

@1 예.

#1 그난 그늘이 그렇게 잘 쳐. 그러니 이 담 너머 이젠 사는 사람은 아주 만날 그늘만 치니까 께쌔허거든, 이놈으 낭을 좀 끊어 불어도 끊도 안헐 것이고, 이제 나가 아까 ㄱ듯디 그런 말을 들엇다가 그 지랄을 혼 모양이여. 삽시간에 이렇게 술진 낭이 죽어 불언.

@1 응.

#1 젠디 순도 안 나.

@1 이야.

#1 그렇게 해서 죽은 건.

#2 뼈?

#1 예, ○○란 사람이 우리 동네 소서질을 헛주게.

@1 으.

#1 그 사람이 경 죽연 허고, 또 이젠 그 집은 이젠 우리 큰형님 ○○이 아방 줘된. 이젠 또 우린, 우리 살 디로 아버지가 가, 가보니까 거기도 오동낭이 있어났주게.

@1 응.

#1 틸틸이 있어. 백영목, 백영목도 이젠 막 어려워이? 조름엔 막 싱거선게.

@1 어.

#1 백영목이란 건 이 요지 만드는 거.

@1 예.

#1 와리바시 만드는 거.

#2 삼춘, 말 가운데 나가 말헬신디, ○○삼춘.

#1 으.

#2 요번에 안부 전헬디다.

#1 ○○?

#2 예, 남원.

#1 어, 어, 어.

#2 근디 아덜.

#1 ○○.

#2 예, ○○.(전화소리)

#1 으, 알암구나. 전화 반앙 와.

@1 삼춘.

#1 그 즈식 나 면훼 갈 때는 말도 아니 곶안게.

@1 아까 개우리, 바당 개우리? 무신 궤기?

#1 개우리 뼈, 뼈, 이 등뼈 잇자녀?

@1 어, 개우리가 뭇우파? 개우리가.

#1 고기, 고기.

@1 고기 이름? 어떤 고진고?

#1 이렇게 막 넓어. 넓은 건 뭇 몇 키로 간덴.

@1 으.

#1 요전이 보통 우리 훼 쳐 먹고 흐는 건 요만큼 흐 건데.

@2 가오리?

@1 응.

#1 그 저 생채 먹는 궤기 뭇?

@2 가오리 아니마썸?

#1 가, 가오리 말고, 가오리 닳은 거.

@1 방어? 재방어 말헬신가?

#1 아니. 육지 사름 거?

@1 아, 광어?

#1 썸여 먹는 거.

@1 광어.  
 @1 썩여 먹는 거 잊지?  
 #2 광어 닮은 거.  
 @1 광어, 광어?  
 #1 보독보독보독.  
 @1 썩여 먹는 거, 홍어.  
 #1 홍어.  
 @2 어.  
 #1 홍어고 우린 가오리 분간 몰라. 그 닮아. 납작하고.  
 @1 예, 예.  
 #2 가오리.  
 @1 가오리, 가오리를 개오리.  
 #2 개오리, 맞아.  
 #1 아.  
 @1 개오리.  
 #1 아, 이거 이 사투리로 배웁는 학교난 사투리로 썰주게.  
 @1 예.  
 #1 가오리엔 안 해 부니까.  
 #2 제주바다에 나나게, 안 나주.  
 @1 예, 예, 예. 게난 개오리, 그 지름을 불러부난 죽은.  
 #1 아니, 뼈.  
 @1 뼈를, 어.  
 #2 뼈.  
 #1 뼈를 그 나무에 박으믄 그 나무가 죽는다는 말이 잇는다.  
 @1 으.  
 #1 실습을 안 해봐도.  
 @1 으.  
 #1 그때 보니까 그래서 죽더라, 이 말해주게.  
 @1 예.  
 #1 잠깐 잊어.  
 @1 응.  
 #1 뭣엔 ○○가?  
 #2 삼촌 잘 살았시냐 허명.(잡담) 공부.

### 목장 조성

#2 우리 아버지가 나신디 공불 혈래, 너 물구르마 끄을래 하니까 물구르마 끄이켤 해 불  
 엇어마씨.  
 @1 예.

#2 어린 때. 거난 저, 조록물 물통이 잇수다, 지금 현재.

@1 예, 똬밧디.

#2 예. 그 입구에. 거기서 던져 불었어, 나를 들런에.

@1 어.

#2 겐 허난에 침 이 말을 자꾸 곱아지는데 강○○ 씨가 자꾸 얘기하는데, 공부 안 하게 난 똬구르마 곱으쿠펜. (웃음) 경 헨에 경헤 부난 똬구르마 곱으멍 헤신디 우리 중학교, 내가 졸업을 못 헤십주게.

@1 예.

#2 일 학년 일 학기만 하게. 경 헨 이제 똬구르말 곱어서마썸. 게연 섬비줄 하게 그때 당시 똬, 쉼덜 목장덜만 많아 놓니까.

@1 예.

#2 답을 다와야 똬여마썸. 게민 들어갈 때 열흔 군디 똬양은에 다야 똬여마썸. 쉼덜 허꺼저 부니까. 짬뽕 막 똬 부니까. 게면은 목장답을 곱 다와야 똬마썸. 나 이거 목장답 다멍 똬 딱 헤여 먹은 거 이거.

@1 으.

#2 열흔 군텔 똬앗닥다왓닥 하게 헤 봄서.

@1 게문, 그 목장은 어디 목장이파?

#2 서광. 이제 서광하고 또 이제 그 저 이제 그 저, 덕수.

#1 인성.

#2 안덕, 하튼.

@1 응.

#2 그레 근방 목장덜입주게.

#1 우리 쉼 똬이는 디가 인성목장.

#2 예, 예.

@1 응.

#2 인성목장 그런 디 맞수다. (웃음) 침, 하게 그때 당시 어느 목장, 어느 목장 똬르주마는, 답을 열흔 군텔 똬앗닥다왓닥 똬앗닥다왓닥 헤야 똬마썸. 구루말 지낫당 답을 곱 다지 안 하게 걸려.

@1 예.

#2 거 낭하게 것도 걸리는데 목장답을 안 다와 봄서게. 쉼 막 짬뽕 똬 불거나, 똬덜 똬어나 불거나 헤 불민 안 똬니까 답을 곱 다 줘야 똬마썸.

@1 게난, 그 설치하고 이런 낭하레 텅길 때 말씀하게 거지예?

#2 예.

@1 예, 예, 예.

#2 침, 얘기랑 험서게.

@1 예.

#2 춤 말 곤단 보난 그 말 나와지네.

@1 예, 그런 얘기들도 나중에 곱아줘야 똬크라 이렇게.



#2 예.

@1 왜냐면 어디 강 낭허영 오고. 그거 또 어쩔 만들고 허는 이런 것들예. 거난 어쨌든 삼춘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이제 만들고.

#1 그런데, 이 쟁기에.

@1 응.

#1 고망이 여러 개다이.

@1 예.

#1 이걸 현재 이, 영 보통 골으른 요런 고망이나 요 고망이나 잇어 불영 고망 땃 개도 몰라.

@1 몰라.

#1 다 외웁지 못하는 사름 잇어 현디.

@1 예.

#1 이디 고망이 으라 갠디.

@1 예.

#1 으라 개 중에도 고망이 하, 이 똑바르게.

@1 응.

#1 목수는 틀어지질 안알허영 바른 일만 허는디, 이 바른 고망이 하나뿐이라, 이거여.

@1 어, 어디우짜?

#1 이, 요 양주머리 고망, 요것이.

@1 응.

#1 바른 고망 하나뿐이지. 이 무쿨에 이것도 비슷하게 해야 뉘고.

@1 예, 예. 요렇게 구부리난예?

#1 또 요디 이 설칫 꺾는 이 무쿨에 구멍도 뾰뚱허민 안 뉘. 설칫이 보기엔 이렇게 관작해 베도 요렇게 뉘 잇어.

@1 으.

#1 또, 요 벳바드랭이 고망도 이제 그 설칫이 영흐른 니기반득허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을 조금 비뚤어져 다이아몬드로.

@1 예, 예, 예.

#1 요렇게 비틀어진 거야.

#2 저디 강 박아정 영 꼬부라질 \*\*.

#1 또 요것도 똑 관작헌 낭에서 구멍을 바르게 뚫은 거 닳아도, 요 이 오리목을 매기 위해서 조금 베싯허게.

@1 응.

#1 가게끔 비틀어져야 허는 거. 요 설칫구멍도 딱 바르게 아니 해근에 조금 비틀어지게 허는 거.

@1 예.

#1 갱 바른 구멍은 양주머리 하나뿐이라.

@1 으.

#1 이런 것도 우리 술 먹으멍.

@1 예.

#1 젊은 땀, 수수께끼로 드러 허여.

@1 으.

#1 너 뭣 나도록 밧 갈명도 짓도 몰라, 짓도 몰라 나무래곡게 우시갯거리가 뉘지게.

@1 그 말을.

#1 그거 모른 사름이 하.

@1 그거 수수께끼처럼 한 번 곱아 봄서.

#1 어.

@1 설칫 고망 아니, 저, 잠대 고망 중에 저기.

#1 너네덜 만날 밧 가니까 잠대에 구멍이 뭣 갠 줄을 아냐? 허민 다 저기 무의식 중이거든. 하나, 둘, 셋, 넷 이녁 속숨으로 다 세여. 이제 나 알겠다, 뭣이냐? 다섯 개다. 뉘 개 뉘 어뉘 곱아.

@1 으.(웃음)

#1 또 어떤 놈은 아니다, 으답 개다.

@1 어.

#1 또 너무 바쁘게 일등ㅎ쟁 ㅎ면은 설쳐 가지고, 그런 사름 잇어.

#2 일곱 갠디?

#1 그러지. 일곱 개다 말이어.

@1 예, 일곱 개, 그러면 또 어떻게?

#1 일곱 개 중에 고망은 다 바르냐? 고망이야 바르지, 고망이 틀어정 뉘냐? 허민 멍충이 닳은 거, 바른 고망은 하나뿐이다. 영 ㅎ민 큰 수수께끼가 뉘어.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놀이도 이런 잠대 하날 가져도 이제.

#1 지금도 이제 밧 갈던 사름도 이런 우시개 ㅎ면은 얼떨떨 모르는 사름이 하.

@1 예. 아무 생각엇이 이렇게 하니까.

#1 어.

#2 곱아 가니까 나도 기억 남서.

@1 예, 그렇게 해서 고망도 이제 하고.

#1 으.

## 질메

@1 그다음에 삼춘, 이제 그 쉼가 예전에 구루마 나니까 허주마는 그 전에는 다 등짐[등짚]으로 날른 거 아니라예? 그 등짐, 짐 날르젠 허면은.

#1 질메.

@1 질메.

#1 으.

@1 질메도 곱아줘 봄서. 질멘 또 무신 낭으로 또 멘들앗수과?

#1 으, 그것도 약간 춤낭이라야 뉘어.

@1 으.

#1 예, 계난이 소낭도 건 뭐 그 큰 힘 아이 드는 거난 뉘는데.

@1 예.

#1 다 그 옛날 질메 보든 소낭으로 허는 사름덜이 없어.

@1 으.

#1 춤낭.

@1 계난 질메도 여기에 이름들이 잇지예?

#1 질멧가지, 앞가지[까지], 뒷가지[까지].

@1 응, 질멧가지, 앞가지, 뒷가지.

#1 응.

@1 또 이 안에 질메, 그 등 아프지 말렌.

#1 도곰.

@1 무시거마씨?

#1 도곰.

@1 도곰예.

#2 받침대. 받침, 받침.

#1 등 아프니까.

@1 예, 예.

#1 짝으로 여꺼 가지고.

@1 예.

#1 또 그것도 이제.

@1 여기도 고망헹 영.

#1 아니 고망허기 전에 또 소등에 직접 이 꼴레웃이나 꼴레바지나 입다가 뭐 요즘은 담요라고 해야지.

@1 예.

#1 그런 것도 깎는 거 잇어.

@1 응.

#1 등테. 등테.

@1 어 것 등테.

#1 어 직접 거. 짝은 보그락허지마는.

@1 예.

#1 것도 좀 저 사람이 생각해 가지고.

@1 으.

#2 덜 아프게.

#1 응, 소등 아프지 아녀게.

@1 계난예, 도곰은 무신거로 만들엇수과? 옛날에.

#1 짹, 짹.

@1 짹으로.

#1 째 쳐나쁜 저 부근데란 게 있어.  
 @1 예.  
 #1 째 껌질.  
 @1 예, 부근데로.  
 #1 응, 부근, 부근데로. 저 사름도 느넌 모르카, 머리 닿듯이.  
 @1 예.  
 #1 요렇게 요렇게 닿아 가지고 꼬불꼬불 해서 줘서.  
 @1 응.  
 #1 질게.  
 @1 닿은 거를 다 이렇게 연결허는 거구나, 쥘은예.  
 #1 응, 응, 요렇게 해서 게문 요렇게 돼지.  
 @1 예.  
 #1 요렇게 해서 이제 맥바농해서 새끼로 줘 가지고.  
 @1 으.  
 #2 아이고, 춤.  
 @1 게난 부근데로 현 거는 이 부, 부드럽게 허기 위해서 현 거구나.  
 #1 어 그렇지. 그렇지  
 @1 그거 모양.  
 #1 째으로 허민 아깝고.  
 @1 예.  
 #1 째도 부드럽지마는 째은 아까우니까.  
 @1 으.  
 #1 저 소위 뭐 \*\*\*\*\*.식이라고 요런 말이 잇잖아, 그런 식으로. 째 쳐나쁜 명식, 맥 좇쟁 새끼 꼬쟁 째은 처야 될 거고 그놈의 째이엔 현 거는 부근데거든, 그제.  
 @1 으.  
 #1 쓸 곳이 없어, 그런 디나 쓰곡.  
 @1 응.  
 #1 어디 저 사름 앓젠 허민 가시나 째를 디 강 그 방석으로나 강 깔앙 앓곡[안쪽], 보그락 허니까.  
 @1 예.  
 #1 그문 이 저 불때는 화목도 별로 좋지 아니 허거든. 벨벨벨벨 얼른 부뜨니까.  
 @1 예.  
 #1 쟁 이젠 필요 없다는 뜻으로 부근데ㄴ치.  
 @1 부근데ㄴ치.  
 #1 응, 뒗엔 누게 말.  
 #2 확허게 타 불주.  
 @1 근데 도곰은 허면은 저기 용도가 좋은 건데.  
 #1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데 췌다, 이거지.

@1 예, 쟁은에 부근데 ㄴ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 도곰은 부근데로 짜고예?

#1 응.

@1 등테는 뭘로 짜?

#1 기지, 자기.

@1 헌웃덜.

#1 웃, 헌웃.

@1 응.

#1 그때 뭘 담요도 엇인 때난. 그자 갈중이 ㄴ튼 거, 오바.

@1 으.

#1 오바는 셔나난 오바 헌 거.

@1 것도 영 모양 내영 만들앗수과, 아니면 영 끌아쥬?

#1 아니 그자 그 도곰광 쉼등에.

@1 예.

#1 직접 그.

@1 당지 않게.

#1 응. 아프지 아녀게 좀 문문하게끔 보그락허게.

#2 돌, 돌레엔 헛주. 돌레.

@1 으. 돌레엔도 헤, 그거를?

#2 으. 돌레.

@1 건 뭉렌 헛 때 돌레렌 허여?

#1 돌레는 딱난 거고.

@1 으. 어쨌든 그 등테를 이렇게.

#1 응.

@1 깔아주고예?

#1 으.

@1 그다음에 그 질메. 질메 허면은 거기 침도 잊지 안허우파?

#1 으, 질메를 요런 건 두 개씩, 양쪽에 두 개씩, 이렇게 그렸네, 아아, 그거.

@1 예, 예.

#1 그런 게 두 개씩.

@1 앞에.

#1 앞가지, 뒷가지 해서.

@1 어.

#1 연결허는 게 두 개.

@1 어, 두 개예?

#1 어.

@1 그 두 개.

(부분 생략)

@1 게난 그 질멧가지를 연결허는 그 낭 대에.



#1 셋냥.  
 @1 건 셋냥이렌 곤는 거예?  
 #1 으.  
 @1 그 셋냥은 몇 개 잇수과?  
 #1 네 개.  
 @1 네 개, 양쪽에 두 개씩?  
 #1 으.  
 @1 으.  
 #1 게민 요렇게.  
 @1 이렇게.  
 #1 오그라지민.  
 @1 예.  
 #1 아, 요거 두 개?  
 @1 응.  
 #1 게민 요 사이에 한나, 둘.  
 @1 여기도 두 개.  
 #1 으. 그러면 요것이.  
 @1 여기 영 혈 때 이게 앞가지 이게 뒷가지?  
 #1 노픈 게 앞가지.  
 @1 아, 노픈 게 앞가지예?  
 #1 으.  
 @1 예.  
 #1 뒤에는 아타.  
 @1 아. 아튼 거는 뒷가지.  
 #1 으.  
 @1 예.  
 #1 그러면 요디다가 이제 나무로 요 궁기 또 쳐 가지고.  
 @1 예.  
 #1 요렇게 해서 이 공쟁일 만들야. 그거 허고 또 요디 허곡.  
 @1 여기 하고.  
 #1 응. 그것이 나무에가 그런 나무가 있어. 요렇게 기억 자보다도 요렇게 된 거.  
 @1 으, 으.  
 #1 게민 요 바른 것은 그 앞, 뒷가지레 꼽고.  
 @1 예.  
 #1 또 요것은 베.  
 @1 으.  
 #1 베 걸 거.  
 @1 베 걸 거.

#1 짐 시끄젠 허민.  
 @1 예.  
 #1 그 베는 쉼베렌 허는다.  
 @1 예, 쉼베예.  
 #1 으.  
 @1 으.  
 #1 쉼베 거는 거.  
 @1 예, 게난 그걸 공쟁이렌 해?  
 #1 으.  
 @1 그 이름은?  
 #1 짐고리[짐꼬리].  
 @1 짐고리렌 곶아예?  
 #1 어, 어.  
 @1 게문 둘 다.  
 #1 공쟁이엔 말이지.  
 @1 공쟁이.  
 #1 게 두 개 현 건 하나는 이쪽에서 이제 시끄는 베 걸고, 하난 또 저쪽에서 사름이 마주  
 사서 짐을 시끄게 됩니까.  
 @1 예.  
 #1 고리가 두 개.  
 @1 고리가 두 개.  
 #1 어.  
 @1 이렇게 이신 거고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질메들.  
 #1 으.  
 @1 헤 갖고 옛날 저기를 한 거고.  
 #1 게문 질메에서 이젠 여기서 탁 이제 올려놔 씩우른 앞가지는 이레 오곡 뒷가진 이레  
 오거든.  
 @1 앞가지는.  
 #1 앞이.  
 @1 쉼 머리쪽으로, 예.  
 #1 으, 앞이. 으, 으. 노프거든 쪼끔.  
 @1 예.  
 #1 뒷가지는 야트고.  
 @1 예.  
 #1 그리고 이것이 그자 탁 낡 내 불민 안 됩거든.  
 @1 으.  
 #1 이젠 이거 무껴야 돼어. 오랑이라고 해서 절로.  
 @1 아, 오랑, 오랑, 예.

#1 어, 절로 끈해서 일로 영해다가 탁허게 메는 거.  
 @1 예.  
 #1 오랑 허민, 이제 질메가 이젠 왓다갓다허여.  
 @1 예.  
 #1 왓다갓다허니까 그걸 고정허기 위해서 이젠 일로 이렇게 끈을 메어.  
 @1 으.  
 #1 양쪽으로.  
 @1 어 뒤에, 엉덩이 쪽에.  
 #1 으. 이를 고들게끈이라느디.  
 @1 예, 고들게끈. 들어봤수다.  
 #1 으.  
 @1 고들게친.  
 #1 또 요 버을레같이 이 조름에서.  
 @1 으.  
 #1 어떤 사름은 이걸 베 하나로서 이 쉼 조름으로 헤 가지고 영 그 끈으로만 허는 사름이  
 잇는디, 보통은 이런 버을레.  
 @1 예.  
 #1 버을레 허여, 이 고들게라고.  
 @1 고들게예.  
 #1 나무로 해서.  
 @1 예.  
 #1 양쪽으로 끈 해서. 게문 이 구루마라도 예, 채우면은 뒤트레 가지 앞으로 등기는 건 이  
 멍에로 등기니까.  
 @1 예.  
 #1 이 뒤트렌 아니 오거든. 앞드레 못가게 허는 것이 고들게.  
 @1 응.  
 #1 게 고들게끈은 질겨사 웬다, 질겨사 웬덴.  
 @1 예, 예, 예.  
 #1 질메 지을 때 고들게끈 멍심허라. 고들게끈만 약헌 거 끈어젼다든 구루마 가당 자락  
 밀어 붙든 쉼, 쉼도 죽곡.  
 @1 응.  
 #2 (웃음)  
 #1 뭇도 죽곡. 건 다른 것도 다 지게[지계] 멍심해야지마는 우선 급선물로 위험헌 건 고들  
 게끈이다, 이거주.  
 @1 으. 게난 구루마 헐 때도 이 질메를 ㄴ치 메왕 구루마도 연결헛수과?  
 #1 아니, 아니.  
 @1 그건 아니잖아예?  
 #1 아, 구루마도 허는디 구루마 허는 질멘 땀나.

@1 아, 건 또 뜨나고?

#1 어, 고들게와 고들게끈은 마찬가지로.

@1 음.

#1 이름도 마찬가지로, 역할, 역할도 마찬가지로, 허는 게.

@1 으. 어쨌든 구루마 연결허젠 허면.

#1 어.

@1 영 잇어야 될 거니까?

#1 그건 저 아까 저 그 베 거는 고리.

@1 예.

#1 고리 두 갠 없지.

@1 으.

#1 구루마 헐 때.

@1 예, 예, 예, 예, 예.

#1 구루마 헐 땀이 구루마 채경 올라갔다 내려갔다.

@1 응.

#1 앞드레 갓다 뒤에 갓다만 못허게 고정허는 거니까.

@1 으, 거는 그 저 차경만 고정허는 거라예?

#1 으.

@1 예. 게끈 그 고들게끈은.

#1 그 아까 영 허는 건 오랑이.

@1 예, 오랑. 베에 저기 연결허는 거.

#1 으.

@1 그다음에 그 걸 질기게 해야돼잖아예? 고들게끈.

#1 으. 게 뿔산지.

@1 겐 뿔로 만드야?

#1 새끼라도 저 가늘고 질긴 거 보든 하 거 고들게끈이나 험직허다.

@1 으.

#1 옛 어른덜은 그렇게 허거든.

@1 으.

#1 \*\*. 질긴 거 보든 경 허여.

@1 예.

#1 겐 이젠 멍심허영 질긴 걸로 허라.

@1 응.

#1 다른 것도 다 질겨야지마는 그 중에도 특별히 질겨야 뵈다, 이거라.

@1 게난 보통은 뿔로 땀들앗수과? 고들게끈은.

#1 아니, 그 우리 육은 후에는 저.

@1 신사라?

#1 신사라. 신사라 전에는 저 미라고 헤.

@1 예, 미예.  
 #1 어욱.  
 @1 으.  
 #1 어욱뽕이.  
 @1 어욱뽕이 껌질, 속껌질.  
 #1 어욱뽕이도 연현 땀 아니 댜지. 팔월 댜어사.  
 #2 건 우리.  
 #1 미우쟁이 세어 불어사.  
 @1 으.  
 #1 아, 게민 우로 한 겹 두 겹 정도 해서 새끼 꼬았어.  
 #2 아, 걸로 걸로.  
 #1 응.  
 #2 삼춘넌 건 처음힐 때 경헛지.  
 #1 아, 우리 우린 걸로 써, 우린. 우리 욱은, 어린 때도 신사라 엇엇어. 신사라 나온 지도  
 몇 년 안 댜어.  
 #2 아, 우린 신사라, 그때 당시.  
 #1 아, 우리보다 후세니까.  
 #2 예.  
 @1 게난 그 삼춘, 미를 그 우리 보통 옛날 망시리도 만들고 영 하영 헛잖아예?  
 #1 으.  
 @1 겐디 그게 꽃 쉰 다음에 행은에 현 거마씨?  
 #1 으. 꽃보고 어우쟁이라지.  
 @1 미우쟁이.  
 #1 미우쟁이.  
 @1 으.  
 #2 거 막 꽃 피는 거 아니?  
 @1 예, 예.  
 #1 그거 해서.  
 #2 억새, 억새렌.  
 @1 억새.  
 #1 그거 해서 많이 모여다가 이제 옛날 하르방덜은 이 미싱을 만들엇어.  
 @1 응.  
 #1 꼭 해다가.  
 @1 으.  
 #1 꼭 해다가 깨어서.  
 @1 예.  
 #1 작작 잘 깨어지거든. 게서 그 미우쟁이 가지고 연결허면서 뱅뱅 요만큼 슬지게 길게  
 만들엇어.



@1 예.

#1 약간 일 메다 정돈 해야 하루 살아.

@1 으.

#1 출 비레 갈 때나 밧 갈레 갈 때는 아버지 거 부지런히 멧다가 밧디 갈 때는 불 톱 부쳐.

@1 으.

#1 계영, 난 막둥이니까 족은놈이랑 미싱 들으라.

@1 예.

#1 거 계벼운 거니까.

@1 예, 예, 예.

#1 그자 가진 놀리긴 섭섭하고 일 부린다고.

@1 으.

#1 짓도 옛날 아방덜도 언강이라.

@1 예.

@3 어.

#1 경 저 검질메당 저 뭐 출 비영 올 때도 산테비 봐지민 잠자리.

@1 예.

#1 거 잡아다가 주고. 또 간잘귀, 푸께.

@1 예.

#1 검질메당.

@1 예.

#1 가을 들면은[가을 뜰머는] 맛 좋거든. 이젠 그런 거 시나 엇이나. 이것도 영 냉경 안 먹는다.

@3 (웃음)

#1 푸께가 그렇게 맛 좋았어.

@1 예, 우리도 어렸을 때 푸께 하영 먹었수다게.

#2 어디 어느 동네우짱?

#1 계속.

@1 불그뭇마씨.

#2 누구?

#1 계와숙, 계와숙 영 봉끄렝이 담아왕 주곡.

@1 김○○ 알아집니까?

#1 알거[꺼]라, 저지, 저.

@1 저청중학교교장.

#1 교장 동생.

@1 불그뭇예, 아버지.

#1 ○○?

#2 아.

@1 ○ 자, ○ 자. 우리 아버지.  
 #1 김○○.  
 #2 계른 알지, 계른은.  
 @1 저 상점에 큰아버지.  
 #2 에이그.  
 @1 김.  
 #1 그 열레기왓 살아난다.  
 @1 우리 쉼장시 하르방.  
 #1 저 ○ 제, ○ 제.  
 #2 (웃음) 아니 계난 저 언니가 저 누계 아니?  
 @1 우리 언니마씨?  
 #1 언니 스춘. 언니 스춘.  
 @1 예, 우리 언니는.  
 #2 스춘.  
 #1 사춘.  
 @1 우리 언니.  
 #2 상점 헤나고.  
 @1 상점은 우리 큰아버지네.  
 #2 큰아버지네?  
 @1 예.  
 #2 아, 거기 큰딸이 우리 동창.  
 @1 ○○이 언니?  
 #2 어, 맞아.  
 @1 아, 기우짱? 예.  
 #2 팔 회.  
 @1 예.  
 #1 어느 딸이고? 저.  
 @1 ○○이, ○○이 언니네랑 동 저기.  
 #1 어, 어디 간 딸 잇잖여. 그디ㄴ라 어디텐 허느니?  
 @1 가시리는 두 번째.  
 #1 어, 가시리, 가시리.  
 @1 거기는 ○○이 언니네고.  
 #1 어.  
 #2 ○○이.  
 #1 안 씨, 안 씨지?  
 @1 예, 안 씨, 가시리 안칩이.  
 #1 우리 간에 교육도 받아났어. 우리 동네서 모다간.  
 @1 예, 예.

#1 가시리가 선진국 아녀.  
 #2 초원 말을 잘혀여.  
 @1 예.  
 #1 경 험 잊어 볼카 부덴 이제 그걸 연구험주게.  
 #2 예.  
 @1 예.  
 #2 아, 우리 계민 이 초등학교.  
 @1 산양 여기.  
 #2 거기 왕은에 이제 뭐 헐 거?  
 @1 사, 오, 육 학년 땡겨수다.  
 #2 아, 계난 다녔는데 지금 이제 그 관계 때문에 이거 아니?  
 @1 아니마씨.  
 #2 뭐 이진?  
 @1 이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이런 거 기록행은에 책으로 만들 거.  
 #2 무사 이까지 완, 계난.(웃음)  
 #1 아, 여기고 저기고 옛날 풍속을 다 알아야 될 게 아니라게.  
 @2 예.  
 #2 이제 잊어 불엄서, 이거. 제주도 이젠.  
 @2 예. 맞수다게.  
 #1 경 허난.  
 #2 잊어 불엄다니까. 진짜 이거.  
 @2 예.  
 #1 이제 이 사름네가 알기 위헌 게 아니라.  
 #2 예게, 맞수다.  
 #1 기록헛당, 즈손.  
 @1 예.  
 #2 후손들한테. 아이들한테.  
 #1 다 전달해 주젠 허는 거라.  
 #2 해야돼. 이거 큰일 나.  
 @1 예.  
 #1 다.  
 #2 우리도 다 잊어 불엄서.  
 @1 경 허난 곁아줘야 돼마씨. 나중예.  
 #1 계난 후세들은 이제 이대, 삼대, 스대, 오대 그 후손들은 하이고, 어느 선생이 헛다 허  
 든.  
 #2 데가리 아프다, 영 해 불어.  
 #1 이 선생이 헛다, 이제 뭐 헛다, 다 헐 거주게.  
 @1 예. (웃음)

#1 게른 아까 저 사름 곤듯이.  
 #2 예.  
 #1 이 선생들 어디서 태어나시고, 불그뭇서 태어났어, 시에서 태어났다. 그 누게네 딸이라 누게 손지?  
 @1 예. (웃음)  
 #1 누게 딸 영 혈 거지.  
 @1 맞수다.  
 #2 골안 보난 맞아. 잠대가 진짜 구멍 바른 건 이거 하나라.  
 @1 응. 구멍 바른 거.  
 #2 다 뚫러야 뉘어.  
 @3 어.  
 #2 요것도 삐툴어지고 요것도 삐뚫어지고.  
 #1 아, 이제 몰랏당 골아 보난 알아.  
 #2 골안 보난 나가 기라.  
 @1 예.  
 #2 나도 모르지.  
 #1 아까 나보다 네 살 위 하르방도 우리 동네 최고라도 몰라.  
 #2 몰라.  
 @1 예.  
 #2 일을 안 해나니까.  
 @1 맞수다.  
 #1 게난 인칙 골았지. 저 사름 나보다 우이라도 옛날 풍속은 모른다. 사름도 몰라.  
 @1 예.  
 #1 이제 나보다 우이가 또 혼 사름 잇는디, 두 술 우이. ○○이.  
 #2 예, 몰라.  
 #1 옛 어른덜 돌아간 어른덜 허민 몰라.  
 #2 몰라.  
 @1 어.  
 #1 얼굴은 알아. 이름도 몰라. 어, 그 어른 뗏이나 난 건, 연령은 확실히 몰라도.  
 @1 예.  
 #1 이름도 몰라.  
 @1 으.  
 #1 게 그디는 조금 정신이 안 출려나곡.  
 @1 응.  
 #1 나는 우이 형님들이 계단으로 서 놓니까.  
 @1 예.  
 #1 옛날 뻥 웃엉은 어디 잔칫집이 놀레도 못 가.  
 @1 예.

#2 못 갖주게.  
 #1 난 이제 그 우에.  
 @1 예, 형님들.  
 #3 형제간덜 잇이난.  
 #1 누님 잇고, 형 잇고, 형 잇고 허니까 어떤 딴 큰형 그 축엔 가든 큰형님 조름에 가곡.  
 @3 (웃음)  
 #1 그 야노바시 헛지.  
 @1 예. 게도 이 동네는 다 친척이란게. ○○이 현 거 보난.  
 #1 어.(웃음)  
 #2 ○○이?  
 @1 예, 어쨌든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아고, 베도 고평 텐데, 여기.  
 #1 베고프민 이거 먹으민 뉘주.  
 @1 예. 그 목장 하영 험디가, 쉼 하영 질롭디가?  
 #2 아 난 질루진 안헛수다.  
 @1 예, 그냥.  
 #1 아니 하영 관계 헛주기.  
 #2 아이고.  
 #1 뭇은 또 이 사름만이 관계헌 사름이 엇고.  
 #2 아니, 아니.  
 @1 으.  
 #1 뭇 꿈작 못허여.  
 @1 뭇 꿈작 못허고.  
 #1 지금도 이제 꽃자왈 저 뭇 탕 그 저 손님덜 받젠 허난.  
 @1 예.  
 #1 뭇 기물덜 막 사단 이제 준비헬서.  
 #2 준비허는 중이우다.  
 @1 어.  
 #1 게, 그 여, 영허는 것보난 쉼 쉼석이엔 허주마는 뭇은 녹대엔 허거든.  
 @1 예.  
 #1 우리 우알 집이 살거든.  
 @1 예.  
 #1 삼촌 녹대 어떻 멘들야? 오랑 곶아 줍서.  
 @3 (웃음)  
 #1 (웃음) 요 흐루기.  
 @1 그.  
 #2 나가 멘들야 보지 안헬십주.  
 #1 녹대 사단.  
 @1 으, 쟁 녹디 멘들디가?

#1 멘들안.  
 #2 예.  
 @1 게난 우리 그 녹디 멘든 거 그것도 사진도 찍고 이제 다.  
 #2 요즘은양, 안 멘들아도 다 푸는 거 있어.  
 @2 (웃음)  
 @1 아니, 아니. 직접 멘든 거로 저기 찍어야지. 한 번.  
 #2 멘든 건, 멘들 수 있수다.  
 @1 한 번 멘들서.  
 #1 게고 그 말 끝엔.  
 @1 한 번 멘들게.  
 #1 그 꼬부려당 저 잇는 거?  
 #3 응.  
 #1 그거 거꾸로 찢르지 안해서냐?  
 #2 게난, 이제, 뭐?  
 @1 (웃음)  
 #1 영 그 이제 코고리 멘들 때.  
 #2 예.  
 #1 빼역 찢럭 허는 거.  
 #2 아.  
 #1 그것도 그 노 끈 거나 마찬가지로.  
 #2 맞아.  
 #1 돌려봐도.  
 #2 꼬아진 거대로.  
 #1 응, 경혜야 됐는데, 나 생각엔 죽여전. 영 지를 깔 영 질러 붙었어.  
 #2 경해도 빠지진 안해십디다게.  
 #1 어, 빠지진 안허여.  
 @1 예. 나중에 그 녹대 한 번 만들어야커라. 게니까 그.  
 #1 이젠 여기가 선생 뒤후게.  
 @1 예. 이제 툄 질르는 건 다 허고.  
 #2 이제 툄구루마.  
 #1 으.  
 #2 몽생이 궂다당 ㄹ리치젠 이제 막 준비허는 중이우다.  
 @1 아, 툄구루마도 저기 멘들안마씨?  
 #2 구루마도 멘들아.  
 @1 직접 멘들안, 아니믄?  
 #2 멘들지 안헨 이제 멘들 거.  
 @1 멘들 거.  
 #2 거 낭을 확확 못합니다. 나무를.



@1 으.  
 #2 물 수분 잘 식혀근영에.  
 @1 예.  
 #2 우리 냥으로 직접 멘들 거라 놓난, 경 안 허민 놀랑 므르지 았은 건조 털 똥 걸로 허면은 휘와져 불어.  
 @1 휘어져 불어. 맞아예.  
 #2 그 이제 건조허는 중이난.  
 @1 그 큰영곳 그쪽에 목장 하영 영 해낫수와?  
 #2 우리 이제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우리 저 옷뜨르식당 그 조케 똤는 아이가 우리 마을에서 임대를 줘십주게, 가이가.  
 @1 예.  
 #2 임대를 해 가지고 이 관광 손님을 이제 끌어들이젠.  
 #1 누게 ○○○ 아털?  
 #2 예. 게난 봄서, 가이.  
 #1 아, 가이가 임대헌 거라?  
 #2 게난 첨 이제 혼 이 년 안으로 소문 나갈 거우다.  
 @1 예.  
 @2 (웃음)  
 @1 게난 그 언제 멘들쿠와?  
 #2 이제 금년 안으로 구루마는 멘들아갈 거우다.  
 @1 게난 우리 구루마 멘들 때영 와근에 사진 찍어야크라.  
 #2 예.  
 @1 예.  
 #2 이제 잠대는 아 저, 저 질메는 멘들안 놔두고.  
 @1 으, 질메는 멘들앙 놔두고.  
 #2 으.  
 @1 게난 그건 제대로 선생한테 멘들웁디가, 아니믄 어뎡.  
 #2 예, 오리지날 그 워정 때 써난 거.  
 @1 으.  
 #2 거 십만 원 간 쥔 사완.  
 @1 겐 그거 보명 새로 멘들안예?  
 #2 으.  
 #1 거 썬, 썬로 현 거?  
 #2 예, 썬로 현 거마씨. 야, 진짜 잘 멘들안. 나도 물구루마허멍 그추룩헌 거 안 써봤어.  
 #1 난 그거 허연에 불그뭇 ○○?  
 #2 예.  
 #1 ○○ 아방 술 맥이멍 스정허연 나 폴아 불언.  
 #2 요만큼.

#1 나도 출 비레 갓당 물 사났어.

#2 요거보다 넓으나 마나여.

@1 아.

#1 출, 남송이 저 너른 디 이딘 출이 귀혀여.

@1 예.

#1 겐 야네 아버지가 오라, 우리 저 남송이강 출 비게, 소 지를 때난.

@1 예.

#1 그디 간 밤 자명 질렀주게.

#3 경 허명 막 질렀주게.

@1 응.

#1 야네 어명 아방허고 이제 놓 하나 빌언 서이허고, 나도 우리 각시허고 우리 누님허고 서이 간에, 밤 자명 출 비영 뒷날은 물리든 물리우곡, 경 빌만이 비어지민 실어오곡 허엿는 디, 아, 그디 갓단 야네 아버진 그 물에도 익숙허니까.

@1 으.

#1 또 그 멍이, 멍이동 사름도 익숙허곡. 이젠 술을 좋아허니까, 글라 강 멍이동 강 술이 나 혼 잔 먹영 오게. 경협주 허연. 야네 아버지허고 멍이동 간 술 먹언 오단 보니까 아, 우리 출 비는 즈꿏디, 물이 줄 메연 잇거든. 아니, 야네 아방은 물 익숙으난 물이 생소허니까 물만 보민 막 믱스완 허는디, 아, 간 와 허난 그만허연. 이젠 확 허연 올라탄 줄 멘 물을. 게니깐 난 그것에 호탕허연 아까완.

#2 으.

#1 이 물 임제 알아지쿠과? 알아진다. 이거 풀지 아녜 건가? 이거 풀지 못헿 막 애쓰는 거 아니가?

#2 (웃음) 으.

#1 무사 들업디 허그테 이 송아기라도 사젠 호주머니에 돈 으전 텅길 때 출 비레 가명도.

@1 응.

#1 집이 놔두민 누게 꿍 갈 거고. 게연 십팔만 원 쥔 물이영 구루마영 산.

@1 예.

#1 출 비레 갓단. 겨연 난 쉼구루마 체완 간 헛는디 올 때는 아, 이거 으전 갈 게 걱정이 우다 허난, 야네 아방은 익숙헌 사름이난 걱정 말라, 으전 가정 가는 건 나가 으정 가져, 허연. 그자 올 땐 질메 탁탁 체완 그 콧질 그저 장통물질 구루마 텅겨지나?

#2 으 장통물질, 아이구.

#1 그 우티로 내려왔어.

#2 맞수다게. 그 장통물질로 나도 걸어다녔수다게.

#1 물이 하도 야네 아버지 익숙허니까 그자 질메 지완 구루마 체우난 이제 그 야네 어명 허고 놓 빌영 간 사름 저 그 무신 평풍 하르방?

#2 어, 어, 평풍 할르방 오케이.

#1 그 하르방 빌언 갓주게.

#2 예, 예.

#1 느넨.

#2 평풍 하르방 잇어낫수다.

#1 경헨 서이가 탁 탄 원 그자 완. 아니 놈의 뭘, 나 뭘이엔 말이 아니고, 이녁 뭘도 아닌 놈의 뭘, 성질도 몰랑 무주건 뭘을 이끄지 아녀근에.

@1 예.

#1 구루마 탄다고 난 허난, 걱정 마라게, 걱정 마라게, 굳작 이.

@1 으.

#1 우리 집ㄴ지 완.

@1 으.

#2 뭘은 똑똑헌 것덜은 딱 허민 집이꺼지 딱 왕 으항항 허곡.

#1 어. 십팔만 원 주니까 그때도 춤 득렌 현 냥 난 주니까 멍청이난.

@1 (웃음)

#1 게난 돈을 족게 준 건 아니주기.

@1 예, 예.

#1 게난 그.

#2 그때 십삼만 원이민 족은 돈이우짜?

#1 난 송아지도 샷닥풀앗닥 허주마는 장시 안 허난, 아버지 쉼장시라도.

@1 예.

#1 난 그런 건 분수 몰랑 멍청이주기. 게 득렌 현 냥 주니까 아, 이젠 그 춤 뭘 또 타는 안장.

@1 예.

#1 안장이영 그냥 뭘썰 끈어 불젠 저 이 멍이논 ○○○이엔 현 하르방이주기, 그 뭘 임제가. 그 뭘썰 끈어 불젠 문딱 그 사름도 메긴 거라. 나 득렌 현 냥 돈 주듯이. 그 사름도 뭘에 대헌 연장을 다 으져가렌 허연 주난.

@1 어.

#1 이젠 오란 이제 줄 메레 갈 때도 타곡 줄 메레 올 때도 타곡.

@1 어.

#1 나도 어린 때 뭘은 타나도 경 익숙허게 다룰 줄은 몰라.

@1 예.

#1 경 헤연 경 어진 뭘이라도 믱스와.

@1 으.

#1 뭘은 이 사름 즈꼳디 가민 고개 추왁추왁허거든. 추왁추왁허민 난 뭘젠 험시가 부덴 경 뭘을 석을 멀리 이경 땡기곡.

#2 아니, 아니.

@1 어.

#1 그추룩 허명도 헛는디, 아 요놈의 걸 웨 지체 못 허느냐 허믄 줄 메질 못허연게.

@1 으.

#1 뭘은 질레 줄 메여근에 질 물름에 양쪽에 출이 많잖아.

@1 예.

#2 흠.

#1 경헨 질레 메민 담엔 노프고 야트고 뛰어 강 곡식 먹어불어게.

@1 아.

#1 아, 서너 번을 경 허니까 기가 맥히단 말여. 요거 쉼궂메민 우리 쉼 아니우텐 벤, 벤명이나 현다. 물은 나벳기 웃언 드무니까 물, 그 담 물앙 튀어든 건 곡석밭 임제가 다 알거든. 하, 이거 큰일 낫다고.

@1 (웃음)

#1 겐 이제 물을 살 놈을 귀허젠 허난 구혈 수가 있나, 겨헨 ○○아방, 이제 나 이제 물 안장에 탄 덩기곡 헤 가니까 아 이제 주우룻허길레 하, 요 하르방한테 폴아 먹어야 된다고.

@1 (웃음)

#1 살듯말듯 살듯말듯 허명 그 사름은 완전 옥은 사름이거든, 난 멍챙이고. 느시 나를 녹여, 녹여 먹는 거라. 아, 이젠.

#3 (웃음)

#1 드려 이젠 앓앙 놀명 와이로 질르명 달래영 스정헨 이젠 십팔만 원에 산 거난에 이십만 원 줍서, 느리왕 폴아야지, 더 받으민, 난 마우다, 마우다. 아, 이거 어떠허연 게건 본금에 줍서. 예, 것도 이젠 비싸다고. 하이 졸락졸락.

@1 (웃음)

#1 그때 혼 만 삼천 원에 폴았어. 혼 해 부리곡.

@1 예.

#1 혼 해 부리고.

@1 오천 원 미갓네.

#1 오천 원 미까고.

@1 예.

#1 게난 미까고 뭐이고.

@1 (웃음)

#1 치와지난 다행이엔. 아니 물 줄 메어볼 디가 었어. 질레 메지 못헤여 농난.

@1 어.

#3 참.

#1 말째 저 곡석 거 변상허젠 허면 물값이 더 들건디.

#3 (웃음)

#1 겐 물 설러분디. 겐 나도 거 안장도 다 궂추완 안장은 저 곳사 이장 아방이.

@1 예.

#1 이장 그 징조하르방이 물 탄 멍겨낫주기.

@1 아.

#1 게난 그 물 그 자갈 물리는 거 안장까지.

#3 엇그저께 들질. 쉼질메도 거기 하나 갓어.

#1 아까이 저 툄레엔 현 것이.

@1 예.

#1 그 툄 탈 때 허는 거. 이, 이 양옆이 영 동그랴게 큰 거.

@1 예, 예.

#1 것ㄴ라 턄톨레엔 허주거.

@1 턄톨레예.

#1 영 다리허민 옷.

@1 다리 올렁은에 탈 때예?

#1 옷 아니 버물게 허는.

@1 응.

#1 게 ㄴ사 하르방은 게난 나인 하도 옛날애긴 나만이 모른다는 게.

@1 으.

#1 그 이제 턄톨레엔 허는 것ㄴ라 턄안장이엔 허는 거. 저 이제 쉼에 걸랑 다 헛진 턄관 계랑.

@1 예.

#1 이 사름한티 허여. 이 사름이 잘 알아.

### 썼 관련 추억담

@1 예, 그 삼춘 썼, 썼 질르멍 혹시 잊어 불지 못허는 이런 거 잊수과? 썼 뭘 놈의 밧디 들영은에 벤상해나거나.

#1 에이구, 무사 잊어.

@1 예, 그런 거나 혼 번 곶아썼 뵙서.

#2 그때 당시덜은.

#1 저, 아버지한테 간 보니까 아, 소가 밧진 소가 있어.

@1 예.

#1 경 헨 난 멍챙이 중에도 멍챙이라. 이 저 예, 소장사보고 육바리 장사라는디 육바리는 캄캄이라.

@1 육바리는 뭘우과?

#1 썼 장사.

@1 아, 그걸 육.

#1 천헌 말로 곶은 거.

@1 예.

#1 어, 저 개 잡는 사름ㄴ라 개복쟁이엔 허듯이.

@1 으.

#1 소 장사 보고 육바리 장사엔 허주거.

@1 으.

#1 게니 그런 것에 이 눈이 캄캄허는디, 아, 간 보니까 ㄴ고망광 이 나 손구락 들어가게 흰허게 턄러지고 뭘 부렁이ㄴ치 듁직한 소라. 아니 송아진 쫓 먹는 거 보니까 북시근헌 게 부렁인 슷손데, 금, 금싱인데.

@1 예.

#1 나 생각엔 요만이 헤시민 혈 건데 이만이헌 부그락이 큰 거라. 에미도 아까와 송아지도 아까와 허니까 욕심난. 이젠 아버지한테 간 이 쉼 나 으져 가쿠다. 무사, 나 사오란 나 부리켜. 이, 저 삼춘은 이젠 저 장시난 제주도 쪽으로 강 믈음대로 뽑아올 거고 난 경혈 줄 못허는 명칭이난, 겨난 느한티 풀지 못헌다. 무사마씨? 느신디 냉기지 못헐 거고.

@1 (웃음)

#1 장시는 냉기기 목적이거든.

@2 어. (웃음)

#1 나 준 금 안 들영 풀 수 없고.

@1 으.

#1 준 금 드렌 허민 느 비싸덴 혈 거고.

@1 으.

#1 예, 살 구기 허지 말라. 이젠 아, 요놈 잘못 걸련에 즈든 거라, 소꿉으로.

@1 예. (웃음)

#1 또 내가 드렌 떼 쓰면은 말덴도 못허거든. 그 정도 뉘니까 나는 떼 쓰는다.

@1 예.

#1 나 쉼 사지 기루운디 어디 강 사웁니까. 나 돈 주거든에 강 사웁서. 게메 이거 얼마나 가는 줄 알아점시냐? 모르난에 준 거만 받아근에 줌서. 경 허난 허, 그놈 닳은 놈 무관 아니 주 허연 줘. 아, 주니까 춤 명칭이가 맞아. 이젠 난 자랑으로 이젠 춤 슷소꺾찌 듬직허게 아주 몸피도 크고, 겐 자랑으로 아주 좋은 쉼 사왓다고 색깔도 멋져, 짓빨경허게. 황, 바로 황소라. 겨엔 활치명 이제 뭇, 침 쉼 이껴완 아 질루다보니까 아 뱃 갈기도 시원치 아녀.

@1 (웃음) 잘못 사신게.

#1 으, 춤 나도 놈보다는 춤 뱃 가는 디 모지레지 아녀주게.

@1 예.

#1 기술이건 뉘이건 몸은 영 죽아도. 춤 요망지덴 말도 듣는 놈인디. 주룩주룩허명 시원치 아녀. 아까 나 서론은 곱앗지마는 즈물야 가니까 그만 허젠 허는 거라.

@1 으.

#1 이레 각 저레 각.

@1 (웃음)

#1 명에, 명에질에 가든 지 멋대로 고비 조꼬만 더 가민 혼 자국만 더 놓민 고비 돌 건디.

@1 으.

#1 미릿 돌아 분단 말여. 아, 이거 꽤쌌허다마는 허연 그럭저럭 혼 해 질렀어.

@1 어.

#1 새끼나 내왕 이제 추분헌다고.

@1 어.

#1 이젠 그 ○○이 수의사 혈 때, ○○이한테 간 이제 수정허연 이제 우리 스춘아주망 그 ○○이넌 모르지, 야넌.

@1 으.



#1 스춘아주망도 ㄱ치 저 이제 쉼이 부름이 차니까 간 수정헌 왔는디, 새끼 난 거 보니까 요런 거 난게.

@1 (웃음)

#1 첫새끼는 경 허고.

@1 으.

#1 경 허연 멍챙이엔 나랏으로 안 헐 수가 있어. 아, 경 혼번은 낙천 간 보니까 아 예미는 쫘 쫘쫘헐 해도 새끼가 멋진, 건 암소 새끼디 멋진 게 있어. 아주, 금싱인디 다간만이 켜 새끼 멋진게 난. 아 요건 새끼 최종 존 거라고. 그것도 쉼장신디 이젠 풀렌 허난 아주 비쌀 났. 난 멍챙이난 다 다듬아 먹젠덜만 헤여, 다른 사름덜이.

@1 (웃음)

#1 계연 이젠 그럭저럭 헤여 가난 아, 막 이 낙천 사름덜이 으라이 모여들언. 아 저영 스정허는디 웨 쉼장시가 안 돌아주느냐고, 돌아주라고. 아 이젠 허니까 그 놈은 받아먹을 만이 받았지. 난 비싸고 싼 건 몰라. 사고픈 건 사만지민 지꺼지니까. 이젠 탁 사 놓고, 돈은 으정 가지 아녜지. 이젠 그 낙천노인회장 험주마는 가네 아방 아직 아, 돈을 아이 ㄱ져완에 이거 생물 위상은 아니 뉘 거꼭 성의나 먹어놓고 허게 돈을 꺾와 십서. 나 즈낙인 으져 오쿠다. 밤이라도 그땐 차도 웃고 헌데 걸영 텅길 때난 ㄱ수운 것도 없어.

@1 으.

#1 켜 썬 밤에 으져간 돈 물멍 헛는디 아, 그 놈의 것도 그 새끼 경헌디 다음은 뉘난 또 뉘만이 난.

@2 (웃음)

@1 (웃음)

#1 아, 이렇게 멍챙이랑 쉼장실 허지 말아야 뉘 건디. 할망은 그런 건 모르꼭 무조건 장시도 안 해본 멍챙이가 쉼 사들염젠.

@2 예.

#1 \*\* 실편.

@1 예.

#1 쉼 것도 썬줘야 뉘고 허니까 거 실편. 경허연 쉼 일곱 겔 멘들앗어. 일곱 개 멘들앗는디 아, 혼번은 아, 쉼을 놔두니까 엇언. 야, 이거 어디 곡석밭디 가시민 큰일 났다 허연. 아 이제 이 인녕이라 헌디 우리 웨스춘이라, 또.

@1 으.

#1 웨스춘 ○○○이 알지?

#2 예.

#1 ○○○이네 밧디 갓어. 그때가 팔월 그물언에, 조가 뉘 익을 무렵이야. 익진 아녀고 고개 막 숙연. 조가 워낙 좋앗어.

#2 아고, 그땐 조.

#1 켜에 두 말, 나보기에는 두 말지기벧고 아이 뉘직헌디 그 우리 형님은 서 말지기에 헌디.

#2 질어염 밧 아니, 거.

#1 쉼 촛단 보니까 아, 그 조팻디 그 일곱 머리가 들었. 뒤 갠 드러눕고. 오죽 실패사 드러눕게.

@1 (웃음)

#1 쟁 이젠 밧디 간 보난 그.

@1 완전 다 조팻디.

#3 다 먹어 불었.

#1 조 어.

@3 어, 다 먹어 불었?

#1 먹다 시난 이 고고리가 영 숙여 놓난 혼웃이 먹진 못허지, 허지마는.

@2 예.

#1 텅기가민 불려지곡 또 누우민.

@1 다 꺼꺼지고.

#1 아이고, 이거 나 밧이라도 안 사켄. 이젠 이 소는 다 이제 조깅으로 물어야 뉘겟다, 각을 해놓고.

@1 (웃음)

#1 이젠 솔 몰안 이젠 조그만헌 밧디 간에 갠혀두고 이젠 밧임젤 좇아야 뉘거든.

@1 예.

#1 거 모르게 허민 요즘도 저 자동차 도주 쉼, 도망 쉼로.

@2 (웃음)

#1 곱배기 줘야 뉘지 아녀.

@1 예.

#1 즈수해야지, 안 뉘겟다고. 이젠 인녕이 천지 텅기멍 저디 저 조팻 누게네 밧이우겐 허난 ○○이네 밧이라. ○○이엔 현 건 우리 스촌형님이거든.

@1 예.

#1 아이고.

@1 다행이다.

#1 아이, 다행이라, 더 큰일이지게.

@2 (웃음)

#1 놈광 놈은 싸우멍 뜯으멍 흥정한다.

@1 예.

#1 사촌, 웨사촌 성젠디 우리 어머니영 오빠 아들인디. 아, 느리렌은 못헐 거고. 또 우리 형님도 저 백만 원 받을 건디 또 오십만 원만 득렌 못허곡.

@1 으.

#1 또 그렇다고 백오십만 원 득렌 못허곡. 야, 이거 큰일 낫다고 어평허리. 이젠 아는 사람 이제 하나 불려단 밧 헤득렌 헤연 간, 이만저만 그 밧디 형님네 밧이우파? 으게. 이젠 겨난 어평 들었서? 하이고, 그 조 보난 상당히 좋읍디다만은. 건 나 곧기 전에 그 밧디 스물넉 십 난다. 옛날.

@1 어.

#1 조 스물넉 섬 난덴 허믄.  
 #2 아이구.  
 #1 열다섯 말씩.  
 @1 으.  
 #2 스물네 개 난다는 거라.  
 #1 스물넉 섬이 난다.  
 @2 아.  
 #1 아이고, 이젠 그 밧은.  
 @1 느착허연.  
 #1 이젠 마타 네렌 헐 거고. 난 우리도 조 서너 말 지기 갈안에 조가 좋았는디 그때도 우리 혼 댓 섬 헤 먹언. 서너 말 지기.  
 @1 으.  
 #1 건디 그 조, 조론 텍 안 맞을 거라. 나냥으로.  
 @1 으.  
 #1 이제 그 쉼 먹단 걸랑 나가 장만헌텐 헤도, 장만헐 게 열매 없어. 삼분의 이 정도난.  
 @1 (웃음)  
 @3 예고, 예고.  
 #1 가심은 터지고 그래도 묵인헐 순 없고.  
 #2 게.  
 #1 이젠 손 부미명 절을 헛지. 큰 쥐를 젓으니까. 예, 흘 수 엇이 강 흥정을 해야 웬다고. 이제 불가불 그 변상해야지. 이제 열맬 허민 벤상이 뉘쿠과? 아시영 나영 흥성 못허크라.  
 @2 아.  
 #1 건 요거 이젠 큰일 낫다 허연. 게나마나 밧으로 마타불쥐. 밧으로 마트민, 밧 마트는 건 이젠 문제가 아닌디 이제 밧깍을 어떻 행 으져 읍니까. 옛날 그거 난 아니헤도 스물넉 섬 나는 거난 조 스물넉 섬만 시껴와 불라게. 조 스물넉 섬이.  
 @1 (웃음)  
 #1 아, 그만이헌 밧.  
 #2 아이고.  
 #1 우리 조도 그만이 좋았는디. 아이고, 그거 쥐도 텍 아이 맞을 거고. 건 큰일 난. 이젠.  
 #3 야.  
 #1 더 좋은 방식이 시난에 아시영 나영 흥정을 허게. 하이고, 고맙수텐. 어떻 허민 좋쿠젠. 꺾만 맛좌 줍센. 경 낫사 낙천 간 사오고렌 헐 그 암송아지가.  
 @1 예.  
 #1 예미보다도 더 커.  
 @1 아.  
 #1 두 슬짜리가.  
 @1 예, 예.  
 #1 원 나뿐이 아니고 늬이 봐도 욕심이 난 건디 그 송아기영 그 조영 바파불게. 어떻사

지켜진다.

@1 (웃음)

#1 까격이랑 야칸하고 나가 밋젓건 우리 형님이 밋젓건.

@1 해결됐니까.

#1 해결됐니까.

@1 (웃음)

#1 난 죽어지카부텐 와당와당. 아이고, 좋수다.

@1 경험서.

#1 나 에미깟지 드리크메.

@1 (웃음)

#1 새끼만은 너미 싸우다. 나 이거 돈도 하영 쥘 샅지마는 에미깟지 드리크메 형님 글읍 서 허난, 예, 게민 나가 너미 욕심 썰영 아니 똤다.

#2 경 흐깁만 허민 다 줘 불엇주게.

@1 으.

#1 새끼만 드라. 견헨 해결헸는다. 애 조고만이 좇아, 그거.

@2 (웃음)

@1 계난.

#1 쉼 질환 흐꿈 돈 별젠 허당.

@3 예.

@2 (웃음)

#1 그 쉼 질환 손해가는 거보단도 그 순간 애쫌는 게.

@3 예.

#1 이만저만 아니라.

@1 맞아.

#1 요 흐루도 이것도 말이 또 짝난디, 요디 저 아방은 미국 살단 죽어 불고 미국 각시 두고 아들 즈식들이영 뒤똥 오란 혼자 독신만 과수원 관리허는 사름이 잇는다. 어찌 과수원 허단 과수원 이 주인은 그 방풍림들이영 막 가지치기 허여근에 삭양 삭다리덜 잇고 허니까 이 화입이 상당히 인화가 쉽주기게.

@1 예.

#1 겐 무시거 흐쫌 어염 케우젠 허난 브름사 불어신디 와닥닥와닥닥허난에 놈의 그다음 밧은 과수원이라.

@1 어.

#2 하우스.

@1 아.

#1 놈의 과수원 하우스 타 불고 낭 타 부난 그 열매.

#2 얼마 헤신고 그때.

#1 돈, 돈은 요흐루기 곤는 거 들으니까, 낭 그 멧 주엔 헤라마는. 멧 주에 손해가 시니까 삼 년 생이야 온다 이저여. 견.

@1 삼 년 치까지 다 물고.  
 #1 어, 어.  
 #2 경혈 사람이라, 그 주인이.  
 @1 아.  
 #1 아, 남에 멧 관이나 멧 관이나 나니까, 시세가 얼마니까 삼 년 수확을 달라 허연. 거 확실한 액순 몰라도 우리 회장 말이 경 험 해결 뵈젠.  
 @1 으.  
 #1 그 순간에.  
 @1 그러니까.  
 #1 경 험 그 순간 그 해결헌 때는 이제 안심험주마는 돈 벌엉 물어야겟다 허주마는 그 불 이 번질 때.  
 @1 예.  
 #1 그 애 타는 거.  
 #2 아이고.  
 #1 이만저만, 나도 해뵈.  
 #2 소방차 두 번 왔어, 흥 열.  
 #1 으.  
 #2 어, 초저녁이 완 꺼뵈 간. 꺼뵈 간 것이 똑바로 못 꺾, 바람 불어가니까 걸 튕겨간디.  
 #1 그, 그 애 탈 때 생각허믄 나도.  
 #2 야, 불.  
 #1 흥번 해뵈는디.  
 #2 벌금 나올 거라, 저거. 벌금 많이 나와.  
 #1 보리 비어 가지고 보리그르를 요 그 ○○이 빌언.  
 #2 으.  
 #1 보릴 헤 놓난 이만인허게 보릴 비어 불었어.  
 #2 으으.  
 #1 갈젠 헤도 얼른 밧 갈아도 썩지 안 헐 거고.  
 #2 맞수다.  
 #1 기계 걸릴 거고. 불 부껴야 뵈겟다고. 불 부치난 어뵈 행 그 어염에 멩심허연 요만이 부껴민 끄꼭끄꼭 허멍 흥단도.  
 #2 게.  
 #1 그, 날 좋은 날이난에 넘어가는 거 몰라.  
 #2 예, 예. 넘어가마씨.  
 #1 아, 저만이 간 보니까 아, 조름에 불이 부뜸거든. 으씩허게 놔의 밧디 허민 그 좌씨 좌 전이라.  
 #2 아.  
 #1 송동믄루 우리 좌전 나.  
 #2 예, 예, 예.

#1 영 허민 이거 큰일 낫다고 허연 그때 아, 우리 땀이 나고.

#2 그땐 볼 부풀 데가 \*\* 족앗수광계?

#1 응.

#2 흠썸만 허민 와랑와랑 뒤.

#1 으, 그거 춤. 애타는 게 경 행 농사짓젠 허민, 춤.

#2 아이고.

#1 그거 춤 그보단 난 더 크게 해보진 안 헛는다.

#2 이 제주도 풍속이 빨리 돌아와야.

#1 농사짓젠 허민 그렇게 애 타는 거, 아이 탈 일이 셔.

#2 돌아오진 안 헐 거고 잊어 불진 말아야주.

@1 맞수다. 잠깐만예.

(부분 생략)

### 쉐 먹이기

@1 허커라예.

#1 어디꺼지 갓더라.

@1 이제 그 목장. 쉐 질루젠 허거나 이제 뭇 질루나 목장이 있어야 뒤잖아예?

#1 응.

@1 옛날에 허나씩 질룰 때는 뭇 목장 개념은 없겠지만 그 쉐 질룰 때는 어디서 질랏수과?

#1 하나씩.

@1 헐 때부떠.

#1 처음.

@1 처음예.

#1 건 자기 만씩.

@1 으.

#1 어디 끌고 나가서 길레서도 맥이곡, 어디 좀 자기 밧디도 맥이고. 아무 때도 공지는 잇엇으니까.

@1 예.

#1 예를 들어 이제 새신악같이 그런 디 가서 맥이고.

@1 으.

#1 그러니까 한 머리당 뭇 가정마다 한 머리 더 이상 안 질랏지마는 한 머리당 한 사람이 톱 끌고 다녔지.

@1 으.

#1 이젠 내중에는 그 암소를 질루고 해 가니까. 뭇 거, 부룽이 한 머리씩 질룰 때도 그 둔을 받지. 한, 일 개 반이 모여서.

@1 으

#1 테, 텃쉐라고 해서 테, 텃쉐 보자 해서.



@1 으.

#1 그러든 열 가구면은 열흘에 한 번씩. 아침에 몰고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1 으.

#1 그렇게 허다가 이젠 암소 질려서 많이 이젠 두수가 번식돼 가니까 공동목장을 해야 될 것다. 그래서 이젠 혼자 그 당번허기도 번거로우니까 이젠 둘씩 베틀해서 하자. 베틀해서 해야 앞에 가는 소는 일로 갈까 절로 갈까 모르니까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말 안 들으니까. 한 사람은 앞에 서서 잘못 가가면 거기 못 가 일로와 해서.

@1 으.

#1 인솔하고 또 뒤에서는 낙오자덜 몰고.

@1 응.

#1 게서 또 그뿐만 아이라 또 정심 먹을 그 시간 교대도 하고. 그때부턴 둘이 하고. 또 이젠 막 번식해서 한 집안에 혼 네 마리, 다섯 마리는 보통 여간 오십 프로는 댕 머리씩 질렀지.

@1 예.

#1 그 당시는 인젠 그 우리 동네 경우는 인성, 안성, 신평 그 타 지방에 목장을 세 내 가지고.

@1 예.

#1 임대 내서 년 얼마 해서. 거기 가서, 놔서 또 갔다왔다고 번거로우니까 아예 밤에 오지 않고 거기서 잠자면서 직하고.

@1 으.

#1 그렇게도 해나고, 것이 마지막.

@1 예.

#1 그렇게 허다가 경운기가 나고 기계화가 돼 가니까, 이젠 소 수익성도 먹살 나고 다 풀 아치와 가지고 이젠. 우리 부락에는 현재는 소 길루는 사람이 건 영업으로 기르니까.

@1 예, 예.

#1 그런 사람은 혼 뒤 사름 잊지마는, 가정적으로는 다 씨 끊어 불었지.

@1 게니까 댕 년도까지 쉼 질렀수과? 집에서.

#1 나의 경우는 연도가 댕 년도 댕나? 오십대 댕니까 솔 치왔으니까.

@1 으.

#1 오십이든 삼십육 년 전. 그럼 댕 년도 댕까?

@1 팔십 년대.

@3 팔십, 구십일 년?

#1 으, 으, 그렇게. 팔십팔 년도, 팔십구 년도, 한 팔십오 년도까지, 팔십육 년도까진 질렀네이.

## 쉐테

@1 예, 그 아까 이제 둔 짓엉은에 하잖아예. 여기서는 둔을 뒸를 둔이렌 해마씨?

#1 테.

@1 테.  
 #1 응, 쉼테 보레 가자.  
 @1 으, 쉼테 보레 갈 때.  
 #1 널 쉼테 당번 누구? 이렇게 헛지.  
 @1 그니깐 둔, 둔은?  
 #1 둔은 조금 그 표준어지.  
 @1 으. 게난 둔이라고 얘기를.  
 #1 어.  
 @1 예전에 목장을 허면 둔 짓다고 이렇게 하잖아예.  
 #1 응. 현재 우리가 사용하지만은.  
 @1 으.  
 #1 우리 그 당시에는 아주 케케묵은 그 우리 여기 방언이지.  
 @1 으.  
 #1 순 사투리.  
 @1 쉼테.  
 #1 쉼테.  
 @1 예.  
 #1 쉼테 모이자.  
 @1 응.  
 #1 널 쉼테 누구 보러 갈 거? 또 하나 일르른 누구 당번인디 누군가 저 쉼테 당번인디 쉼  
 일러 먹언?  
 @1 으.  
 #1 데움헛다고.  
 @1 예.  
 #1 그렇게 판단허고.

### 목장 이용

@1 그 아까 목장 인성, 안성, 신평 강은에 목장을 빌렸잖아예.  
 #1 으.  
 @1 그때 그 빌릴 때는 그 샳 같은 거는 어땜 줬수과?  
 #1 샳 같은 건. 걸 얼마 준 걸 기억이 안 나네이.  
 @1 으. 그거는 이제 모르고.  
 #1 응. 또 내중이라 가니까 뭐 샳도 안 물고 그자, 그자 그 관리 겸.  
 @1 예.  
 #1 그렇게서 보기도 허고. 거기는 워낙 그 멘적이 널러 놓니까, 또 그 보성 같은 데는 또  
 여기보다도 좀 해변가라서 소도 많이 안 질렀지.  
 @1 으.  
 #1 그레 목장이 그렇게 필요도 없곡. 또 무슨 나물 기르든지 뭐 어떻게 뭐 재배를 해서

그 수익성 목장도 아니고 면적만 차지했지.

@1 그난 이 산양 자체는 그렇게 쉼 영 질룰 목장은 엇어난 거마씨?

#1 아, 근처 이서도 면적이 얼마 안 돼지.

@1 아, 안 돼니까.

#1 먼저도 말했지마는 그 큰영, 그 곳자왈.

@1 예.

#1 자왈 돼 놓니까 소 먹을 풀이 그렇게 많이 안 났어.

@1 으.

#1 경 행 우리 그 산양리에서 이제 기르는 그 소떼들을 먹다가 모자래지.

@1 예.

#1 면적상으로, 그러니까 이웃디 가서 임대 내다가.

@1 여기에서는 다른 목장의 쉼을 올리거나 영들은 안 헛수과? 겨울에?

#1 내중에는 그레 올렸지.

@1 어디, 여기 올릴 때는 어디레 올려?

#1 예. 건 개별적으로 저 동광목장.

@1 으.

#1 그레는 그 목장도 너르고 보통 그 목장을 가두와서 웨양허니까.

@1 으.

#1 게, 그런 사람은 좀 돈 풀이나 있고, 좀 워낙 두수나 많은 사람들은 간혹 헛지. 근데 우리 부락 경우는 다 자기대로 오양헛지. 그런 디 세 줘 가지고 기룬 사람은 멧 사름이 없어.

@1 아.

#1 혼두 사람.

@1 아니 웨냐하면 우리 아버지네는 하면 목장에 올령은에 메경은에 이렇게.

#1 그렇지, 그렇지.

@1 하드라고예.

#1 그렇지. 건 가정살이로 여유가 잇고, 또 내중에 장래성이 있다. 그 보통 소들은 오늘 사다가 널 팔아 먹고 헛는데, 그런 건 장래성이 잇는 것은. 좀 새끼라도 날 만하다 헛 것.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장구히 기르기 위해서 좀 세내면서 목장에 올렸지.

@1 아, 산양에서는 그런 경우는 엇고.

#1 응.

@1 여기에서 당번 정형은에.

#1 당번 해서.

@1 거기 강 줌자명은에 헛다라는 거네예.

#1 응.

@1 그렇다고 쉼 보거나 허면 뭘 일쿰을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겟다예, 여기는.

#1 그런 건 아이고. 응.

@1 으.

#1 내가 췌 한 머리 해서 어, 같은 그 췌둔을 지었던 열 머릴 지었던. 뭐 너는 소가 많으니까 뭐 이틀 봐라, 사흘 봐라 이렇게도 안 허곡 인심이 좋으니까.

@1 예.

#1 그러다가 내중에는 또 그런 영향도 있었어. 너네랑 혼자만 봐, 아들이나 딸이나 데려가. 너넨 소가 많으니까, 이런 뵈도 잇었지.

@1 응.

#1 건 보통 전례는 아니고 내중 뒤편 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 양심이 잇으니까 죽진해서 그렇게도 허고.

@1 으.

#1 하나 잇는 사람하고, 열 잇는 사름 맞서지 안 허니까. 그런 예도 잇었지.

@1 으.

#1 췌 처음에는 그런 예가 었고.

@1 그치록 췌 봐주는 사름을 이제 뭐 불르는 이름도 이수과? 뭐 옛날 허면 무신.

#1 건 췌테우리라.

@1 테우리.

#1 췌테우리, 뭇테우리 허는디.

@1 으.

#1 그것은 아주 영업적으로 허는 사람. 또 그 일당이나 뭐 쌀이나 그 샅 받아서 허는 사름을 말헌 거고.

@1 으.

#1 여기는 다 자기 만씩 집집마다 그 좀 췌테우리니까.

@1 예.

#1 그런 용어를 안 썼지.

@1 예.

#1 걸 아주 전업으로 하는 사람보곤 췌테우리.

@1 으. 그난 옛날에 만약에 뵈 불리거나 조 불릴 때 이 동네는 불려보지 안 헛구나예?

#1 어, 많이 불렸지.

@1 으.

#1 경 우리가 문화재 나갈 때도 나도 다 인솔해서 헛지마는 그 산뒤 불리는 문화재라고 우리가 헛어.

@1 예. 예.

#1 저지, 청수, 낙천, 산양, 사 개 리가 합쳐서 면에서 차출해 가지고.

@1 으.

#1 게서 나도 그 저 그 무슨 운동장?

@1 여기.

#1 공설운동장.

@1 공설운동장, 종합경기장.

#1 응. 그깟지도 가서 헤낫지, 좋은 목청.

@1 응.

#1 마이크 대고 올리났는데.

@1 예, (웃음) 산뒤 블릴 때예?

#1 응.

## 먹이

@1 나중에 산뒤 블리는 소리 한번 해 주고예. 그 계믄 이 쉼 멕이젠 허면 쉼출이든 아니면 콩죽이든 이런 거 썩도 줬잖아예.

#1 으.

@1 그 들이나 쉼나 먹는 거는 무시겨 먹어수과?

#1 이거 보통 세폴이라 허지.

@1 예.

#1 그 고지 가서 비어오는 출.

@1 예.

#1 그런 거 비어서 저장헐다가 허고. 또 곡초. 뭐, 이, 조 허믄 조직.

@1 으.

#1 조 나무.

@1 으.

#1 또 콩 장만 허믄 그 콩꼬질이라고 여기, 또 고구마믄 고구마줄기 말렸다가 다 늘어놔다가. 것이 그 주 양식이고. 거 해변가 사람덜은 보통 육지서도 그러는디 썰어서 그 곡식으로 죽 썬도 멕이고 헛는디, 여기는 워낙 그 급식으로 살찌 가지고 비육 시켜서 장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덜은 곡식을 죽 썬 가지고 멕이는데, 보통 밧 갈고 기루는 사람은 그렇겐 흘수 엇고 절약상 모자레니까 그자 건초로만.

@1 아, 건초로만.

#1 건초도 저 그 뿌리꺼지. 뿌리는 이, 비니까 뿌리는 아이지만, 저 덩체기.

@1 응.

#1 밧, 이 덩체기는 그 너무 쎄니까, 소들이 냉기거든.

@1 예.

#1 먹다가 대체로 냉겨 붙어. 것이 거름똥곤 헛는디. 것꺼지 우리는 또 다 멕이기 위해서 이제 작두로 썰어 가지고.

@1 으.

#1 썰어 가지고 멕일 정도로 보통 허고.

@1 응.

#1 그 뭐 쉼것통이라나. 쉼밥통.

@1 예.

#1 육지 사람덜 쉼밥통 만들어 가지고.

@1 으.

#1 그릇에 그 못채 풀엿 내 불면은 곡데기 중도막으로 우터레만 먹고 밧에 쎄니까 냉기겨

든.

@1 예.

#1 또 그걸 냉겨야 튀비도 헛지만은. 기름을 해서 쫓는데, 그걸 우리는 애석허거든. 뭇궤 치 멍심해서 어깨 아프게 비어다 놓은 출을 이제 냉겨서 밍아 분다고. 게서 그걸 다 먹기 위해서 썰어서 쫓지.

@1 게믄 먹던 데취를 가져당은에 또 썬 거라마씨? 아니면.

#1 아니, 아니.

@1 아니면 따로 미리, 어.

#1 으, 우알을 가리지 말고 깨끗이 다 먹어라.

@1 으.

#1 그래서 썰어 주고.

@1 썰엿 주고예.

#1 응, 먹다 남은 데취는 자기대로 밍아서 다 걸름이 뉘니까.

@1 으.

#1 걸름으로 쓰고.

### 쉐것통

@1 그 쉼 게믄 먹이 주면 옛날에는 구시들 이서나지 안헤수과? 구시는 여기는 맨들어 보진 안헛? 쉼것통. 출 줄 때 그냥 땅에 주거나 쉼막에.

#1 응, 그러지, 아까 나 말한 게 그거지이.

@1 응.

#1 밥통이라고 해서 쉼 머리맡에 다 만들어 가지고.

@1 응.

#1 그렇지 못헛, 준비 못 헛 사름은 다락이나 뉘 멍텅이나 그런 것에 놔서 주고.

@1 그 쉼것통은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들언마씨?

#1 여기서는 보통 저 담 싸 가지고, 콘크리트해서.

@1 으.

#1 도고릴 만들어.

@1 으.

#1 그 도고리 같은 거 뉘 다락 궤튼 거 놓면은 쉼 그 주둥이로다 케우려 어퍼 버리니까.

@1 예.

#1 딱하게 쉼 머리맡에 그걸 만들어.

@1 으.

#1 육지선 보믄 보통 저 고목들 헤다가 파서 허는데. 우리 제주도서는 그런 디는 벨로 웃고. 거 처음에는 다락 같은 거 도고리라 헛지.

@1 예.

#1 나무로 판 거 그런 걸 헤다가 이젠 자꾸 거 좀 둥글치고 거 깨고 헤 가니까 이젠 그 공고리판이 낫지. 으, 오양간에 저런 구석 같은 데.

@1 예.

#1 담 싸 가지고 콩고리 해서.

@1 콩고리 해 갖고.

#1 으.

@1 게 그 콩고리 현 거를 도고리엔 해? 아니면은 것통이렌?

#1 쉼것통.

@ 쉼것통예.

#1 으.

@1 그냥 통치록 만드니까예, 예.

#1 응. 육지 사름은 소밥통이라는데 여기는 밥이엔 아녀.

@1 으.

#1 쉼것이엔 허주.

### 출 비기

@1 쉼것, 으. 그다음에 이제 그 그냥 여름에는 그냥 쉼 강은에 맥영 오주마는 아까 그 출  
덜 비어알 거 아니라예?

#1 으.

@1 출은 어떤 식으로.

#1 출은.

@1 언제 어떻 빙니까?

#1 팔월.

@1 으.

#1 팔월 나면은. 예, 팔월 전에는 보통 이 동남풍이 부는데.

@1 예.

#1 팔월이 나면 가을이 들어온다, 겨울이 온다는 그 신호가 저 북풍이거든.

@1 으.

#1 북풍을 보고 두세브름이라고 해.

@1 예.

#1 그러믄 여기도 그 전설에 이제도 남아 잇는데, 사름은 죽엇지만은. 팔월 나 가지고 선  
선헌 후제 보문 사람덜도 옷 곁아입거든, 저 접옷.

@1 예.

#1 안팎 현 옷. 이제 그 두세브름 터졌으니까 예, 이제 가을이 들엇다. 출 비레 나가자.  
이런 한 잔 먹어지믄 거리 돌면서 웨던 사람이, 이제 살앗으믄 아흔넷인데.

@1 으.

#1 사태에 죽엇주만은 그 사람보고 드러 우리도 흥내내고 웃고 헛지.

@1 으.

#1 건 우리가 늘 에 지켜오는 계절풍이고 풍속이지만은 그 사름은 한잔 먹은 브람에 흥청  
망청해서 그런 얘기를 허니까 아주 역사적으로 남지.



@1 으.

#1 지금도.

@1 게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접옷을 입은 거라예?

#1 으. 그러든 그 당시는 출을다가 아침에 가서 비면은 오후에는 말라.

@1 으.

#1 오후에는 무꺼, 또 어린 출들은 어, 그렇게 못해서 뒷날 무끄고 허는디, 또 뒷날이나 안 들랏다고 해서 무끄다 보면은 비가 오면은 천만 낙심허는 거여.

@1 으.

#1 우리 곡식이나 모든 것이 그 건조허다가 비 맞히든 그만큼 손해거든. 맛도 없어지고 또 색깔도 나빠지고, 그러니 소가 먹을 양식이지만은 사람이 애삭해서 분통이 깨지디. 그러니까 것도 날 보면서 두세브름이 터져도 계속 날 좋은 게 아니니까, 그 고리.

@1 예.

#1 틈을 타서 한 사흘 날 좋겠다 할 때는 출 비어서 말려서. 요즘은 그, 것도 말리지만은 비니루 막 싸잖아.

@1 예, 예. 둥그렁, 하얀 거.

#1 으. 그런 식으로, 건 저장할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1 예.

#1 그때 우리는 그렇게 비어다가 손으로 무꺼서 요만큼 무꺼 가지고 걸 혼 뭇, 두 뭇 허는데. 실어다가 놀지. 뱅뱅 돌아가면서 놀 놀어.

@1 놀 놀어근예.

#1 응. 느람지 더끄고 주쟁이 더끄고.

@1 응.

#1 요즘 사람은 느람지, 주쟁이허든.

@1 몰라도.

#1 모르지. (웃음)

@1 게난 그 출 비면 쉼 혼 머리가 뗏 바리나 먹어마씨?

#1 보통 열다섯 바리.

@1 열다섯 바리.

#1 응.

@1 여긴 혼 바리 뗏 뭇이우과?

#1 마흔 뭇.

@1 마흔 뭇예, 으 마흔 뭇.

#1 그러니 그 드르예 가서 비어오는 걸 새꼴이라고 허는데, 그 출은 마흔 뭇이라 허고, 우리가 곡초.

@1 예.

#1 이 조 허든 조직.

@1 으.

#1 조 나뭇대는 이제 서른 뭇을 한 바리라 허고.

@1 으. 산뒤는?  
 #1 산뒤는 그렇게 많이 안 허니까, 산뒤도 마찬가지.  
 @1 서른 못.  
 #1 것도 곡초니까.  
 @1 곡초니까.  
 #1 으.  
 @1 보리는?  
 #1 보리짚은 그 당시는 안 먹었어. 요즘은 보릿대도 다 소 양식이지만.  
 @1 그래도 실렁 오젠 허면은 땃 못이 흔 바리? 보리는.  
 #1 보, 보리는 스무 못.  
 @1 스무 못.  
 #1 으.  
 @1 으.  
 #1 열 못씩.  
 @1 조, 조는? 조 고고리 이신 거.  
 #1 조는 서 못, 너 못.  
 @1 으.  
 #1 그렇게.  
 @1 그렇게, 크게 이렇게.  
 #1 그 질메가 그 골이 세 개라.  
 @1 예.  
 #1 가운데, 앞, 뒤. 또 내중에 쪽 가운데 바깥디 놓는 걸 골침 놓는다 해 가지고 흔 못 더 놓든 조는 보통 흔 못씩 흔 골에 놓던지 또 나쁜 조. 대가 안 나고, 대가 안 나든 못 분량도 족게 무끄거든.  
 @1 예, 예.  
 #1 그러니까 두 못씩, 게서 약간 이 흔 바리를 열 못 잡았어.  
 @1 으.  
 #1 열 못.  
 @1 열 못, 조는예. 고고리 이신 거예?  
 #1 예.  
 @1 으, 아까 그 골침은 두 개 영 얹어 놓는 걸 경 골읍니까?  
 #1 응, 골침. 또 이렇게 양쪽으로 놓다 보면 우에는 쯤.  
 @1 남으니까, 으.  
 #1 저, 면적이 잇잖아.  
 @1 예.  
 #1 그 면적을 그대로 두기, 내불기 애삭해서 우에 톱 한 못이나 두 못이나 서 못이나 뉘.  
 @1 응.  
 #1 그런 거를 골침, 그 밖에 즽찌는 거, 거 골침.

@1 골첨예. 계난 그 공간도.  
 #1 굴룬치기다 험 말이.  
 @1 응. 굴룬치기를 골첨 이렇게 얘기를 하고예. 그 쉼출 벨 때 아까 두세브름 헛잖아예.  
 #1 으.  
 @1 여기 바람 방향, 아까 북풍이.  
 #1 북풍을 보고.  
 @1 그믐 동쪽에서 오는 브름은 뭐우파?  
 #1 동쪽에서 오는 건 셋브름.  
 @1 으, 그다음.  
 #1 남풍, 요즘은 남풍. 장마에 부는 건 남으로 오니까.  
 @1 건 무슨 브름?  
 #1 남풍 그냥.  
 @1 남풍을 이 동네 말로는?  
 #1 응?  
 @1 마브름.  
 #1 마브름, 으.  
 @1 응. 그니까 셋브름 불고, 서쪽으로 오는 거는?  
 #1 서풍이엔도 허고. 건 것도 표준어는.  
 @1 아이고, 튼내지 못헬구나, 잊어불엇구나예.  
 #1 응.  
 @1 갈브름?  
 #1 갈브름은 그레착 저레착 헐 때.  
 @1 으.  
 #1 지정허지 못헐 때 갈브름.  
 @1 어, 아부지.  
 #1 그러니까 요즘 브름.  
 @1 서풍을 갈브름이렌 허는데.  
 #1 그렇게 헛던가?  
 @1 예, 그다음에 하늬브름은 뭐우파?  
 #1 그게 북풍.  
 @1 북풍예. 거난 하늬브름이엔도 허고, 두세브름이엔도.  
 #1 북쪽이엔도 허곡.  
 @1 북풍이엔도 허고 허는구나예?  
 #1 응, 하늬펜이.  
 @1 응.  
 #1 북쪽बाट을 하늬펜밧, 하늬펜이.  
 @1 북쪽하고 동쪽 사이에 오는 북동풍은 뭇렌 험니까?  
 #1 그, 그런 걸 셋브름이엔 허지.

@1 응.  
 #1 동남풍.  
 @1 으.  
 #1 이제 동북풍.  
 @1 으.  
 #1 그.  
 @1 우리 겨울에 북동풍.  
 #1 그 사이로 오니까 셋브름.  
 @1 으, 셋브름.  
 #1 으, 지정 방향으로 오는 거 동풍.  
 @1 으.  
 #1 마브름, 남풍.  
 @1 으, 그난 두세브름이 북풍이 아니라 두 쪽 사이에 들어오는 브름 아니마씨?  
 #1 그렇게 헛는가, 야간 우리는 기자 겨울바람.  
 @1 겨울바람.  
 #1 하늬브름이렌.  
 @1 으. 하늬브름.  
 #1 응.  
 @1 하늬브름예. 하늬브름허곡 이제 두세브름 근데 여기서는 두세 터지면.  
 #1 어, 그렇지.  
 @1 그 두세 터질 때가 혹시 팔월멧질?  
 #1 팔월.  
 @1 팔월멧질쫘.  
 #1 백로가 지나서.  
 @1 으.  
 #1 팔월절이 백론데, 백로가 야, 두세브름, 백로가 와가든 두세브름 터지니까.  
 @1 으음.  
 #1 요즘은 농사는 이 절기 없이.  
 @1 예.  
 #1 지키는데, 옛날은 꼭꼭 그 농번기 농한기가 지정돼 잇거든.  
 @1 예.  
 #1 그러믄 그 소위 유월 스무날은 독 잡아 먹는다. 유월 이십일까지는 죽저살저 막 길 때  
 라 말이며, 농민들이.  
 @1 예, 예.  
 #1 게니 농사 다 지고 이젠 농사들은 조 같은 거 나서 무성허게 커가고, 사름이 쪼금 한  
 글헐 틈이 보기허는 틈이다 우리, 갯 닭 잡아 먹는다.  
 @1 으.  
 #1 요즘은 독 장에 가든 뭐 두세 머리라도 사오주마는, 그땐 한 머리 잡으믄 일곱 식구

으뎅 식구가 한 점씩.

@1 으.

#1 어린애는 가심술 주고, 아방은 머리뺍 먹고, 발 먹고 그런 시절이지.

@1 어머니는 뭐 먹어?

#1 어머니는 팥 다듬앙.

@1 (웃음)

#1 애들 다듬아주다가.

@1 그 우리 그 덕 잡아먹고.

#1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멍 고기 안 먹어, 팥만 먹어. (웃음)

@1 팥만 먹어. 지네 주는 건 모르고.

#1 어. (웃음)

@1 보통 우리 저기 닭 잡아 먹을 때 어머니는 장독을 먹던데.

#1 으?

@1 장독.

#1 장, 장독?

@1 예.

#1 그, 그것은 조금 그 어떠한 그 비결 방식이고.

@1 으.

#1 남자는 암퇘지를 먹고.

@1 응.

#1 게니 그런 거까지 우리 어린 때는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

@1 으.

#1 암퇘지건 장독이건 우리도 식구 많이 살았는데 두 머리카 잡아보지 아녜어.

@1 아.

#1 그래서 나는 이젠 그 닭을 일부러 질러야 돼겠다. 이런 때를 보기 위해서, 조금 질러놔는디. 그런 때는 식구 많은 딴 켜당침이이.

@1 예.

#1 두 마리도 주고, 또 혼자 사는 딴 작은 걸로 혼 머리 주고, 그렇게 식구 마련해 뵈는데. 그건 이 근래고.

@1 예.

#1 군대도 갔다오고 그럭저럭 하면서 과수원에 그.

@1 돈도 나고.

#1 돈도 뭐 난 벌여보진 못했지마는. 거 뭐야 부화장에서.

@1 예, 예.

#1 병아리를 한꺼번에 많이 사다가 질러봤지.

@1 아, 그렇게 했구나.

#1 이제 그런 것도 다 테와야 돼.

@1 예.

# 이젠 그 과수원에 낭급마다, 닭구멍마다 가서 알을 낳아. 그러믄 노는 개털 고양이털 얻 어먹기도 헛지마는. 그래서 허다가 야, 이거 너무 안 돼겟다 해서 이젠 그 그물헤 가지고 집을 지어서 요즘은 하우스지.

@1 예.

#1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헛더니, 아, 이젠 곁에 이제 개를 내가 길렀어. 쯔 밤에 어쩌 난 도적놈 오건 방지허라 해서 개를 길렀더니, 개는 또 그놈의 닭을 꿈난 모양이여. 어떻게 산디 석 끊어 가지고 그 하우스를 다 뜯언 이젠 닭들은 놀래 가지고 사방으로 막 ㄷ는 거라. 게니 질로지썩 나가 쫓다가 버친 건 이젠 그 야생이 돼 분 거여.

@1 으.

#1 저 지금도 이제 우리 집 곁에다가 그 아주머니가 살고 잇는디, 한꺼, 한번은 계란을 한 설남은 개 가져왔어.

@1 응.

#1 막 그 닭털 붙고 흑 붙고 그 겹데기가 버문 거.

@1 으.

#1 즉시 즉시 난 것은 깨끗허는디. 그니까 자기네 울타리에, 이웃 그 과수원 임자니까, 자기네 울타리 안네 가서 그 알을 난 모양이여.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득 지루다가 실패 당해 가지고 깨와서 난 거니까 갖다 준다고 그 고정헌 사름이지.

@1 게니깐.

#1 우리 집에 갖다 주고. 것도 왜 집이서 먹지 이런 거까지 가져왔느냐 포기 상태가 이거 한 달이나 됐는데 하니까 그래도 내 거 아이니까 임자안티 바친다고 가져왔다고. 그 사람이 지금도 동네에 살긴 사는디.

@1 예.

#1 그런 일까지 다 헤 봤어.

@1 예. 그 삼춘 출 비러 가젠 허면 준비힐 게 뭐, 뭐 필요험니까?

#1 으.

@1 출 비젠 허민 준비힐 게 잇잖아 미리예?

#1 준비헌다는 것은 우선 권은 방에 짓는 거여.

@1 으.

#1 출 빌 양식이라 해서 그, 그 당시에는 예, 처음에는 돌방에지마는 조끔 이제 우리가 소 지르고 살림 살고 헤가니깐 이젠 부락마다 그 정미소가 생겼거든.

@1 예.

#1 정미소가 생기믄. 예, 처음은 그 팔월 나기 전에는 자기 먹을 만씩. 또 이 장마, 지금 철에는 쯔 일어서 많이 쌀을 저장 못 허거든.

@1 예.

#1 요즘 같이 그릇도 충분치 았고 허니까. 이제 그 출 비게 되면 우선 출 빌 양식을 해야 댜다 하면서 방알 켜. 막 맥으로 이제 방엿공장에 가서 자기 잇는 한.

@1 으.

#1 뭐 스무 말이고 마흔 말이고 간에 잇는 한. 또 이제 소나 많이 지르고 출이나 밋이 너

른 사람은 노복을 빌어 허니까 양식도 많이 먹지.

@1 으.

#1 한 메칠을, 예, 출 비어야 됩니까. 건 자기 가정 만씩, 그건 다르고 준비하는 것은 예, 출 빌 양식 방에 저사 허컬.

@1 으.

#1 그 당시는 방에 저사 허컬 허지, 출, 쌀 준비해야 된다는 거.

@1 으. 방에 짱곡 그다음.

#1 또 소소히 한 머리 지르는 사람은 자기네 보통 부부간으로 일 가정이 기준해서 부부간 이 그자 호미 골아가서 비문 되는데, 소나 땃 머리 이상 많이 출 허는 사람은 우선 늙, 늙을 확보해야 됴.

@1 으.

#1 일손이 모자레니까. 그 당시에는 좀 샅이[삭씨]도 쫓지.

@1 으.

#1 예, 그 당시에 또 요즘같이 샅이라든[사기라든] 현금이 아닌.

@1 예.

#1 돈이 없으니까, 돈은 겨우 해야 송아지 푼 때, 또 계란 장에 가서 푼 때, 계란 푼 것은 돈도 얼마 안 됩지마는.

@1 으.

#1 그건 자기 바릇계기 사다 먹으론 마는데. 그런 거 웨에는 돈이란 거 용통이 안 됩니까. 게니 물물교환이야, 쌀로.

@1 예.

#1 남의 일 허는 사람은 쌀이 없는 사람이거든, 보통.

@1 으.

#1 내가 먹을 양식이 잇다는 사람은 남으 일 안 해. 남으 일 허는 건 그렇게 천하게 네것 거든, 옛날. 상늬, 양늬 요렇게.

@1 으.

#1 양반 가리듯이. 요즘은 웬만허든 농사 안 지고 남의 일 해서 샅 받아 오는 게 더 수지가 맞는데.

@1 으.

#1 게서 그 양식을 우선 준비헸고, 늬, 다음은 노복을 준비헸고. 겨곡 처음에는 소는 질랴 지마는 구루마가 없으니까 소 등짐, 사람 등짐.

@1 으.

#1 사람은 반 져야 됴. 소는 마흔 못 지는데.

@1 사람은 스무 못.

#1 사람은 스무 못. 으, 그러든 지고 소 몰고, 또 소도 하나든 좋은데 두 개 세 개 허면 은, 또 그 짐이 고르지 않거든.

@1 으.

#1 이렇게 아주 이쪽 무거웠다 이쪽 무거웠다 허니까 그것 다 발려 가지고. 그러다가 버



치른 돌멩이 하나 앓다가 그 가벼운 쪽엔 줍혀주고.

@1 으.

#1 그렇게 하면서 왔다갔다.

@1 그치록 그 이렇게 무게 중심 안 뒀니까 돌멩이 놓는 거잖아예?

#1 예.

@1 그렇게 돌멩이 잡지는 거를 뭇렌 곱아?

#1 으, 것이 골침 놓는 거.

@1 것도 골침 놓는 거렌 허고예?

#1 으.

@1 그다음에 그 쉼, 그 출 들른 출은 무시거로 무껴수과?

#1 깨라고 허지.

@1 깨.

#1 깨, 그 새, 어엽새 저 메어다가.

@1 으.

#1 그 깨 털어서 밤에는 깨 털어 가지고 낮에는 그 인력이 모지레니까 그러니 옛날 사름은 여자쫄은 잠 못 잤어.

@1 으.

#1 그 여자로 말허든 잠 못 잔다는 게 그 정미소 나기 전에 연자방아.

@1 응.

#1 들방이 지면은 깨끗이 못 지거든.

@1 예.

#1 조금 어느 정도 뒀다 두루쟁이 저 가지고. 이젠 그걸 베틀에 말려서, 조금 소락허든, 그 체와 그 보리쌀을.

@1 으.

#1 곱 갈라. 걸 체갈름이라는데.

@1 으.

#1 게니 남자들은 무거운 거 그 장소까지 갔다주고 가져오기나 하지 불림질이라 허거든.

@1 으.

#1 이 쫄팍질을 안 해. 보통 여자일로 봐났어. 그러니 여자는 내분 일이 없지, 못허는 일이 없고.

@1 으.

#1 일이란 건 건 문딱 도맡아 허고, 줍 못 자는 것도 여자, 여자가 줍 못 자고. 남자는 썩썩 또 잠잘 수도 잊지만. 그래서 체 갈라서 이제 또 걸 깨끗이 물리와 가지고 또 두볼 가서 저야 뒀.

@1 으.

#1 그것을 실름이라 허는디.

@1 으, 실름예.

#1 어, 실러다가. 이젠 잔치 때나 그 영장 때나, 대사 때는 통보리밥을 먹는데.

@1 으.

#1 그 보리쌀을 그대로 현재 같이 온보리쌀로 밥을 허는데, 것을 통보리밥.

@1 예.

#1 또 사름이 보통 식량 허는 건, 건 분리해서 반 갈라야 뉘.

@1 으.

#1 ㄹ레에 곶앙, 쟁 ㄹ레 ㄹ는 것도 양이 많은 때는 남즈도 해주지 거, 저 ㄹ레채라고.

@1 응.

#1 ㄹ렛조룩에 영 굶기 뜰른 이만큼 진 나무해서.

@1 예, 예.

#1 영 같이 돌려주고. 그래서 밤 들면은 그거 에 보리쌀 곶아야지. 보리쌀 곶면은 그대로 그 솟디 가는 게 아니고, 것도 인갈라야 뉘.

@1 응.

#1 굶은 거, 중질, 줌진 거, 또 가루.

@1 으.

#1 거기서 이제 그 슻레기, 쫄이 밑에.

@1 으.

#1 가루도 아이고 쫄 축엔 낙오자.

@1 으.

#1 그 줌진 거 보고 슻레기라고 허는디. 또 그 밥 그걸로 밥헌 건 줌쫄밥.

@1 으, 줌쫄밥, 예.

#1 줌쫄밥이란 건 이 동네도 그런 그 ㅎ쫄 그 밥이나 먹는 집, 집안에 여자 그 입에서 소리가 줌쫄밥을 어떻게 먹어, 줌쫄밥은 천허다 이거여.

@1 으.

#1 아, 그러믄 듣는 사름은 저 할망은 자기 밥 세 끼나 먹어지니까 허주마는 이건 이 세상에 전 인구를 봐서는 ㅎ, ㅎ이다.

@1 으.

#1 쟁 상당히 승보는 사름도 많앗지.

@1 으.

#1 자기는 잘 허느라고 그렇게 헛지마는. 그래서 거 다 인갈라서 건 유사시에 먹는 거야, 뉘.

@1 예.

#1 예, 곶룬 채소, 호박잎 같은 거나 뉘 이 베투나 곶룬 때로.

@1 으.

#1 국으로 헤먹고, 어떤 때 양식이 어려운 때니까 그 때식도 먹곡. 그런 걸로 때식 살라믄 조금 그 모자란 때, 그 아주 정식은 아니지.

@1 으.

#1 그 자기가 그 때를 불룰라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에 먹어서 일은 안하고 간단히 먹어서 견딜 수 있을 때.

@1 으.

#1 얼른 먹어서 잠이나 자고 할 때는 그런 걸로 해서 때를 살고.  
(부분 생략)

@1 계난, 계난예. 여기 그 께를 저기 무생이렌은 안 험니까? 이 동넨. 무생이.

#1 어, 무생이엔도 헛지.

@1 으, 무생이.

#1 께엥도 허고.

@1 께엥도 허고예. 계믄 그.

#1 무생이 틀라, 영.

@1 으, 무생이 틀라. 그 무생이를 이렇게 트는데 아까 그 새를 메어당 허여마씨? 뽀아당  
허지 않고?

#1 뽀으나 메나 건 일반인디.

@1 으.

#1 그것은 븃튼 거.

@1 으.

#1 짧은 거.

@1 예.

#1 그 각단.

@1 각단.

#1 그런 건 메고, 긴 새는 비고. 건 건 현 물품에 달려 잇는 거.

@1 으. 그니까 이제 메면은 밑엿 거까지.

#1 기니까.

@1 그래서 메엥 췌구나예.

#1 응, 응. 짧은 거. 계니까 건 저.

@1 막 에엣에 잇는 건 에엣새니까.

#1 으. 어엣새니까. 또 그렇게 많지도 앗으니까 뽀아다가. 또 뽀으면 길어 가지고. 긴 것  
을 허면은 이렇게 겹쳐서 트는데.

@1 예.

#1 이젠 마디 이렇게 겹치니까 혼 두세 겹만 헤도 뽀거든.

@1 예.

#1 거, 짧은 거 각단 이런 건 허면은 많이 틀어야 뽀.

@1 으.

#1 꼬트머리만 이렇게 어우러질 정도.

@1 으.

#1 마주 이렇게 헤 가지고 비비 꼬아 가지고 우리 저 요즘 푼는 저 파배기.

@1 응.

# 그렇게 몰아 가지고 이제 마흔 개씩. 마흔 개가 혼 바리니까.

@1 예, 예.

#1 그래서 똑똑 무꺼 가지고. 흐 짐 정 강.

@1 으.

#1 건 숫자가 해야 됩니까.

@1 그 출 비든 흐 사람이 출은 어느 정도 비어마씨? 흐루에.

#1 거 그것도 그 출밖에 매고.

@1 예.

#1 이렇게 평평한 밭, 울퉁불퉁 자갈밭이나 잇곡, 돌이나 이런 잔가지 쭈작쭈작한 디들은 이 낫질을 못 허니까.

@1 으.

#1 지장 됩니까. 이렇게 평평한 디서는 야, 건 잘 비는 사람은 두 바리, 두 바리 반. 그러든 구십 못이.

@1 으.

#1 백 못 정도.

@1 으.

#1 건 아주 평지.

@1 예.

#1 좋은 밭이라야. 또 기술이 잇는 사름이라야.

@1 으, 백 못.

#1 어.

@1 흐루에 백 못 하고.

#1 으. 건 아주 바둑도 좋고, 출도 좋은 사람.

@1 무끄는 건?

#1 출 비는 장남, 장남허는디.

@1 응.

#1 남자보고 장남이라고 허는디, 것도 여러 가지. 나 거든 사람은 예, 녀 줌.

@1 으.

#1 두 줌 해서 이디 놓고, 예, 또 두 줌 해서 요레 마주 이제 무끌 정도. 녀 줌 췌야 흐 못 됩는데.

@1 예.

#1 이제 그 그런 그 간단헌 기술자덜은 이렇게 해서 이만큼 헤여.

@1 으.

#1 흐 줌이든 흐 못허는 사람 잇고.

@1 어.

#1 흐 못에 이제 두 줌허는 사람이 잇고.

@1 응.

#1 그런 사람들은 소문난 사름, 기술자덜.

@1 갱 삼춘은 네 줌을 헤야 흐 못.

#1 네 줌, 우리는 뭐든지 핫바리니까 옛날도.

### 출 종류 및 수확

@1 계난 그 출 빌 때도, 이렇게 그 쫄른 출도 있고, 긴 출도 잇을 거 아니라예?

#1 어.

@1 새꼴도.

#1 으.

@1 그러면 그 여긴 웨동출이렌 이런 말 안 험니까?

#1 응. 웨목출.

@ 웨목출이렌 해? 여기는?

#1 으.

@1 웨목출허고. 그러믄 쫄른 출 무시거렌 곶아?

#1 아, 발메기.

@1 발메기.

#1 으.

@1 다른 디, 다른 딘 가니까 저기 맞동출이렌 험디다마는.

#1 맞동출?

@1 으, 발을.

#1 짓도 맞아. 맞, 맞부짚 거니까.

@1 계난 여긴 발메기렌 허는 거라예?

#1 으.

@1 계믄 출을 무꿀 때 발을 이렇게 엇갈리게 놓니까? 아니면.

#1 약간 엇갈리게 놔야.

@1 응. 그제 발메기.

#1 으, 으.

@1 어, 발메기라고 허고, 그냥 흔 쪽 방향으로만 현.

#1 웨목출.

@1 웨목출이렌 허고예? 보통 웨목출은 뭐 새출 그 긴 거나.

#1 긴, 긴 거.

@1 어웁 같은 건 그런 식으로 빌 건가?

#1 으, 아니, 어웁 아니라도 그 새꼴도.

@1 으.

#1 그 밧이 좋은 밧은 길게 나.

@1 으.

#1 길게 난 것은 이제 발막을 필요가 엇이.

@1 예.

#1 웨목출로.

@1 으, 경 안 현 거는 발막은 거는 아까 발메기.

#1 으.

@1 발메기에. 예, 자 그다음은.

#1 발, 으라 가지로, 똑 혼 가지로만 안 쓰주. 발막은출이엔도 허곡.  
 @1 어, 발막은출이엔 허고예, 예.  
 #1 또 발막은출이 좋아.  
 @1 으.  
 #1 좋은 것이 소가 잘 먹어, 그게 부드러우니까.  
 @1 으.  
 #1 그 웨목출이렌 양은 많이 난다 하지만은.  
 @1 데치가 하겟구나?  
 #1 어, 소들 먹기에는 좀 싫어허지.  
 @1 으.  
 #1 그들이 또 이제 거름이 많지.  
 @1 예, 예.  
 #1 데치가 많이 나오난.  
 @1 예.  
 #1 거 데치 없이 깨끗이 먹어서 우리는 좋은데, 그 거름이 작아.  
 @1 으.  
 #1 거름은 순 똥오줌뿐이니까.  
 @1 예.  
 #1 거름도 그 데치가 서껴져 썩어야 거름 분량도 많고.  
 @1 으.  
 #1 우리가 이용이 좋은디. 그것을 또 우린 싫어허지. 출을 그 대지 못허니까.  
 @1 으.  
 #1 우리 양식 모자란디 소도 봄 나가면은 출 모자라서 막 저장허기.  
 @1 으.  
 #1 으, 가을에는, 초겨울에는 팡팡 주다가, 부모네도 쉼출 주라, 쉼출 주라 허다가, 봄 나서 소출이 모자라가몬 조그만이 주라, 조그만이 주라. (웃음)  
 @1 (웃음)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면 소덜토 알아서. 아, 이거 송년 들언 뺨 고프니까 데취도 안 냉겨.  
 @1 으.  
 #1 이거 안 먹으면 더 안 주니까, 그래서 배 채우기 위해서.  
 @1 으.  
 #1 우리 그 소개 간 때, 그거 그, 사십팔 년돈데. 우리 고산 가서 한 겨울을 살았는데, 그 옛날 집은 야트잖아. 특히 사름 사는 집보다 쉼막은 더 야타.  
 @1 예, 예.  
 #1 그러몬 고개 쳐들으론 지붕 거껴져, 소가. 그럼 그신새 멧 년 묵은 그 새를 다 빠 먹어.  
 @1 으, 배고프난.  
 #1 어, 겐 나도 그걸 봐서, 예, 나도 그 송년이난 배부르 못 먹었지만은, 내가 열다섯 때.

@1 으.

#1 젠 이젠 그 소 먹는 걸 보면은 불쌍해서 이젠, 밧디 가서 놈이 동네 고산 가서 살았거든. 고산 셋동네 가서 살았는데. 이제 그 신물꺄지 와 가지고 그 조크르.

@1 예.

#1 조크르 메어다가 이 흑 닥닥 털어서 걸 이제 췌 줬어, 췌가 불쌍허연.

@1 으.

#1 어린 때도.

@1 으.

#1 췌가 불쌍헢.

@1 으.

#1 내가 밥 아이 먹으믄 배고픈 생각이 그때부턴 나도 욱앗던 모양이라.

@1 으.

#1 그랫더니 이진 쓸데 엇는 말인디.

@1 아니, 그런 거 좋아마씨.

#1 나 경우는 다심어명이랏어, 내가 열 설에 어머니가 돌아가 부니까.

@1 아, 기구나.

#1 예, 다심어명이랏는데, 다심어명은 그 췌 주는 걸 강 빼어다가 화목으로 써.

@1 으.

#1 막 밥허여.

@1 으.

#1 진을켜.

@1 예.

#1 갱헢 말제는 나는 소가 불쌍해서 그 드룻밧디 가 가지고, 그 타, 타향에 가서.

@1 예.

#1 이제 춤 학교에서 그 숙제나 낸 거 공부나 헐 거지, 소가 하도 불쌍허니까 거 헛더니, 다심어명은 이제 그 진을컬로 허연 사용헢 가니까 어떻게 미운지 속으로.

@1 으.

#1 이 그 계급이 어명이라 뭐라고.

@1 흘 순 엇고.

#1 으. 흘 수도 엇고. 경 헛당 너 밥 먹지 마라 허믄 그제야 큰일이거든. 춤 믑음은 그렇게 그 아파나기도 허고.

@1 예.

#1 재미, 재미있게 살았지.

@1 그니까 그때는 췌도 꺄치 내려간 겨우짜? 그 소개 갈 때?

#1 소가 아니믄 그 짐을 옮겨 가질 못허거든.

@1 어, 맞아예.

#1 으.

@1 그 보통 이제 그 출 빌 때 그 호미는 멧 개쫄 곶앙 가마씨? 이제.



#1 보통 혼 사름이 하난디.

@1 으.

#1 그러나 예 스피아를 뒤.

@1 으.

#1 부부간이 사는 디믄 혼 댓 개 준비허지.

@1 으.

#1 게니 남자가 그 당시는 여자가 이 저 신돌에다가 호미 곶 줄을 몰라.

@1 예.

#1 모름도 허고 아예 여자 혼 일이 아이다 해서 흠어멍들은 이웃디 남자 잇는 디 가서 빌어서 나 호미 곶아줍서 요렇게 헛거든.

@1 으.

#1 요즘은 여저도 못 허는 일이 없으니까 뭐, 다 저 하지마는. 그 당시는 딱 이, 여저가 밧 갈고, 칼 갈고, 호미 곶앙은 허주 나 불어.

@1 으.

#1 소문이 나지. 누구 예펜은 밧 갈암서, 호미 곶암서. 여자 혼 일이 아닌데, 남자 헐 일 인디 여자가 헐다고.

@1 으.

#1 요즘은 그 노래도 잇잖어. 내가 이 몸이 여자라고 처녀라고 뭐 남자 일을 못허나.

@1 으.

#1 그 그런 노래같이 여자들이 다 뱌고 이제 못 허는 게 없지.

@1 예.

#1 이것은 바로 시대 변천. 시국 변천.

@1 예.

#1 자동적으로 뛴는 거고.

### 출 종류

@1 그 출, 출도 종류가 잇잖아예? 세꿀도 보면 그 출 종류도 알아지쿠과? 세꿀. 이름?

#1 지름, 저, 왕소세, 지름소세.

@1 어.

#1 그렇게 잇지.

@1 예. 그 왕소세하고 지름소세는 어떻 트난 겨우파?

#1 그 왕소세라믄 여기 지금 대우리 같이.

@1 위로 올라오는 거?

#1 어. 크고 으물이 굵어.

@1 으.

#1 대도 썰니까 소텔 먹기가 싫어헤.

@1 예.

#1 예, 우리 저 쌀밥허고 서숙밥 요런 차이로.

@1 음.

#1 기름소세라는 건 그자 기름이 아니거든. 문지락해서 씹기도 좋곡.

@1 으.

#1 또 그 씨도 즘질아.

@1 예, 예.

#1 즘질아서 보기도 좋고.

@1 맞아, 그 그다음에 출 비영예, 아까 이제 이동을 해야될 거 아니라예? 운반허고 그 저장할 때 어떤 식으로 저기를 헛수과?

#1 그러니까 건 예, 자기 인력 만씩, 그 찰 여유가 잇는 집안은 옛날부떠도 구루마가 잇엇고.

@1 으.

#1 옛날엔 저 고무구루마도 없이 철구루마.

@1 예.

#1 어, 달그락달그락허는 거. 건 게나저나 그런 구루마가 예, 우리 동네가 육 개 반이면은 일 개 반 정도.

@1 으.

#1 비율이.

@1 예.

#1 게난 건 거보고 건 부제칩이라 허여.

@1 응.

#1 부제칩은 구루마덜토 장만허곡. 또 반이 당초 못 가거든, 아까 나 말헌 건 육분의 일 정돈데.

@1 예.

#1 또 이진 시대 변천해서 차차차차 내중예라 가니까 집집마다 구루말 장만헛지마는, 그것 이 한 사십오 년 이후에 사십오 년에 이젠 그.

@1 일제, 으.

#1 그 헤방이 뻤으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못살다가, 그 군인들이 남기고 간 그, 그때부떠 구루마가.

@1 으.

#1 보통 준비덜 헛고. 또 고무구루만 아주 그루후에 육십 년대 이상 칠십 년대 이상 이제 자동차들이 혼전헤 가니까, 고무구루만 나오기 시작헛고.

@1 으.

#1 게서 잇는 사람은 그렇게 구루마로 운반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덜은 이젠 일을 간단히 믫치거든.

@1 예.

#1 구루마 없는 사람은 열흘 갈 거문 그 사람넌 나흘, 닷새문 일을 믫치거든. 그러문 그 나머지는 구루마가 여유가 있어.

@1 예.

#1 빌려다가 써서.  
 @1 으.  
 #1 거 대리 또 일해주곡, 공짜가 없어. 요즘은 구루마 같은 건 공짜로 빌려주고 차도 뭐, 공짜로 시켜다 주고 할 때지마는.  
 @1 예.  
 #1 약간 잇고 없는 그 춤 그 빈천이 그렇게 심했다고.  
 @1 으.  
 #1 거 다 일샷으로 갇아서, 거 일샷 가프는 건 하루 일해주는 사람도 잇곡, 또 봐주는 사람은 뭐 써비스도 허고.  
 @1 으.  
 #1 인정상으로 또 안 받을 수 없어서 받음도 허고 해줌도 허고. 그렇게도 허곡. 또 그렇게 그 기간을 못 춤아 가지고 그 순간은 안 질 순 엇으니깐 저와.  
 @1 으.  
 #1 구루마 없는 사람은 등짐으로.  
 @1 등짐으로.  
 #1 그러믄 스무 못씩 져나르는 거야. 오랑 퍼팅 또. 요즘 사름이면 그 거리를 갓다왔다허는 것도 다리가 아플 텐데. 다리를 종에 아프다고 허는데.  
 @1 예.  
 #1 종에 아프는 게 없어. 안 허믄 살질 못허니까.  
 @1 그치, 그치.  
 #1 허고야 말 일이니까.  
 @1 응.  
 #1 갓다왔다 흐루 멧 번, 해가 지도록 허고.  
 @1 으.  
 #1 또 그러다가 또 비가 오믄, 집에 와서 뭇ㄴ찌 그 애쓰게 저운 거 젓지, 자 밧되서 못 저운 거 젓지.  
 @1 으.  
 #1 그러믄 가도오도 못 허고 통곡벧기 헐 수 없는 거.  
 @1 화륙지고.  
 #1 운수 팔자에 메끼는 거고.  
 @1 으.  
 #1 쟁 그럴 땐 사람이 애가 좇았다는 거라.  
 @1 예, 예.  
 #1 불쌍허게 살았지.  
 @1 으.  
 #1 요즘은 그거 뭐, 확허게 집이 강 비니루 더꺼뵐.  
 @1 (웃음)  
 #1 밧되 강 비니루 더꺼 불믄 뵐는데.

@1 더끌 게 어디 셔?

#1 비니루가 없지.

@1 으.

#1 느람지벳기.

### 출 저장

@1 예. 게니까 이제 그 집에 들어온 출은 보통 어디 눈 거?

#1 우잣다.

@1 우잣다.

#1 것보고 놀왓이라 허여.

@1 예.

#1 그러면 예, 집을 지으믄 요즘은 삼십 평도 집 짓고 오십 평도 집을 짓는데, 삼백 평 미만은 집터라고 안 헛어.

@1 옛날엔예.

#1 보통 뭐, 좁은 집터도 잇었지마는, 건 어쩔 수 없이, 게니까 우잣을 치레해야 댜다.

@1 으.

#1 그러면 어디 가서 색시를 구허, 구허젠 허믄 멘목은 물론이지마는 우잣을 돌아봐야 댜다 이거여.

@1 으.

#1 올안. 집을 지으믄 올안이 어느 정도냐 여분이 잇더냐 없더냐. 또 나가서는 그 집이다가 밧이 댜 판이나 가졌느냐. 옛날은 그 자갈밧.

@1 예.

#1 이제 자갈밧이 곡식이 잘 댜. 자갈밧이나 좀 잇는 집안인가 요렇게 허듯이. 우선 그 놀왓을 치레해야 댜.

@1 으.

#1 게니 놀왓을 치레해야 걸 텃밧이라고 허는데 승키도 헤 먹곡, 채소.

@1 응.

#1 뭐 무, 배추, 뭐 고추, 마늘 ㄱ튼 것도 댜도록이면은 남이 땅에 가서 허는 것을 싫어헛 거든. 그당시에는 이 밧도, 이제 우리 노인당밧도 이제 예, 이내왓이라믄.

@1 거리 안에.

#1 거리밧. 거리왓이라믄 야전밧보단 댜 배거든 가격도.

@1 예.

#1 이 밧도 지슬밧으로 으라 해 헛어.

@1 으.

#1 예, 지슬 놓믄 이제 밧이 기니까.

@1 으.

#1 흠어머니에 혼자 사는 사름은 많이 필요 엇으니까, 한 고지 못 허는 사름도 잇고.

@1 으.

#1 식구나 많고, 또 부자는 놀 빌어서 헐라몬 양식을 많이 확보해야 돼니까. 두 고지, 세 고지하는 것도 있고. 그러믄 나 적시에는 요렇게 돌멩이 하나 딱. 혼 고지믄 천상 일로 이게 혼 고진데.

@1 으.

#1 요깎지벧기 못 해. 옴로 요렌 툇 사람이 해야 돼거든. 그 경계는 이 돌멩이 혼나.

@1 돌멩이 혼나.

#1 그러면 마목.

@1 예.

#1 나무 헤다가 마목을 딱 쪼던지. 옴로 이렌 내 거다, 옴로 이렌 내 거다, 허영.

@1 게믄 이 임야, 이거 누게네 밧이라낫수과? 여기.

#1 그 당시는, 어, 는 아까 ○○○ 죽었지만.

@1 예.

#1 불그뭇.

@1 예. 우리.

#1 가네 하르방 밧.

@1 아.

#1 가네 하르방 밧이란디. 진 구장이라고 그때 구장질 해신디.

@1 예, 예.

#1 저지 살다가 와 가지고 구장질 헛는데. 또 콩 갈아서 여름에 콩입 따다가.

@1 으.

#1 그 하르방이 또 콩입을 좋아헛어. 우린 어린 때니까 이 콩입을 이 손꺼림에 다 끼거든.

@1 으.

#1 이렇게 타면서.

@1 으.

#1 숨뻑 이렇게 혼 줌 줘어가. 이걸 하나 놓으면 한 바구리 뉘.

@1 으음.

#1 으, 그렇게 그 하르방이 하면서 먹고. 또 지금 이 거리는 잘 못 보는데, 돛백나무가.

@1 저쪽 이쪽 옆에.

#1 예, 저 알동네 가면은 지금도 있어.

@1 으.

#1 저 낭 이만큼 지금 컷는데. 그때 그 돛백 ○○아방이.

@1 예.

#1 ○○아방이 돛백씨를 해서 돛백 메 놔 가지고. 그때 이 부근에 다 분포시켜.

@1 예.

#1 우리 저, 우린 내가 열 술에 조수혹교.

@1 으.

#1 일 후년으로 헛는데. 이제 그 돛백나무도 좀 우리 돛백산지다.

@1 음.

#1 그때 산양리가 엇고 연화동이지.  
 @1 예.  
 #1 계연 연화동 학생들은 돛백나무 가져와라, 공출이야.  
 @1 음.  
 #1 왜정 때니까. 뭐이든지 헤라 허든 옛 헤야지, 없소, 안 댜요, 뭇 헤요가 없어.  
 @1 으.  
 #1 그 시대니까 게서 돛백나무도 많이 분포뵈고. 돛백나무 촌이라고 현 것은 그 전에부뵈  
 헛는데 여기 이제, 이 웃드르식당 그 카브.  
 @1 예, 예.  
 #1 카브에도 이제 돛백나무가 잇는데 그디 당유지낭허고 돛백나무가 잇는데, 그 당시는 돛  
 백촌이라고 헛지. 연화동보고.  
 @1 으, 아니 우리 어틸 때만 헤도 이 동네 돛백낭들이 막 큰 거 이성예.  
 #1 어, 어.  
 @1 요디 그 양 교장네. 지금 ○○○ 의원네 아버지, 살아난 기와집, 잇어난 집.  
 #1 ○○○?  
 @1 으, 우리 그 ○○○ 선생.  
 #1 으, 으, 으 그게 이제 여기지.  
 @1 여기우짜?  
 #1 으, 여기. 타 지역에 오니깐 방향을 몰란.  
 @1 예.  
 #1 바로 이 구석.  
 @1 그러니까 완전 큰, 정형은예, 우리 그 돛백낭 꺼꺼당 환경미화혈 때 막 꾹꾹이허고 헤  
 나신디. 하르방한티 욱들고.  
 #1 그 돛백나무털은 지금도 잇곡.  
 @1 어, 완전 그때도 막 커난 기억이 잇어.  
 #1 거리 길가에 잇는 건 완전히 없어졌지.  
 @1 예, 완전, 완전 큰 거 잇어나신디.  
 #1 도로 확장으로. 확장허면서 다 파 부니까 그 당시에는 아릅찬 돛백낭이라.  
 @1 뵈게 어렸을 때도 인상이 깊엇거든예.  
 #1 응.  
 @1 이 동네 이사와 갓고 그 돛백낭 막 크고 현 거.  
 #1 그 당시에는 폭나무, 이, 명쿠실나무. 고목들이 핫는디 이젠 그 대부분 그런 것들이 길  
 가예.  
 @1 길, 개난 길 넓히멍 다 베 불언예.  
 #1 길 확장.  
 @1 맞아. 큰 나무털 하난 거 닳은디. 요 상점 앞이도 큰 낭 이서나지 안헤수과?  
 #1 으, 쌍뿔방이라고, 뿔방예가 쌍뿔낭이라고 헤서 이렇게 두 개 ㅋ뿔이 잇어났는디.  
 @1 으. 그 저기 출 놀 때도 막 재미지지 안헤나수과예? 출 놀엇던 얘기들 헤줍서. 그거

집에 가져오면.

#1 출 누는 것도.

@1 기술.

#1 기술.

@1 으.

#1 예, 나도 출 누는 디 기술자가 아닌데, 기술 발명을 하지. 흐 번은 예, 가파도 가면은 가파도가 예, 우리보다 좀 빨라.

@1 으.

#1 예, 우리가 보리가 누려서 한 열흘쯤 쉴다가 보리 비까 밍음에 준비허다 보면 가파도는 보리 비어 잡히거든.

@1 으.

#1 이제 가파도 가면은 예, 콤을 잘 준다 해서 우린 가파도 보리 비렐 가왔어.

@1 어.

#1 이제 쪽허게 갖더니, 처음 우리가 서이가 갖어.

@1 으.

#1 이제 하난 저 ○○○이라고 살아 있고, 하난 죽었는데. 가니까 초보자와 그 경험 잇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어.

@1 으.

#1 경험 잇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아니까, 아, 작년에도 왔다 가고 읍서 해서 받아들이고. 우리도 젊은이고 모른 사람이거든. 젊은 놈 뭐 잘못 걸리믄 술이나 먹어서 또 행패나 부리고 그렇게 못 믿는 수도 잇거든.

@1 으.

#1 그래서 인연이 없으니까 우리는 빠꾸 당해서 와 버렸어. 오는데 이제 둘은 오고, 나는 그 어린 때도 조금 읍치가 이제 들었던고라. 어리진 안 헛지, 내가 스물에 장게가고 스물 흐 대여섯, 일곱으답쫘 뉘 때까지. 스물셋에 이제 군대 가서 스물으섯에 제대헤 온 후에니까. 이젠 아, 둘이 와 가니까 아, 것도 하나 거 이별이라.

@1 예.

#1 어떻게 섭섭헌지. 나는 벅에 ㄴ치 가고 와야 뉘겟는다. 아니 일부러 우리가 저, 돈 벌러 왔는디 설마 아예 돌아감ㄴ지 헛겟느냐 말이며. 어린 때부터 춤 그 기백성은 좀 잇었어. 너네덜 섭섭허지마는 나는 못 간다 말이며. 춤 공짜지에 밤을 자도 설마 사람이 굶어 죽겟느냐. 경헤 그네덜은 아이쑤다 이거여. 착착 받아들이지 안 허니까 아니쑤지. 아, 자존심이 좀 강헌 사람덜이지. 게 섭섭헤도 그 사람넌 와 버리고. 나는 이제 놀다가 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밧디 가서 사람덜도 들어오고 허니까 이제 그 소개받은 사람안티, 건 여기 사람인다.

@1 으.

#1 당신은 어느 집에 살아났느냐 뭐 허느냐 하면서 요 집이 우리 살아나고 요 집이도 부제침이난 보리가 하. 대략 그런 대략 설명을 들어놓고, 이제 즈물아가니까 한두 사람씩 집드레 들어와. 들어와 이젠 살이 보면은 좀 살만헌 집이다 허는 건 대략 짐작뉘니까.

@1 으.

#1 이제 놀굽도 너르고 혼 집을 썩 들어가서 나는 이만저만해서 왔는데 좀 사름 안 쓰겟 느냐니까 얼른 대답을 안 해.

@1 으.

#1 젠 이제 경력을 묻는 거야. 농사를 몇 년 짓고, 뭐 어디 살고, 뭐하고 어지름탕쉬히는, 머 꼬꼬꼬꼬 말대답은 헛지. 요거 이젠 낚시 물었다.

@1 (웃음)

#1 나 속으로 하고 이제, 이제 뭐이든지 못한다는 게 없어. 다 잘허노렌 헛지.

@1 예.

#1 잘허노렌 헛는다. 이젠 나 속에 넘어나 가지고 여기서 저녁 먹고 여기서 살자 허길래, 어떻게 지꺼진지 춤추지 기려와도 차마이 그럴 순 엇고.

@1 (웃음)

#1 여기와서 주위를 머물었어.

@1 으.

#1 뒷날은 이제 일을 가는데 혼 일곱이나 나꺼지 노복이 똬 거라.

@1 으.

#1 나는 그 집에 자고 그 여섯 사름은 이웃집의서 잡은 노복인데, 이젠 아침 와서 밥 먹 으면서 이제 통성명허니까 너는 저지다, 나는 청수다.

@1 으.

#1 뭐 다 이 부근 사름들이여.

@1 으.

#1 이젠 일곱이, 주인 둘이 이제 빌어 놓고 허믄 아홉이 빈 거거든. 게연 죽은 보리가 아니라. 게연 밭도 너른데 혼 이틀 비어 가지고, 이젠 즈물아가니까 이젠 막 무꺼 들연 집에 이젠 실러오니 밤에 널, 에 너무 양이 많으니까 널랑 놀자, 놀을 놀자 허는디 아, 저 저녁이 일기가 변천똤거든.

@1 으.

#1 이 해변사름 특히 섬에 사름덜은 일기를 요즘 통보관 이상이라.

@1 으.

#1 일길 잘 봐. 아니믄 자기가 죽으니까, 베에.

@1 그렇지.

#1 베질 허는 사름덜은. 그래서 그 일기예보를 잘 보는데, 즈낙이 비 올 테니까 이걸 처단 해야 똤다 이거야.

@1 으.

#1 아, 그러면 이제 놀을 이제 놀어야 똤 텐디. 이제 놀 잘 누는 사름을 강 빌어와야 똤다 허니까, 그 이제 당기가 엇는 사람인디 그런 땐 당기가 좋았어.

@1 (웃음)

#1 저가.

@1 나가 놀겟다.

#1 저가 놀 놀쿠다 허니까.



@2 응.

#1 놀어봤느냐 허니까, 안 놀어봐도 뭐 출눌 ㄴ튼 거 조금씩 헉 거야 놀어봤지마는.

@1 으.

#1 큰놀은 안 놀어 봤지. 이젠 놀어 봤다고, 이젠 놀 누는디 헉 장남이 다섯이라. 다섯이 허는디 이 그 밧도 큰 밧, 두 밧뒹 걸 허여 놓니까 마당이 이빠이거든.

@1 으.

#1 집만이 데며 놓니까. 이제 놀굽도 크게 놔야 뒹고 그걸 한 놀에 잡아 넣자니까 혼잔 올리지 못허여.

@1 으.

#1 이젠 놀굽을 딱허게 놓는 거 보니까 눈에 든 거야. 어, 빙허게, 하 이젠 그 보리가 백 못이면은 그 요 면적이 요 정도면 뒹겐다, 요 정도면 뒹겐다 허는 탐지를 잘 헛다 이거여.

@1 응.

#1 놀굽을 너르게 놓니깐. 나는 그걸 짐작을 안 하고 이 양이 많은 것을 데밀라면은 죽아서 안 뒹겐다, 하늘 높이 솟아야 뒹니까.

@1 으.

#1 사름이 출은 높이도 올리지마는 보리는 경 못 올리거든.

@1 그렇지.

#1 무거우니까. 이것을 야트게 해도 무조건 너르게 해 가지고 처단을 허자 이 께를 부리는디 그제.

@1 먹현. (웃음)

#1 주인 눈에 들어본 거야. 이젠 놀을 누는디 두 밧뒹 걸 헉 놀에 놀어 잣헛어. 헉 열 시 이상뒹지.

@1 으.

#1 아, 그러니까 반은 놀어가니까 어떻게 감각이 이상해. 그.

@1 (웃음)

#1 저 바다에 배가 한쪽으로 기울기울허듯이. 어땡 요기 가몬 내가 땅더레 무너나는 기분이라.

@1 어.

#1 그러니 놀이 병 낫다 이거라.

@1 (웃음)

#1 하, 이거 이상하다고. 이젠 이 무너나는 쪽에 가리키면서 주인보고 이쪽이 쫘 나가지 안 헛느냐 하니까. 아 쫘 나간 거 닙아. 영영 허면서. 쉼앗베 가져 오라고. 쉼앗베 허민 소에 짐 실르는 거.

@1 으.

#1 이젠 길다 이거지. 그것을 헉 서너니 개 앓다가 이젠.

@1 뱅뱅 돌련.

#1 뱅뱅 무끄라고. 아, 그러니 그런 것도 안 해본 모양이여.

@1 응.

#1 아니 아주 놀 잘 눈다터니 꺾가 좋은[존] 사름이라고.

@1 예.

#1 그 사름은 늙은이고 난 젊은 사름이니까. 아, 젊은이가 아주 꺾가 좋다고. 게연 이젠 이만큼 눈에 들었으니까 이걸 다 처단해야 된다고. 반은 눈 디다가 그 경 허면서 중간에 무 꺾 놓니까 이놈이 거 뻔라질레야 뻔라질 수가 셔야지. 뻔라지믄 놀이 다 뻔라져야지.

@1 으.

#1 게, 아이디어를 내가 좀 인기 얻어 불었는다. 경 허니까 이제 그 놀을 다 놀연 이젠 낙람지를 올려야 뉼 거 아니라, 낙람지를 올려져야지.

@1 으, 너무 높안.

#1 어, 이웃집에 가서 사드레 빌어다가 등짐에 저 베를 저서.

@1 으.

#1 진 사람이 사다리를 올라와.

@1 오.

#1 올라와서 낙람지를 나한테 인계해 줘. 이제 그걸 다 놀어 가지고 내려오니까, 올 때는.

@1 예.

#1 나 일당 곱빼기 주는 거라.

@1 아.

#1 특이헌 사름이라. 게고 또 여기서 간 사람도 혼 놀에 그 많은 양을 처단하는 거 보니 까, 언제 젊은이가 놀을 놀어냈다고 나를 기술자라고 해서 완전 인기 끌어 불었어.

@1 으.

#1 재주엿는 인기 끈 것이 아주 기적이라.

@1 (웃음) 기적, 기적.

#1 이견 자랑 아낼 수가 없어.

## 도구

@1 예. 잘 자랑해수다. 그, 그다음에 우리 쉼 허는 거 헛당은, 저 멀리 가 불어수다. (웃음) 우리 쉼 질루젠 허면 그 도구들이 이실 거 아니라예? 어떤 도구들이 필요해수과? 쉼 강 은에 에우든, 쉼, 뉼 어디 목장에 허든, 도구들이 이실 거 아니? 말톡도 잇어야 뉼고, 뉼, 집 에는 쉼막이 이서야 뉼 거고.

#1 쉼막은 우선 에 짓어야 뉼는 거고.

@1 으.

#1 쉼막이라믄 소위 침, 요즘 말로 가짜 집이라, 이거지. 작게 짓고 어디 저, 불모지 한쪽 에. 경 해연 주택, 사름 사는 주택같이 아주 대지, 요지 땅을 차지 못한다 이거지. 차지 말라 이거지. 굴룬 집이라 해서.

@1 으.

#1 그래서 쉼막이라믄 천허고, 어디 못 사는 사름 보믄 거 쉼막살이ㄴ치.

@1 으.

#1 어, 집도 좋지 았더라 말을 그렇게 해서 그, 나무리는 말로 그렇게 헛는데. 건 이 사름

과 짐승은 같이 꿀을 수 없으니까 건 예우상서고.

@1 예, 예.

#1 그렇게 해서 쉼막을 천허게 알아서 쉼막을 족게 짓고 야트게 짓고.

@1 으.

#1 으 건 물론 쉼막은 잇어야 뉘 거주마는 우선 쉼 예, 끌고 다니당 그.

@1 석.

#1 그 뿔에 허는 거 쉼석.

@1 예.

#1 쉼석이라 허고.

@1 응.

#1 또 예점 그 소를 배 체울라든 보통 예울 밧이 엇거든.

@1 예.

#1 그러니까 줄을 메야 뉘.

@1 응.

#1 그러든 걸보고 줄이라 허는디. 좀 굵고 길게 이제 베를 해 가지고 이젠 고정을 시키는 것이 말톡.

@1 말톡, 으.

#1 으, 말톡은 이 나무가 썩다고 해서, 요즘 말론 거 뉘라고 허나? 굿가시보고.

@1 굿가시? 구지뽕나무.

#1 구지뽕. 으, 구지뽕나무 해서 이 말톡.

@1 으.

#1 게 굿가시말톡 ㄹ치 굳세다는 말이지.

@1 응.

#1 소나무 ㄹ튼 것은 빨리 닳고.

@1 으.

#1 빨리 그 썩어 버리니까 그 굳센 나무라 해서 그, 구지뽕나무.

@1 으.

#1 굿가시는, 그 당시는 굿가시낭.

@1 아.

#1 굿가시낭 말목이엔 헛지.

@1 그.

#1 걸 아주 일부러 걸 그 뽕가다가.

@1 예.

#1 나무를 살피서 조금 곧고 뉘 길, 길게는.

@1 못하지만.

#1 필요없지마는.

@1 예.

#1 그 순간만큼, 지장만큼은 곧아야 뉘거든.

@1 예, 예.  
 #1 꾸부러지든 이, 바나나 같이 꾸부러지면.  
 @1 못 박지. (웃음)  
 #1 박지 못 허니까, 게서 그 우에 톱 멘들아 가지고.  
 @1 예.  
 #1 베를 이 골리 해서 허든, 이 소가 뱅뱅 돌아도 꼬아지지 않게끔.  
 @1 예.  
 #1 거 톱 멘들아서 썬말목 해야 뉘곡.  
 @1 음. 게든.  
 #1 또 아까 같이 그 건 문여 다 죽앗지마는.  
 @1 응.  
 #1 뭐 짐을 실어 나를라든 썬질메를 멘들어야지.  
 @1 응, 질메도 잇곡.  
 #1 또 방에도 져야 뉘니까 돌방에 질라든, 그, 건 방엿멍에라고 허는디, 방에 질 때 허는 멩에가 뜨나.  
 @1 예.  
 #1 또 (기침) 소 길러서 밧 갈라든 그 멩에 쟁기 갖춰야지.  
 @1 예.  
 #1 으, 많지.  
 @1 으.  
 #1 준비헐 게.  
 @1 그난 방에 질 때도 그 방에멍에렌 허는구나예?  
 #1 으, 방에멍에.  
 @1 게난 여긴 방에 지는 거는 돌방인데도 썬로도 허잖아? 여기도.  
 #1 으, 주로 썬로.  
 @1 썬로.  
 #1 돌이 옛날부떠 귀헛으니까.  
 @1 여기는 귀하니깐.  
 #1 어, 이름은 돌방에라 허지마는.  
 @1 예, 게연 돌방엔데 이제 그 방에멍에하고.  
 #1 으.  
 @1 그 말목도 낭으로 현 건 말목이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집에 썬 줄 뉘 뉘 때예.  
 #1 썬말목.  
 @1 으, 썬말목으로 헛디다.  
 #1 그건 근대.  
 @1 근대예?  
 #1 어.  
 @1 어.

#1 이진 문화니까 옛날 기초를 말하는 거지.  
 @1 예.  
 #1 그 당시엔 췌도 귀했고.  
 @1 으.  
 #1 이제는 흔전한 거 이제 돈도 안 주잖아.  
 @1 으, 으.  
 #1 이 고물상에도 받아가도 안하고 잊지마는. 그 느네덜 저, 알 때는 아주 근대.  
 @1 으.  
 #1 막상 뭐 흔.  
 @1 칠십 년대.  
 #1 육, 육칠십 년 미만이니까.  
 @1 육칠십, 예, 예.  
 #1 나는 이제 팔십육 세지만은 나도 어린 때 그 전전 하르방 때부떠는 췌엔 현 게 굴갱이, 호미 겨우 그런 거.  
 @1 으.  
 #1 어디 강 췌뿌리 준비해다가 만들었지.  
 @1 응.  
 #1 말목 ㄱ튼 거 그렇게 흔전허질 안했지.  
 @1 으, 기라예.  
 #1 계난 육칠십 년대 이상 뒤편 가니까, 췌도 흔전허고 모든 게 흔전허고 또 사람 머리밖도 열리곡.  
 @1 으.  
 #1 나무도 그 분량만 컷지, 뭐, 박기도 뭐허고. 소소헌 저 이 돌멩이나 요만큼 큰 돌멩이나 시민 못 들어가거든.  
 @1 으.  
 #1 췌는 웬만하 요런 데 가몬 이것이 이렇게 이 밀려나면서 췌말목은 들어가고.  
 @1 그러니까.  
 #1 그런 머리 써 가지고 예, 췌말목을 허기 시작허고.  
 @1 예.  
 #1 짓도, 그러니까 근대화라 하지.  
 @1 그니까 이제 말목할 때는 보통 굿가시낭으로.  
 #1 굿가시낭.  
 @1 허잖아예? 그제.  
 #1 나무가 췌다고 해서.  
 @1 게, 굿가시낭으로 또 다른 뭐 도구 멘드는 짓도 이수과?  
 #1 굿가시낭, 옛날도 굿가시낭 열매 약으로도 썼어.  
 @1 예.  
 #1 그 가심병에 먹는다, 지금도 그런 그 전설이 잇는데.

@1 으.

#1 이 구지뽕이란 것도 이 근래고.

@1 예.

#1 난 이거 구지뽕이란 말 듣건 다가 혼 삼 년뻘고 안 뻘어.

@1 우린 맨날 굿가시, 꿇가시 이렇게.

#1 응, 응. 굿가시로만 했지. 이 굿가시가 어떻게 많은지, 이 드르에.

@1 예.

#1 겐디 이제는 그 놈의 걸 이 강원도에 다 갖다는데.

@1 으.

#1 전부 이놈들 와서 파가 부니까 뿌리조차 심을라니까.

@1 예.

#1 뿌리조차 파가 부니까, 이 부근에 없어 이젠. 보젠 해도 못 봐.

@1 우리는 거육이예.

#1 으으, 그래 좀.

@1 거육이 논 잇엇던 데 완전 큰 굿가시랑이 이서난예.

#1 어.

@1 게른 낭이 잇는 데 완전 빨경 이렇게 보면.

#1 가을 들면 그러지.

@1 예. 그거 따당 막 찹도 행 먹고 막 해나신디.

#1 어, 젓도 이제 그 팔월부떠는 가을이엔 허는디 초가을에는 먹으론 목 쉬어.

@1 으.

#1 못 먹으는디. 겨울 들영 눈을 맞아야 맛이 있어, 가물가물.

@1 말랑말랑할 때.

#1 가물가물, 색깔도.

@1 예, 예. 응, 그런 식으로 말목을 굿가시랑으로 했구나.

#1 지금 저 색달리 우리 증조모 산이 잇는디.

@1 예.

#1 일 년에 한 번씩 벌초 가면은 거기다가 그 이 울창헌 그 굴행이에다가 나무가 잇는데, 꼭 이렇게 올라.

@1 으.

#1 데작데작허게. 그렇게도 잘 으는 낭. 겐 젓도 이제 작년엔 가보니까 증도목으로 찼라 불엇던데.

@1 으.

#1 거기서 보지, 우리 이 드르에는 이제.

@1 거의 엇어예.

#1 없어, 없어. 아멩 드룻밧디 돌아봐도.

@1 예.

#1 그때는 밧마다, 담줄마다 잇어 가지고 요렇게 올라 했는데.

@1 맞아, 삼동낭도 경 허고.

#1 예, 삼동 구경 안 한 것도 나 이거 혼 오륙 년. 어찌다 오륙 년 전에.

@1 큰엉에 잇잖우파?

#1 잇는데, 이젠.

@1 안 가니까.

#1 안 가니까 엇고, 사름 참예 못 헤.

@1 으.

#1 새들 다 먹어 불었어.

@1 예, 맞아예.

#1 그 우리 어린 때는.

@1 으.

#1 새들은 몰랐던 모냥이라. 먹을 게 핫는지. 우리 먹을 게 하근에 약간 보리 빌 철만 뒤편 가서 삼동 타먹으러 가자 해서 핫는다.

### 쉐것

@1 맞아, 우리도. 그 경해도 옛날에 그 쉼 맥이젠 하면 으물 같은 거 그니까 아까 죽 쉼 것예.

#1 응.

@1 그거는 언제 헤 줘마썸? 쉼것은.

#1 쉼것은 농사철에 우리 경우는.

@1 예.

#1 보통. 보통은 쉼것을 안 핫어.

@1 으.

#1 그저 출로만 대다가. 이제 그 농사철 뒤편은 세백이부떠 강 어둑도록 밧을 부리젠 허면은.

@1 예.

#1 밧 갈다가 출을 줘서 베불질 안헤. 소도 버치니까.

@1 으.

#1 또 그게 버친다는 건 사름의 욕심 때문이라. 오늘 예 혼 두 말지기, 서 말지기만 험시믄, 이젠 소는 만족허겄는다. 출도 잘 먹어지고. 사름의 욕심은 밧이 두 말지기, 서 말지기만 좋은디, 닛 말지기, 웃 말지기면은 무조건 이걸 하루에 다 헤잡혀야 뒤편.

@1 응.

#1 그러면 사름도 버치지만 소가 버치거든. 출을 못 먹어.

@1 으.

#1 이 거품만 물지이.

@1 예. 예.

#1 또 약헌 쉼는 세 내고. 그러니 육지 사름은 소는 세 내는 맛으로 부린다 허지마는. 세 널 정도믄 나는 죽겄다 이거지게.

@1 그러니까.

#1 예, 그러니까. 그, 것도 여자 뭉이라.

@1 으.

#1 밤에 잠 안 자면서 쉼것을 큰숫되다가.

@1 예.

#1 숯아. 옛날은 보통, 예, 그 부역에다가 숯이 다섯 개 정도는 앓져야 부자칩이라이.

@1 예.

#1 작은 거, 조금 큰 거, 큰 거, 큰 거, 큰 거 그러믄.

@1 제일 큰 거에예?

#1 작은 거 서두테기.

@1 으.

#1 헤끄만헌 거. 다음은 쫘 저 다두테기.

@1 으.

#1 또 말치.

@1 으.

#1 말치는 혼 말 익는다 이 말이지.

@1 으.

#1 다두테기엔 헌 건 닻 뒹 익는다.

@1 응.

#1 서두테기란 거 아주 적은 숯이다.

@1 으.

#1 혼 뒹 짜리다 헌 말이고.

@1 으.

#1 이제 두말띠기.

@1 으.

#1 서말띠기.

@1 으.

#1 두말띠기엔 헌 건.

@1 두 말.

#1 우리는 큰숫이라이.

@1 으.

#1 계영 그런 숫되다가 숯아. 숯는 것은 뭐냐, 그것도 다 집집마다 다르지마는 보리철에  
는.

@1 으.

#1 보리ㄴ시락.

@1 예.

#1 보릿ㄴ시락을 그.

@1 으물 하나씩 허꺼진 거.



#1 으, 하나씩 서꺼지믄 좋은 거고 빈 그시락도 해주믄 잘 먹어.

@1 으으.

#1 이젠 맛엿덴 안 먹어가면 이젠 누까그루라고 해서 그루도 조금 허트는 체 해주고.

@1 응.

#1 손 멩청이, 조금만 뿌리는 체 허민. 우리 국에다가 저 미원 넣듯이.

@1 으.

#1 그 정도믄 하이고 벨미라고 잘 먹지. 계영 아침에 벨 불러야지. 중간에 출 쥔 추분이 안 돼니까. 그러면 농사철에 어쩔 수 엿이 좀 밥해 가면서 쉼껏부떠 장만해야 돼.

@1 으.

#1 그러믄 아침 볍아가면은 여자도 밥이 다 돼 가믄은, 이제 뚜껑 올라 가지고 뜸들엿다가.

@1 음.

#1 이젠 그걸 젓어, 부각이 해서 도고리에 푸고 해서, 이제 식여 가지고. 육지서는 짐이 팡팡 나는 걸 일부러 주는데 우리 제주서는 더운 걸 안 주거든. 더위 탄다고 해서.

@1 예.

#1 게, 거 한참 식여 나서 멕이고, 또 사람이 밥 먹는 순간에 아침 먹는 순간에 소도 먹어야 돼니까.

@1 예.

#1 게서 아침에 배불러 간 걸로 해서 어둑도록 부리지. 경 낮에 쉴 때 현 건 쪼끔 우리 그 간식 정도로.

@1 으.

#1 그렇게 주면서 일 부릴라믄 쉼껏 헛지. 보통 때는 그자 출이나 주고 낮 돼믄 물이나 멕이고 그렇게 질렀지.

@1 그니깐 우리는 집에 소를 하영 키우니까.

#1 응, 건. 아버지는 전업, 전업으로 장살 허고 허니까.

@1 음, 늘 어무니가 그 쉼껏 허는 거 땀에 스트레스 반앙 해신디.

#1 또 출 허는 거 장남 값이니 뭐니.

@1 예.

#1 것도 즈본 드니까.

@1 예.

#1 것도 아깁 겹 그 출을 다 멕이기 위해서 출도 솟아 멕이고.

@1 예.

#1 곡식도 솟아서 멕이고.

### 금기어와 속담

@1 그다음엔예, 이 쉼를 질루거나 이런, 물을 질루거나 하면은 뭐, 뭐 허지 말라 허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마썅? 얹힌 속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조사허당 그런 것도 잇드라, 집안에서 키우던 쉼가 죽으면 뭐 대주한테 안 좋다 허는 이런 말들도 잇고 허든데.

#1 그러니까 예, 집 안네 지르는 그 가축은 상당히 애 기르듯이 아끼고 멍심했지. 그런 것 그 중간에 헨 걸 보고 동티라고 했지.

@1 예. 예.

#1 으, 내가 무슨 죄악을 지었나.

@1 으.

#1 거 동티라는 게. 또 동티란 건 독헌 그 병이라나서, 독헌 신이라나서 또 그 전설에 동티는 찾아온 죽는다 이 말도 있고.

@1 응.

#1 내가 동티로 아파서 갑자기 아픈 건 동티니까.

@1 으. 으.

#1 계문 이 따문이다 저 따문이다 옛날에는 울 안네다가 그 고목.

@1 예.

#1 고목을 아무 때나 그, 날 아니 봐서 짤라도 그 신이 부튼다 해서 동티 나고, 벨 옛날엔 문밖 그 병이 다 줌, 이 귀신이니까.

@1 으으.

#1 요즘은 그 놈의 귀신이 다 어디 갖는지 모르주마는 다 귀신이여 다 귀신.

@1 으, 으.

#1 가다가 발 차도 아차, 내가 뭐 잘못했구나. 해천 반성하는 거여.

@1 으.

#1 옛날 사름은.

@1 으.

#1 그러든 뭐 교인들은 우리 동넨 벨로 웃이니까. 뭐 석가모니 뭐, 살려 줍서. 뭐, 천주님 살려 줍서. 하늘님 살려줍서. 하늘님은 아이 믿는 사람이 었는 모양이여. 보통 보민 하늘님.

@1 응.

#1 또 아방은 안 불리. 아이고, 어멍아.

@1 (웃음)

#1 그러니 여자가.

@1 신이라.

#1 으, 굳센 거.

@1 계난 할망당허곡. (웃음)

#1 아이, 당은 하르방당도 잇주마는.

@1 예. 예.

#1 하르방당은 도체비당.

@1 아, 하르방당은 도체비당.

#1 것ㄴ라 도체비당. 저, 하르방당이엔.

@1 으.

#1 보통 할망, 어멍.

@1 으.

#1 경 행 이 남자털은 것도 하나 생각을 해야 돼. 여자가 크다는 거.  
 @1 응.  
 #1 보통 가정 살림은 여자를 아주 존재없이 알거든, 아주.  
 @1 으.  
 #1 하인으로 취급하고, 나는 왕으로 허는다.  
 @1 으.  
 #1 남자보고 가장, 가장 허주마는. 여자가 많이 속기도 허고 여자 권세가 쎄.  
 @1 으, 삼춘네 집은?  
 #1 우리 아으털토 아이고, 아방 안 허여.  
 @1 아이고 어멍 헤.(웃음) 게난 그 그런 허지 말라. 아까 그 동티헐 때 좇이면은 죽어, 이  
 렇게 헤마씨?  
 #1 으, 그렇게 위험하다는 말이지.  
 @1 게문 동티 헐 때는 무신거렌 곶으론 안 돼는구나.  
 #1 그렇지, 그렇지.  
 @1 음.  
 #1 뭐이든지 조심허라 이거라.  
 @1 으.  
 #1 이제 그 옛날은 부억하고 이 칙간을.  
 @1 예.  
 #1 사돈칩허고 칙간은 멀어야 된다고 해서. 곁엘 안 두거든.  
 @1 예, 예, 예.  
 #1 요즘은 나 역시도 이 부억에다가 이 벽 하나 화장실인데. 요즘 집털은.  
 @1 예.  
 #1 그 화장실에 가서 줌 개나 소나 소리만 그 거실에서 앓아서 드, 들어도. 옛날은 계시민  
 큰일 나지.  
 @1 그렇지, 그렇지.  
 #1 요즘은 다 들리잖아.  
 @1 예.  
 #1 아, 이 사람 오줌.  
 @1 물 내리는, 오줌 뽀구나. (웃음)  
 #1 그래도 요즘은 그거 아주 희변이라서 보통으로 아는다. 게문 그 부억에서 똥을 쓰다가.  
 그 솥을 저 앓질라든 요런 거 삼덕받이라고 세 개 돌을 받후거든. 이런 것도 어떨 때 바꿀  
 때가 있어.  
 @1 으.  
 #1 아니민 솥이 예 이렇게 기울어지다.  
 @1 예.  
 #1 하나는 노프고 하나는 야타, 이러믄.  
 @1 예, 맞아.

#1 돌도 농곡, 자갈도 놓고. 이 옛날 초신착도 끌면서 수평은 그 발렛주마는. 돌멩이 그튼 거 마, 한간 마루 한간 건너서 칙간에 가서는 대변 동티가 나.

@1 으.

#1 또 칙간에.

@1 거 이제.

#1 돌멩일 또 부억에 와도 뭐, 당장 죽지, 당장. 그 원인이 옛날에 그 신이.

@1 으.

#1 이 신이 씨앗이라.

@1 으.

#1 으, 조왕할망은 조강지처에.

@1 으.

#1 시집온 여자 어머이고.

@1 으.

#1 이거 찍여뒀에 씨앗으로 탐내는 씨앗은 통지고.

@1 으.

#1 헐, 옛날 난 안 봤는데.

@1 으.

#1 심방털이.

@1 (웃음)

#1 말미가 있어. 그런 이 씨앗을 아주 하간디 이거 일로 절로 돌아다가 이제 우리가 이 용허고 있다 뭐 이런 그 전설도 있는데, 그건 뭐 나 안 본 거니까 믿을 순 엇곡.

@1 으.

#1 그러니까 그것도 큰, 제일 큰 동티.

@1 예.

#1 부억허곡 칙간.

@1 으. 그건 멀리허렌 헛잖아예?

#1 예.

## 물 질루기

@1 그, 우리 다른 삼춘 안 오니까, 물, 혹시 물은 어떻 질루는 건 알아지쿠과? 어떤 식으로 질랴수과, 물은?

#1 갱 물은 보통 예, 소같이 매일 부리는 게 아이니까 집에 보통 기루지 아녀거든.

@1 으.

#1 목장이 있는 사름이나 공동목장에 놔도 돼니까.

@1 으.

#1 목장엘 예, 드르쓰든지. 갱 보통 그때는 콧, 콧 흐는디.

@1 으.

#1 고지 낱 지루고, 워낙 그 겨울에 눈이나 많이 올 때.

@1 으.

#1 그러든 곳아 가지고 이제, 죽을 줄 알고 그런 때나 멍심해서 어떡해서 예, 집에 들어오지. 집에 들어와도 동네 공지, 들방 같은 디.

@1 예, 예.

#1 그런 공지 가서 가두고 메어서 질렀지. 집에 들막이라고 혼 말 었어. 쉼막이라곤 해도.

@1 예.

#1 이 방에는 쉼, 쉼방에엔 아녕 들방에엔 혼는다.

@1 응.

#1 경 행 우리 생각엔 그 들로, 들방에라 돌고 돈다는 그, 그런 뜻으로 들방에엔 혼 줄 아는디 그 지픈 뜻을 몰라도.

@1 으.

#1 게니 보통 예, 우리, 우리들이 중산간이난 중산촌이랴는데, 중산촌에서는 물을 옛날부터도 그렇게 부리질 안 헛거든.

@1 으.

#1 아주 산촌이 애월 같은 데, 이 금악 같은 데 더 웃산촌에는 좀 쉼보단 물을 더.

@1 으.

#1 위시해서 헛는데 그래도 거기는 집을 지어 가지고 이 쉼 같이 기르진 안헛어.

@1 예.

#1 들에. 대부분 들에. 막상 갇히면은 예, 집에 와서 간수허는 것은 한 달포, 일 년 중에 한 달포가 됩나마나.

@1 으.

#1 그렇게 아주 야생동물로 취급해서 질렀고. 또 일도, 예, 들구루마 혼는 것도 물 백 머리론 혼 머리 정도 그 비율로 봐서.

@1 으.

#1 이거 구루마질 헛지. 물 부리는 건 물은 새끼 나서 번식용벧귄 안 뛴고. 또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물자가 귀흔 때니까 총.

@1 예.

#1 들 갈기.

@1 예.

#1 우리 머리털도 여자털 머리 존 사름은 팔아 가지고 뭐 밧 샳다 뭐 헛다 허지만은. 요 즘은 것도 없잖아. 여자털 이제 죽을 때, 시집갈 땐 머리 엇는 거.

@1 예, 예.

#1 어, 그런 것도 만들고 헛는디 그 들총을 주로 수입 잡고.

@1 으.

#1 새끼 낳는 건 물론이지만은 그 순간 일 년에 한 번씩은 그 갈기 비고 총 비니까.

@1 예.

#1 게니 도적놈이 또 많이 잇엇어. 산에 낳 내 불면.

@1 아, 예. 총 비어 가 부는 사람덜? 어.

#1 어, 물에 능숙한 사람은 그 생매 독한 물이라도 어떻게 달래 가지고 간혀서, 무꺼 가지고. 것이 돈 나오는 건 그런 거벳과 웃이니까.

@1 으.

#1 옛날에는.

@1 으.

#1 그래서 도적 맞았다는 말도 잇곡. 그러니까 저 그 물 도적도 있는데 잡아먹어 불고, 어디 가서 몰래 가서 팔아먹어 불고 허니까 이것은 어디 가도 찾을 수 있다, 내 것이다 허는 거 낙인.

@1 예, 예.

#1 낙인도 소에도 찍었는데 보통 물에는 낙인 찍고.

@1 으.

#1 낙인은 또 자기만씩 암호.

@1 예.

#1 뭐, 사람 인 자던지 뭐 점 북 자라던지 큰 대 자라던지 자기만씩 그 만들어. 기억 자 허는 디도 잇고, 원 동그라미 흐는 디도 잇고, 또 그 자석 ㄱ치 동그라면서.

@1 으.

#1 영 한 방향 터진 것 요런 거 허는 건 건 자기 그, 만씩 이름 지으듯이 그렇게 표적해서 살았고.

@1 예.

#1 그러믄 어디 가믄 그 우리 보통 평민은 몰라도 그 몰테우리.

@1 예.

#1 물 길루는 사람덜은 아, 이건 어딴 물이다, 누구 물이다 알거든. 낙인 봐서.

@1 예, 예.

#1 어, 그런 표적도. 경 행 물은 보통 예, 집이 안 질르고 들에서 질렀다는 거.

@1 으. 그리고 이제 물들은 이용허젠 흐민 옛날에 밧 불리는 거.

#1 응. 주로 그런 디 물은 켜고.

@1 으.

#1 그거.

@1 이쪽 동네는 물구루마는 거의 안 헛지예?

#1 물구루마는 흐 사람도 엇고.

@1 응.

#1 아까, 가의.

@1 예.

#1 가네 아방.

@1 으.

#1 가네 아방이 물구르마 좀 헤나고. 아이도 흐 으남은 설 때부떠 물을 달루니까 그래서 가의는 안다지마는.

@1 예.

#1 그래도 이 요번이 이제 우리 큰영꽃되다가 그 관광업소로 물을 와서 이제 저 안장해서  
물 타고 뭐하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

@1 으.

#1 이제 이 웃드르식당 주인, 가의가 이제 임대해서 책임져서 한다고 허니까.

@1 응.

#1 또 가의는 이제 그 연구만 했지.

@1 으.

#1 이것이 수익성이다 그래서 예, 흠 그 임대를 맡은 모양인데, 또 물에 소질은 엇거든.

@1 으.

#1 그러니까 소질 잇는 건 가이라.

@1 으.

#1 쟁 가이렌 허는디. 이젠 그 녹대를 만들다가 저번에도 골앗주만은.

@1 예.

#1 그런 걸 모르거든.

@1 으, 으.

#1 으남은 설 때 물 방뒤해나니까.

@1 예.

#1 그때도 나를 불러다가 물녹델 알아집니까? 하니까 나는 전업은 아이라도.

@1 으.

#1 늬 하는 거, 사용하는 걸 봐나니까.

@1 예.

#1 그 기억력으로 알 수 잇다 해서 ㄹ리치명 했는디.

@1 으.

#1 심지어는 그 저 로브.

@1 예.

#1 로브페 사다가 예, 모든 것이 물 다룰라믄 이 고고리가 잇어야 돼거든 연결을 헐라면.

@1 예, 예.

#1 이 고고리 만드는 것도 몰란. 쟁 나 다 골아주명 했는디, 어 오늘도 저 와서 허지만은  
녹델 허는 걸 내가 그때 말해 줬으니까 이젠 암기 돼엿일 거여.

### 물 색깔

@1 으, 어쨌든 이제 그렇게 허고, 이땅 나중에 또 조사할 거지만 그 털 색깔에 행은에 부  
르는 이름들도 알아지쿠과? 으.

#1 저번에 즉지 안 허연?

@1 게도 흔 번 더 골아줍서.

@2 건 소고, 이번엔 말.

@1 응.

#1 아이, 말도 거의 다 골았는데, 저기 질 처음 그.

@1 가라.  
 #1 말 그 급수가 있어.  
 @1 으, 일 가라.  
 #1 일 가레가, 일 고레, 고레.  
 @1 어, 일 고레.  
 #1 어, 고레물이엔 현 건 재색이엔 허까? 회색?  
 @1 으. 청충이 회색이 아니고?  
 #1 예.  
 @1 어.  
 #1 청충이는 흑백.  
 @1 흑백 어, 서꺼진 거.  
 #1 서꺼진 거.  
 @1 어.  
 #1 갓을 또 흑황.  
 @1 으  
 #1 흑황은 속, 속쉐.  
 @1 으  
 #1 갯은 물은 그런 게 드물어. 소는 트명에 봐지는다.  
 @1 으.  
 #1 검은 갓광 노랑털, 속쉐는. 갯 물로 봐서는 예, 일 청충.  
 @1 일 청충.  
 #1 일 청충, 이 가레.  
 @1 으.  
 #1 삼 적대.  
 @1 으.  
 #1 오 고라, 아.  
 @1 사, 사 월레.  
 #1 사 월레, 오 고라.  
 @1 으.  
 #1 그, 그렇게 허는다.  
 @1 으.  
 #1 청충이, 청충이는 흑백.  
 @1 으.  
 #1 아이.  
 @1 아, 삼춘, 지금도 헛갈리멘. 다른 딴 가면 일 가라, 이 청충, 삼 적다, 사 월라, 오 유  
 마.  
 #1 오 유마가 고라, 고레물인다.  
 @1 욱 고레.



#1 으.  
 @1 으.  
 #1 우리 육까진 모르곡, 오 고라.  
 @1 어, 그렇게 여기는 오 고라 해서예?  
 #1 오, 고라말은 들었는디.  
 @1 젠디 청충이허곡 가라뭇은 바꾼 거 아닌가?  
 #1 가라뭇은 검은 거.  
 @1 검은 거 새까맣흔 거.  
 #1 으.  
 @1 여기는 청충이를 더 찻구나?  
 #1 어, 일 청충을.  
 @1 아, 일 청충을예?  
 #1 어.  
 @1 이것도 동네마다 흥끔씩 다른 거라예.  
 #1 어, 흑백, 흑백헌 거.  
 @1 예, 예. 흑백허멍.  
 #1 흑백. 계난 모르지 내가 전문으로 안 질뤄나니까.  
 @1 또 들어 보민 뉘니까예.  
 #1 어, 어, 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론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해서.

### 밧 불리기

@1 여기는 뭇 행은에 밧 불리는 거는 무슨거 헐 때 씻수과?  
 #1 산뉘는 옛날이고.  
 @1 예.  
 #1 우리가, 내가 살림해서 산뉘 갈 때는 산뉘는 불려보지 안헐어.  
 @1 어.  
 #1 그래서 내가 그 예, 문화제 헐 때 그 연극을 가서 허긴 헐는디.  
 @1 예.  
 #1 건 불리는 건 마찬가지로니까 조 불리는 거나.  
 @1 응.  
 #1 조는 불려낫주마는 조는 안 불리믄 안 뉘거든.  
 @1 예.  
 #1 젠디 이제는 농살 지어보니까 안 불려도 충분히 뉘는걸.  
 @1 계난.  
 #1 어, 옛날 어른들은 머리가. 제니 약간 불리면은 땅이 탄탄헐니까.  
 @1 으.  
 #1 조는 보통 마간이. 마간이라는 건.  
 @1 씨.

#1 씨 뿌려 가지고 일주일 이상이 비 맞지 말아야 마간인데.  
 @1 예.  
 #1 뭐 이 주도 좋은데.  
 @1 으.  
 #1 그 마간이라든 땅이 부각허거든.  
 @1 으.  
 #1 부각허니까 이거 초목이 고생헌다 해서 불리는 거지.  
 @1 으.  
 #1 땅이 굳으라고.  
 @1 예.  
 #1 갱 불러 보면은 곡식도 좋고.  
 @1 으, 계난 마간이조가 존텐 허명예.  
 #1 아, 우리도 불러 봤지, 또 이 나는 뭇 안 부려 보니까.  
 @1 췌로?  
 #1 어, 저 쪼금 뗏 고지 갈아 가지고.  
 @1 으.  
 #1 많이 갈면은 그때는 더운 때니까 햇볏데 땅이 몰라 불민 씨가 거을어, 씨가 안 나지.  
 @1 으.  
 #1 걸 거은다고 허는다.  
 @1 으.  
 #1 그럴까 봐서 걸 방지허기 위해서 땅 초곤헌 때.  
 @1 으.  
 #1 예, 씨를 이제 잘 묻는다고 해서 췌 클러 가지고. 그러니까 잘 불리지 못허지, 대강.  
 @1 으.  
 #1 사름은 또 굴루이.  
 @1 예.  
 #1 굴루이 이 다닥다닥다닥.  
 @1 발로.  
 #1 자국 놓고, 그렇게 해서 헤낫는다. 또 너른 밧은 그렇게도 못 허여.  
 @1 으.  
 #1 그렇게라든 하루 뗏 말지기 밧을 못 가니까.  
 @1 예, 아까 씨가 안 묻어지는 그 영 몰라 부는 걸 거은텐 굴안?  
 #1 어, 거신다, 씨 거실어.  
 @1 씨 거실다예? 거은다가 아니고 씨 거실다?  
 #1 으, 이 농사헐 때는 그러니까 일찍 가서.  
 @1 으.  
 #1 새벽에, 이슬에는 땅도 초곤허고 이제 씨가 잘 서니까.  
 @1 으.

#1 일찍 가서 밥을 갈지. 이 혼 스시, 혼 열 시만 뉘가면은 씨 거심 시작허영.  
 @1 응.  
 #1 낮에는 보통 쌀 안 뿌려.  
 @1 응.  
 #1 씨 거실영.  
 @1 계난 씨 거실영 허는 의미가 어떤 의미우꽈?  
 #1 거은다는 거지.  
 @1 어, 거은다가 무슨 말?  
 #1 고생돼서 못 난다.  
 @1 못 난다?  
 #1 어, 나고자 해도.  
 @1 으.  
 #1 자기가 분명 싹이 나야 뉘는데.  
 @1 으.  
 #1 아, 발 부틀 데가 없으니까, 습기가 없으니까.  
 @1 응, 그냥 들랑은예.  
 #1 말라 죽는다 이거지.  
 @1 으, 그 들, 씨가 다 들라 분다 험 말이지예?  
 #1 어, 어, 들라서 못 난다 험 것을 거은다.  
 @1 씨 거은다. 씨 거신다.  
 #1 어, 거신단 말이지.  
 @1 예.  
 #1 싫어한다.  
 @1 싫어한다?  
 #1 싫어험보담도 더 독헌 말이지, 그제.  
 @1 으, 싹을 못 틔우는 그런 말이니까.  
 #1 어, 싹을 틔울라 해도 못 허니까.  
 @1 으.  
 #1 그냥 그만큼 압박에 못 견디겄다 이거지.  
 @1 응, 씨 거은다라고 얘기를 해예? 예.  
 #1 거은단 말은 거신다.  
 @1 예, 씨 거신다, 씨 거신다.  
 #1 쟁 이 해 자게 올라왕 사시 이상 열 시 이상을 말허는데, 열 시, 열흔 시 씨 뿌리는  
 사름보고 씨 거을영 뉘어? 거실영 아이 뉘겄, 마니 털멍 넘어가.  
 @1 어.  
 #1 어, 일찍.  
 @1 지금 씨 삐영은예.  
 #1 어, 못 헛다 이거지. 게 나 같이 늦잠 자고 간세흔 사름덜안티 욱허는 말이지 그제.

@1 어.

#1 어 왔구나.

@1 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잡담)

### 물구루마

@1 예,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몇 설 때 물 질루는 거 봐봔디가?

#2 나가 열한 살부떠 아, 험쓰니까.

@1 예.

#2 아버지가 그때 당시 으, 마흔 혼 서너이 정도 똬 때고.

@1 으.

#2 계면은 나가 국민학교 졸업허자말자 허기 직전부떠 물구루마는 꺾엇수다. 꺾어신디.

@1 예.

#2 그니까 졸업헤연에 중학교 입학헤연 고산중학교 입학헤연에 일 학년 일 학기꺼지만 다  
넛으니까.

@1 예.

#2 학교는.

@1 예.

#2 쟁 이젠 아버지가 너 공부 안 햏영 물구루마 꺾을래, 공불 햏래? 허난 그자 어렸을 주  
리병병 햏명 말헛 것이 그자.

@2 (웃음)

#2 물구루마 꺾으куда, 공부 안 햏. 쟁 햏 부난게 제라햏게 저기 가당 보민 이제 물통이  
잇수다.

@1 예.

#2 조록물이엔 햏디.

@1 예.

#2 그레 들런 데껴 불언, 나.

@1 (웃음)

#2 계난게 그때 빠져 부난게 동네 사름덜이 그, 이제가 춤 우리 선배가 이제 월광동에 이  
신디, 그 햏님이 앓양은에 우리 영 동네끼리 앓으민 농담햏당 보민 저 병혼 저건 말 안 들영  
물구루마 꺾이켠 햏부난 아방 부엌질에 술 먹은 집에 들런에 물통더레 데껴 분 거, 저거.

@1 (웃음)

#2 맞수다.

#1 뇨보담 선배가 누구라?

#2 ○○이.

#1 으. ○○이.

@1 그치룩.

@2 유명햏신 분이구나.

#2 그치룩 햏명 햏단에 춤 결국은 중학교 졸업도 못햏곡.

@1 으.

### 돌구루마 낚기

#1 이젠 돌구루마를 허게 뗏어마썸. 아버지네가 허곡 흐니까 이젠 본격적으로 이젠 흐다고 행.

@1 계난 돌구루마 허면 무신 일을 허는 거라마썸?

#2 아구, 그때 당시는 이 과수원덜.

@1 예.

#2 이제 밀감 과수원.

@1 으.

#1 그때 당시는 성담[성땀]을 다 달 때라마썸. 이제 담 단 건 저 월광동디레 가민 보입니 다마는 이 근방엔 없고.

@1 응.

#2 계민 과수원에 담 다곡 담 치우곡.

@1 으.

#1 돌 실르고.

#2 예, 돌 실렁 거 구루마에 시깁덜 운반을 일로절로 막 운반을 해얌주게, 거.

@1 예.

#2 흐 이천 평, 삼천 평 댜 디서 왔다갔다 허영 간별, 그 간성도 다고 원형담도 다고 막 허당 보면은 그거 허명 세월을 보낸 거라마썸.

@1 예.

#2 영 침 구역리꺼지도 간에 막 허명 그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젠 군대도 못 가고 방위 근무허게 댜고. 중학교만 졸업헐어도 그땐 지원 받아십주게.

@1 으.

#1 우리 친구덜은 중학교 졸업헌 애들은.

@1 군대 가신디?

#2 다 갖다왔어마썸. 저 해병대덜 지원헌에, 겐 나도 지역방위허단 보난 이 신세가 댜 불 었는데, 뉘, 겐 그렇고 겐. 나 원망, 부모 원망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니까.

@1 예.

#1 겐도 살아온 역사라.

@2 예.

#2 예, 한라산, 한라산을 여러 번 다녔수다, 또.

@1 예.

#2 그 춤.

@1 돌구루마?

#2 그 춤 돌구루마로 해영은예.

@1 응.

#2 이제 우리 저 초원에서 밧 가는 저 잠대 무클.

@1 예.  
 #1 성에.  
 @1 응.  
 #2 섬비줄.  
 @1 응.  
 #2 쉼 섬비줄 같은 거 허레. 계민 나는 그때 당시 허진 안해도 물구루마 끄는 건 나가 도  
 마탕 헛으니까.  
 @1 응.  
 #2 경 흥곡 여기 동네 들어오민 이제 그 나무를 문딱 이제 물에 컷당털 두드렁 노 꼬양은  
 에 섬비줄을 멘드는 거라마썸. 그 하르방덜이.  
 @1 으.  
 #2 나이 드신 분들이 허민 그걸 행은에 시장에도 강 풀곡, 동네 사름덜 이제 누게 맞추면  
 은 해주고.  
 @1 으.  
 #2 경 허멍 흥단 보난 뭐 이때가 뉘 거 닳수다.  
 @1 계난 그때 이제 한라산에 강은에 무클 헐 거영.  
 #2 으.  
 @1 이제 낭덜 행 올 거 아니라예?  
 #2 예.  
 @1 그 무클은 어떤 낭으로 주로 씻수과?  
 #2 거 무신 낭이파, 거?  
 #1 소리낭.  
 #2 소리낭?  
 @1 어.  
 #2 소리낭, 소리낭. 예, 한라산에.  
 @1 예, 거의 소리낭만 행 왔구나?  
 #2 예게. 거, 소리낭이우다게.  
 @1 소리낭 허레.  
 #2 소리낭이 쎄, 썸주게.  
 @1 음.  
 #1 섬비줄도 소리낭.  
 @1 소리낭도 꺾질.  
 #2 예, 그거.  
 @1 예.  
 #2 그 낭은 춤 우리 뭇로 흥냐면 썰 ㄴ치 멘드는 거라마썸.  
 @1 그러니깐.  
 #2 우리 썰, 노 꼬는 썰.  
 @1 예, 예.

#2 그걸 멘들앙 막 두드려 못앙은에.  
 @1 섬비줄 같은 거?  
 #2 우리 머리털 ㄱ치 머리털보다는 굵읍니다마는 거 손이 다 벌려져마썸. 그 하르방덜 보민은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거 돌맹이가 문딱 벌러질 정도로 막 두드령은에 헤영은에 거 깨는 건데 물에도 혼 열흘, 이십 일 등가양? 거, 낭.  
 #1 물 등가야, 물 등근 티가 안 나, 워낙 뼈닥정.  
 #2 뼈닥저.  
 @1 뼈닥정은에, 응.  
 #2 이, 속이 엇는, 이거 나무 등체기면은.  
 @1 예.  
 #2 돌레면은 이 안네 속이 엇어마썸.  
 @1 구린 거?  
 #2 예, 구린 그 뭐가 없어, 그냥 이거 하나라.  
 @1 어.  
 #2 이추록 하나, 이런 식으로.  
 @1 아, 짹 차?  
 #2 나무가 이빠이 차부니까 팡팡허난 낭이 썸다는 겁주게.  
 @1 예, 예.  
 #2 판 것이 아니고. 경 행 그걸로 허곡, 춤 그때 당신 뭐 경운기가 이수광 뭐가 이수광? 쉼구르마 아니민 물구루마라.  
 @1 응.  
 #2 겐 허단 나중엔 질 처음은 이젠 딸딸이.  
 @1 예.  
 #2 경운기 나와, 딸딸이 나와 뭐 허단 보난 이젠 뭐 화물차덜.  
 @1 으.  
 #2 팡팡 집집마다 하나씩은 잇어 놓니까 그걸로 다 헤 불고 허니까 이젠 쉼도 엇어지지 목장.  
 @1 으.  
 #2 물론 지금 잇수다마는, 동네 쉼 질루는 건 엇어전.  
 @1 예, 예.  
 #2 개인적으로. 저 쉼막에서 하나두 개 질루는 것덜은 엇어지고 딱 헤 가니까 나중엔 외 국쉼덜 막 수입덜 헤완에.  
 @1 으.  
 #2 것덜 뭐 허는 사름도 헤낫수다마는 이젠 그런 것도 엇어지고. 뭐 이젠 기계화가 뉼어 불어십주.  
 @1 예, 계난 그 물구루마는 몇 년 정도 꺾읍디가?  
 #2 어, ㄱ만 잇어 봐, 내가 열아홉, 열아홉, 혼 십 년 가까이 그자 뺏듯.  
 @1 으.

#2 뭐 길어 봤자 십 년.

@1 예, 그러면 열아홉 살.

#2 그때가 내가 몇 년, 나가 계민 열, 계민 몇 년 될 겨우팠? 칠십구 년? 아니, 아니, 육 년. 칠십육 년. 으, 내가, 내가 칠십육 년.

#1 오십칠 년생.

@1 맞아.

#2 예, 오십칠 년.

#1 오십칠 년생이지? 맞아.

#2 예, 맞아. 경허난 그때 당신 연수 가는 것도 모릅주게.

@1 예.

#2 그 나이에.

@1 예.

#2 뭐 뭐 어떻게 허영

@1 맞수다.

#2 생년월일만 알아도 존 거주게.

#1 연도 세도 안 헛어, 그땐.

#2 세질 안 해.

@1 생활이 그러니까.

#2 느 멧 설고? 이젠. 그거 나 들었주, 나 몰르쿠다.

#1 멧 설이고 다 음력으로만 허고.

@1 예.

#2 예, 참 그때 당신 이 보리, 유채, 고구마.

@1 으.

#2 하영 해십주게.

@1 예.

#2 겨민 우린 몰로도 밭 갈아놨수다, 몰로도.

@1 으.

#2 으, 계민 거 ○○아버지네 밭 그거 딱 걸릴 디가 하나 이신 밭이라, 그 밭이.

@1 응.

#2 경허민 아부지도 밭 같고 나도 밭 같고 허당은에 버청 못 헛 땀 나가 강 교대로 같고.

@1 으.

#1 모실포렌 몰로 밭 하영.

#2 예. 그렌 뭐, 그 검은 혁질이난.

#1 다 뜯밭털이난.

#2 뜯밭털이난.

#1 걸릴 게 없주기.

@1 예.

#2 비행장 ㄱ튼 디 뭐. 그런 정도 헤나신디 하여튼 뭐 그럭저럭 헛명 몰구르마 흐, 흐 팔



구 년은 기자 잘 쫓아 다녀십주.

@1 예, 계남 그 당시쯤에 이 뵈뵈.

#2 예, 예.

@1 저 과수원덜 땀들앗구나예?

#2 예, 예, 예.

@1 계남 과수원 그 돌 썩 것도 그 성담[성땀]이런 곱습니까, 여기선?

#2 예, 성담, 성담.

@1 성담 썩땀 허여예?

#2 예, 과수원 성담.

@1 그거도 성담으로 접담으로 막 이만큼 썩지 않습니까예?

#2 예. 기초가 흔 요 넓이로.

#1 그리니 성담.

#2 놔 가지고 올라가면서 삼 메다 높이예?

@1 예.

#1 이 과수원 시작할 때는.

#2 그거 안 허민.

#1 우선 밭 사 놓은 과수원이라든 성부터 썩 놔야 뵈.

@1 예.

#1 경해야 과수원 준비헛젠 허주.

#2 숙대낭 그 새마을사업으로 헛덜. 이디우다, 이 자리우다, 지금.

@1 음.

#2 이 자리구나.

#1 경허단 이젠 저 방풍림으로.

#2 야.

#1 나무로, 나무도 이젠 다 썩라 불언.

#2 세 밭 그 자동차가 잇어났수다.

@1 예.

#2 세밭자동차.

@1 예.

#1 앞 다야 하나에 뒤에 두 개.

@1 뒤에 두 개, 예.

#2 경 허민 삼춘은 더 잘 알 건디. 그든 우리 그 강○○ 씨가 그때 당시 이장이라마씨.

@1 어.

#2 계든 새마을사업으로 나온 숙대낭덜이 우리 저 마을 오름에도 심어져 잇는데 그 소나무, 숙대나무가.

@1 으.

#2 스키나무. 계든 우리 아버지는 ○○이 삼춘이영 잘 통헛니까. 그든 강 씨고.

@1 으.

@2 (웃음)

#2 형님 아우 허는 입장이난 그땔 돈 땀, 땀 만 원이나 땀 십만 원 주면은 게, 거저 갑서, 왕. 계민 새마을사업으로 나온 겁주게, 거는.

@1 응.

#2 여기 왕 땀딱 간식허영.

@1 응.

#1 딱 이딘디, 이 자린디, 간식허영 놔두민 저녁엔 왕은에 거 자동차 오렌 허영.

@1 예.

#2 그걸로 시경 구역리 강 문딱 풀아 먹고.

@1 응. 풀아 먹어 분 거주게, 예.

#2 계난, 계난, 계난 막 그 헤 줘 부는 거라.

@1 예.

#2 굴에 강 들어쳐 불곡.

@1 굴에 강 들어쳐.

#2 예.

@1 그 싱그기 실평.

#2 아니, 정 헛수다게. 정 헛 들어쳐 놔두면은 뭘 꺼내 가는 사름은 꺼내 가고.

@1 예.

#1 아니믄 뭘 데경 내 불고. 새마을사업 허멍 거 박정희 대통령 당시 그때 춤.

@1 계난 그후룩 그 산에 갓당 한번 낭 허레 갓당 오면 그 저기 얼마씩 형은에 풀읍디가?

#2 얼마, 나가 돈 받는 거는 모르고.

@1 예, 솔로?

#2 솔로도 물론 하영 받아실 거라양, 그때 당신. 뭘 돈이 춤 뭘.

@1 계난.

#2 쏘이나 술이나 뭘 그런 겁주. 무신.

#1 돈거래가 엇엇주.

#2 돈거래는 그런 건 없어.

@1 계난 몰그레 허영 돈 벌거나 밧 사거나 이러진 안헛마썸?

#2 아고, 웨려 우리 아방은 문딱 풀아 먹엇수다.

@1 (웃음)

#2 난 진짜양. 아, 삼춘도 알다시피.

@1 으.

#2 우리 동네서 월광동에서는 본토베깁주게.

@1 월광동이파? 원래?

#2 예.

@1 땀땀디구나게.

#2 예게. 땀땀디 강○○ 씨허고.

@1 으.

#2 우리 아버지가 강, ○ 자, ○ 자우다게.  
 @1 예.  
 #2 게른 그 두 분이서 젤 일이 번이지양? 경 뉘지양? 우리 할아버니네가양? 이○○ 할아버지네가.  
 @1 땅이 많앗구나.  
 #1 아방보다 하르방네가 더.  
 @1 땅 부자였구나.  
 #2 하르버지네가 그디 헨 침, 많이 헨 웨동아떨이라 농난양. 요만, 우린 하르버지 얼굴 몰라마썸.  
 @1 으.  
 #2 우리 당하르버지.  
 #1 밧 살 게 어디 잇어? 야네 아방.  
 @1 응.  
 #2 폴아먹기 바빔.  
 #1 술 흐곡, 노름흐젠 흐민.  
 @2 (웃음)  
 #2 진짜우다게.  
 #1 (웃음)  
 #2 뭐 흐 일이만 원 받앙 폴아뒀은에 노름헤 부는 거라.  
 @1 어.  
 #2 노름허기가 바빠.  
 @1 노름 자금 허젠 허난.  
 #2 예, 화투 장난, 화투 장난.  
 @1 응.  
 #1 게면은 솔직히 말헤영 나 들은 말인디양.  
 @1 예.  
 #2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곶아도 이젠.  
 @1 예게, 예.  
 #2 다 추억이 뉘는 거고. 아, 그렇구나.  
 @1 예, 맞수다.  
 #2 나도 들은 말인데.  
 @1 예.  
 #2 우리, 우리, 우리 하르버지 저 장날도 강은에 노름헛텐 말 들어집디다, 나.  
 @1 으. (웃음)  
 #2 야, 경허길래 나도 그런가, 경도 좋아해낫구나. 켜디 놈을 못살게 굴어보진 안헛텐 헛디다.  
 @1 예.  
 #2 이제 깻지.

@1 집이 거정 이신 게 이시니까.  
 #2 예. 놔줄 못살게 굴어보진 안헀덴.  
 @1 계난 노름은 안 해봣디가?  
 #2 나마썸?  
 @1 예.  
 @2 무사 안 해계.  
 #1 왜 안 허여, 아방에 아덜인디.  
 @1 (웃음) 아, 그 아방에 그 아들?  
 #2 화투 장난은 안 해마썸.  
 @1 아, 윗 노는 거?  
 #2 예, 윗 노는 건.  
 @2 아.  
 #2 험니다.  
 @1 어.  
 #2 건 뭐 벙작이니까.  
 #1 이 사름 뭐 명석이영 종지영 이디 ㄱ만 잇어, 윗가락이영.  
 #2 (웃음)  
 @1 어.  
 #1 대상, 잔치나 소상 흥민 여기서.  
 @1 선수? 선수?  
 #1 으.  
 #2 아니우다, 이젠 젊은 아이덜안터 이젠 집니다게.  
 @1 예. 알앗수다.  
 #2 어.  
 @1 그 정도 농담일랑 허고예.  
 #2 예.

## 뭍 질루기

@1 뭍은 어떻 질뤄마썸?  
 #2 뭍 어떻 뽕니깁? 그 겨울엔 이젠 출 비영 낫당 쉼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라마썸.  
 @1 예.  
 #2 그대신 구르마 꽃영 다니는 거니까.  
 @1 응.  
 #2 예, 쉼은 여러 개 질뤄도 밧 가는 건 흥나 두 껌주게.  
 @1 예.  
 #1 이 사름은 쉼 ㄱ치 질뤄주기.  
 #2 예.  
 #1 이, 새끼 내우고 번식용이 아이고 일흥영.

@1 일.  
 #1 돈벌이로 욕심헝영.  
 @1 예.  
 #2 예, 하나만 질루는 거니까.  
 @1 예.  
 #2 나는. 슷놈 하나. 허면 그때 당신 문딱 질레.  
 @1 예.  
 #2 이 아스팔트가 어디 이수광? 이제.  
 @1 예, 맞수다.  
 #2 비포장이면은 그 인도변에 읍더레 강은에 줄 메영 놔두민 그뻔 구루마들이나 다니고 사름이나 다니고 그자 곁영 다니난 차가 없으니까 자동차가.  
 @1 예.  
 #2 없으니까, 게민 질레 메영 놔뒀당은에 허민 거거서 줄 멧당은에 헝민 뵘, 뵘 나가민 수 커라 놓니까.  
 @1 으.  
 #2 막 암커 냄새 헝은에.  
 @1 으.  
 #2 그 줄 빠정은에 돌아갈 때가 이십니다게.  
 @1 예, 예.  
 #2 혼 오월달 사월 말, 오월만 뒤가민. 게민 일러 먹으민 우리 저 청수에 가면은 고.  
 #1 ○○이.  
 #2 고○○이엔 현 어른이 잇수다.  
 @1 예.  
 #2 게민 그 어른은 가다마이 입영 뵘 보레 다녀마씨. 그때 당시.  
 @2 예.  
 #2 나가 으라 번 봐십주게.  
 @1 예.  
 #2 게민 일러 먹영 헝민 그 삼춘신디 강 들으민.  
 #1 으, 요디 강 보라 싣저.  
 #2 저디 강 보라 헝민 가시오름 옆둥이나 저 모진늬이나 지거홀 꽃자왈이나 강 보라 헝민 강 보민 잇어.  
 @1 으.  
 #2 야, 거 암컷들 냄새영, 수커니까 나 거는. 게민 줄 꽃영은에 막 그냥 돌아다 녀서마씨. 게민 심어다근에 메곡 허멍 길르당 보민 뒤 겨울엔 이젠 출 비영은에 시꺼당은에 이제 혼 늬영 뵓다근에 겨울에 주곡. 감젓줄 ㄱ튼 거, 조직 ㄱ튼 거, 이제 콩꼬질 그때 당신 콩은 엇 어수다.  
 @1 으.  
 #2 나중에 콩은 나왔주마는 그때 당시는 감젓줄, 조직, 슬오리.

@1 으.

#2 아, 슬오리 저, 저, 쉼출 저.

@1 새꼴.

#2 새꼴, 새꼴.

@1 으.

#2 또 그겁주기.

@1 으.

#2 주루, 쟁 썰엥은에.

@1 게믄 집에 들막을 따로 헛 거마썸?

#2 예, 딱로, 응.

@1 쉼막치록?

#2 예, 쉼막.

#1 하나만 질루니깐.

@1 예.

#2 하나만 질루니까는 그때 당신 이 들 출덜은양?

@1 응.

#2 썰엥 쥐 불민, 저 기냥 픽 허게 못으로 데경 내불민 안 먹어마씨.

@1 응.

#2 쫓쫓 먹당 다 파손 댜 불어.

@1 으.

#2 게민 그걸 출, 출을 아끼기 위해서 헛 못 헛민 썰엥.

@1 으.

#2 뒤 못 썰엥 낫당 헛쪽 구석더레 막 썰엥 낫당은에 누까ㄱ루 거 우리 보리 저난 깍.

@1 예.

#2 체.

@1 으.

#2 그걸 버무령은에 작두로 썰엥은에.

@1 으.

#2 저 출을 썰엥 버물영 주면은 들도 깨끗이 먹곡.

@1 으.

#2 출도 절약 댜고, 겨믄 그때 당신 침 늑덜은 문딱 손ㄱ락도 막 끓으멍 해수다마는 우린 그런 건 안 끓어봐십주게.

@1 응.

#2 손ㄱ락 끓어진 사름 많아마씨, 이 저.

@1 작두질 허당?

#2 작두질 허당은에. 예, 경 허멍 침 길랐고. 이제 뉘 그때 당신 감저뻗데기덜 막 허민.

@1 으.

#2 출बाट덜 강 널엇당은에 밤인 강 줍곡. 비 온덴 헛민 후라시 들렁 강 헛곡 아이고 참.

## 돌 종류

- @1 맞아, 맞수다. 혹시 말 종류는 어떤 종류들 이수과?  
#2 아, 거 제주도 그때 당시는 오리지날 제주도 조랑말입주게.  
@1 예.  
#2 거 하나벧긔 잇엇어마썸.  
@1 예, 게도 색깔에 따라은에 부르는 이름 기억나는 거 이수과?  
#1 돌, 돌, 이름.  
#2 아, 이름? 뭐 청돌.  
@1 으.  
#2 검정돌 또 얼룩, 얼룩이?  
@1 으.  
#2 얼룩말?  
#1 월레돌.  
@1 월레, 응.

## 돌 나이

- #2 뭐 이, 그때 당시 불를 땀 그겁주. 또 나이는 혼 설이든 뭐, 뭐? 뭐엔 험니까?  
@3 (웃음)  
@1 금승매.  
#2 금싱 뭐, 일름, 돌 부르는 거, 뭐?  
#1 금싱, 이수, 삼수.  
#2 으, 으.  
#1 스수.  
@1 응.  
#2 응, 돌은 일수, 이수, 삼수, 스수 험주게.  
@1 예, 예.  
#2 경 행 불르고 쉼은 뭐 금싱.  
#1 금싱, 다간.  
#2 다간. 사릅 뭐.  
#1 금싱은 ㄱ튼디.  
#2 사릅, 뭐 영.  
#1 다간, 사릅.  
#2 예.  
#1 나릅, 다습.  
#2 영 행 불르는데, 예, 경허곡 그 영둥폐기에 그.

## 넥인

- @1 넥인.

#2 저 거 찍어지는 것이 있어, 무신 뭐.  
 #1 낙인.  
 #2 낙인 찍는 거.  
 @1 으.  
 #2 그거 해영 허민 난 그건 찍어보진 안해수다. 찍는 거만 봤지, 뭐.  
 @1 예, 예.  
 #1 건.  
 #2 나이가 어린 때니까.  
 #1 건 표시주.  
 #2 표시지.  
 #1 헛는 법이 아니고.  
 #2 나 몰, 우리 몰. 행은에 허민 찍었고.  
 @1 계난 넥인은 무신 거 써수과? 무슨거?  
 #2 우리 거 이제, 비 자 닳은 거 뭐야 거? 비, 영어로.  
 @1 으.  
 #2 비 자 닳은 건디.  
 @1 으.  
 #2 요거, 티.  
 @1 알.  
 #2 알, 알, 알?  
 @1 이렇게 똥 거?  
 #2 예, 예, 거 알.  
 @1 알.  
 #2 알을 많이 씻어, 우리는, 우리 몰은.  
 @2 무사 거 씻수과?  
 #2 거 몰라 아버지네가 정헌난 뭐.  
 @4 (웃음)  
 #2 나가 알아게? 건.  
 @1 으.  
 #2 아버지네가 허였으니까.  
 @1 응.  
 #2 나는 그땐 어린 때니까. 난 기자.  
 @1 예.  
 #2 그자 몰만 콧멍 다니곡 저 동산 올라가당 버치민 그때 ○○이 아버지네가, 몰 검은 거  
 있어났어.  
 @1 응.  
 #2 계민 박서방동산 올라가지 못허영, 날 불러.  
 @1 으.



#2 날 불르든 가쁜 반을 죽이다시피 흐민 지까짓 게 일어나야지 뭐.  
 @1 어.  
 #2 툇 들어뉘 불니다게, 돌은. 버치든.  
 @1 아.  
 #1 그디 밧이 소왕물?  
 #2 예, 소왕물밧 잇어나수다, 예.  
 #1 그 물 집이서 구루마에 툇 흐게 탕 ㄱ만이 누민.  
 #2 소왕물, 집이 와 불어.  
 #1 밧디 가고, 밧디서민 집꺼지 오고.  
 @1 딱 왓다갓다 그냥.  
 @2 응.  
 #1 어.  
 #2 우리 돌도 그런 말 잇어났어, 아, 모실포서.  
 #1 탁허영 이레 글라 저리 글라 아녀도 돌이 흰히 알아.  
 @2 어, 알아서.  
 #2 우리 아버진 술 먹영 구루마에 툇 앓이민 그자, 어라 흐민 그자 집이 와, 어아악 돌  
 우는 소리가 잇어마씨.  
 @1 예, 예.  
 #2 문 올렌.  
 @2 응.  
 #2 왓덴.  
 @1 딱 집 도착 허면은.  
 #2 예.  
 @1 왕 올어예?  
 #2 예.  
 #1 뭐이든지 오래 질루든 경, 나도 그런 쉼 흐나 질라났는디.  
 @1 으.  
 #1 여기서 슷 권에 모실포 간 슷 폴안 이젠 진탕허게 먹으난, 먹어났거든, 돈꼴을 봐서게?  
 @1 예.  
 #1 슷 폴안 돈 받으난.  
 @1 예.  
 #1 술 먹언 이만이 헨 툇허게 걸머전, 걸러전 놔두난에 아, 집이 강 멋지게 자는디 꺾설메  
 예.  
 @1 으.  
 #1 아버지가 허잇 이놈의 자숙, 이놈의 자숙 일어나렌 흐여.  
 @1 어.  
 #1 이상흐다 모실포까지 우리 아뵤이 아니 올 건디, 이상흐다 흐당 보난 우리 마당에 완.  
 @1 어.

#2 췌가?

#1 그 우리 올레가 순전히 기억 자라 영.

@1 예, 예.

#1 이추록 기억 자로 니 반디나 들어가야 댜는디 여기 살 때, 아, 그 골목을.

@1 좇아완?

#1 난 뉘 자 불어도 췌가 들어완. 경 완 보난 아, 사름은 엇곡 췌구루마가 들어왔거든. 아 버진 영 보난 걸러졌거든, 나.

@1 어.

#1 계난 이놈의 즈스 헤연 일어나렌 헉연. (웃음)

@1 아, 계난 다 집덜 알앙예? 그런 식으로 하고.

#1 오래 질루른 짐승덜 다 알아.

### 추억담

@1 으, 어쨌든 그 뭇 허명에는 이런 경험들이 할 거 뉘아예? 어떤 재미진 거나 이런 것덜 엇수과?

#2 재미진 건 뭇 별 거 엇주마는.

@1 계도 추억은 하실 거라.

#2 그때 당시는예, 또 경헉단 보난 이제 뭇구루마로 거 탈곡기.

@1 예.

#2 메테기.

@1 예.

#2 메테기지양?

@1 예.

#2 그 인향동.

@1 응.

#2 인향동에 강은에 우리가 그 뭇구루마로 허면은 기계를 시경 다녀야뉘마씨.

@1 으.

#2 그 엔진을.

#1 기계, 기계 운반용.

#2 운송을 해야 뉘 그걸로.

#1 계면은 저 와리깡, 그.

@1 으.

#1 품샐.

@1 예.

#1 사름보다 곱빼기 받았지?

#2 예, 하나 반.

@1 하나 반.

#2 두 사름은 안 받고 하나 반 적시를 받아왔어.

#1 두 사람 쥐도 싸주게.  
 #2 계민 나 가곡 허면은 두 사람 반 뛴는 거니까.  
 @1 예.  
 #2 계민 삼춘이 만약에 우리 혼 짝이면은 우린 두 사람 반이나.  
 #1 나 혼 가뎡이 허민 이딘 두 가뎡이 반.  
 #2 두 가뎡이 반이 뛴는 거지.  
 @1 응.  
 #2 계민 어마어마헌 거라마썸.  
 @1 응.  
 #2 그때 당신 허면은 춤 예, 보리낭 트멍에서 춤 자명 헤마썸.  
 @1 으, 계민 옛날에는 경운기가 없으니까.  
 #2 예, 예, 그걸로.  
 @1 그 메테기를 돌구루마에 시깅 텅긴 거라예?  
 #2 예, 예, 예.  
 #1 원동기 하나 시끄곡 메테기 하나 시끄곡.  
 #2 거 시끄는 것이.  
 @1 으.  
 #2 다이아, 그땐 이젠 밋텐 밋디 강 그걸 기젤 앓져알 거 아니짜?  
 @1 예.  
 #2 계민 다이아를 문딱 빼는 거라마썸.  
 @1 으.  
 #2 뭐 기낭 뭐 기낭 톱 기계로 뭐 유압 내리곡 허는 것이 아니고, 요즘 뭐 유압 장치 뛴 주마는 계민 물에서 내려냥.  
 @1 으.  
 #2 이젠 챗냥 들렁.  
 @1 응.  
 #2 들렁은에 이젠 호이룻대를 빼는 거라. 뛴 대여섯 사람이 모다들엉 걸 들러야니까.  
 @1 으.  
 #2 그쵸록 들러야 호이룻댄 빠집주게. 계민 걸 옆더레 빼영 낫당 메테기 쫓나면은.  
 @1 으.  
 #2 이젠 또 베르트 끼와근예.  
 @1 응.  
 #2 메테기 헤영 쫓나민 또 들렁은에 또 끼왕 이젠 돌구루마, 물 그레 디물앙 쫓영 이동을 허는 거라마썸.  
 @1 응.  
 #2 경 허명 춤 고생, 고생 그때 당신 고생 많이 헛수다. 이, 탈곡기 메테기 허명은.  
 @1 예.  
 #2 즈을 못 잤으니까.

@1 예, 그만큼 또 하영 별었잖우파?

#2 예, 하영도 별었수다. 그때 그 삼춘네가 우리 어머니 스춘 오레빈디 ○○이 삼춘이라고 현○○ 씨라고 이제 살아있고, 다 살아있구나.

@1 응.

#2 다 살아있네, 세 사람 다. 우리가 나 데려가지 못헤영 몰구루마 흐면은 나 데려가지 못헤영은에 애를 써나십주게.

@1 응.

#2 그 문○○ 씨라고 그 어른, 그 삼춘도 잊언 잘헛는데 그 삼춘허고 나허고 싸움이랍주게.

@1 응.

#2 그 데려가젠 막.

@1 응.

#2 데려와야 그 몰 그 기계를 운송허명 이디저디 돌아다닐 거니까.

@1 어.

#2 밧마다.

@1 계난 그 메테기 주인은.

#2 예.

@1 따로 잊으니까?

#2 예, 따로 잊어마썸.

@1 그 주인들이.

#2 예.

@1 저기 츠지허젠 흐 거 아니라예?

#2 예, 츠지허젠 쟁.

@1 어.

#2 빌영.

#1 인부 멧 사람 행.

#2 멧 사람, 흐 둘 전이, 두 둘 전이부떠 보리 색깔만 들어가민 그자 우리 거 헤줍서, 우리 거 헤 드라, 뭐 왕은에 우리 아버지 왕은에 술만 멕이멍 막 그냥.

@2 (웃음)

#2 나한틴 들어보지도 안흐고.

@1 음. (웃음)

#2 난 아버지가 가렌 흐민 가는 거니까, 쟁 허멍.

@1 계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구루마 헤난 사람이 계민 혼자뿐이란 거마썸, 이 동네?

#1 아이, 이 동네 뭐.

#2 이 동네는 다 잇수다마는 다 잇는데.

@1 으.

#2 저 한라산, 삼춘 앞서서 곶아 불주, 나ㄴ찌 한라산 다닌 사람은 우리 나이엔 엇수다.

@1 으.

#1 아, 저 누게 방지물 헉나 있어. 소서 ○○이.  
 #2 아, ○○이 삼춘?  
 @1 으.  
 #1 건 육지 사름인디 이디 오란, 저.  
 #2 예, 헛수다예.  
 #1 동네 부름씨헛던 사름 소서.  
 @1 예, 예, 소서 어른.  
 #2 그 물이.  
 @1 응.  
 #2 요 색깔에 점 박아진 거라.  
 @1 응.  
 #2 물 예뻐어마썸. 제주 조랑말인테 진짜 예뻐수다.  
 @2 아.  
 #2 이 영 마빡에 하얀 점 찍어지고.  
 @1 태, 태, 태성백이.  
 #2 예, 경 헉민.  
 #1 것그라 태성백이.  
 #2 태성백이. 게민 물이 족아도 진짜 으망젼어마썸. 나가 그 물을 탄에 우리 물 일러먹어 부니까.  
 #1 으.  
 #2 또 기억나네, 곱아가니까.  
 @2 (웃음)  
 #2 메테기 허당.  
 @1 어.  
 #2 저지 간에.  
 @1 어.  
 #2 저지 간에 메테기 콩 탈곡기 헉단에 그때 당시 일러먹언.  
 @1 응.  
 #2 좇지 못헉난 이젠 대책을 빨리 해야니까 이 물을 빌어단에 아까 그 물을 빌어단에 이 틀을 헨에.  
 @1 으.  
 #2 내 물 좇안에 갖다 주멍 헛는데 진짜 으망진 물이라.  
 @1 으.  
 #2 나 이 물 탄에 저지서 베르뜨 끊어져 부난 거 이스메 뒹짱, 거? 거 옷 베르뜨 이스메 거 뒹엔 헛저마는 그때 당시, 그때 당신 베르뜨 거 행은에.  
 #1 어 영, 영, 영.  
 #2 예, 나 여기 그릇 있어, 그걸로 끊어먹은 거.  
 @1 응. 췌, 췌 박은 거?

#2 예, 썬 박앙 이추룩 이런 식이라.  
 #1 이젠 잊어 붙어신게.  
 @1 응.  
 #2 게민 이 안네 저, 목고지 님은 거 이만이 긴 거.  
 @1 응.  
 #2 탁 박아놓민 이거 영 폐우기 전이.  
 @1 예, 예.  
 #2 요런 디 잘 하나두 개 영 헤영 잘못 베르뜨 확 벳기젠 허당 보문.  
 @1 으.  
 #2 그게 이, 다리덜 다치는 사름이 많아마썸. 경헤연 이제 헉난 그거 거지레 인향동 갖다  
 와야 뉘는디 갈 놈은 나벳기 엇고 톨 탕 강 오랜 헨.  
 @1 으.  
 #2 이야, 강 오문 엉둥이에 그때 당신 이, 저.  
 @1 예.  
 #2 톨안장이 없으니까.  
 @2 응.  
 @1 응.  
 #2 거 톨베에 타글락타글락 허명 즈저부니깐 새끼뜨꼬망 문탁 다 벨라져 불언.  
 @1 으.  
 #2 거.  
 @1 아, 게난 그때는 안장들 안 헛구나.  
 #2 베 먹어 불언, 베 먹어 불언.  
 @1 응.  
 #1 그런 땀 저, 약이 고녕이텔.  
 @1 예.  
 #1 고녕이텔 허민 그 조름 벗어진 디, 톨 탕 조름 벗어진 디 약은.  
 @1 으.  
 #2 고녕이텔. (웃음)  
 #1 고녕이텔 헝 부찌민.  
 #2 좋텐 험구나.  
 #1 자게 좋텐.  
 @1 응.  
 #2 야, 나 저 옛날 모슬포.  
 @1 게민 고녕이텔은 톨 테왕은에 헤마썸? 아님.  
 #1 아니, 아니 그자.  
 #2 그대로.  
 @1 어.  
 #1 그디 벳겨지문.

@1 걸 그레 끼와놓는 거구나?  
 #1 으.  
 #2 영허난게 해끄만 디로게.  
 #1 벳겨지난 습기가 잇잖아게. 그레 툃툃툃툃 놓민 버작 부평 제대로 물르주.  
 #2 이야 나 이거 들음이 처음이여.  
 @1 아.  
 #1 그게 약이라.  
 @1 어.  
 #1 옛날엔 병원엔 멀엇거든.  
 #2 병원이 어디 아까쟁끼, 잘 잇어야 아까쟁끼 잇엇주.  
 #1 병원에 가젠 허민 돈이 잇어야지.  
 @1 예.  
 #1 게난 아예 병원에 가지 안허여.  
 #2 나 이거, 이거 게난 이거, 우리 동생.  
 @1 으.  
 #2 청고개허연 가단 월광동서.  
 @1 예.  
 #2 우리 아버지넨 그 웅기그릇을 헛어마썸.  
 @1 예, 예.  
 #2 맞아. 웅기그릇을 허는디 웅기그릇 그땐 비포장도로니까 게니까 저 웅기 허영 파치덜  
 뒤는 거.  
 @1 예, 예.  
 #2 거 어디레 다 처단헉니까? 길레 다 벌린 끌앗어마썸.  
 @1 어.  
 #2 겐 나 바로 밑에 동생 청고개허연 가단 넘어전 그냥 그것에 찍어져 불언.  
 @2 아.  
 #1 으, 그디 흑이라도.  
 #2 예.  
 #1 더품은 허주만은 흑 더프기 전에는.  
 @1 응.  
 #2 구루마덜만 다니니까.  
 @2 으.  
 #2 쟁 경허니깐 집 앞이서 이것도.  
 @1 으, 무사 애기를 경 저기, 청고개를 헉디가게?  
 #2 동생게 허난게.  
 @1 (웃음)  
 #2 이제 ㄱ트민 흐끔 흐민 흥터가 안 나올 거 아니짱?  
 @1 예.

#2 이거 봅서. 이거 나가, 예, 국민학교 사학년 때.  
 @1 으.  
 #2 사학년 때 벌어진 거, 이거.  
 @1 예.  
 #2 잊어 불지 안해.  
 @1 아고야, 아버지 살아 계셔시면, 그 여기는 산양 저, 월광동은 검은굴 아니우파양? 노랑 굴도 잊어수과?  
 #1 노랑굴.  
 #2 노랑굴.  
 @1 노랑굴이우파? 원래.  
 #1 신평이 검은굴.  
 @1 검은굴, 아, 그렇구나.  
 #1 이 부근엔 다 노랑굴.  
 @1 나 옛날 그 우리 여기.  
 #2 으.  
 @1 지명 조사할 때, 그, 거 월광동 그때 같이 강 사진 찍고 헤나신디, 그 사진 어디 가신 지 모르켜.  
 #2 거 굴 잇수다, 지금.  
 @1 예, 지금도 굴 잇잖아예?  
 #2 이제 관리 잘 해야는디 저거.  
 @1 으.  
 #2 계난 나도 잊그저께 그 생각 오늘.  
 @1 으.  
 @2 으.  
 #2 이제 아가씨들이 이제.  
 @2 아주망털인디.  
 #2 오면은 이제.  
 @1 으.  
 #2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헤알 건디 허여신디 굴 얘기도 허니까 또 나오는데.  
 @1 예.  
 #2 우리 그 누구짱? ○○ 누님네역 ○○ 누님네역 ○○이 각시.  
 #1 으.  
 #2 ○○○이 각시네. 저 처녀 때니까 또 누게고, 또 누게 한 사람 이신디. 경 물구루마에 향아리 혼 뗏 개 시끄곡.  
 @1 으.  
 #2 물허벅 뗏 개 시끄곡 행은에 감산리까지 우린 나 가났수다, 감산리까지.  
 @1 폴레예?  
 #2 예, 폴레 감산리꺼지, 감산리꺼지 강 폴명 헤신디 강은에 거기 시꺼당은에 거기 어디



비, 저 마당 하나 빌영.

@1 예, 예.

#2 흔쪽 구석더레.

@1 그렇지.

#2 데며 낫당은에 그디서 장사하는 거라마씨.

@2 응.

#2 경 행은에 춤 감산리ㄷ지도 나가 갖다온 적도 있고.

#1 저 물구루마니까 고급이지, 다 등짐으로 정 가.

#2 다 등짐으로털 전 다넛어마썸.

@1 예.

#1 등짐으로 허민 항 하나 더 저저게? 허벅이른 두 개썸 지고.

@1 예.

#2 저 누게, 누게.

@1 예.

#2 우리 저 ○○이 삼춘 어무니. 양, 잘 알잖아?

#1 으.

#2 그 삼춘이 뭐 웅기그릇 장사 해연 돈 번 어른이고 또.

@1 으.

#2 예, 맞아. 야, 기억난다.

@1 예, 거난 어쨌든 이제 웅기 여기서 그릇 여기서털 해 갖고.

#2 예, 거기서도 허고, 불그릇서도 허고, 구역리서도 허고, 구역리서는.

@1 불그릇은 우리 큰아버지영 우리 아버지도 해나고.

#1 응.

#2 예구.

#1 불그릇은 지금도.

@1 예, 지금 하고. 나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밧거리에 신평.

#2 응.

@1 어른 빌어당은에 살리명은에 그걸 멘들어신디.

#2 키 족으만헌 어른.

#1 송 대장이주.

@1 송 대장.

#2 으.

@1 송 대장 말고예, 박 대장이렌 해신가? 아무튼 우리 집이 왕 살명 헛는데도.

#2 으.

@1 나는 거 몰라신디 나중에 보난 그건 거라. 켜 보난.

#1 그거라, 갓ㄴ라 움막이엔 허여.

#2 움막?

#1 그늘, 그늘집.

@1 으.  
 #1 그늘에서 물려야 돼니까.  
 @1 예.  
 #2 장, 저, 무신저 청은에덜, 아이그.  
 @1 예, 우리는 밧거리.  
 #2 거 집 컷어.  
 @1 예, 우리 밧거리 저기를.  
 #1 움막 아니라게.  
 #2 난 그때 당시에 저 ○○이, 아 저 누게고, 저 조 누게고.  
 @1 ○○이 언니네.  
 #2 조여, 조 ○○이, ○○이.  
 @1 예, 예.  
 #2 ○○이 아방네.  
 @1 으.  
 #2 그 안네 골목에 우린 빌언에 그 그릇을 멘들앗거든.  
 @1 거기는 박 대장, 우리 그 상점예?  
 #2 예, 예.  
 @1 상점 옆에가 우리 집이엇거든. 바로 내가 어렸을.  
 #2 저, 북쪽 편에?  
 @1 예, 예.  
 #2 북쪽 편에?  
 @1 거난 우리 큰어무니네 집 옆에가 우리 살던 데가 어렸을.  
 #2 상점 이신디 아니게, 상점 이신디. 아 저, 식당, 식당.  
 @1 예, 이제, 이제 식당 헛던데, 예. 아무튼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헛는데 그 쉼구루마하고.  
 #2 어.

### 집 시끄기

@1 물구루마하고 이 집 시끄거나 하는 요런 거는 어떻 헤마씨?  
 #2 아구, 쉼구루마하고 물구루마 차이 납주.  
 @1 어떻 차이납니까?  
 #2 이 쉼구루마도 물론 돌아가명 쪽 허게 놀 놀듯이 시끄는 방법도 잇주마는.  
 @1 으.  
 #2 주로 사각형.  
 @1 예.  
 #2 정사각형, 직사각형.  
 @1 으.  
 #2 구루마식으로.

@1 예, 예, 예.

#2 구루마식으로 시끄주마는 춤 시끄는 사름덜 보민 으망지게 시꺼. 뭘, 혼 못 안 털어지게.

@1 으.

#1 저 뭉구루마, 뭉구루만 더 시꺼.

#2 더 시꺼마씨.

@3 어.

#2 진짜 빵빵하게 시끄주게.

@1 거난 뭉구루마를 헨 거지, 일을예. 힘이 더 세구나.

#2 이 뭉이 엉둥폐기에.

@1 예.

#2 이, 짐 시끈 거 왕 막 닿을 정도로.

@1 으.

#2 예, 정 해야 뒤 안 자빠지고 동산도 잘 올라가고.

#1 춤 뭉은.

#2 으.

#1 압이.

#2 무거워야웨마썸.

#1 무거울수록 더 등기난.

@1 음.

#1 겨문 이 소구루마는 이렇게 사름 힘으로 밀리는디 동산 오를 때.

@1 예, 예, 예, 예.

#1 뭉구르마는 밀리질 안혀고 뒤를 들러.

@1 어.

#1 뒤를 들르든 뭉이 눌러지게, 갱 뭉은 등이 놀랏놀랏해야 땡기는 힘이 더 세주게.

@1 으.

#2 진짜 우리 짐도 잘 시껏수다.

@1 으.

#2 놈안피 뭉, 짐 가당 저거 ○○, ○○이 아털 저 땡라전, 땡라전 이 말 안 들어봣어마썸.

@1 게문 출 이런 거도 시꺼뵤마썸?

#2 예, 예.

@1 게난 쉼구루마에는 출을 땡 못 시끄니까?

#2 땡 바릴 시끄주.

@1 땡 바리.

#2 땡 바리.

@1 예, 땡 바리 시끄니까?

#2 대여섯 바리 시끄카마씨?

#1 대여섯 바리.

#2 대여섯 바리 그자.  
@1 으, 들구루마에는?  
#2 들구루마에는.  
#1 열, 열 바리.  
#2 혼 열 바리도 시꺼.

### 출똥

@1 아.  
#2 거 출에도 가 또.  
@1 응.  
#2 출이 긴 거냐.  
@1 으.  
#2 짧은 거냐 테역똥출 월광동에 거는 거의 다 보민 테역똥.  
@1 응.  
#2 테역출이라.  
@1 으.  
#2 마주 무꺼마썸. 이거 출 영 똥을 거 아니파?  
@1 예.  
#2 쟁 비영 들리민 요걸랑 한쪽이랑 꼬트머리 이레 가고.  
@1 으.  
#2 하나랑 영 행 마주 무꺼 요 가운데로 탁 무끄민.  
@1 예.  
#2 이것저것 잘 안 빠져마썸.  
@1 으.  
#2 경 헉민 하, 그 출은 아까왕덜.  
#1 잘 먹으니까.  
#2 잘 먹어마썸.  
@1 어. 맞동출이 잘 먹는 거구나?  
#2 예, 테, 테가 이만큼 길꼭.  
@1 예.  
#2 우리 일반 출은 요만큼 길믄 테를 ㄴ치.  
#1 아까 기영 안 써져신가? 발막은출이엔 거.  
@1 아, 예.  
#2 발막은출.  
@1 아, 발막은출, 예.  
#1 서로 거꿀 노다니까.  
@1 예, 예. 발막은출. 계난 늬이 동네 맞동출 헉 걸 나가 잘못 곶안.  
#2 송○○ 그 삼춘은.

@1 열 바릴 시끈다고?

#1 그 사람은 두 줍이민 흔 못.

#2 손이 커. 장갑 안 쥘은에 손 비고, 저, 저 출 비꼭.

@1 계난 출 빌 때, 그 저쪽 동쪽 가면은 큰 낫으로 비거든예? 후리거든예?

#1 으.

@1 여긴 다 줍호미로 행은예.

#1 어, 다 손으로.

#2 예, 일반 호미로.

## 물 도구

@1 일반 호미로 헤 갖고 다 허는 거고, 으. 알았수다. 이 물 그 도구예? 물 질룰 때면. 아까 이제 쉼힐 때 쉼석도 필요하고 쉼줄도 필요하고 이제 말톡도 필요했고 헛거든마씨. 물 질룰 때는 뭐가 필요해수과?

#2 건, 건.

#1 물석은 물녹대.

@1 아, 물녹대. 물석이라 안 헨 거긴 물녹대렌 허는 거라예?

#2 물녹대, 녹대.

@1 쉼석인데.

#1 어, 쉼석.

#2 쉼석이주마는.

@1 응, 계난 그 녹대는 무신 걸로 보통 멘들아수과?

#2 그때는 벨트가예.

@1 예.

#2 이제 강아지줄.

@1 으.

#2 이수게예?

@1 예.

#2 목에 영 묶는 거.

@1 목줄.

#2 빨강 거에 파랑 거에 두 줄 뒀신가, 석 줄 뒀신가?

@1 으.

#2 그거 저 가족으로 뒀 거?

@1 예, 예, 예.

#2 그걸로 해수다.

@1 예.

#2 그 종륜데 그 벨트라마씨.

@1 으.

#2 그 벨트가 그때 당신 이 방엿공장들이 많이 잇으니까.

@1 으.

#2 그 족은 벨트라고 해 가지고.

@1 예, 예, 예.

#2 그 족은.

@1 베르뜨.

#2 베르뜨를 돌려주는 것들이.

@1 어.

#2 많아십주게.

@1 예.

#1 그건, 그건 이 사름 부릴 때는 아주 신식이지.

@1 예, 예.

#2 아, 예, 게든.

#1 옛날은 스끼 꼬양은에 스끼 두 줄로 허영.

@1 예.

#2 예.

#1 끌레.

@1 으.

#1 이 옷 현 거.

@1 예.

#2 마주청은에.

@1 예.

#1 브령, 영 해영 으까.

@1 어.

#1 영.

@1 예, 팔 자 식으로.

#1 요만큼 넘게 헤근에.

@1 예, 예, 예, 예.

#2 넓었지.

#1 영 헤근에 녹덜 짜주기.

@1 으.

@2 응.

#2 이제도 그런 거 있어. 나 춤 그 저 물질메에 거 있더라고.

@1 으, 게난 그 지금 이신 물질메는 언제적 겨우파?

#2 저것이 워정 때 겹디다.

@1 워정 때?

#2 난 뭘, 뭘, 뭘헨 삼춘 앞서서 곶아점수다마는.

#1 썬로구나?

#2 예, 썬로마썬. 거 있어 이제.

@1 예, 거 나중에 우리 사진 하나 찍었어.

#2 예, 오늘이랏자 강 찍읍서마는.

@1 예, 돌질메 보명어.

#2 새로 멘들안 것도 있고.

@1 계난 옛날 거하고 오늘 거하고 이렇게 같이 찍으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도 볼 수도 있고예, 그다음에 거기 가면 영 부분 명칭덜도 알아져, 왜냐하면 현물 보든 알 수 있으니까 이제.

#2 강 거정 오카?

@1 아니, 이땅 점심 먹은 다음에 허게마씨.

@2 응.

#2 계난 이제.

@1 점심시간 다 뉘부난.

#2 그거 모양.

#1 어디 갈 거?

#2 아니, 아니.

#1 바쁘지 안허연?

#2 예.

@1 예, ㄴ찌 강은에 저기.

#2 그 모양 멘들안 그대로 간에 고산 대동기계서 세 개 멘들아십주게, 계난.

@1 으.

#2 이제 색깔 칠헨 놔두고 이제 완공은 안 멘들안 이수다.

@2 그거는 쉼질메파?

#2 이게 쉼질메마씨.

#1 이제 쓰젠?

@1 이게 쉼질메.

@2 응.

@1 돌질메는 이런 거 없어.

@2 응.

@1 좀 저기 허드라고.

#2 이, 이거 비슷한 건데.

@2 예, 예, 예.

#2 으라 가지라마씨.

@1 거 나무로만 이렇게 영, 영 뉘십디다. 이, 이거 뭐지?

#2 쉼질메?

#1 것ㄴ라.

@1 물, 돌질메.

#2 아.

#1 것ㄴ라 질메엔 안 허여.

#2 건, 저, 무슨거.  
 #1 물줍게엔 흐주.  
 #2 줍게, 줍게.  
 @1 줍게만 허더라고, 응, 물줍게.  
 #2 영 모가지에 영.  
 @1 목에만 하니까.  
 #1 이 빠로 물은 등기니까.  
 @1 예, 예 저런 식으로 안 허고.  
 @2 어.  
 #1 쉘 이 멩에톡 이 뒷야게기로.  
 @1 줍게만 잇더라고.  
 #1 등기는디.  
 @2 아.  
 #2 줍게.  
 @1 예.  
 #2 요런 식으로 생겼어.  
 @1 예. 줍게 식으로 으.  
 #2 것도 잇고.

### 불까기

@1 예, 그 예전에 그 저기 쉘 불 불르는 거. 불까는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수과? 그거  
 헐 때 술도 먹고 허멍 헛텐 헛게.  
 #1 쉘 벨 잔칠 다 허지.  
 @1 그 말을.  
 #1 그거 흐젠.  
 #2 난 그건 안 뵈.  
 #1 그거 흐젠 흐민 동네 차단을 해야 뵈.  
 @1 예.  
 #1 새 집 짓는 사람.  
 @2 응.  
 @1 응.  
 #1 흑질도 못 허게 뵈어, 흑질은 완전 비상 동티나 불어.  
 @1 으.  
 #2 아.  
 #1 으, 쉘불을 즈른다든 언제 즈르코 택일을 해.  
 @1 으.  
 #1 동네 이제 멧 사름 그 부릉이 질루는 사름덜 모여 가지고. 그럼 메칠날 좋다, 그날은  
 우리 소상도 엇고 식게도 엇고 좋다, 경 허민 젊은 여자덜 일절 못 땡기게 흐고.



@1 으.

#2 응.

#1 그 뭐 저 월월이 허는 게 켈 비상.

@1 예.

#1 여자덜. 쟁 그런 거 주의 시기곡, 이제 동네 절대 흑질 못 하게, 이 옛날은 이 요즘같이 벽돌이 아이고 돌 싸서.

@1 으.

#1 흑 블라서 이제 축담을 허니까 흑질이 켈 비상이고. 그러믄 쉼볼대장이라고 헉는디, 쉼 볼까는 사름.

@1 예, 쉼볼대장.

#1 응, 까는 것은 그 알맹일 빼 부는 거고 이진 즈른텐 헉지.

@1 으.

#1 그 연결된 심을 줄라부는 거라.

@1 으.

#1 불알. 쟁 그 계민 동네들 다 모여근에 권력을 허지. 사름이 으라이 드니까.

@1 으.

#1 소를 드러 무껴서 드러눕질 안해도 힘이 들고 것도 다 요령껏. 그자 서툰 사름이 풍허 게 들이치믄 복수진다고 해서 이 복수뼈.

@1 예.

#1 복수뼈 땅에 쉼게 닥치믄 이게 들어가 죽어 불어 병신뉘여.

@1 응.

#1 거 힘을 못 내니까 그렇게 안 허기 위해서 멍심해서 지르는 게 기술자. 게서 브르는 사름이 쉼고 기술자.

@1 응.

#1 다음은 힘.

@1 예.

#1 힘쎈 사름이.

@1 녹져야 돼니깐.

#1 우선권. 발 이렇게 무끄고 뒷발 무끄고 해서 이제 드러눕지기 시작하고, 이제 드러눕져 놓믄은 그 허는 도구는 우선 콩을 곱아 가지고.

@1 으.

#1 날콩. 거 냄새 나잖아, 날콩은.

@1 예, 예, 예.

#1 그게 방법이여.

@1 으.

#1 쟁 쉼볼에다가 막.

@1 블라 줘.

#1 문데겨.

@1 예.  
 #1 소독이지,  
 @1 으.  
 #1 우리 현재 말로. 소독헌 다음에는 도구는 그 미.  
 @1 예.  
 #1 저 어웁빵이.  
 @1 속껍질.  
 #1 요즘은 나이롱베텔 예, 나왔지마는 그걸 해서 이제 요 손가락, 요 새끼손가락 정도.  
 @1 으.  
 #1 뒤편 꼬아.  
 @1 예.  
 #1 듬실듬실 꼬면은 애려.  
 @1 으.  
 #1 뒤편 꼬아 가지고 이젠 요만큼 만들어.  
 @1 으.  
 #1 요만큼 허문 이제 이만큼 해서 그 고릴 뎀들아서.  
 @1 예.  
 #1 양쪽으로 뎀기는 거라.  
 @1 좁아뎀기는 거지, 무끄는 거지예.  
 #1 일로 혼 대여섯 사람.  
 @1 예.  
 #1 일로 대여섯 사람.  
 @1 예.  
 #1 요즘 운동 경기 때 줄다리기.  
 @1 예, 예.  
 #1 줄다리기 식으로. 그러믄 불을 해서 이렇게 딱 예 손으로.  
 @1 으.  
 #1 눌러 가지고 불알을 알려레 쳐지게 허곡 제일 가는 데.  
 @1 어.  
 #1 홀터 갖고, 그 가는 델 메어 가지고.  
 @1 양쪽으로 잡아.  
 #1 어, 이젠 대장이.  
 @1 으.  
 #1 이 고고리 질긴 노.  
 @1 어.  
 #2 고고릴 다가 이젠 영 끼어 가지고.  
 @1 으.  
 #1 거 정 위치에 들어가지믄 구령을 붙여.

@1 으.

#1 땅겨, 허믄.

@1 으.

#1 이 대장이 땅겨 허민 양쪽에선 이, 자빠지면서 앉아두서.

@1 으.

#1 발 이렇게 버터 가지고.

@1 으.

#1 팍 땡겨 붙어도 안 뛴지. 배도 끊어질 수가 있고 허니깐. 구렁에 맞춰서 슬며시.

@1 응.

#1 땡겨 허믄 쫓긋, 땡겨 허믄 쫓긋, 그러면 그땐 소가 죽어대는 거라. 앙앙 못 전더서. 죽진 아녀지만은.

@1 으.

#1 그래서 이젠 그 줄기가 불알도 두 개니까 줄기도 두 개 모양이지?

@1 으.

#1 그러면 그 베가 이 줄기 찢라지는 소리가 툭, 툭, 툭 나.

@1 아.

#1 우린 어린 때 구경만 헛지.

@1 계난 심줄들 잘라지는 거네.

#1 으, 심줄 잘라지는 게. 예, 그거 완전히 찢라졌다 허면은 쉼도 이젠 한 므심 어떻게 눈만 침 터 가지고 하늘만 베리고.

@1 아.

#1 장식만 킁킁 치는디 이젠 이걸 찢라놓민 그것의 불 즈름인디.

@1 예.

#1 이제 그 쉼볼대장이 허는 일은 이젠 그 밑에.

@1 예.

#1 불알을다가 이렇게 두 겹.

@1 떼 내야.

#1 아이, 떼 내질 아녀고, 떼 내는 거 브른다고.

@1 아.

#1 이젠 손에서 풀루와.

@1 응.

#1 이제 거기서 물이 뛴게끔.

@1 예.

#1 거 땡땡한 덩어린데 그 입제를다가 일일이 그때 예 손툭이 센 사람, 보통 사람, 우리는 안 뛴지.

@1 응.

#1 좀체로 해서 그거 까지질 아녀거든. 이, 한동안 시간이 그제 걸리는 건디.

@1 으.

#1 막 이렇게 무루쥬서 이젠 것이 그 물 뒤편 가지고.  
 @1 으.  
 #1 텅어리가, 이 뒤편은 이젠 뒤편 해서 이제 그.  
 @1 풀어 주고.  
 #1 멘, 이, 노 풀고 해연 발 무끈 거 풀어 가지고 쉼 일러 세왕. 게민 일어설, 일러 설 때는 소가 맥 풀려서.  
 @1 으.  
 #1 일어사질 못혀여.  
 @1 예.  
 #1 그림 보통 볼 잡고 등 잡고 해서.  
 @1 예.  
 #1 사름이 떠받아서 독부족해야 뒤편.  
 @1 예.  
 #1 게민 그다음은 이제 소 임제가 끌고 집에 가야돼는디.  
 @1 응.  
 #1 참, 그 죽으려 갈 도살장에 가는 소 같다, 동작이 느리믄.  
 @1 으.  
 #1 그런 식으로 자국을 못 놔.  
 @1 으.  
 #1 띄엄띄엄.  
 @1 으.  
 #1 한참 해서 짐이 가서 이제 메여 가지고 흔 메칠은 눅지도 안헤.  
 @1 으.  
 #1 소는 눅서 즈을 자야 돼는디.  
 @1 으.  
 #1 눅지도 못헿 가만히 사두서만 달달달 떨어서 한 오래 가는 것은 한 이 주 가.  
 @1 예.  
 #2 어.  
 #1 이만큼.  
 #2 붓어?  
 @1 붓곡.  
 #1 붙어 가지고. 막 부풀대로 부풀어놓면은 이제 다음부떠는 반대로 이젠 차차차차 줄어들기 시작혀여.  
 @1 응.  
 #1 그것이 삼 개월도 가.  
 @1 응.  
 #1 경 보통 일 개월이믄 일도 부리고 헛는데, 그렇게 해서 이젠 그 소는 그다음부떠는 중 성기가 뒤편서.

@1 예.

#1 불 브른 건 중성기라고 부리기도 문문허지. 게서 이제 오래 부릴라고 흐른 그렇게 불  
줄라서.

#2 불 줄라.

#1 게민 한 부락에 우리 부락에서만 하루에 흐른 일곱 마리, 열 마리.

@1 응.

#1 거 시간이 걸리니깐.

@1 예, 예.

#1 뭐, 백 마리아 못 허거든.

@1 예.

#1 사름 손힘도 있어야 뉘고 또 우리 동네 경우는 그, 그 일흐는 사름이 한 사름뿐이니까.

@1 으.

#1 ○○ 하르방.

#2 예.

#1 그러니까 말은 그 벨리를 쉼불대장, 쉼불대장.

@1 으.

#1 손특이 좋은 하르방이니까.

#2 아, ○○ 아버지도 아니고 하르방?

@1 게난 그 불도 즈르는 거허고 불르는 거허고는 딱난 겨우짜?

#1 그렇지, 으, 뉘지는 불 브른텐 허지.

@1 으.

#1 건 알, 알맹일 빼 내어.

@1 빼 내는 거고.

#1 소.

#2 불 즈르는 거.

#1 으.

#2 핏줄 줄라부는 거.

#1 줄거리 심을.

#2 이 안네 심을 줄르는 거.

#1 새끼로 땡겨서 이제 찢라놓고.

@1 으.

#1 알, 불알은.

@1 녹영, 이렇게 행은에.

#1 으, 막 풀라.

@1 응.

#1 게민 그것이 차차차차 줄어들라믄 한 달포가 이상.

@1 아이, 다른 데 가면 그 불 불른 걸로 행은에 그거 쥘 술 먹엇텐 허는 디도 이십디다.

#2 (웃음)

#1 응, 그건 기술적이라야지.  
 @1 으.  
 #1 게, 우리는 우리 동네서는 그런 식은 안 해보고.  
 @1 안 해보고.  
 #1 그런 것도 안 봤으니까.  
 @1 예, 예.  
 #1 으, 뒤흔치는 볼 까 가지고.  
 @1 예.  
 #1 술안주 허고.  
 @1 음, 그렇구나. 쟁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뭐, 일당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잔치, 그 꺾나나면들 동네 술 먹고 영 헌텐 험디다예?  
 #1 으, 게난 그 소 임자들이 그다음.  
 @1 돈 내는 거잖아예?  
 #1 어, 거, 술 가 사오고 또 술도 보통은 만들어서 먹지.  
 @1 예.  
 #2 그때 당시는.  
 #1 탁베기.  
 @1 탁베기 해서.  
 #2 탁베기는 멘들아근예.  
 #1 또 이젠 그 고급주로 저 사둔 대위허듯이 또 청줄 앓져 가지고.  
 @1 아, 예.  
 #1 막걸리 만드는데. 우선 거부터 웃동으로 한 허벅 정도 해놔뿔 건 우리ㄱ진 안 오지. 우린 어린 때니까 뿔 허지마는 보통 사름은 츠레가 안 가. 웃간부덜.  
 @1 으.  
 #1 유지 간부덜, 그디.  
 @1 청주를, 으.  
 #1 간부는 쉼불대장.  
 @1 어.  
 #1 힘쎈 사름. 일부러 저 부주로 온 사름은.  
 @1 으.  
 #1 약헌 사름이고 열웨고, 그 멧 사름 택해 가지고 청해.  
 @1 예, 예.  
 #1 누구, 누구 와야 뿔다, 오늘 저 강 ○○ 와야 뿔녹대 안다, 이런 식으로.  
 @1 예.  
 #1 그 소요뿔는 사름덜을.  
 @1 청해.  
 #1 그런 사름들부터 우선 청주 주곡, 나머지 우리ㄱ치, 저,  
 @1 옆에 영 잇는 사름덜.

#1 으, 구경꾼들은 막걸리.

@1 막걸리 으.

#1 으.

@1 탁베기 주고, 예. 아까 말하던 중에 췌가 누워부난. 지 힘대로 못 오니까 이렇게 일으켜준다고 헛잖아예? 그거를 독부족이렌 해?

#1 으.

@1 독, 다시 혼 번 그 말을 잘 알아줍서.

#1 보조역할.

@1 어.

@2 보조.

@1 아, 보조를.

#1 응.

@1 보조를.

#1 자기대로 우선 일어사지 못허니까.

@1 어.

#1 협력해준단 말이지.

@1 게난 협력해주는 말을 다시 혼 번, 뒤편?

#1 독부족혀.

@1 독부족해준다.

#1 어.

@1 독부족예? 예.

#2 그때 당시는.

@1 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불 불르는 일이고 그 불 불르는 게 요 그때 요 웃드르식당 그 거기라수과?

#1 어 예, 바로.

@1 어.

#1 이 터광 부튼 거기.

@1 예, 거기서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

#1 ○○ 하르방 살아났주기.

#2 예.

#1 강○○ 하르방.

@1 응, 넥인.

#1 그 할망이 정의서 오니까, 정의. 강 스장 글 그르쳐나니까 사장이엔 헛주게, 강스장.

@1 스장예? 예.

#1 응.

## 넥인

@1 그 이거는 불 불르는 것도 큰일이주만 넥인 헛 때도 큰일 아니우파예?

#1 응.  
 @1 넥인은.  
 #1 넥인은 간단하지.  
 @1 예.  
 #1 아까 그런 것도 이런 똥그랑흔 거 삼각.  
 @1 으.  
 #1 또 이제 예, 요렇게 해서 이거 점 북 제옌 허지이?  
 @1 예.  
 #1 영 해영 점 찍은 거.  
 @1 예, 점 북.  
 #1 이제 투표할 때 허는 건 영 드러눈 거고 사람 인 제는.  
 @1 예.  
 #1 그것도 낙인이 뒀어.  
 @1 예.  
 #1 건 자기만씩 자기, 게 아까 이 사름네 알 제 낙인도 부디 야네 아방이 만든 건 아닐  
 거라 말이여.  
 @1 예.  
 #1 그때 영어가 어디 셔?  
 @1 그러니깐. (웃음)  
 #1 에이도 몰랐거든.  
 @1 예.  
 #2 하르방.  
 #1 누게 헛단 거 봐지니까 빌어오던지.  
 @1 예.  
 #1 빌려오던지 그렇게 흔 거지.  
 @1 예.  
 #1 건 자기만씩이고.  
 @1 예.  
 #1 나보고 ○○란 건 날 표적하기 위해서.  
 @1 맞아.  
 #1 ○○라 지으듯이.  
 @1 응.  
 #1 제난 그건 야네 아방 이름이 강○○이거든.  
 @1 어.  
 #1 ○○이, 내 물이다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거지.  
 @1 예.  
 #1 쟁 그 글자도 그자 떨어질 제 그 표시.  
 @1 예.



#1 표시 인 제.  
 @1 예.  
 #2 가나가 많이.  
 #1 도장 인 제라든가.  
 #2 가나가 많이 씻주, 또.  
 @1 으.  
 #1 옛날.  
 @1 가나예?  
 #1 건 보통 낙인이라는 그 범만 있지, 그 낙인 자체는 자기만씩.  
 @1 으.  
 #1 표시니까 그 제작하는 거고.  
 @1 거난 그 낙인할 때 이제 그 보통, 뭘 허지만 쉼도 낙인 안 해수과?  
 #1 쉼도 하여.  
 @1 쉼도 낙인했잖아예? 예.  
 #1 계난 이 개개인이 질루는 사람들은.  
 @1 응.  
 #1 낙인이 필요엇고.  
 @1 목장에 올리는.  
 #1 목장에 올리는 사름덜 일러먹카 부덴.  
 @1 예.  
 #1 도둑 맞으카 부덴 경 흘 때는 또 산에 와도.  
 @1 응.  
 #1 어디 우리 목장에 강 봐, 공동목장이든 뭘 제가 나 쉼라.  
 @1 응.  
 #1 낙인, 낙인 봐서.  
 @1 예.  
 #2 다 표시들이 있어.  
 #1 그런 표식이난.  
 @1 계난.  
 #1 아, 하는 것은 그것이 이 쉼거든.  
 @1 예.  
 #1 예, 쉼 이만큼 자로 질게 만들어서.  
 @1 응, 불 켜.  
 #1 이젠 그.  
 @1 낙인 봐도.  
 #1 장, 장, 장작해 가지고 그거 불을 살라서.  
 @1 예.  
 #1 귀. 귀 가지고 이젠 쉼나 물이나 이제 순번대로 이껴오면 짐승덜은 모르거든.

@1 예.  
 #1 이렇게 숨겨 가지고 슬그머니 가서 콧 찌르든 바지직하게.  
 @1 응.  
 #1 들락귀영 가곡, 바지직하든 벌써 이진.  
 @1 귀진 거지.  
 #1 익은 썰니까.  
 @1 응.  
 #2 껌데기만 그자.  
 @1 근데 보통 그 넥인 줄 때, 멧 설에 넥인 줍니까?  
 #1 그것도 제한 없고.  
 @2 응.  
 @1 그것도 제한 엇고예?  
 #2 두 설에 주고.  
 #1 그 돌임제, 소임제가 그 생각난 때.  
 @1 예.  
 #1 또 놔미 헤가든 아이고, 나도 해야 될 건디 해서.  
 @3 (웃음)  
 #1 넥인만 뜨나지.  
 @1 예.  
 #1 또 혼두 마리 혼는 사름은 나도 그 넥인 빌려 줘. 그 넥인으로 허커라.  
 @1 으.  
 #1 자기 장만 못 혼 사름은.  
 @1 예, 그추록 하기도 하고.  
 #2 ㄴ튼 넥인 많아.  
 @1 옛날에 그 저기, 쉼 같은 경우는 허면 귀표도 이렇게.  
 #1 예.  
 @1 헤췌엇거든예? 여기는 귀표는 안 헤수과?  
 #1 무사 아녀, 다 허주.  
 #2 그때 당시.  
 #1 이 사름 집에도 다 지둥이 다 뻬어.  
 @1 응.  
 #1 이젠 청소라지만 그땐 청결이라 헛어, 왜정 때.  
 @1 예.  
 #1 일 년에 혼두 번은 꼭 헛거든. 경 행 것도이 정신 출이라, 불결하게 산다, 이거지.  
 @1 응.  
 #1 게민 뭘 초원 집이 맨 먼지 아니? 먼지 그실떡 뭘 그걸로 앵 먹엇어.  
 @1 응.  
 #1 모든 식기, 뭘, 안방에 항그릇 전부 씻고 닦고 해서 일광소독을 해야 뮐.

@1 응.

#1 것을 보고 청결.

@1 계란 청결, 청결했든 험디다게.

#1 어, 우리 이 군대서도 육군은 보른 점호라는다.

@1 으.

#1 검살 해야 돼거든. 아침저녁 우린 해병대니까 순검이엔,

@1 으.

#1 예.

@1 응, 용어가 다 뜨나예?

#1 예, 용어가 다 뜨나지. 그러듯이 그때 왜정 때는 청결.

@1 으.

#1 그러믄 이젠 것도 이, 비올 땐 안 해여. 이, 날이 좋아야지.

@1 으.

#1 그 또, 날이 좋은 날 택일해서 오늘 청결이다 혼디 오후쯤은 비가 올 때가 잇거든.

@1 으.

#1 아무 때나 또, 그러믄 그놈의 검사는 오전에 안 해줘.

@1 응.

#1 또 범위가 넓어 가지고 또 이놈의 게 동네믄 구장 정도 흐고 일본 사름이 해, 일본 시대니까.

@1 으.

#1 한국 사람덜은 자체 검사는 안 해줘.

@1 예, 예.

#1 우리도 저 심판허젠 흐민 자체 심판은 안 주듯이. 일본 사름이 검살 해야 돼. 그러믄 오후에 그렇게 비 오믄 또 비 맞히믄 안 돼어, 들어놔야지. 들어놔다가 검사 시간에 또 해야지.

@1 으.

#1 또 그날 내내 즈물도록 우천이 됴믄 뒷날 또 연기해야지. 그러니 애 먹었다고.

@1 응.

#1 그래서 그 검사관이 가서 이제 조사해서 번질번질하게 잘, 집안이고, 뭐 모든 식기 도 구고 잘 정신들여서 해놓믄 합격.

@1 응.

#1 합격 이제 도장을 탁하게 지둥에 부쳐줘.

@1 예.

#1 불합격이믄 이제 저 뭐라나 빗쟁이 가서 부찌는 것ㄴ라 뭐?

@1 차압.

#2 차압.

#1 응, 그런 표적을 가서 궤 ㄴ튼 디.

@1 헤 붙어.

#1 어. 살레 ㄱ튼 디 해 붙어. 그러믄 널이고 모레고 또 허라 이거지.

@1 응.

#1 시긴 대로. 그렇게 궤로운 걸 보고 청결.

### 백종제

@1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췌 흐는 거에 저기 또 허는데예. 여기에 다른 데 가면 은 백종제라고 해 갖고 췌 잘 번성허게 해 줘서, 행은에 제 지내는 게 잇더라고예?

#1 어.

@1 목장에 강 허는 거. 여기는 안 해봐수과?

#1 여기는 그런 거까진.

@1 안 해봤?

#1 그계 이거, 그 목축업을 주로 아녀니까.

@1 예.

#1 으, 농사일만 허니까 이 애월, 금악 그런 딴 가믄 그런 거 흔다는 그 말을 들었는디.

@1 여기서는 따로 안 허고예?

#1 으, 그 할망당 ㄱ튼 것도 지금도 거기 허는디.

@1 예.

#1 또 동네 그 큰 췌 지나거든. 천제라고.

@1 으.

#1 우리 동네도 이 오름 앞이 거보고 췌단이라는데, 그 단을 모사 가지고 해낫는디, 소개 해서 재건헿니까 췌 없어전. 그루후젠.

@1 아, 이 동넨 아예 안 해예?

#1 으, 아예 딱 찼라 버리고.

@1 으.

#1 경헿 그, 예, 일 년에 한 번씩 정월달 뒤편은 제가 잇어.

@1 예.

#1 게 그런 건 허지. 그거 헿 때 축에는.

@1 예.

#1 나도 뭇 하영 으라 집 텅겨봤지만은, 그 축 식에는 다 그거 잇어.

@1 으.

#1 오곡풍득, 예, 육축번식.

@1 으.

#1 그계 그 말이거든 곡식도 잘뒤편.

@1 으.

#1 이제 축산업도 잘 뒤편 해줍서.

@1 으.

#1 축이란 건 다, 영.

@1 예.

#1 비는 거니까.  
 @1 예, 예.  
 #1 으, 축식은 다 있는데 그런 그 축, 축우제엔 흔 건 우리 동네는.  
 @1 없고예?  
 #1 예.  
 @1 거난 별도로 안행, 다른 데는 그걸 백중제를 흔거든. 백중이렌 허더라고예.  
 #1 어.  
 @1 쟁은예.  
 #1 계민 거 백중날 흔는 거로구나.  
 @1 예, 백중날 밤에 강은에 흔고 현텐.  
 #1 그 백중도 거 서식에는 칠월 십오일인데.  
 @1 우리는.  
 #1 제주도는 칠월.  
 @1 십사일.  
 #1 십사일.  
 @1 예.  
 #1 그 뜻은 어떻게 뉘지 모르주만.  
 @1 맞아, 계난 아, 따로 저기는 안 하고.  
 #2 그건 동네마다 다 틀러났구나?  
 #1 아니, 동네가 아니고. 제주도에는 칠월 열나흘이 백중인데.  
 @1 예.  
 #1 이제 그 서식에든지 또 이제 시 \*\* 육지서는.  
 @1 으.  
 #1 칠월 보름.  
 @1 절에서도 칠월 보름으로 하고.  
 #1 어.  
 @1 계난 그 돌구루마 허명 별도로 제 지내거나 이러진 안허여나수과?  
 #2 그런 건 엇수다.  
 @1 어.  
 #1 그건 순 업자들이나 허주.  
 @1 아니, 계도 옛날에 우리 집에 하면 만약에 차를 허거나예?  
 #2 으.  
 @1 허면 차, 차 강은에 영 제도 영.  
 #2 뭐 토신제, 무신, 무시거.  
 #1 아, 아버지는 특히 멍심헤연 거.  
 #2 어.  
 #1 그런 장사업을 흔니까.  
 #2 요즘도 그런 사름덜은 이서 차, 마당에 땡.

@1 막걸리도 뿌리곡.  
 #2 어, 허는 사람도 이신디 우리는 그런 거는 안 해봐수다.  
 @1 예, 알아수다.  
 #2 판 사람들은 어떻 확실헌지 모르쿠다마는.  
 #1 그 정월 뒤편은 그 약간 예, 제는 지났어. 그제 예, 나 역시도 동네 쏘 드러 돌명 해났는디.  
 @1 건 개인 집에 강은예 영 해주는 거잖아예?  
 #1 개인, 개인만씩.  
 @1 으.  
 #2 지만씩. 지만씩.  
 @1 거난.  
 #1 정월달보고 상들이라는데.  
 @1 으.  
 #1 정월이나 칠월은 상들이라는데, 그 액막이도 뒬 겼.  
 @1 으.  
 #1 사람도 보호하고 농장도 보호하고 축산도 보호하고.  
 @1 으.  
 #1 저 만사통칠 시켜줍서.  
 #2 액뎡이, 액뎡이.  
 #1 흔 축을 고하는 거지.  
 @1 으.  
 #2 요즘 아이들이사 그거 압니까?  
 #1 게민 저 몸도 조심해야 뒬고. 정성 들여서.  
 @1 으.  
 #1 것은 가제엥도 하지마는 천제지.  
 @1 예.  
 #1 아주 보통 어멍아방 죽엥 식계보다는 아주 멩심해야 뒬어.  
 @1 예.  
 #1 쟁 그것이 그르칠라든 또 승시가 있어.  
 @1 으.  
 #1 예, 우리 집안에도 우리 큰형수가 경 해났는데, 이젠 딱 택일해서 이제 메칠날은 제를 지나야 뒬다든 그 당시는 장에 강 사오는 게.  
 @1 엇어.  
 #1 생성뵈권 없어.  
 @1 예.  
 #1 모든 걸 감주고, 이 술, 떡.  
 #2 집이서 멘들주.  
 #1 다 자급자족이니까.

@1 으.

#1 이녀 그루 만든다고 헨 그레 그는다, 난데엇이 춤 그레 골다 보난 몸엿것이 온다 말이여.

@1 으.

#1 우리 큰형수가.

@1 으.

#1 이젠 그땐 우리 아버지가 그 축.

@1 으.

#1 \*\* 쟁 시아방안티 오란 보골 드렸어. 아, 그러면 중단 허라. 안 돼거든.

@1 으.

#1 건 흐른 그 천주님 말과 그치 알고도 범흔 췌는 대췌.

@1 으.

#1 모르고 속흔 췌는 뭐 소췌에 속헌다지만.

#2 췌 받는.

#1 이건 도저히 흘 수가 없다 이거여. 흐른 췌나 받지 이득이 엇다 이거여.

@1 으.

#1 이득보기 위해서 제니까.

#2 그렇지.

#1 쟁 상당히 어려움을 받았지, 그때는.

@1 으.

#1 자기 몸도 조심해야 돼곡, 또 우선 그 젊은 여자들은 자기 자신이 멍심해야 돼어.

@1 어.

#1 나 언제쯤은 기한이다 흐른 택일이 나도 아, 좀 늦추와 줘서.

@1 으.

#1 좀 앞뎡겨 줘서, 그 자신이 알아 가지고.

@1 예, 예.

#1 으, 그런 게 제일 침 주의들이 이만저만 아니, 옛날은.

@1 알았수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 물줍게

#2 요걸랑 신형으로 허곡.

#1 요건 물줍게.

@1 예, 자, 자, 잠깐만예.

#2 예.

@2 물줍게 이거 두 개?

#1 물, 물줍겇낭.

@1 예, 물줍겇낭.

#1 이건, 이건 연결행 줄라메는 거니까 물줍게끈.

@1 물줍게끈.  
 #1 으. 이진 이 마차에 연결허는 거, 양쪽.  
 @1 예.  
 #1 이진 솜비줄.  
 @1 솜비줄. 물도 솜비줄힙니까?  
 #1 아게, 구루마에 연결허젠 허믄.  
 @1 어, 연결허젠 허믄.  
 #1 이걸로 뚫기는 거.  
 @1 예.  
 #1 뚫기는 힘.  
 @1 으.  
 #1 이진 물, 물차경이 우에 갖다 내려갓다 허지 못허게.  
 #4 이진 밧도 갈곡.  
 #1 이 중심.  
 #4 구루마에도 영 메곡 허는 거예요.  
 @1 예, 예.  
 #1 중심을 조정허는 거.  
 @1 예.  
 #1 저거 힘으로 뚫기는 거.  
 @1 이 우에 거는.  
 #2 솜비줄.  
 #1 소, 솜비줄. 이진 줍게 우끈, 알끈.  
 @1 아, 줍게우끈, 알끈.  
 #1 으, 으.  
 @1 예. 그다음에.  
 #1 이진 줍갯냥.  
 @1 예. 계난 솜비줄을.  
 #1 으, 솜비줄.  
 @1 가운데 구멍 뚫랑은엥에 이렇게 연결헬수다예?  
 #1 으, 이거 힘으로.  
 @1 으.  
 #1 말은 이 어깨.  
 #2 앞다리 우에 바로.  
 #1 이, 어깨로 이 양 소같이 모가지로 뚫기는 게 아이고.  
 @1 예.  
 #1 이 어깨 힘으로 뚫기는 거.  
 @1 계난 이 물줍겐 보난 고망이 하나, 둘, 네 개 저 헤신게.  
 #1 으, 저건 연결헬 거, 이진 도메허는 거.



@1 예.  
 #1 이, 이 솜비줄코.  
 @1 솜비줄코.  
 #1 솜비줄궁기라고 해야지.  
 @1 아, 솜비줄 공, 궁기가 이렇게.  
 #2 고망.  
 #1 응.  
 @1 두 개 잇고예? 예. 게문 이렇게 하면은.  
 #1 솜비줄로 땡경.  
 @1 응, 이견 꽃, 꽃나고. 그다음에, 이.  
 #1 게난 이것도 이 큰, 큰 물이 잇꼭 작은 물이 잇꼭.  
 @1 예.  
 #1 구루마가 이 차경이 질고 즈르니까.  
 @1 으.  
 #1 이것을 딱 이렇게 고정허믄 안 땀어.  
 @1 예.  
 #1 켜 군코.  
 @1 아, 이저는 군코.  
 #1 솜비줄은 딱 그 큰 물이고 작은 물이고.  
 @1 예.  
 #1 큰 마차고 작은 마차고 기준이 아니니까.  
 @1 예.  
 #1 크고 죽음이 예, 능히 잇으니까 맞추기 위해서 군코.  
 @1 그 쉼힐 때는 이런 군코가 엇지 안허우파?  
 #1 아, 잇어.  
 @1 쉼도 잇수과?  
 #1 소도 마찬가지로.  
 @1 아.  
 #1 군코.  
 @1 그러면은 이 솜비줄고망 허면은 이렇게 골히를 멘들잖아예?  
 #1 으, 건 연결허젠 허니깐 고리 만든 거고.  
 @1 으. 아 이렇게 군코를 해예?  
 #1 으, 으.  
 @1 그냥 군코를 허는데, 이저는.  
 #1 이것은 우리 물에 맞게 맞춘 거.  
 @1 아.  
 #1 또 늬의 말 작은 물에 허젠 허민 이 요, 요만인 허게 허꼭.  
 @1 예, 예, 예. 물에 따라서.

#1 으, 그러니까 군코엔 허는 거.  
 @1 계난 이 군코는 이거는 켜로 뒤어 잇잖아? 계민 보통 이.  
 #1 아니, 이것은 이런 걸로도 허고. 옛날은 신사란.  
 @1 예, 신사라도.  
 #1 신사란 전에는 미.  
 @1 미로도.  
 #1 으.  
 @1 솜비줄을 미로 헤 갖고 헛다는 거잖아예?  
 #1 어, 꼬아서.  
 @1 꼬아 갖고, 예.  
 #1 이것도 이거 신식이난 이 나이롱끈이지. 옛날은 이런 거 엇엇지계.  
 #2 베.  
 @1 응, 직접 베 다 드렁은에 헨 거 아니?  
 #1 계, 으.

### 돌구루마질메

@1 예, 군코. 자 그다음에 이 질메, 저기 이, 이거는 안장 험니까, 질메 험니까?  
 #1 이진 구루마질메.  
 @1 구루마질메. 돌구루마질메예?  
 #1 어, 어.  
 @1 계믄, 돌구루마질메면 여기에 이제 이 꼬리에 가는 이거는 무시거라마씨?  
 #1 이것은 고들개.  
 @1 고들개.  
 #1 고들개끈.  
 @1 이게 고들개끈?  
 #1 으.  
 @1 그러면 고들개하고 질메를.  
 #1 이, 이 이것이 소는 이런 낭인데.  
 @1 예.  
 #1 똥은 그런 걸로 아녀. 이런 거 이 우이 똥지가 와.  
 @1 예. 거난 부드럽게.  
 #1 으, 으. 똥지 사이에 이렇게 탁 허영 똥진 여기서 찰랑찰랑.  
 @1 으.  
 #1 그렇게 끼는 거.  
 @1 계난 고들개는 똥지 밑으로 헤 갖고.  
 #1 으.  
 @1 이제 하게 뒤는 거라예?  
 #1 으.

@1 계난, 이 콩지는, 이 속에는 뭐지?  
 #1 이견 이거지, 이거.  
 @1 췌, 아, 이거를 해 갖고, 저기 으.  
 #1 이.  
 #2 콩지 아프지 아녀게.  
 #1 이견에 이견 허민 으, 물가죽 벗어지고.  
 @1 예.  
 #1 아프니까 헌집이 나니까.  
 @1 으.  
 #1 보드랍게.  
 @1 보드라운 겉로예.  
 #1 이거 카바 씹은 거고.  
 @1 그다음에 아까 고들개끈.  
 #1 으.  
 @1 그다음에 이, 이견 어떤 거라?  
 #1 통채, 통틀어서.  
 @1 예.  
 #1 말구루마질메.  
 @1 구루마질메.  
 #1 으.  
 @1 구루마질메.  
 #1 말, 말구루마질메.  
 @1 예, 물구루마질메예.  
 #1 으.  
 @1 물구루마질메 허면 요렇게 짐 시끌 때 이거.  
 #1 건 채경고리. 물 채경.  
 #3 채경, 채경.  
 @1 예, 물 채경.  
 #1 으으.  
 @1 이거는 채경 뒸는 겨우짜?  
 #1 건 질메.  
 @1 그냥 질메고.  
 #1 통틀어 질메.  
 @1 아, 이거는 채경고리.  
 #1 어, 아주 세부적으로.  
 @1 예.  
 #1 골. 저, 고리엔 헌 건.  
 @1 예, 칩, 게문 채경고리는 하나.

#1 으.

@1 두 개.

#1 양쪽이니까.

@1 예, 두 개하고 이것들은 뭐라? 여기.

#1 그것은.

#4 짐 시킬 때.

@1 짐 시킬 때.

#1 저 비, 비품.

@1 으.

#1 뭇 이 소모품덜.

@1 여기에.

#1 이 손에 으정 텅이느니.

@1 예.

#1 거는 거.

@1 거는 거.

#1 으.

@1 게문 이, 이름은 뭇루 엇어?

#1 뭇 그자.

#2 그자 뭇.

#1 짐, 짐고리엔도 허곡.

@1 짐고리?

#1 으.

@1 그다음에 이 저 등에 허는 이거는.

#1 도곰.

@1 도곰예, 계난 도곰은 이 아래 이렇게 도곰 뭇잡아예?

#1 어, 이 등뼈 아프지 안허게, 아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각진 걸로.

@1 예, 계난 도곰 옆에 이 질메 엇이기 위해서 이 안에 나무가 두 개 양쪽에 잇어예?

#1 나무?

@1 어, 이 낭 이신게마씨, 요렇게.

#2 합판.

@1 합판 이렇게 헨 거. 이거는 뭇지는 모르고?

#2 그것이, 것이.

#1 그, 그.

#2 이걸 보호해주는 거주게.

@1 도곰 보호허기 위해서.

#1 으, 으.

#2 도곰 보호허기 위해서 해주는 거라.

#1 그러지.

@1 따로 이름은 엇구나예?  
 #1 어, 보조 역할하는 거.  
 @1 예, 계난 이거는 일제시대 때 거라마씨, 이걸 누게가 써난 거우파?  
 #2 제기 글읍서.  
 #1 왜정, 왜정 때.  
 #2 왜정 때 써난 거우다, 이게.  
 @1 왜정 때예?  
 #1 으.  
 @1 그 몰구루마.  
 #1 일본, 일본군덜.  
 @1 예. 그때 헤딩 내불영 간 거를 이제까지 보관헌 거 아니?  
 #1 으, 그렇지.  
 @1 아버지 때부터.  
 #2 예, 예.  
 @1 해서 이제 쓴 거고예? 직접.  
 #1 그러니.  
 @1 이걸로 행은에 몰구루마 계속 몰앗수과?  
 #2 예, 예, 많이 해십주.  
 @1 많이 허고예.  
 #1 몰구루마질메, 아까 건 이걸 모방해서 우리 국산.  
 @1 예.  
 #1 국제품.  
 @1 그다음에 이거는?  
 #1 건 질메가 움직이지 아녀게, 도망가지 안하게.  
 @1 예.  
 #1 이 베때기가 알로 이렇게 끼는 거, 오랑.  
 @1 오랑.  
 #1 오랑끈.  
 @1 오랑끈예. 그러면 구루마질메 헐 때는 이런 오랑끈 잇고.  
 #1 짐 시끌 때도 마찬가지로, 이걸 해야.  
 @1 이것 이제 하고.  
 #1 으, 이거 아녀민. 이것이 그 소나 물에서 등에서 벗어남 떨어져 불지.  
 @1 안장 헐 때 또 베에 이렇게 하는 건?  
 #1 건 들레.  
 @1 건 들레.  
 #1 으, 이만큼 큰 거.  
 @1 아.  
 #1 큰 거.

@1 큰 거예.  
 #1 어.  
 @1 그다음에 올라갈 때도 그 또 뜨나지 안해?  
 #1 발판.  
 @1 발판 행은에 하고.  
 #1 으.  
 @1 뱃대끈은 뭐우파?  
 #1 으?  
 @1 뱃대끈 현 건 엇어? 배에 이렇게 하는 거, 등쾌?  
 @2 그게 오랑.  
 #1 어 것도 마찬가지로. 오랑이 있지.  
 #2 그것이 그거.  
 #1 뿔안장에도.  
 @1 예.  
 #1 것도 이 이름은 오랑. 일반.  
 @1 것도 오랑이렌 허곡. 등쾌는 뉘렌 해?  
 #1 등쾌는 요 도곰 아래.  
 @1 예.  
 #1 도곰도 너무 뽁뽁하다.  
 @1 으.  
 #1 예, 뿔이나 소 등, 그 닳지 말게 허기 위해서 그 켓바 놓는 거지.  
 @1 으.  
 #1 켓바 일본말이지. 중간 그 부드럽게.  
 @1 중간 부드럽게 하나 더 넣어주는 거를.  
 #1 소위 그 우리 저 제주에선 거.  
 @1 등 덮어 주는 거예?  
 #1 으, 거 옛날에 깔레.  
 @1 깔레이불.  
 #1 바지, 이불이 아이고 깔레바지, 깔레저고리 해놔는데.  
 @1 으.  
 #1 그런 거, 현, 현 것덜.  
 #2 쉼나 뿔이나 보호하는 거주게.  
 @1 예, 그러면은 이거.  
 #1 요즘은 담요라고 허믄 뉘지, 담요.  
 @1 예, 예. 등에 이렇게 더퍼주는 거니까 등쾌로구나.  
 #1 으, 그걸 예, 뿔이나 예, 소에 걸 부드럽게 더퍼놔서.  
 @1 해 놓고, 이거를 올려 놓고예?  
 #1 예, 이걸 올리믄 등이 덜 아프지.

@1 예.  
 #2 야.  
 @1 이런 식으로 하고.  
 #1 으.  
 @1 아까 지금 요거는 현대식.  
 #1 이걸 왜 모방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2 지금 여기서 모방한 거.  
 #1 재래식.  
 @1 재래식으로예. 갱 이번에 이제 쓸 때.  
 #1 똑같은게 헛잖아.  
 @1 그러네, 똑같이 헛네.  
 #1 어.  
 @1 그럼 여기 저 뭐를 해야 돼쿠다예?  
 #2 예, 저, 이제 보강만 할 거. 군담요 사왓수다.  
 @2 군담요.  
 @1 군담요 사왓수과?  
 #1 으.  
 @1 음, 담요로 해 갖고.  
 @2 요 채경고리는 어디에 이어지는 거마씨?  
 #2 구루마.  
 #1 구루마.  
 @2 구루 채경에? 아.  
 #1 채경에, 채경에도 이런 고리가 잇거든.  
 @2 예.  
 @1 예.  
 #1 이디 연결허게, 그리 꺾는 거.  
 @2 아.  
 #2 철, 이젠 철구루마 이젠 멘들암서, 우리.  
 #1 그디 거디도 또 구루마 채경에 또 오량이 있어.  
 #2 있어.  
 @1 그러면, 으.  
 #1 갓이 짐을 짐 베게, 뒤 베게 시끄면 들러주, 저 빼지꼭.  
 @2 예.  
 #1 좀 앞 무겁게 허면은 눌러져서 안 빼지지만은 그, 그런 걸 방지허기 위해서 오량을 메  
 야.  
 @1 구루마채경 이거 이렇게 허면.  
 @2 으.  
 @1 거기에 고리에 이거를 연결허는 거구나?

#1 으, 으.  
 @1 경 행.  
 #1 그렇게 헤, 그렇게 헤 놔서 이걸 또 이 예, 구루마레 딱 연결허믄.  
 @1 으.  
 #1 물이 앞으로 가믄 구루마가 따라가니까. 이 질메는 구루마가 우로도 알르레도 떨어지지 않게끔.  
 @1 으, 으.  
 #1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 저 고리를 만든 거고.  
 @1 게믄 그 구루마 꺾일 때예, 사람은 어디 탑니까?  
 #1 저, 저디.  
 #2 바로 여기, 여기.  
 @1 그냥 바로 앞에 타는구나.  
 #1 으, 으, 이것도 식이 뜨나. 우리 제주 식은 여기 서는데.  
 @1 예.  
 #2 육지 식은 틀려.  
 #1 육지 식은 이쪽에 서.  
 @1 아, 우리는 왼쪽예.  
 #1 으.  
 @1 으 저기 웨, 우리 구루마도 쉼구루마헐 때.  
 #1 보통, 으.  
 @1 저 사람도 구루마에 올라탕은에 가지 안헐니까?  
 #1 으.  
 @1 근데 이거는 꺾어야 돼? 밑에서? 말 우에 앉진 안헐니까?  
 #2 말 우에 아니고, 구루마에 앉을 수가 있고.  
 #1 말위에, 구루마에 앉지.  
 @1 어. 구루마 우에.  
 #1 이거 우엔 앉일 수가 엇지.  
 #2 이거 우에는 못 앉지.  
 @1 으. 이거 우에는 못 앉고예.  
 #1 소나 말이나 구루마에 앉지.  
 @1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한 거고. 다른 물안장은 엇수과? 집에. 물 탈 때.  
 #2 안장은.  
 @1 으.  
 #2 이싯긴 이신디.  
 @1 으.  
 #2 우리 집엔 엇고.  
 @1 예.  
 #2 현장에 이신디.



#1 것도 요런 가단디.

@1 견디 흠뻘?

#2 커.

#1 으, 이런, 이 이, 이 고리, 이.

#2 나 강 가정오쿠다.

@1 예.

#1 이 고리만 엇지.

### 물녹대

@1 응, 그다음에 이거? 삼춘.

#1 그것은, 저게 물녹대.

@1 으, 이게 물녹대.

#1 물녹댄디.

@1 예.

#1 요, 요, 요렇게 해서 물, 물을 씹어서.

@1 예.

#1 여, 여기는 질게. 이.

@1 석.

#1 노끈을 해서 석.

@1 석.

#1 예, 물석 매는 데고.

@1 물석 매고.

#1 으. 이것은 이 머리뺍 우에, 귀 뒤에.

@1 이거 막 물털이 그냥 막 이신게.

#1 으, 글썄 이거 해나신게.

@1 예.

#1 경 행 이것도, 이것도 머리가 크고 작은 거 시난.

@1 으.

#1 이렇게 만들어서.

@1 예, 예.

#1 으, 옛날, 이것도 신식이지. 옛날은 이런 췌고리가 없거든. 이런 이 베르포도 엇고 허니까.

@1 예.

#1 다 이거 베로.

@1 베로.

#1 으. 이, 이런 베 꼬양.

@1 게난 동광 가니까 베로 해 갖고 물녹대 해난 거 이시더라고예.

#1 으.

@1 그렇게 이제 하고. 계난 돌꼭대는 얼굴 형태에서 연결해 주는 이런 게 돌꼭대.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는 뭐렌 헛수과? 아까.

#1 이걸 요 이 저 돌 탈 때 허는 거.

@1 예.

#1 가달석.

@1 가달석.

#1 으. 저 이, 자갈, 자갈이.

@1 예.

#1 이거.

@1 어제 배운 사람 알죠? 가달석 헛 때.

#1 어.

@1 가달, 재갈.

#1 돌 탈 때 저, 이.

@1 으.

#1 자갈허고 꼭대허고.

@1 예.

#1 이것이 다 이제 브라스해서 하, 하나로 헛 때 가달석.

@1 가달석. 갱 재갈 물리젠 해야 이거 저기를 하는 거잖아예?

#1 으, 탈 때.

@1 탈 때, 계민 재갈은 어디에 연결행 해?

#1 저, 저거. 계난 이제 그걸 찾암주게. 근데 이, 이디 신 모양이라.

@1 이게 돌 입에 저기 메우는 자갈이우파? 이게.

#1 그렇게 뒀 모양이지.

@1 으.

@2 잘못 사왓텐 아까 막 굴읍디다만은.

@1 아, 잘못 사왓텐?

@2 몰라. 하여튼. 안 뒀는, 안 뒀는 거렌 허멍.

@1 계난 이 자갈이 마음석이우파? 마음석헌 건 뭐? 따른 동네 가쁜 마음석이렌 멍음석, 이렇게도 험디다. 마함. 몰라?

#1 건, 건 몰른 말인디.

@1 어. 예. 이 동넨 계민 자갈.

#1 아칸 이걸 양쪽으로 요렇게 해서 이 입에 물려 가지고.

@1 예.

#1 이젠 이걸 자갈석 꼭댄디.

@1 으.

#1 또 이 자갈석이 또 있어. 양쪽으로.

@1 예.

#1 일루 영 일루 영.

@1 그렇지, 그렇지.  
 #1 그럼 일루 가라, 절루 가라.  
 @1 예, 예, 예.  
 #1 일루 가자 헐 땀 이짜 땡기고.  
 @1 으.  
 #1 절로 가자 헐 땀 저쪽 땡기고.  
 @1 으.  
 #1 또 이젠 그, 이, 양 가린석을 이제 혼 손에 잡아 가지고 말을 채죽헐 때.  
 @1 예.  
 #1 내가 바쁘니까 빨리 가자 해야 헐 때는 때린단 말이여, 물을.  
 @1 으.  
 #1 그 물채.  
 @1 으.  
 #1 그 안장 우에 탄 물 탄 사람이.  
 @1 으.  
 #1 이제 이랴, 어서 가자, 그 노래도 잇듯이 그럴 때 허는 게 물채.  
 @1 물채.  
 #1 으.  
 @1 그다음에 그 양쪽에 헤 갖고 채죽허젠 허민 이렇게 허잖아, 가린석? 가린석은 몇 개우 파?  
 #1 그것이 가달석.  
 @1 아, 가달석.  
 #1 가린석이엔 말이 그게 그 말.  
 @1 으. 가린석.  
 #1 으.  
 @1 가린석.  
 #1 밧 갈 때.  
 @1 이것이 재갈이고.  
 #1 밧갈 때 허는 건 가린석, 그렇게 한거히 곤는다.  
 @1 으.  
 #1 이 물 탈 때 허는 건 가달석.  
 @1 가달석.  
 @2 으.  
 #1 으, 가린석이엔 말이주, 양쪽으로.  
 @1 예. 근데 게문 이 저기 가달석도 두 개, 양쪽으로 허는구나예?  
 #1 건디 이렇게.  
 @1 으.  
 #1 하나로 해서 이렇게 헤여.

@1 하나로 해서 한쪽으로만.  
 #1 으, 아니 양쪽으로 허뿔.  
 @1 으.  
 #1 길게 해서.  
 @1 으.  
 #1 요렇게 해 가지고  
 @1 으.  
 #1 이걸 길게.  
 @1 길게.  
 #1 나는 물 위에 물안장에 앉았는데 더 길어야 될 거 아니라게.  
 @1 예.  
 #1 이렇게 헛 냅 잡아.  
 @1 아.  
 #1 그러면 그 물 탐에 익숙으면 나도 그건 해봤는데.  
 @1 으.  
 #1 헛 손, 헛 손에서 이렇게 잡아도, 요, 요렇게 해서 일루 갈라든 요렇게 허곡 또 일루 갈라든 또 이쪽을 땡기곡.  
 @1 으.  
 #1 늦춰 주곡.  
 @1 게든, 이 고리에 하나 해서 양쪽을 왔다갔다.  
 #1 으.  
 @1 저기 하는구나.  
 #1 게니까 이 녹대석은.  
 @1 으.  
 #1 이 모가지 감아 붙어, 그렇지 않으면. 이, 그 거리에 맞춰서 물 입과 그 이 질메에 거리에 맞춰서.  
 @1 으.  
 #1 걸 이 뱅뱅 돌아 가지고 여기, 여기 걸어.  
 @1 으으.  
 #1 건 필요 엇으니까.  
 @1 예.  
 #1 탈 때는.  
 @1 탈 때는.  
 #1 여기, 여기.  
 @1 아.  
 #1 그러니까. 이용물을 필요할 때 쓰게끔 이 고리 만든 거.  
 @1 게니까 물석할 때도 그냥 감양은에 내 부는구나?  
 #1 응, 물석은 이레 놓고 이걸 자갈에 석이니까.

@1 예.  
 #1 탈 때.  
 @1 으.  
 #1 탈 때는 이 양쪽 가달석을 이렇게 잡아서 가.(전화 소리)  
 @1 으.  
 #1 한거헌 때는 이렇게 잡아서, 이랴.  
 @1 맞아, 맞아, 이렇게 헛잖아.  
 #1 으, 이렇게 가고. 내가 급허다, 채죽혈 때는 손은 또 하나 필요허니까.  
 @1 예.  
 #1 이걸 이렇게 모두쳐 가지고.  
 @1 으.  
 #1 채질허는 거여.  
 @1 예, 예, 예.  
 #1 또 더 급허믄 이 발로 발 뒤치기로 말 베때기.  
 @1 으.  
 #1 옆구리 치믄 돌이 다 알앙 뛰곡.  
 @1 예, 예, 예. 이게 이제 가달석 그 저기 해 갖고 하는 거예?  
 #1 예.  
 @1 그다음 이거는 아까 녹대, 돌녹대에 연결하는.  
 #1 그렇지.  
 @1 저기 돌석.  
 #1 으, 그제 여기에 연결허는 거.  
 #2 거 기냥 무꺼 붙서.  
 #1 으.  
 #2 무껍 내 붙서.  
 @1 으.  
 #1 이렇게, 이렇게 가장 해서 이렇게 잡아서.  
 @1 으.  
 #1 이랴 해서.  
 @1 이렇게 앞에, 앞으로예.  
 #1 으.  
 @1 기냥, 으.  
 #1 그러면 돌에 대해서는 이 알주둥이가 돼지.  
 @1 예. 게민 무제미가 어디라?  
 #1 이, 이것이 무주에미.  
 @1 어, 어느 게? 이렇게 돌녹대를.  
 #1 으.  
 @1 허잖아예? 게면 입 잇는 데가 저기 무주에미 아니우파?

#1 이것이 알뜰가리거든.  
 @1 아, 이것이 알뜰가리 뉘는 거?  
 #1 으.  
 @1 으.  
 #1 이건 저 말고삐.  
 @1 예.  
 #1 코 우에.  
 @1 코 우에는 고삐.  
 #1 예, 우리 안경허는 디.  
 @1 예, 예, 예.  
 #1 그, 그 반대 방향, 이 알 이렇게.  
 @1 으.  
 #1 그래서 손잡는 데까지를 무주에미.  
 @1 응.  
 #1 경 행 옛날에는 부락에 스서라고 잇었어.  
 @1 무주에미 잡앙 이경 갓텐 헛잖아예?  
 #1 그렇지, 그렇지. 그믐 우리 동네도 살아났는디 옛날 무주에미나 잡아난 거.  
 @1 으.  
 #1 너는 쌍놈이다, 이 말.  
 @1 으. 게믐 다시 한 번예. 우리가 녹대허면 고삐렌 허는데, 고삐, 뭉.  
 #1 건 표준말.  
 @1 뭉녹대에서 이 부분만 저기 고삐 헉니까? 아니면 전체를 고삐렌 헤.  
 #1 요건만 고삐.  
 @1 위에예?  
 #1 으.  
 @1 게니까 뭉녹대에서.  
 #1 으.  
 @1 코에, 코 부위로 가는 게.  
 #1 으.  
 @1 고삐.  
 #1 으.  
 @1 그다음에 입 우이로 해서 뭉석 이렇게 연결허는 거는 무주에미.  
 #1 으, 무주에미.  
 @1 그다음에 이거 전체는.  
 #1 으.  
 @1 녹대.  
 #1 녹대머리.  
 @1 녹대머리.

#1 이 뒷머리에 오니까, 이, 말머리 우에 오니까.  
 @1 아, 이 머리 뒤로 가는 거는 녹대머리.  
 #1 으.  
 @1 그러면.  
 #1 이게 또 이 알로.  
 @1 예.  
 #1 이 알로 이제 있어. 이것이 또 이 벗어나. 귀 뒤편디.  
 @1 예.  
 #1 귀 앞으로 이거 벗어 날 수 있으니까.  
 @1 못 허게 으.  
 #1 걸 못 허게, 허게끔 이 알로.  
 @1 목 알로.  
 #1 또, 또, 오랑ㄴ치 메는 게 있어.  
 @1 예.  
 #1 특끈. 특받이.  
 @1 특끈. 특받이.  
 #1 으.  
 @1 계난 특에 메는 건 특끈.  
 #1 으, 특끈.  
 @1 그다음 이, 이거는 뭐 쉼 겨우파? 이거 양쪽에.  
 #1 건 별도로 세기가. 녹대에 포함된 거.  
 @1 녹대에 포함된 거예?  
 #1 어.  
 @1 계난 어쨌든 녹대 이콜 고삐가 아니라는 거지예?  
 #1 으, 으.  
 @1 계니까 코 위에 부분만 고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 으.  
 @1 전체는.  
 #1 종합 녹대.  
 @1 녹대, 녹대고 앞에 밑에는 무주에미고.  
 #1 들은 녹대, 소는 석.  
 @1 으, 들.  
 #1 쉼석.  
 @1 예, 쉼석, 석예.  
 #1 으. 몰도 몰로 밑에는 몰석.  
 @1 몰석, 으, 여기 해서 몰석, 예.  
 #1 손 이런 게 없으니까.  
 @1 예, 예, 예.

#1 뽕 있으니까.

@1 응. 게문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안 행 다 석으로 연결허명은에 다 해십디다.

#1 응.

@1 으.

#1 이,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다 코걸이 해근에 즐라메곡.

@1 으, 으, 으.

#1 이.

@1 맞아.

#1 또 이런 고비도.

@1 코걸이로 다 째은에.

#1 어, 요렇게 해 가지고.

@1 으, 맞아, 맞아, 맞아.

#1 이런 것도 좀 뭐 즐쟁잇줄이나.

@1 예.

#1 너딩 해다가.

@1 너딩 해당예.

#1 예, 이거 이 왜정 때로부터 이렌 아주 근대화니까 썬로 허지만은.

@1 으.

#2 철구루마 멘들앙. 철구루마.

@1 이 돌석은 저기, 이 녹대는 언제 거마씨? 이거 몇 년 똬 거?

#2 아, 그거는 똬.

#2 흔 십 년.

#1 이것도 근래 건데.

@1 십 년 근래 거예.

#1 옛날은 이런 베르포가 엇엇주게.

@1 그니까. 그 저, 똬로 헛드라고예.

#1 으.

@1 이런.

#1 배로.

@1 나이롱끈 해 갖고 저거 다.

#1 옛날은 야속허게 이런 걸 요, 요런 끈까지.

@1 예, 예.

#1 이렇게 슬지믄 둔허니까.

@1 미로 해.

#1 으. 미로 허영 ㄱ늘게 ㄱ앙 쌍줄 해서 저 여자들 머리 다듯이.

@1 예.

#1 저 끌레.

@1 응.



#1 형쥬, 형쥬 해서 요렇게, 요렇게 닿아.

@1 예, 예.

#1 얼굴이 좀 부드럽게.

@1 예, 예, 예.

#1 가다마로 허지 아녀게.

@1 으.

#1 상처 안 나게.

@1 예.

#1 그렇게 헛는디 이젠 아주 이 근대.

@2 응.

#1 일본시대 이상.

@1 이후에예?

#1 으, 발전돼 가지고 이렇게 헨 거.

@1 으, 옛날 개줄 헐 때 헨 거, 그거.

#2 개줄.

#1 예.

#2 나 원.

@1 이거.

@2 맞아.

@1 개줄헐 때 이거 목줄.

#2 계난 암물이나 솟물이나 이레 누민 나가 이거 씹와 주크라. 앞물이나.

#1 예구, 안장 왔구나.

## 안장

@2 (웃음)

#2 암물이나.

@1 나가 뉘 보카마씨?

#1 저게 발판이라.

@1 으.

#2 이게 발판.

@1 등잔가?

#2 발받이.

@1 이게 등자란 거 아니우꽈?

#2 자, 나 톨, 나 수커라.

@1 예.

@2 나 수커라. (웃음)

#2 빨리 올라타.

#1 게, 이거 탈 때, 탈 때 이 발도.

@1 예.

#1 여기도 이제 이거 우리 이 운동 것ㄴ라 뵈이옴 허여? 운동기. 운동기도 이 조바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 불안장.

@1 예, 예, 예, 예.

#1 건강 운동기. 것도 잇는디 우리 할망덜 자꾸 타는디 내가 자꾸 주의 시기는데 이거 이 발도.

@1 예.

#1 보통 이렇게들 다 허여.

@1 으.

#1 이것도 위반.

@2 예.

#1 이 앞, 발부리가.

@2 예.

#1 앞드레 나옴말동.

@1 아.

#1 요렇게 해야지.

@2 음.

#1 요렇게 해서 말을 타야 뵈. 이거 워냐, 너무 이렇게 헛다가 물이 부정 허든지, 또 뵈 탄 사름이 서툼던지 이럴 땐 발이 저리 들어갈 수가 있어.

#2 으.

@1 으.

#1 그럴 때 물이 너무 뵈믄 자기가 못 견딜 땐.

#2 아구, 버치다.

@4 (웃음)

#1 이 안장에서 떨어질 때.

@1 예.

#1 사고가 나니까.

@1 네.

#1 내 발을 보호허기 위해서 요렇게. 이 저 용천혈 앞으로만 발판을 밟는 거.

#2 아니, 암뵈덜 하 놓난 이거 뵈 솟뵈 하나가 이거 뵈.

@1 삼춘, 다시예? 이 안장, 이건은 불안장이잖아, 예.

#1 으.

@1 안장, 이 여기 사람 타는 여기는 뵈렌 헤?

#1 그런 것ㄴ지.

#2 뵈 뵈꼬망 갈 거주, 무슨 거기는.

@1 안장.

#1 뵈지 아넴디.

#2 뵈꼬망.

@4 (웃음)

@1 건 안 베와수과? 게문 이, 이거는 뭐? 이 옆이.

#1 이것이 들레라.

@1 아, 이 옆에 잇는 게 들레.

#1 이것도 이거 이 왜정 식이지.

@1 으.

#1 우리 옛날 제주도 식은 이것이 이만큼 커.

@2 아.

@1 밑으로 내려왔지예?

#1 으, 아주 커.

@1 예, 예.

#1 이만큼허게.

@1 그다음에 이, 이, 발판허는 이거는 무시겨우파?

#1 발판끈.

@1 등즈는 아니?

#1 으.

@1 발판끈이렌 해?

#1 으.

@1 게문 이거는 발판?

#1 으.

#2 아고, 앓저, 버치다.

@5 더 높게 가져오카?

#2 아니. 똬, 똬, 똬.

@1 으.

#2 이진 이진 베, 베, 베.

@1 그다음 이거는?

#2 베, 베.

#1 이진 아까 고들개.

#2 고들개, 베.

#1 이것도 저 신식으로 잘 만드난 이거지, 옛날은 다 배로.

@1 예. 고들개.

#1 으.

@1 이렇게 등자 이렇게 하고.

#1 요거 역할.

@1 예, 뒤에 거예? 고들개.

#1 또 이제 요거 역할이 잇고. 알로 메는 오랑.

@1 으. 오랑.

@4 으, 두 개, 두 개, 음.

#1 절로 요렇게.  
 #2 여기, 여기 다 허는 거. 여기도 영 들르민 여기 있어.  
 @4 아.  
 #1 거 오랑, 들레 메는 코.  
 @1 으.  
 #1 이, 이레 들레 메영.  
 @1 으, 들레.  
 #1 큰 거.  
 @1 큰 거, 밑에예?  
 #1 으.  
 @1 밑에 이렇게 하나 더 잇는 게 들레구나?  
 #1 그렇지, 그렇지.  
 #2 이걸, 이걸 메는 거라, 이거 이디 왕 메는 거라, 이거.  
 @1 으.  
 #2 이걸로.  
 #1 으, 건 고들개.  
 @1 고들개 이제 메고.  
 #1 경, 저거 아니른 이 안장이, 들.  
 #2 막음대로 왔다갔다 허여.  
 #1 머리까지 와 분단 말여.  
 @1 응.  
 #1 이탈 댜지 못허게 허기 위헤.  
 @1 예. 그난 여기도 이, 이거는 이 부드럽게 행은에 이것도 저기 뒤에 등테에 험니까?  
 #1 으.  
 @1 것도 끌레에, 저.  
 #1 어, 게난.  
 #2 끌레 역할은 이게 허는 거지, 이거, 이거, 이것이.  
 @1 예.  
 #1 이진 흠치 맨들아 불언.  
 @1 흠치 멘든 거예?  
 #1 으.  
 @1 게난 이게 이제 우리 얘기헛던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니?  
 #1 도곰, 도곰.  
 @1 도곰하고예.  
 #2 으.  
 #1 으.  
 @1 게난 도곰, 음, 도곰하고.  
 #1 그거 저레 갈 거.

@1 으으.  
 #1 고들개가 저레 부플 거.  
 #2 응?  
 @1 콘, 콘테나가 톨입니다.  
 #1 고들개가 저레 부플 거.  
 #2 고들개 아니, 이진.  
 @1 (웃음)  
 #2 벳, 벳, 벳통.  
 #1 아, 가심걸이?  
 #2 예.  
 #1 경 실허여, 가심걸이가?  
 #2 아니, 아래 베게, 베, 알베.  
 #1 오랑?  
 #2 예.  
 #1 으.  
 #3 오랑, 오랑.  
 #1 게난 톨이 저, 이제 불량헌 톨덜은 저 고들개 요거 대리, 이 조, 조름에 허는 고들개 대리, 앞거림이라고 있어.  
 @1 앞거림.  
 #1 으. 뒤트레도 너무 들락키면 자빠질 수가 시니까.  
 @2 응.  
 #1 뒤트레도 못 가게 허는 거, 앞거림해서 안장드레 연결헤. 그러면 이 안장으로 보든 이 앞에 이런 끈이 잇다 이거지.  
 @1 으.  
 @2 예.  
 #1 게민 뒤트레 못 가지.  
 @1 으.  
 #1 고들개는 앞드레 못 오지.  
 @1 응.  
 #1 오랑은 이것이 이탈허지 못허지.  
 @2 베로.  
 @1 으.  
 #1 다 거 뺑.  
 @1 앞거림이 아까 어디 이신 거마씨?  
 #1 이, 이게 앞이지. 저건 뒤고.  
 @1 아, 이게 뒤에, 아, 거꾸로 헤 붙엇네. 이젠 또.  
 #2 아니.  
 @1 아까부터 영 헛수과?

#1 보기를 경 보민 댜어.  
 #2 이것이 앞.  
 #1 으.  
 @1 아, 이렇게 탈 거 아니?  
 #2 어, 아, 그러네.  
 #1 이렇게 탈 거.  
 #2 아, 이거, 이거. 이것이 앞이여 찜.  
 @1 으.  
 #1 이게 일로 이것이.  
 @1 어.  
 #2 꺼꺼져 불언, 난리난다.  
 @2 콘테나 꺼꺼져 불엇저.  
 @1 콘테나 누게네 거?  
 #2 콘테나 하나에 백만 원이라.  
 #1 허허. 저레 앓다 놓[노]민 댜어. 지슬 임제.  
 @2 예, 예.  
 #1 지슬 임제난 저레 앓다 놔 불민 댜 거고.  
 @1 어떻 헐 거니게?  
 @4 (웃음)  
 #2 어떻 안 허여.  
 @2 원래 깨져언.  
 #1 이게 앞이고.  
 @1 예.  
 #1 옛날에 구한국 시절에 그 원래 안장은.  
 @1 으.  
 #1 이 서툰 사람 잡게 이, 손 이렇게 잡게끔.  
 #2 손잡이가 잇어.  
 #1 이렇게 잇엇어.  
 @4 맞아.(전화 소리)  
 #1 이렇게, 이렇게 췌가.  
 @2 으.  
 #1 손잡이.  
 @2 으.  
 #1 손잡이라고.  
 @2 예, 예.  
 #1 이건 워낙 익숙은 사름덜 허기 위해서.  
 @1 으.  
 @2 으.

#1 일본 사름덜.  
 @1 겐디 진짜로 깨져 불었네.  
 #1 으.  
 @2 원래 깨진 거.  
 @1 으.  
 #1 일본 사름은 이거 웃어도 그자 타기가.  
 @1 저기가 이제 뒤에고, 이렇게.  
 #1 덜락탁덜락탁.  
 @1 (생략) 음,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안장. 어쨌든 이제나중에 뭘 이렇게 안장 딱 헤 논  
 거 찍어놓면, 으.  
 #1 저, 고들개라는 것이 이, 이, 이렇게 나와야 땀.  
 @1 으.  
 @2 응.(전화 소리)  
 @1 게니까 안장 뒤쪽으로 해서 뒤로 이렇게예? 예, 예, 예.  
 #1 어, 건 쫘지에 매는 거.  
 @1 이거예?  
 #1 응.  
 @1 이거, 이거.  
 #1 이건게 뭘에 땀 때다가 앞드레 가지 못허게.  
 @1 게니까 어쨌든 이 고들개끈이 안장에도 잇고 요 질메에도 잇고.  
 #1 그렇지, 그렇지.  
 @1 하긴 꼬리쪽으로 가야 땀니까 그렇구나?  
 #1 허, 잘도 주문했네, 원.  
 (중간 생략)

## 2. 서귀포시 하원동 목축 문화 구술 1

- 조사 일시: 2020. 8. 14.
-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부영심 @4 김영란 @5 오경임
- 제보자: #1 강상흥

### 제보자

@1 어떤 일 허명 살안마씨?

#1 어떤 일, 그자 난 촌에서 난 사람이난양. 그 난 그자 이 초등학교 ㅁ치고, 중학교ㅁ진 ㅁ찾습니다. 게, 그 뭐 저의가 아버지는 뭐 저의 제우 첫뎃 넘어 가지고 세 설 적에 돌아갔 다고 해도 나 십이월 생이니까, 첫뎃 넘언 두어 들벧권 안 댜언 어, 돌아가니까 아버지 얼굴 도 몰르고, 이 그자 어머니 밑에서 그 커오면서 뭐, 촌에서 옛날이야 어떻게 뭐 먹을커나 장 만허곡 그자 그제 모든 거시기니까, 어머니 혼자 이, 우리 누님, 우의 누님이 둘이 잇고 형님 이 ㅎ나예. 나가 이 남 스 녀에서 막낸데, 이 형님이나 누님은 나가 뭐 어릴 때 시집가 버리 고 쪼끔 커가니까 뭐 우선 우리 그 공부허는 거보단 ㅁ음가짐이 그 부모에서 우선적으로 어 떻게 요 쉼라도 ㅎ쉴 강 ㅁㅁ이곡 요 무신거 허여근에 그자 가정에 쪼끔이라도 도움뵈는 걸 부모님도 요구헸고, 나 자체도 이 저 쪼끔 이거 뭘 현 말입니다마는 공부허는 디 좀 게을렀 어마썸.(웃음)

@1 음, 옛날에는 다 경해십주게.

#1 그래 가지고서 좀 이 어디 뭐 ㅎ교라도 텅이렌 허민 가당 싹프민 어디 그자 동산에 가 근에 그자 옛날 봄철에 그 밋볼레예.

@1 예.

#1 그거나 타먹곡 삼동이나 타먹곡. (웃음) 어, 경허당 그냥 돌아와 불기도 허엿고. 뭐 그 령게, 그제 그런 그 농스 조금 커가니까 농솟일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1 게난 이제 농스허곡 쉼 질루멍 살앗구나예?

#1 예. 쉼 질루멍 살면서 이 우선 촌에 기본 농스야게, 소 키워서 그 이거 첫째 소를 이 용헤 가지고서 모든 짐 운반허는 게 주 목적이고, 다음에 소를 이용헤 가지고 밧 갈고, 그 씨 뿌려서 이 농스 헤여들이는 게 주목적 아입니까?

@1 예.

#1 거 그런 거 베와가는 겁주.(웃음)

@1 게문 이 하원이 옛날 이름은 무시거마씨? 이 동네 이름은?

#1 아, 원래 하원, 본부락 이름이 하원.

@1 옛날부터 하원예?



#1 예.

@1 계문 주민은 어느 정도 돼마씨? 하원동 주민 수는?

#1 아, 주민은, 어, 보통 부락치고는 쪼끔 큰 편입니다게.

@1 예.

#1 예, 우리가 어릴 때 계난 보통 어른덜 이야기허기는 하원 그자 약 호수로 이백 호에서 이백오십 호 댜다고 합니다만 지금은 아마 세대에 수가 한 육, 육백 호에 다다를 겁니다.

@1 음, 영 도시화뉘명은에 하영 들어오난예?

#1 예.

@1 계난 예전에는 이백 호, 이백오십 호렌 곶앗어예.

#1 예.

@1 계문 한 주민 수가 혼 천 명은 뉘나신게예?

#1 예, 예.

@1 예, 그, 계문 그 주민들은 다 농스짓고, 거의 대부분이?

#1 예. 거의 뉘 부락 주민덜이 거의가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1 예.

#1 농사 안 짓는 사람, 뉘 공무원이나 우리 어릴 때 뎡기는 사람 저의 기억으로는 뉘, 혼 두 명에 불과합니다.

@1 예, 기지예? 계문 이제 그 쉼 질러난 거부며 들어보커라예?

#1 예.

## 쉼 질루기

@1 쉼 질루젠 허민 어떻 질러수과? 옛날은?

#1 쉼 어떻은 어떻 질러와마썸? 뉘 집이서 소가 혼썰 이, 잘사는 집은 소를 혼두 머리, 뉘 머리 정도 질립니다. 이 밧 갈 수 잇는 그 숫소 혼썰 큰 놈허곡, 또 이 새끼라도 번성허기 위해 가지고 암소허곡 보통 두 개, 뉘 두 개 넘어 질러는 사람은 그 업으로 질러는 사람은 뉘 없지 아녕 쪼끔 잇었습니다마는 그 우리 어릴 적에 저가 알기로는 뉘 저가 쪼금 알만 허니까 사삼사건 나 버리니까, 아, 그전에 거는 자세히 모르고 사삼사건 날 당시에는 소 두 개나 밧갈소허곡 경 아녀민 말 정도 혼나 메는 집, 또 소도 아무 몰도 하나토 길루지 못 허는 집이 대부분 많았고.

@1 예.

#1 그랫수다.

@1 예. 계문 그 쉼도 그 종류에 따랑은에 이름들도 트나지예?

#1 예.

@1 쉼 일름 불르는 것도 하나지 안헛수과? 아까.

#1 아이, 옛날 소는.

@1 으.

#1 아이게 뉘, 숫소 이 저 누런 손 보통 그 황소라고 허고, 또 그 황소에서도 거뭇거뭇헛 털 부쁜 놈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 게 속쉼, 속쉼 허는디 그 속쉼라고 그 표준말로 이야

기힐 겁니다.

@1 아, 예. 삼춘네 곶아 온 대로 허믄 뒤어예.

#1 예.

@1 이 동네 말로예, 예.

#1 또 이 검은소 종류가 잇고예.

@1 예.

#1 또 얼룩소가 있습니다.

@1 예, 어럭췌.

#1 검은얼룩소도 잇고 노랑얼룩소도 잇고, 또 배만 얼룩진 놈도 잇고.

@1 응.

#1 이게 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 현디.

@1 응, 그 아까 얼룩소엔 헛는데 이 동네서 어럭췌엔 안 곶아수과?

#1 어럭췌.

@1 예, 어럭췌지예?

#1 예, 어럭췌.

@1 게믄 그 어럭췌, 배만 저기 어럭췌믄 배어럭췌?

#1 예, 배어럭.

@1 예. 그다음에 또?

#1 아, 배어럭, 총어럭.

@1 예.

#1 게, 보통 배가 얼럭져 가민 총기도 머리 꺾강이 조끔 희어마췌.

@1 예, 갱 거는 총어럭췌.

#1 이 또 다리어럭.

@1 예.

#1 (웃음) 어럭 종류도 으라 질. 등꺾지도 이 어럭진 게 완전히 그거 등어럭.

@1 등어럭예?

#1 그 큰 어럭진 췌.

@1 으, 게니깐 황어럭허고 흰어럭도 잇고.

#1 예.

@1 게난 예전에는 흰어럭이 핫수과? 황어럭이 하낫수가? 노란어럭췌?

#1 보통 그 뭐 어럭췌, 노랑어럭이나 검은어럭췌가 이거 보통 지금 영 생각해보면은 그 제주도에 들어온 소들이 거의가 몽고종입니다.

@1 예.

#1 이 몽고종인데 그게 몽고에서도 젓소 종류에 속허지 아녜는가 생각합니다게.

@1 음.

#1 이 보통 배어럭치고 이 거시기헌 췌털이 보통 젓물이 좋아.(웃음)

@1 응.

#1 (웃음) 경허고 이 검은어럭췌나 이 노랑어럭췌보단 검은어럭췌가 젓물이 조끔 더 좋고.

@1 으.

#1 노랑어럭쉐는 그렇게 많도[만토] 아녀고 검은어럭쉐가 조금 많습니다.

@1 예. 게믄.

#1 그리고 이, ㄱ사도 이 쉼 색제엔 검은쉐에서도 등골이 또 노린소가 있습니다.

@1 예.

#1 건 에 검은신쉐.(웃음)

@1 검은신쉐.

#1 신쉐.

@1 예.

#1 예, 신쉐라고 이거 희뚜룩허덴.

@1 으.

#1 그런 그 얘기를 합니다.

@1 예. 예, 게믄 암쉐허고 부릉이 험니까? 여긴 부랭이 험니까?

#1 아, 그 부릉이라고.

@1 아, 예.

#1 부랭이, 부릉이, 부랭이, 부랭이라고 험주.

@1 예. 부릉이는 솟소우파, 황소우파?

#1 으, 솟소.

@1 으.

#1 아, 솟소는 그자 황소건 흑소건 전부 그건 부릉이.

@1 부릉이. 예. 그다음 새끼 나는 건 암쉐?

#1 예.

## **뽕 이름**

@1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그 쉼도 뽕 모양에 따라랑도 불르는 이름도 트나지예?

#1 예.

@1 어떻 트납니까?

#1 쟁 뽕이 우트레 올라가민 천상각.

@1 예.

#1 예. 게 또 뽕이 영 흐나는 우트레 올라가고 흐나는 알러레 느려간 놈 이진 천지각.

@1 으, 천지각.

#1 이진 또 요 앞드레만 영 들어온 건 뽕 바로 박은 거엔 전향각.

@1 전향각.

#1 (웃음) 이렇게 불립니다.

@1 예. 게난 천상각, 천지각.

#1 예. 전향각.

@1 전향각. 으, 앞으로 향헛다고 헤서예?

#1 예.

@1 그다음에 뿔도 막 들각들각허는 거 잇잖우짜?

#1 예?

@1 뿔 움직이는 거?

#1 아, 그거는 아주, 그건 그 좀 저 뿔 움직이는 거 들각뿔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1 예.

#1 그제, 그제 이 제대로 뿔 뿔이 아이라 그건 좀.

@1 늙은 췌.

#1 저 췌가 그 뿔 나면서 이 거 잘못된 겁니다게.

@1 예. 들각뿔이도 잇고예.

#1 예.

@1 뿔 엇인 췌도 이십니까?

#1 뿔 엇인 소는 드뭅니다.

@1 아, 그.

#1 지금은 뿔 뿔 안 나는 소가 많습시다마는 뿔 그전엔 뿔 엇인 췌는 드물고.

@1 예.

#1 경헌디 이 소에도 이디.

@1 이마예.

#1 앞에 이, 하얀 털 박은 놈, 그 태상박은췌라고 허는데.

@1 예. 태상박은췌.

#1 소는 태상만 박지만은 뿔은 또 이.

@1 코까지.

#1 이디 헤영허질 아녀고 이 코깅장 거의가 희어마썸양.

@1 예.

#1 그건 예, 간, 흰간전이라고 이, 이렇게덜 이야기합니다마는.

@1 예. 흰간전이.

#1 예.(웃음)

@1 계난 옛날 어른들은 그 모양만 봐도예.

#1 예.

@1 다 이름들을 붙인 거 아니라예?

#1 예.

## 췌 용도

@1 예, 그처럼 이제 하고, 예. 그 다음에 췌는 무사 질론 겨우짜? 용도가 뿔우짜?

#1 아이고, 보통 소가 말보다 힘이 좋아예.

@1 예.

#1 이, 말은 뿔 어디 타고 가는 데는 빨르지만은 소는 뿔 짐이나 많이 실러 가지고서 가는 것은 말보다 힘이 좋아.

@1 예.

#1 저고 이, 저 서쪽이나 동쪽 그 자갈이 벨로 엇는 밧덜은 말로도 갑니다. 현디 이 근방은 전부 밧이 자갈이 심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밧을 갈지 못합니다.

@1 음.

#1 이, 말은 재니까 이, 잠대를 지프면은 자꾸 이 걸려서.

@1 올라와 불어예, 예?

#1 갈 수가 엇어예.

@1 예.

#1 자꾸 가다가 돌 걸리민, 게난 밧 ㄴ튼 거 갈젠 허면은 필히 쉼라압주.

@1 응.

#1 게난 또 암췌도 밧은 갈긴 험니다만은 암소는 힘이 솟소만이 췌질 못허니까 거의가 솟소로 밧을 갑니다.

@1 예. 여기는 게난 그 밧갈췌들이 다.

#1 예, 밧갈췌, 밧갈췌 험주.

@1 예.

#1 보통 솟췌 ㅎ쫌 나이 들면은 밧갈췌.

@1 어.

## 불까기

#1 경현디 밧갈췌도 보통 이 다섯 설, ㄴ섯 설이 넘으면은 이 불을 까버립니다.

@1 예.

#1 이걸 불까기도 허곡 그냥 즐룬다고 해 가지고서 엇날 그 뭐 병원 그 의학이 널어지지 아년 때니까 그 불 베어서 이 잘못 뒤편은 소도 죽을 수도 이시니까 그걸 그 소 불알을 이 슻끼, 질긴 슻끼로 꼬아 가지고서 이 췌 녹져놔서 그거를 덩드렁.

@1 으.

#1 밑에 놔 가지고서 그 마께로 막 못아 가지고.

@2 아.

@1 하.

#1 그 소위.

@1 불.

#1 그 생식기를 엇이해 버리는 겁주.

@1 예.

#1 (웃음)

@1 그췌룩 행은에 그 현 췌는 뭇렌 헤마씨?

#1 건 중성기.

@1 중성기예?

#1 예.

@1 그치룩 허영은에 허고. 게문 주로 췌는 밧 갈거나 짐 시끄거나 허는 데.

#1 예.

@1 이용했구나예?

#1 예.

@1 그 저기 육소, 그냥 고깃소로 해 갖고 쫓 거는.

#1 아, 고깃소는 아주 극히 드물어십주.

@1 드물고예? 다 농사짓기 위해서.

#1 아, 이게 솔직헌 말로 이, 진상품이라고 해 가지고서 뭐, 검은소 좀 흔 네 설 내지 다섯 설 정도의 검은소를 진상품으로 납품해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 우리가 듣기로는 이 부락 향교에서도 그 일 년 흔 번 석전 지내젠 허면은 그 어느 부락택해 가지고서 검은소로 해 가지고서 해영 돈 쥬 사가는 디도 뭐 제라흔 깎 주지 아녀고.

@1 응.

#1 (웃음) 좀 거시기 그 관에서 뭐 행사허는 거라고 해 가지고 조끔 깎을 뭐 멧 십 프로 노력와 가지고서 뭐, 사냈다고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1 게난 그런 거는 삼춘네는 직접 봐보지는 안 허고예?

#1 예, 안 봤습시다.

@1 들은 말인 거예?

#1 예.

@1 게문 이 동네도 검은쉐들은 잇어났구나예?

#1 예, 검은쉐야 많아십주.

@1 어, 검은쉐가 힘 썸니까, 저기 노란쉐가 힘 썸니까?

#1 아이, 거 힘은 거의 비슷비슷해마씨.

@1 아, 비슷해마씨?

#1 예.

## 질들이기

@1 그러면 저, 쉼 밧 갈고 뭐 짐 시끄젠 허민 질들여야 돼지 않읍니까양?

#1 예.

@1 질들이는 건 어떻게마씨?

#1 아하, 질들이젠 허면은 우선적으로 그 밧 갈기 전이 짐 시끄는 것부터 먼저 그르칩니다.

@1 예, 예.

#1 예, 흔 세 설 정도 돼면은 이 질마를 만들어서 이 짐을 시끄는데, 처음은 무거운 짐을 안 시킵시다. 아주 가볍게 시켜 가지고서 해도, 그걸 시끄면은 그 소가 뭐 그냥 다니다가 그 거 뭐 이 질메 시끄고 짐 시끄면은 아멩해도 좋지 아녀니까 벗어 불라고 막 들락키고 벨 지랄을 다 합니다게. 게민 그걸 벗지 말게 딱 양옆이 뭐 두 불, 세 불 딱 무꺼 가지고서 허면은 경 허당 버치민 그냥 걷기 시작허는디, 또 짐을 영 트리와마썸.(웃음)

@1 예.

#1 트리우면은 이쪽으로 강 돌도 질르곡, 저쪽으로 저레 트리와가문 허고. 경허면서 이 질들이고. 쟁 짐 시끄는 거 완전히 익숙허면은 이 밧 가는 걸 이, 거시기 혈라면은 그 고개로

힘 내 가지고, 이.

@1 멩에 꺾어야 뉘믄예.

#1 멩엿줄을 꺾는 거니까 그 고개 힘 내우기 위해 가지고서, 이 저, 돌, 이 꺾는 돌 만듭  
니다.

@1 예.

#1 만드아 가지고서 여기 고망 똥라 가지고서 이 멩에를 씌와서 이 멩엿줄로 여기 연결시  
켜서 꺾는데.

@1 제난 그 돌은 무신 돌마씨?

#1 예?

@1 그 돌 일름은 뉘우파?

#1 (웃음) 그거 돌 일름은 이젠 잘.

@1 뉘 곱, 곱돌이엔.

#1 이제ㄱ진.

@1 안 험디가?

#1 예?

@1 곱돌.

#1 곱돌이 아납주.

@1 아, 여기는 곱돌이엔 안 허는구나예?

#1 예. 그 곱돌이엔은 안 헛고.

@1 거 나중에 혼번 튼내보고예.

#1 예, 예. 아이 뉘 하여튼 돌 꺾어수다게.

@1 으.

#1 돌, 돌 꺾어 가지고서 그거, \*돌 꺾으면은 처음 어떤 놈들은 막 무주건 잡아다가 뛰기  
도 허고, 또 어떤 건 간세로 꺾다가 실패 가지고 드러눕기도 허고 뵈 지랄 다 험니다게.

@1 예.

#1 (웃음) 그걸 침, 쟁 드러누워근에 허면은 그걸 어떻게 혼련시킬랴면은 메닥질허면서 헤  
가면은, 아프면 일어나게 잡아 든기도 허고.

@1 으.

#1 또 그 돌 꺾엉 흐쉴 익숙어가면은 뵈 갈길 시작허는디.

@1 으.

#1 이 뵈 갈레 가도 이 그냥 돌 꺾는 건 그냥 영 헤영 팽당헌 질레 가다근에 조곰 작지만  
걸리니까 넘어가는데.

@1 응.

#1 뵈은 갈다근에 돌 톡허게 뵈히면은 넘어가질 못 험주게.

@1 예, 큰돌 걸리믄예, 예.

#1 경허민 파들락허게 뛰는 수도 잇고, 이 어떻게 가당 자꾸 걸려가면은 드러눕기도 허곡  
게, 뒤물러사기도 허고 아이, 뵈 ㄹ르치는 게 아주 힘이 듭니다.

@1 예. 그추룩 헤영은에 질들이면 보통 질들일 때는 어느 정도 질들여마씨? 뵈 설에 질들

입니까? 췌.

#1 췌 뭐 보통 세 설 때면은 짐 실리기 시작하고, 세 설에도 실힌 그 소는 밧 ㄱ르치기 시작합니다.

@1 음.

#1 경헌디 세 설에 밧 ㄱ르치기 시작하는 건 조금 드물고.

@1 아.

#1 거의가 네 설 나면은 뭐 스스로 나면은 거의가 밧 ㄱ르칩니다게.

@1 게문 다른 동넨 가민예 사릅에 ㄱ르친텐 허거든마씨. 근데 이 동네는 땅이 돌들이 많아서 그런가보다예?

#1 아, 이 동네 아니고 뭐 이.

@1 이 근방예.

#1 대정 지역 거의 저 대정면 모슬포 쪽드레 가지 아녀른 글로 이쪽드렌 거의가.

@1 나릅예.

#1 자갈밧 돌밧입니다.

@1 예, 예, 예.

#1 이.

@1 게문 그런 자갈밧을 뭐 지름왓 이런 말도 험디가?

#1 아, 자갈밧도 뭐 이제 아주 춤 거시기 머들 잇는 머들밧이여, 무신 밧이여, 뭐 거 밧 일름도 여라 가집니다.

@1 예.

#1 뭐 흙밧이여 뭐 그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거마는 건 동네마다 다 틀리고.

@1 예, 맞수다. 게문예, 아까 이제 온밧이엔도 허엿는데, 밧 이름은 어떤 식으로 불러마씨? 자갈밧, 작지왓 허고.

#1 아, 작지왓 무신 머들 잇이민 이 머들 사 가지고, 돌 거튼 거 막 메와냥 허민 머들밧이여 무신 저.

@1 온밧은 뭐우파? 아까.

#1 양?

@1 온밧?

#1 거 흙밧은 움탕헤 가지고 거 이 저.

@1 물 잘 앗는 밧들.

#1 예, 예. 물 ㄱ튼 거 ㄱ르는 흙밧.

@1 아, 흙밧?

#1 아, 예, 예. 흙밧이라고.

@1 예. 그런 식으로 하고예. 게문 췌로 돌아강양.

#1 예.

## 췌 나이

@1 그 췌 나이 세는 것도 잇지 앗으파?



#1 예.  
 @1 흔 설은 뭐렌 곶아?  
 #1 아, 금승.  
 @1 응.  
 #1 예.  
 @1 두 설은?  
 #1 다간, 사릅, 나릅, 다습 이렇게 합니다.  
 @1 게문 으섯 설은?  
 #1 예?  
 @1 으섯 설.  
 #1 아, 으섯 설. 게 으섯 설은.  
 @1 으습은 안 해?  
 #1 그, 건 나릅ㄱ장은 곤는디, 다습, 으습, 일곱 이렇게 곶아갑니다.  
 @1 아, 다습, 으습 해 갖고예?  
 #1 예.  
 @1 나이로 흔 설 식으로예?  
 #1 예.  
 @1 예. 췌는 보통 몇 설까지 삽니까?  
 #1 소가 보통 그 흔 이십 세 정도 사는 걸로 아는데.  
 @1 으.  
 #1 뭐 췌 관리함에 갈 겁니다.  
 @1 삼춘은 몇 설까지 질라뽑디가?  
 #1 저는 뭐 그렇게 연세가 많도록 길러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저의 당숙님은 이 산에서 소를 놔 가지고서 산소를 길르는 어른이었습니다게.  
 @1 아.  
 #1 겐 저도 뭐 당숙님 따라 뭐 한라산에 뭐 사삼사건 이후 쳇번으로 논 사람입니다마는. 예, 그 당숙님이 산에서 사삼사건 날 당시에 어린 송아지 헉나 끌어온 거 심어다가 거 질루면서 그걸 의지로 해 가지고서, 우리 하원 소들이 이 상산에 소 농기를 시작했는데, 그 췌가 결국은 스무 설 냉기도록 살았습니다.  
 @1 예.  
 #1 게, 게 그래서 그 췌가 제가 알기론 스물두 설에 막 늙으니까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새끼 낳 힘도 못 댈고 허니까 그 저 도살장 허는 사름안티 뭐 사당 잡아먹어 불렌 헨 풀, 풀아 부난.  
 @1 스물두 설까지예?  
 #1 예.  
 @1 게문 삼춘 아까 그 상산에 낳 췌예?  
 #1 예.

## 꽃쉐

@1 그런 쉼은 이 동네서 뭐렌 불런마씨?

#1 아이, 그건 뭐 상산 논 건 꽃쉐.

@1 꽃쉐예?

#1 예.(웃음)

@1 꽃쉐도 잇고, 꽃물도 잇고예?

#1 예.

## 잠대 부분 명칭

@1 예, 그렇게 이제 가고, 그다음에 그 쉼들 밧 갈젠 허면 그 잠대, 잠대예, 여기도 잠대도.

#1 예.

@1 서꺼 뵙디가, 삼춘?

#1 전 잠대는 안 서꺼 뵙습니다.

@1 아.

#1 잠대는 안 서꺼 보고.

@1 예.

#1 잠대, 그 뭐 저의 당숙님이 그 잠대 ㄴ튼 거 서끄는 그 장인이랴습시다게.

@1 아.

#1 거의가 뭐 좀 살기 좋아 가지고 잘사니까 당신 냥으로 밧 ㄴ튼 건 잘 안 갑니다.

@1 예.

#1 켜디 잠대 서끄고, 이 거시기 질마 ㄴ튼 거는 그, 잘 만들어마썸.

@1 네.

#1 게난 그 저의 당숙님안티 베와 가지고 질마는 뭐 제 손으로도 만들엇고, 뭐 그.

@1 잠대는.

#1 켜디 잠대만치는 전 만들어보지 안헛습니다.

@1 예. 게문예 그 잠대는 무슨 냥으로 멘든 게 제일 좋아마썸?

#1 게난 이 잠대가.

@1 예.

#1 이게.

@1 이건 육, 이건 육지 거라예?

#1 예.

@1 예, 예.

#1 요게 성에라고 험니다예.

@1 예. 성에.

#1 예, 맞게 췌구나.

@1 예.

#1 요게.

@1 길게 난 게 성에.  
 #1 예. 요거는 뭉클이라고 하는데.  
 @1 뭉클.  
 #1 예.  
 @1 예.  
 #1 이견 거의, 거의가.  
 @1 이거 육지 거우다.  
 #1 쪼끔이라도 이 질기면서 거부운 낭을 스용허기, 이 근방서는 나무가 많은 데니까.  
 @1 예.  
 #1 슬피낭을 많이 사용합니다.  
 @1 뭉클을 슬피낭으로 썰어예?  
 #1 예.  
 @1 예. 성에는 게민 무신 낭 씹니까?  
 #1 이거 성에, 가시낭마썸.  
 @1 성에는 가시낭. 이견 더 질겨야 됩니까 가시낭예?  
 #1 예.  
 @1 뭉클이 거부운 낭으로 쓰는구나.  
 #1 요거 요거는 설칫이라고 하는데.  
 @1 예.  
 #1 이게 맞게 썰구나.  
 @1 예. 설칫.  
 #1 요것도 가시낭.  
 @1 설칫도 가시낭 쓰고.  
 #1 예.  
 @1 그다음에 요기양 여기는 뭘우파?  
 #1 예, 양지머리도 거부운 낭으로 뭘 보통 족나무나 뭘 그런.  
 @1 족낭 쓰고예?  
 #1 예.  
 @1 양주머리는 족낭 거부운 낭 쓰고.  
 #1 예.  
 @1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맨 앞에 이거 무시거우파?  
 #1 아, 요거 요건 들벵이뿔이고.  
 @1 예. 여기 들, 들벵이뿔은 무신 낭 씹니까?  
 #1 아이 그것도 가시낭못 해근예.  
 @1 예, 가시낭못으로 쓰고예?  
 #1 예, 요거 요거 저 거시기 버을레.  
 @1 버을레.  
 #1 예.

@1 버을레도 낭 쓸니까?

#1 예. 이진 뭐 가시낭 종류나 뭐 그런 거 대개 쓸니다.

### 보섭·벳

@1 예, 버을레 쓰고예. 그다음에 그 삼춘 여기 이거 여기는 뭐우파? 이진 육지 겨우다마는.

#1 예. 요건 보섭.

@1 보섭. 보섭은?

#1 예. 요영해근에 흑 올라오면은 잣히는 건 벳.

@1 벳. 벳 영 받치는 긴 낭도 잇잖우파?

#1 아, 그건 벳틀레낭.

@1 벳틀레낭.

#1 예, 벳틀레.

@1 그다음에 이렇게 영 허영.

#1 아 이거.

@1 그 고정시켜주는 거. 벳칼.

#1 아이, 긴 벳바드랑이.

@1 아, 벳바드랭이.

#1 예. 벳바드랭이.

@1 예.

#1 아, 이거 영 행 그 긴 게 벳바드랭이.

@1 예. 이거 긴 낭이 두 개.

#1 예. 요게 벳틀레.

@1 예.

#1 벳틀레, 영.

@1 예. 두 개.

#1 두 개 영 해근에 영 해다근에.

@1 거난.

#1 예 접정.

@1 접정은에 고정시키는 거예?

#1 예.

@1 계난 삼춘 여기서는 벳칼이엔 안 행은에 벳틀레렌 험구나예?

#1 아, 벳칼은.

@1 으.

#1 그 옆이 질러서.

@1 예.

#1 이따가 이 밧 갈아가근에 꺾나면은.

@1 병덩이 부트면.

#1 흑 털어부는 게 벧칼.

@1 예.

#1 흑 털어 부는 벧칼도 있습니다.

@1 예. 벧칼. 벧틀레는 고정시키는 역할허는 거예?

#1 예. 벧틀렌 벧 뒤에 영헤영은에 험벅으로 영 행 오면은 이거 딱 고정시켜서 벧, 어디 벗어나지 말렌 험 게.

@1 벧틀레.

#1 예.

@1 예, 벧칼도 두 개 아니우파?

#1 아이, 벧칼은 험나.

@1 아, 벧칼은 험나. 예, 예, 예.

#1 그디 또 벧공장이가 이십주게.

@1 벧, 영, 저기.

#1 예, 예.

@1 기억 자로 뉘 거예?

#1 예.(웃음)

@1 벧공장이. 그다음에 벧공장이 잇고, 그다음 거의 그 벧에 이 저기 줄도 잇잖우파? 벧 줄.

#1 아, 아, 그거.

@1 벧 뒤에 보면 이렇게.

#1 예, 예.

@1 연결뉘는예?

#1 그게 벧버렛줄이엔 허는가?

@1 벧친? 벧친?

#1 그건. (웃음) 그건 자세히 모르쿠다.

@1 예. 그건 튼내지결랑 곶아주믄 뉘는 거예.

#1 예.

### 명에 부분 명칭

@1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명에도 있으면.

#1 예.

@1 이렇게 행은에 명에가 있을 거고, 여기 영.

#1 예. 그거.

@1 그 예.

#1 접게.(웃음) 예.

@1 여기 아까 저기.

#1 예.

@1 뉘잖아예? 이렇게 뉘 거잖아예?

#1 예.  
 @1 계믄 이, 이거는 멩예.  
 #1 예.  
 @1 예, 이거는 아까 뽕마씨?  
 #1 접게.  
 @1 접게.  
 #1 예.  
 @1 그다음에 여기는?  
 #1 솜비줄.  
 @1 솜비줄. 솜비줄은 두껍게 허는 거예?  
 #1 예.  
 @1 그다음에 아까가 버을레?  
 #1 예.  
 @1 버을레 연결허는 이 줄 잇지 아녀우꽈?  
 #1 예, 이거 버렛줄.  
 @1 이거 무슨 줄마씨?  
 #1 예.  
 @1 줄 이름?  
 #1 예.  
 @1 이름 뽕우꽈?  
 @2 버렛줄이라고 아까.  
 #1 버렛줄.  
 @1 버렛줄. 버을렛줄, 버렛줄예?  
 #1 예. 버을렛줄.  
 @1 예, 예. 이거는 이제 연결. 이게 그 쉼또꼬망, 그 꼬리.  
 #1 예, 예.  
 @1 저기 허는 거지예?  
 #1 예.  
 @1 예, 그 오리목은 뽕우꽈? 여긴 오리목이렌 말 안 험니까?  
 #1 오리목?  
 @1 예.  
 #1 아, 오리목? 솜비줄. 아, 이게 버렛줄이 아니고 요게 오리목.  
 @1 이게 오리목이지예?  
 #1 예. 버렛줄이엔 아녀고 오리목.  
 @1 예, 오리목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멩에는 무신 낭으로 멘들아마씨?  
 #1 멩예 보통 거부운 낭양.  
 @1 예.  
 #1 이 버디낭이나 머귀낭 많이 사용험니다.

@1 아까 무신 낭마씨, 버드남으로?  
 #1 으, 버드나무.  
 @1 여기도 버드남들이 좀 잇어나수과?  
 #1 아이, 지금은 벨로 없습시다만.  
 @1 예.  
 #1 아이, 뭐 이 보통.  
 @1 예.  
 #1 옛날에 무신 어디 천리허면은.  
 @1 으.  
 #1 저 버, 저 거시기혜근에 버드남허고 독새기 묻으면은 거시기현다고 헤 가지고 거.  
 @1 예.  
 #1 그 그런 디가 보통 잇엇고, 냇가에 ㄴ튼 디 그 버디남털이 좀 잇엇습시다.  
 @1 예. 냇가에 하영 싱것어예?  
 #1 지금은 그런 거 없습시다마는.  
 @1 예. 그다음에 삼춘, 머귀낭 쓴텐 헛잖아예?  
 #1 예.  
 @1 머귀낭은 어떤 낭을 머귀낭이렌 험니까?  
 #1 아, 머귀낭, 머귀낭 그 이 뭐 요 앞에도 가면 있을 겍니다, 지금. 지금도.  
 @1 예.  
 #1 요디 요 저 먼저 사무실 앞에 식당 잇습시다. 식당에 그 잇는데 그 남이, 그 썸이.  
 @1 예.  
 #1 나면은 이 가릿가릿 아주 크고.  
 @1 예.  
 #1 나무 자체가 이 가시가 송송송송 납니다게.  
 @1 예. 그 방장대허는.  
 #1 예, 겨고이.  
 @1 방장대 허는 낭이파?  
 #1 여름 나쁜 재열이 췌고 제일 잘 앓는 낭이 머귀낭이우다.(웃음)  
 @1 계난 그 머귀낭이 옛날 방장대 썸난 겨우파?  
 #1 예, 예.  
 @1 아, 그 머귀낭이라예?  
 #1 예.  
 @1 아, 그걸로도 하고.  
 #1 예.  
 @1 그다음에 접게는 무신 낭으로 헤마씨?  
 #1 접게 이 근방선 보통 윤누리낭 헛수다.  
 @1 아. 윤누리낭은 하영 썸구나, 접게는예. 썸빋줄은 뭇로 드렸수과?  
 #1 썸빋줄 보통예, 이 멍줄 헤 가지고서 드린 썸빋줄이 많앗고 근, 내중에 조끔 인력이 잇

어 가지고서 이 헤지는 사람들은 득렛줄발을 파 가지고서.

@1 예.

#1 그걸 막 못안 이.

@1 베 드려 갖고.

#1 예, 두드런 베 꼬안 그걸 드려 가지고 솜비줄, 득렛줄.

@1 게문 명줄[명쫄]도, 명줄도 두들경은에 합니까?

#1 아이, 그냥 뒤편.

@1 명줄은 뒤편 그냥 허는 거라예.

#1 예.

@1 게문 그 이 명줄이나 득렛줄발, 그 뿌리로 헤 갖고 허는 거 아니우파예?

#1 아, 명줄[명쫄]은 그냥 줄거리로.

@1 건 줄거리로 하고.

#1 득렛줄은.

@1 발로.

#1 이 뿌리 줄거리도 아주 걸게 뵈습니다.

@1 예.

#1 게난 그 뿌리 뿌리 줄거리 파 가지고서 막 두드리명은에 허면은 그 조금 부드러우면은 막 채여 가지고는.

@1 멧 갑으로 들어마씨? 보통 솜비줄은 게민 두껍고.

#1 아이 보통 삼갑으로 꼬아근에 드리기도, 삼갑으로 드립니다.

@1 삼갑으로예, 예. 게난 암만해도 솜비줄이 이제 그 저 쫄는 거니까 질겨야 뒤편.

#1 예 질기고 그게 버썩혀지 아녀면은.

@1 예.

#1 영 허영 쉼로 산 때 녹어불면은 발 들어 불어마씨.

@1 예.

#1 게 가지고 줌 이 버썩혀 놔이라야, 이 솜비줄이나 오리목이 보통 버썩혀 길로 이 오리 목 ㄱ튼 건 거의가 명줄로 많이 사용합니다.

@1 명줄로예? 아, 이 동네도 명줄이 하구나예. 역시 꽃밭이 하니까.

#1 예, 명줄 아니면은. 또 이 것이 멀위, 머루, 머룻줄.

@1 예, 멀위줄.

#1 예, 머루줄이 지금은 산에 텅여 봐도 잘 엇입디다.

@ 아. 근데.

#1 많이 엇어졌는데, 머룻줄.

@1 근데 삼춘 머룻줄도 종류가 으라 개 아니파예?

#1 예.

@1 우리 먹는 머룻줄은 허깁 얇은데.

#1 예.

@1 그냥 고냉이멀위 같은 경우는 머룻줄이.



#1 아이, 고냉이털윗줄은 약해서 쓰도 못하고.

@1 아, 그게 약허구나.

#1 아, 산에 있는 그 제라흔 찰머룻줄은 아주 질게 나무까지 올라가니까.

@1 예.

#1 그 우리가 이 저 출발되 나는 머루, 그 따먹는 머루하고 거의 ㄴ튼 종류데.

@1 예.

#1 산에서 나는 건 나서 햇빛 받르지 않으면은 나무 우이까지 걸게 올라가지 안합니까?

@1 예, 예.

#1 그러니까 그게 질겁니다.

@1 아.

#1 곧게 미럽게 올라가고.

@1 미럽게 올라가고예. 아, 머루, 머룻줄로도 오리목을 헛구나예?

#1 예. 이 멍줄도 산에서는게 걸게 경 올라가니까 이 스용허는 데 아주 좋지 않습니까?

### 질메

@1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쉼 짐 시끄젠 허든 질메, 예?

#1 예.

@1 여기 질메는 이름 뉘렌 헤마씨, 이거? 여기.

#1 아, 계난, 앞에 허는 건 앞가지 뒤에 허는 건 뒷가지.

@1 이게 다.

#1 이 나, 나무는 그거 뉘.

@1 예.

#1 아주 여러 가지 씹니다게.

@1 예.

#1 아무런 나무라도 영 오그라진 거 있으면은 끊어다가 그거 질메를 만드니까, 그 오그라진 나무를 택허지 못 헛을 때는 그냥.

@1 두 개를 연결허영.

#1 널판 두 개 영 부쳐근에 맨들기도 헛니다마는.

@1 예.

#1 건 아메도 약협주게.

@1 아.

#1 약허니까 나무는 오그라진 놈 헤 가지고서 그거 오려 가지고서. 계난 그 깎어치가 거의 배 차이 납니다.

@1 예.

#1 ㄴ튼 질멜 맨들아도.

@1 게든 질메는 무신 낭으로 보통 하영 썬수과?

#1 아, 게 소나무질메도 있고, 뉘 여라 가지 잇습니다게, 뉘.

@1 예.

#1 제베낭도 잇곡 뭐 거 닥치는 대로 오그라진 낭 그자 뭐 거시기허면은.  
 @1 예.  
 #1 질메는 크게 무거운 거시길 안 쓰니까.  
 @1 그렇주마썸.  
 #1 무거운 남이건 거부운 남이건 나문 골리진 않습니다.  
 @1 아, 질메는예, 게문 이게 앞가지 잇고 뒷가지 잇고 여기에 이렇게 또 연결허는 낭 잇지 않으파?  
 #1 예, 그 질메 영 해근에 허민.  
 @1 예.  
 #1 밑으로 흐쓸 넘작헌 거 허영 받훈 게 잇어마썸.  
 @1 예.  
 #1 그건 두물.  
 @1 예, 두물, 예.  
 #1 따시 중간에 고망 해근에 찢른 막텅이가 서마썸.  
 @1 예, 예.  
 #1 그건 소용.  
 @1 소용, 예.  
 #1 예, 예. 또 뒤에 공쟁이친 걸러서.  
 @1 예, 예. 이렇게 영 걸리는.  
 #1 예. 걸리는 거, 공쟁이, 질멧공쟁이.  
 @1 질멧공쟁이, 예. 그다음에 친은 뭐렌 험니까?  
 #1 예?  
 @1 친은? 여기 저 공쟁이에 걸젠 허면은 짐 시끄젠 허면 짐 무끄젠 허면 배가 잇어알 거.  
 #1 아, 그거 췌앗배.  
 @1 췌앗배. 그니깐 췌앗배는 질메에 부튼 거지예?  
 #1 아니, 아니.  
 @1 따로?  
 #1 짐 시끄는 딱로 허는 거고.  
 @1 으.  
 #1 질메에 부평 영 앞으로 행 딱허게.  
 @1 앞가슴허는 거는.  
 #1 거 오랑배라고 허는디, 질메.  
 @1 질메에 연결웤 줄 잇잖으파, 이렇게예?  
 #1 예.  
 @1 거는 오랑배?  
 #1 예.  
 @1 게문 오랑배 말고 질메허민 앞으로 베로 이렇게?  
 #1 예, 배로 헤영은에 질메 이렇게.

@1 그게 오랑 아니우파?  
 #1 예, 오랑.  
 @1 오랑예, 계난 오랑이 따로 잇고, 오랑을 무끄는 배가 따로 이신 거구나예?  
 #1 아, 오랑배 그거.  
 @1 그냥 그게 오랑배예?  
 #1 예.  
 @1 예, 예.  
 #1 경허곡 이 또, 무신 짐이나 무시거 낋을 때 허면 저, 질메로만도 낋을 수 잇습니다.  
 @1 예, 예.  
 #1 겨고 이 저 보통 몰 ㄴ레 질 때는 질메로만 험니다. 멍에 씌우지 아녕.  
 @1 응.  
 #1 이 근방에선, 경헐 때는 가슴걸이를 험주.  
 @1 가슴걸이?  
 #1 예. 질메로 해근에 영 영 앞으로.  
 @1 췌.  
 #1 췌 앞가슴으로 영 해근에.  
 @1 예, 예. 앞가슴으로 이렇게 저기.  
 #1 질메 뒤트레.  
 @1 넘어가지 말렌.  
 #1 무너가지 말라고.(웃음)  
 @1 예.  
 #1 (웃음)  
 @1 예, 예. 가슴걸이. 가슴걸이 잇고예?  
 #1 예.  
 @1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질메 저길 하고, 질메 헐 때도 췌 등 아프지 말게 헝은에 그 밑에 영.  
 #1 아.  
 @1 대여주는 거 잇수과?  
 #1 도곰.  
 @1 건 도곰예.  
 #1 예. 짝으로 해 가지고 두껍게 헐 거.  
 @1 예.  
 #1 또, 그것도 거시기 해 가지고서 그 췌에 또 이 뭐 헐 옷이나 무신거 허영 꼬멘 그거 등테.  
 @1 예, 등테.  
 #1 등테 영 논 우에다 도곰 놓곡, 그다음에 그 질멜 씨왕 그 췌 등이나 어디 뭐 다치지 말게끄름 보호헌 겹주게.(웃음)  
 @1 예, 계난 등테는 보통 헐 옷으로 헐 거라예?

#1 예, 대개.

@1 응.

#1 뭐 현 옷 ㄱ튼 거, 무신 해 가지고서 뭐, 옷 ㄱ튼 거 입다근에 버리게 댜 거나 그런 걸로 많이 헛습니다게.

@1 게믄예, 등테는 아까 도곰에 부청은예 영 댜듭니까? 아니면 따로 등테를 영 끌아냥 저 기 질메를 얹인 거우파?

#1 아, 예. 야속헌 사름은 저 도곰에 부쳐근에 혼디 줍기도 험니다마는.

@1 예.

#1 예 보통 ㄷ로 그자 ㅎ쌀 영영 현 옷 ㄱ튼 거 두껍게 ㅎ쌀 두텁게 해근에 ㅌ로.

@1 ㅌ로 허영 놓기도 하고예?

#1 ㄷ프는 사름이 많습니다.

@1 예. 우리 어른들이 말허다 보면 야속허다는 말이 진짜 많이 쓰는 거 같애.

@2 예.

#1 (웃음)

@1 굉장히 좋은 말인데 우리는 하나만 알잖아.(웃음) 쟁 그렇게 해 갖고 이제 질메예?

#1 예.

@1 게난 쉼 부리젠 해도 이렇게 질메도 댜들어사고.

#1 예.

@1 아까 멩예, 멩예영 잠대도 서꺼야 댜고예?

#1 예.

@1 그렇게 이런 질메도 서끄고 댜 잠대도 댜드는 이런 사름보고 ㅌ로 부르는 이름도 잇 수과?

#1 아니, 거의가게 이 농기구만치는.

@1 예.

#1 쉼에 들어 가지고서 돈 쥘 살 수 없는 냥으로 댜여서, 자기 냥으로 댜들 거는 거의가 농촌 사름 자기 냥으로 거의가 만들엇습니다.

@1 음.

#1 자기 냥으로 못 댜드는 사름은 춤 놀 빌어근에 댜들기도 험니다.

@1 예.

#1 예, 거의가 아이, 자기 냥으로 이제 자기 쓸 거 못 댜그는 게 제라헌 농부가 아닙니다 게.(웃음)

### 목장·궂

@1 맞수다, 맞수다. 그리고 이 동네는 여기 궂이 가깝잖아예?

#1 예.

@1 어느 궂디 갑니까? 여기는.

#1 여기서 보통 그 영실 서쪽.

@1 예.

#1 그 불레오름 뒤에 그 박석물리라는 영실 서쪽 저 그 능선 그 스방 많이 올립니다.

@1 으. 게믄 이 동네서 상산이렌 현 다가 불레오름 정도 텔 건가?

#1 어, 예. 불레오름 뒤로 시작해 가지고서, 이 하원 쉼덜은 소도 많이도 놓고 또 경계가 아주 다양합니다.

@1 음.

#1 글로 조금 서쪽으로 넘으면 이스릉으로 진동산으로 만세동산으로 저 웃세오름 그 근방 뭐 거의 하원 쉼들 모여서.

@1 예, 게믄예. 이 하원 사람들은 쉼을 어쨌든 농사철에는 집에서 질봐도 보통은 다 산에 올령 내 불엄구나예?

#1 아이, 게난, 이 산에 올리는 소는 농스에 스용 안 허는 쉼들이 많이 올라가고.

@1 응.

#1 농사에 스용허는 쉼들은 여름철에 이디 가까운 디 뭐 공동목장이 잇습니다.

@1 예.

#1 거기에서 질루고, 공동목장에도 가입 아녀 가지고 놓기 싫으면은.

@1 예.

#1 그냥 이 줄대 해 가지고서 이 저 드룻밧디 가서 메십주게.

@1 드룻밧디 강 메고예?

#1 예.

@1 예.

#1 농사 안 짓는 밧 그자 강 메여근예.

### 하원공동목장

@1 게믄 그 목장이예, 하원공동목장이 널르텐 허명예?

#1 예.

@1 예. 멧 평이나 뉘마씨? 이 동네는.

#1 아, 이 하원공동목장. 회원 수가 처음 이, 그 일제, 거의가 말엽 뉘어가니까 그 공동목장 찰렸는데. 처음 출릴 때는 구십, 구십이 명인가, 멧 명이 출렸주마는 글루후제 뭐 사삼사 건 일어 가지고 목장이 막 나무덜 난 자랐고. 글루후젠 목장 제라허게 손보지 아년 내 버리니까 그 뭐 초지 조성이여 무신거여 허영 허니까 일손이 막 부족허니까. 그 소라도 헤근에 놓젠 허니까 이거 조합원덜이 그 옛날 조합원덜은 거의가 돌아가 버런 그 후손들이 잇는 디도 잇고 없는 디도 잇고. 게 후손들이라 해도 그 장손에벳긴 권한이 엇어마썸.

@1 예.

#1 장자나 장손이나벳긴. 흔 사름당 흔 사름벳긴게 의무가 없으니까. 게난 일자리가 부족 허니까 막 조합원을 모집해 가지고서 뭐, 그때 당시 돈 삼천 원 내어서도 가입허고 오천 원 내어도 가입허곡 막 가입허니까. 조합원 수가 이거 흔 이백오십 명이 넘습니다게.

@1 아, 지금도예?

#1 예, 지금도 자꾸 그 따문에 말 납니다만은. 그 뭐 정조합원이다 비조합원이다 허면서 허연.

@1 으, 으.

#1 겐 중간에 이 탐라대학교 부지 풀면서.

@1 예.

#1 허니까 그게 자꾸 대립돼 가서 싸움 나니까.

@1 으.

#1 아이, 이게 이 그 돈 낸 들어간 사람도 그자 그건 정조합원으로 문제 해연 돈 갈라줌 시작해 버리니까. 이게 제라하게 거시기 해영은 옛날 그 처음 설, 설치할 때는 밋이 일 정이 거나.

@1 예.

#1 그렇지 않으면 일 정에 해당하는 돈을 내놔야 조합원이 됐었는데. 그게 당초 그 돈 뱃푼 냈다고 해 가지고서 정조합원으로 해서 숫자가 몰리니까.

@1 응.

#1 또 정조합원들이 크게 이애길 못허는 거라마썸.

@1 으.

#1 경헨 지금은 혼 이백오십 명 이상 됩니다마는.

@1 게난 이 동네에서 지금도 쉼 질루는 사람덜이 잇어마썸?

#1 아, 지금도 이 저 공동목장에 소 혼 이백여 두 가까이 놓고 잇을 겁니다.

@1 아, 지금도예?

#1 예.

@1 아까 그 삼춘, 쉼 므리 헐 때 두 셋어예?

#1 예.

@1 게문 여기는 일 두, 이 두 행은에 썸니까? 쉼 셀 때 어떻 세여?

#1 아. 쉼 뭘, 공동목장에 놓을[놓] 때예, 지금은 전부 이표를 박지 않습니까개?

@1 예, 예.

#1 이표 박으니까, 거 이표 박은 거시기를 혼해 가지고서 이 저 이 공동목장에 놔도 거의 가 번식우지 뭘 이 숫소는 안 놓습니다게.

@1 으.

#1 겐 숫소는 전부 요즘 저 뭘 개량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 이 수정만 허고 잇고.

@1 으.

#1 암소 허는디, 금년 나서 이 소 놓는 소가 거의 대부분이고 금년 암송아지로 놔근에 새 헐 올 때는 그 혼두 갑을 새로 내는 거라마썸.

## 목장 관리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허고예, 그다음에 이제 그, 게문 그 목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마썸?

#1 목장 관리, 그 전에는, 옛날에는 그 케파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1 예.

#1 그 아주 옛날에는 그 케 보는 사람이 해 가지고서 이 목장에 쉼 놓은 것도 관리 헛고.

이 밑에, 이 출밭이나 곡식밭도 이게 놈의 소나 들어 가지고서 맥이는 거. 그 새왓 그튼 디, 놈 새 비어 가 부는 거 것도 몬 책임져 가지고 그 사름이. 겐 그거 밧이 멧 뽕이민은 출왓이 멧 천 뽕이면은 보리가 멧 뉘.

@1 예.

#1 으, 으. 헤 가지고서 받았고. 또 목장에 쉼 놓은[논] 것도 그거 전부 관리헤 가지고 어디 돌아나나 어떻 허는 거 책임져 가지고서 허면은 그 사름한테 뉘 소 허나에 보리 혼 말이민 혼 말, 이렇게 헤 가지고 헛, 헛습니다만은. 사삼사건 이후에는 그런 건 엇엇고.

@1 으.

#1 이 목장 관리히는 사름만 헤 가지고서 이 혼, 혼 이천. 저가 알기로 혼 이천 년도, 이 천 년도까지는 그 관리인을 내 가지고 쉼 허나 놔 가지고서 그 강 어디 돌아나는 거 막고 타 지역 쉼 들어오는 거 몬 거시기 행 관리히는 사름 헤 가지고 쉼 허나에 뉘 보리가 혼 말이민 혼 말.

@1 으.

#1 그렇게 허다가 또 이 그걸로만도 안 뉘니까, 이 쉼 허나에 돈 열메를 내 가지고서 목장에. 그걸로, 그 돈 받은 걸로 행 목장 거 어디 조금 자왓이라도 캐곡 땅이라도 개간허는, 허는 거 정도는 시에나 이 도에 요청헤 가지고서 몬 보조 받으면서 전부 개간헛습니다만은.

@1 아, 이제는 보조도 받았은에 하는구나예?

#1 예.

@1 예, 예. 그다음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 관리히는 사름을 케파장이렌 헛잖아예?

#1 예.

@1 케파장이우파? 그 그걸 다시 한 번 돌아줘 봅서.

#1 아, 게 거 원래 케파장, 케파장이엔 불렀수다게. 예.

@1 케파장이라예.

#1 케파장. 게난 그 옛날은 공동목장 조합장이 뉘면은 그 하жат 우에서부터 이 저 국립까지.

@1 예.

#1 전 목장을 몬 그 조합장이 책임을 져 가지고서 그 곡식밭의 뉘 쉼 그저 뎡기는 거나 뉘 모든 걸 책임졌습니다만은. 지금은 예, 그게 아이라 가지고 그자 공동목장만 딱허게.

@1 음, 게영 건 조합원들이 이제 헤 갖고 조합장을 이제 선출헸구나예?

#1 그거, 상жат 아래 거는 거의가 개인 출왓 허곡 그자 지금은 많이 풀아 버런 없습시다마는 허니까, 상жат 아래는 돌아보는 사름이 엇어, 사삼사건 이후엔.

@1 없고예.

#1 엇어전.

@1 아.

#1 처분.

@1 게몬 지금은 하жат 잇는 데만 허는 겨우파?

#1 예.

@1 게몬 삼춘, 여기에서 상жат 허게 뉘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는 겨우파?

#1 상갓은 즉, 해발로 이야기허민 약 스백 고지가 상갓 뵈 겍니다.  
 @1 아, 해발 사백예?  
 #1 아, 우리 근방은 스백 고지가 딱 맞습니다.  
 @1 예, 게문 거기가 어디우짜? 여기서.  
 #1 이제, 저 탐라대학교 그 앞 담줄이 그거 상갓 담줄입니다.  
 @1 아. 그렇구나예?  
 #1 예. 경허고 또 이 중갓은 약 사, 삼백 고지 정도가 뵈 거고.  
 @1 삼백 고지고예, 하갓은마씨?  
 #1 하갓은 여기 쪼끔 올라가민은 이 중산간도로, 이 도로 나옵니다.  
 @1 예.  
 #1 거기, 그 도로벤이 그제 바로 하갓입니다.  
 @1 그러면 여기 법화사 잇는 데가.  
 #1 예, 예, 법화사 들어가는 입구, 입구라십주.  
 @1 입구.  
 #1 아, 입구 쪼끔 밑에.  
 @1 예, 예. 아.  
 #1 거기가 하갓입니다.  
 @1 그러면 아까 상갓, 그 탐라대 그 담줄 잇텐 헛잖아예?  
 #1 예.  
 @1 중갓도 남아 잇수과?  
 #1 아, 이 쪽허게 올라가민은 담줄이 잇엇습니다. 옛날은.  
 @1 지금은 엇수과?  
 #1 아, 지금도 뭇 흔적이 윈 없진 안허연 지금도 하영 남아 잇습니다.  
 @1 아, 웨냐 하면 우리가 그것도 사진 한 번 찍어근에 이거, 저희들 이거 헤 갓고 책 만  
 들 거거든예.  
 #1 예.  
 @1 그 책에 실으젠.  
 #1 (웃음)  
 @1 담줄.  
 #1 아, 담줄 헤엇자 지금은 그런 그 담줄 찍을 만헌 거시기는 없고, 어디 뭇 그.  
 @1 탐라대학교에 가민 찍어지겟다.  
 #1 예, 그 질어염에 옛날은 담줄에 딱 정낭, 그 정주먹을 세와 가지고 정낭으로 찢릿습니  
 다게.  
 @1 예, 목장 들어가는 입구에예, 예?  
 #1 예. 경허고 이제, 견디 우에 그 상갓에 거시기는 그 정낭으로만은 뭇쉬 땡기는 디 거시  
 길 못허연 살체기를 멘들아 가지고서.  
 @1 예.  
 #1 살문은 멘들아 가지고 딱 닫았는데, 그 하갓이나.



@1 중잣.  
 #1 중잣은 정낭 찢러 가지고 정주먹[정주먹]으로 찢렸습니다.  
 @1 게문 그 정주먹을 질르든 살체기를 허든 그렇게 이제 쉼이 들어갓당 나왓당 허는 그디 예.  
 #1 예.  
 @1 거기는 뭐렌 불릅니까?  
 #1 아이게, 뭐 거곡 큰 거시기가 엇고.  
 @1 아니, 무슨 도, 무슨 도 허지 안헉니까?  
 #1 저 하잣, 저 하잣정도[하잔정또].  
 @1 으.  
 #1 중잣정도.  
 @1 예.  
 #1 게 또 이 상잣은, 상잣 거민 상잣 어디 서쪽으로 가면은 보섭코지엔 현 딜로 들어가는 디 보섭코지살체깃도.  
 @1 으.  
 #1 또 동쪽으론 가민 내왓내렌 현 그.  
 @1 내왓내?  
 #1 예, 넘어 가지고서 올라가난 질이 있습니다게.  
 @1 예, 예.  
 #1 게연 내왓내살체깃도. 그렇게, 또 이 간장으로 올라가는 또 질머력이니까 또 간장살체깃도 그렇게 얘기 헉디다게. 그자 그 질.  
 @1 간장으로 들어, 아까 머력은 뭐우파?  
 #1 아, 그 넘어간 머리.  
 @1 으.  
 #1 으.  
 @1 넘어간 머리를 머력 이렇게 곤는구나, 여기선예?  
 #1 예.  
 @1 아까 그 간장 잇잖우파예?  
 #1 예.  
 @1 간장이 목장 그 담 이렇게 사이, 이렇게 칸 갈르는 장이우파?  
 #1 아, 간장이엔 현 말은.  
 @1 으.  
 #1 그 우리 근방 이 하원, 도순서만 쓰는 말인데, 그 지명으로 불르는 말인데, 이 하원허고 도순에 그 하원 경계 넘어 가지고 도순 거시기에.  
 @1 담이 싸젓구나.  
 #1 이, 내, 내가 있습니다게.  
 @1 예.  
 #1 아, 조끔 내 그 거리가 헉쓸 줍아. 게난 이, 이 사이를 간장이라고 헤 가지고.

@1 으. 계난 그 사이에 혹시 영 돌 쌓안마씨?

#1 아, 계난 그 사이에 이 증갓은 넘어갓습니다.

@1 예.

#1 계난 이 증갓으로 앞드레는 알간장, 증갓으로 우트레는 웃간장.

@1 으.

#1 경헌디 그저 저 웃간장에도 그 하원 경에 방화오름이 잇고. 그자 그 오름만 말해서 그 방화오름이라고 허지, 그 뒤에 흐쉴 넓은 드른 그자 간장.

@1 간장.

#1 예.

@1 계난 어쨌든 그 간장이 도순허고.

#1 예, 예.

@1 도순허고 하원 그 경계를.

#1 예.

@1 그 칸 이렇게 막은 데네예?

#1 예.

@1 예, 예.

#1 사이, 사이를 이야기하는 겹주게.

@1 예. 사이.

#1 (웃음) 예.

@1 경계, 사이예?

#1 예, 예.

@1 이렇게예?

#1 예, 예.

@1 계난 그 아까 내렌 헛잡아예?

#1 예.

@1 내 이름은 뭐마씨? 거기.

#1 아이, 그 내 이름은 돌돛내[돌똥내].

@1 돌돛내[돌똥내]?

#1 예.

@1 거기에 무사 돌돛넌[돌똥넌]고예?

#1 아이게, 그건 즈세히 돌르कु다마는 그게 이 옛날 돌멩쉬들을 많이 질루면서 그 돌멩쉬들.

@1 들어갓닥나왔닥허는.

#1 예, 들락날락하는 그 질 얘기허는 게 아닌가 이 그렇게 생각합니다게.

@1 계난 그 내, 내창을 이렇게 올라가면예?

#1 예.

@1 예, 웨 제가 이걸 물어보냐 허면.

#1 으.

@1 다른 데도 가면, 이런 그 살체기 놓거나 이러면 다 살체짓도[-또].

#1 예.

@1 지명 붙영 무슨 도, 이렇게 하더라고마씨.

#1 예.

@1 확인하고 싶언예.

#1 예.

@1 젠디 삼춘, 너무 잘 알암수다.(웃음)

@5 그니까.(웃음)

### 지지랭이쉐

@1 그다음에 그 쉼들 이렇게 질루당 보면 새끼 못 낳는 쉼들도 있어예.

#1 예.

@1 예, 새끼 못 나는 쉼은 어떤.

#1 그계.

@1 으.

#1 새끼 못 낳는 뭐 지지랭이소여 무신거여 허는데, 그거 뭐 간혹 그계 뭐 건 이 자세히 몰르куда만은 이 거 그 보통 새끼가 안 베영 안 나가민 지랭이쉐, 지지랭이쉐허멍 허여근에 그 저.

@1 폴아 불어예.

#1 예, 예. 암소들은 거의가 폴아십주게.

@1 지지랭이쉐.

#1 예, 거 뭐 그걸 뭐 부디, 보통 암소 질루는 거야 새끼 번식용으로 질랐지, 일소로 질루 질 안헛으니까.

@1 예. 게니까 이제 지지랭이쉐가 있는데, 가끔 가다가 또 쉼도 요즘은 수정허난 쌍둥이도 요번에 그 홍수 허명도 낳텐 헛디다만은, 옛날도 쌍둥이덜도 나신가마씨? 쉼.

#1 옛날도 뭐 없진 안헛 잇엇다고 헛니다만은, 옛날 쌍둥이 난 건 저는 구경 못헤보고.

@1 아.

#1 게 옛날에 그 좀 저, 변이중 난 거는 흔번 구경헤났습니다.

@1 아.

#1 이 다리가 다섯 개 뉘어가.

@1 아.

#1 앞다리가 여기 독지로 흐나 튀어나 가지고서 이진 그 가죽만 우로 부튼 거지 뼈, 가죽만 우로 부뜨고 이 밑으론 오난 뼈ㄱ치 뼈도 문 생기고.

@1 으.

#1 헤 가지고서 이디 이 우리 부락에서도 저희 어린 때 흐나 나 가지고서 동네 사름들 문 구경완.

@1 으.

#1 움꺾지도 헤났습니다마는.

@1 예. 그런 다리 다섯 헛 것도 나와예.

#1 예.

@1 그다음.

#1 거 뭐.

@1 으, 그다음에 이렇게 쉼 허면 새끼가 해마다 이렇게 연연이 나는 쉼이라도 뭐 불르는 거 잇언게예?

#1 예.

@1 거 새끼.

#1 예. 아, 그 연연이 나는 건 새끼 뭐.

@1 다른 데 가난 곱새끼 이런 말 허던데.

#1 그건 연연이 난다고 얘기합니다게.

@1 예.

#1 경헌디 또 이 해 걸어근에 나는 것도 잇고.

@1 예, 그런 것도 불르는 이름이 이십니까?

#1 그게 뭐.

### 귀표·낙인

@1 저는 모르고예. 예, 알앗수다. 그다음에 아까 그 쉼, 자기 쉼라고 하면 요즘 아까 삼춘은 이표렌 헛어예?

#1 예.

@1 저는 어렸을 때 귀표렌 들었거든마씨.

#1 예, 예. 귀표.

@1 으.

#1 지금은 그 뭐 번호혜 가지고서 거, 시에서나 도에서 전부 해 가지고 찍습니다마는, 귀표는 그거 옛날 뭐 그런 거시기가 었인 때니까.

@1 응.

#1 귀를 찌십주게.

@1 예.

#1 찌기도 허곡, 꿰어 불기도 허곡, 고망 파지게 꿰기도 허곡, 알로 우트레 찌기도 허곡, 거 여러 가지라마썸.

@1 예.

#1 경허곡 그것보다도 쉼 확실헌 건 낙인마썸.

@1 예, 낙인, 낙인 찍는 거, 낙인.

#1 예.

@1 계난 여기도 그 쉼나 귀표 허거나 헛 때도 제도 지냅니까?

#1 어.

@1 낙인헛 때.

#1 낙인에 제 지내는 사름도 잇고 안 지내는 사름도 잇고.

@1 음.

#1 거 뭐 귀표나 낙일힐 때 제 별로.

@1 안 하고.

#1 안 해봤습니다.

@1 경해도 저 술들은 저기 낙낭 먹곡 허지 안헙니까, 그거 헐 때.

#1 예, 아게 술, 술이야 나강 먹읍주게.

@1 예.

#1 게 보통, 그 낙인 찍젠 허면은 사름 혼두 뭐 사름으로도 뉘지 아니하고.

@1 으.

#1 게도 장정 넷, 다섯은 들어야 뉘니다.

@1 아.

#1 게이 아멩 어린 송아지주만은 그거 심어서 놀뜨리서 쯔쨌 못허게 전부 무껴 놓고 움직 거리지 말, 못허도록히, 이 놀러야만 불에 그 쉼 군 걸 곳당 이제 잠지에 지질 거 아납니까?

@1 예, 예, 예.

#1 (웃음)

@1 게든 그 삼춘, 그 낙인은 멧 술에 낙인 줘마씨?

#1 보통 두 술 나는 해에 찍습니다.

@1 예. 그 낙인 헛던 그 물 드성예, 낙인 헛던 애기 나중에 쯔 곶아줘 봅서.

#1 (물 마심)

@1 낙인 허젠 허민 어떻, 어떤 식으로, 어떤 순서에 따라 영 해여마씨?

#1 순서엔 현 건, 낙인이.

@1 으.

#1 보통 그 소를 많이 허는 사름이 이 곳소라도 이 질루는 사름이 낙인을 보통 가져 잇고. 그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송아지 멧 개 낙인 찍으, 찍으켄 허면은 동네에서 자기 것도 이 어디 춤 요 목장에라도 강 낫당은에 혹 일러 불민 좇기 쉽게 허기 위해 가지고서 이 낙인을 찍젠 허민 그자 나도 강 찍으쿠다, 나도 강 찍으쿠다 허민.

@1 으.

#1 사름이 모아져 갑니다.

@1 예.

#1 경 해 가지고서 경 모으면은 그 낙인도, 이녁 소 찍는 잠지허곡 쯔 놈의 소 찍는 잠지는 틀려마썸.

@1 아.

#1 어, 이녁 소가 오른 쪽으로만 찍으민은 남의 소들은 왼쪽에.

@1 으.

#1 ㄱ쁜 낙인, 이게 모색도 거의 비슷헌데.

@1 으.

#1 이게 ㄱ쁜 낙인 찍어 가지고서 ㄱ쁜 것을 해 버리민은 게, 후제 쉼가 흥쉴 커가민 색제도 변허곡 춤 틀릴 수도 있습니다.

@1 예.

#1 봄에 쉼 올라가서 그을 들민 색제 완전히 변합니다.

@1 예, 그렇지요.

#1 으. 예, 경허민은 이거 싸움 날 거시기가 있으니까, 이거 이 그쁜 거시기 해도 좀 트나게 찍어주고.

@1 으.

#1 또 이 이풀 해도, 저도 이 저 처음 쉼 놓기 시작할 때에 당숙님 낙인에 당숙님 이풀 그치 헛는데, 그 그쁜 식구라고 해서. 단지 나는 이표를 해도 당숙님은 똑그튼 이풀 해도 귀를 흔작 귀를 째는데, 똑 정가운데를 째었고 나는 조끔 밑으로 째었고. 게 서로 간에.

@1 으.

#1 아무리 삼춘 조케 찔레라도 조끔의 차이라도 서야 장래 득툼이 없다니까.

@1 예.

#1 (웃음)

@1 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는 거잖아예.

#1 예.

@1 예, 쟁 삼춘네는 낙인은 무슨 제 낙인 찢수과?

#1 예, 우리는 그 처음 헐 때는 점 복(卜) 제.

@1 예, 복.

#1 딱.

@1 예.

#1 그야 뭐 한글로 허면은 아, 아 잡주, 이거.

@1 비슷허게.

#1 예.

@1 점 복 헤 갖고 하고. 이 동네에서는 보통 어떤 낙인들 하영 써신고예?

#1 계난 보통 이 집안별로 낙인들이 거의가 틀렸는데, 게 우리 집안에서는 점 복 제 낙인 질렀고, 또 이 경주 김집에서는 새 흘 자를 찍었고.

@1 으.

#1 광산 김씨 댁에서는 버염 사 자를 질렀습니다.

@1 응,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베염 사 질렀네. (웃음)

#1 아아, 계난.

@1 (웃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1 아, 계난 그쁜 부락에는 내중에 가니까, 우리도 이 저 상산 간 영 보니까 이 북군 쉼 달이 거의가 이명 낙인들이 많아마썸.

@1 예.

#1 게, 상가는 이 옷 상 제에다가 이 더헐 가 제에.

@1 예, 예. 상가 헤 갖고 찍고.

#1 소길서는 요영 헤 가지고서 점 두 개 헐에 밧 전 제 흔디 부편.

@1 예.

#1 (웃음) 이런 낙인들이 많읍디다게.  
 @1 어.  
 #1 엄쟁이는 또 영 해 가지고서, 이거.  
 @1 엄 자.  
 #1 엄혈 제, 이거 미음 흥나는 요디 부쩍 헛고, 요 흥난 또 딱로 또 헛.  
 @1 예, 엄 자 비슷하게 해서.  
 #1 엄쟁이라고 행.(웃음)  
 @1 게른 저 상산에 올라가면 아이고 이걸 상가에서 왔저.  
 #1 아이고, 게난이 낙인 보면서 이걸 어느 부락 쉼라고 허는 걸.  
 @1 다 알 수 있는 거라예.  
 #1 짐작허는 거.  
 @1 예, 게난 옛날에 쉼들 잊어먹어 갖고 쉼 좇이레도 탕기는 거 아니우파예?  
 #1 아, 게난에 그 상산 가면은 잇다근에 뭐 서로 간에 연락 아녕 가도.  
 @1 으.  
 #1 잇다근에 이 타지 지역 사름 자주 만납니다게.  
 @1 게난 쉼보레 갓당덜예.  
 #1 아, 만나면은 딱 허게 그 어디서 옹디가, 허민. 예, 어디서는 아무 어떻게평헌 낙인 질  
 른 쉼 어떻 헌 쉼 봐집디가 행 서로 물어마썸.  
 @1 예, 예.  
 #1 경허민 경헌 쉼, 아멩허민 아멩헌 스방 십디다.  
 @1 예.  
 #1 경행 서로 듣고.  
 @1 으.  
 #1 경헌 해 가니까 내중예라 가난 이, 저 우리도 이명 낙인 만들어 가지고서 하례, 아래  
 하 제에 으뜸 원 제 이.  
 @1 으.  
 #1 해 가지고 하원. 이런 낙인 새겨서 썻습니다.  
 @1 게난 동네 이름 녀인도 잇고예?  
 #1 예.  
 @1 자기 집안에 녀인도 잇고.  
 #1 예.

### 해충 구제

@1 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쉼도 관리를 해줘야 돼지 안헉니까예?  
 #1 예.  
 @1 쉼도 관리허는데 그 옛날 부구리들도 잇고 진독도 잇고.  
 #1 예.  
 @1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헤신고예?

#1 아이고, 우리 이 공동목장 상산 가면은 그, 그런 게.  
 @1 부구리 엇어마씨?  
 #1 없습니다.  
 @1 아.  
 #1 파리, 진독이 없으니까 쉼이 잘 슬지는 거라마씨.  
 @1 아.  
 #1 그 출 좋고 맛음대로 뛰어 놓고, 겨난 이 공동목장에서는 이 그 아무 날 진독약 허쳐  
 해근에 이얘기허면은 그날 진독약 허레 다 옵니다.  
 @1 음, 그때는 진독약 주로 무슨 걸로 헛수과?  
 #1 그 처음 거시긴 때는 그 벨로 진독약이 안 나오난, 티디티.  
 @1 티디티예.  
 #1 으, 그걸로 허연 그것도 뭐 아주 그것도 잘 거시기가 돼지 안해서 어디 강 뭐 이녁 냥  
 으로 사다근에 허는 수도 잇엇고.  
 @1 으.  
 #1 흐쉴 셔가니까 그것도 그 보급 나와 가지고 그거 나온 걸로 물 탕 놔근에 이녁 냥으로  
 행.  
 @1 으.  
 #1 뭐, 현 주력 ㄱ정 가근엥에 쉼 심어놔 부벗고, 쪼끔 또 발전돼어 가니까 이 분무기 ㄱ  
 정 가근에 분무기로 헨 뿌렸고. 그다음에 또 이 물통 해 가지고서 쉼 모욕식으로 그자 들이  
 몰아서.  
 @1 으.  
 #1 이거 헛고, 지금은 이 딱 구제장 멘들아 가지고서 쉼 흐쪽으로 나가는양 양펜으로 이  
 분무기 대어근에 헤버립니다마는.  
 @1 소독험구나. 겨난 그추룩 디디티 나오기 전에는 어떻 헤연마씨?  
 #1 디디티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이 쉼덜 이 목장에 텅기는 쉼은 몰랐고, 그건 우리 어린  
 때니까 그 전에선 쉼, 집이 그자.  
 @1 으.  
 #1 행 와근에 메민은 집에 득 질룰 때난 득이.  
 @1 으.  
 #1 좇아 먹곡. 예, 거의가 이 밑에 잇는 건 좇아 먹읍디다만은, 경허니깐 이 저 아래 물그  
 릇 영 받아서 이 쉼빔으로 빗져, 빗져.  
 @1 으.  
 #1 경헨 물더레 털어정.  
 @1 겨난 그 쉼빔은 뭐 부구리채 험니까? 무신거렌 헤낫수과?  
 #1 아이, 거, 쉼쉼빔, 쉼쉼빔 헛수다.  
 @1 아, 여기서는 쉼쉼빔예?  
 #1 예.  
 @1 게민 그 쉼쉼빔은 그 영 그 양철 님은 걸로 영.



#1 예, 예.

@1 예, 동글락헌 걸로.

#1 예. 양철 님은 거 영 해근에.

@1 이런 식으로.

#1 조금.

@1 손잡이, 즈록도 멘들곡.

#1 예. 그저 톱니추룩 거시기 흠파근에 멘들앙 낭에 행 박아근에.

@1 삼춘, 이런 식으로.

#1 예, 예.

@1 영, 영 행예, 이렇게 톱니에 손잡이 허곡.

#1 예.

@1 걸 여기서는 쉼채빛이렌 허여예?

#1 예.

@1 예, 쉼채빛. 그다음에 그 여기도 번쉼들 해낫수과? 집집마다 해영 영 저기 목장 잇으니까 해도 이 드룻빳디 맥이러 갈 때 집 흠치 못 가면.

#1 아니. 그건 베랑 엇엇수다.

@1 아. 여기는 목장에 상산 올려서 그런가.

#1 아, 계난 나 이 중간에 혼 칠십 슬, 혼쉴 못 현 때, 요 무릉리 뭐 자연학습지 멘든 디라고 해 가지고서 그때 간에 뭐 쪼끔 혼 메칠 봉사헌 때가 잇는데. 거기 가난에 그 번쉼 해 가지고서 쉼 맥엇다고 험디다.

@1 으.

#1 경헌디 여기서는 그런 거 엇엇수다.

@1 아, 여기서는 그냥 목장에 올리고, 목장 잇으니까예.

#1 으.

## 쉐 올리기

@1 계몬 목장에 쉼 올리는 건 언제 올려마씨? 주로.

#1 보통 여기서는 스월절, 음력 스월절이엔 허민 약 오월 오일.

@1 단오절예.

#1 어. 오, 오월 오일 정도 뉘 가지고서, 양력으로 오월 오일, 음력으로 스월절. 그 정도 뉘어야 올렸고. 또 그때 뉘면은 거의 상산도 쉼 올렸어마씨.

@1 으. 거난 청명예, 옛날 청명예는 안 허는구나, 여긴예.

#1 아, 청명예는 그자 집이 메엇단 거 그자 드룻빳디 쉼 먹이기 시작만 해십주.

@1 으, 양력으로 한 오월에 이제 올리곡.

#1 예.

@1 그 내려오는 건 언제까지, 언제 내려옵니까?

#1 우리 내려오는 거 이 목장에서 그 보통 시월들.

@1 상강.

#1 돼면은 들어왔는데.  
 @1 예.  
 #1 그 목장에 보통 올린 췌들은 거의 그 일소들 아납니까?  
 @1 예, 예.  
 #1 암소들이라도 거의가 그 저 출이라도 허젠 헤가민 출 시끄곡 무시거 그슬커라도 허영 시경 오젠 헤가민 시월들 나도록 내 불어도 돼주만은.  
 @1 으.  
 #1 그때덜 이 심어당 소를 부려야 돼니까.  
 @1 으.  
 #1 출허게 돼어가민 거의가 느려와 버려마씨.  
 @1 아, 출혈 쯤 돼믄예, 예? 그 상산에 올령 그냥 내 불고.  
 #1 상산 췌는 뭐 시월들 나면은 내려옵니다만은 시월들 나기 전이 북군 소들은 거의가 처서 돼면은 몰아잡니다.  
 @1 아.  
 #1 그 북군은 또 소가 빨리 놓지도 아녀곡 자게 몰아가마썸.  
 @1 으.  
 #1 우리 이 남군 이 근방 소들은 스월절 들면은 어쨌든 췌 이 불레오름 밋디만 올령 내 불민 느려오지 안허여마씨.  
 @1 으.  
 #1 켜 내중에는 소가 이렇게 겨울에도 이 꽃밭디 그대로 사니까, 올리고 느려오는 게 엇엇수다.  
 @1 아, 이쪽에는예, 예?  
 #1 그자 겨울에도 눈 우의 늘 산에 사니까.  
 @1 으.  
 #1 제대로 추위가면은.  
 @1 아래쪽으로.  
 #1 뭐 목장까지 막 느려오곡, 덜 추우면은 꽃밭 안에서 살곡. 꽃밭 안네라야 먹을 게 잇주, 또.  
 @1 그렇주마씨.  
 #1 예, 목장지대에 내려오민.  
 @1 눈 문영.  
 #1 먹을 거 벨로 없습시다게.  
 @1 으.  
 #1 경허연.  
 @1 집에 게믄 췌막들은 안 험니까?  
 #1 또 봄 낭 풀 나가민 제대로 올라가곡.  
 @1 으. 게믄 집에서 췌막에서 췌 질루는 건 멧 개나 질뤄마씨?  
 #1 아, 게 그 상산에 췌 올림서도 집이서 췌막에 아, 게 부릴 췌 헉나 두 개야 질뤄야주.

@1 아. 쉼 올령 놔둬도 집에서 이렇게 하고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쉼 이렇게 몰 때라 든가 밧 갈 때라든가예.

#1 예.

### 쉼 모는 소리

@1 이라 헤 갖고 하고 왕 이런 소리도 허지예?

#1 예.

@1 그건 어떤 식으로 험니까? 어떤 때는 무신 소리 허고.

#1 아이게, 보통 밧갈 때는 그 부림페.

@1 예.

#1 이 오른쪽으로 이 저 이.

@1 부리는 거는.

#1 이 등기는 쉼이, 쉼 오른쪽드레 영 등겨근영에 오른쪽드레 등기는 석은 부림페.

@1 예.

#1 왼쪽으로 이 등기는 건 가린석이라고 허는데.

@1 예.

#1 게 이게 가면서 이 저 머썩 이썩 허여근에 보통덜 허는데 게영 찻찻찻 세 까명 밧 갈다가 이 부림페 들르민 어드레 허명 영 해근에 오른쪽드레 등기곡. 어드레 영 허명 왼쪽, 가린석으로 허영은에 왼쪽드레 등기곡. 그런 소리주. 뭐 밧 갈면서도 큰 뭐 곤는 이 소리가 잇겟습니까, 뭐, 막 끝나면 이 쉼 저 쉼여 어서 이레 재기 돌아오라 영 허는 소리 정도는 이 얘기합니다마는.(웃음)

@1 예, 게난 머시게헐 때 머시게헐 때는 앞으로 가렌 허는 거마씨?

#1 예, 경허곡이, 이 흥썰 뜨게 걸어가민은 이 부림페로 이 쉼 따리기도 험니다.

@1 예, 예.

#1 이거 이걸로 허영 툇허게 이걸 영 쳐서 툇 등기면은 맞입니다게.

@1 예.

#1 아됩니다, 솔직허게.

@1 예.

#1 (웃음)

@1 갱 이썩허는 거는 언제 해마씨?

#1 이썩 허민 건 그냥 글렌 허는 말입주게.

@1 글렌 허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서라고 할 때는 뭇렌 해?

#1 왕 허민 삽니다게.

@1 왕 허곡, 영 돌릴 때도 어떻 곤지 안험니까?

#1 아, 돌릴 때 이 저 소들이 조금 익숙으면은 막 가르치민 영 사근에.

@1 둘라 헐 때.

#1 으. 쉼가 영 돌아살려고 해마썩. 게난 또 장남이 익숙으면은 영 해근에 쉼가 요레 돌아 올 거민은 막 가가민 쟁기를 요레 슬쩍허게 영 돌령 이썩을 슬쩍 등겨야 갑주게.

@1 예.

#1 예. 그 이쪽으로 등길 거민 이쪽드레 쟁기 슬짝 들르면서 요 영 등겨 불민 췌가 제대로 강, 사가명 돌아와갑니다.(웃음)

@1 예, 그런 식으로.

#1 아, 제난 그제 차인데, 사람이 서툰면은 쪽허게 가근에 어드레 등기도 아녀곡 쪽허게 가근에 그냥 허민은 췌 그자 앞트레 무조건 갈라고만 허는 거 아니우파, 왕 허지 안허민 사근에 그자 옆에 담엠에 가도 그자.

@1 갈라고만 허고.

#1 무조건.(웃음)

@1 제난 췌들도 다 몰, 말로 허문 다 알아들은 거라예?

#1 예. 아이 게 사람 손으로 그거 먹을커 주곡 그 거시기 허는 게 췌 달래는 거야 그 사람이 관리허는 거에 팔려서 이 췌가 독허고 어질, 어질고 얹전허고 허는 거지. 먹을커 잘 주고 잘 찢어주고 허민 췌가 자연적으로 어질고.

@1 예.

#1 그제 심해서 때리곡 말 안 들어가민 욱허곡 헤가민 췌가 이 즈연적으로 독허게 뷔 거 아납니까?

@1 예, 맞수다.

#1 (웃음)

## 넵인 시기

@1 혹시 아까 그 췌 넵인 헐 때도 날 뺑 험니까?

#1 아니, 나이 뺑 허는 게 아니고 거예, 보통 두 술 뷔면은.

@1 으.

#1 두 술 뷔민, 혼 술 때는 에미 젓 떼서 허니까. 두 술 뷔면은 이 젓을 떼어서 이 풀거나 경 아니헌 것은 그대로 췌를 상산을 놓거나 거시기 허면은 거의 헐려고 허민은 이 낙인을 질러서, 이.

@1 올려야 뷔니까.

#1 에미 곁에 혼디 올려도 떼어질 수도 있고.

@1 으.

#1 혼디 부떠도 이 똑 닳은 형체 나을 수도 있고 허니까 이거 낙인, 거의가 두 술 뷔 땐.

@1 예, 제난 그 봄에 헤 갖고.

#1 예.

@1 하는 거예, 예. 그다음에, 아 또 이런, 그 어, 어미가 없는 췌들도 잇지예?

#1 예.

@1 에미유린 뭘?

#1 아, 어미가 잇당 어.

@1 엇으민 새끼만 이시민 그 새끼를 뭇렌 불럿수과?

#1 아이게, 뭇 에미유리여 뭇여, 무시거여 허는데.

@1 으.

#1 아이게, 보통 에미유리라도 그, 게 어럭췌민 어느 어평헌 어럭, 그거 우리 에미 유리, 그 에미 죽어 불연.

@1 으.

#1 또 이 또 에미가 있어도 새끼가 또 새끼만도 죽어 부는 수도 잇곡.

@1 예, 예. 게민 그땐 뒤편 말해?

#1 아, 건 저거 에이, 저건 새끼도 지탱 못 허는 거.(웃음)

@1 음, 그렇게 허고예. 그다음에 이 동네도 백중제도 헛수과?

#1 예?

@1 췌, 췌 질룰 때 백중제.

#1 백중제.

@1 췌 질룰 때.

#1 우리 거 벨로 아니 헛습니다. 옛날 어른덜은 헛다고 헛니다마는 전 벨로 아니헛봤습니  
다.

## 코스

@1 삼춘네 헐 땐 백중제 한 번도 안 헛뵈예?

#1 안 헛.

@1 그 산에 강 그 췌들 잘.

#1 겐 백중제는 벨로 아녜고, 췌 좇으레 텅길 때, 그때 저 이 코스라고 헛 가지고서.

@1 예.

#1 뭇 별다른 게 잇습니까게. 그 저 제주도는 쫄이 어려우니까 흰쫄밥이나 집이서 헛 가  
거나 이 뭇 바다 해어나 흐나 정 가근엥에 그자 어디 흐쫄 슬진 낭굽에나 가근엥에 그거 헛  
놓곡 향이나 피와근에 그자, 그자 그거 해영 거시기 허는 거 뿐이지.

@1 게문 그 거를 이 동네에서는 췌코사렌 헛마씨?

#1 예. 그자 이 코스.

@2 췌코스.

@1 으. 췌코스. 게문 코스는 어느제 허는 거마씨?

#1 아이게 코스야게, 우린 백중제라고 딱로 헛보지 안헛고.

@1 예.

#1 그자 췌 좇이레 갈 때 그자 멧, 멧 번에 흐 번 그자 지내거나 또 그대로, 우린 그대로  
가는 수가 헛수다.

@1 아. 게난 삼춘네 헐 때 췌코스, 췌 좇이레 갈 때면 가을에 헛췌네예?

#1 예.

@1 가을에 허는 거라예.

#1 가을이고 봄이고 건 우린.

@1 아.

#1 그 거시기는 상관엇이.

@1 상관엇이.

#1 시, 시절은 상관 안 허엿어마씨.

@1 그냥 정성으로 이제 가서 좀 헨 거구나예?

### 돌 질루기

@1 예, 알앗수다. 그다음에 돌도 질좌난마씨?

#1 아, 돌은 전 안 질좌봤습시다.

@1 삼춘 말은 어떻 질루는 거우꽈?

#1 돌, 돌은 쉼 질루는 거랑 큰 차이 없습시다.

@1 예.

#1 경현디 돌이, 그 돌은 니빨로 풀을 뜯는 거고.

@2 응.

#1 쉼은 혀로 내물양은에 그냥 혀는 거니까.

@2 응.

#1 돌은 짧은 풀도 먹고.

@2 응.

#1 소는 너미 짧은 먹질 못헤마씨.

@1 예.

#1 겐, 게 돌이 풀이 좀 약헤도 잘 먹고, 이 보통적으로 돌은 풀이 너미 건 디는 잘 안 먹고 아주 짧은 딜 좋아합니다, 습성이.

### 돌 종류

@1 예. 웨냐민 똑똑 이렇게 저기 이빨로 행은예. 그다음에 그 말도 아까 쉼처럼예, 종류가 으라 개잖아예?

#1 예.

@1 한번 곱아줍서. 털 색깔에 락랑은.

#1 예. 게 가래돌.

@1 가래돌.

#1 (헛기침) 저, 이제.

@1 붉은 건 뭐?

#1 가래, 청충이, 얼룩, 뭐 적대, 유파, 어.

@1 고라돌도 이수과?

#1 뭐 이, 코간전이, 이 뭐. 그거 이상 잘 몰르쿠다게.

@1 예.

#1 아멩헤도 이게 돌이 사름덜 얘기허는디, 뭐 불르는 일름 돌 불르는 식이 뭐 이 혼 스 무 지나 웬다고 헛디다마는. 건 건디 돌은 베랑 질루지 아녀곡 거시기 허니까 그자 대략 하영 이 근방 거시기헨 게 혼 대여섯 가지.

@1 예, 게든 이제 가래돌 ㄱ튼 거는 검은 거예?

#1 예.  
 @1 그다음에 적다는?  
 #1 예? 유마는 그 저 누리롱헌 뭘.  
 @1 예. 누리롱헌 유마.  
 #1 예. 적대는 빨간 뭘.  
 @1 예. 청충이는?  
 #1 예, 청충이는 흰털하고 검은털 서꺼진 게 청충이.  
 @1 예.  
 #1 또 월레.  
 @1 월레.  
 #1 월레는 어럭뭘.  
 @1 어럭뭘, 예. 그다음에 여기 점 박아진 거는?  
 #1 이딘 태상백이.  
 @1 태상백이.  
 #1 코간전이.  
 @1 코간전이. 입까지도 허영헌 거 잇잖우과?  
 #1 예?  
 @1 입도 허연 것도 잇잖우과?  
 #1 게 입ㄱ장 이 흰 게 코간전이.  
 @1 거흘뭘은 안 들어봣디가?  
 #1 예?  
 @1 거흘.  
 #1 그런 말 안 들어봣.  
 @1 그런 말 안 들어봣예. 고라? 고라도 안 들어보고.  
 #1 예.  
 @1 그다음에 이 발 허영헌 거?  
 #1 아. 발 그 뭐 스, 스족 흰 것ㄱ란 뭇이엔 혼다마는.  
 @1 스족백이.  
 #1 스족이 뭐이. 그건.  
 @1 몰르고예.  
 #1 불르는 이름이 틀림엇이 이실 겨우다.  
 @1 풀리, 풀리 흰 거는? 총지 흰 거.  
 #1 총, 총백이엔 헛일 겨우다.  
 @1 예. 그런 것도 잇고예. 그 등도 영 꾸부러진 것도 이십니까?  
 #1 화등이.  
 @1 화등이, 화등이도 잇고예.  
 #1 또 영 등이 우터레 오그라진 건 곱새.  
 @1 곱새, 예. 곱등이렌은 안 해?

#1 곱등이엔은 안 하고, 곱새.

@1 곱새, 화등이엔 하고예. 알아수다.

### 돌 용도

@1 그다음에 그 말은 어떨 때 쓰는 거마씨? 말로, 돌로도 밧 갈아수과?

#1 돌로 이 근방은 안 갈고 저 대정읍 그 모습포 쪽으로 그 저 옛날 비행장 해난 스방 그  
디 밧이 조곰 저 이.

@1 부드럽구나, 거기가.

#1 부각해여마썸.

@1 음.

#1 그 근방 돌로도 갈았다고 합니다.

@1 예. 이 동네는 다 아까 부릉이예. 게문 돌은 어떤 때 주로 하영 써수과? 여기도 조 블  
리고 흘 때도, 조 블렸수과? 여기.

#1 예.

@1 그때 돌 썬마씨?

#1 아. 그때도 돌로 블리는다.

@1 으.

#1 돌이 작, 발통이 족으니까 쉼만은 못허여.

@1 아. 게문 여기는 조 블리는 거나 허면 쉼로 헛구나예?

#1 쉼가 거의 주장헛는다. 이 돌이 더 재고 거시길 해도 이 쉼만은 못허여.

@1 응.

#1 발통이 족아.

@1 족아예.

#1 무기가 털어.

### 밧 블리기

@1 음, 그래서. 게문 그 저기 쉼 블, 조 블릴 때는 뭘로? 쉼로?

#1 거의 아이 부디 쉼만 흔 것도 아니우다게.

@1 예.

#1 걸음이 재니까 쉼은 안쪽에 돌은 벳기 쪽에 메어근에.

@1 아, ㄴ치.

#1 메어서도 블릴 땐 그렇게도 하고. 또 이 저 우리 ㄴ치 테로 많이 질루는 사람은.

@1 응.

#1 놔서 블리기도 합니다.

@1 아.

#1 놔서 이 저 흔, 흔 사람 선휼만 이꺼 가지고서 서이면은 블리는데.

@1 예.

#1 흔 사람 이꺼서 연이어근에 허면은 뒷사람은 영 멀리 사면서 이게 도는 방식이.



@1 예.

#1 오른쪽 두 번 돌면은 왼쪽으로 한 번 돌아옵니다.

@1 응.

#1 쟁 영 혜영 돌아와가민 영허민 이 저 벳깃디 산 사람이 잇다근에 영 바파사명 자꾸 영  
헝 쉼 막아줘야.

@1 또 거꾸로.

#1 이 ㄱ튼 방향으로 돌아갈 테주.

@1 예. 계문예, 그 맨 앞에 산 사람은 뭐렌 헤마씨? 볼릴 때.

#1 아, 선췌옌.

@1 그냥 선췌.

#1 예, 계난 그 선췌 이끄는 사름이 아무나 이끄는 것도 아니고.

@1 예.

#1 계영 그래도 그, 그 선췌 이끄는 사름은 그 좀 테우리에서 좀 거시기 헤근에 허는 사  
름이 췌를, 그 선췌 이꺼준다고 허는디.

@1 응.

#1 그, 그 당시 저의 당숙님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1 예.

#1 예, 그 뭐 저가 선췌를 조금 이꺼봤습시다마는.

@1 음.

#1 그제 쉬운 일이 아이라마썸.

@1 예.

#1 나상 밧 불리젠 허민.

## 테우리

@1 계난 그 예전에 테우리, 계난 테우리 누겔 테우리렌 현 거파?

#1 양?

@1 테우리?

#1 테우리게, 췌 ㄱ튼 거 헤근에 많이 이 고지 낭 몰아 텅기는 사름보고 테우리, 테우리  
허는 거마썸.

@1 테우리렌 험구나예, 계난.

#1 솔직헌 말로 췌테우리우다게.

@1 예게, 삼춘 췌테우리.(다 같이 웃음)

#1 쟁 들 많이 질루는 사름은 들테우리.

@1 들테우리.

#1 췌 많이 질루민 췌테우리.

@1 계난 삼춘은 췌테우리.

#1 예게. 난 췌테우리.

@1 계난 삼춘네는 췌테로도 밧 불린 거라예.

#1 예.  
 @1 예, 예. 여기는 그 밧 볼릴 때 그 영 낭에 밧 박아근에 현.  
 #1 아, 그 곰베.  
 @1 예.  
 #1 그건 없었수다.  
 @1 그런 건 안 쓰고예.  
 #1 예.  
 @1 낭테도 안 씻잖아예?  
 #1 섬비질은 잇어수다.  
 @1 섬비로만 허고예.  
 #1 예.  
 @1 알아수다. 그다음에 어, 아까 삼춘 말도 탕 텅겅텐 허명.  
 #1 예.  
 @1 예.  
 #1 게 말 그거 동네 물 그저 멕이레 텅길 때, 영 혼디 그자 그거 이 건기 실프른 그 말  
 나 흐쉴 타보켜 행은에 타곡 허는 겹주, 거 무신.(웃음)  
 @1 쉼 멕이레 텅길 때.  
 #1 예.  
 @1 쉼허고 물하고 ㄴ치 놔도 싸우거나 영 안 험니까?  
 #1 게 이 보통.  
 @1 응.  
 #1 이 힘으로나 모든 걸론 쉼가 췌디.  
 @1 응.  
 #1 그냥 임시 텅길 때는 물이 이겨마췌.  
 @1 아.  
 #1 이 ㄴ찌 영 텅길 때는 이 저 영 헤근에 물 가는 데레 췼, 췼가 가민 물은 니 내낭 복  
 허게 물곡.  
 @1 응.  
 #1 허는디 췼는 이상케 물은 질르젠을 아녀. 허.(웃음)  
 @1 으.  
 #1 이 질름이나 허민 틀림엇이 췼야 이길 건디.  
 @3 (웃음)  
 @1 췼가 순허구나.  
 #1 응. 췌디 보통은 그런디.  
 @1 응.  
 #1 진짜 이 저 뭐 막 이 밧갈췼덜 잇다근에 무신거들 허당 성질 나면은 질러 불면은 물  
 죽기도 헌텐 험니다게.  
 @1 으.

#1 예.

@1 그래서 그 아까 찢르잖아예.

#1 예.

### 쉐찢레기

@1 쉼하고 쉼 영 싸우는 것ㄴ라 뭐렌 험니까?

#1 쉼, 쉼찢레기.

@1 쉼찢레기.

#1 예.

@1 옛날엔 쉼찢레기들도 막 허는 것도 봐났어예?

#1 아, 예. 게 보통 솟소털, 그 저 거시기 암소나 서 가지고서 그거 암소 그 배란기 뉘 가지고서 허면은 그 흘레쉼, 흘레쉼 허는디.

@1 으.

#1 그걸 자기가 츠지허고 싶어 가지고서 그 허면은 찢레질 많이 허고.

@1 응.

#1 그렇지 아녀근에 또 이 같이 늘 텅이는 쉼은 그 우선 성, 아실 골려졌으니까 아여는디.

@1 응.

#1 어디 웬동네 쉼, 자주 안 보던 쉼 보면은 우선적으로 순위는.

@1 응.

#1 자기들 찢레도 경해야 뉘니까.

@1 예.

#1 그건 틀림엇이 험니다.

### 물 나이

@1 아, 찢레기 영 부텅예. 예전에 쉼찢레기허는 것도 하영 봐신티다가. 그다음 삼춘 물 나인 어뎡 쉼니까?

#1 아, 물도 서로 싸움험니다.

@1 물도 싸와예.

#1 예. 물 싸우민 서로 관작 사근에 바로 서로 물고, 물당 버치면은 물어근에 이런 디 고 개 물어근에 막 혼둘르민 물 드러눕기도 험니다.

@2 응.

#1 겐 또 물지 못허민 돌아사근에 뒷발로 차기도 허곡.(웃음)

@1 으, 게난 보통 쉼은 찢레.

#1 예.

@1 부트곡 들은 뉘 이렇게 물고.

#1 으, 물곡.

@1 그다음 발로 차고. 예. 아까 그 쉼 험 때 금승, 다간 영 헛잖아예.

#1 예.

@1 물은 세는 게 딱나잖우파예?

#1 예.

@1 물은 어떻 셉니까?

#1 물은.

@1 금승.

#1 금승매, 이수매, 삼수매, 스수매.(웃음)

@1 으. 금승매, 이수매, 삼수매 해근에 쪽예.

#1 예.

@1 경해근에 허고. 물은 뭇 살까지 살아마씨?

#1 물이 이 우리가 거시기 허기는 뭐 쉼보다는 수명이 길어 가지고 삼십 년 산다고 험나 다마는, 뭐 우린 물 그렇게 오래 사는 거 구경도 해본 디 엇고.

### 잊지 못한 추억

@1 응. 거의 이제 쉼, 아까 쉼테우리니까. 쉼 저기를 하고예. 그다음에 삼춘 그 쉼 질루거나 나 물 질루멍예.

#1 예.

@1 아이구, 나 이런 건 정말 잊어 불지 못허켜, 아니면 이런 잘도 재미져난 거 잊어 허는 말 곁아 줘서. 이만큼 곁아줘도 뵈니다예.(웃음)

#1 아이구, 쉼 질루멍이나 물 질루멍 뭐 잊어 불지 아녜 말은 크게 없고.

@1 응.

#1 솔직허게 그, 저가 쭈물넛 나는 헐가, 그 눈 혼번 껌인년 크게 와 가지고서, 팽지에도 이 메다 이상 제주도예 눈 쌓여난 해가 잇엇습니다.

@4 아.

#1 그때 당시 저희들이 그 드룻쉼을 길을 땀데, 소가 그 저가 그 오촌 밑에서 그, 오촌 산에서 허다가 집에 질루다가 산에 놓다, 낫다가 허는데, 그 소가 결국은 그 소에 부튼 소 수정이 혼 열댓 마리가 뵈는데, 상산 갓담 넘어서 이 저 중간 중갓광 상갓 새에 그 옴뱃디, 궤 잇는 뱃디 들어왔어마썸.

@1 응.

#1 자기 냥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양력 그 멧질홀 땀데, 양력 멧질 꺾나서 이 쉼 좇으레 간 보니까 쉼 거기에 들어완, 그 어디 가근에 쉼 물은 뵈여 줘얏 건디, 물 뵈이젠 재우 헐간 어디 냇고랑창에 가니깐 물은 간 보니까 전부 물이 얼려 불어서 쉼 먹을 수가 엇어. 아, 거난 흠 돌 어디 간에 뱃담 둥그려단 돌 막 뭇으멍 그 물 예염에 산에 뭇단 보난 자락허게 터지난예 알로 \*\* 줍져 가지고.

@1 응.

#1 게연 흠 혼나난 베가 잇는데, 저고 그 쉼도 그때 당시도 몰아오지 못 해연 글루후제 혼 메틀 잇다가 그 날 존 날 택해 가지고서 몰아오는데, 키로 수로 여기서 이 키로도 안 뵈는 이 데에서 이 집이까장 몰아오는데, 이 월평 분 혼나하고 하원 사름 넷, 다섯이 혼루종일 걸려야 집이까장 몰아왔는데, 그 쉼을 몰아오젠 허니까, 자 사름마다 삼 차고, 자, 신엔 눈바

라기[눈바라기]라고 해 가지고 이 신 벳긔디 이 대 헨 얹어 가지고서 이 저, 빠지지 못허게 해 가지고서 해난 집이깻장 몰아와 가지고 여기 돌그레, 쌍돌그레, 이거 쌍돌그레 동네, 쌍돌그레 동네.

@1 아. 이 동네.

#1 이 바로 이 삼커리에.

@1 예.

#1 연자방아가 두 개가.

@1 예.

#1 영 부텅 잇어났는데, 거기 와 가지고서 완 춤 그 겨울 봄 나도록 청명 혼 십일 전까지 거기서 그자 출 주멍 질렀는다.

@1 응.

#1 겨울에 늘 거시기허는 놓는 쉼니까 그 쉼들 찍센 출 안 헛으니까, 거 집에 먹는 쉼에 거 조금씩 거시기 허면서 줄라고 허니 춤 집에 쉼덜토 곤란이고 그 쉼들도 곤란이고 해 가지고서 이 혼 저슬철 살아난 베가 있는데.(웃음) 그게 제일 뭐 쉼 길르면서 남는 기억입니다.

@1 예. 계난 아까 그 삼춘 눈 텅길 때.

#1 예.

@1 발에 이제 그 나무로 동글랑허게 행 멘드는 거예?

#1 예. 거 눈바라기, 눈바라기.

@1 눈바라기.

#1 예.

@1 설피렌은 안 곱읍니까? 여기서는.

#1 \*\* 안 해봤수다.

@1 여기서는 눈바레기.

#1 예. 눈바라기 그자 멘들앙.

@1 응.

#1 그것도 멘들 줄 몰르는다, 그저 우리 오춘이.

@1 예.

#1 쟁헨 그 낭으로도 아니고 대 끊어단에 벵허게 오그런.

@1 응.

#1 댓가지 체연 영 낱에 스끼 깻안 멘들안, 그자 이레 오라 헨에 그디 가니까.

@1 응.

#1 당신 뒤에 대왓디 간 대 끊어단에 멘들민, 이추록 행은에 느도 해근에 이거 장화에 딱 무끄라.

@1 예.

#1 쟁은에 그자 무견.(웃음)

@1 그치록 행 텅견예, 그건 말곤마씨?

#1 예?

@1 잘도 진짜 잇어 불지 안허쿠다게. 아까 그 쉼들 그 굶고 으.

@2 물 얼어근에, 응.

#1 그거고. 또 이 저 쉼 처음 놓은[논] 때에다가 이 쉼이 이 자기 살아난 지역만 살지 아  
니고 조금 지역을 벗어나 가지고서 이, 천백고지 저 어염까지 내려와난 벼가 있습니다게.

@1 예.

#1 게 가지고 흔 며칠 좇지 못허연, 쉼 자취를 좇앙 텅기당 텅기당 보난 그 날은 어두와  
불고 쓸 싸간 건 엇고, 해 가지고서 저 흔 번 그자 그, 그날 저녁 먹으민 말 음식인디 텅기  
단 보니까 날 어두와 부난에 어디 궤 들어간 춤 그날 먹을 것도 엇인 음식에 그자 밥 흔 때  
먹을 걸로 두 어른이 그걸로 죽 썩가지고서, 두 사람이 삼춘 조케가 헐, 저녁 먹엉 뒷날 아  
침 그자 그대로 따시 어디 텅기질 못해 가지고서 허기 전 텅기지 못헐 집에 내려난 벼도 잇  
고.

@1 예.

#1 그거 뭐.(웃음)

@1 이런 저런 일 하시커라예. 그런 얘기들이.

#1 으.

@1 게문 쉼 보레 텅길 때.

#1 예.

## 쉼 돌아보기

@1 게문 산에 올령만 내부는 게 아니라 메칠에 흔 번씩 쉼 보레 가마씨?

#1 게난 보통 그 사월절 들면 저절로 올라가니까.

@1 예.

#1 그 농수철 돼기 전에 보리궤슬 그 보리 채 피기 전에 흔 번 정도 가근에 쉼 올라가신  
가 말아신가 좇아보고, 글로후에는 일손에 바빠 가지고 보리궤곡 그 여름 농수에 조 불리곡,  
보리 장만허곡 해여 나근에 그걸 막 꺾나가면은 장마철이 지나마썸게.

@1 예.

#1 게 장마철 지나민 그때 보통 좇으레 텅기곡 장마철 지날근에 그 여름철은 조금 한글 흔  
철 돼면은 그땐 그저 흔 열흘에도 흔 번 갈 수도 잇고, 뭐 흔 번 가면은 흔 사나흘씩 살 수  
도 잇고, 그자 보통 장마철 지날 강 갈 때가 많습니다.

@1 예.

#1 그때 강 그자 흐민 그 옷세오름 밧딤에 정도 그 넘어가면은 시레미도 타먹곡 그자.(웃  
음)

@1 음, 쟁은에 그 갈 때는 그냥 흔두 명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라예?

#1 아, 예. 아 게, 그 하원서 그때 당시는 쉼 놓는 사람 숫자가 한 사오십 명 뻬습니다.

@1 아.

#1 게난 자기네 그 쉼덜 부르는 그룹마다 틀립니다.

@1 예.

#1 게난에 그 우리광 궤치 텅기는 그룹은 우리만 궤치 텅기는 사람 흔 여슬곱 사람 흔디  
그자 쪽허게. 우리 어느 날 쉼 좇으레 가져 허민 그날들 그자 다 알아근에.(웃음)

@1 벋헝근예.

#1 예. 벋써 해 트기 전에 다 목장에 깃장 나옵니다.

@1 음. 게믄예, 삼춘 이 하원에 허게 뉘면 보통 한 그 쉼 동아리 이렇게 깃지 안헝니까 예?

#1 예.

@1 몇 므리씩 깃읍니까? 허게 뉘면. 그 둔 깃는 거.

#1 아, 게난 그거예, 쉼 헝 동아리라도 게 틀립니다게. 소를 헝쓸 대대적으로 많이 키우는 사름은 헝 사름이 이십 머리, 삼십 머리로 올릴 수 있고. 나도 쉼고 많은 뉘 이십 머리가 넘 어났습나다마는.

@1 아.

#1 으. 또 이 그 이십 머리, 삼십 머리 므저도 헝 두 머리 그디 부텡은에 허민은 므치 쉼 좇이레 가젠 허민은 므찌 부썰 가살 거 아니우파?

@1 예, 예.

#1 경헝은에 허는 수도 있고. 그, 그 숫자는.

@1 상관엇어예.

#1 상관엇어마씨.

## 떡이

@1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는 그 톨허고 쉼는 뉘 먹영 살아마씨?

#1 아, 뉘 떡어마씨. 산에 강 톨 먹엇지.

@3 (웃음)

@1 어떤 톨 먹읍니까?

#1 톨이 그 한라산에 웃고지 가민 그 초지가 좋습니다.

@1 아.

#1 이거 이 냄새가 바로 쿠쑹쿠쑹허게 나난.(웃음)

@1 음.

#1 이 좋은 문닥헌 초지가 있고, 또 이 그렇지 아녕 또 낭 이 낭그늘 므튼 디 가민은 그 낭 밀톨 닳은 톨 복삭허게 요만씩 올라오는 톨, 거 아주 소 좋아허는 톨들도 있고.

@1 으.

#1 또 이 헝쓸 밑으로 와근에 거시기 허면은 이 갈대.

@1 예.

#1 저 이 조릿대.

@1 예. 므대.

#1 그런 것도 있고. 톨은 가지각색이우다게.

@1 응.

#1 너출 나오는 그 봄에 처음 올라갈 뉘 이 줄쟁이줄 므튼 거 이 무신 그런.

@1 너출들.

#1 그 출 나오는 거부떠 문저 먹기 시작허영은예.

@1 낭썰들도 먹읍니까?

#1 예. 아, 겨울에 이 눈 와근에 먹을거 엇일 때는 낭가지 이만이 술진 거 다 끊어 먹읍니다.

@1 아, 낭가지도 먹고예.

#1 예. 아이 눈 와근에 아무것도 먹을거 엇일 땐 그런 것도 먹어야지.

@1 으, 그렇게 이제 헤고. 그 저기 아까 풀 일름들은 알아지쿠과? 뭐 소새여 뒹여 허는, 쉼 먹는 풀.

#1 아, 그거 잘 몰릅니다.

@1 그거는예. 그다음에 이제 집에 질루는 쉼 행은에 출허는 일도 큰일 아니우파예?

#1 예.

@1 출허는.

#1 예.

### 출 마련

@1 얘기해줍서. 출은 어떤 식으로 마련햇어마씨?

#1 보통 출은예, 이 근방에서 이 팔월 추석 뒷날부터 출 비기 시작 대개 합니다.

@1 음.

#1 뒷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그 호미로 비는디, 흔 사름이 그 비는 양이엔 험 게 요만이 무꾼 거 이 스십 단이 흔 바리 치는데.

@1 으.

#1 잘 비어야 흔 사름이, 이 저 세 바리 정도 빈답니다.

@1 으.

#1 게 세 바리 넘어 비는 사름도 잇고, 좀 보통 넘어 비는 사름이 이 세 바리 비는데, 그 게 (헛기침) 거 호미로 거 비어 놓민 무끄지도, 그걸 무끄는 게 잘 무끄는 사람이 하루 스무 바리 무꾼답니다.

@1 스무 바리에. 게문 그제.

#1 이, 게 이스 팔, 팔백 못 아닙니까. 팔백, 팔백 단.

@1 예, 바로 바로 무꾼 거지예, 으.

#1 (웃음) 그제 보통일이 아입니다게.

@1 출 무끌 땐 뭘로 무꾼마씨?

#1 께.

@1 께.

#1 그 새 비영 께 털영은에

@1 아. 게문 그 새에 께 터는 것도 일이쿠다예?

#1 예.

@1 으.

#1 게난 그 출 잘 무끄는 사름은 흔디 앗앙 께 흔 바릴 털타 출 흔 바리를 무끌타 하면 은, 께 터는 사름보다 무끄는 사름이 빨라미썸.



@1 음.

#1 (웃음) 께 요거 해근에 새 요것 땃예술곱 곱 뽀아근에 그거 갈랑 요영 돌려놓는 새에  
출 혼, 혼 뭇은 영해근에 싹허게 언주아근에 확 뒤싸냥 발로 불랑 이게 질른다.

@1 으.

#1 이치적으로는 께 터는 게 뽀람직 해여도 이 출 무끄는 게 뽀릅니다.

@1 예.

#1 이게 게 조금 뜬 사름은 안 뒤고.(웃음) 켜 사름은, 게 나도 그거 저 혼 시간만 흘락히  
면은 내가 뽀리 무끄쥬습니다.

### 출 운반

@1 게 삼춘은 게문 출 비어보기도 하고 께도 털어보고 다 헛잖아예.

#1 아, 무끄기도 허곡 출 놀기도 허곡 실러오기도 허곡.

@1 응.

#1 아, 그게 뭇 처음은 그 구, 춤 구르마, 구르마 허는디 마차 그게 처음 잇엇습니까?

@1 예.

#1 전부 쉼질메를 시끄는디.

@1 으.

#1 쉼질메 뭇 쉼 그 어린 송아지털 뭇 땃 뭇 시꺼집니까? 제라헌 혼 바리도 뭇 시쥬 혼  
착에 열땃 뭇 정도 실르민, 자 나도 저 쉼 혼 착은 지는 거라마썸.

@1 예, 예.

@1 예. 스무 뭇 지고.

#1 게영 행 땃기곡.(웃음)

### 께 털기

@2 께는 뭇로 털어마쥬?

@1 손으로.

@2 아까 이렇게 돌리시던데.

@1 아니. 손으로 영 돌리는 거.

@2 께 트는 기구가 이수과?

#1 새면은.

@2 으.

@1 새 뽀앙.

#1 새가 요건 땃 가울 아입니까?

@2 예.

#1 뽀아서.

@2 예.

#1 요걸 두 께에 갈랑.

@2 예.

#1 흔 작은 이 발로 영 툅 쥼정.

@2 예.

#1 요 흔 착에 건 영 갈라냥.

@2 응.

#1 그 트멍에다 요걸 썬 영 낡 이걸 감아 버리는 거라마씨.

@2 아.

@1 새로.

#1 쟁헝 이거 막 영 등겨도 빠지지 아녜 정도로 감아지면은 확 오그려근에 이 놔둬. 이걸  
무끝 때는 그걸 영 폐와근에 무끄는 거.(웃음)

@2 아. 영 영 허난 뭐 기구가 이신가 헐에.

@1 손으로만.

@2 손으로만예.

#1 완전 손으로만.

@2 이렇게 허니까.

### 출 장만

@1 게난 여기서는 낮은 안 췌지예? 호미로만 헛지예?

#1 예, 여기서. 이 정의 사름덜은 낮 췌다고 헐니다마는.

@1 다 줌호미.

#1 예.

@1 으, 그 출 빌 때, 예.

#1 예.

@1 출 빌 때는 다들 바쁠 때 아니우파예?

#1 예.

@1 출도 수눌영 비어마씨?

#1 아, 수눌영 빙주게.

@1 으.

#1 수눌영 비곡 또 이 저 췌 엇는 사람들안티 쿨 줘근에 빌어오기도 허곡 뭐.

@1 응, 쿨 췌 빌기도 허곡예. 그 췌출 비고 무경 오는 것도 어렵주마는 거 운반허는 게  
췌 어려운 거 아니우파예?

#1 예.

@1 놀곡.

#1 운반은 오히려 쉽다고 봐야웁주.

@1 예.

#1 솔직한 말로 이 이녁이 그걸 출 비어근에 밧디 무껴 놓민 다 늑니다예.

@1 예, 밧디도 놀영 놔둬.

#1 놀곡, 그자 이녁 시꺼올 만씩 바리 베리멍 그자 놀에 것 뽑아근에 시꺼 오는데, 그 출  
비영 놀은 다음에 조금 틈은 이십니다.

@1 예.

#1 흐흠. 틈 시면은 아, 이젠 놔 출 다 시꺼온 사름, 동네 쉼들 그걸.

@1 빌영.

#1 쉼 나 강 맥이다근에, 그 올 땐 출 시경 오커라 해근에, 쉼 땀 개씩 그자 가근에 어디 출 비어난 출그르에 강 흐되 맥이다근에 그자 그거 흐되 올 땐 돈 시경은에 올 수도 잇곡.

@1 으.

#1 그건 어느 정도 뉘는디. 어쨌든 그 비어근에 무끄는 과정이.

@1 예. 계난 여기는 그 목장들이 널르난 목장에 널영, 저기 놀영 놔두는 거라예.

#1 예.

@1 집에 다 가져왕.

#1 아, 집에 목장에 놀어두서 집이 다 가져옵니다.

@1 아. 예 집에 다 가정왕예.

#1 예.

@1 게민 출놀이 땀 개씩 저기.

#1 아이, 출놀이 보통 쉼, 밧갈쉼 흐나에 그 쉼 많이 멕여야 흐 스무 바리ㄱ지 먹는다고 흐는디.

@1 응.

#1 보통 스무 바리 허는 사름은 드물고 열땀 바리 정도 허민은, 그자 이 거시기 해 가지 고서 이 열땀 바린 사름 흐 예슬곱, 으삿 정도는 뉘야 흐루에 빡니다게.

@1 으.

#1 으삿 빈 것 정도는 또 출 잘 무끄는 사름은 흐 흐 사름이 무꺼마썸.

@1 아.

#1 게 흐 사름이 무끄면은 그것도 무꾼 거 메와 놓는 사름이 또 트로 셔야 뉘 거고, 게 털어준 사름 흐루 흐 사름이 셔야 뉘지.

@1 메와주는 사름도 잇고예, 예.

#1 그거 해근에 그 으삿 빈 거 다 무꺼근에 놀젠 허민 그게 인력이 계난에 출 열다섯 바 리만 허젠 허민 벌써 무, 비고, 무끄고, 늑꺼정 허젠 허민 벌써 열 사름은 들어야 뉘다는 겁 주.

@1 계난 그 출 흐 놀에예?

#1 예.

@1 땀 바리를 놀어마씨?

#1 아이, 거 누는 건 흐장이 없습니다.

@1 아.

#1 쉼, 하영 누는 사름은 백 바리ㄱ지도 뉘.

@1 놀곡예.

#1 놀 순 시니까.

@1 계난.

#1 아, 굵 크게 놀영은에 높이 쌓이면 많이 쌓일 거 아입니까?

@1 예.

#1 게 하영 놀지 안힐 거민 굽 죽영 낳은에 좀 야프게 쌓아도 뒸는 거고.

@1 응, 게난 삼춘네는 쉼 하영 질루난 하영 헤시커라예?

#1 아이, 쟁 날 침 놀 때 크게 해보진 아녀곡.

@1 으.

#1 중간에 그 상산에 쉼 놓기, 놓다가 치와서 이 목장에만 놓을[놀] 땐 나도 쉼, 집에도 여남은 개 질루니까.

@1 음.

#1 그때는 출 해단 놀어도 혼 백여 바리 이상 쌓아도 뵈습니다.

@1 예. 게, 게믄 그 먹는, 그 먹는 게 혼 석 들 먹읍니까, 몇 들 먹읍니까? 그 출.

#1 아니 게난 여기서 목장에만 놓을[놀] 때는 보통 십이월들 들어서 몰아오니까, 십이월 일월 이월 삼월 오래 먹어야 녀 들이고.

@1 아.

#1 또 그 제라허게 옛날치록 쉼 그 밧갈곡 질루고 힐 때는 거의가 여섯 들을 멕여야 뵈니다게.

@1 아.

#1 걸름밧ㅎ기 전이부떠 쉼 멕여야 뵈 거 아니우파?

@1 예. 그래야 동도 싸곡 해야뵈니까.

#1 그때 해근에 허젠 허민은 저 제라허게 풀 나근에 췌명 이후ㄱ장 멕이젠 허민 여섯 들 멕여야 뵈니다.

### 바령밧

@1 게믄 이 동네도 바령췌도 헛수과? 바령.

#1 아. 그건 바령췌는 말은 들어뵈습시다만 보진 안헛고.

@1 응.

#1 옛날 그 췌 밧딤 바령췌 들어서 뭘 농스허민 그 밧딤 곡식 잘 뵈다고 헤 가지고서, 그 담 곳인 밧딤다가 췌 그 겨울에 몰아당 그 밧딤서만 톱 싸고 오줌 싸고 출 주곡 헤 가지고서, 허면은 그게 걸름이 뵈여 가지고서 뵈해 농스허면 농스가 아주 좋아진다고, 바령췌 질뵈다고 말은 들엇습시다.

@1 게난 삼춘네 농사힐 때는 비료 쥐근에 농사헌 거라예?

#1 아니, 아직 비료 나지도 아년 때부떠 농산 져습시다마는.

@1 바령췌는.

#1 그런 거는.

@1 안 해보고예? 예.

#1 안 해뵈습시다.

### 췌것

@1 그리고 췌안테, 췌것들도 하영 행 췌수과?

#1 예.

@1 어떤 식으로 컸은 행 줍니까?

#1 아. 쉼컷 헤영 준다는 게 우리 두린 때 거시기 허는 건, 그 벧집 썰어서 이 저 무신.

@1 누깻ㄱ루.

#1 보릿ㄱ루나 아썩 거시기 헤 가지고 숭아서 주기는 게, 쉼 주는 게 그 컸 행 주는 거고. 글루후제 쪼끔 살아가니까 그 보릿ㄱ루 ㄱ튼 거 푸는 게 나왔어마썩.

@1 예.

#1 누까, 누까 허면서.

@1 누까.

#1 그거 그자 이 그냥 출 썰어 가지고서 그자 물 아썩 서꺼근에 ㄱ루 허꺼근에 그 쉼 주는 게 그게 바로 췌고급, 췌고급 음식이라고.

@1 뭐 보리나 콩 숭앙 주진 안헤난마썩?

#1 아니.

@1 거는 안 허고. 아까 벧썩, 나룩썩예.

#1 응.

@1 나룩썩 숭앙은에 줘 봤수과?

#1 예.

@1 아. 보릿ㄱ루 서썩.

#1 아이 거 우리 어린 때는 나룩, 벧집 그냥 줘도 먹는 건데.

@1 예.

#1 벧집 그냥 주는 사름은 나 벨로 보질 못헛어.

@1 으.

#1 벧집 그대로 거시기는 벧집 헤다가 뭐 멩텅이나 즐고 멩석이나 즐고 스끼나 꼬는 거 베나 허는 걸로 알았지, 쉼 맥이는 걸로도 생각지도 안헛고, 그때 당시는 그자 그 쪼끔 쉼 잘 맥이는 그 거시기 ㅎ고픈 사름이라야 좀 밧갈썩나 헤여근에 겨울에 무신거 털 먹어가면은 쉼가 궁헤가면은 그자 거시기 헐랴고 헐 숭아썩지.(웃음) 경, 그거이, 쉼질 안헛습니다게.

@1 예. 게고 삼춘 그 출 비레 멩기멩예, 또 저기 추억 ㄱ튼 거?(웃음) 이제 잊어 불지도 못헛고. 웨냐면 출 비영 비 왕은에 젓어 불면 큰일 나지 안헛니까예?

#1 예.

@1 썩 밤에도 강 출 무꺼 뵙디가?

#1 밤이는 아니 무꺼 봤수다마는.

@1 예.

#1 하여튼 그 출 무꺼뵙근에 어디 잇당은에 그 저 잘 이 즈낙은 께참을 테주 행, 별경 내 벧다근에 그자 잇당 쏘나기나 저 그자 헤여근에 비 즈주 완직허민게 잡아다 돌아가근에 그 걸 데미나 누나 어멩 험벧기, 요새추룩 비니루가 이수과, 뵙가 이수과?

@1 응, 그 출 빌 때는 보통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니까?

#1 예?

@1 출 빌 때 바람 방향이.

#1 아이, 그거 방향 상관 없곡.

@1 예.

#1 보통 그, 그자 이 밧 주위에 흔해 가지고서 그 주인이 그자 오른쪽으로부터 영허영 돌  
구정허민 영 오른쪽으로 돌 거고, 왼쪽으로 돌민 쪽허게 행 앓으민 그자 흔 일 메다, 일 메  
다 뒤따라 앓아근에 그자 비어가느냥 쫓아가명.

### 흥아기 소리

@1 그 출 빌 때도 노래도 불러봐마씨?

#1 아. 그제(웃음) 저 거시기.

@1 흥애기.

#1 흥아기소리라고 헐.

@1 삼춘도 불러전.

#1 아녀 보진 안헤수다.

@1 삼춘도 불러봤지양?

#1 예.

@1 흥아기소리 한 번만.

#1 (웃음)

@1 노래도 잘 부를 거 다향.

#1 예, 예. 조금 십서예.

@1 예.

@1 자, 흥애기.(웃음)

#1 (흥아기소리)

청출밭디 흔 놀 가는 소리 보라.

이 출 이 출 비어근에 이 송아지 뵈엇거든

흥 어허허 어허 어허 흥아로구나.

익은넝 앓인 사름이라근에

어서 설설 질이나 치명 갑서

어어흥 어허 어허 어허 어허 흥아로구나. (웃음) 뭐, 이런 거우다.

@4 (환호와 박수) 와, 아 세상에 목청도 너무 좋아.

@1 삼춘, 게믄 이거는 출 빌 때 허잖아예?

#1 예.

### 쉐 모는 소리

@1 쉐 몰앙 내려올 때도 놀레 불러?

#1 예, 예헤.

@1 그거 무슨 노래 험니까?

#1 쉐 모는 소리?

@1 예. 췌 모는 소리.

#1 췌 모는 소리양?

@1 예.

#1 췌 그걸 예, 그자 이 췌 어디서 몰앙 텅길 때 이 저 혼 밧디레 거시기 허는 게 밧 불리는 소리광 또 췌 그냥 모는 소리가 조금 틀려마썸.

@1 아.

#1 예. (췌 모는 소리) 이러 이러 허 어러러러러러, 어히. 이 췌 저 췌 닳은 췌 어드레 감시냐아 왕, 어러러러러러러러러러. 게 췌들 으라 머리는 우선 소리로 진압시켜야 뉘는 게 아납니까게.

@1 예, 이러이러 헤 갖고, 이거는 소 모는 소리고.

#1 아, 그냥 이러이러 이식이식만 해도 갑니다.

@1 예.

#1 경허면은 췌가 이 정신이 흐려져.

@1 예.

#1 막 어쨌든 소리라도 그 저 흐쫄 연드럽게.

@1 응.

#1 잇잉 쭈욱허게 허민 췌가 정신 내영 팔팔팔팔 걷는 거라마썸.

@1 예, 췌 그거는 췌 모는 소리고, 아까 밧 불릴 때는 어떤 식으로 둘라?

#1 (밧 불리는 소리)

이 산중에 놀던 췌야 저 산중에 놀던 췌야

어서 어서 가보라 어러러러 어히 어러러러러러러러 어러러러러러 어러러

어, 이 밧, 저 밧 불리젠 허민 이디 저디 순허지 아니허게 불려사 허는구나

아, 어히 어러러러러러러러러러 울러러러러러러러러.

@4 (박수와 웃음) 야. 야.

@1 삼춘, 멋쟁이.

@3 진짜.

@1 오늘은 이만큼만 행은에예 허고 다른 것도 물어볼 거는 다음에 왕은에 물어 볼 건데 예, 옛날 이 동네서 낭 허레들도 하영 텅기잖아예? 땀감, 진을케 허레들.

#1 (웃음)

@1 그다음에 사냥허고 이런 거는 또 나중에 들어보도록 허쿠다예.

#1 예.





### 3. 서귀포시 하원동 목축 문화 구술 2

- 조사 일시: 2020. 12. 15.
- 조사 장소: 하원동 복지회관, 강상흥 집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부영심 @4 오경임 @5 김영란
- 제보자: #1 강상흥 #2 원수윤 #3 강희수

#### 쉐 키우기

@1 멧 슬 때부터 소 키우는 일?

#2 난.

@1 헨마씨?

#2 나명서라 쉐 허난에.

@1 나명서라.

#2 거, 예. 어릴, 초등학교 때부터 소 관리해수다.

@1 계난 그 얘기를 쯔 해줘 봅서.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뭐 이런 거 뭐 했을 거 같은데.

#2 저, 저 같은 경우.

@1 으.

#2 그때는 돈 잇는 뭐, 제주시도 농사짓지마는, 소가 삼사 두씩은 꼭 잇었어예.

@1 예.

#2 그러면은 밭 가는 소가 또 하나 있어야 돼. 꼭 집에 메야 농사를 지으니까. 소는 이 밭 갈 때는 여기 내려당 먹곡, 맥이고. 그때 맥일, 여기 맥일 때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밭 갈고 오면은 소가 먹을 게 없어.

@1 예.

#2 그러면은 아버진 하루 종일 일하니까 지치니까, 소 끌고 가서, 밭딪 가서, 그 담 잘 뒀 밭딪 가서 새밭.

@1 응.

#2 새밭. 출밭보다 새밭이 새가 길어예.

@1 예.

#2 경흥민 농사지을 때는, 저 밭 갈 때는, 장마 직전입주, 보통.

@1 음.

#2 그때는 새밭딪 강 안 맥이지마는 쉐가 배고프니까 뒷날도 일해야 돼니까.

@1 음.

#2 밤에 소를 새밭딪 가땡근에, 나을 때 담을 다와 붙어.

@1 아.  
 #2 담을 다와 불민 거기서 밤에 먹게끔. 그러면 뒷날 아침이 또 일어나서 췌 강 갖고 오라 흥민.  
 @1 음.  
 #2 그 밭 가는 소는 말을 잘 들어예.  
 @1 예.  
 #2 어린애기라도 꾹으민 잘잘 따라와.  
 @1 아.  
 #2 매일 끌고 다니니까. 오, 계난 그치록 그런 식으로 두린, 어린 때부터 흥니까 소에 대해서는 잘 알아집니다.  
 @1 예, 기지예. 계문 어쨌든 삼춘네 집에 그 어렸을 때 보난 집에 멧 머리나 췌 질람십디가?  
 #2 우리는 최하가 네 마리 이상, 네 마리.  
 @1 네 마리.  
 #2 예.  
 @1 그때 밭갈췌는 무슨 걸로 밭.  
 #2 암소로 우린, 우린 암소로만 밭 갈아수다.  
 @1 아.  
 #2 그 밭갈소에 제라헌 허는 집이가 우리 부락에 서너 밭디 정도벳기 안 댜. 제라흥게 큰 밭갈췌는.  
 @1 어.  
 #2 밭 가는 췌는.  
 @1 계난 부룽이로 밭갈췌 흥는 데는 멧 엇고.  
 #2 예. 서너 군데벳기.  
 @1 서너 군데 헛고. 삼춘네는 밭갈췌를 암췌로 헨 거라예?  
 #2 예. 예. 밭 가는 소를 암소로 가르쳐근에.  
 @1 응.  
 #2 가르쳐근에 그 길랐수다.  
 @1 나머지 그 식 머리는 어떻게 거?  
 #2 으, 우리 아버지가 어릴 적, 어릴 때 보면은 목장에도 올리고, 하원공동목장 있으니까 올리고.  
 @1 으.  
 #2 이 지금 국립공원.  
 @1 예.  
 #2 백록담, 근처. 윗세오름, 만세동산. 소가 거기 먹어나면은 여름나민 여긴 텅고.  
 @1 예.  
 #2 거긴 시원하고, 거긴 진두기도 없으니까. 물 좋곡 초지가 좋으니까 여름에는. 소가 목장에서, 이, 걸렸던 석[씩]만 풀어 불면은.

@1 응.  
 #2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1 아.  
 #2 자동으로 올라가고, 가을에는 상강 시월 이십일쯤.  
 @1 음.  
 #2 상강 고비[꼬비]에 올라가서 알더레 모는 소리만 흐면은 하원목장까지 자기대로 들어와  
 마씨.  
 @1 음.  
 #2 게고 막 추워가민 사람 몰기, 몰레 가기 전이 소가 알더레 내려와 버리고.  
 @ 아, 자기들이.  
 #2 예. 상강 고비 가면은 한라산은 막 얼어예.  
 @1 예.  
 #2 얼음 얼고.  
 @1 계난 그 쉼 질루젠 허면, 아까 이제 어떤 식으로 질룬 거라마씨? 이제.  
 #2 그때는 트랙타 뭐 예초기도 없을 때니까.  
 @1 음.  
 #2 다 손으로만 비고, 사름 그거 무끄고.  
 @1 음.  
 #2 그러믄 동네 사름 여자 어른들 빌어근에 출 비고, 또 무끄고, 무끄는 게, 저 비는 게  
 힘들주마는 무끄는 것도 심들어예.  
 @1 음.  
 #2 계민 낮이 더웁 일하기 굿이면은 나는 달밤에 무껏수다, 달밤에.  
 @1 아.  
 #2 밤에가 시원하고 땀 안 나고.  
 @1 계난 그 출 흐는 거는 공동목장 강 비는 거? 아니면 별도로 자기 출밭들이 이십니까?  
 #2 아이우다. 공동목장에는 부락소 올려 불민 빌 디도 엇고.  
 @1 예.  
 #2 뭐 조합원덜 저 소들 많이 가면 빌 곳도 엇고. 개인 출밭.  
 @1 어, 출밭들 해서.  
 #2 지금, 예, 예, 예. 중산간도로 이상 목장까지.  
 @1 음.  
 #2 흐 계난 흐 삼백 고지까지. 저 이백오십 고지까지는 개인 소유 토지 저 새, 출왓덜.  
 @1 예.  
 #2 그 경 해영 늪 빌영 비곡 뭐 어떤 땐 저 밤이도 무끄곡.  
 @1 음. 삼춘은 그냥 저기를 하는 거라예?  
 #2 예.

### 쉐 종류

@1 음. 그 소 종류예.

#2 예.

@1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마씨?

#2 우리 어릴 때는 토종.

@1 음.

#2 여기, 여기 제주 한우, 흑우하고, 노란 토종.

@1 음.

#2 있었고. 얼룩 토종, 노랑, 얼룩 토종도 있었고.

@1 음.

#2 이 게난 송아지는 검은 숫놈이 생겨도 날 때는 노랑헤예.

@1 예.

#2 견디 눈썹하고 꼬리 끝에는 꺼머.

@1 아.

#2 그거는 나중에 검은소가 뒹.

@1 아.

#2 날 때는 노랑하는데.

@1 송아지들은 게문 새끼 날 때는 거의 노르스름하게 나는구나?

#2 예. 색깔은 노랑게 나는데.

@1 예.

#2 옛날 토종소 보면은.

@1 예.

#2 노랑게 낳는데, 눈썹하고 꼬리 끝뎡이 보면은 검은 거는 건 나중에 새끼만 겨여.

@1 아, 그래도 이제 자기 유전자는 딱 갖고 나는 거구나.

#2 예, 예, 예.

### 쉐 이름

@1 게문 그런 털 색깔에 파랑은에 부르는 이름들도 딱나잖아예?

#2 예.

@1 예, 그 어뎡, 어뎡 부릅니까?

#2 아, 나 거 잊어 불엇저. 아, 뎡은 그런데, 쉼은 별로 엇고. 쉼은 뎡 아까 그 노랑 겨영.  
저 신소영 헤영.

@1 으.

#2 토종 검은소.

@1 예.

#2 등이 노란 거.

@1 예.

#2 거그라 신소엔 합니다.

@1 예. 신소, 신쉐.  
 #2 신쉐.  
 @1 응.  
 #2 예, 그렇게 말하고. 뭐, 검은쉐, 노란쉐, 그런, 그런 거벳기 구분되는 거 엇고.  
 @1 속쉐도.  
 #2 아, 속쉐 잇구나예. 취소.  
 @1 취소예.  
 #2 예, 예. 속쉐.  
 @1 속쉐.  
 #2 예. 일 잘히여.  
 @1 아, 속쉐가 일 잘릅니까?  
 #2 예, 예.  
 @1 요즘도 속쉐들이 이십니까?  
 #2 제주도에는 안 보이는 거 닐아예.  
 @1 음.  
 #2 제주도에는 속쉐가 안 보이는 같애. 그, 그 유전자가 쪼금 나타나긴 합니다. 새끼 날 때.  
 @1 아, 경 됩니까?  
 #2 그런 경우가 잇어마씨.  
 @1 음. 게도 속쉐들은 좀 성질 궂텐 허는 사름들도 잇언게마는.  
 #2 그건 몰르고. 소는.  
 @1 음.  
 #2 또 좀 성질로 그 폐라운 것들이 잇는데.  
 @1 예.  
 #2 어릴 때 폐라와도, 어릴 때 걸려근에 일주일만 굶으면은.  
 @1 으.  
 #2 췌빋질 안, 허면 어떤 소도 풀어집니다.  
 @1 아.  
 #2 건디 두 살 넘어가면은 췌빋질 해도 안 풀어져.  
 @1 아.  
 #2 어리, 어릴 때 발로 찢르, 사름을 찢르고 뭐 허고 간에 어릴 때 관리해서 사름허고 길 들인 것은 나중에 순해지고.  
 @1 음.  
 #2 나이 든 후제는 안 댜.  
 @1 계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텐 말이.(웃음)  
 #2 예, 예. 저가 야우도 헛는데.  
 @1 예.  
 #2 야우 해보면은 그 두 살 때부터 심으니까 두 살 댜는 해. 그 습성이 잇어 갖고 그 밧

갈단 소도 소낭뵈 숲속에 있으믄 들어가 불어.

@1 음.

#2 그 야생인, 야생 성질이 남아 갖고.

### 뿔 이름

@1 음. 그런 식으로 하고. 뿔도 허게 뉘면 무슨 저기 뿔 이름들도 곤는 사람도 잇언게마는. 뉘 천상각이여 뉘 이런.

#2 그, 예, 예. 어떻게 향허느냐에 이거든, 이제.

@1 음.

#2 뿔 이름이나, 저 그 향한 이름보고 그 천상각이여 뉘.

@1 으. 그런 저기는.

#2 납작뿔이여.

@1 음.

#2 그런 얘긴 합니다.

@1 예. 그래도 이제 확실히 이제 또 아버지네 세대허고, 아버지도 이렇게 소 키우멍.

#2 예, 예.

@1 흔 거잖아예.

#2 예, 예.

@1 아버지네 세대하고 또 우리 선생님네 그 세대하고는, 예? 조합장님네 세대하고는 좀 다른 거 같애, 이제.

#2 완전 차이납주게.

@1 예, 기지예?

#2 으, 아버지네 세대허고 거, 거 굶을 때니까 오죽 해수과?

@1 음. 게도 어렸을 때부터 쉼 계속 헛덴 허니까.

#2 소는 초등학교 때 학교 안 강, 소, 소 맥이레도 가수다.

@1 학교 가렌 헤믄 학교 안 간 소 맥이레 가는 게 더 좋안?

#2 아니, 아니.

@1 으.

#2 저, 학교 가지 말라.

@1 아.

#2 오늘랑 가지 말라. 니 쉼 맥여사 널 밧 간다.

@1 음, 옛날엔 그렇게 헛지예? 예.

#2 예. 쉼 맥이당 널 밧 갈주, 쉼 굶으민 널 밧 갈지 못헌다.

@1 음.

#2 경 허멍 쉼 맥이렌.

### 쉐 질루는 목적

@1 쉼 맥이렌 어른, 맞아. 게믄 그, 그 쉼 질루는 이유는 아까 밧 가는 쉼, 농사짓는 거

하나 이실 거고, 나머지는 무시겨우파?

#2 쉼, 그때는 쉼로 밧도 불리곡.

@1 음.

#2 이 돛걸름밧이렌 햏영 이 여기는 쉼겨름을 돛통에 들여.

@1 예.

#2 뉼지 키우는 데.

@1 음.

#2 들엿다가, 보리 갈 때 뉼면은 이, 이, 저, 십이월, 지금, 저 십일월달 뉼면 그게 꺼내서. 그 꺼내근에 쉼로 불려, 막.

@1 음.

#2 그게 씨 빠곡.

@1 음.

#2 씨로 해서 그때는 경운기가 없을 때니까 쉼구르마.

@1 예.

#2 그, 그것도 질 곳인 디는 망텡이에 담앙.

@1 음.

#2 질메에 양쪽에 하나씩. 쉼을 두 개 세 개 이경. 그때는 밧이, 지금은 길들이 다 있주마는, 길이 없어.

@1 아.

#2 없을 때니까 소, 사름하고 소하고 같이 남의 밧디 가운데로 다녀.

@1 아.

#2 그때는. 게민 돛, 돛걸름에 씨 놓고 그러니까 걸름이 햏 디는 보리가 잘 뉼고 비료가 없을 때니까.

@1 예.

#2 귀햏 때니까.

@1 예.

#2 게고 그렇지 않고 비료도 않고, 비료 없고 씨만 뉼 디는 보리가.

@1 보리가.

#2 잘 안 뉼여.

@1 응.

#2 그래서 그 작산 걸름을 한 오 일, 오 일 동안 그 멡텡이에 담앙, 양쪽으로 질메에 햏영.

@1 음.

#2 질메 트라져가민, 돌멧이 앓당 트라지는 저 뉼 햏 쪽으로 탁햏게 무게 조정햏고.

@1 음.

#2 걸름더레 탁 찢르면은 돌멧이 찢르민 무게가 균형이 맞아.

@1 경 햏은에 이제 다 구루마도 아니고 질메에.

#2 예.

@1 쉼질메 해 갖고예?  
 #2 예. 다 질메로 해여. 놈의 밧 가운데로.  
 @1 응.  
 #2 그때 길이, 우리 어린 땐 길이 벗어나수다.  
 @1 음.  
 #2 구루마 다닐 길도 밧 개 뉘지 아녀고.  
 @1 계난 그치록 쉼질메 걸름 시끈 거 이경은에 가는 거라?  
 #2 나는, 나는 건 들르진 못해도.  
 @1 예.  
 #2 쉼 뒤에서 모, 이꺼근에.  
 @1 예.  
 #2 이경 밧딤궂장.  
 @1 밧딤궂장 이제 가고예. 계문 그 돛걸름밧이렌 현 거는 무신 밧이우꽈?  
 #2 그 아까 말흐는 겁주.  
 @1 음.  
 #2 마당에서 불러. 그게 돛걸름밧, 불리는 과정.  
 @1 불리는 과정이 돛걸름밧이렌 해예?  
 #2 예, 예. 쉼로 씨 뿌리고 해서 다 불러.  
 @1 음. 쟁 그거를 멩텅이 강은에 행 하고. 그다음에 쉼 아까 야우도 헛덴 헛잖아, 예?  
 #2 예.  
 @1 그 야우들 허는 거는 용도가 뭐라마씨?  
 #2 멕이지 아녀도 송아지를 뽑으는 겁주게.  
 @1 그니깐 이제.  
 #2 그때는.  
 @1 응.  
 #2 소깁이.  
 @1 응.  
 #2 소 하나가, 지금 밀감나무 아무데나 뉘주마는 그때는 농사 안 뉘는 밧이 더 많으니까.  
 @1 예.  
 #2 쉼 하나민 밧 하나 사.  
 @1 아. 쉼 하나면.  
 #2 예.  
 @1 으, 쟁 허영 살림 하영 일궂수과?  
 #2 아, 그 덕분으로 살앗다고 봐압주.(웃음)  
 @1 예.  
 #2 우리, 허.  
 @1 한번은 중간에 막 그 소 파동 흘 때.  
 #2 예.



@1 이럴 때도 소 계속 이영은에 계속 혼 거마씨?  
 #2 아무리 파동 나도 건 업으로 생각하니까.  
 @1 아.  
 #2 뭐 파동 낫다고 돈 팔아 불거나 뭐 해보진 안해수다.  
 @1 아, 쪽 이어왔구나예?  
 #2 예, 예.

### 쉐 질들이기

@1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쉐 아까 질들인텐 허잖아예?  
 #2 예.  
 @1 ㄴ르치는 거.  
 #2 예, 예.  
 @1 어떤 식으로 ㄴ르천마씨? 직접 저기 잠, 잠대 행은에 밧도 갈아봐?  
 #2 예. 밧은 나도 갈아봐신디양.  
 @1 예.  
 #2 거 소 가르칠 때는 그 밧 가는 사름이 성질이 나.  
 @1 음.  
 #2 소가 말 안 들으민.  
 @1 음.  
 #2 계난 소 가르칠 때는 마누라가 소 앞이 이끄면은.  
 @1 으.  
 #2 밧 가는 사름이 각시 앞이 욕이 저절로 나와, 저절로.  
 @1 아, 무사 각시한테.(웃음)  
 #2 쉐가 말 안 들어가믄. 문문혼 건 각시. 욕이 저절로 나고.  
 @1 예.  
 #2 계난 밧 가는데 ㄴ리칠 땐 며느리ㄴ라 이끄렌 해여.  
 @1 아.  
 #2 메누리신딘 욕을 못 헉거든. (웃음)  
 @1 아, 그런 말들 헉는구나. 이 동네서, 어.  
 #2 어, 어. 밧 ㄴ르치는 쉐는 며느리ㄴ라 이끄렌 해야 한다.  
 @1 음.  
 #2 욕을 못 헉난.  
 @1 예.  
 #2 (웃음) 각시 앞인 욕을 헉고, 성질[썰질] 내곡 헉는다.  
 @1 거난 직접 그거는 이제 이끄멍 밧 이제 가는 거잖아예? 갈기 전에 동네들 막 이경 텡 기멍 ㄴ르쳐보진 안헐마씨?  
 #2 저, 돌, 이경 텡기는 건. 여기 부락에 돌이 있어나수다.  
 @1 예.

#2 그 무거운 돌. 그거 질메, 질메 헤영 걸 끓영 부락에 돌아다녀.  
 @1 음.  
 #2 그럴 때도 있고. 기냥 바로 이끄명 밧 그르치는 수도 있고.  
 @1 아.  
 #2 또 뭘 밧 잘 가는 사름은.  
 @1 예.  
 #2 쉼을 담 예와진 밧디 강, 쉼 가는 냥 이끄지 아녕 므음냥 갈아.  
 @1 음.  
 #2 거 저, 밧 갈기 좋은 밧디 담 예와진 밧디 나가지 못홀 디는. 그 가르키는 요령이 자기 만씩 다 틀리난양.  
 @1 아, 그렇지예.  
 #2 게난 이끄지 안허영. 담 예와진 밧디, 쉼 마음대로 가게끔 허영 가르키는 사름도 이십니다.  
 @1 아, 것도 이제 맞아.  
 #2 밧 가는 데 익숙은 사름덜.  
 @1 예. 쟁 게난 이제, 어뎡 그르쳐수와?  
 #2 난 그르친 쉼, 그르친 쉼로 밧 갈앗주, 나가 밧 그르쳐 보진 안허고.  
 @1 아, 직접 그르쳐보진 안헐?  
 #2 아, 아버지, 아버지가 저 밧 가는 소.  
 @1 으.  
 #2 느가 갈라 허난 갈앗주.  
 @1 아, 아버지가 이미 다 길들여 놔둔 거예?  
 #2 예, 예.

## 나이

@1 예, 맞아. 쉼 나이 셀 땐 어뎡 셈니까?  
 #2 금승, 다간, 사름, 나름.  
 @1 으.  
 #2 다습, 으습, 다음부턴 마찬가지로.  
 @1 마찬가지로. 일곱은?  
 #2 일곱은 일곱. 그다음부턴.  
 @1 으. 게문 으습까지만.  
 #2 예, 예.  
 @1 어, 으습까지만 세고예?  
 #2 예, 예.  
 @1 그때 몇 살 뉼 때까지 저 쉼 질랏덴 해수와? 쉼 오래 질룬 건 몇 년 질란? 아버지네 영 보면은. 몇 설까지 살아마씨? 보통 쉼는.  
 #2 쉼 나이로 쉼 삼십까진 살아.

@1 음. 쉼은 삼십까지 살고.  
 #2 예.  
 @1 둘은?  
 #2 아, 나도 둘은 몰라도.  
 @1 예.  
 #2 전디 말에는 쉼 이십, 둘 삼십ㅎ는다.  
 @1 예.  
 #2 쉼 삼십꺼진 살아.  
 @1 아, 삼십까지예.  
 #2 예.  
 @1 말이 더 산텐 허잖아예?  
 #2 예, 예. 쉼 이십 둘 삼십이렌 ㅎ주게.  
 @1 쉼 이십 둘 삼십. 음, 그렇게 행은에 이제 ㅎ습까지 쉼 쭈욱 살고. 제일 나이 한 거는  
 몇 설꺼지 질봐봄디가?  
 #2 난 열입곱 설부편 안 질봐봐수다.  
 @1 아, 열일곱 설까지.  
 #2 그때 뉘민 완전 할망.  
 @1 아.  
 #2 새끼 나니까 사름 같으믄 할망은 아니주마는. (웃음)  
 @1 응. 그렇게 하고 지금은 몇 머리 질루멘? 쉼.  
 #2 지금 암소 이십오 마리. 스물댓 머리.  
 @1 으, 스물.  
 #2 암소만.  
 @1 스물다섯 마리. 암소만?  
 #2 예.  
 @1 부릉인?  
 #2 아, 새끼 나면 팔고.  
 @1 예.  
 #2 보통 수컷, 숫놈은 엇고.  
 @1 숫놈은 엇고예? 스물, 스물다섯 마리. 게믄 그 새끼들 스물다섯 마리가 다 새끼나면  
 스물다섯 마리를 불리는 거우파? ㅎ 해예?  
 #2 아, 거기서 좋은, 질루고픈 놈은 놔두고.  
 @1 예.  
 #2 나머지는 가축, 가축시장 아까 갓주만은. 쪼끔 멧, ㅎ 멧 개월 맥여근에 살 찌민 강 팔  
 고.  
 @1 팔곡예. 그 새끼는 일 년에 ㅎ 번씩 낚니까? 어떻ㅎ니까?  
 #2 소는, 예, 일 년에 한 번 나는 걸로 봐얍주.  
 @1 음.

#2 그 살찌고 잘 관리하면은 십, 예, 십년이민 여덟 마리 나는데, 아홉 마리 잘 관리하면 아홉 마리, 혼 해 십년 키와근에.

@1 예.

#2 십일년 키왕 열, 열 마리 날 수도 있어.

@1 음, 십일년.

#2 좀 저 사름도 그렇듯이.

@1 예.

#2 쉼 잘 맥이고 잘 맥이민 발정이 빨리와.

@1 아.

#2 발, 이 칠팔십 일 만에 오면은 딱 일 년만에 나는데. 사십 일이민 이 되는 소가 잘 맥 이민.

@1 음.

#2 게민 일 년에 한 달씩 땡기면은 열, 열 번 새끼 나민 열하나가 나올 수 있어. 다른 소 열 개 나면.

@1 음.

#2 그럴 수도 있어마씨.

@ 예.

#2 한 달씩 땡기니까.

@1 한 달씩 땅기니까.

#2 예, 예.

@1 게니깐 바로, 바로 이렇게 소도 임신을 하는 거네.

#2 예.

@1 음.

#2 상태가 몸이 건강헌 소는 한 달씩 땡깁니다.

@1 예. 거난 아까 다른 분, 십일 개월 만에 하나씩 난다고. 이런 표현을 하드라고예.

#2 이백팔십오 일이란예.

@1 예, 예. 게난 우리 조합장님도 그렇게, 일 년에. 작년에 새끼 멧 개 낳디가?

#2 작년에 열아홉 개.

@1 열아홉 개.

@3 와.

## 잠대

@1 스물다섯 개 중에 열아홉 개. 그믐 그다음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웃음) 그 잠대로 행 은에 밧도 갈아봄디가?

#2 예, 예. 밧 가는 거 잠, 잠대주게. 쟁, 쟁기.

@1 쟁기에. 직접 만들어 보진 안허고?

#2 만들 줄은 모르고.

@1 만들 줄은 이제 몰르고예. 그다음 질메는 어떻 해? 질메도 지와봐?

#2 질메 아까, 질메는 지우주게.

@1 음.

#2 질메는, 질메 지우는 거 어렵지 않넵니다.

@1 음.

#2 건 멧 밧디 무꺼쭈만 헉민 되는 거난.

## 목장 관리

@1 예. 그 목장 관리할 때.

#2 예.

@1 예? 목장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마씨? 이제. 지금은 목장이고.

#2 예.

@1 개인 출왓이 잇고.

#2 예.

@1 그다음에 한라산에 보내기도 허잖아예? 산에. 올리기도 허곡.

#2 아, 그 전에 야우 저 흘 때는 올렸지만 지금은 한라산에 가는 거 엇수다.

@1 지금은 한라산에 가는 거 엇고예?

#2 예, 예.

@1 게믄 그 목장에, 그 목장에만 흐 거는 언제적부턴고마씨? 여기에서는? 이 마을 공동목장에.

#2 나가, 아니 공동목장은.

@1 음.

#2 소화 십 년도니까 천구백삼십오 년도 창립웨십주.

@1 예.

#2 봄에 구문서를 보면은.

@1 음, 음.

#2 그때 우리 친족인 분 ○○○ 조합장이.

@1 예.

#2 ○○○ 조합장 그 다.

@1 그때, 음.

#2 창립부터 시작해서 조합장을 마탄 헛고.

@1 음.

#2 지금 보면은 구문서에 기록이 잘 돼 있습니다.

@1 예.

#2 저, 누가 밧 내논 거 멧 평. 또 밧 족앙 뒹 헉 사름은 돈 내논 거까지 기록이 다 뒹어 있습니다.

@1 게믄 그 문서는 어디 보관웨 이수과?

#2 우리, 지금 저 총무가 캐비넷 헉 보관하고 잇는데.

@1 음.

#2 우리 부락에는 조합원이 목장에 소 놓는[노는] 팀하고.  
 @1 음.  
 #2 이게 자산이니까.  
 @1 예, 예.  
 #2 특별하게 관리, 자산 관리하는 그 담당이 있습니다.  
 @1 예.  
 #2 조합장 밑에 그 자산 관리, 그 토, 그런 거에 대해서는.  
 @1 음.  
 #2 그 담당이 토지 문제엔 대해서는 담당이 저 총회는 해주마는 담당이 다 관리해서, 조합원 관리 ㄴ튼 거.  
 @1 조합원 관리하고.  
 #2 예.  
 @1 계문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조합원이?  
 #2 이백삼십구 명이던가? 요즘.  
 @1 이백삼십구 명.  
 #2 그렇게.  
 @1 그러면 저 뭐, 몇 년에 한 번. 임기는 몇 년?  
 #2 이 년. 우리 조합장 임기는 이 년인데.  
 @1 예.  
 #2 그.  
 @1 조합장님은 몇 년째 허는 거?  
 #2 나 이거 나도 저 이천오 년도에 헛다가.  
 @1 예.  
 #2 다시 또 마르게 뒀습니다.  
 @1 아, 한 번 더 돌아.  
 #2 그 저 조합장은 웨, 축우를 목장에 놓는[노는] 사람만.  
 @1 음.  
 #2 조합장을 해야돼마씨.  
 @1 아.  
 #2 왜냐면은.  
 @1 예.  
 #2 소 엇는 사람이 조합장을 마트면은, 국가보조금 신청 ㄴ튼 거.  
 @1 음.  
 #2 이런 걸 못 헤.  
 @1 아.  
 #2 웨 나 필요엇인디 거 헤영 뭐 ㅎ냐.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2 계난 조합장은 소 키우는 사름이 해야 국가보조금 같은 거 목장에 일힐 것을 책임지

지.

@1 으.

#2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은 소 키우는 사람만 우리가 마트기로 했습니다.

@1 음.

#2 토지는 특별하게 담당을 따로 뒀서 토지 관리를 하고.

@1 예. 지금 계문 목장에 쉼 올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댔? 하원에서는.

#2 우리가 총계 십일 명이던가.

@1 아, 이백삼십구 명 중에 십일 명밖에 안 하는 거라예?

#2 예, 예.

@1 계민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 해난 거 아니우파? 이 마을에. 거의.

#2 거의 구십 프로 있어나수다. 저 어릴 때는. 소가.

@1 소가.

#2 소 한 마리씩.

@1 음.

#2 한 마리씩 하는 디가, 혼 마, 한두 마리 키우는 디가 칠, 칠십 프로 정도 뒀어났주.

@1 음.

#2 한두 마리.

@1 음.

#2 여러, 으라이 키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안해나수다.

@1 근데 지금은 이제 열한 분만 하고. 계면 전체 그 목장에 올리는 쉼은 몇 개?

#2 목장에 우리 하원 공동목장에 간 거는 혼 암소 백팔십 두 정도 보통 올라가고, 그 집에 있는 소털은 총계 다 부치면 이백오십 두 댔까?

@1 음. 계난 집에 있는 거는 그 축사에, 개인 축사에덜 하는 거잖아예?

#2 예, 예.

@1 계서 그때 이제 조합장님네도 거기 개인 축사 있었잖아? 거기도 쉼 잇드라고.

#2 잇수다.

@1 지난번에 우리 왔었던 때예.

#2 예, 맞수다.

@1 계난 그런 식으로 개인 축사 하기도 하고, 공동목장에 이제 올렸다가.

#2 예.

@1 그 공동목장에 올린 거는 지금 다 내려 보낸 거 아니? 지금은.

#2 공동목장엔 우리는 삼월 말에 올리고.

@1 예.

#2 계난 그 우리 규칙상.

@1 예.

#2 저 십이월 십오일까지만 목장에 방목하기로 했습니다.

@1 십이월.

#2 예. 양력 십이월 십오일까지 목장 방목.

@1 계근 내일까지?  
 @3 오늘.  
 @1 아, 오늘까지네.  
 #2 예. 오늘까지.  
 @1 으, 으. 지난번엔 쉼 내린덴 헛잖아? 그때.  
 #2 지금 소 먹을 게 없으니까.  
 @1 예.  
 #2 더 내 불어도 뉘주마는. 더 내려와서 멕이는 게 이익뉘니까.  
 @1 아.  
 #2 집에 내려오는 거. 거기 두면은 너미 쫄어근에 안 뉘여.  
 @1 예, 예. 계난 지금은 목장 관리 어떤 식으로 해마씨? 목장, 지금. 조합원은 많아도 쉼 키우는 사람들이 돌아가명 해야될 거 아니라예?  
 #2 예, 계난 우리 부락 같은 경우에는 소 키우는 사람이 세금이 총 허다 보면은 한 팔백 만 원 더 나와.  
 @1 아, 목장 세금이?  
 #2 예. 소 키우는 사람이 입식비를 받아서.  
 @1 예.  
 #2 세금을 내여.  
 @1 음. 갹 입식비는 한 마리에 얼마 받아?  
 #2 우리 한 마리에 성우 십오만 원씩.  
 @1 예.  
 #2 그 입식비 받아서.  
 @1 새끼들은 안 받고?  
 #2 예.  
 @1 아.  
 #2 젓 먹는 것덜은 안 받는 거고.  
 @1 큰 것만.  
 #2 예.  
 @1 그 성우렌 허면 몇, 몇 살부떠?  
 #2 세 살부떠.  
 @1 세 살부떠. 다간은 안 받아마씨?  
 #2 다간은 받는다, 다간은 십만 원. 오만 원 깎 내리고.  
 @1 어.  
 #2 많이 안 먹으니까.  
 @1 계니까. 그 금승은 안 받곡.  
 #2 예. 다간은 십만 원 받고.  
 @1 응.  
 #2 사릅부터는.



@1 십오.

#2 십오만 원.

@1 아, 그걸로 허면 운영이 되는 거마씨? 세금, 세금만 내면 됩니까?

#2 예.

@1 음. 그렇게 해 갖고 이제 운영을 하고예. 계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입식비를 받아 갖고 운영을 하잖아. 그러면 그래도 조합원들끼리 뭐 거기 뭐 가시냥을 캐거나 하는 뭐 이런 목장 관리들은 안 됩니까?

#2 그거는 우리가 이 행정적으로 시청에.

@1 음.

#2 그 신청해근예. 거기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우리, 우리 자부담도 해주마는,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 해서 포크레인 빌령 일해 불고.

@1 아.

#2 지금은. 옛날에는 호미 만들어서, 목장에 다니면서 가시도 캐고.

@1 으.

#2 저 짚레꽃, 도꼬리낭.

@1 예, 도꼬리낭.

#2 그거 캔 적도 있어났는데.

@1 음

#2 지금은 그 사람으로 그렇게 아녕, 기계로 곧 보조 신청행은에 그 자부담이 들어도 그렇게 해사주. (웃음)

@1 계난 이제 관리도 목장 관리, 예전에 개인들이 이제 수눌멍 손 모아 갖고 했던 이런 것들을.

#2 예, 예.

@1 요즘은 다 기계로 해 갖고.

#2 예.

@1 하는구나예.

#2 기계로 아녕 우리 감당 못 합니다.

### 추억

@1 음. 이젠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쉼 질렀던 헛잖아예?

#2 예.

@1 어쨌든 경험들이 참 많을 것 같다예? 그런 재미졌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쉼 어디 좇으레 가명 고생했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쪽 돌아줘 봅서, 어디.

#2 국립공원에 쉼 놀 때.

@1 음.

#2 윗세오름 가, 그 윗세오름 쉼 잘, 맞은편 잘 먹는 데 가보난 쉼가 없어.

@1 음.

#2 아, 국립공원 그 관리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직원안티 물어보니까 쉼 알더레 다 몰앙

천왕사까지 몰아 붙엿넌. 그 국립공원에 소 놓지[노지] 못하게 해십주게.

@1 예.

#2 법상으로. 아, 쉘 찾, 하루 찾아도 못 좇아.

@1 음.

#2 아, 켜 만세동산서 보니깐 어리목 그 입구, 그 좇대봉 꼭대기에 하얀 말 같은 게 보여. 아, 이젠 그때 걷어서 다닐 적에 걸언 갓어. 거기 간, 이 어느 쪽으로 올라가넌 물으니까 아, 올라가는 디 그 뒤쪽으로 이선계 올라간 보난 아, 강 보난 하원 쉘들이 거기까지 몰아 붙엿어. (웃음)

@1 음.

#2 아이고, 춤. \*\* 켜 그 꼭대기에 간 보니까, 야, 그 이런 뽕커.

@1 예.

#2 이거 반착만이 이런 뽕커가 잇는데, 이 창문추록.

@1 으.

#2 그 구멍 뚫어지곡. 두께가 아 이거보단 이만이 두꺼워.

@1 음.

#2 쉘멘콘크리 두께가.

@1 으.

#2 예, 두꺼운데, 일본놈들이 헛다 그러는데, 그디서 딱 보니까 아, 우도 보이고.

@1 음.

#2 비양도 보여. 북군 전체.

@1 음.

#2 아, 저 일본놈들. 그 당시에 그 짐으로 저장. 계난 일본놈들이 흔 거라? 우리나라 사름들이 고생헌 거지.

@1 그렇지.

#2 허, 춤. 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손으로 팟을 거 아냐, 아마도.

@1 예.

#2 야.

@1 그 윗세오름에?

#2 아니, 아니. 어리목 그 바로 들어가는 입구, 그 동산.

@1 음. 어승생.

#2 어승생. 어리목 입구.

@1 예, 예, 예.

#2 어리목 동산.

@1 음.

#2 거기가 좇대봉이엔 해냐?

@1 예.

#2 강 물이, 안네 물이 고이고.

@1 예.

#2 넓어, 넓어.

@1 음.

#2 그 침 소 못 찾안 삼일 후에야 거기 간 찾안 몰아온 기억이 있고.

@1 음.

#2 또 아우 흘 때. 점심을 안 갖고 간. 소를 못 찾으니까 오래 살았어. 한 두 시 돼도록.

@1 음.

#2 하, 근데 하, 배는 고프고, 물은 기롭고, 땀, 여름이난 땀나고. 아, 물, 물 먹고프지 안 헛으면 바로 오면 빠르는데, 천백고지 저 차 다니는 데까지.

@1 예.

#2 아, 젠디 물 기리우니까 물 먹으레 가당 보니까 사람 소리가 나. 아하, 기적 흥영은에 들어가는디, 가보니까 어린애기하고 나이드 하르바지하고 식구들 으라이가 놀레 완. 그 여름 막 더운 때난 놀레 완. 보난 아, 수박에 돼지고기 삶곡. 하르방이 술 먹젠 험서, 아, 술이나 혼 잔 험서. 아이고, 이거 미안행 먹어지카마씨? 거 배고프고.

@1 으.

#2 거 생각도 안 헛단 디서 그 저 득 삶은 거, 돼지고기 아니고 득 삶은 거. 득 삶은 것에 술.

@1 예.

#2 술 좋아흠주게.

@1 예.

#2 술 얻어 먹으난. 그 맛은.

@4 (웃음)

#2 지금도 그 맛은 잊을 수가 없어. (웃음)

@1 예.

#2 아, 하루 종일 굶곡.

@2 맞아.

#2 두, 세 시 돼 가는데 걸어다니니깐 배고프긴 헛디. 아, 배고프고 물도 그럽고. 아, 물 먹으레 가난 하이, 이거 잘됐저, 요거. 하아, 아이고, 침.

@1 겐 그게 멧 술 때?

#2 나가 그때는 서른두 설 전인가.

@1 음.

#2 한 삼십대, 서른쯤 난 땡가, 나가 쓰물두 살에.

@1 으.

#2 나 혼자만 그 방위 근무 허다가 그땐 차도 없곡.

@1 으.

#2 삼화여객 탄, 중문이 간 삼화여객 타고 허고, 석[썩] 앓곡, 나 혼자만 아우 심언.

@1 음.

#2 경허난 나 어른덜은 날 애기로만 생각헛단. 야, 이거 하원 테우리 낫저, 요놈.

@1 음.

#2 야우 혼자만 못 심어, 절대.  
 @1 음.  
 #2 눈은 이만이 나 무릅만이 쌓이고. 이젠 근무 갓단 방위근무 갓단 완.  
 @1 음.  
 #2 석[씩] 앓고 이젠 나만. 아버지는 그때 교통사고로 무릅 다친.  
 @1 아.  
 #2 저 제주시 영동병원인가 입원해 불고. 나 혼자만 아정간. 눈이 많이 오니까 소가 다녀  
 난 길만 다녀.  
 @1 음.  
 #2 어, 요거 잘 뻐다. 이젠 혼 방향으로 코를 낮어.  
 @1 예.  
 #2 대로 코를 난. 코를 두 밧디 놔된 아, 몰아가니까 쉼가 또 끼꾸로 한참 올라가 불언.  
 @1 음.  
 #2 질 엇인 딜로. 또 낮전을 난 눈 위에 몰안 땡기난 그 눈, 눈 때문에 가시 아, 밑에 이  
 신 걸 모릅니께게.  
 @1 예, 예.  
 #2 눈 우에 피가 벌경. (웃음)  
 @1 음.  
 #2 쉼 발자국 가는 디마다. 피가 벌경허연. 하튼 낮전 뭐 바짝 헨 쉼 조름에 쫓앙 몰암 시  
 난 쉼가 따시 코 논 디레 들어와.  
 @1 음.  
 #2 코 논 디로 와가난. 확 큰소리 치명, 떠들, 떠들명 다올리난 쉼가 탁 서. 그 천천히 가  
 민 썩 논 거 알앙 뵈겨 뵙니다.  
 @1 아, 다 그렇지요?  
 #2 쉼 와, 이, 그 코 논 디 가민 쉼가 두렁청허게 웨명 달래는 소릴 헤야 그거 썩 논 걸  
 썩을 구분 못 행 확허게 들주.  
 @1 음.  
 #2 쟁 소리치명 가가난 탁 들언. 코에 드난 옆에 가니까 가단 못 가가니까 나신디 들으멍  
 탁 찢르젠. (웃음)  
 @1 음.  
 #2 그때는 하이고 얼음은 얼리고 나뭇가지가 잇어야 소를 그냥 놔두민 목 돌아정 죽어 불어양.  
 @1 아.  
 #2 거 기냥 내 불민 금방 이 목 썩영 죽어 불어.  
 @1 아.  
 #2 거 입 걸려근에. 제난 작데기, 그땐 막 추윈 얼리난 진 작데기 헤연 올라간 혼착혼착.  
 하도 얼리난 끼꺼전게. 그걸로 다른 썩 허연 뿔을 양쪽 걸령 이거 깎딱도 못헛게.  
 @1 음.  
 #2 그래야 목숨이 살지. 하나만 걸리젠 허민 나무에 감아정 죽듯 목돌아정 죽어 뵙니다.

@1 음, 그 코에 석 허영 허면예?  
 #2 예. 볼 걸령 양쪽으로. 나무에 무경 꼼짝 못하게 허영. 경 행 사름 데리레 와야 뉘여.  
 @1 음, 심어놓고 이제.  
 #2 예.  
 @1 예.  
 #2 경 해연 사름 데려와, 아우 심엇젠 허난, 느 무신 거짓말하지 말라. (웃음) 방위홀 때  
 춤 경 아녀도 족은 키에 족앗주게.  
 @1 예.  
 #2 계난 아 쉼 심엇수덴게.  
 @1 계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 올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계속 살당은예.  
 #2 예.  
 @1 내려오는 거잖아예?  
 #2 예.  
 @1 옛날에는 쉼들 이제 올리젠 허면 그 동네 쉼덜 다 그 번쉼렌 험니까? 여기는 뉘렌 험  
 니까?  
 #2 같이, 같이 올립주, 보통으로.  
 @1 으.  
 #2 ㄱ치 올리는 수가 있고, 나중에 이녁 만씩 올릴 때도 있고.  
 @1 으, 계난 쉼 동네 것들 이제 우리 거영 놈이 거영 ㄱ치 올리는 그거 봐주는 사람들도  
 잇어? 뉘.  
 #2 이 여기.  
 @1 둔쉼?  
 #2 저 공동목장에도 쉼 봐주는 사름 잇어양.  
 @1 으.  
 #2 그때는 보리로.  
 @1 으.  
 #2 멧 설 짜리는 보리 멧 뉘.  
 @1 응.  
 #2 그런 식으로 저, 보리 받아가수다.  
 @1 계난 그건 언제까지 그 보리로? 그 목장허는 사름 ㄱ라 케파장이렌 허명예?  
 #2 예, 예.  
 @1 계난 케파장안테 주는 거 아니우파예?  
 #2 예, 맞수다.  
 @1 책임경.  
 #2 맞수다.  
 @1 요즘은 조합장이렌 허잖아예? 조합장허고.  
 #2 케파장허고 조합장이 틀립니다.  
 @1 건 어떻 틀린 겨우파? 그 케파장은.

#2 조합, 조합장은 조합 책임을 마튼 거고 전체를 마튼 거고. 케팻장은 소 관리를 마튼 거.

@1 아.

#2 소 관리 말고도, 케, 케.

@1 케.

#2 요 케면 목장 말고.

@1 지정, 응.

#2 목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1 예.

#2 케팻장은 이 목장 말고 개인 이 출왓덜.

@1 예.

#2 거 관리하는 사람.

@1 예. 잠깐만예. (휴식) 쟁은에 이제.

#2 거 케팻장은.

@1 으.

#2 그때는 소 먹일 게 귀하니까 놈의 출을 비어가 불어.

@1 예.

#2 계난 저 동산에서 영 보면은 그때는 나무가 많지 않을 때니까 누구 다니는 걸 봐져.

@1 으.

#2 계민 사람 다녀가민 거기 강 출 비여 감시카 부덴 거 관리 감독.

@1 으.

#2 개인 출밧을.

@1 예.

#2 관리 감독 허면은 보리로 받아가.

@1 아.

#2 깎. 그 깎으로.

@1 계난 목장 전체, 저 쉼도 봐주주마는.

#2 취급 관리헌 사람은 따로.

@1 예.

#2 소 관리헌 사람, 목장에 관리헌 사람 따로.

@1 응.

#2 목장 밑에 개인 출밧을 비여가지 못 허게, 쉼 댕여, 댕여 불지 못허게, 거 보는 사람.

@1 아 그 사람이 케파장?

#2 케팻장, 예.

@1 케파장.

#2 케, 케를 본덴 행은에.

@1 예. 그제 케팻장이고. 그다음에 목장에서 쉼 관리하는 사람은? 거 목감인가?

#2 예, 예. 목감.

@1 아.  
 #2 목장 관리, 목감.  
 @1 아, 목감이 뜨나고 케팟장이 뜨나고.  
 #2 예.  
 @1 그다음에 또 뭐 이수과?  
 #2 그 위에 조합장이주.  
 @1 그다음에.  
 #2 예.  
 @1 그 우에는 전체 총 감독은.  
 #2 예, 예.  
 @1 조합장이 허는 거고?  
 #2 예.  
 @1 으,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 게난 그 요즘이야 아까 뭐 십오만 원이여 십만 원 이렇  
 게 내지만 예전에는 한 마리 헐 때.  
 #2 보리 두 뒹여 석 뒹여 그런 식으로.  
 @1 그런 식으로 우리 저기.  
 #2 들어 옵서.  
 @1 조합장님도 해나고.(생략) 그 목장 관리헐 때 그 보리 저기 주명도 쉼 올려봍디가?  
 #3 여러 번 이십주.  
 @1 쟁, 그.  
 #3 아으, 보리주.  
 @1 옛날은.  
 #3 그때는 소 방목허는 삭은 엇엇수다.  
 @1 예.  
 #3 방목허는 삭은 엇곡.  
 @1 예. 목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헐던 거를 저 곶아쥐 봄서.  
 #3 목장은 어떻게 운영헐 건 모르고.  
 @1 으.  
 #3 그 목장에서 또 그 건초.  
 @1 예.  
 #3 겨울에 멕일 건초는 목장에서 비는 걸로.  
 @1 으.  
 #3 비어나수다, 저도.  
 @1 예.  
 #3 겐디 그 운영 과정은 그 방목해서 운영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 먹이

@1 예, 게른 쉼들은 뭘 잘 먹어마씨?

#2 쉼는 화분과.  
 @1 어?  
 #3 아으, 건 이제사 화분과여 미시거여 험지마는.  
 #2 저.  
 @1 으.  
 #2 소는 늙은 입보다 이, 저, 보리 같이 생긴 거.  
 @1 예.  
 #2 화분과 작물을 좋아하여.  
 @1 어.  
 #3 출은 요즘 말로 야초지.  
 @1 예.  
 #3 저 우리 제주도말로 테역.  
 @1 테역.  
 #3 그런 일을, 잘 옛날은 그런 거벧기 없었으니까.  
 @1 으.  
 #3 그런 거, 그런 거벧기 소 맥이가 잇어수다. 무신 사료가 잇어수과? 뭐 잇어수과? 그냥. 그렇게 많이 질루, 일 개 부락에 많이 질룬 사름 한두 사람.  
 @1 으.  
 #3 잇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두 두, 그자 농사용으로. 그런 정도로 저 소를 길랐지 뭐 무슨 큰 영리, 지금 ㄴ치 영리 수입 목적으로 저 사용한 건 아니우다.  
 @1 게문예, 아까 테역출 곧앗잖아예? 테역출 말고 무슨 출이엔 헤여? 그 출 비는 거는?  
 #2 지금은 개량 그 웨국 목초씨.  
 @1 예.  
 #2 이탈리아라이그라스나 이런 그런 종류가 소가 더 영양가도 잇고 더 잘 먹어.  
 @1 게난 옛날에 그 출들 비젠 허민 줌호미로 행은에 출들 비고헤낫잖아예?  
 #2 옛날엔.  
 #3 호미주, 호미로.  
 @1 으.  
 #3 호미.  
 #2 저 낮으로만 비엿주.  
 @1 으.  
 #3 예, 낮이엔 흔 거는 요 중간에사 낮, 낮 헛주. 옛날은 호미, 호미 해서.  
 #2 예, 호미.  
 #3 호미, 호미 해서 출을 빌라고 허면은 동네 사름덜 몇 사름 빌어서.  
 @1 예.  
 #3 그때 그자 수눌면서도 허곡.  
 @1 으.  
 #3 경 행 비어나수다. 비곡 ㄴ 손으로 다 무껴서.



@1 예.  
 #3 이제는 뭐 차 이시니까 뭐 차로 하곡 허지만은 그 당시 차도 엇곡 소에 사십 단.  
 @1 예.  
 #3 손으로 무꾼 거 사십 단이.  
 #2 흔 바리.  
 #3 흔 바리라고 해영 그제 딱 못 박아졌는다.  
 @1 으.  
 #3 그거를 그자 문 비어지민 집까지 시꺼오랑 집의서 거 마당 앞이 문 놀곡.  
 #2 집이 올 때 등에 빈 채로 오지 아녕 꼭 열 못 정 와.  
 @1 열 못을 정예?  
 #2 예. 사름은 열 못을 지고.  
 #3 그거는.  
 #2 쉼은 흔 바리 마흔, 마흔 개 질메에 시끄곡.  
 #3 그 전에는 춤 우린 찢어지게 못 살아놓니까.  
 @1 예  
 #3 소도 엇곡 또 멤소.  
 @1 예.  
 #3 놈의 소이?  
 @1 예.  
 #3 그거를 질루면서 그냥 농사도 짓곡 영 허는데, 소도 엇으니까 등으로.  
 @1 으.  
 #3 등으로만 스무 단씩 무껴서 통으로.  
 @1 예.  
 #3 무껴서 스무 단 지고 스무 단 우이 다시 올려놓곡 헨 전, 전 문 내려와나수다, 흔 해  
 는.  
 @1 게문 스무 단 지고 스무 단 허면은 게문.  
 #3 사십. 예, 사십 단.  
 @1 흔 바리, 흔 바리를 져?  
 #3 어.  
 @1 등짐으로?  
 #3 등짐으로[등지므로].  
 @1 어.  
 #3 그렇게 행 것도 흔 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 예.  
 #3 오다가 중참이엔 현 거 알아집니까?  
 @1 예, 중참. 중간에 강.  
 #3 중간에 강 세왕.  
 @1 거기 부려 뒹.

#3 그냥 부러 뒀 다시 또 올라가근에.

@1 예.

#3 또 그까지 오랑 또, 또 부러동.

@1 으.

#3 또 거기 거 다시 또 내려오고, 혼 번에[혼빠네] 내려오젠 허민 지치니까.

@1 게난 그거를 증참해서 중간에 쉬는 거잖아예?

#3 예.

@1 쟁 그렇게 지는 짐은 뭐렌 곶아마씨?

#3 등짐이주게.

@1 등짐 말고, 어디 가난 중네기 이런 말도 허던디.

#3 아니.

@1 그런 표현은 안 험니까? 여기는.

#3 우리는 등짐. 등짐.

@1 등짐해서 증참이렌 허여예?

#3 등으로 쟁 온다.

@1 으.

#3 겨난 등짐.

@1 으, 등짐해 갖고예? 게난 그 출 빌 때 삼춘, 우리 그 저 조합장님은 밤에 강 비엇, 저 기 무껏덴 헛잖아?

#2 밤이도 무껏주.

@1 예.

#3 출.

### 출 비기

@1 그럼 출은 언제 비여마씨?

#3 출은.

#2 출은 하여튼 저 그 멧길 추석, 추석 뒷날부터.

#3 추분 넘으면은.

@1 으.

#3 추분 넘으면은.

@1 으.

#3 추분 팔월 이십삼일이 추분이냐? 구월, 아 구월 이십삼일?

#2 구월 이십삼일이 처서고.

#3 구월 이십삼일이 추분이냐?

#2 구월 이십일 넘으면, 양력으로 구월 이십일 넘으면 비어.

#3 추분, 추분이 지나면은 출을 비기 시작해수다.

@1 으.

#2 구월 이십일 뒤편 비기 시작하는데 보통 하늬바람이.

@1 예.  
 #2 구월 이십오일 뉘민 보통 터져.  
 @1 으.  
 #2 지금은 일기가 틀려.  
 #3 아니 계난 백로.  
 #2 지금은, 지금은 하늬바람이 시월달 뉘도 안 터지는데.  
 #3 백로 지나면은.  
 #2 그때는 정확히 터져.  
 #3 그때는 한라산, 하늬브름이.  
 #2 하늬바람 터지믄 날이 좋은 거.  
 @1 아.  
 #2 하늬바람이 불어야 출이 빨리 몰르곡, 출이.  
 #3 썩질 아녀고.  
 #2 저 변허질 안허여.  
 @1 아.  
 #2 싱싱허게 쉼가 잘 먹곡.  
 @1 쉼가 잘 먹곡예.  
 #2 빨리 말르니까.  
 #3 변허질 안허니까.  
 @1 계난 여기서는 하늬브름은 어느 방향에서 오는 거짜?  
 #2 북서풍.  
 @1 북쪽?  
 #3 예. 이 저.  
 #2 북서쪽에서.  
 #3 여기는 볼레오름.  
 @1 볼레오름.  
 #3 볼레오름으로 오는 게 하늬브름이라.  
 @1 예.  
 #3 이 저 백록담 동쪽으로 오는 건 높새바람이라고 해서.  
 @1 예.  
 #3 건, 그거는 저 비 올 때나 그. (웃음)  
 @1 어.  
 #3 거 높새브름 불곡.  
 @1 여기는 한라산을 보면서 바람 방향을 가늠험구나예?  
 #2 예, 예.  
 #3 예, 예, 예.  
 @1 예.  
 #3 아이, 제일 남쪽이니까 여기는.

@1 예.

#3 정남쪽이니까.

@1 여기가 정남이니까 그러면 아까 하늬븜 북 저기 하고, 그다음에 높새는 백록담 쪽으로 오는 거고.

#2 예.

#3 백록담 동쪽으로.

@1 동쪽으로,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 바람은?

#2 서갈븜.

@1 서갈븜은 어느 방향?

#3 서쪽으로 오는 거, 서갈븜.

#2 서, 서쪽으로 오는 거.

@1 서갈븜이렌 허고예?

#3 으.

#2 셋븜.

@1 으?

#2 셋븜, 동남풍.

@1 으, 셋븜은 동남풍이렌 해?

#2 예, 동남풍이 셋븜이주.

@1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

#3 예.

#2 비 오젠 허민 븜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

@1 으, 동쪽에서 남쪽으로 오는 거를.

#2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거.

@1 어.

#3 남으로 불어오는 거는 마파람이렌 허곡.

@1 예.

#3 여기서는.

@1 여기서는 마파람이엔 허고예?

#3 예.

@1 예, 알아수다. 그다음에 그 이 출예? 출들 이제 운반, 저장은 어떤 식으로 해?

#3 아이 쟁.

#2 놀 놀어야.

#3 마당 앞에.

#2 한 사람 올리고 한 사람은 놀어야.

#3 쌓아야. 출놀이지. 요새 나난 축사여 무시 거여 영 좀 표준말로 험주만 옛날은 쉼막.

@1 예.

#3 (웃음)

@1 게난 혼 집에 멧 개씩 놀어? 출놀은.

#2 아, 쉼에 따라 틀리난.

#3 아니, 아니, 보통 헉나우다. 헉난디.

@1 으.

#3 족, 족, 작게 허질 안헤. 막 크게.

@1 으.

#3 그 헉 헉 육 개월 이상 맥여알 거니까.

#2 왜냐하면 마당에 다 놀굽이 잇주게.

@1 예.

#3 문.

#2 마당마다 놀굽이 잘 뒹야.

#3 출 놀굽이 쥔 컷수다, 옛날에는.

@1 으. 게মন예, 쉼 헉 머리가 게난 집에서 메는 쉼도 잇곡 올리는 쉼도 잇젠 헛잖아예.

집에는 어쨌든 하나는 헤실 거니까.

#2 예.

@1 헉 머리가 먹는 거예? 그 몇 바리나 먹어마씨?

#3 옛날.

@1 집에 뭘 때는 육 개월 메수과?

#3 옛날 집에 무끄는 거가 열다섯 바리 경 계산해서.

#2 열두 바리.

#3 열다섯 바리 이거 허곡. 게난 이 여름에도 이 일소는 방목을 아넵니다.

@1 예.

#3 집에서 밤낮은 집에서 밤에 집이 내려오고 낮에는 또 손수 내려가서 맥이고.

#2 줄대로.

@1 줄대로 헨예.

#3 줄대.

@1 아, 일소는 올리질 앓는구나예?

#2 예. 아으. 여름에 올릴 때도 잇는데 거의가 줄대 헤영.

#3 거의가 집에서 땀니다. 밤낮을.

@1 밤낮을예.

#3 예. 또 밤이 맥일 거 또 청초라고 해서 땀 단 비어서 무썽 지여 오랑 또 밤에 또 주고.

또 농사질 때 또 짓도 주면서 쉼 때 주곡 영 허면서 부렸수다.

#2 예, 옛날은 청출이 끊어전. 게난 이 케팍장이 필요헌 거주.

@1 으.

#2 놈의 출 비어가 불어.

@1 아.

#2 (웃음) 놈의 출 비어가 불어, 쉼 맥이. 쉼 안 맥이곡 놈의 출밧디. 게난 케파장이 필요헌 거.

#3 건 그건 극소수고. 보통 밧시둑, 우리 여기 말로.

@1 으.  
 #3 밧시독엿 것덜 많이 비어와수다.  
 @1 으.  
 #2 옛날엔 농약 잘 안 허니까 목 직히는 사이에 밧시독.  
 #3 농약이 전연 엿어수다게.  
 #2 출이 잘 커.  
 @1 그러니까 맞아예.  
 #2 그거 전문적으로 비레 저 잘 역은 사름은 메칠 뉘면은 소 먹을만이 클 거다 걸 알아.  
 @1 음.  
 #2 (웃음) 메칠날 비어나니까 메칠 뉘민 소 먹을 만이 클 거다 그걸 날짜가, 날짜가 뉘민 알아.  
 @1 갱 밧시독 저 비영.  
 #2 예.  
 @1 건 청출로예?  
 #2 예.  
 @1 으, 게문 그 청출로 비는 것들은 보통 어떤 것들 비어마씨?  
 #3 아, 게난.  
 #2 여기 제주도는 새가 쉼 많주게, 새.  
 @1 아, 새가?  
 #3 새 알아지쿠과?  
 @1 예게, 무사게 초집히는 데.  
 #2 새허고 어욱이 쉼 많고.  
 @1 어.  
 #2 그 어랑어랑헌 거 줄 받은 것도 다 허곡 보이는 건 다 비난예.  
 @1 으. 안 먹는 건 엿어마시? 쉼가 안 먹는.  
 #2 잇주게. 진썽도 안 먹곡, 안 먹는 풀 독초 안 먹는 것덜 으랏 뉘여.  
 #3 안 먹는 거 많읍니다.  
 @1 아.  
 #2 쉼가 독초.  
 #3 옛날엔 고사리도 안 먹고.  
 #2 고사리 안 먹고.  
 #3 지금은 먹는다.  
 @1 아, 지금 먹읍니까?  
 #2 아으, 어릴 때 먹주, 고사리도 독 이신 줄 알앙 잘 안 먹어. 다른 풀.  
 #3 출 엿이믄 먹어.  
 #2 다른 풀이 없을 때 그건 먹지.  
 #3 건 먹곡, 고사리 안 먹곡 진썽 안 먹고.  
 #2 진썽 안 먹어. 안 먹는 풀도 많아. 독초 안 먹어.

@1 으.  
 #2 독초 알아, 소가.  
 #3 거 안 먹는 거 여러 가지 이수다.  
 @1 아.  
 #3 우린 이름은 모르겠는데.  
 @1 그래서 옛날 보면 진썸들은 그냥.  
 #2 예.  
 #3 예.  
 @1 이파리가 살앙 이신 거구나게.  
 #3 예. 근디 그.  
 @1 진썸이 독이 아니.  
 #3 모시썸은 먹어.  
 @1 아.  
 #3 모시썸은 먹습니다. 건 잘 먹어.  
 #2 모시는 향기도 좋아.  
 @1 으.  
 #3 모시썸허곡 진썸허곡 그냥 스춘간인데.  
 @1 아, 예 스춘인데, 어.  
 #2 (웃음) 향이 틀려.  
 #3 아이 그 진썸, 그 모시썸은 잘 먹어.  
 @1 향이. 계난 사람이 먹는 건 먹고.  
 #2 예.  
 @1 사람이 안 먹는 건 안 먹는구나게.  
 #2 소가 그 독 잇는, 독 잇는 걸 알아.  
 @1 예.  
 #2 냄새로.  
 @1 아, 그런 식으로 행은에 하고예. 그 예전에 여물도 쥐마씨? 막 콩 솥앙 주고.  
 #2 아.  
 @1 보리 솥앙.  
 #2 이시몬 주주게. 그.  
 #3 옛날에 육지처럼 전업으로 허진 아녜는디.  
 @1 예.  
 #3 자기가 잇을 때는 솥앙도 주곡.  
 #2 찌꺼기, 찌꺼기.  
 @1 찌꺼기.  
 #3 그대로.  
 #2 먹을 게 엇인디 소 줄 게 어디 셔게, 계난.  
 #3 그대로 기냥.

#2 그 푸는체로 불리단 찌꺼기 굿인 것덜 그런 거.  
 @1 졸레덜.  
 #2 예, 예.  
 #3 솜앙 여기.  
 #2 졸레덜, 춤.  
 #3 솜앙 주지 아넵니다, 그냥 생차 그냥 들른차 줘 불주.  
 #2 으.  
 @1 그 어떤 디는 썬 그 비육우 허젠 행은에 득 솜앙도 췌덴 헨게마는.  
 #3 아.  
 #2 모실포렌 경헤고.  
 #3 아, 건 스실이우다.  
 #2 그건 맞수다.  
 #3 득 솜앙 주곡 자리훤 헤영 멕이곡.  
 @1 어.  
 #3 아으, 경.  
 @1 아, 직접 봐난마씨?  
 #3 예. 봐수다.  
 @1 아.  
 #3 봐수다.  
 #2 이, 저 썬가.  
 #3 그건 멕이젠 허민 알, 알기라고 잇어, 알기. 대봉통으로 만든 거.  
 @1 으.  
 #3 입에 대 가지고 이렇게 지르는 거이?  
 @1 예.  
 #3 걸 멘들아.  
 @1 걸 알기렌 헤마씨?  
 #3 예. 알기라고 허지?  
 #2 알기엔 허여? 대봉통이엔 곤주, 저 아귀 대연 멕이난게.  
 #3 알기, 게문 아귀.  
 @1 으.  
 #2 이 저 아귀 대연.  
 @1 어.  
 #3 입 좀 들러근에 찢르면은.  
 #2 강제로 아귀 대연 멕인텐 허주게. 게난 아가리를 들러, 별령.  
 #3 이런 거는 \*\*\*\*\* 이정도 뵈 거라야 뵈니다예.  
 @1 예, 예.  
 #3 옴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찢라.  
 @1 예.



#3 팔라근에 입에 영 입안에 들어가기 좋게. 경행 그걸 이레 찢러놔서 그냥 이레 영 비웁니다게.

@1 예.

#3 혼, 혼 적씩.

@1 어, 혼 적씩.

#3 예. 혼번[뽀]에 잘 비우민 이레 걸리니까.

#2 식물성만 먹다가 그 동물성 안 먹는 짐승은, 짐승이니까.

@1 으.

#2 동물성이 들어가면은 살이 빨리 올라.

@1 아.

#3 옛날에는 난 그런 거 안 봐봐신디, 소문에 개도 제골행 맥여났젠, 맥인텐 소문은 나났어.

@1 아.

#2 소도 나 결혼할 때 거 봤는데 돼지고기 먹는 소가 있어.

@1 어.

#2 어떻게 먹이느냐 허면은 그 돼지고기 냄새를 소는 싫어해요. 고긴 다 알앙.

@1 예. 예.

#2 안 먹어. 안 먹어.

@1 으.

#2 에 사료 먹다가 이 굿인물 옛날 소는 지금은 풍풍이 써 부니까 굿인물을 안 주는데, 옛날에는 풍풍이 안 쓸 때는 소는 굿인물을 꼭 쉼 쫓어.

@1 예.

#2 돼지허고 쉼.

@1 예. 돼지 주는 건 봐신디.

#2 쉼이 그걸 어린 때부터 줘나민 막 좋아허여. 쉼 씻은 물도 좋아허고.

@1 아.

#2 그, 그거에 사료 서견 먹어나니까 돼지고기 봐도 거 맛을 알아, 욕심으로. 돼지고기 한 번 영 맛 봐 먹어나니까 돼지고기 주민 팍팍 먹어.

@1 아.

#3 뭐 소 다 그런 여러 개 봤어.

#3 그 사료 중간에.

#2 맛을 알안.

@1 응.

#3 중간에양.

@1 예.

#3 그 비육허는 사름덜은.

@1 응.

#3 하원도 비육허는 분이 하나, 혼 분 계셔나수다마는.

@1 예.  
 #3 거 건초를 작두로 썰어서.  
 @1 예, 예.  
 #3 그 유까라고 잇었어.  
 @1 누까, 누까.  
 #3 누깐가 유깐가 허는데 그거를 버무령.  
 @1 예.  
 #3 물 조끔 부우고 해서 버무려서 그거를 저기 멕여난.  
 @1 아, 이 동넨 경 안 해나수과?  
 #3 이 동네도 해수다. 경 헌디 전부 다 허진 못 허고.  
 @1 아.  
 #3 것도 누까도 돈을 줘야 사니까.  
 @1 예, 예.  
 #3 그냥은 사지 못 허니까 그거 구입해다근에 작도로 출 썰면서 겨울에는.  
 @1 예.  
 #3 우리 이제 농가들은 겨울에는 그런 걸로 행 멕여수다.  
 @1 응. 전 어렸을 때 늘 그걸 뵈은에.  
 #2 작두로 썬는 거?  
 @1 예, 작두 썰영 누까 해 갖고 저의 아버지도 췌장시 헛거든.  
 #3 어디파? 계난.  
 @1 저는 한경마씨.  
 @4 (웃음)  
 #3 한경면.  
 @1 붉은뭇. 조수이리 용당에서도 헛었고, 해신디.  
 #3 조수이리?  
 @1 예.  
 #2 조수.

### 진드기 구제

@1 으, 징 행은에 하고예. 그다음에 삼춘, 그 췌들 할 때 아까 야우들은 진드기도 없텐 헛주만, 맨날 췌챙빔 행은에 그 진드기도 털어주고 해야될 거 아니파예?  
 #3 예, 예.  
 @1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씨?  
 #3 그거는.  
 #2 췌, 췌는 쳇빔만 굶어난 췌 쳇빔만 들르민 굶어도렌 해여.  
 @1 음.  
 #3 그거, 거는 그 췌가 순허게 만들라고.  
 @1 예.

#3 그, 그냥 소들 그냥 자기가 간지리우민 막 부비지 않습니까게. 그런 걸 느낌신ㄴ라 자기가 주인이 가서 이걸로.

#2 굶어주민 막 좋아해.

#3 쟁빋으로 막 처음에 처음에는 오지 아녀젠 합니다.

@1 예.

#3 계난 흥썰 굶어가면은 ㄴ만허여.

@1 으.

#3 ㄴ만허당 그 계속 굶어가면은 사름 가가민 굶어도렌 영 옵니다, 와.

@1 예.

#3 그런 식으로.

@5 (웃음)

@1 게도 이 동네는 막 부구리영 이런 것들 막 하질 안헤난 모양이라?

#3 아이구 무사.

#2 아이구, 이 저.

#3 옛날에 하나수다.

#2 장마 직전에 더울수록 부구리가 뒤어.

@1 예.

#3 으, 부구리 그 저 막 피 빨아먹는.

#2 거난 우리.

#3 부구리 아니우파게.

#2 공동 목장에.

#3 것이 바로 대두콩 만씩 허주게.

@1 맞아마씨.

#3 그 부구리가.

#2 십일에서 십이일 사이에 진드기 구제를 험수게, 여름에.

@1 여름에는.

#2 그러지 않으면은 소가.

@1 쟁 장마에 험니까?

#3 아니, 아니.

#3 사월 십.

#2 무조건.

#3 삼월달 낭 방목하면은 십일에 한 번씩 무조건.

#2 팔월 말까지.

@1 아, 열흘에 한 번씩 해.

#2 예.

#3 예게, 우리, 다른 딴 모루쿠다마는 하원목장만큼은.

#2 늦어도, 늦어도 십이일.

#3 십일에 한 번씩.

#2 십일에서 십이일.  
 #3 게서 팔월 말 구월 초순까지 해수다.  
 @1 으.  
 #3 요자기는 십일월달에도 혼 번 해수다.  
 @1 음.  
 #2 그 진드기가 먹으면 쉼 풀어, 풀어.  
 @1 풀어예.  
 #2 파를 너무 많이 빨아 먹언.  
 @1 으, 그러면 뭐 저기 목장에 출 잇는 데는 안 허고 그냥 쉼만 험구나.  
 #2 예.  
 @1 진드기 구제는예?  
 #2 예, 예. 쉼 몸에만.  
 #3 아으, 쉼 가두와 가지고, 거 뿌리꼭.  
 @1 예.  
 #3 요즘은 고압식 분무로 허지만은 옛날에는 그 진독약.  
 #2 지름깡.  
 #3 지름깡으로.  
 #2 이녁만씩.  
 #3 지는 분무기로도 허고, 아니믄 그릇에 양푼이에 타근에 수건으로 헤근예.  
 #2 우리 어린 때는 깔레에 걱정.  
 #3 허허, 경 막 그냥 문지르고 경 해수다.  
 #2 깡통 아정 강 진드기.  
 @1 예.  
 #2 진드기약 타근에 깔레 걱정 쓸었어.  
 @1 깔레로?  
 #3 예 경허단 그루후에 개발돼 가지고 물통 찢어이.  
 @1 예.  
 #3 거기에 물 해서 그 진독약 서껴 가지고 그레 낙하시키는 거라, 소를.  
 @1 아. (웃음)  
 #3 털어지게.  
 #2 시험적으로 해봐신디, 안 돼.  
 #3 털어지게 헤영 털어져 가민 물이 팍 튀지 않읍니까게.  
 @1 예, 예.  
 #3 그런 걸로 행 진독약도 혼 몇 년 해수다.  
 @1 아.  
 #2 거 시험적으로 현 거고  
 #3 시설해 가지고.  
 #2 하원 목장 해봤는데 그거는 헐 짓이.

@1 효과가 있어예?

#3 아니, 계도 혼 댄 년 그걸로 헛거든게.

@1 계난 그 진드기들이 물을 싫어헌텐 허명마씨?

#3 그건 모르쿠다. 우리가 진두기 안 댄 보니까. (웃음)

@1 (웃음)

#3 물사 싫어허는지 밥사 싫어허는지. (웃음)

#2 정답이여, 이견.

## 넥인

@1 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옛날에 넥인 줄 때예?

#2 예.

@1 어떤 식으로 넥인?

#3 낙인?

@1 낙인.

#2 날 봐서.

@1 날 방.

#2 이 쉼 낙인허는 날.

#3 인일.

#2 뵤날이나.

@1 으.

#2 원숭이날.

@1 으.

#2 이 날 봐근예.

#3 거 축일만 아넵니다.

@1 아, 지녁, 이녁 본명일이라고. 아, 쟁 보통 어느 날 많이 헤마씨?

#3 봄예, 봄예.

#2 봄날 때.

#3 이 가을.

#2 인일 시기에 많이 허주, 저 봄날 원숭이날.

#3 여름에 가민 더우니까.

@1 으.

#3 더우니까 그게 잘 상처가 아물기가.

@1 으.

#3 이 겨울철에 해야. 이 봄에 올리기 전에.

@1 계난 올리기 전, 목장에 올리기 전에, 예?

#3 올리기 전에.

@1 계난 그 낙인 혈 때는 낙인제[찌]도 허곡 헉니까?

#2 아니, 제는 안 지내고.

@1 제는 안 지내고?  
 #3 제는 뭐.  
 @1 게도 뭐, 술도 혼 잔 허고 영 제.  
 #3 그런 거 낙인제엔 혼 말은 엇고.  
 @1 예.  
 #2 낫나서 술 혼 잔 허는 거.  
 #3 낫나면은 거기서 수고. 소를 걸리고 눕히젠 허믄 혼 서너 사름.  
 #2 예.  
 #3 눅드려 줘야니까. 움직이지 못허게.  
 @1 예, 그 낙인 헐 때예, 낙인 질른텐 허지예?  
 #2 예.  
 #3 예.  
 @1 그 과정을 한 번 곱아줘 봄서. 어떤 식으로 헤 갖고 하는지. 멧 명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 불도 귀얄 거고.  
 #3 낙인은 장정 네 사름은 해야 됩니다.  
 @1 예.  
 #2 예, 소 눅드려사.  
 #3 장정 네 사름은 처음에는 소를 저 춤 뿔에, 뿔 엇인 쉼 낙인 허지도 못해.  
 @1 응.  
 #3 뿔에 걸려 가지고, 발에 발 걸리고 다 눕혀. 발에 그 양쪽 뒷발 앞발 영 모아놔서 걸령 땡기면은 바로 드러눕니다.  
 @1 예.  
 #3 바로 드러누민 그때 옆이 잇던 사름덜이 두세 사름이 강 모다들영 이.  
 #2 엉덩이.  
 #3 엉덩이 눌르꼭 이 가슴팍 눌르꼭.  
 #2 머리 누드려야주.  
 @1 으.  
 #3 영 네 사름은 눅드려야. 허고 이거 낙인 지저가민 그 카는.  
 @1 냄새.  
 #3 냄새가 연기 팡팡 나꼭 파지직해서 막.  
 #2 궤기 굽는 냄새가.  
 #3 아팡근에 막 침 이 궁둥이가.  
 @1 그렇지.  
 #3 막 움직입니다, 움직여예.  
 #2 사람 ㄱ트면 말 안 곧주. (웃음)  
 #3 그런 식으로 헐에 낙인을 헤나수다.  
 @1 예, 계민 낙인은 한 번 허면은.  
 #2 예, 영원히.

#3 예. 죽을 때까지 그냥 안 메와지는 거.  
 #2 영원히.  
 @1 안 메와져예.  
 #3 한 번 허면은 거기 털 안 납니다.  
 #2 털, 털.  
 @1 익어 불고 허니까.  
 #2 예, 예.  
 @1 으.  
 #2 거 모공을 다 지저 없애 버리니까. 털이 안 나다.  
 @1 으, 게민 우리 조합장님네는 무슨 자 낙인 써?  
 #2 우리는 아래, 하원이란 아래 하 자 으뜸 원 자.  
 @1 하래, 아래 하?  
 #3 하원이라고.  
 @1 으, 딱 그거를.  
 #3 물 하 자 근원 원 자 허는데.  
 @1 예.  
 #3 이거는 복잡허니까 .  
 #2 만들기 좋게.  
 @1 아래 하.  
 #3 아래 하 자, 집 원 자 아니, 으뜸 원 자 해 가지고.  
 @1 으.  
 #3 제일 그 만들기가 쉬워요, 그거는.  
 @1 예.  
 #3 낙인 만들기가.  
 #2 췌, 췌 제작허기가 좋주게, 한자로.  
 #3 그래서 그냥 하원이란 것만 표시헌 거지. 이거 하원 췌다 하면은.  
 @1 응.  
 #3 제주도 내에 하원이라고 한 건 여기 하나벧긔 없거든.  
 @1 예, 예.  
 #3 그래서 하원 그 글자를 저, 택한 겁니다.  
 @1 게니깐, 그럼 이 동넛 거는 다 하원?  
 #3 예, 예.  
 #2 예, 예.  
 #3 거의 하원.  
 @1 아.  
 #3 겐디.  
 @1 집집마다 뜨나잖으파?  
 #3 그게 그 낙인이 그 그것이 크고 작은 게 잇어요.

@1 예.

#3 크 거, 큰 거는 누구네 집.

@1 응.

#3 으, 작은 거는 또 누구네 집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해놔수다.

@1 으, 하원이라고 써놓고도 이제 다른 거라예?

#3 큰 거, 낙인 그제 큰 거, 크게 만든 것도 잇곡 작게 만든 것도 잇곡.

### 밧 불리기

@1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행은에 낙인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아까 췌들 행은에 밧도 불린덴 허명예?

#3 밧 불립주게.

#2 밧 불리주게.

#3 아이고.

#2 저 조팻 불리고.

#3 톨로도 밧 불리고 말고.

@1 췌로 밧 불릴 땐 어떤 식으로?

#2 그진.

#3 그진 여름에양, 하작물 파종힐 때.

#2 조, 조.

#3 조 산두. 이거는 저 꼭 불려야만 그제 잘.

@1 으.

#3 발아가 잘 뒤.

@1 으.

#3 거 뭐 헉나 두 개가 아니고 헉 너다섯 개. 뭐 헉 사름 이끄곡.

@1 으.

#3 헉 사름 두에서 톨곡.

#2 솔 연메여근에 사름이 다.

#3 줄줄이 목으로 다 연맴니다.

@1 으.

#2 옛재. 목을 다 메어사, 연메어사.

@1 연메어근에 헉니까?

#2 예.

#3 예, 헉나만 허는 게 아니고.

@1 게민 췌를 연메잖아예?

#3 예.

@1 게민 앞에 선 췌를 뒤엔 곶아?

#2 그 선상췌가 좀 나이 들곡 심 췌 놉.

@1 선장췌.



#2 예, 선상췌.  
 @1 선상췌렌 곶아?  
 #3 선상.  
 @1 아, 선장이 아니라 선상췌?  
 #2 예.  
 @1 게난 선상췌 뒤에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메야 될 거 아니라예? 연 땔 때는?  
 #3 뒤에가 아니고 옆으로.  
 @1 옆으로, 목허고.  
 #2 목예, 앞의 췌 목 뒤엌 췌 뽈, 앞의 췌 목, 뒤엔 뽈 그런 식으로.  
 #3 목이고 뽈이고 상관없거든, 거는.  
 @1 아, 그럼 이렇게 옆으로 헤 갖고?  
 #3 예.  
 #2 예, 예.  
 @1 게민 땔 개까지 메어마시, 연 메는 거는?  
 #3 흔 네 개.  
 #2 흔 네다섯 개까지 메주.  
 @1 아.  
 #3 네다섯 개가 보통이우다.  
 #2 예, 예.  
 @1 아.  
 #3 아니믄 엇인 사름은 두 개.  
 @1 두 개 헤근예 하고. 그냥 하나만 행은예 다른 막. 뽈 같은 경우는 뽈, 영.  
 #3 하나만.  
 @1 경 안 헤?  
 #3 뽈도 메어사.  
 @1 아.  
 #3 뽈도 연메어사 잘 불러집니다.  
 @1 아.  
 #3 그거 경 아녀믄 즈근즈근 잘 불러지지 안 불러져.  
 #2 가고픈 뵐 뭇 가주게. 흔 뵈딛만 불러 불영.  
 @1 음.  
 #2 메지 아녀믄.  
 #3 경 허다가 또 이 머리 좀 쓰는 사름덜은 허다가 췌 그런 거 많지 아녀곡 허면은.  
 @1 예.  
 #3 섬비라고 압니까? 섬비.  
 @1 예, 예, 섬비.  
 #3 섬비로 췌 하나 행은예 섬비로 그냥 꺾어 뽈니다. 불리지도 아녀.  
 @1 불리지도 아녀.

#3 중간에 그 불리단 그런 식으로 헨 농사를 몬 지어나수다.

@1 예.

#2 비료 나오난.

@1 비료 나오난.

#3 예, 비료 나오니까.

#2 비료 나오난 농사가 됴엄주.

@1 아.

#2 비료 엇일 땐 농사가 안 됴어.

@1 쉼을 두 개만 해서 연메는 게 아니라 네 개까지도 연메여예?

#3 예.

@1 예, 예. 켁 그런 식으로 밧도 이제 불리고. 여기는 그냥 물은 이 동네는 잘 엇어나수과?

#3 예, 많진 아녀낫수다. 조금 잇긴 잇엇는디, 나도.

@1 예.

#2 물은 안 질루고.

#3 나도 물 하날 길뽀뽀했는데 많진 아녀수다.

@1 응, 거난 일허거나 허는 것도 다 쉼로.

#2 쉼로.

#3 물로도 헤낫지만은 짐 시끄는 건 물로도 험니다.

@1 예, 짐 시끄는 건예?

#3 이디 이 근방은 물로 밧은 갈진 못허여.

@1 아.

#2 이 여기는 돌이 많아 부니리까.

#3 자갈이 워낙 많아 놓니까.

#2 물은 성질이 급해.

@1 으.

#2 빨리만 갈려고 허고.

#3 대정, 대정 고산더레 가면은 거의 물로 밧을 가는데, 여기는 물로는 갈지 못허곡.

### 멤쉐

@1 으, 그런 식으로 하고. 아까 삼춘은 멤쉐헛덴 허멍예?

#3 예.

@1 멤쉐는 어떤 식으로 허는 거마씨?

#3 새끼 나면은 반.

#2 부락, 부락쉐.

@1 응.

#3 아, 부락쉐도 허곡 개인쉐도 헤낫어.

#2 개인 쉼도 있주.

#3 으, 개인쉐.  
 @1 그러면 멬쉐를 헐 때 부락쉐하고 저기, 개인쉐 헐 땀 어떤 식으로 차이 나는 거? 부락 쉼도 따로 잇어나수과?  
 #3 잇어나수다.  
 #2 예.  
 #3 마을에서 소를 구입해서.  
 @1 으.  
 #2 임대주는 거주게. (웃음)  
 #3 주민털안티.  
 #2 새끼 두 번 나면은 헝나.  
 #3 벌어먹곡 농사짓곡 허는 거.  
 @1 예, 게문 마을에 기금 마련허는 거?  
 #3 그렇주, 그렇주.  
 #2 예.  
 #3 뭐 그렇게 헤실 겨우다. 우린 그당시 어리니깐 잘 그자 마을쉐로구나만 알앗지, 난 우리도 마을쉴 헝 번 헤낫는데.  
 @1 예.  
 #3 그런 식으로만 알앗지, 뭐, 확실헌 거는 몰르곡.  
 @1 게난 원래 하원이 옛날부터 이런 쉼들을 하영 기루는 동네구나.  
 #3 예.  
 #2 야우도 허곡.  
 @1 예.  
 #3 원래.  
 @1 땅이 좀 거친 편이우파?  
 #3 어.  
 @1 농사헐 때?  
 #3 어, 땅이 막 거칠어마씨.  
 #2 예, 자갈 핫주. 중산간, 중산간 밑으로는.  
 @1 응.  
 #2 이 토질이 종앙 농사가 잘 뉘는데, 중산간 우에는 이 화산쉐토.  
 #3 이디 요 동네 옛날 어른이주만은. 우리 같은 하르버지뻔인디 헛주마는 돌아가 불엇주만 거긴 하원서 쉼을 소를 제일 많이 길랏젠 험니다.  
 @1 으.  
 #3 강 ○, ○ 자 ○ 자 이 하르방인디.  
 @1 예.  
 #3 그전에 저 늙 사서 빌어 가지고.  
 @1 예.  
 #3 한라산 몰양 가고.

#2 야우, 야우.  
 #3 야우로 해서.  
 #2 야우 많이 해연에.  
 @1 으.  
 #2 일 년에 최고 하영 헐 때 귀표헐 때가 육십 개 헛젠 해신가, 나 들음만 해신디.  
 #3 뭐, 야우 허는 거 백오십 두여 백 두 허니깐 원 뭐.  
 #2 일년에 젤 하영 귀표 헐 게 육십 두, 육십 둔가 헛젠 헛디다, 새끼를 육십 두까지 내  
 완, 내왔다는 거주.  
 @1 음.  
 #3 또 여기, 여기 김 ○ 자 ○ 자라고 여기 춤 다 옛날 하르방들이주마는 그 비육혜 가지  
 고.  
 @1 예.  
 #3 소를 자기가 배로 시경 가는 거라이.  
 @1 예, 예.  
 #3 막 맥영 시경 가서 올 때는 돈을 소깁을 찍가마니.  
 @1 예.  
 #3 찍가마니에 담양 그자 배에 시경 내불민 이거 무신 돈으로 생각을 안 해.  
 @1 으.  
 #3 이거 다른 물건이카부덴 허주, 그냥 비딱허게 데껴뒀 해영 가마니 전 왓젠도 해났는데.  
 (웃음)  
 @1 이야. 그 어른은 살아계셔마씨?  
 #3 아니.  
 @1 (웃음)  
 #3 다 돌아가셨수다.  
 #2 그 배에서 돈 여먹카 부덴 옛날은 생선 싸난 그 늘, 늘레 나는 가마테기.  
 @1 예.  
 #2 돈 여먹카 부덴 그레 쌍 이제 데경 내 불엇덴. (웃음)  
 #3 (웃음)  
 @1 아, 아으, 재미진 사름들이여이.  
 #2 잠 들면은 돈, 돈 파가 불카 부덴.  
 @1 예, 맞수다게.  
 #2 그, 그 돈 곱짐으로 생선 싸난 찍가마니. (웃음)  
 #3 아, 생선 싸는 경도 허주만은. 가마니 찍가마니 그추룩 데껴 내불민 이거 무신 돈이카  
 부덴 생각을 아녀지, 무슨.  
 @1 그러니깐.  
 #2 배에서 잠들어 불민 돈 흠쳐가 볼 수도 잇주게.  
 @1 예, 예. 아 그런 일화들도 잇고예. 게문 아까 그 번, 저기 멤쉐예? 멤쉐 헐 때면은 누  
 가 먼저 새끼 나쁜 누가 먼저 가져마씨? 건 서로.

#3 아니, 두 개 나민 하나.  
 @1 두 개 하나 나민 누계.  
 #3 일 년 씩.  
 @1 으, 누계 먼저 가집니까?  
 #3 아이 제난 번, 이 저.  
 @1 맥여 주는 사름이?  
 #2 예, 맥여 주는 사름이 먼저 앓주.  
 #3 먼저 갖고.  
 @1 아, 멤쉐헌 사름이. 것도 다른 동넨 경 안 허고 주인이 먼저 부랭이 나민 주인이 먼저 갖넨 허고.  
 #3 아, 그런 건 모르고 어떤 부랭이 나든 암커 나든 그때 뭐 구분은 못허겄는데.  
 @1 예.  
 #3 하튼 관리허는 임대받은 사름이 먼저 해낫수다.  
 @1 아, 경허고예, 아, 게문 부락쉐는 멧 머, 멧 개나?  
 #3 아이, 부락쉐 하나수다.  
 @1 아.  
 #3 그 당시 부락쉐 한, 흔 오, 백 두도 더 뒤텔주.  
 @1 아, 마을 소유.  
 #3 예, 마을 소유.  
 #2 아, 멤쉐 허는 게마썸?  
 #3 아니, 아니 마을 소유 마을 쉼.  
 @1 마을 소유 쉼.  
 #2 경 하나수과?  
 @1 경 행은에 개인 쉼로 헐에.  
 #3 이제 집터 느네 스춘 살아난 디 고모 아틸 살아난 디이? 저기 뒷동산 오죽돌.  
 #2 예, 예.  
 #3 거기 쉼막 잇어낫잖아.  
 #2 아, 난 걸 몰르고.  
 @1 어, 마을 쉼막예?  
 #3 예.

### 중성기

@1 아, 아 것도 재미있다이. 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성기예?  
 #2 예, 예.  
 @1 옛날 쉼 그르치젠 허민 중성기 여긴 암쉐털을 하영 허면은 중성기 헐 필요도 없겄네?  
 #3 아니우다. 중성기 해수다.  
 #2 중성기.  
 #3 아게, 거세, 요즘말로 거세.

@1 거세, 으.  
 #2 거세, 말을 잘 듣주게.  
 #3 옛날에는 볼 것ㄴ라 거세 허는 것ㄴ라 뭇엔 해나시니? 불깐다고 해났는데.  
 #2 예, 볼까 불어.  
 @1 볼까기도 허고 불도 불르고.  
 #2 으.  
 #3 아, 불깐다고 해서 옛날에는.  
 #2 볼 불라 분덴 허주게. 덩드렁으로도 못아 불어. 칼로 안 뒤여, 칼 안 뒤여.  
 #3 췌는 장정 혼 뻬 십, 뻬 명 해여근에 녹정.  
 @1 으.  
 #3 덩드렁 압니까?  
 @1 예, 예.  
 #3 덩두렁 밑에 놔서.  
 #2 못아 불어.  
 #3 덩, 마께로 그, 그, 그.  
 #2 춤 잔인헌 거주.  
 @1 그냥.  
 #3 그걸 막, 못앗수다. 못안.  
 #2 확 찢랑 설러 불어도 뿔 건디.  
 #3 나도 그거 어릴 땐 봐나수다.  
 @1 아, 봐난예? 어.  
 #3 요새에는 뭇 기냥 산 냥 딱딱 거세헤 불주만은 옛날에는 아니면 불로 막 지지곡.  
 #2 지전. 약, 소독약이 없으니까.  
 @1 으.  
 #3 경헤 놔근에 막.  
 #2 소독약이 없으니까 상처를 지저 불어. 경 헤가몬 균이 죽어.  
 #3 경 헤가몬 췌가양 막 읍니다, 웨영.  
 @1 예.  
 #3 웨여.  
 @1 으, 오늘 가축시장 가도 읍디다게.  
 #2 이 지금도 지저 부는 게 최고.  
 @1 아, 빨리.  
 #2 어떤, 어떤 병균도 다 죽어 부니까.  
 @1 으.  
 #3 저 병균이 저 침입을 못허니까게.  
 @1 으.  
 #2 소독약보다 더 잘 들어. 지저 불민.  
 @1 예, 지금 목장에는 다 암췌우파?

#2 예.

@1 올리는 게 다들 암썸들만 키우는구나예?

#3 다 번식우.

@1 다 번식우, 으.

#3 수키는 나민 한 삼 개월 뒤편 다 내려와 부니까.

@1 아, 송아지 때 팔아 부는구나.

#2 이, 이 개월 넘으면은 젖 떼 버리니까.

#3 칠팔 개월 뒤편 다 팔아 버립니다게. 축사에 강 키우당은예.

@ 아, 예 그래서 거기 오늘 부렁이들 다 그거구나게이. 어린 것들.

#3 예. 육십, 육십오 두 부렁이가.

@1 으.

#3 육십오 두에다 암컷 스십구 두라냐?

@1 아, 거 딱 여기 나왔구나예?

#3 예.

@1 으. 그다음.

#3 열네 두라냐?

### 백중제

@1 그다음에 그 쉼들 질루젠 허면 그 백중제, 제도 지내났수과? 건 어떤 식 험니까?

#3 아 백중제. 옛날에는 여기 해나신가?

#2 허는 사름은 헛주마는.

#3 옛날에 우리 하원은 말만 헛지양 백중 목장에서 백중제엔 허는 건 아녀 봐수다.

@1 아.

#3 저 동더렌 많이 헤요.

@1 예, 예.

#3 남원 표선드레는양 하영, 그딘 목장마다 험실 겨우다.

#2 나는 우리 할머니 산 때는 백중날랑 한라산에 쉼 보레 가라, 꼭 곱아.

@1 아.

#2 경허민 그날은 곤밥에 바룻궤기 하나 싸줘.

@1 아, 쉼 보레 가렌 허영은예?

#2 예.

@1 아.

#2 강 케우령 먹으라. (웃음)

@1 아, 경 곱아.

#2 으, 우리 할머니 산 때 똑 나신디 백중날 쉼 보레 가라 허여근에.

@1 으.

#3 그릴 수도 있고.

#2 바룻궤기 하나허곡.

#3 우리집인 옛날은 백중날은 쓸바하고.  
 @1 예.  
 #3 저.  
 #2 농사 잘 뒤편.  
 #3 요즘말로 저 옥돔.  
 @1 으.  
 #3 생선.  
 @1 예.  
 #3 그 당일바리.  
 @1 으.  
 #3 것도 바당에 강은에 사당 그거 하나 굽고 혜영 논에 가.  
 #2 농사 잘 뒤편.  
 #3 나룩बाट.  
 @1 예.  
 #2 정성으로.  
 #3 나룩बाट 꼭 백중날 칠월, 칠월 보름날에 강, 그디 강 그거 춤 ㅋ서를 헤낫어, 우리 어  
 머니가.  
 @1 아, 나룩बाट 강은예?  
 #3 예, 나룩बाट 강.  
 @1 아, 이 동네도 나룩들 갈아신가마씨?  
 #2 아이, 하원 논.  
 #3 집집마다 나룩.  
 #2 안 번 사름 엇어. 강정까지, 월평 강정 문밖.  
 #3 하원 산촌이라도.  
 @1 예.  
 #3 강정, 월평.  
 #2 하원이 논이 젤 많아. 논 가진 사름이.  
 @1 으.  
 #3 엄청 많았수다.  
 #2 하원이 월평보다도 크고.  
 @1 으.  
 #2 논 관리하는 사름이 다른 부락보다 제일 많아.  
 @1 아.  
 #3 나가 논.  
 #2 강정 논 거의 반은 하원이라.  
 #3 하원서 제일 내중에꺼지 나가 나룩을 현 사람이라.  
 @1 아, 기구나.  
 #3 예, 구십일 년도까지 나가 나룩을 헛으니까.



@1 봉성에서예, 애월 봉성에도.  
 #2 예.  
 @1 나록 하원에 아니 강정에 논 잇어 갖고 나록 비레 와났덴 험디다.  
 #3 예, 예, 예. 잇어난 거 맞아.  
 #2 우리, 우리,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 아버지가 금악인데.  
 @1 예.  
 #2 강정 논 별명 우리 할머니 봉가수다. (웃음)  
 @1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예. 저쪽 사람들이 여기 강정에 논 별명.  
 #2 예, 그디 모관 잘사는 사름덜은 강정에 논 톱 잇어나서, 뭇 탕 오고.  
 @1 어.  
 #2 논을 임대 줏주게 동네 사름 앞이.  
 @1 예.  
 #2 강정 사름, 계난 강정 사름이 논, 이녁 논이 뭇 개 엇엇어.  
 #3 거의.  
 #2 모관사름덜.  
 @1 모관사름덜.  
 #2 잘사는 사름덜.  
 #3 웨방 사름덜.  
 @1 웨방 사름들. 계난 봉성 강 옛날 조사를 허니까.  
 #2 예.  
 @1 강정에 사삼사건 그때예? 강정 나록 비레 갈 때 사삼 격엇덴 험디다게.  
 #2 가을 맞아, 겨울에, 심언에 맞수다.  
 @1 그거는 곡식신한테 백중신한테 제를 지낸 거고.  
 #2 예.  
 @1 쉼 백중이 아니고예?  
 #2 예, 예.  
 #3 아니, 여기는 다른 디는 쉼 백중도 험니다. 목장에서.  
 #2 백중제 지내는 목장덜도 하수다.  
 @1 으.  
 #2 동더렌 많아.  
 #3 중문이도 험실 건디, 옛날에. 지금은 안 험주만은.  
 #2 그디 동더렌 많아.  
 @1 근데 별도로 이젠 하원에서는 이렇겐 허진 안하는 거라예?  
 #3 예.  
 #2 그 백중제는 안 지내고 우리도 올리는 날 고사 지내, 저, 토신제 격으로.  
 @1 아, 쉼 올리는 날 게문.  
 #2 올리는 전날.  
 @1 전날.

#2 전날 밤.

@1 게문 청명 전날?

#2 아니, 아니. 올리는 날짜를 우리끼리 정해서 아무 때나.

#3 날짜를 정해서 정하면은 정헌 내일 방목 허자 허믄 오늘.

#2 무사 안녕을.

#3 오늘 출려서.

@1 으.

#2 무사 안녕을 전날 밤이 토신제 지내는 거.

@1 게문 그전 어디서 지내마씨?

#2 목장에 강.

@1 목장에 강.

#2 조합장이 출령 목장에서.

@1 뭐, 뭐 출령수과?

#2 아, 우린 췌고기, 옥돔 젤 비싼 걸로만.

#3 (웃음)

#2 놀, 토신이난.

#3 소고기.

#2 놀 걸로, 놀 걸로만.

#3 옥돔, 과일, 또 제주, 또 등등. 이제 메. 또 쟁도 해나시냐? 쟁. 쟁은 안 해나신가?

@1 산메 안 하고 그냥 다 익혀근에?

#3 아, 그냥, 그냥, 옛날\*\*.

@1 으, 옛날은 우리 제사 허듯이 그냥.

#2 예.

#3 예. 지금 산메 아닙니다.

@1 아니, 췌, 저기 목장에 가는데 췌췌기 가정가마씨? (웃음)

#3 췌 모시는 거우파? 귀신이 먹는 거주.

#2 토신이 먹는 거주게. 췌가 먹을 거우파? 토신이 먹을 거주. (웃음)

@1 아, 경해도게 췌 옆이 강은에 허믄 건 쫘 너무 헛수다.

#3 나 험서도 건 처음 듣는 소리네.

#2 토신은 생으로만 먹, 생것만 먹꼭.

@1 예.

#2 소고기길 좋아허니까, 그렇주.

@1 아, 게난 토신한테 허는 거주, 췌한테 허는 게 아니.

#2 그렇지, 토신한테 허는 거지.

@1 (웃음)

#2 토신한테 무사안녕을 비는 겁주.

@1 경해도 너미 험수다, 그건 아니우다게. (웃음)

#2 토신이 췌고기길 좋아허는디 놀, 놀 걸로.

@1 그런 식으로.  
 #3 옛날에는 산메 하나서.  
 @1 산메. 아, 옛날은 산메 헛구나예. 으.  
 #3 옛날 산메 헛어.  
 #2 ○○이 아방 헐 때는 조, 조메 헛수다.  
 #3 어, 나도 해놔어.  
 #2 조메 헛고. 난 생략.  
 @1 생략.  
 #2 메는 생략.  
 #3 스반스병이라고 해서.  
 @1 예.  
 #3 그 밥, 밥 네 그릇.  
 @1 으.  
 #3 병, 병, 그 떡 병 자.  
 @1 예.  
 #3 그 똥, 똥그락헌 떡.  
 @1 예.  
 #3 그거 네 그, 네 개 헛 하나수다.  
 @1 네 종류.  
 #3 어.  
 #2 토신.  
 #3 네 종륜데 하나로만계. 스반스병허면은.  
 @1 응.  
 #3 옛날은 저 흰밥, 조밥 헛는데. 옛날에는 지장서피 영 해놔는데.  
 @1 예.  
 #3 이제는 그런 거 없고.  
 @1 으.  
 #3 정성들인 사름 조밥허고, 쫄밥허고 영허여.  
 #2 토신은, 토신은 스 배 아니우짜? 산 사름 일 배.  
 #3 아니게, 토신은 그거는.  
 #2 죽은 사름 이 배.  
 @1 으.  
 #3 저런 거는.  
 #2 임금 삼 배. 토신 스 배.  
 @1 어.  
 #2 임금은 삼 배라.  
 @1 네 번 절을 해야 뉘는구나.  
 #2 어, 토신은 젤 우이라.

@1 모든 게.

#2 토신이 켈 위에. 신 중에. 그 네 번.

#3 스 배 혈 때 잇곡.

#2 스 배.

#3 재 배 혈 때 잇곡 한다. 거 무신 다 스 밴 아니여.

#2 (웃음)

@1 계문 이 하원에서, 아까 열 한 명بات기 이제 안 허는데, 예전에 그 산에 올릴 때 한라산까지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됩마씨? 여기서는.

#3 여기서 흔 칠 키로 흔.

#2 팔 키로, 십 키로 혈 거라.

@1 팔 키로, 십 키로.

#2 으.

#2 팔에서 십 키로 허여.

#3 한라산 저 옷세오름까지 흔 팔 키로 혈 거우다.

#2 옛날, 옛날에 집 뭐 차 옛일 때 걸영.

#3 영실서 여기 스 키로? 스 키로.

@1 으, 하원에서는 뉘게 가깝구나.

#2 예.

@1 겨니까 걸영은에.

#2 요.

@1 다닌 거라예.

#2 옛날에 차 없을 때 등산 코스가 이 하원이라난.

### 추억담

@1 으. 어쨌든 뭐 말은 안 해나 부니까, 말은 안 들어보쿠다. 그, 그 쉼 허명예, 우리 아까 앞에 잇어 불지 못허는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해신디 우리 삼춘도 쉼 키우멍 잇어 불지 못허거나 아니면 너무 재미있거나 아니면 속상허거나 이런 일들도 이실 거 다텐디.

#3 음, 소 키우면서 저가 침 산전수전 다 겪은 놈이우다. 아주 큰 이익은 못 보고.

@1 예, 어떤 산전수전 겪읍디가?

#3 어, 없어서.

@1 으.

#3 없어서 요결로 생계를 허자.

@1 으.

#3 막음을 먹어서 옛날에 그 보조도 아니고, 용자.

@1 으.

#3 용자 주면 흔 집이 팔 두 기준으로 현 거라양. 팔 두를 사야.

@1 으.

#3 그 용자 해당이 뉘고, 팔 두에서 그 때 육, 육백오십만 원인가?

#2 육백.  
 #3 육백만 원인가 거를 거 뭐.  
 #2 서로 보증 앓으멍덜 허주.  
 #3 황, 연, 연대 보증해 가지고.  
 @1 예.  
 #3 세 사람, 두 사람씩 보증 차주 하나에 세 사람 일름을 써야.  
 @1 으.  
 #3 그 육백만 원씩 그 차용을 행 써놔는디. 그게 십 년인가.  
 @1 으.  
 #3 팔 년인가, 에 모르겠다. 팔 년인가 임기가.  
 #2 그거를.  
 #3 팔 년 뒤편도 임, 물지를 못허는 거야.  
 @1 으.  
 #3 그게 연체가 뒤편, 그게. 그거를 몬 갚을라고 허니까 춤 그 소도 풀곡 또 경 정 허단 소 거자, 다 풀안 나, 조합원 아니 허켄 해놔수다. 아니허켄 헛 사람이 쉼 엇어도 조합장은 해삽니다.  
 @1 으.  
 #3 아, 그래서 이젠 헛나 이신디 이제 조합장을 시켜 분 거야. 이 저 조합원덜이.  
 @1 예.  
 #3 그래서 그때부터 쪼금씩 이제 그 하나씩.  
 @1 불리완.  
 #3 불리우기 시작헌 건데, 그때가 처음에 우리가 용자 받으러 팔십스 년도.  
 @1 으.  
 #3 그때 그렇게 해서 여경, 그,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조합장 당시에.  
 @1 으.  
 #3 저, 제주시 가 가지고 종을 하날 사온 거여, 팔백만 원 줘 가지고.  
 @1 으.  
 #3 이. 그 ○○○이 거이.  
 #2 예, 예.  
 #3 그거 ○○○ 사온 거, 죽어 분 거.  
 #2 ○○○ 건 죽지 아녀고.  
 #3 아튼 어디 하나 싸우렌가 허단.  
 #2 예, 예.  
 #3 즉사허지 안헤시냐게.  
 #2 누게 거 사왓저마는.  
 #3 그걸 봄에 집이 뗏다가, 겨울에 집이 뗏다가 방목혈라고 허니까 이제.  
 @1 으.  
 #3 참, 임신을 시킬라고 허니까 논 거 아납니까?

@1 예.

#3 난 두 개를 논 거야이, 종우를. 두 개를 낚는데 거 한 메칠은 분양 되도록.

@1 으.

#3 잘 지내고 잘 뭐 첨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갑자기 아침에 씨러전.

@1 으.

#3 죽어 분 거야.

@1 아. 팔백만 원짜리?

#3 팔백만 원짜리, 그 당시에 팔백만 원짜리.

#2 그거 엄청 비싼 거주.

@1 예.

#2 비싼 돈이주.

#3 아, 그게, 그게 거 아주 내가 춤 그 고통은 나 이제도 잊어 볼지 아녀고.

@1 으.

#2 그렇지, 책임, 책임자, 책임질 때. 책임자 마들 때난에.

#3 어, 또 한 가지는 이제 목장, 저, 저 탐라대 잊지 아녀우파게?

@1 예, 예.

#3 탐라대를.

@1 풀아 분.

#3 유치혈라고 허니까.

@1 어.

#3 풀라고 허니까, 그 이젠 다 돌아가 불었수다.

@1 으.

#3 그때 그 저 유치위원들이.

@1 으.

#3 나가 그때 조합장 혈 당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유지들이 돈 모여 가지고 저걸 탐라대 그 학교 부지로 풀라고 허는데, 어떻게 풀아 드립니까, 어떻 습니까, 거기서 이제 돈 자문을, 돈 의논을 한 거라마씨.

@1 으.

#3 허는디 어떤 그 젤 나이 어른분이 허는 말이 소 키우단 디 학생덜 가르치켄 허는디 안 풀 수 었다.

@1 으.

#3 풀아 드리라. 경허연 그때 첨 공시지가에서 조금 더 받아 가지고 이만 원씩, 평당 이만 원씩 받았는데.

@1 예.

#3 거기서 그 사장 허는디 이천 원 더 해서 이만 이천 원씩.

#2 ○○○ 학장, ○○○ 학장.

#3 그 이만 이천 원씩 받아서 그때 이십, 이십이억 받았구나.

@1 으, 으.

#3 이십이억 받아서 이백삼십오 명 조합원한테 육백오십만 원씩.  
 @1 해봐야 육백오십만 원. (웃음)  
 #3 그 당시에 육백 폴아주마는 자가용 하나라.  
 @1 아.  
 #2 으, 큰돈인데.  
 #3 큰 돈이었수다 그 당시에.  
 #2 또 우린 세금 추정 당혈까봐 우린 오 억을 따로 놔둬놓고.  
 @1 으.  
 #3 경허연.  
 #2 부락 자생단체마다.  
 #3 그 그런 일이 잇었고.  
 #2 이천만 원씩.  
 @1 또 주고.  
 #2 부락에 더 드리고 그.  
 #3 예, 그런 일이 있어, 전 그렇게 그런 격, 그런 고통을 받았수다.  
 #2 또 우리 공동목장이 기억도 납니다. 이 땅도 우리가 일 억 주난 산 거라.  
 @1 아.  
 #2 우리 아, 목장에서 안 줬으면, 이 돈 일 억 안 줬으면 이 땅 못 샀어.  
 @1 으.  
 #2 게 지금 부민들이 몰라. 목장에서 쉼 키우는 사람만 뭐 돈 벌엄저 해도.  
 @1 으.  
 #2 이런 우리가 부락에 기여헌 사실을.  
 @1 으.  
 #2 우리 목장 관리하면서도 목장 팔 때 목장 조합에서 부락에도 다 자생단체도 돈 주곡.  
 @1 으.  
 #2 또 부락에 돈 없을 때 일 억 회사해서 이거, 이거. 이 땅 사고.  
 #3 일 억만 회사헌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2 이거 나가 직접 줬수게게.  
 #3 이 건축혈라고 허니까, 우리.  
 #2 게난 돈이 엄청 많이 준 거주게.  
 #3 우리 공동목장에서 혼 삼 억 이상 이디 투자했수다.  
 #2 예, 예, 예, 예.  
 @1 으.  
 #2 게난 이게.  
 #3 여유 이신 돈은 다 이레 드려 버리니까게.  
 #2 조상, 조상.  
 @1 어쨌든 뭐 공동목장은 마을 저기니까예. 조합원 그, 조합원들 겨우파? 마을 겨우파?  
 #3 조합원, 조합원.

@1 아.  
 #2 우린 조합원.  
 #3 이백오십 명 조합원이우다, 지금.  
 @1 어, 계난 어쨌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허니까 딱 조합원끼리.  
 #3 예.  
 @1 하고, 여기고 상사, 상.  
 #2 향사?  
 @1 아니 한 사람씩만 저기를 해? 집안마다?  
 #3 예.  
 #2 예, 예, 예. 저, 매도 매수 못 허곡.  
 @1 매도, 매수 못 허고예?  
 #2 타인에게.  
 #3 저, 공동명의로 안 돼는 거냐?  
 #2 안 될 거지.  
 #3 형제간이도 안 돼?  
 #2 예, 계난 아게 공동명의로 된다 안 된다 엇곡 어쨌든.  
 #3 공동명의로 헐 순 잇는 거 아니라.  
 #2 그거, 그.  
 @1 한 집안에 하나, 어쨌든.  
 #2 예, 한 집안에 하나. 장, 장자 우선으로 한다 해도 그 형제끼리 이젠 조합원 이전 허젠 헤민 도장 받아야지.  
 @1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은 딸도 하나만 나는 세상인데.  
 @2 (웃음)  
 @1 예? 그다음엔 딸안티 줘알 거 아니우파?  
 #2 줘야주.  
 @1 예, 어쨌든 한 집안 가게에서.  
 #2 예, 예.  
 @1 이렇게 물려주는.  
 #3 우리 조합원 중에 딸만 이신 사람 누게니? (웃음) ○○로구나.  
 #2 양?  
 #3 ○○○○구나.  
 #2 아니, 계난 그 막음이주게. 딸 주고프민 딸 줄 거.  
 #3 아니 짚쨌 계난.  
 #2 양자 들고 스춘 주고프민 스춘 줘볼 거. 산 사람 막음이주.  
 #3 아니 게 막음이주만은 현재 우리 축주 중에는 딸만 이신 디가 가이 뿐이지?  
 #2 예, 예.  
 @1 으. 겨난, 그런 저기도 잇일 거라예.  
 #3 참, 여자 권위 시대가 이렇게도 강해져 불언. (웃음)



(이하 생략)

### 약돌이

@1 이거, 이거, 저기 도시락 담는 그거 약돌이.

#1 약돌이. (웃음)

@1 예, 약돌이.

#1 약돌이.

@1 예. 도시락 담양 당기는 거예?

#1 예.

@1 이것도 새로 그거 생각허명 멘든 거네?

#1 아니, 이.

@1 삼춘 썬 거?

#1 썬 게 아니고 나가 이 멘든 겨우다게.

@1 멘든 거지예?

#1 예. 지금사 멘든 겨우다게. 이진 솔직한 말로 이게 쫄찰디라면 이.

@1 으.

#1 이, 톡허게 담양.

@1 예.

#1 경혜근예.

@2 지게도 잇네?

@1 으.

#1 맞춰근예 톡허게 질 거 아니우파?

@1 으.

#1 이게, 이거 고지 텅길 때이, 옛날.

@1 고지. 옛날 썬 보레 텅길 때.

#1 썬 보레 텅길 때 영 행 텅겜수다.

@1 예.

#1 (웃음)

@1 (웃음) 삼춘, 삼춘, 저, 동, 동고량이 엇구나. 밥차롱.

#1 예.

@1 밥차롱 낱 들렁멩기는 건데.

#1 여기에 향고 담고.

@1 예.

#1 저, 뭐 대장통에 장 담곡 뭐 쫄찰리 담곡 허여, 뭐.

@1 으.

#1 미숫궂루나 허영 담곡 허영은예.

@1 예.

#1 그계.

@1 계난, 그것도 잇고. 멩에도 잇고.

@2 (웃음) 아이고.

#1 이게 멩에마썸.

@1 아이고, 삼춘, 멩에.

@2 아이고.

### 멍에

@1 이거 같이. 멩에. (중략) 아이고, 지게도 옛날 식으로 그대로 다 멘들앗네.

#1 예. (웃음)

@1 옛날 식으로 다 멘들앗네.

@2 이쪽으로.

@1 뱃은 잇꼭 보섭이 엇네.

#1 보섭이 엇수다.

@1 예. 보섭이 없네.

#1 보섭은 엇수다.

@1 잠, 잠깐만예, 삼춘. 이렇게 하면.

@2 토라전, 약간. 아이고, 아고. 뭐 나무 뜯어젼는데, 그거, 예. 낭.

@1 아고, 아고.

@2 자, 이제 이름을 하나씩.

@1 으.

@2 실물을 보면서.

@1 으.

@2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잠대

@1 자, 이제. 삼춘, 이렇게 하면 이 큰 낭이 뭐우짜? 이렇게 길게 댜 게.

#1 이거 성에.

@1 성에. 이렇게 영 댜 거는, 이거는?

#1 뭉클.

@1 뭉클.

@2 뭉클.

@1 그다음 이거는?

#1 설칫.

@1 설칫, 이거는?

#1 거 호령뭇, 췌.

@1 호령뭇, 그다음에 이거는 뭐우짜? 이 아까 긴 대.

#1 뱃틀레망땡이.

@1 뱃틀, 뱃틀레망땡이.

#1 예.  
 @1 이거는?  
 #1 그거.  
 @1 양쪽에 두 개.  
 #1 벤틀레못.  
 @1 벤틀레못.  
 #1 예.  
 @1 이거 망뎡이. 이거는?  
 #1 예?  
 @1 요, 여기 옆에 저기 설치에 이렇게 낀 거.  
 #1 이게 이.  
 @1 예.  
 #1 아, 이거?  
 @1 으.  
 #1 이건 이 저 이게 친이 땃이까, 낭까기 꺼뀐 역불로 현 거 아니우파, 예.  
 @1 아. 담은 거.  
 #1 어, 요거.  
 @1 벤틀, 벤틀예?  
 #1 예, 예. 이건.  
 @1 이건 뭐?  
 #1 벤틀.  
 @1 벤틀. 요기 벤틀 뒤에 보면은.  
 #1 요거, 요거 벤틀공쟁이. (웃음)  
 @1 아, 앞에 벤틀공쟁이.  
 #1 예.  
 @1 이게 벤틀공쟁이.  
 #1 예.  
 @1 그다음에.  
 @2 벤틀렌 어느 거마씨?  
 @1 벤틀레망뎡이.  
 #1 이거.  
 @2 망뎡이 말고 벤틀레.  
 #1 벤틀레.  
 @2 어느 게 틀레?  
 @1 요거, 요거.  
 @2 아까.  
 #1 벤틀레.  
 @1 벤틀레.

#1 예.  
 @2 아, 이게 벳틀레.  
 @1 벳을 이렇게 트는 거 같애, 벳틀레.  
 #1 예.  
 @2 으.  
 @1 벳친에다가.  
 #1 예, 요.  
 @1 예.  
 #1 벳칼.  
 @2 벳칼.  
 @1 이거 벳칼은 이걸 나중에 흑 허는 거예?  
 #1 예, 이거 저 이.  
 @1 벳칼은 흑 터는 거.  
 #1 흑 부뜨민 시끄는 거. (웃음)  
 @1 아. 이거는 따로 이거 벳칼은. 따로 짚어주세요.  
 @2 주걱처럼 생겼네.  
 @1 으. 벳칼. 이거는 아까 벳틀레.  
 #1 예.  
 @1 벳틀레 이걸.  
 #1 어?  
 @1 낭땡이.  
 #1 예.  
 @2 이걸 뭐 하는 거마씨? 낭땡인.  
 #1 아, 이거는, 이거 거시기 행은에 흑이 자꾸 넘어.  
 @2 으.  
 #1 이디 보십 찰르꼭 헤여근에 밧을 갈아가민 벳이 이쪽으로만 넘어올랴고 험니다게.  
 @1 예.  
 @2 예.  
 #1 경허니까 이걸로 영 험 찰러 가지고서 영 험 저레 흑 넘질 못허게 일로.  
 @1 아.  
 #1 영헤근에.  
 @2 예.  
 #1 이거 무꾼 겹니다.  
 @1 아.  
 #1 영 행.  
 @2 끈으로 행 무꿍니까?  
 #1 예.  
 @1 게난 이게 그 흑들 저기, 저, 뭐 못허게.

#1 영 해근에 허민은.  
 @1 예.  
 #1 이거 힘으로 이게 벅이 이레 넘어오질 아녀마씨.  
 @1 아.  
 @2 예, 예.  
 @1 게난 벅을 받쳐주는 받, 벅받침이구나? 이게예.  
 #1 예.  
 @1 벅받침.  
 #1 벅, 예, 벅.  
 @1 으.  
 #1 벅, 게난 벅틀레, 벅틀레망뎡이. 벅틀레.  
 @2 벅틀레망뎡이.  
 #1 예. 벅공쟁이.  
 @1 벅공쟁이, 예. 벅을 영 공, 영 해주는 거.  
 #1 예.  
 @1 이진?  
 #1 양줏머리.  
 @1 양줏머리. 저 앞에 이거는 무시저우파?  
 #1 들벵이쁠.  
 @1 들벵이쁠. 이거에다가 그 저기.  
 #1 예. (웃음)  
 @1 멩에, 오리목줄 연결허는 거.  
 @2 오리목줄, 이제 가보겟습니다.  
 @1 으.  
 @2 자, 바닥에 놓구요.(준비)

### 멩에

@1 (웃음) 아이고, 그래도 잘도 잘 보관헨 놔뒀수다.  
 #1 아하, 이디 이진 엇수다양.  
 @1 예, 예, 예. 오리목 저기는 없네. 버을레 이거. 으.  
 #1 이거, 버을레.  
 @4 어느게 버을레야?  
 @1 이거, 이거, 이거 버을레.  
 @4 아.  
 #1 버을레예.  
 @1 여기 오리목줄 이렇게 해서. 삼각형.  
 #1 예, 예. 이게 이수다.  
 @1 예, 삼각형 행 오리목하는 거고.

#1 예, 예.  
 @1 베틀레. 이진 무시겨우짜?  
 #1 솜비줄.  
 @1 솜비줄.  
 #1 으.  
 @1 이거 솜비줄은 무시걸로 현 겨우짜? 막 천으로 헛저, 나중예.  
 #1 아, 이거, 이거, 이거 중간예 이거 뭐 거시기 현 겨난예 그자 너덜으로나 현 거 아니우  
 다게.  
 @1 예, 예, 예. 그다음예.  
 #1 요건 접게.  
 @1 접게.  
 #1 멍예.  
 @1 멍예.  
 #1 예.  
 @1 게난 이게 솜비줄 헤 갖고 쪽 메는 거고예?  
 #1 예.  
 @1 이진 뭐우짜? 이거.  
 #1 아.  
 @1 아.  
 #1 이게 그, 그 거시기 이제.  
 @1 이 접, 접게가 이거 무신 낭, 윤노리낭인가?  
 #1 예, 예.  
 @1 으.  
 #1 이게 이거 어디 다, 요건 가슴걸이 메난 거고.  
 @1 아, 이진 가슴걸이 메난 저기구나.  
 #1 으, 요게 어디 저 잘못뉼 거 닳은디. 이것도 나 허단 게 아니라 이거 누게 헛단 거.  
 @1 예.  
 #1 (웃음)  
 @1 거 보관허기 위해서 저기 헛구나, 예?  
 #1 허단 거 이거 말앙 돈 들연 사왓수다.  
 @1 아이고, 아, 이거 부림페영 가린석 헤난 거네? 이진. 이거 손, 손잡이 잇는 거 보니까.  
 #1 이거 어디 등테 메난 거 닳수다.  
 #4 이진 가슴걸이 아니우짜?  
 @1 이진 가슴걸이이고.  
 #4 아니, 아니. 저거.  
 @1 이거는 여기 배에 저기 헤난 거 닳다? 요, 요, 요기 여기 철사 잇수다.  
 #1 영헛 저거 등테 메난 거 닳수다.  
 @1 등테, 등꺽줄?

#1 예.  
 @1 아.  
 #1 쉼 등땡이 해근에 이거.  
 @1 예, 예, 예, 예, 예.  
 #1 영 해난 거 답수다.  
 @1 아.  
 #1 (웃음)  
 @1 아, 등땡이 해난 거고예?  
 #1 예.  
 @1 이걸 삼춘, 저기 이걸 뭐 해난 거 닮아? 가린석 이런 석 닮아.  
 #1 예, 예. 가린석.  
 #4 혼 짹.  
 #1 부림페 가린석이엔 허는데.  
 @1 부림페허곡 오른쪽 거는.  
 #1 오른쪽 거는 부림페.  
 @1 부림페.  
 #1 왼쪽 거는 가린석.  
 @1 가린석, 예.  
 #1 (웃음)  
 @1 보통 이게 오른쪽합니까? 이 손에.  
 #1 예, 예.  
 @1 예, 요것도 같이, 같이 넣어서 같이.  
 #1 건 가슴같이.  
 @1 가슴같이. 어, 어. 그렇게 놔서 같이. 이렇게 같이 찍어 놓면.  
 #1 (웃음)





## 4.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목축 문화 구술 1

- 조사 일시: 2020. 11. 19.
- 조사 장소: 수망리 복지회관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부영심 @4 김영란
- 제보자: #1 김창언 #2 김두생

### 쉐 질루기

@1 그 예전에 소부떠 굴으쿠다예.

#1 예.

@1 쉐는 어떻 질좌신고마씨?

#1 소야 뭐 우리 뭐 하르버지 때 뭐 그전에서 그전부터 이렇게 쭈욱 허게 내려오면서 길, 길왔는데. 그때는 뭐 이 소 길루는 목적이 물론, 소 팔면은 큰돈도 돼지만은 이 그택에는[그 때게는] 이 육십 년대 이 중반까지만 해도 이 비료가 흔허질 았앗습니다게.

@1 예.

#1 켜, 소 거름용으로, 농사지을려면 소는 주체적으로 거, 거름도 돼고 농사 밧도 갈고 밧, 밧 블리기도 허고 이러.

@1 으, 으.

#1 부수적으로 잇어야 돼는 그런 가축입니다게.

@1 예, 게믄 육십 년대를 고비로 행은엥에 이전에는 거의 전통식으로 농사를 지은 거라 예?

#1 예, 예, 예예. 농사지을려면 거름용으로도 많이.

@1 예, 게믄 육십 년대는 집에 소는 멧 머리나 질룬 거라마씨?

#1 그러는, 그때는 우리 그 수망 그 어, 리민들이 소, 가축, 이 소 안 길루는 사름, 별로 았어났수다.

@1 으.

#1 뭐 한 그때는 팔구십 호 뵈는데. 멧 마리씩은 다 길뤄서마씨.

@1 음.

#1 혼자 사는 분도 길르곡, 예 어쩔 수 았어, 그때는 거름용으로, 거름, 거름을 쓰기 위해 서도 기르고 또 돈 그 뭐 소, 소나 아니면 돼지나 닭을 길러야만이 거 팔아 갖고 학비도 자 금허고 쌀도 사오고. 여기는 이, 저 웃드르니까 저, 그런 저 농사가예, 해변만큼 잘 안 돼니까.

@1 예.

#1 저, 옛날 쌀은 켜장히 귀헛습니다게.

@1 예. 수망리는데?

#1 예, 예.

@1 계난 여기는 땅이 막 뜬땅이구나예?

#1 예, 예.

@1 아, 뜬땅이고, 계난 그 당시에 삼춘네 집엔 쉼 뗏 머리카 질뿔십디가?

#1 아, 보통 우리도 혼 열 므리 이상은, 열 한 열 다섯 마리, 말이 많이 우린, 아까도 애 기헛잖습니까?

@1 예, 예.

#1 말, 말이 많이 뿔 말, 만헛 때는 우리도 한 오십 두.

@1 예,

#1 이렇게.

### 췌 종류

@1 계믄 그 이제 그 소 헛 다음에 뿔 헛 거라예. 그 소도 옛날에 그 종류들 잇지예? 뿔.

#1 예, 잇습니다.

@1 남자 췌는 뿔헛 불뿔수과? 이 동네서는.

#1 암췌.

@1 암, 여자 췌가 암췌.

#1 예, 암췌. 남자 췌는 숫췌.

@1 숫췌?

#1 으.

@1 숫췌 말고도 또 다른 말로도 곤지 안헛니까? 부.

#2 부랭이.

@1 부랭이.

#1 부랭이. 어, 예, 어, 부랭이.

@1 부랭이에.

#1 부랭이.

@1 부랭이.

#1 아, 잘 아시네.

@1 이 색깔에 파랑도 이름 뿔나지예?

#1 어, 그렇습니다. 이 뿔, 뿔. 이 뿔, 이 저 머리 부분에 흰털이 잡히면은 그거, 그거, 그 거는 뿔, 뿔엔 허.

#2 태성뿔이, 태성뿔이.

#1 뿔헛 허나? (웃음)

#2 태성뿔이. 태성뿔이.

#1 어, 태성뿔이.

@1 계믄 우리 회장님한테 먼저 곶으쿠다. 췌 종류, 아까 암췌 잇고.

#1 부랭이 잇고.(전화벨 소리)

#2 거, 암늑은, 암늑은 암췌엔 허곡.

@1 으.  
 #2 암췌.  
 @1 암췌.  
 #2 암소가 아니고 암췌엔 허곡.  
 @1 예.  
 #2 수놈은 그 좀 어린 췌는, 어린 췌는 부랭이.  
 @1 예.  
 #2 또 쫌 나이 들곡게 밧 갈곡 이런 췌는 밧갈췌.  
 @1 예, 맞수다.  
 #2 그렇게 해야 댐 거, 밧갈췌.  
 @1 예, 밧갈췌.  
 #2 으.  
 @1 그리고.  
 #2 부랭인 어린 거고. (웃음)  
 @1 부랭인 어린 거고. 근데 요즘 그 부랭이 어려도예, 그냥 솧췌를 통칭헤 갓고 경 곶아  
 불잡아예?  
 #2 예, 통, 통칭헿. 그 야튼 전체적인 이름은 솧놈이고게. 솧놈.  
 @1 예.  
 #2 솧췌.  
 @1 솧췌.  
 #2 으.  
 @1 게니까 보통 부랭이 헷을 때는 어린 곶.  
 #2 쫌쫌 어린 거는 부랭이고.  
 @1 예, 크면 밧갈췌.  
 #2 쫌 저 한 네 살쫌, 이렇게 세 살, 네 살 뉘야 밧을 가르쳐 가지고 밧도 곶고 이렇게  
 허니까, 헷고. 혼두 살짜리는 진짜 부랭이, 건 놀레, 놀기만 허는 거고. 먹고 놀고. (웃음)

## 췌 이름

@1 예. 그 털 색깔에 따랑도 저기 불르는 일름 잇지예?  
 #2 털 색깔 아까, 아까 이야기허는 식으로 이 저 흰털, 만약에 꺾은췌에 흰털 박은 이마에  
 곶은 데나 이렇게.  
 @1 으.  
 #2 그 흰털 박힌 거는 태성백이라고 그래요, 태성백이.  
 @1 태성백이.  
 #2 예, 태성백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 저 우리 사삼사건 후에는 한 거의 육십 년도에 거  
 췌 질룰 때는 꼭 이, 저 제주 그, 옛날에는 토종췌만 질랏주만은 뉘 그 소 쫌 빨리 크곡 뉘  
 허는 소들이 잇어요, 뉘.  
 @1 예.

#2 브라마여 뭐, 뭐 이거 왜국 그, 왜국에서 수입해다가도 많이 키웠어요, 여기서.

@1 예. 그.

#2 요즘, 요즘은 거즘 다 한운데.

@1 요즘은 다 한우예?

#2 어, 어.

@1 예.

#2 그전에는 뭐 거즘 다 잡우, 잡우.

@1 옛날은 잡우.

#2 잡우.

@1 어, 육십년 대 이후에는.

#2 예, 예. 육십 년도나 칠십 년대까지는 잡우.

### 뿔 이름

@1 예, 그다음에 뿔에 파랑도 이름 저기 불르는 게 땃나지예? 영 뿔이 뒤로 영 갖혀진 것도 있고.

#2 잔독뿔이.

@1 예?

#1 뒤로 갖혀진 것은 잔독뿔이라고.

@1 예? 잔독뿔이.

#1 예, 예.

@1 그다음 영 올라간 건마씨?

#1 뭐 올라간 거는 몰르겠습니다. 거는.

@1 예, 건 모르고, 뒤로 현 거는 잔독뿔이고.

#1 예.

@1 그다음 췌뿔도 이렇게 가고 영 뿔 것도 이십니까?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영 현 거?

#1 어, 거는.

#2 꼭같으지 아년 소들이 잇긴 잇어요.

@1 예.

#1 이, 이 대부분이 육지에서 나오는 소는 이렇게, 이렇게. 하난 올라가고 하난 내려가고 허는 소도 잇는데.

@1 예.

#1 제주도는데.

@1 예.

#1 거 두 개다 거의 다 뭐,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뒤로 올라가거나.

@1 으.

#1 뒤로 영 제껴지거나.

@1 으.

#1 뭐 그런 소지, 그렇게 차이가 크게, 그렇게 나진 않습니다.

@1 아, 나지는 안허고예.

#2 육지 소, 가보니까 육짓소들은 그렇게 많이 합니다.

@1 우알로 영 행.

#2 예.

@1 그, 여기 그 저 뭐냐 검은쉐도 질랏수과? 여기.

#2 예, 검은쉐도 많이 질랏주, 예.

#1 검은쉐도.

#2 검은쉐 많이 질랏어요, 옛날에는.

@1 옛날에예?

#2 거 검은소 옛날 제주 토백이라, 토백이. 토종이라, 토종.

@1 토종예?

#2 예.

@1 거난 옛날 조선시대 검은쉐 진상허고.

#2 그렇지.

@1 허엿잖아예?

#2 지금도 거 흑소 뭐 허는데 옛날에 돼지도 흑돼지, 소도 흑소.

@1 제주도 토종으로.

#2 예.

### 쉐 질루는 목적

@1 음. 이렇게 이제 하고, 게난 쉐 질랑은 아까 걸름허는 것도 목적이랏주만은, 쉐 질루는 주요 목적은 또 뭐우파? 삼춘.

#2 주, 주 목적이 뭇데, 거 건 물론 그 옛날에 돈이 귀허니까.

@1 예.

#2 이 소를, 소를 키와, 소 같은 거, 돼지 같은 거 키와서 팔면은 목돈이 댜니까.

@1 예.

#2 그자 소는 키우면은 현찰이나 마찬가지로야.

@1 으. 게난 이 수망이 땅이 나쁘니까 목축을 옛날부터 하영 헛구나예? 쉐 질루거나 도새기 질루거나 예, 득 질루거나 요런 것들을 하영 헛구나?

#2 예.

@1 돌이영.

#2 그거는 집마다 그걸로 해서 뭐 거 용돈도 쓰고 야튼, 아이덜 학비도 하고. 농사, 농사 해서 뭐 팔아 가지고 헛 거는 뭐 내중에 한 칠십 년부터 해 가지고 뭐 이 저 고구마뻬테기 같은 거, 이 무우말랭이 같은 거 만들어서 거 돈을 벌어서 저 뭐 용돈을 켜지, 그전에는예, 농사만 헛 때는 농사해서, 농사가 여기 잘 안 댜요. 땅이, 흑, 검은흑 땅이라서 안 댜 가지고.

@1 응, 게몬 농사, 우리 밥 먹으는 쓸은 어떤 농사 지엿수과? 여기는.

#2 보리.

@1 보리.  
 #2 조.  
 @1 으.  
 #1 여기가 젤 잘 되는 것이 고구마.  
 @1 예.  
 #1 무우.  
 @1 예.  
 #1 무우, 무우말랭이 같은 거 잊지 않습니까예? 고구마 뭐, 옛날은 뺏데기.  
 @1 예.  
 #1 뭐 그런 거 고구마 말린 거, 여기 썰어서 말린 거.  
 @1 으.  
 #1 그런 거는 여기가 잘 뻗습니다.  
 @1 근데 보리, 조 이런 것들은 안 뻗구나예?  
 #1 아이, 것도 뻗기는 뻗주만은 아무래도 여기는.  
 #2 어쨌든 간에 안 뻗어도 그걸로 식생활을 그걸로 했습니다.  
 @1 예. 그래서 감저 낡은에 밥행 먹는 것들 하영 힌 거구나.  
 #2 예.  
 @1 예, 게문 췌는 밧갈 때는 여긴 돌로 갑니까? 췌로 갑니까? 이 동네는.  
 #2 소로도 갈곡 말로도 갈곡, 뭐.  
 @1 삼춘네는 무신걸로 갈안마씨? 밧갈 때.  
 #1 아, 밧갈췌는 옛날에는 뭐 아까 뭐 부랭이.  
 @1 으.  
 #1 밧 가는 부랭이, 뭐 이 저 암소도 갈고, 새끼 내우고. 뭐 이렇게 해서 암소도 갈곡 헛주만은, 이 밧, 아까도 저, 아까 얘기 헛잖습니까? 거름용으로 많이 헛고.  
 @1 예.  
 #1 옛날엔 그 우리가 그 소 엇인 사름은 여기 반작소라고 해 갖고.  
 @1 반작소.  
 #1 어.  
 @1 예.  
 #1 뭐 새끼 나면은 반쪽 가져오고 소 임자가 반쪽 이렇게 가져가고.  
 @1 으.  
 #1 그렇게 해서 만약에 두 마리를 키, 두 마리를 갖다가 키우게 뉘면은 한 머리씩 이거 임자하고 이렇게 나누는 형식도 많이 헛고.  
 @1 게문 반작췌 헛 때는 누게가 먼저 가져마씨?  
 #1 아, 그거는 서로 서로 합의해서.  
 @1 예.  
 #1 어, 반쪽 돈 내놓고 뭐 사는 수도 있고.  
 @1 으.

#1 소 입자한티 뭐 파는 수도 있고.

@1 으.

#1 어, 반작소를 그, 그렇게 많이 해서. 옛날,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 사료들, 배합 사료들이 많이 주고 이렇게 소를 키우지 않습니까?

@1 예.

#1 젠디 옛날에는 이 풀만 주고 키웠습시다게.

@1 예.

#1 뭐 풀 베다가. 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 예.

#1 게, 거름 쓰고 돈 들어가는 거 었고, 소 팔면 돈이고. 그래서 옛날 축산이 좋았던 것 같애요.

@1 으, 게문 이 수망은 축산이 주라났구나예? 웃드르 이렇게 해서예?

#1 수망리는 지역상으로 뼤을 댁에는 물영아리도 잇주만은 아주 그 우에니까.

@1 예.

#1 이 해벤이는 출 해도 이렇게 바람이, 켜장히 많이 이, 여기는 따뜻헌 지역이고.

@1 음.

#1 이 해변 쪽으로는 바람이 너무 불어 갖고 출, 이 소가 흐뭇 먹이, 그 출을 비어도 소들이 잘 안 먹어마씨.

@1 아.

#1 어, 게, 이 땅이 좋은 디는 농사짓고 이 돌이나 많고 허는 디는 출로 비었는데, 출이 잘 뒤 아녀. 비료도 안 허니까 뒤지덜 앓고.

@1 예.

#2 이 허지만은 이 웃드른 산에서 그 소들을 많이 방목허고 이렇게 하는 지역이라, 이 출 비면은 출이 연하고. 옛날엔 방엿볼도 이렇게 많이, 화입을 많이 해서 방엿볼도 많이 부엿엇고 허니까.

@1 예.

#2 출이 켜장히 좋앗으니까, 해변 사름덜토.

@1 예.

#2 대부분 자기 집 주위에 잇는 그 풀보다 이쪽, 이 영아리쪽에 와서 풀을 베다가 소 주면은 소도 살찌고. 또 영양 가치가 잇으니까 살찌는 거 아니겄습니까예?

## 쉐 ㄹ리치기

@1 예. 게난 이, 이쪽 영아리 중심으로 행은에 하고예. 그다음에 아까 뵤갈젠 허면 쉼 질 들여야잖아예?

#1 예.

@1 쉼 ㄹ리치는 거.

#1 예.

@1 여기는 소 ㄹ르친텐 험니까? 질들인텐 험니까?

#2 쉼 ㄹ리치는 거마씨.

@1 쉼 ㄹ리치는 거.

#2 예.

@1 쉼은 어떻 ㄹ리칩니까? 건 우리 회장님이 돌아옵서?

#2 한 서, 두 살에, 한 세 살쯤 돼면은.

@1 예.

#2 요즘은 두 살만 돼면은 소가 클만이 다 커 버리는데, 옛날은 그렇게 크들 못했어요.

@1 음.

#2 이 저 목초만 댁여 놓니까, 뭐 사료 같은 거 이런 걸 댁여야 소도 크꼭 뭐 하는데. 그 마른 풀만 댁여, 댁이고 뭐 탄 거, 무신 곡류 같은 거는 댁일 것이 없어 놓니까, 빨리 크들 못혀요, 이제. 건 한 세 살쯤 돼면은 그 대부분의 소를 가리키는데, 그 소를 질을 들일라면은 밧 같은 걸 갈라면은 혼자는 안 돼잖아요.

@1 예, 예.

#2 게난 혼 사름은 두에서 장기 잡고, 한 사람 그 소를 그 끌어주는 사름이 잇어야 돼요.

@1 예. 그렇게 소 끄는 사름은 뉘렌 곁읍니까? 제주돏말로 다 곁아춰도 돼예? 예.

#2 아, 쉼, 쉼 이끄는 사름이렌 허여, 이끄는 사름.

@1 이끄는 사름예.

#2 어, 이끄는 사름. 쉼 이끌어 텅기는 사름ㄹ라, 게난 쉼 이끄는 사람, 밧 가는 사람, 밧 ㄹ리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쓰는데.

@1 예. 게근예.

#2 앞에, 앞에 저, 쉼, 쉼을 그 바로 쉼, 앞에서 한 사름이 배를, 소를 바로 세워주지 았으면은 이디저디 가버리니까.

@1 예, 예.

#2 하튼 그 거보고는 쉼 이끄는 사름이렌 허곡.

@1 예.

#2 뉘에서 잠대 잡은 사름은 밧 가는 사람.

@1 으.

#2 이렇게 이야기헸고. 그.

@1 쉼 ㄹ리칠 때?

#2 꼭 세. 으. 쉼만 그렇게 헸 것도 아니고 내중엔 말.

@1 예.

#2 말 가르쳐 가지고 말로 마차.

@1 으.

#2 그 옛날엔 마차 주장이니까.

@ 응, 여기 수망리도 마차.

#2 운반, 운반, 운반. 운반 과정은 옛날 지게, 지게로 안 지면은.

@1 예.

#2 지게로 아튼 가까운 데는 거즘 다 지게로 하고.



@1 예.

#2 거, 거리 먼 데. 뭐 출 같은 거 운반할라면은 꼭 마차가 필요하니까. 계난 말로 마차도 하고 밧도 같고.

@1 으.

#2 소도 그렇고.

@1 소도.

#2 소도 뭐 밧도 같고 마차도 하고.

@1 응, 계난 여기는 그 마차를 옛날에 바레기렌 해낫수과? 혹시. 바레기?

#2 바레기엔도 허곡 구루마엔도 허곡. (웃음)

@1 구루마엔도 허곡.

#2 뭐 그 저, 거 문딱 일본말인데.

### 쉐 나이

@1 예. 그다음에 쉐 혼 슬, 나이 허는 이름들도 잇어예? 혼 슬 허민 뭐 금싱이여, 뭐 이 런?

#2 금싱. 두 살은 다간.

@1 예.

#2 세 살은 삼수.

#1 사릅, 사릅, 사릅.

@1 아, 사릅.

#2 (웃음)

@1 소는 사릅.

#2 나릅.

#1 나릅.

@1 그다음.

#1 거, 거, 거까지.

#2 다습, 다섯 살은 다습.

@1 다습.

#1 예,

#2 으습.

@1 으습.

#2 거, 옛날 그 저 하나, 둘 세는.

@1 으.

#2 그, 그 사투리 그대로 써마씨.

@1 그니까. 계몬 혼 슬부터 한번 쭉 세어 봅서.

#2 어, 금승.

@1 으.

#2 다간, 사릅, 나릅, 다습, 으습.

@1 일곱 술은?

#2 이게, 일곱 술은 일곱에. 일곱이엔 행은에 \*\*.

@1 으.

#2 그런 식으로 허.

@1 예. 췌는 멧 살까지 산텐 험니까?

#1 뭐 옛날 이렇게 보면은 뭐, 어 혼 십오 년까지는 새끼 낳고 뭐 산다 그러고. 옛날에는 특이한 것이 뭐냐 허면은 이, 소 연령을 지을 때도.

@1 예.

#1 뭐, 꼭 그 뭐야, 다간이라도 풀나름, 뭐 풀사름. 뭐 풀다간. 이렇게 풀 자를 많이 앞에 다 부쳐 갖고.

@1 예.

#1 새풀 나면은 멧 술이다.

@1 아.

#1 겨, 겨울에는 그런 걸 안 부찌는 디 풀다간이나, 뭐 풀사름이나, 풀나름이나, 이렇게 풀 자를 꼭 많이 사용했던 거 같애예.

@1 아.

#1 예, 옛 옛날에는. 새풀 나면은 멧 살이다.

@1 새풀 나면은 멧 술이다.

#1 어, 어. 멧 살이다.

@1 앞에는 풀을 부쳐서예.

#1 건 완전 옛날 식이죠, 그러니까.

### 췌 ㄹ르치기

@1 예.

#1 그리고 이 밧 가는 것도 그냥 췌, 저 어린 소를 갖다가 이렇게 췌고 다니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밧 갈기, 밧 갈기 전에 하는 그 격식이 있어요.

@1 예, 예.

#1 뭐 나뭇가지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리, 이렇게 허고 뭐, 돌을 끌고 다니면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한 소털이 뭐 마차를 끌거나 밧 갈거나 이리, 이러는 이렇게 저 단련시키기가 췌 쉬워요.

@1 아.(전화벨소리)

#1 그게 사, 췌기를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1 예, 예.

#1 이렇게 나무를 매달고 이렇게 끌고 갖다왔다 허면, 뭐 이 옛날에 차 다이어 갖고 경헛지만은 차 다아아를 끌고 이렇게 갖다왔다 허면서 그렇게 단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1 예. 게든 그 차 다이나나 낭이나 돌로 행은에.

#1 예, 예.

@1 ㄹ리치잖아예?

#1 예.

@1 그때 ㄱ리칠 때는 동넛 질을 험니까, 아니면 ㄲ되서 험니까?

#1 아, ㄲ되서 해야쥬.

@1 아, ㄲ되서.

#1 ㄲ되서.

@1 이 동네에서 ㄱ리, 길에서 ㄱ리치진 안헤 ㄲ수과?

#1 그때덜은 거의가 이렇게 소를 집에서 이렇게 키워서 물도 집에서 먹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1 예, 하천 물을 허니까. 물고 가서 ㅼㅅ여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또 하나씩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ㄲ테 이렇게 빈ㄲ, 빈ㄲ이 잇으면.

@1 예.

#1 풀이 좋은 디 잇으면은 거기도 말뚝을 ㅼㅅ아 갖고 거기서 메고, 메어서 이렇게 헛지.

@1 으.

#1 이, 이렇게 이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는 소는 따로 잇고, ㄲ갈쥬, 뭘 마차 허는 그런 말이나.

@1 으.

#1 이런 것들은 저 그 집 주위에 이렇게 메서 많이 키워습니다게.

@1 아, 거난 집에 일허는 쥬는 집에 잇고.

#1 예.

@1 하영 키우는 거는 목장에 올려 불고.

#1 예, 뭘 때론 뭘 목장에 올라가서 ㄲ갈 때 ㄲ민 뭘 내려오는 수도 잇주만은.

@1 예.

#1 거 귀찮으니까, 아예 저 말, 따로 이렇게 관리허는 사람도 쥬장히 많앗습니다.

@1 아, 관리도 따로 허고예, 예.

#2 목장에 올려, 여름에는 목장에 올리는 수ㅼㅅ에 없으니까게.

@1 예, 농사도 해야 ㄲ고.

#1 여기 게난.

#2 집에선 먹이 줄 것이 엇는데, 먹일 것이 엇는데, 목장에 올라가서 자기대로, 자기가 풀을 그 목장에서 풀을 뜯어먹곡 자기대로 자곡 이렇게 만들어야지.

@1 예.

#2 집에서 키운다는 게 겨울에 어쩔 수 없이 겨울엔.

@1 먹을 게 엇이난.

#2 눈 많이 오고 이렇게 헤 버리면은 목장에 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에서 거 건초를 헤서 옛날에 뭘 출늘엔 헤 가지고 많이 헤 가지고 싸 가지고 그거를 ㅼㅅ이고. 게난 겨울에 한, 한 삼 개월 정도는 집에서 하고. 여름철 나면은 뭘 이 삼월달쥬 나면은 무쥬건, 무쥬건, 목장에 가.

@1 무쥬건 목장에 올리고, 예.

#2 게도 꼭 아까도 이야기헛구나만은 그 ㄲ 가는 소나 말이나 이런 것만.

@1 으.

#2 따로 관리하고, 그 목장에 낫다가 만약에 내일 밭갈소를 오늘 잡, 심어오지 안하면은 널 그 소 좇이레 다니다 보든 밭을 못 가니까, 어쨌든.

@1 예.

#2 집에서 관리해야 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일반 소는 목장에 항상 여름에는.

@1 게른 집에서.

#2 송아지가 나도 뭐 목장에 내 부는 거고.

@1 예, 내 불고. (웃음) 게른 그 집에서 질롤 때는 쉼나 물이나예? 전 어디서 놔마씨?

#1 게, 이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든 옛날은 특이한 것이.

@1 예.

#1 이 아까 회장님도 말씀했지만은 뭐 밭을 갈거나 마차를 끌거나 하는 소들은 이 따로 그 관리를 했는데, 드림(?)을 지어 갖고 동네사름끼리 뭐 혼, 뭐 혼 열 명이나 혼 뭐 이렇게 같은 그 가까운 사름끼리 해서 그 뭐, 그 여깃말로, 옛날 말로 허민 ㄱ꾸레 다닌다고 했지.

@1 예, ㄱ꾸레.

#1 예, 몰고 다니면서 이 저녁 때는 집이 들어오고 여름에도.

@1 예.

#1 여름에 집이 들어가, 아침에 되면 내몰고. 당번 지어 갖고 오늘은 누게네 당번이다 하면은 그거 다 모여 갖고 어디 이제 이동하면서 어디 출, 출이 좋은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그런 것이 기억에 납니다게.

@1 예. 게난 물 ㄱ꾸레도 텅기도 쉼 ㄱ꾸레도 텅기고.

#1 아, 예, 예, 예. 아니, 쉼 ㄱ꾸레는 그, 어 좀 그때는 뭐, 웨 그랫는진 몰라도 저 펜허 게끔 할려고.

@1 예.

#1 밭 갈, 밭 갈거나 마차 끌기 편허게끔, 저녁에 이렇게 가서 소 먹이고, 어떤, 어떤 당번이 맥여서 저녁에 들어오고 아침에는 또 이렇게 또 나가고.

@1 그렇게 허는 것ㄱ라 뭐 번쉼 영 험니까? 여기선?

#1 예, 예, 번기, 그 번기[번끼]라는 것은 목장이 돌아가는 당번을 이렇게 적어 논 것을 번기라고 그러는데.

@1 아.

#1 이 드림 지어서 한다는, 뭐 이 남원 지역에는 수망리뿐이 아니고 남원 지역이나 해변 사름덜도 자기네 집이 있으면서 수, 수망이나 이 우에 부락까지 와서 이렇게 소 맥이고 또 남원까지 내려가고.

@1 예.

#1 뭐 그런, 대부분 다 그랫습니다게. 옛날에는. 마을마다 그런 것이 다 잇엇을 때니까.

@1 예, 예, 예. 잇어마씨.

#2 그 도름 짓엉 ㄱ꾸는 쉼가.

@1 예.

#2 대부분이 이 솟눔.

@1 예.

#2 수놈은, 숫놈은 대부분이 밭도 갈곡 마차도 하고. 그 숫놈은, 옛날에는 그 목장에 만약에 밭 가는 소 같은 거를 목장에 가면은 그 저 암소만 쫓아댕기면서 잘 먹지도 안하고, 살이 더 빠져요, 빠져.

@1 예, 암췌만 쫓앙 다녔.

#1 어, 집에서 일 부리는 소는 좀, 그 따로 관리를 해야 잘 먹고, 그 숫놈은 숫놈끼리 놀아야.

@1 예.

#1 허니까, 그 어떤 거 도름 짓어서, 뭐 도름이라고도 하고 수눌음엔도 허는데.

@1 예.

#2 거 수눌어 가지고 순번 정해서 매일 계난 아침에 뭐 멧 시경에 나갔다가 또 저녁 멧 시 뒤민 들어오곡. 들어와서 거 그 개인마다 대부분에 뭐 한두 머리지, 한, 한 집에.

@1 예, 예.

#2 여러 마리 허는 디는 없으니까, 그 숫놈은 하나, 한 마리 정도지, 뭐.

@1 으, 그 도름 짓영 해갖고 그날 당번 허는 사람을 뒤엔 곶아마씨? 당번 허는 사람을 곤는 이름은 엇수과?

#2 당번은.

#1 췌, 췌 ㄱ꾸는 당번 뒤. 그런, 그런.

#2 아, 낼은, 낼은 누게네 췌 ㄱ꾸레 갈 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길 해 뽤셤 허곡.

@1 아.

#1 누게 당번이라, 췌 ㄱ꾸레 당번이라. 여, 영 허여.

#2 으.

@1 당번이렌예? 예.

#2 특별한 뒤 이름은 엇고.

@1 게믄 그 췌 ㄱ꾸레 갈 때는 혼 멧 갑니까? 두 사람 갑니까?

#1 아이, 한 명도 가고, 두 명도 가고.

@1 아.

#2 소가 많으면은.

@1 으.

#1 소가 많으면은 두 사람씩 짝 지어 갖고 가기도 허고.

#2 숫놈, 숫놈덜 많이 강은 혼자는.

@1 못 허여예?

#2 힘들어서 못헤요.

@1 게믄 멧, 멧 머리 정도 이렇게 가마씨? 그 할 때.

#2 혼 열 머리.

#1 열.

#2 열 마리 미만은 한 사람도 뒤는데 열 마리가 넘으면은 한 사람으로 안 뒤어.

@1 한 사람으로 못허고예, 예.

#2 게고 이놈의 숫놈덜이 그 암놈 어디 하나 비췌당은 다 도망가니까. (웃음) 힘들지, 힘들어.

#1 그, 그때, 그때 말하면은 이것이 밧갈췌 ㄱ꾸레 가는, 밧갈췌주게.

@1 예, 예. 밧갈췌 ㄱ꾸레.

#1 밧가는 뭐, 마차도 뭐 끌었지만은.

@1 예, 예, 예.

#1 이 밧갈췌 ㄱ꾸는.

@1 으.

#1 겹주게.

@1 게난 그 목장에 올리는 거는 암췌를 주로 다 올리는 거잖아예?

#1 예, 예, 예.

#2 응.

@1 목, 목장에는예?

#1 예, 숫, 숫놈덜도 좀 어린 것덜은.

@1 어린 거.

#1 어린 것덜은 가지.

## 밧 갈기

@1 그, 게문 밧 갈젠 허면 밧은 멧 슬에 갈아마씨?

#1 예?

@1 멧 슬부터 밧 갑니까?

#1 거 그 댁에는 아무래도 요즘 뭐.

#2 한 열다섯 살.

#1 혼 나릅 정도. 사릅, 나릅 정도는 뤼야. 두 설, 세 설.

#2 저, 세 살.

#1 네 설은 뤼야.

#2 세 살 이상은 뤼야. 세 살쯤 뤼야 밧 가르치, 키기를 시작을 허여.

@1 아, 세 슬 때, 게난 사릅에.

#2 어, 사릅에.

@1 어, 보통.

#1 못 먹었으니까, 체격이 적어났수다게.

@1 예. 체격, 옛날 토종들은예, 체격.

#2 으, 다간, 다간인 때는 당췌 안 뤼고.

## 잠대

@1 으, 다간은 안 뤼고예. 게문 그 밧 갈젠 허면 옛날 잠대들, 여긴 잠대 험니까? 장기 험니까?

#2 잠대엔도 허곡 장기엔도 허곡 뤼.

@1 어, 잠대엔 허곡. 거 혹시 부분 명칭도 알아지쿠과? 삼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영 뒤통  
예?

#1 양젯머리. (웃음)

@1 예.

#1 나 것도 잊어 불었네.

@1 이렇게. 이거는 양젯머리.

#1 예, 손 잡는 거는.

@1 예. 그다음에 여기 긴 거는 뭘우파?

#2 저거 뭘엔 헌다마는, 저 저 밑엿 건[견] 몽쿨, 장기몽쿨.

@1 장기몽쿨. 여기는? 설칫은 어느 겨우파?

#2 아, 설칫, 설칫은 요 세우는 거이.

@1 여기 설칫 잇고.

#2 그거 설칫이고.

@1 여기.

#2 그거 뭘엔 허나마는, 잊어 불었네.

@1 잊어 불언. 밧, 밧 뗏 년.

#1 알아진 것만 험서게.

@1 언제까지 밧 갑디가? 제난에.

#2 밧 언제꺼지 갈앗냐고?

@1 으.

#2 아, 우리야 밧.

@1 쉼나 물로. 밧 간 거. 한 팔십 년대까진 갈지 안헤시카마씨?

#2 아, 내중까지 팔십년 대ㄱ진 갈앗주.

#1 팔십 년도까진 갈앗어요. 가는 사름덜 잊어났고.

#2 우린 뭘 저 내중에는 소도 안 키우고.

@1 으, 허니까 허고.

#2 허니깐 허고.

@1 이거, 이게 성에우파? 성에.

#1 성에는 장깃성에는 어느 겨우파?

@1 이거.

#2 성에엔 허는가?

@1 장, 장 쟁깃성에.

#2 요게 성엔가?

#1 어.

@1 예, 성에라는 말허지예?

#1 예.

#2 예, 장깃성에.

@1 여긴 아까.

#1 여기 영.

@1 쟁, 쟁 쟁깃성예.

#2 영, 영, 꼬부라진 건 몽쿨.

@1 몽쿨, 이건 아까 장기몽쿨. 여기 밧 가는 거는 무시거라마씨?

#1 버섯.

@1 무시거마씨?

#2 건, 버섯.

@1 버섯.

#1 벧.

#2 벧, 이 우에 건 벧.

@1 벧. 그다음 벧 뒤에 이렇게 영 뭐 벧칼이여 벧바드랭이여 이런 말은.

#2 예, 예. 예, 예.

#1 건, 받치는 거?

#2 으.

#1 벧 받치는 거?

#2 벧 무끄는 것도 있고 된다, 건 벧에 따랑은에 나가는 거니까.

@1 응.

#2 벧, 벧끈이엔 허는가? (웃음) 어쨌든.

@1 어, 벧끈.

#2 벧에 따라 잇는 것이, 거 끈도 있고.

@1 예.

#2 그 벧칼인가 허는 거, 그 저 벧 따끄는 거.

@1 벧 따끄는 거는 벧칼.

#2 으.

@1 예.

#2 벧칼도 있고.

@1 예.

#2 그 벧 무끄는 끈이 잇어요, 끈.

@1 예. 벧끈, 벧친. 예. (전화벨 소리)

## 멍에

@1 그다음에 여기 뭐 그 앞에, 멍에 뒤에예, 오리목하고 연결하는 거?

#1 줄대.

@1 어, 줄대.

#1 줄대.

@1 어, 계난 줄 이거는 췌, 줄 멜 때 줄.

#1 어, 어.

@1 멜 때 줄대 쓰는 거잖아예?



#1 끌고 가게끔 된 거.

@1 예.

#1 또 양옆으로 이렇게 덩기는 거. 부록, 뭐?

@1 부림페.

#1 어, 어. 부림페, 예.

@1 그 삼촌, 부림페라는 말하고 혹시 가린석이라는 말도 들어보디가?

#1 예?

@1 가린석.

#1 어,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다.

@1 삼촌네는 부림페예? 예.

#1 예, 부림페.

@1 췌 그 헐 때.

#1 일로 가곡 일로 가곡.

### 질메

@1 예, 예, 예. 부림페예.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그 예전에 그 짐 실으젠 허면 질메도 해놔지예?

#1 예, 췌질메. 췌질메가지[까지] 뭐, 그런 거.

@1 어.

#1 췌질메가지.

@1 이렇게 허면 이게 저기 췌질메가지[까지].

#1 예.

@1 예, 췌질멧가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가지, 뒷가지 험니까?

#1 예. 앞가지, 뒷가지.

@1 음, 앞가지, 뒷가지. 그다음에 여기 그 췌질메 허젠 허면 등이 아프, 췌 등이 아프지 안험니까예?

#1 예.

@1 그 밑에 뭐 놓니까?

#1 뭐, 도곰?

@1 어.

#1 도곰이엔 허는가? 거 밑에 받칠 때 해십주.

@1 도곰.

#1 으.

@1 도곰 놓고, 도곰 말앙도 영 깔아주는 거, 등테도 놓니까? 등테엔 현 것도 잇수과?

#1 등테엔 현 거는 뭐 잘 모르는.

@1 예, 잘 모르고예?

#1 우리, 우리 세대에는 그 짐 시켜 오는 사람, 질메에 췌질메에 짐 시켜 본 사람 벨로 없을 겁니다.

@1 아.

#1 처음에는 짐 시킬 때는 한쪽에 다섯 단.

@1 예.

#1 요쪽에도 다섯 단, 요쪽에도 다섯 단 아십니까예?

@1 예.

#1 게문 열 단 돼지 앉습니까게.

@1 예.

#1 게 그축허민 또 한쪽에 또 두 번째 이렇게 저 끈으로 조이고 줄로 조이곡 또 그다음에  
는 이중으로 해서 열 단 시꺼예.

@1 예.

#1 한 쪽에 열 단.

@1 열 단.

#1 이렇게 또 다른 쪽에도 열 단 허민 스무 단 아십니까예?

@1 예.

#1 열 단, 열 단 허민 삼십 단이지요.

@1 예.

#1 삼십 단이지예, 아니 다섯 단씩 양쪽에 실을 거난. 그래서 한 바리.

@1 한 바리.

#1 예.

@1 게난 그 출, 출 시킬 때 게문, 이 동네는 출 저기, 한 바리가 저기 서른 단이구나예?

#1 예, 예, 예, 예. 서른 단씩, 다섯 단씩 시끄고.

@1 예.

#1 열 단 시끄곡, 이쪽에도 다섯 단 시꺼, 열 단 시끄고.

@1 으.

#1 한쪽으로 흐 쪽에만 많이 시끄면은 이렇게 소가 기울어지니까.

@1 예.

#1 다섯 단 시끄곡 열 단 시끄곡, 열 단 시끄곡 그렇게.

### 낮과 줍호미

@1 게문 여기는 출 빌 때는 무신 길로 비엿수과?

#1 예?

@1 출 비는 거.

#1 아, 낮으로 비엿쥬, 여기는.

@1 여기는 다.

#1 예, 특이허게.

@1 줍호미로 안헤 뵈디가?

#1 예, 줍호미로도 비엿지만은.

@1 으.

#1 여기, 여기는 그 평지가 많아 갖고 낮으로 비는 거하고 좀호미로 비는 거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듭니다게.

@1 예.

#1 이 뭐 멧 곱 이렇게 하죠, 낮으로.

@1 예, 낮, 낮으로 허는 게. 근데 저 밑굽으로 허는 거는 좀호미가 밋으로 잘 비고예?

#1 예, 예.

## 멍에

@1 예, 그다음에 그 저기 밧 헐 때 멍에예.

#1 예, 멍에.

@1 예.

#1 소.

@1 그 멍에 할, 할 때는 이 멍에도 췌 거하고 물 거하고도 다르지 안헐니까예? 그 췌멍에 허고 물멍에는 딱나지 안헐니까?

#2 췌.

#1 아이.

#2 물은 좁게, 좁게.

#1 아니, 물.

#2 물은 좁게고 멍에는 췌만 허는 거.

@1 아, 멍에는 췌예?

#2 예.

#1 건 목에 거는 거니까.

@1 예, 예, 예, 예.

#1 뭐 췌 목에 이렇게 해서 멍에.

@1 으.

#1 췌 좁게는 그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으.

#2 물, 물.

#1 으, 이렇게.

#2 물에는.

#1 멍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1 내려오는 거는 이제 췌 좁게예. 좁게예. 예. 그다음에 그 멍에 헐 때 이 옆에 줄 잇잖 우짜?

#1 아, 그 그러니까 아까 줄대.

@1 이.

#1 줄대 아까.

@1 이게 줄대라마씨?

#1 멍에에서 영 쪽허게 내려온, 장기까지.

@1 아, 장기까지 내려온.

#1 쟁기 앞부분, 앞부분 잇잖아요, 예?  
 @1 예.  
 #1 앞부분.  
 @1 으.  
 #1 쟁기, 쟁기. 여기까지가 이것은 줄대.  
 @1 여기, 여기 멩에.  
 #1 부름페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부름페.  
 @1 예. 췌, 췌허는 거는 부림페.  
 #1 예.  
 @1 게난 여기는 그 한줄이니 이런 말은 안 쓰는구나예? 그 줄대허는.  
 #1 그런 말은.  
 @1 멩에. 그냥 멩에에 잇는 게 줄대예? 이렇게 두꺼운 거.  
 #1 예, 예, 예.  
 @1 췌 여기 무끄는 거는.  
 #2 두꺼운 건 줄대.  
 @1 으. 췌 머리에 영 해 갖고 하는 거는.  
 #2 부림페.

## 잠대

@1 부림페. 으, 여긴 줄대렌 험구나, 예. 게른 그 잠대 멘들 때는 무신 낭으로 멘들아마 씨?  
 #1 이 솔피낭이 췌 많이 헛습니다, 여기는.  
 @1 잠대헛 때 솔피낭.  
 #1 어, 거.  
 #2 솔피낭, 어, 솔피낭이 웨 그걸 많이 쓰느냐 허면은 이저 몽클 이렇게 꾸부러지는 게.  
 @1 예.  
 #1 거 솔피낭에 많아요. 겨고 나무가 탄탄하고.  
 @1 으.  
 #2 요 몽클 모양으로 영 생긴 게.  
 @1 예.  
 #2 영 구부라정 생긴 게.  
 @1 예, 예.  
 #1 솔피낭이 많애.  
 @1 게른 양주머리 ㄱ튼 것도 솔피낭 허고.  
 #1 아, 그거는.  
 #2 양주머리.  
 #1 아무거나, 아무거나 허고.  
 #2 양주머리는 가벼운 나무로 가벼운 걸로 어쨌든.

@1 으, 계난 젤 중요한 게 몽클.  
 #2 몽클이.  
 @1 썰야.  
 #2 생김새도 딱 그 고비가 맞아야 뒹곡 뒹허니까 그게 제일 힘들고.  
 @1 예.  
 #2 이 곱게 나가는 거는 곧은 나무는 많으니까, 겐디 곧은 나무도 단단한 나무로.  
 @1 으.  
 #2 빨리 썩질 안헤야 뒹니까.  
 @1 예.  
 #2 일단은 경 행 제일 그 솔피낭이 젤.  
 @1 아.  
 #2 잘 썩지도 안 허곡.  
 @1 솔피낭예.  
 #2 몽클 만들기에도 젤 좋고.  
 @1 으.  
 #2 이 성에 가쁜 거 이런 것도 텔, 텔 수 잇으면은 솔피낭으로.  
 @1 성에도 솔피낭으로.  
 #2 어, 어. 빨리 안 썩는 나무로 택해서 허는 거주게. 겐디.  
 @1 이 계난 이 수망리는 꽃들이 하구나예? 고지, 꽃, 꽃자왈 이런 데.  
 #2 예, 예, 예.  
 #1 아이, 예, 꽃이. 꽃이. 꽃이 많이 잇어.  
 #2 이, 저 옛날에는 그 꽃보고 거 치름, 치름 이렇게 헛는데.  
 @1 여기는 치름.  
 #2 치름.  
 @1 음.  
 #1 예, 꽃이엔도 많이 헵니다.  
 @1 꽃이엔도 허고.  
 #2 예, 예. 꽃밭엔도 허고, 치름.  
 @1 치름이엔 헤예?  
 #2 치름.  
 @1 게쁜 치름 허면 거기 만약에 솔피낭 하면 솔피낭치름 영 곱읍니까?  
 #2 아니, 솔피낭만 그, 그런 뒹가 저 많이 뒹 허는 디는 엇고.  
 @1 예.  
 #2 거 찾아뎡기젠 허면 참 힘들고. 그 어느 지역에 거 저, 그 저 뒹야, 한 곤데서만 뒹 허는 것이 아니니까.  
 @1 예.  
 #1 게서 야튼 치름 안네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거 찮.  
 @1 음.

#2 하루 하나 뭐 봉그나마나. (웃음)

@1 계난 치름 안네예?

#1 예.

@1 계믄 이 수망리에서 가는 치름들도 계믄 으라 개가 잇겠네? 어디 치름, 어디 치름 영  
 험니까?

#2 예, 거 지역마다 이름들은 잇주게.

@1 어, 어떤 이름 잇수과? 여기는. 삼춘이 튼내지는 치름.

#2 이 지금 저 상жат.

@1 예.

#2 옛날에, 옛날에는 이, 저 하жат 이, 저 목장 담을.

@1 예.

#2 하жат, 중жат, 상жат 이렇게 허는데 상жат으로 저쪽에는 북쪽에.

@1 예.

#2 상жат으로 북쪽에는 한라산 쪽에.

@1 예.

#2 거기는 전부 치름이라 그러지.

@1 아.

#2 치름이라 그랬고, 또 우리 그 수망리 쪽에는 뭐 마흔이 같은 디 이런 디가 다 치름 안  
 네 다 들어 잇는.

@1 아. 치름이렌 해예?

#2 치름이엔 해낫주.

@1 치름이렌 현 말은 처음 들엄수다.

@2 처음 들으는 거 닐아.

#2 치름, 치름 헛주.

@1 그 수월은 뭐우짜?

#1 예?

@1 수월, 그 돌들 영 막 못아지는.

#1 머들, 머들.

#2 머들.

@1 건 머들, 머들이엔 허고예. 그 숲 이런 데는 수월이엔은 안 험니까? 여기.

#2 수울게, 수울, 수울.

@1 수울.

#1 수울.

#2 수울, 그때 수울이엔 허민 가시덤불 같은 거 그거고.

@1 응.

#1 치름은 범위가 막 넓고.

@1 예.

#2 그 수울 같은 거는 이, 저 치름이엔 현 안네는 나무가 대부분이 나무도 크고.

@1 음.

#2 그 수울은 그, 저 큰 나무가 별로 없어 가지고 덤불. 요즘은.

@1 계난 요즘 자왈허는 게 여기는 수울 허는구나?

#2 요즘 뭐 꽃자왈이엔 허는 게.

@1 예.

#2 그전에는 나무 별로 없는 데 그 치름 가기 전이도 꽃자왈 만해났어요.

@1 예, 낭허레 덩기곡 허는데예? 계난 수, 덤불 잇는 데를 여기선 수울 허는 거라예.

#2 땀감 ㄱ튼 것도 저, 저 수울에도 간 허곡 그 내창.

@1 으, 내창.

#2 땀감 ㄱ튼 거는 내창에 가면은 삭은 나무가 잇으니까.

@1 으.

#2 그런 거 해다가 옛날은 뭐 땀감이 엇이니까 무조건.

@1 내창들에 가근에 하영.

#2 어.

@1 현 거라예?

#2 어.

## 목장

@1 예, 그다음에 이 쉼, 여기는 목장이 널르니까 이 수망리가 주로 이용허는 목장은 어디, 어디라났수과?

#2 대부분 지금 목장허는 디 대부분이 무신 물영아리 앞, 뒤. 그 돌머들목장이여, 무슨 지금 저 부영, 부영골프장 허는 디 잇잖아요.

@1 예, 예.

#2 그 근방에도 전부 다 목장으로 사용헤십주. 거 개인 밭들이 많긴 많은데.

@1 원래.

#2 개인 밭은 개인 밭데로 담 둘러싸 가지고 그 건초를 만들라면은 소가 못 들어가게 헤 가지고.

@1 예.

#2 못 들어가게, 말, 소들이 못 들어가게시리 담을 둘러 가지고 막아서 말들을 헤 가지고 가을철 나면은 그걸 베어서 말려 가지고 겨울에.

@1 예.

#2 겨울엔 거벧기 소 줄 것이 없으니깐게.

@1 예, 예. 그런 게 헤서 출왓덜 허는 거고.

#2 예. 계난 그 개인 밭 위에는.

@1 으.

#2 위에는 그 주위에 소 놔 가지고 여름에 맥엿지, 그냥.

@1 계몬 아까 밭갈췌 ㄱ꾸러 갈 때예? 삼춘. 밭갈췌 ㄱ꾸러 갈 때는 어느 지경에 간 겨우 파?

#1 어, 그때는.  
 #2 지금, 지금 골프장 지경.  
 #1 뭐, 수망.  
 #2 가까운 디가.  
 @1 응.  
 #1 수망리서는 대부분은 허면은 동쪽으로는 물 먹루엔 현 데.  
 @1 물 먹루.  
 #1 물 먹루엔 현 디가 있고.  
 @1 물 먹루, 예.  
 #1 또 으, 그 북쪽으로 가면은 정도[또].  
 @1 예.  
 #1 올라가면은. 먼 먹루, 정도[또], 또 물 먹으리, 물 맥이리 갈 때는 사리물.  
 @1 예.  
 #1 아니든 차가물.  
 @1 차가물?  
 #1 으. 차가못.  
 @1 예.  
 #1 뭐 그쪽으로 많이 다녔주, 주로.  
 @1 응, 게니까 이제 그, 거기는 쉼 ㄱ꾸레 가는 거잖아예?  
 #1 예.  
 @1 목장, 그 물영아리 잇는 데도 아까 앞쪽에도 잇고 뒤쪽에도 잇잖아예?  
 #1 예.  
 @1 게든 거기는 뭐렌 굴앗수가? 그 물영아리 쉼, 목장 올리는 디는.  
 #1 아, 그 물영아리 뒤에는 신물이엔 현 디가 잇습니다게.  
 @1 신물.  
 #1 어, 신물.  
 @1 예.  
 #1 신물, 영아리 뒤에 신물허면은 물이 주로 거 목장 같은 데는 물을 중심으로 이름이 많  
 이 부껴 잇습니다이.  
 @1 예.  
 #1 그, 으, 저 앞으로, 영아리 앞으로는 펄물이라고 지금은 그 부영골프장 허는 펄물이 잇  
 엇고.  
 @1 예.  
 #1 뭐, 올리튼물이 잇엇고.  
 @1 무슨 물?  
 #1 올리튼물이 잇엇고.  
 @1 올리튼물.  
 #1 예.



@1 거기는.

#1 예, 그런.

@1 오리가 막 허영 오는 모양이라예? 음.

#1 (웃음) 그러, 그렇게 해서 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많이덜 명칭을 그렇게 많이 부렸지요.

@1 으.

#1 경 뭐, 옛날에는 이렇게 소 좇이, 좇이레 다닐 때 보면은 자기 소가 노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예.

@1 예.

#1 대개, 대개.

@1 아.

#1 어느 지역에 만약에 뭐, 신물 쪽에 논다, 아니면은 뭐 펄물 쪽에 논다. 올리튼물 쪽에 논다, 이렇게 노는 지역에서 야, 너네 쉼, 뭐 어디, 어디 가난 너네 쉼 거기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예?

@1 예, 예.

#1 겨니까, 야, 너네 소는 어느 쪽에 강 보니까 너네 소 있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말이 오고가고, 대화가 오고가고, 서로 협조하고 그랬지요.

@1 예. 계난 이 지경마다 다 물들이 있는 거라예?

#1 예, 예. 물.

@1 어.

#1 물 중심으로 소들이 모이니까.

@1 예. 계난 그 물들은 자연적으로 있는 물이우파? 아니면은 목장에 이제 인공적으로 판 물이우파?

#1 뭐 인공적으로, 자연, 자연적으로 생긴 물이죠. 하천물도 있고, 어, 또 뭐 신물이나 올리튼물은 거,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1 응.

#1 특이한 거는 거 펄물이라는데.

@1 예.

#1 거, 돌머들 앞이라고. 그, 부영골프장 있는 데를 거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긴 하천도 안 끼었는데.

@1 예.

#1 이렇게 빨이예요, 빨 우에 소가 자꾸 밟고 하다 보니까 그 물이 그렇게 고이게 뚫 거 같애요.

@1 아.

#1 어, 거기는 뭐 물이 어디서 들어올 데도 없는데 물이 항상 고여 있어요.

@1 항상 고여 있고예?

#1 예.

@1 계난 그 물들은 지금도 이신가마씨?

#1 예, 잇쥬.

@1 아, 지금도 잇고예? 예.

#1 예.

@1 게니까 이제 그 쉼들이 물을 중심으로 해서.

#1 예.

@1 이제 목장에 저길 하는 거라예. 그러면 쉼을 목장에 올릴 때 잇잖우파예?

#1 예.

@1 언제 올라마썸? 목장에 올릴 때는.

#1 이 목장에 올릴 때에는 옛날에는 이 하жат, 중жат, 상жат 이, 이, 이렇게.

@1 예.

#1 이렇게 나누어 잇는데.

@1 예.

#1 처음에는 하жат에, 하жат은 젤 밑에니까 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예?

@1 예, 예.

#1 많이 나오니까 하жат에 올렸다가, 썸 잇으면 중жат에 올렸다가 또 출이 이렇게 크고 거기 뭐 출, 출 비는 그런 땅들이 많으니까 그 우트레 저, 상жат까지 이렇게 올라, 올라가는데 상жат 우에는 그 아까 뭐 치림, 뭐.

@1 예.

#1 뭐 밀림 뭐, 그렇게 얘기 않습니까예?

@1 예, 예.

#1 상жат 우에는 대부분 곳.

@1 곳.

#1 어, 밀림.

@1 응.

#1 우리 고지, 고지 그 어디 믱쉬 좇이레 가게 허면은.

@1 으.

#1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 갓고 뭐 이렇게 그 댁에는, 우리가 다닐 적에만 해도 정심 때 썸에는 소, 소나 말들이 딱 물 잇는 데만 가서.

@1 음.

#1 앓아 잇으면은.

@1 예.

#1 앓아 잇으면. (웃음) 소 물 먹으레 오면은 그런 걸로 많이 찾앗습니다. 거 일일이 그거 다 헤치고 돌아다닐려면은 쟁장히 범위가 넓으니까.

@1 그렇주마씨, 예.

#1 게니까 어디, 어디 물 뭐, 뭐 밑에 어디 물 이신 디 가서 그날 못 보면은 이튿날은 또, 또 다른 쪽에 물 이신 디 가면 아, 소들이 그쪽에 잇엇구나 이렇게 하고.

@1 으.

#1 뭐 그래서 많이.

@1 그 목장에 올릴 때는, 목장에 올릴 내 불지 안합니까?  
 #1 어, 예. 내, 내불었다가.  
 #2 (잡담)  
 @1 계난 여기에서는 수망에서는예, 그 하잣부터 이렇게 간덴 헛잖아예?  
 #1 예.  
 @1 여기 하잣이든 어느 지경 정도 하잣 됩니까?  
 #1 하잣이면은 그 하잣이.  
 @1 예.  
 #1 옛날, 옛날 하잣허고 지금 하잣허고 켜장히 이제. 옛날에는 농사 그렇게 산쪽으로 농살 안 지엇을 때, 이제는 이 농사짓는 땅의 범위가 흐끔 범위가 넓어, 넓어 갖고.  
 @1 예, 예.  
 #1 우이로 차츰차츰 올라갑니다예.  
 @1 예.  
 #1 지금 뭐, 어, 여기서 하잣이, 옛날 하잣은 뭐 바켓도[또]라고 그래서 하잣이, 하잣이 바켓도엿는데.  
 @1 예.  
 #1 지금, 쪼끔 중간에는 또 어 상여동산도 헛다가.  
 @1 응.  
 #1 거 또 그 우이 올라가민 옷머리구석이라고 잇습니다.  
 @1 옷머리구석.  
 #1 옷머리구석이라고 그 경일산업 잇는 그쪽에.  
 @1 으.  
 #1 겐 내려 올 적에도 소, 내려올 댁에도 단계적으로 그렇게 출 주면은.  
 @1 예.  
 #1 어, 저 옷머리구석에 내려왔다가.  
 @1 으.  
 #1 또 상여동산 내려왔다가, 켈 마지막엔 바켓도에서.  
 @1 예.  
 #1 이렇게 소들이 다 모여지면은 그때 이렇게 내려오고.  
 @1 예, 계난 옛날 그 목장에 올릴 때에 무사 췌명에 올린덴 허지 안헤낫수과?  
 #1 예, 췌명, 췌명에.  
 @1 으, 췌명에 올릴, 내릴 때는? 뭐, 상강 이런 말도 헛디다만은.  
 #1 예?  
 @1 상강예.  
 #1 상강예?  
 @1 으.  
 #1 그런 뭐, 지금도 그렇주만은 흐, 한 십일월. 흐, 뭐, 십일월 흐 중순쯤에는 거의 다.  
 @1 아.

#1 내려왕 그거는 목장조합에서 이렇게 알아서.

@ 이젠 허는 거난예.

#1 언제, 언제 저 뭐 하산헌다.

@1 예.

#1 하산한다 하면은 뭐 거기에서 맞춰서.

@1 게문 그 하산하면 그 으, 으라 뭐리 댈 거 아니우파예? 쉼가예?

#1 예.

@1 게문 그때는 어디에 그것들을 가되마씨?

#1 아, 집집마다 어, 마굿간이 있으니까.

@1 아.

#1 쉼, 쉼.

@1 게문 혼 석 달은 집, 그 자기 쉼는 다 집에서 허는 거?

# 아니, 석, 석 달이 아니주.

@1 예.

#1 십일월달에 허면 혼 뭐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로만은, 뭐 한 육 개월, 혼 육 개월은 산에 있고.

@1 예.

#1 육 개월은 집에 있고.

@1 아.

#1 그렇게 보면은.

@1 육 개월.

#1 지금도 마찬가지로.

@1 예.

#1 지금도 사월 혼 십일 경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데 사월 십일 경에 청명.

@1 이후에, 그 어간에.

#1 예, 예, 예. 옛날에는 청명에도 이렇게, 그렇게 뭐 풀이 넉넉히질 않았습시다게.

@1 응.

#1 지금은 초지 조성하니까 좀 빨리 올라가는 거지.

@1 예.

#1 젠, 지금,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한 육 개월간은 집에 있고. 혼 육 개월 간은 산에서 있고.

@ 예.

#1 뭐 방목하고 그런, 그런 것이 거의 맞을 겁니다.

### 목장 관리와 지정

@1 게문 그 쉼 헐 때 옛날 공동, 공동목장예?

#1 예.

@1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마씨?

#1 옛날 공동목장 뭐, 축산, 마을에 거 축산계가 있어 갖고.

@1 예.

#1 예, 거 조합 구성해서, 그런 그렇게.

@1 아, 축산계에서.

#1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우다. 목장조합이 있어 갖고.

@1 예.

#1 목장조합에서 이렇게 어, 회의를 해 갖고 언제 우리가 소, 소, 소를 언제 하산하자, 허면은 허고, 또 올릴 적에도 며칠, 며칠 날 이렇게 소 입식허자, 허면은 입식하고. 으, 뭐 날 이, 날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 끼고 허면은 뭐 며칠 날, 좋은 날로 햇빛 나고 이렇게 땅이 마르고 헐 때, 이렇게.

@1 쟁은에 이제 드르에 들영 올리는 걸을 요즘은 입식이렌 허고.

#1 예.

@1 내리는 거는 하산허고.

#1 하산이라고.

@1 이렇게 험구나예? 물영아리 중심으로 이렇게 가니까.

#1 예, 예.

@1 옛날에 그 잣들 남아 잇수과? 상жат, 중жат, 하жат 허면.

#1 아니, 예, 예. 어느 정도는 보존됐습니다.

@1 아.

#1 계난 옛날에.

@1 보존됐어.

#1 우리도 특이한 것이, 옛날에는 목장에 올라갈려면은.

@1 으.

#1 뭐 여, 여, 여기도 보면은 뭐 정도[또], 뭐 조록낭도[또], 뭐 바갯도[또], 뭐 아까도 얘기 헛지만은 또 서쪽으로 가민 야튼 목장에 통허는 마차가 통허는 길이 거기는 다 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습시다게.

@1 예, 정으로예?

#1 예.

@1 예.

#1 뭐 옛날은 살체기[짚체기], 이렇게 헛습니다.

@1 예. 살체기 으.

#1 예, 예. 살체기. 이렇게 낭으로 해서 짜 갖고 이렇게 글로밖에는 잘 사름이 다니질 못 헛습니다. 마차 같은 건.

@1 응.

#1 사름이야 뭐, 넘어서 가지고 허지만은 마차 끌고 다닐려면은 뭐 그런, 그런 데로밖엔 통과헐 수가 없어요.

@1 으.

#1 그 이렇게 잣담을 이렇게 잣아서 만들었다고 잣담 아납니까예?

@1 예, 예.

#1 그때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잣아서.

@1 예.

#1 게니까 그걸 넘어가질 못하니까, 꼭 정도[또]를 이용해서 목장에 다녔습니다.

@1 게난 그 정도를 놀 때는 몇 개를 걸쳤마씨? 정은.

#1 살채기[쌀채기].

@1 살채기로.

#1 아, 아. 살채기[쌀채기]로 대부분.

@1 살채기로 했는데. 으.

#1 살채기를게, 만들어 갖고, 문을 만들어 갖고 열었다닫았다.

@1 아, 살채기로예?

#1 예.

@1 무사 그 교례나 이런 데 가면 그 산들어가면 정 이렇게 만들어 낫잡우파예?

#1 예. 그걸로는 안 되고.

@1 안 되고.

#1 뭐. (웃음)

@1 그냥 살채기로 해 갖고예? 예. 쟁 행 그런 도가 몇 개 잇었어마씨? 수망리에.

#1 어, 수망리도 어, 정도[또]로부터 시작해서 조록낭도[또], 바깥도[또], 또 저, 서,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가 어디, 혼 네 개, 다섯 개는 웬 것 같습니다.

@1 네 개, 다섯 개. 게난 그쪽으로만 쉼을 올렸다내렸다.

#1 예, 예.

@1 허는 거라예?

#1 사람이, 저 마차가 통과할 수 잇는 저, 도.

## 넉인

@1 으, 그 삼춘, 그, 저기 목장에 올리젠 허면 예전에 넉인들도 하고. 낙인 찍는.

#1 네, 넉인, 넉인, 넉인.

@1 넉인.

#1 넉인.

@1 넉인 허는 건 어떤 식으로 했수과?

#1 예? 넉인. 으, 그쪽에는 뭐, 어, 주로 넉인을 많이 사용했지요. 뭐 자기네 그 집안, 뭐, 아님 가까운 사름끼리 모여서 하날 만들어서. 뭐, 뭐, 큰 대 자라든지.

@1 으.

#1 아니면 새 흘 자라든지, 멧 산 자라든지, 흑 토 자라든지, 뭐 그런 아주 간단헌.

@1 으.

#1 간단헌,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 넉인 보고.

@1 으.

#1 뭐 동네 소들토 이렇게 보면, 야, 너네 넉인 찍어진 거 어디 잇어라, 이렇게 얘기도 하

고예.

@1 예, 예, 예.

#1 그렇게 해서 정보를, 저 서로 정보를 이렇게 교환해 갖고.

@1 으. 계믄 그 물영아리에 쉼 올리는 거는 수망리 거만 말고 다른 동네도 거기 올려마 씨?

#1 아닙니다.

@1 아, 여기는 다 수망리.

#1 거기는 수망목장이니까, 수망리서만.

@1 아.

#1 계난, 그러니까 그 그룹 해서 다른, 다른 데, 타 부락 소들이 들어오면은 그거, 그거를.

@1 연락행은에 가정 가렌 험니까?

#2 먼 디로 쫓아내는 거죠, 예.

@1 예.

#1 그렇게.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그때는 그것이 허용이 댜습니다예.

@1 예, 예.

#1 저 뒤 북군의 쉼도 넘어올 수 있고, 저 교례리도 가까우니까.

@1 예, 맞수다게.

#1 넘어올 수도 있는데. (웃음) 이제 이 소들을 멀리 어디 쫓아낼려고.

@1 으.

#1 이렇게 예, 멀리 내보냈는데 지금, 지금 생각허민 그것이.

@1 으, 계믄 그 삼춘네는 녀인은 어떤 녀인을 준 거라마씨?

#1 우린 멧 산 자요.

@1 멧 산 자. 계믄 대대로 계속 할아버지 때부터?

#1 예, 예, 예, 예.

@1 예, 멧 산 자 헤 갖고 한 거고예. 그 녀인힐 때는 그, 그것도 날 반양 험니까? 어느 철에 녀인 험니까?

#1 소 산에 올라갈 그런 시기에.

@1 아.

#1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보면은 소가 새풀 나면은 따뜻해지면 소가 털갈이를 하지 않습니까예?

@1 예, 예, 예.

#1 털갈이하기 전에 이렇게 짝어, 짝어야.

@1 예.

#1 짝어야 그 털이 안 나고 그 잘 아물어예.

@1 으.

#1 그 녀인, 녀인 자리만 이렇게 털이 안 나는 거죠.

@1 예, 예. 계믄 녀인은 한 번 주면은 영원헌 거?

#1 예. 한 번 주민.

@1 게문, 게문 보통 두 술 때 허, 험니까? 넥인은. 두 술, 사, 다간?

#1 뭐 꼭 두 술 때라고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뭐 넥인 없는 거는 뭐, 못 줘, \*\*헌  
거는 두 술 때도 넥인 찍을 수가 있고

@1 응.

#1 산에 올라가민 뭐, 어린 때도 넥인 찍어서.

@1 아, 거보다 어릴 때도예?

#1 예, 예.

@1 예, 그 넥인 헐 때는 넥인 코스도 지냅니까?

#1 아이, 그런 건 없어.

@1 없어. 동네 사람들끼리 영 모아정 ㄱ치 허는.

#1 예, 모여 갖고 그자 야, 언제 우리 넥인 찍게, 허면은 그게 예, 거 소들이 좀 힘이 세  
니까.

@1 예.

#1 이렇게 서로가 협조허고 이렇게 해서.

@1 쟁 술 혼 잔 행 나뉘 먹고. 그 넥인 헐 때는 넥인 허는 장소가 따로 이십니까? 아니면  
은.

#1 아닙니다. 집에서 그냥 뭐 화리 같은 데 불, 뭐 불 살뽕. 나무들 이렇게 쌓아갖고 그렇  
게 달구, 거기다 달구어서 그냥 찍으면 뒀어.

@1 아, 별도로 이렇게 안 허고예?

#1 별도로 의식 같은 건 없고.

### 백중제

@1 아. 그다음에 그 여기도 목장에 강 백중제도 험니까? 췌, 췌 고사 으.

#1 예, 지금도 백중제 험니다.

@1 아.

#1 우리는 두 차례 험니다.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1 예.

#1 어, 십사일 저녁 때, 한 열한 시나 한 열두 시 경에 하고.

@1 으.

#1 또 이튿날은 목장에 가서 또 우리 조합원끼리.

@1 하고.

#1 조합원끼리 앉아서 제 지내고 하여튼 음식도 나눠 먹고.

@1 아. 그럼 여기에서 그 개인적으로 할 때는 어디서 해마씨?

#1 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모여 갖고, 한 뗏 사름씩 모여 갖고 허기도 하  
고, 뭐.

@1 것도 목장에 강?

#1 아니, 아니.

@1 집에서?



#1 예, 집에서.  
 @1 아, 집에서도 하고 목장에서도 하고.  
 #1 저, 옛, 옛날에는 그 지내는 데가 있어요.  
 @1 예.  
 #1 좀 깨끗한 뭐, 동산 같은 데.  
 @1 으.  
 #1 이렇고 여기, 여기도 보면은 어디 세귀오름에서 허는 디 잇고, 상여동산에서 허는 디 잇고, 아니면은 이 뭐 그늘케 뭐 어디서 지내는 사람이 잇고, 좀 깨끗한 그 테역밭, 잔디밭.  
 @1 예.  
 #1 그런 데서 해서 차려, 차려놓고 이렇게 밤중에 이렇게 지내고.  
 @1 응, 삼춘네는 어느 지경에 강 해?  
 #1 어, 우리는. 우리, 우리도 뭐 자주 옮겨 다니면서도 하고.  
 @1 아, 그것도 옮겨.  
 #1 예.  
 @1 췌가 옮겨.  
 #1 예.  
 @1 다니니까 경 허는구나?  
 #1 예, 예. 옛날도 옮겨 다니면서 현 사람 많이 잇습니다.  
 @1 아. 그, 그걸 백중제렌 험니까?  
 #1 예. 백중제.  
 @1 백중제라고예?  
 #1 예.  
 @1 게 백중제헐 때는 제물 같은 거는 어떤 걸 헤마씨?  
 #1 제물 같은 거는 뭐 메하고.  
 @1 예.  
 #1 닭은 꼭 들어갑디다예.  
 @1 예, 닭은예.  
 #1 예. 닭은, 닭은 톱 들어가고 제주허고 어, 뭐, 떡, 떡허고 과일허곡. 겐디 이상헌 거는 저 뭐, 뭐 탕쉬나 그 제사에 잘, 이 메 저 국.  
 @1 응.  
 #1 그런 거는 안 하고.  
 @1 그런 거는 안 하고예, 응. 그러면은 그 메는 몇 개, 멧 그릇을 헤마씨?  
 #1 아, 한 그릇, 한 그릇.  
 @1 한 그릇? 무슨 뭐 곤밥?  
 #1 예, 곤밥.  
 @1 곤밥으로 하고예?  
 #1 예.  
 @1 떡은 어떤 떡 험니까?

#1 떡은 뭐, 뭐 여기 찌빵 ㄴ쁜 것도 허고 아니면 집에서 뭐 상웨떡, 뭐 이런 거 만.

@1 예.

#1 정성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서도 하고 그냥 빵집에 가서 사다가도 허고, 뭐 과일도 마찬가지로. 마트 같은 데서.

@1 사당허고.

#1 예.

@1 게난 옛날에 이게 여름이니까 상웨떡들 행은에 간 거라예? 돌레떡을 해보거나 이러진 안헛수과?

#1 우리 어릴 적에도 뭐 돌레떡이면은 돌레떡은 어떤 때 많이 사용헛느냐 허면 옛날에 뭐 거 그 어디 산소 이장헛 때나.

@1 으.

#1 아니면은 장 날 적에, 그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래서 하, 하나씩 행 나눠 먹고 헛는데. 돌레떡은 이 백중 때는 별로.

@1 예. 상웨떡으로예?

#1 상웨떡으로.

@1 암만헛도.

#1 옛날도, 옛날에도 상웨떡 뭐 길쭉헌 것도 있고 뭐 똥그란 것도 있고 뭐.

@1 예, 예. 게쁜 길쭉헌 것도 하영 허여.

#1 하, 허, 길쭉헌 거는.

@1 안 허고.

#1 요, 요즘에는 간편허게예.

### 쉐녹대와 줄레

@1 예, 그냥 상웨로 해 갖고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이 드룻밧디 강 쉘 멕일 때예. 그, 아, 쉘 이경 다니는 줄은 무신거렌 헛니까?

#1 쉘녹대.

@1 쉘녹대.

#1 으.

@1 그 쉘녹대허고 연결해근에 말뚝에 박지 안헛니까예?

#1 예, 줄레.

@1 거는 줄레?

#1 으, 쉘줄레.

@1 쉘줄레.

#1 뭉줄레.

@1 뭉줄레.

#1 (웃음)

@1 경 행 말뚝에 이렇게 박는 거라예?

#1 예.

@1 아, 쉼늑, 쉼늑대렌 허는구나? 여기서는.  
 #1 예, 저 말은, 말, 들무제미.  
 @1 들무제미. 영 잡아 갖고.  
 #1 어, 어.  
 @1 잡고.  
 #1 뿔이 없으니까.  
 @1 예, 예, 무제미 해갖고 이제 하는 거고. 삼춘은 멧 살 때부터 쉼 ㄱ꾸레 덩겻수과?  
 #1 우리는 아주 어린 때부터 다녔습니다.  
 @1 예.  
 #1 뭐, 뭐 국민학교 때부터 뭐 쫓아다녔으니까, 뭐.  
 @1 예, 예. 그 국민학교 때부터 이제 아버지랑 ㄱ찌 계속 헐 거잖아예?  
 #1 예.

### 추억담

@1 게문 그 잇어 불지 못허는 일들도 할 거 다향아예? 재미진 일도 할 거 같고. 어땡 험디가?  
 #1 예?  
 @1 어땡, 그 재미진 일, 멧 가지만 쫓아쥬 봅서.  
 #1 재미진 거, 어. 뭐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 재미진 것도 별로 느끼지 못헐습니다게.  
 @1 예.  
 #1 이, 이 쉼 나가 어렸을 적에도 우리는 여기 수망에도 말 허는 사람이 한 세 사람 정도가 잇었는데.  
 @1 아.  
 #1 밧 불릴 때 가면은.  
 @1 으.  
 #1 그때 가면은 밧 불린 꼭 거 닳에는 저 밧 불리고 나면은 음식을 대접허는.  
 @1 예.  
 #1 옛날 말도 그런 말 잇수다. 귀신은 속여도 테우리는 못 속인다.  
 @1 아.  
 #1 게난 곤밥허고.  
 @1 예.  
 #1 곤밥허고 생선국까지 잘 차립니다게.  
 @1 예.  
 #1 밧 불리곡, 밧 불릴 때는.  
 @1 예.  
 #1 아주, 그거는 아주 최, 철칙으로 이렇게, 사름들이 지키는 것 같애마썸.  
 @1 으.

#1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해서.

@1 예.

#1 아, 그런 건, 그런 건 진짜 잘 얻어 먹곡.

@1 그 밭 불리는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예, 그 쉼 할 때 뭐, 쉼 찢레를 헛다든가 뭐 이런, 그런 건 엇어?

#1 쉼 찢레 그때는 아까 그 드름 정, 드름 저 갖고.

@1 예.

#1 뭐 소 ㄱ꾸곡. 잇다가 소들이 이 숫놈만 이렇게 큰 소털만 모여 갖고 이렇게 허니까 한 번 싸움이 부르면은 하루 종일 싸와요.

@1 아.

#1 (웃음) 허, 자기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게 다 비슷비슷한 사름끼리, 저 비슷비슷한 소들이 이렇게 모여 놓니까.

@1 예.

#1 아주 재, 재밌습니다. 말싸움도 재밌지만 소싸움도 아주 재밌어요.

@1 예. 겐 그 소싸움하는 거를 뭐 찢레가 부든텐 험니까? 찢레기렌 험니까? 여기서는.

#1 예?

@1 쉼 찢레? 찢레기?

#1 아, 예, 예, 찢레 부르는 거.

@1 찢레 부르는 거예? 어.

#1 예. 쉼 찢레 부르는 거, 재밌습니다.

@1 예, 옛날 쉼들 이제, 찢레 부르고, 그렇게 이제 하고예. 그다음에 소와 관련해 갖고 건 또 나중에 저기 하고. 물예, 삼춘네 아까 하영 험 때는 물 오십 ㄱ리, 오십 두.

#1 예.

### 쉼을 세는 단위

@1 쉼 셀 때는 어떤 식으로 셋수과? 쉼는? 셀 때. 헛 ㄱ리, 두 ㄱ리?

#1 예, 한 두, 두 두도 허고, 헛 ㄱ리, 두 마리도 허고.

@1 헛 바리, 두 바리는 안 헤봍디가? 여기서는?

#1 예?

@1 헛 바리엔은 안 험니까, 이 동네는?

#1 아이, 그런 건 없고.

@1 두로예.

#1 예.

@1 으, 둘 셀 때도 헛 두, 두 두.

#1 예, 예. 헛 ㄱ리, 두 ㄱ리.

### 물 질루기

@1 으. 물은 어떤 식으로 길랏수과?

#1 말은 대부분 우리 옛날, 옛날엔 침, 옛날이 아니고 전에는 말은예, 항시 그냥에 집에는 안 들어오고 산에서만 살았습니다게.

@1 아, 산에서예?

#1 예.

@1 으.

#1 여름에는 이 고지서 올라가서 뭐 치름 같은 데서 살고, 봄 나면은 좀 내려오고. 그렇게 허고. 제난 말에는, 말 같은 거는 뭐 따로 건초 같은 거 안 줘도 산에서 살면서 그냥 나무 이파리 먹고 이렇게.

@1 으.

#1 뭐, 노루 살듯이 그냥.

@1 아.

#1 같이 이렇게.

@1 그렇게 그 영 올령 내 부는 걸 뭐 꽃물 이런 말도 됩니까? 꽃쉐, 꽃물 이런 거. 아니면 뭐, 야우. 그런 말은 안 허고예?

#1 거, 거 주인 잇는 말은, 말 같으나 소 같은 거는 그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

@1 예.

#1 옛날에 그 사삼스건 때.

@1 예.

### 꽃쉐

#1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못하는 뭐 꽃쉐.

@1 꽃쉐.

#1 어, 그런 거는 주인이, 주인을 모르니까.

@1 으.

#1 그런 거는 우리 어릴 적에주만은 산에 가서 이렇게 꽃쉐들은 쾡장히 사나와 갖고 이렇게 어른들 하는 거 보면은 눈도 다 가리고. (웃음)

@1 음.

#1 다리도 흔 쪽 묶고. 흔 쪽 끌고 오고 뭐, 그러는 건 많이 봤습니다.

@1 아.

#1 말 같은 것도 뭐 주인 없는 말은 뭐 그렇게 부르지 않고.

@1 예.

#1 다 벅인 헤서, 벅인을, 벅인이 다 있으니까. 아이구, 누구네 말이구나, 뭐.

@1 으.

#1 젠디 옛날에는 거 운송 수단이 쾡장히 말을 선호하여서.

@1 예.

#1 소는 백 냥, 말은 천 냥. 옛날 교통수단이.

@1 으.

#1 다 말이었지 않습니까게.

@1 예.

#1 조선시대만 해도 뭐 타고 다니고 뭐, 말보다는 저, 소보다는 가치[까-]가 말이 참.

@1 비싼예.

#1 타는 물 정도는 켤장히 비싸.

@1 아.

#1 타고 다니는, 사름이 타고 다니는.

@1 제난 타고 다니는 제메 탕 덩깁니까?

#1 예, 제메, 제메라는 거는. 그건 아주 쯤 사름이 앉아 잇으면은, 말등에 이렇게 앉아 잇으면은 편안히 갈 수 잇는 그런, 그런 건데.

@1 으.

#1 우리도 어렸을 적에도 말은 많이 타서 다닌 적도 있습니다.

@1 아, 말 탕 다녔구나예?

#1 예. 말 타고 다녔습니다.

@1 예, 게른 말은 그냥 목장에 올리는데?

#1 예.

@1 말이 풀 먹는 디 허고, 췌가 풀 먹는 디는 ㄱ타마씨? 아니면은 뜨나마씨?

#1 건디 옛날, 옛날에도예, 그 때문에 목감 조합원들 허고 다툼이 많았습니다게.

@1 아.

#1 소는, 소는 이렇게 쯤 긴 풀을 많이 먹고 말은 이렇게 뿌리까지 파먹는다고 해서.

@1 으.

#1 뭐 초지 조성허는 데도 그렇게 뭐, 흙 이, 저, 소 허는 사름덜은 말 놓는 거를 안 좋아 허게 생각할 것이고.

@1 예.

#1 또 말 허는 사름이 적어 버리니까.

@1 으.

#1 우리도 말 허는 사람도 큰소릴 못치고.

@1 아.

#1 그래서 이 목장 아니면은 치름 안네.

@1 예.

#1 꽃 안네.

@1 예. 꽃 안네.

#1 예, 그런 데서 많이.

@1 으.

#1 말은 주로 그런 데서 많이.

@1 왜냐면 먹당 이거 풀 키와야 돼는데, 못 키와 부니까.

#1 예.

### 물 종류

@1 음. 그런 식으로 하고. 물 종류는 하seye?

#1 뭘 종류?

@1 예.

#1 종류는 많죠.

@1 어. 암수는 어떻 불릅니까? 암물은.

#1 즈매.

@1 즈매.

#1 어.

@1 슷물은?

#1 슷, 슷, 슷물은?

@1 웅매.

#1 으, 웅매.

@1 어, 즈매, 웅매.

#1 예, 예.

### 뭘 이름

@1 예, 그다음에 또 색깔에 따라서 이름들이 한텐 허명예?

#1 어, 그렇죠. 뭘 얼룩덜룩헌 거는 뭘, 뭘 유마뭘? 유마뭘이엔 허나?

@1 월라.

#1 아, 월라뭘.

@1 어.

#1 유마뭘은 좀 털이 길고 좀 거 어, 갈색 비슷한 유마뭘.

@1 예, 갈색 비슷한 거 유마뭘.

#1 적다뭘은 갈색.

@1 예.

#1 게고 갈색이나, 노란. 노란색은 없는 거니까.

@1 어.

#1 허고. 뭘. 가, 가.

@1 이, 젤 좋은 뭘은?

#1 가라뭘은 저 검은색허고.

@1 예.

#1 가라, 가라뭘.

@1 가라뭘. 일 가라.

#1 예.

@1 예. 예. 두 번째는 뭘우짜?

#1 이 청춘인가?

@1 이 청춘.

#1 어.

@1 삼.

#1 삼 가란가?  
 @1 아니, 일 가라.  
 #1 아, 삼 게.  
 @1 삼 유마. 아, 삼 적다.  
 #1 월라몰이, 월라몰이 일 월라.  
 @1 삼춘네는 일 월라 험구나.  
 #1 월라몰이 젤.  
 @1 으.  
 #1 거 얼룩달룩헌 거.  
 @1 예.  
 #1 것이 보기가 젤 좋았고 제가 여, 여기서 부를 때는 젤 최고로 이렇게.  
 @1 아, 삼춘네, 삼춘이 헐 때는 월라.  
 #1 응.  
 @1 월라는 하지 않지예?  
 #1 예.  
 @1 월래몰은?  
 #1 으, 월라, 월라몰이 젤 보기가 젤 좋고.  
 @1 으.  
 #1 그다음, 그다음에는 뭐 청충이라고 허나?  
 @1 예.  
 #1 그 저 흰, 흰털허고.  
 @1 검은색허고 서꺼진 거.  
 #1 어. 백마 같은 것도 있고 가라몰 ㄴ튼 거, 가라몰도 반질반질허게 쨌장히 예쁜 건 예  
 뽑니다게.  
 @1 예, 예.  
 #1 그런 식으로.  
 @1 가라몰허고. 그, 그 이런 데, 영 아까 점 박아진 것들도 잇고예? 몰도.  
 #1 어, 태성백이?  
 @1 태성백이.  
 #1 예.  
 @1 그 태성백이 말앙 이렇게 코 영 내려온.  
 #1 간전이.  
 @1 간전이.  
 #1 코간전이.  
 @1 코간전이.  
 #1 으, 코간전이.  
 @1 그다음에 입에, 입까지 온 것도 잇지예?  
 #1 예, 것보고 그런 말을, 그런 거는 별로 좋아허질 않주만은.



@1 예.  
 #1 뭐가, 뭐가 이렇게 씹히는 뭐가 있어요.  
 @1 으.  
 #1 그런 말은.  
 @1 그런 말은 별로 좋은 말로 안 치는구나예?  
 #1 예, 예.  
 @1 어.  
 #1 제일 좋, 제일 좋지 않게 보는 건,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흰털 박아정 이렇게 찢라지는 거.  
 @1 아. 그런 들은 무신거렌 험니까?  
 #1 아, 텍하늬, 뭘, 소, 소들이 많아예, 그런 거는.  
 @1 예.  
 #1 텍하나라고.  
 @1 예. 텍하나라고.  
 #1 예.  
 @1 으.  
 #1 이렇게 탁, 탁 티가 나는.  
 @1 예.  
 #1 텍에 이렇게 잇는 거를예?  
 #1 예, 예. 그런 말은, 그런 소는 쥔 안 좋게 생각합니다.  
 @1 안 좋게 하고. 소 좋게. 게난 좋은 소는 어떤 걸 좋은 소렌 허는 겨우파?  
 #1 좋은, 좋은 소는 뭘, 뭘 예, 예, 옛날에도 그 노란색.  
 @1 노란색.  
 #1 으. 노란색의 한우 계통이 쁘장히 좋게 보고.  
 @1 으.  
 #1 저 검은쉐는 좋기는 한데, 거 추위를 줌,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탄다고.  
 @1 예.  
 #1 그래, 그래서 검은소는 옛날은 대부분 이 노란소, 검은소 뭘 그런 거고.  
 @1 검은소가 추위를 타는 거예? 들은 어떤 게 좋은 거?  
 #1 아, 들도 아까 얘기헛듯이 그렇게 뭘.  
 @1 으.  
 #1 뭘, 에이 유마, 유마물이나 뭘 가라물이나 청충이나 뭘, 그런 거, 고라물이나 뭘.  
 @1 예.  
 #1 거. 쁘장히 많습니다게.  
 @1 예, 예. 말 종류가 혼 열 가지 넘게.  
 #1 예, 예.  
 @1 잇텐예?  
 #1 쁘장히 분류허자면 쁘장히 많고.

@1 적, 적다도 뭐, 고치적다도 있고.

#1 예, 예. 적다물도 있고. 고치 붉은.

@1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색깔도 있고. 뭐 발 하얗헌 이런 것들도 이  
십니까?

#1 예, 발이, 발이 흰털이 박아진.

@1 어.

#1 그런 거.

@1 건 뭐렌 헤마씨?

#1 거, 거는 잘 모르겠고.

### 충·갈기

@1 예, 건 모르고예, 그다음에 몰하고 올릴 때, 충도 비고 갈기도 비지 안헉니까예?

#1 예.

@1 건 언제 비어마씨?

#1 어 거, 거는 대강 밧 불리우고 나면은.

@1 예.

#1 말은, 말이 할 일이 없어지니까.

@1 예.

#1 그때는 그 한 오, 유월 뒤편은 말, 말 밧 불리고 나면은 산에 올라가면 좀 보기가 힘  
들고 허니까. 밧 불리고 난 다음에 이, 이 갈기도 비고 충도 이렇게 비어서.

@1 으.

#1 팔기도 허고.

@1 예.

#1 옛날은 그런 거 켜장히 그 고가로 판매됐었습니다게.

@1 예. 경 헛지예? 요즘은.

#1 예,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가는 사람도 없고.

@1 사가는 사람도 없고. 겨난 요즘은 갈기 안 비엄구나예?

#1 갈기가 있으면은 그렇게 뭐 진드기나 그런 것들 많이 달라부떠 갖고.

@1 아.

#1 더운 댁에는 경 말이 고생덜 헉니다게. 그래서.

@1 그래서 비어주고.

#1 예, 예, 예.

@1 충도 비어주고 허는구나예?

#1 게니깐 충도 비어주고.

@1 진드기들. 게민 아까 진드기 말 나와신디 옛날 췌도 진드기 구제해야 뒤고.

#1 예.

@1 몰도 허는디, 뭐가 췌.

#1 아니 몰은, 몰은 잘 안 헛습니다.

@1 아.

#1 산에, 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진드기가.

@1 으.

#1 이, 이 햇볕이 많이 드는 쪽에가 많이 있지, 예, 밀림 지역에 가면은 경 저 별로예, 소  
털토예, 한 번 올라가면은 소도 그 밀림 지역에만 사는 소털은예, 밀림 지역에만 삽니다게.

@1 아.

#1 내려오질 안합니다게. 거기가 시원하고 먹을 것도.

@1 하고.

#1 뭐 또, 출이영 먹을 것도 켜장히, 켜장히 연해서 부드럽고 허니까.

@1 예.

#1 살도 많이 찌고.

### 진드기 구제

@1 아하, 밀림에 사는 게예? 예. 게문 그 진드기 구제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마씨?

#1 옛날에 우리 아주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진두기 약을 타면은.

@1 으.

#1 형집 갖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문질러서 햇는데.

@1 예.

#1 쪼끔 있으니까 분무기라는 것이 나와 갖고. (웃음)

@1 음, 분무기로.

#1 분무기로 허니까 어떻게 편한지. 요즘, 요즘에는 저 뭐 양수기.

@1 예.

#1 저 분무기 그 차.

@1 분무기 큰 거.

#1 자동차에 메와 갖고 그렇게 해서 줄, 줄로 허니까 켜장히 편합니다.

@1 아, 요즘은 편하고예. 옛날에 그 췌 하나 영영 끓여주는 그거는 뭐렌 해마씨? 그런 영  
저 췌 해 갖고 해진 거.

#1 아, 췌 영 오그라진 거?

@1 으.

#1 어, 어. 이렇게 톱니같이 뿜서.

@1 예, 예, 예.

#1 그, 그, 저기 뭐냐, 모르겠습니다. 건 뭐라고 해야 하는지.

@1 글쟁이, 글쟁이 영 험니까, 여기는 그런 말, 안 합니까? 건 모르고예, 예.

### 돌 이용

@1 돌은 아까 이용했는데 마차 끌고.

#1 예, 밧도 갈아요.

@1 밧도 갈고.

#1 예.

@1 그다음에 가장 하영 허엿던 게?

#1 타고도 다니고.

@1 예, 타고도 다니고. 밧 불리는 거?

#1 예. 밧 불리는.

@1 옛날 밧은 무슨 밧 주로 불려마씨?

#1 옛날엔 밧 불리는 것이, 그, 조.

@1 예.

#1 산다.

@1 으.

#1 뭐 그런 종류.

@1 그런, 여름 농사에?

#1 예, 예, 예.

### 밧 불리기

@1 밧 한 번 불러봅주. 게문 밧 불리젠 허면 왜냐면 이 동네 아까 물 헌 분이 세 분이렌 허명예?

#1 예.

@1 세 분이니까 이 동네 밧은 다 그 세 분이 다 알앙 불린 거 아니라예?

#1 예, 거의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뜬 동네도 밧 불리레 가봅디가?

#1 어, 가쥬.

@1 어느 동네까지 가봅디가?

#1 아, 남원 지역까지도 가쥬.

@1 아, 게문 삼춘은 여름에는 완전 바빠시쿠다예?

#1 (웃음) 게난 거, 뭐, 밧 같은 거 이렇게 불러주민은 뭐, 하루 와서 뭐, 검질을 메주던 가.

@1 예.

#1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눌음 같이 이렇게.

@1 아, 수눌음예? 게난 밧 불리젠 허면 미리 이렇게 약속들을 해야될 거 아니라예?

#1 아, 예.

@1 밧 불리는 순서를 한 번. 어떤 식으로 저기 불러수과? 테우리들 이제.

#1 그렇게 우리는 하도 것이, 으, 그 전에 이, 저, 말들이 숙달이 돼 갖고.

@1 으.

#1 밧에 이렇게 모여 놓고 소리하고, 엮어 가민 사름 따라서 영 이렇게 뱅뱅 이, 돌아가는 데.

@1 응.

#1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 대장, 대장 어디 나이든 말을 이렇게 하나 끌고 이렇게 가야

허주.

@1 으.

#1 가서 이렇게 밭을 돌아가면서 갈지만은, 우리 말털은 하도 그제 기, 길이 드니까 예,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우다. 알아서 사름, 사름만 가면은 기냥 쫓아 다니고.

@1 응. 보통 밭 하나 불리젠 허면 뗏 머리나 들어강은에 불라마씨?

#1 뭘, 거의 다 들어가지요.

@1 응.

#1 이 한 이삼십 머리 들어가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그때는 골목이 많았습니다게.

@1 예.

#1 농사 지을려면은 산에서 그 소나 이 말들이 내려와서 먹기 때문에 뭘 골목이 많았는데, 이 앞에가 잘 안 보입니다.

@1 응.

#1 앞엿 말이 어디 가는지, 계난 지형, 지형을 잘 알아서.

@1 으.

#1 아, 이 말이 어디를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해 갖고 가서 하는 거지.

@1 으.

#1 뭘, 한 삼십 마리, 사십 마리가 한 번 일렬로 쪽허게 서 보십시오.

@1 그러니깐.

#1 얼마나 기냐.

@1 어, 게문 어느 밭디 가젠 선장 뭇 딱.

#1 예.

@1 저, 대장예? 뭇을 행은에 가는구나. 그제 완전 장관이쿠다게예?

#1 옛날에 그. 그 농사도 이렇게 밭 불리는 밭허고 안 불리는 밭허고 농사 차이도 켜장히 많이 낫습니다.

@1 아.

#1 옛날은 추울 때니까 이렇게 씨 뿌리고 말이 한 번 밟아주면은 그 땅이 이렇게 겨울에 추워도 잘 올라오지 아녀고 좀 딱딱허게 굳어지고.

@1 으.

#1 작물들도 뿌리가 잘 내리고.

@1 응

#1 튼튼해지고 그냥 안 불리고 그냥 헤버리민 그 추우니까 이렇게.

@1 밭들 다 들러지고.

#1 땅이 올라오고 뿌리가 죽어 버리고 하니까 꼭 밭을 밟려야 뛴는 거구나.

@1 응.

#1 예, 이 조허고 이 밭벼.

@1 예, 산디.

#1 산디는 꼭 밟리는 걸로.

@1 게니까 이제 여름, 이게 안 허면은 부껴 불어 갖고예?

#1 예, 예, 예.  
 @1 예.  
 #1 게니까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1 바람에 날리기.  
 #1 옛날은 바람이 쾡장히 불었습니다, 이.  
 @1 어.  
 #1 우리가 과수원 허는 것도 이 삼나무가 들어와서 묘목 장사털이 허니까 이거지.  
 @1 응.  
 #1 옛날에는예 바람 불면 이, 흑 먼지가 날라 텅기는 것이 말도 못했습니다게.  
 @1 응, 기구나예.  
 #1 하늘 우터레 켹허게.  
 @1 이 수망리도 비는 하영 오는 편이우파?  
 #1 예?  
 @1 비 하영 오는 편이우파? 여기도.  
 #1 예, 여기허고 저 성읍 지역허고는 드리 손당 목장.  
 @1 예.  
 #1 비 많이 오쥬.  
 @1 예.  
 #1 아주 많이 옵니다.  
 @1 게난 이 비들 하영 오는 데니까 농사도 더 안 뉘는 거 쥬아예?  
 #1 예.  
 @1 여름 농사들도.  
 #1 경작 면적도 쾡장히 쥬았습니다게.  
 @1 예.  
 #1 쥬고, 이 옛날에는 쥬 이 가축들 키울 댁엔 수망리도 부자들이 많았는데, 이제에는 부자들이 없는 동네가 수망리라마썸.  
 @1 (웃음) 예전에는 다 가축으로 헤 갖고예.  
 #1 예, 가축으로.  
 @1 소 흐나만 허고 발 불러 주믄 또 허고.  
 #1 목축 허면은 수망리가 쾡장히 알아주는 지역입니다.  
 @1 으.  
 #1 이, 이 남원 쪽에, 남원 쪽에 사는 사람도.  
 @1 예.  
 #1 뉘 쾡장히 소도 많이 허고 말도 많이 허는 사람이 쾡장히 많았습니다게.  
 @1 예.  
 #1 겐디 이, 지금에는 뉘 많이 변헤 갖고. (웃음)  
 @1 응. 게믄 삼춘네는 어쥬든 그 물이 하니까 여름에는 이 밧도 불리고 저 밧도 불리고 허니까.

#1 예.

@1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밧 불러 줄 때는 정말 바빠시كير라예?

#1 아, 예.

@1 그때 추억은 하실 거우다. 아까 곤밥 먹는 것도 허주마는.

#1 (웃음) 하루, 하루 몇 집이 것이 해야 됩니까.

@1 예, 그 말 한 번 골아줘봅서. 어떤.

#1 어떠?

@1 아까 만약에 조 불러잡아예?

#1 예.

@1 밧을 먼저 갈고.

#1 예.

@1 그다음에 씨 뿌려마씨? 어떤 식으로 됩니까? 절차가.

#1 밧을 갈고.

@1 으.

#1 한 바퀴, 한 번 이렇게 돌면은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고 또 밧고 합니다.

@1 응, 밧 먼저 갈고 씨 뿌리고?

#1 예.

@1 그다음에 밧으고.

#1 예.

@1 예, 게문 세 번?

#1 예.

## 물 마차

@1 으, 세 번 해 갖고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여기에선 아까 물마차들 하영 헛덴 헛잡아예? 그 물마차 용도는 어떤 것들마씨?

#1 운전요?

@1 예, 물, 물마차들허는 거. 마차.

#1 예.

@1 운반 해줬잡우파예?

#1 예.

@1 게문 집집마다 허는 게 아니라 물 이신 사람이 물마차도 현 거 아니우파예? 그러면 그때는 무신 일들을 현 거라마심, 물마차를?

#1 뭐, 저, 옛날에는 제일 많이, 많이 물마차가 제일 많이 허는 건 저 출 시끌 때.

@1 아, 출 시끌 때, 음.

#1 그때는 마차 아녀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1 예.

#1 어디 전에는, 그 이전에는 마차 나기 전에는 쉼질멧가지 아까 얘기허지 않았습니까?

@1 예.

#1 소로 이렇게 실어서 다 날랏, 날랏었는데 마차가 생긴 후로는 뭐 마차로 전부 하고.

@1 응.

#1 어디 산에 뭐, 땔감용.

@1 예.

#1 땔감, 어디 이 마을에 어디 경사나 어디, 뭐 있으면은 우선 땔감이 문제였습니다게.

@1 예.

#1 예, 산에 가서 땔감 해오는 것도 말마차가 하고.

@1 으.

#1 또 집 짓젠 허면은 나무도, 그때는 다 나무 집이니까.

@1 예.

#1 다 나무 집이니까 그렇게 뭐, 산에 가서 뭐, 나무 해오는 것도 말마차가 하고.

@1 계문 그럴 때는 그 혼 마차에 저 쿼를 받는 거 잼아예? 만약에 땔감을 실러다 준다가 나 아니면은 낭을 시켜다 준다가 허면 그것도 돈 하영 받았텐 험디다?

#1 (웃음) 아니우다. 동네서야 그렇지 앓. 건 부지로.

@1 부지로?

#1 어, 부지로 그자.

@1 만약에 허면 일이나 빌영 하고.

#1 다른 사람도 우리 집안, 집에 일이 있으면은 와서 해주고.

@1 아.

#1 우리도 이렇게 가서 뭐, 여러 번, 하루 종일 허는 것이 아녀니까.

@1 으음, 그냥 이제 서로.

#1 예, 도움을 주는 거주. 수눌음 같은 겁니다게.

@1 예. 돈으로 뭐 받거나 허지는 아녀고예?

#1 예.

## 뭇 나이

@1 으, 그다음에 삼춘. 뭇 나이는 어떻 썩니까? 아까 썩는 금승, 다간 영 헛잖아예? 뭇은 어떻 세마씨? 나이 썩 때?

#1 나이 썩 때?

@1 으. 혼 설이믄?

#1 말은 나이 썩 때?

@1 응. 금싱뭇쟁이.

#1 예, 금싱뭇쟁이.

@1 그다음에 두 설?

#1 이수, 삼수, 사수 그런 식으로 세 갑니다.

@1 아, 일수엔은 안 허지예?

#1 예, 금승.

@1 어, 금승.



#1 어, 금승똥쟁이, 이수똥쟁이, 삼수.

@1 사수.

#1 숫자 부찌 갖고.

@1 예, 이수까지는 똥쟁이 허는구나예?

#1 예.

### 뱃 불리는 소리

@1 이수까지 똥쟁이고. 그다음에 그 뱃 불릴 때, 어쨌든 삼춘 불렀으니까 뱃 불리는 노래 한 번 해 봅서.

#1 아, 거 못 합니다. 노래, 노래, 노래는 못 해.

@1 아니게, 아버지 때도 계속 해왔는데, 그거 계속 배웠을 거 아니우파?

#1 아이. 아니 그건 일정헌 그, 어디, 어디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1 예.

#1 그 옛날 어른들이 그냥 예, 그냥 소 모는 식으로 말 모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디, 건 못 해.

@1 아, 삼춘은 노래를 못 험니까? (웃음)

#1 못 해.

@1 게믄.

#1 것도 잘허는 사람이 잇어요.

@1 응, 이 동네 잘허는 어른 이수과?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하지 않아예? 이 동넨예.

#1 어, 이 동네 뱃 불리는 소리 많이 허는 사름이 근데, 헤본 사람이 별로 기억나는 사람이 별로.

@1 으, 다 어른들이 돌아가셨다고.

#1 예, 별로.

### 떡이

@1 그다음에 그 췌나 물이나는 뭐 먹영 살아마씨?

#1 아, 그냥 건초 먹고 살죠. 그냥 출.

@1 출.

#1 출만 먹고. 아니 말은 그냥 산에 놓면은.

@1 응.

#1 산에서 그냥.

@1 아무거나 먹영.

#1 먹고 삽니다게.

@1 예.

#1 예.

@1 췌가 문제구나예?

#1 예, 췌가. 췌만 이렇게 출 비어다가 싸 낫다가 그거 주는 거지.

## 출 마련

@1 으. 계난 출은 언제 비어마씨?

#1 어, 추석 넘어서.

@1 으.

#1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1 계난 삼촌네는 출, 쉼도 하영 키우고, 들도 하영 헤시난 출을 하영 헤실 거 아니라예?

#1 아, 예.

@1 멧 바리나 헤수과? 놀이 멧 개라낫수과?

#1 어, 놀, 뭘, 놀이야 터가 잇으면은 길게, 길쭉하게 쌓면은 많이도 쌓고[싸고].

@1 예.

#1 뭘, 두세 개는 이렇게 싸 놓고.

@1 두세 개예. 길게. 여기는 돌, 들 하영 헛 사람은 동그랑허게 안 헤근에 길게 헛디다예?

#1 길게 이렇게 쭉.

@1 길게 헛 놀을 불르는 이름도 딱로 헛니까?

#1 놀.

@1 그냥 놀?

#1 예. 어, 출놀.

@1 출놀예. 집처럼 이렇게 길게.

#1 예, 예.

@1 계문 그 출 비젠 허면 어떤 식으로 비연마씨? 메칠을 비어야 뉼 거 아니우파예?

#1 아, 예.

@1 으.

#1 쟁 옛날에는, 저, 전에는 이렇게 출 비는 것도 보민은 사람 빌지 못허니까, 못허니까 전도금 같은 걸 많이 풀려 갖고.

@1 전도금, 미리.

#1 허, 뉼지 잡아놓고.

@1 예.

#1 출, 잘 먹어야 뉼니까. 출 비는, 이 비는 것이 쟁장히 헛듭니다게.

@1 예.

#1 베가 고프면은예, 조금도 못 비여마씨.

@1 으.

#1 쟁 미리, 미리 돈 써 갖고 비어주기로 약속허고 돈을 쫓는데, 뉼 도망가는 경우도 잇고. (웃음)

@1 어.

#1 거짓말 허는 사람도 잇고. 옛날에도 한두 집이 아니고 전부, 전부, 전부 헤야 뉼니까.

@1 전부 헤야 뉼니까, 예.

#1 서로 수눌어, 수눌어 갖고 하기도 하고.

@1 응, 계난 그 아까 도새기 잡앙은에 멕인 거는 미리 이제 사람 저기 헐려고.  
 #1 아이, 돈, 돈 주고.  
 @1 돈도 주고.  
 #1 전도금 쥐근에 걸로 돼지 잡앙 먹으면서 거기서.  
 @1 아, 게믄.  
 #1 돼지고기 사 먹으라고. (웃음)  
 @1 그 출 허는 사람, 우리 집 출 비어 줘서 허는 사람 맞출 거 아니우파예?  
 #1 예.  
 @1 계근에 열 명이믄 열 명, 이 사름덜끼리 돼지 잡앙은에 저기 먹는 거구나?  
 #1 아, 예.  
 @1 그 돈으로.  
 #1 예, 예, 예.  
 @1 미리 뭘, 일당을 미리 주는 게 아니고.  
 #1 아니 일당으로.  
 @1 일당도 미리 주고.  
 #1 일당으로 주민은 그 돈으로 돼지도 잡아 먹고 하면서.  
 @1 예, 쟁 멧, 한 번 출 빌 때 멧 명씩 비엿수과?  
 #1 뭘 흥 대여섯 명도 비곡.  
 @1 으.  
 #1 무끄는, 묶는 거는 대부분 그때는 뭘, 이, 수망리도 오면은 아가씨들이 쟁장히 그때는 직장이 없을 때니까.  
 @1 예.  
 #1 이, 아가씨들, 아주머니들 행 하면은.  
 @1 아, 또 맞춰은에 이렇게 왕은에 허고.  
 #1 비는 건 남자덜이 비곡.  
 @1 예.  
 #1 무끄는 건 여자들이 묶고.  
 @1 계난 비는 건 남자들이 비어예?  
 #1 예.  
 @1 하루에 삼춘네는 낫으로 비어시난.  
 #1 예.  
 @1 흐루에 멧 바리나 비어마씨?  
 #1 흐루에?  
 @1 으.  
 #1 흥 뭘, 열 바리 정도 으둑 바리, 열 바리 그 정도 빈 거 같애요.  
 @1 응, 무끄는 사름은 몇 바리 무꿍니까?  
 #1 한, 한 사람 비는 데, 한 사람 무끄면은 쯤 이 펜안허게 무껴져.  
 @1 아, 펜안허게.

#1 무끄는 것이 더 빠르긴 합니다.

@1 예, 무끄는 게 더 빠르곡. 게도 출도 잘 비는 사람 잇고, 예?

#1 예게, 잘 비는 사름은 뭐 돈 벌쥌.

@1 그런 사람들은, 아, 그 하루 일당으로 안 허고 빈 만큼 일당 헤마씨?

#1 아니, 하루 일당으로.

@1 하루 일당으로? 응.

#1 잘 비는 사름도 금액은 마찬가지로.

@1 으.

#1 젠디 아무래도 인기는 잘 비는 사름덜이 있쥌.

@1 예, 게문 우리 출도 비어주라 이렇게예?

#1 예.

### 출 종류

@1 그 먹는 출 종류도 뽕난가마씨?

#1 예?

@1 출 종류는 어떤 출들을 주로 비어수과? 그 저기할 때?

#1 뭐, 그런 거는 뭐 꼭같애요.

@1 요즘은 목초들영 허주만은 옛날은 목초 안 헐 때는.

#1 예, 그냥.

@1 자연적인 거잖아예?

#1 그냥 건초.

@1 건초들예?

#1 예.

@1 뭐, 새꿀.

#1 어, 새꿀, 다 새꿀이쥌.

@1 여기는 주로.

#1 어웁이쥌. 어웁이 줌.

@1 어웁도 뵈고.

#1 어웁도 줌 서꺼지고.

@1 예.

#1 새도 줌 서꺼지고.

@1 으.

#1 새꿀.

@1 그 뭐는 자골은 안 들엿수과? 여기는? 자골출은 엿수과?

#1 옛날에는 전에는 보민은 자골만 따로 가는 부잣집덜은 해서 저 밧갈쉐 맥이젠.

@1 밧갈쉐 맥이젠?

#1 으, 따로 행은에 가는 집이덜 많앗는데.

@1 예, 삼춘네는 자골은 따로 안 갈앗고예?

#1 예, 자골출은 아녀보고.

@1 안 해보고예.

#1 그래도 옛날에는 여기 방화가 방화불이 많이 부르고 허니깐 자골도 쟁쟁히 많아나고.

@1 예, 일반 드르.

#1 이제는 거의 뭐, 보기가 조금 힘듭니다.

@1 그러니까예, 예. 그다음에 뭘 질루멍 으, 해는데. 그 출예. 출을 비어당 저장을 허젠 허면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팔월에 비지 앓우파예? 추석에예? 게문 메칠이른 물려마씨? 출덜은?

#1 뭐, 팔월 저, 종면은 뭐, 이틀에도 말리고, 한 삼일도 말리고.

@1 응, 삼춘네는 몇 바리 눌언? 아까.

#1 어, 우리도 허면은 혼 삼백 바린 정도는.

@1 삼백 바리예? 아까 그 물에 췌 이렇게 시끌 때는 혼 바리 시끄잖아예? 그 마차에는 몇 바리 시꺼집니까?

#1 마차에는 몇 바리, 몇 바리나 시졌나? 한, 한 일고여덟 바리 시졌나?

@1 일고여덟 바리? 쟁 삼춘 어쨌든 그걸 계속 실러와실 거난, 예?

#1 예.

## 여물

@1 쟁 해근에 이제 하고. 혹시 밧갈췌나 이런 쪽에서 으물들도 줍니까?

#1 여물 주는 거?

@1 예.

#1 그 여물 주는 거는 그때는 여기도 콩 같은 거는 조금, 조금씩 같았는데.

@1 예.

#1 그 콩 같은 것도 졸레.

@1 졸레.

#1 옛날, 졸레엔 허지 앓읍니까예?

@1 예.

#1 졸레허고 뭐, 뭐.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많이 끓여 갖고도 주고.

@1 끓여 가지고 주고예? 보통 그것들은 여물 주는 거는 저기지예?

#1 예, 밧갈췌.

@1 밧갈췌만 주는 거지예? 뭇한테는 여물 안 주지예?

#1 아, 말이야.

@1 그냥 드룻밧디.

#1 여기엔 안 내리고 산에만 있으니까.

## 바령

@1 예. 그다음에 아까 그 바령들 하영 들엿덴 헛잖아예?

#1 예.

@1 아니, 바령도 들이고, 방에.

#1 예, 예.

@1 바령허는 거부떠 곶아줘 봅서.

#1 바령허는 거는.

@1 으.

#1 여기서는 그 옛날에 그 밧갈썰들이 드롭 지어 갖고 이렇게 ㄱ꾸레 가지 안헉니까예?  
밧 ㄱ꾸레 갈 때는 비료가 별로 흔허지 안헌 때니까.

@1 예.

#1 이 소들이 좁은 공간에 밧 하나에 이렇게 다 모여 갖고 행, 소 거기 뭐, 뭐 소똥 같은 것도 있고, 뭐 허민은 풀 같은 것도 이시믄 뭐, 하룻밤 이렇게 지나고 나면. (웃음) 싹 죽어 버립니다게.

@1 예.

#1 것도 도망 못 가게 이렇게 한 사름.

@1 직허고.

#1 도망 못 가게 사름이.

@1 응.

#1 자면서.

@1 예.

#1 이렇게 소를 봐야돼마썸.

@1 게난 바령헉 때는 소들을 허고 물은 바령 안 헉니까?

#1 아, 물은, 물, 말은 그때는 다 산에서 이렇게 건초, 저, 건초가 그런 거 출을 안 먹으니까 산에만 잇으니까.

@1 응.

#1 겨울에도.

@1 예, 겨울에도 산에 내 불고.

#1 예, 산에 그냥 내 버리는 거우다게.

@1 으, 게믄, 삼춘 차 한 잔 허십서.

#1 아, 공부를 많이 허고 왔습니다. 그 바령ㄱ지 알고. 바령 같은 거는 거 요즘 잘 모르는 데.

@1 게난 삼춘 만나젠 허난 어젯밤에 공부헛수다게.

#1 (웃음)

@1 게난 그 바령헉 때는 게믄 동네 ㄱ꾸는 썰들을 흔 밧디레 허는 거라예?

#1 예, 예. 거고 좁은 공간에 한 이삼십 마리.

@1 예.

#1 저, 이삼십 마리가 흔 열다섯 마리 뭐, 멧 마리 이렇게 나보다 그 등치 큰 소덜인데.

@1 예. 게믄 오늘은 이 밧 바령 허곡.

#1 예.

@1 다른 땐 이 밧 바령 허고.

#1 예. 할 디 잇으면은.

@1 예.

#1 안 허는 사람도 많고.

@1 아, 안 허는 사람들도 잇고예?

#1 개인적으로 메엇다가 바령 헐 때는 그 이따가 한 번씩 거기 할 사름이 잇으면은 그렇  
게도 하고.

@1 제민 그것도 일 저기 해 주거나 영허는 겨우파? 것도. 바령해 주면 거.

#1 아, 허이, 그런 건.

@1 그런 건 엇고예? 다 동네니깐.

#1 예, 없는 거 같애요.

### 방엿불

@1 예, 이 땅들 저기, 별로 안 좋으니까. 아까 방엿불 놓는 거예?

#1 예.

@1 방엿불은 어떤 식으로 낚마씨?

#1 (웃음) 방엿불은.

@1 으.

#1 그, 거의 옛날은 뭐 화입 그런 것들은 다소 잇었는데.

@1 예.

#1 거 축산 허는 사름덜이 거, 진두기나 그런 거 헐려면은.

@1 으.

#1 그 방엿불 안 부뜨면은 하기가 좀 곤란해서.

@1 예.

#1 뭐, 이 어른들이 그냥 일부러 거 놓기도 한 거 같애요.

@1 응.

#1 지금, 지금 생각해보면은.

@1 제난 어느 철에 방엿불은 놓는 거라마씨?

#1 뭐 겨울에.

@1 겨울에?

#1 예. 봄에도 그 언제, 뭐.

@1 뭐, 일월 뭐 이런 식으로.

#1 예.

@1 보통 우리 축제, 요 들불축제허는 게 정월대보름이잖아예?

#1 예.

@1 제난 풀, 새풀 나기 전에 이제 방에 부청.

#1 예, 예.

@1 예, 그다음에 그 목장 관리 허젠 허면은 뭐 고사리도 캐고 그 저기 덩불들도 그 가시  
남도 이렇게 비고, 그런 날은 정헐 험니까?

#1 옛날에는 이 방엿볼 부떠 불믈예, 그냥 싹쓸이 다 죽어 불어마씨.  
 @1 아.  
 #1 가시덤불 같은 것이 별로 잇어났수다.  
 @1 그냥 다 테역밧디로.  
 #1 예, 출 비고 뭐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수울 그 얘기했지예?  
 @1 예, 수울.  
 #1 수울 같은 디 거기는 돌들이 많고 그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잇으니까 거기는 좀 높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무들도 살아남앗지, 다른 거는예, 방엿볼 부뜨면은예, 집도 다 타 부는데. (웃음)  
 @1 으. 근데 어쨌든 간에 방에는 일 년에 혼 번은 부졌어예?  
 #1 예, 부떠야.  
 @1 으, 진드기도 잇어지고 영 허니깐.  
 #1 아니, 불이 안 나면은 일부러라도 그거 누가 가서 해야.  
 @1 으.  
 #1 쟁 옛날엔 방에선도 많이 해수게. 나무 심어 갖고예. 그 주위에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불 넘어오지 못하도록.  
 @1 으, 계난 그거 영 고랑.  
 #1 예.  
 @1 다 팻덴 허명예?  
 #1 예, 그런 짓도 많이 잇습니다.  
 @1 으, 방화선 이렇게 저기 만들어서.  
 #1 그래서 살아남은 저지, 그축 아녀면 못 살아납니다.  
 @1 예.  
 #1 해마다 불 부떠 버리민 나무들이 어떻게.  
 @1 계난 그냥 방에 부짱 내 부는 거라마씨?  
 #1 예.  
 @1 계믄 사람들은 건 지키지 안헤마씨? 방에 부짱 때.  
 #1 옛날에는 저, 전에는 이렇게 방에, 방에가 부뜨면은.  
 @1 으.  
 #1 저, 리사무실에서 스피카로 방엿볼 끄레 오라. (웃음)  
 @1 아.  
 #1 집집, 집집마다 혼 사름 나강은에 그 거 어렸을 적에는 재미도 있고.  
 @1 예.  
 #1 예, 그거, 그거 어, 어른덜은 안 끄는 사름도 있고, 자기 밧 주위에 부떠 버리면은 깨끗할 건디 누가 끄니까?  
 @1 예.  
 #1 (웃음)



## 곡식 변상

@1 응, 그 쉼 아까 저기 도름 해 갖고 번썬나예, 이런 거 헐 때 놈의 밧디 강 뭐 감젓줄도 먹어 불고, 콩도 먹어 불고 행은에 뭐, 물어주거나 영 안 해수과?

#1 쥬 이, 소는 집에 집, 집 겨울이민 집에 내려와 부니깐 집에서 이렇게 관리를 허니깐 그런 식이 었는데. 말 경우는 틀립니다예.

@1 예.

#1 산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 옛날에는 보리 같은 것이 많이 같고 하니까 그런 데서 가서 먹어 버리면 배상허는 것이 쟁장히 그 싸움도 많이 나고.

@1 아.

#1 저 물론 농사짓는 사름도 고생헛지만은 그 말 임자들토 쟁장히 그 저 그런 거 몰다 보면은 쟁장히 시끄러웁니다게.

@1 예.

#1 어떻 법으로 이렇게 가서 헐 수도 없는 거고예.

@1 예, 계난예.

#1 예.

@1 계난 삼춘도 물어주, 하영 물어쥬구나예?

#1 아, 그런 것이 제일 골치 아파.

@1 그제 제일 골치 아파.

#1 예.

@1 쟁 얼마큼 물어쥬 봐수과? 쥬 하영 물어쥬 본 거.

#1 (웃음) 달라는 대로 쥬야지 거는 그걸 어떻게 험니까?

@1 어떤, 무슨 밧디, 저기 들은 거라마썬?

#1 쥬 많이 피해를 주는 것이 보리.

@1 보리.

#1 어, 봄에 일찍 이렇게 가을에 갈면은.

@1 예.

#1 보리가 봄 나면 어느 정도 자라지 았읍니까예?

@1 예.

#1 그래서 쥬, 쥬 피해 가는 것이 보리, 보리밧.

@1 보리밧. 쟁 보리밧 강 먹어 불면 그 밧 다 책임져야 험텐 험디다. 쟁은 안 험니까?

#1 어, 뭐, 책임지라고꺼지는 안 허지만. 뭐, 비료를 한 번 뭐 주라던가. 거, 거, 임자들이 거 요청이 들어웁니다.

@1 아.

#1 거고 몇 프로를 이 보리가 그 얼마 나올 건데.

@1 으.

#1 거 안 나오면은.

@1 나머지 건.

#1 얼마 보상을 해주라.

@1 예.

#1 그런 식으로 합니다.

@1 게문 해주렌 헌 대로 다 해줘예?

#1 예, 해 줘야주. 그럼 어떡합니까?

@1 응, 게난 삼춘네는 농사도 짓지만 삼춘네는 주로 목축을 주로 헛나보다예?

#1 예.

@1 집이예? 으. 돈도 밧 불령 돈도 하영 벌어신디 배상도 하영 헛구나예?

#1 (웃음) 돈, 돈은, 돈은 못 벌고.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1 예.

#1 일로 와서 어느 정도 조금 해주면은.

@1 으.

#1 걸로 그냥.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따지는 옛날엔 돈으로 별로 안 따졌습니다게.

@1 근데 우리도.

#1 다 수눌음 그런 형식이죠.

@1 수눌음 헛지만, 곡식으로 이렇게 받기도 헛덴 헛게만은 탄 데 가니까.

#1 (웃음)

@1 여기는 그거는 안 헛구나, 여기는예? 그 아까 삼춘. 밧 갈기 전에 그 음식도 잘 얻어 먹었지만 거기서도 저기 제석할망한테 고사도 지내잖습니까?

#1 고사요?

@1 예. 테우리코사 안 합니까? 그 저, 백중 때 말고. 밧 불리레 갈 때.

#1 아, 그런 건 엇고요.

@1 아, 밧머리에서 안 헛구나예?

#1 으.

@1 어떤 디는 고사헛덴 헛게만은 안 허고.

#1 이 백중이 테우리 제사우다게.

@1 예, 백중에만 허고예.

#1 예. 테우리 위한 것은 짐승을 위한 것이 아니고.

@1 예.

#1 목장을 관리 허는 사람.

@1 여기는 옛날에 멧 소장이라나수과? 수망리는.

#1 여기는 옛날에는 전에는 켜장히 인원, 저 가호 수가 많았는데, 많았는데. 지금, 지금은 외부 사람덜이 들어와서 지금은 한 이백 호 정도 됩니다만.

@1 예.

#1 옛날에는 혼 구십 멧 호.

@1 아, 지금은 완전 늘었구나예? 그 여기는 소장으로 허면 일 소장, 이 소장, 삼 소장 헛 때는 이 수망리는 그건 안 셴니까?

#1 예, 그거는 거는 일제시대.

@1 예, 조선 이렇게.

#1 몽고 사람들이 와서.

@1 응.

#1 어, 목장 헐 때.

@1 예, 그렇게 하고.

#1 일 소장, 이 소장 헐 때는 그때 허고.

@1 으.

#1 우리는 마을회 땅이 있습니까게.

@1 예.

#1 마을회, 마을회 땅이 있어 갖고, 우리는 마을회 땅허고 국유지도 좀 있어 갖고, 그것에 포함해서 그렇게 목장 운영하고

@1 아, 목장 운영, 이런 목장 운영.

#1 우린 개인 땅이나 마찬가지로니까.

### 목장 운영

@1 으, 목장 운영할 때는 비용을 이렇게 냅니까? 그 목감한테, 목감이 따로 있어마씨?

#1 옛날엔 목감도 두고 허였을 때 뭐, 쟁쟁히 그 소 두 수가 쟁쟁히 많을 때고.

@1 예.

#1 지금에는 뭐, 소도 얼마 안 돼고 허니까 개인이 그냥 조합 형식으로 운영해서 조합장 있고.

@1 으.

#1 어, 거기에 뭐 감사 정도. 저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1 아.

#1 예, 감사허고 해서 둘이가 이렇게.

@1 운영을 해주는 거구나예?

#1 운영을, 운영을. 외부 소들도 좀 받아서.

@1 예.

#1 자금 확보도 좀 하고.

@1 게문 외부 소는 허면은 한 마리에 얼마 받아마씨?

#1 예.

@1 일 년에?

#1 일 년에 십삼만 원씩 받고 있나? 우리가, 우리가.

@1 헤 봐야 한 달에 만 원? (웃음)

#1 어.

@1 일 년에 십삼만 원.

#1 아, 육 개월에.

@1 아, 육 개월에. 맞아 육 개월만 허니까예? 으. 이만 원이구나게, 흔 ㅁ리에. (웃음) 쟁 지금 전체 이 수망리 목장에는 몇 머리 정도 질러마씨?

#1 한, 백오십 두.

@1 백오십 두예? 응. 게른 목장장님허고 감사 들어서 이렇게 하고. 조합원은 몇이우파?

#1 조합원도 얼마 안 됩니다. 한 열 사람.

### 쉐 관리

@1 예, 계난 삼춘네도 옛날에 쉐 이렇게 할 때 쉐나 들도 이제 아프기도 허지 않습니까 예?

#1 예.

@1 설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들을 해신고예?

#1 쟁 옛날에는 으, 방목 허면은 소털이 좀 체력이 좀 강해지는 거 같습니다게.

@1 옛날에는.

#1 겨고 옛날은 환경이 워낙 좋으니까.

@1 예.

#1 요즘에는 뭐, 환경도 나빠지고 소 같은 것도 병들토 쟁장히 많아요.

@1 으.

#1 쟁 환경 탓인 것도 같으고 옛날에는 병이 별로, 별로 잇어나수다게. 산에 내버리면 그 냥 집, 집에서 뭐, 살이 완전히 어떻게 해서 목숨만 살아서 산에 올라가면 다 살찌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헛지.

@1 예.

#1 옛날에는 축산 해서 돈 들어가는 게 없잖습니까?

@1 그러니깐.

#1 자기 인력으로.

@1 예.

#1 배합사료 값도 안 들어가고.

@1 예.

#1 뭐, 목장 입식용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자 놓으면은 그자 팔면은 돈이니까.

@1 예.

#1 쟈디 요즘에는 돈 들어가는 것이 무척 많아마썸.

@1 음.

#1 조사료도 어디 가서 사와서 소를 멕여야지 배합사료도 멕여야지.

@1 으.

#1 그러니깐.

@1 계난 쉐, 고기도 맛이 엇인 거라예? (웃음) 멧 년 키왕 폼니까, 쉐는?

#1 예?

@1 쉐는 멧 년 키왕 풀아마썸? 요즘은?

#1 예, 우리는 주로 번식우고.

@1 번쉐.

#1 새끼 나서.

@1 예.  
 #1 파는 거.  
 @1 예.  
 #1 젠디 요즘, 요즘 많이 저 사름덜 선호하는 거는 비육우를 해요.  
 @1 비육우.  
 #1 한 달에 저, 멧 차례씩, 멧 마리씩 어디 팔아야 걸로 자금이 뵈전이 뵈고 이려지, 우리 같이 하는 사름은예.  
 @1 으.  
 #1 우리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허니까예, 수익성도 없고.  
 @1 예, 그냥 목장 이시난 키우명은예 으.  
 #1 예. 그 축사도 잇고 하니까 그냥 자꾸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 가져져마썸.  
 @1 예. 옛날 헛던 저기난예.  
 #1 예, 헛던 거라. 소 보면 아 이거 옛날에 우리도 헛던 혼 번 헤볼까? 이렇게.  
 @1 으, 잇는 거니깐.  
 #1 예.  
 @1 게문 그 송아지 나면 송아지를 푼는 거구나예?  
 #1 예, 예. 번식우.  
 @1 번식우.  
 #1 예.  
 @1 그니깐 그 번식허는 쉼을 번췌렌 헛니까?  
 #1 예?  
 @1 번식소를.  
 #1 예, 예.  
 @1 음, 번식소, 번췌.  
 #1 번식우.  
 @1 번식우, 으. 번식헤 갖고. 요즘 송아지 혼 마리 얼마 헴수과?  
 #1 요즘 혼 이백만 원.  
 @1 이백만 원.  
 #1 나면은 한 이백만 원. 젠디 관리비가 한 마리에 한 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 관리비가. 일 년 관리비가예?  
 #1 예.  
 @1 예. 게난 근데 일년에 한 마리씩 나는 건 아니잖아예? 일년에 한 마리 낡니까?  
 #1 예, 일 년에, 일년에 한 마리씩은 나야쥬.  
 @1 아.  
 #1 지금까지 일년에 일년에 한 마리씩은 계속 낡으니까 뤼.  
 @1 아.  
 #1 그렇게 안 나면은 백만 원 그냥 쥴아 박는 거쥬.  
 @1. 아, 그렇구나. 그럼 삼춘, 지금 열 마리? 삼춘, 삼춘 거만.

#1 예.

@1 열 마리? 게든 하나에 백 만원. 천만 원은 굳혀지는 거네? (웃음) 이제 또 목장 관리 허니까 허곡.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평생 할아버지도 하고, 아버지도 하고, 삼촌도 하고. 요즘은 테우리렌 말은 잘 안 허지예?

#1 예. 말. 이제는 뭐든지 해서 뭐든지 할려면은 기업 형식으로 가야 됩니다게.

@1 예.

#1 기업 형식으로 가지 않고 멧 마리씩 허면은 그거는.

@1 돈이 안 댕.

#1 아무것도 아니예요. 거 저, 추미로 낚시 다니는 사람도 뭐, 고기 사당 먹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1 예, 경헌디.

#1 낚시, 것이 한 번 추미 부찌민 계속, 그거. 우리도 축산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마썸. 소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고 싶어마썸.

@1 예, 예, 예.

#1 건 이익이 남든 안 남든.

@1 예. 관계없이.

#1 목장에만 가든 기분 좋고.

@1 예.

#1 목장에도 혼번 가서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1 예.

#1 놀러도 다니고.

(부분 생략)

## 5.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목축 문화 구술 2

- 조사 일시: 2020. 11. 19.
- 조사 장소: 수망리 ○○ 카페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부영심 @4 김영란
- 제보자: #1 김창언 #3 김승남 #4 김재중

### 쉐 질루기

@1 예, 쉼은 어떻 질봐수과?

#3 우리 쉼 질룰 때는 사료가 별로 엇엇어예?

@1 예.

#3 사료 줘도 아침저녁으로 한 솔박. 솔박이엔 허면은 그 뗏박이지예?

@1 예.

#3 지금 말하면 한 뗏 드는 거. 그걸로 혼 솔박 기자 이렇게 영 주곡, 처음에는 이 사삼 사건 후에는 그런 사료도 안 나왔어.

@1 예.

#3 그대로 기자 이, 야초지에 그 출 비어다가 그걸로 해근에 그자 걸로 주면은 아주 쉼가 빼다귀만 겨울에 왕 살아나쁜 빼다귀만 남아근에, 남아근에 허면은 봄에 이제 그 목장에 올리면은.

@1 예.

#3 셋브름에 해근에 이, 저기로 오는 그 셋브름이 불어근에 한 이삼일 비오면은 쉼가 쓰러정 죽어 버리곡 이추룩 허명 뒤흔주.

@1 아, 게난 여기 그렇게 출이 넉넉하지 못해 부난 경 험 거 아니라예?

#3 예, 예. 출이 그 영양가가 없었기 때문에.

@1 없었기 때문에. 게민 여기 셋브름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우파?

#3 예, 예.

@1 게민 여기서어는 어느 지경이 저기 셋브름이 어느 지경에서 오는 거우파?

#3 늑새브름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요렇게 영 오는 브름을 말헝주.

@1 어, 그때가 가장 쉼들이 못 살 때구나.

#3 예, 예. 봄에.

@1 봄에예?

#1 예.

@1 먹을 거 엇이니까. 경 그렇게 해영은에 출 주명 질루고.

#3 예.

@1 그 삼춘네는 뗏 머리, 그때 어렸을 때는 뗏 머리카 질람십디가? 집에.

#3 어린 때는 우리 할아버지네가 사삼사건 전에는 질좌근에 주로 그 목장에 기자 낵 내버  
렸당은에 이 눈 막 오면은 이 톨 같은 거는 내려오고 이축 해났는데. 경 우리는 그 쉼 질문  
지가 그 후에 이제 학교 영 다니단에 뭐 허고 허니까 좀 송아지 하나 영 헨에 그걸로 헨에  
질름 시작을 허연 나 열 마리꺼지 헛단에 쉼깁이 그 막 아주 파동넌 윈 한 멧 년 안 가니까.

@1 예.

#3 그걸 오백 만 원에 톨 풀아 버린 다음에는.

@1 열 마리를?

#3 예. 오백만 원 그때. 겐 풀아 분 때문에 쉼 헛 마리가 윈, 갑[깁]이 안 가났어요.

@1 예.

#3 겨난 그다음에는 그자 안 길름 시작허니까 그런디, 아, 이제는 그걸 질좌, 헛 멧 머리  
그자 질람시몬은 건강에도 도움이 뛴고 헛 거 같은데.

@1 예, 요즘은 이제 게난 멧 년 그 파동날 때, 전두환 정권에 그 파동날 때 다 설러 붙디  
가?

#3 예, 예.

### 쉼 종류

@1 그 혹시 쉼 종류가 어떤 종류 이서난 거 알아지쿠과?

#3 그때는 우리가 그 수망리가.

@1 예.

#3 그 축산단지를 조성허여났어양. 그, 칠십 년대에예.

@1 칠십 년대에 조성헨예.

#3 예.

@1 예.

#3 겐 이제 그 육십팔 년도부떠 영헨에 축산단지헨 용자 반앙 허면은 뭐, 이 브라마옌 헤  
근에 춤 뭐 허고, 그 이 한우만 허단에 브라마라고 헛 것이 처음에 그때 도입이 뛴기 시작을  
헛어요.

@1 예.

#3 축산단지 헛 때 그걸 용자로써 사오는 게.

@1 으.

#3 경허다가 그걸 영 뛴곡, 그 그 후에는 토종이라는 것은 안 헤서 이제 그걸로만 뛴 허  
다가 요즘, 지금에 와서는 그 우리 토종을 알아주고, 영 뛴 이제.

@1 요즘은 다 한우고?

#3 예, 한우를 이렇게 헤서.

@1 옛날에는 한우렌 말 안 헤 갖고 우리 제주도 이렇게 허는 거는 그냥 토종쉼 이렇게.

#3 예, 예 토종.

@1 토종예? 토종도.

#3 한우라는 건 뛴 안 허고, 사용을 안 허고.

@1 색깔별로도 또 뛴나신가마씨?



#3 예, 거 저 검은 것도 잇곡 노란 것도 잇곡.  
 @1 예.  
 #3 또 얼룩빼기.  
 @1 얼룩빼기도 잇곡.  
 #3 응.  
 @1 얼룩빼기 이름은 뭐렌 험니까? 그 토종 혈 때 얼룩빼기 잇어난 거는?  
 #4 식쉐, 식쉐, 식쉐엔 해나지 안헤수과?  
 #3 아, 식쉐엔 험 거는.  
 @1 으.  
 #3 식 모양으로.  
 @1 으.  
 #1 털이 잇는 것이 잇곡, 거 아이고, 거 저, 희, 희고 검은 것에 그 얼룩베기 것ㄴ라 뭐렌  
 한다만은.  
 @1 삼춘 기억 남수과? 어럭쉐?  
 #3 으, 어럭쉐.  
 #1 어럭쉐는 아니고.  
 @1 어럭쉐렌 안 허고? 어.  
 #1 아, 어럭 거엔 헛지.  
 @1 어럭\*.  
 #1 식쉐허고 어럭쉐는 틀립니다.  
 @1 예.  
 #1 무늬가 이렇게 호랑이무늬.  
 #4 호랑이무늬는.  
 #1 식쉐에 잇곡, 얼룩, 얼룩소는.  
 @1 어럭쉐렌 헤.  
 #1 어럭쉐는 이렇게 흰점도 박아지고.  
 @1 예.  
 #1 노린, 노린.  
 @1 노린 것도 행은에.  
 #1 노린 것에 흰점 박아지고. 뭐 그런 거는 어럭쉐렌 헤수다.  
 @1 게문 그런 거를 신어럭허고 저기 노랑어럭 이런 말도 들어봣디가?  
 #1 예, 뭐 거, 검은소, 검은소에 그 흰점 박아지믄 검은어럭.  
 @1 으.  
 #1 그, 노린쉐에 저, 흰점 박아지믄 노린어럭.  
 @1 노린어럭.  
 #1 예, 이렇게.  
 @1 노린어럭, 흰어럭, 예. 검은어럭.  
 #1 견디. 거 그거, 그거 왜 토종이 없어졌는가 허는 거는예, 브라마가 나오니까 브라마가

예 출을 잘 먹어마썸.

@1 아.

#1 어, 살도 찌고 등치도 크고 그때는 베 고평 때니까.

#3 이 고기가, 고기가 많고 브라마가.

@1 아.

#1 어, 출을 잘 먹어마썸. 그건 웬만한 거는 다 먹어 버립니다.

@1 아.

#1 그러니까 토종하고 차이가 그런 차이가 있어마썸.

@1 게문 브라마 이제 헐 때는 밧 갈고 이런 것도 허지만은 고깃소로 팔젠 헤 갖고 하영 질락시켜예?

#3 예, 예.

### 뽕 이름

@1 아, 그다음에 아까 뽕 모양, 우리 삼춘한테도 들어봤주만은 뽕 모양에 따라도 이름 땀 나지예?

#3 뭘, 검은암췌라고 영 허는 건, 그 검은 건 우리가 그, 이 대한 소한 그 대한에 나가면 은.

@1 으.

#3 뭘 정이월 브름에는 검은 암췌 뽕 오그라진다.

#1 (웃음)

@1 예.

#3 이런 말이 있는데, 건 그만큼 그 바람이 매섭다는 거죠, 예.

@1 예, 예.

#3 경 그축 허고 뭘 그자 우리 여기서 말로 검은암췌, 뭘, 노랑암췌, 암췌보고는, 그렇게 허곡 뭘, 또 부랭이라고 한 것은 그 저, 한 세 설, 네 설 짜리 그런 거 허면은 부랭이. 밧 가는 건 밧갈췌 뭘.

@1 예.

#3 이추록 헤근예.

@1 응, 그다음에 뭘 잣박도리여 뭘.

#3 예.

@1 천지각이여 이런 말은 안 들어봅디가?

#3 그런 말도 들어봤는데, 뭘 기억이 잘 요새는.

@1 예.

#3 이제 너무 요새 세대에 와서는 옛날 거 잊어 버리니까 뭘, 잘 기억이 안 남신게.

@1 아, 맞아예. 예, 아까 여기 우리 삼춘이 곶아신디 여기 영 점 박아진 거는 또 뭘렌 헉 고예?

#1 태성백이.

#3 태성백이, 건.

#1 (웃음)

#4 거 돈 안 주는 거.

@1 삼촌네 쉼 헐 때, 식췌도 하영 잇어났수과? 그때.

#3 아니, 식췌 하질 아녀예, 그거는.

@1 하지는 안허고?

#3 응.

#1 많지는 아녀도 드문드문 이렇게 식췌가 잇어나수다게.

@1 그난 그 식췌들은 성질머리가 좀 나쁘덴 허명예?

#1 예, 까다로와마썸.

@ 까다로와, 으.

#1 예, 아, 성질이 이십니다게.

@1 아, 그런 말들 허더라고예. 이렇게 조사를 허다 보면. 식췌 봐납디가?

#4 예게. 마지막으로 그 수망리 ○○ 어른네 식췌 잇어나수게. 마지막으로 그디. 그거 나가 사젠 허단 못 산예.

@1 그 허믄 관광 상품인디.

#4 (웃음)

### 췌 질루기

@1 그 수망리에서 췌 질룬 거는 무사 질좌신고예?

#3 아, 이 돈 날 게라고는.

@1 엇이난.

#3 그때는 축산 아니면은 돈이란 것은 전혀 농사지어도 그 농사진 겐로는 일 년, 양식이 안 돼어예.

@1 예.

#3 고구마허고 뭐, 산디, 조 불린다, 뭐, 모밀 뭐 헌다 허는 겐로는 양식이 안 돼니까, 풀 아근예 그 그런, 우선 가정에 사는 데 보태 쓸려고.

@1 응.

#3 췌를 다 집집마다 질루고, 뭐 헛주예.

@1 계난 그 당시엔 암췌를 하영 질룬 거라예?

#3 암췌, 새끼 나근예 풀, 해근예 풀젠.

@1 계난 삼촌네도 이제 하난 암췌 사 갖고.

#3 예.

@1 변성시킨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돈 나기 위해서 질루기도 하고, 아까 밧갈췌는 농사?

#3 농사헐 적예. 밧 갈 때.

@1 농사허젠 하고. 우리 삼촌 아까 얘기헐 때, 겐름. 농사허젠 허믄 겐름헤야 돼니까예. 그렇게 헛덴 헉디다.

#3 예.

## 쉐 ㄹ리치기

@1 예, 게. 그 쉐 ㄹ리칠 때예. 쉐 ㄹ리칠 때는 어떤 식으로 ㄹ르췄수과?

#3 그 밧 가는 거 ㄹ리칠 적에는 그 뒤에 낭 돌아메여근에.

#1 (웃음)

#3 영 꺾게시리 영 허여근에 그 멍에 밧 가는 멍에 멍은 그걸로 해근에 뒤에 가근에 걸 돌아메근에 사름 이경 막 돌아텅기멍 영 해근에 ㄹ리쳐.

@1 응, 그, 그 낭을 따로 불르진 안헐니까?

#3 예.

#1 옛날에는 것이 여기 여깃 말로는.

@1 예.

#1 그 뭐 쉐 ㄹ리칠 때도 그렇게 잇주만은 ㄹ슬케라고 해서예.

@1 ㄹ슬케.

#1 ㄹ슬케라고.

#3 ㄹ슬케라는 거는.

@1 예.

#3 따로 잇는데 ㄹ슬케라는 건 이 모밀이나 뭐 헐 적에 영허여근에 이 넘작히게 영해근에 꺾는 거, 짓ㄹ라 ㄹ슬케렌 헐고.

@1 예.

#3 그, 쉐 ㄹ리칠 때 허는 거는, 짓ㄹ라 뭐라고 해낫다마는.

@1 돌 무ㄹ면은, 돌은.

#3 아니, 돌은.

@1 여기는 거의 저 뿔로예.

#3 돌은 허면은.

@1 예.

#3 그거는 이 가당 걸리면은 뭐 허는 때문에 나무를 영 돌아메면은 앞에 좀 들러지게 뒤에 영 해여근에 꺾어야지 경 안 허여근에 것이 땅에 부떠 버리면은 돌에. 그때는 이 도로가 전부 돌밭이랴주, 돌밭예.

@1 돌밭예.

#3 그런 그치룩헐 ㄹ리쳐 놓니까. 쪼끔 영 우터레 들러지게 해근에 돌에 안 걸리게ㄹ름 해여근에 그냥.

@1 그 낭은 무신 낭으로 주로 써마씨?

#3 아이, 그건 아무런 낭으로라도 영, 요, 요즘은 슬진 거 해근에 기자 좀 등 들러지게 해근에.

@1 쟁 ㄹ리칠 때.

#3 예.

@1 낭 해 가지고 ㄹ르친 거라예? 게문 그 쉐 ㄹ리칠 때는 몇 설에 ㄹ르칩니까?

#3 쉐, 보통 한 세 설 나근에 허면은.

@1 세 설.

#3 예.

### 쉐 나이

@1 밧갈쉐 ㄱ르칠 때는 세 설 낭은에 허고 그 소 나이 헐 때는 어떤 식으로 세어수과?  
흔 설 난 쉼는 뉼렌 헤?

#3 들은 뉼, 이수, 삼수 영 헛주마는 쉼는 기자 예, 흔 설 짜리여 뉼, 두 설 짜리엔 다간  
이여, 뉼, 세 설 사릅, 네 설 나릅 이추룩 허여근에 뉼 허주게게.

@1 다섯 설은?

#3 다섯 설ㄱ진 모르고. (웃음)

@1 아까 다섯 설은 우리 삼춘이 곶읍디다.

#1 계난 거기 아까 아까 처음에도 얘기헛지만 옛날 사릅덜은예.

@1 예.

#1 풀사릅, 뉼 풀다간 뉼 이런 식으로 아 이제 풀을 풀 자를 부짙 봄 나면은 이거 몇 설  
이다.

@1 응.

#1 산에 놓을 풀을.

@1 계난 기준을 봄 올릴 때 기준을 헐 거 아니라예? 예.

#1 예, 예. 산에, 산에 올릴 때를 기준을 풀 자를 꼭 많이 부짙서 헛디다게.

@1 그 쉼나 뉼이나 나이는 어뎡 알아집니까? 몇 설인 거 이걸 어뎡 알아?

#3 쉼는 니빨로 해난.

@1 아, 니빨로 해 갖고.

#1 니빨, 이렇게 들러보면은 뉼 몇 번 니빨이 몇 개 갈앗느냐에 따라서.

@1 아, 이빨로. 들은마씨?

#1 아이, 들도 거의 그런 식으로 봄니다.

@1 아, 이빨로 해서 딱 다른 쉼 허민 이빨 들러방 이거 몇 설이다, 이렇게 허는 거예? 계  
난 들은 아까 금싱, 다간, 사릅허는 데, 풀사릅, 풀나릅 이런 식으로 거 아주 궤헐 말.

#3 건 쉼, 쉼, 쉼.

@1 예, 쉼 이렇게 하고 그 질들이지 앓는 쉼를 곤는 말도 이십니까?

#3 질들이지 앓는 쉼는.

#4 엇어마썸.

#3 뉼엔 곤는 뉼가 엇주.

@1 뉼 새송아기여, 뉼, 새쉼여 허는 이런 말.

#1 새송아지엔은 곶읍니다.

@1 어.

#1 밧 갈도 아녀는, 밧 갈.

#3 ㄱ리치젠 허면은 새송애기 ㄱ르첨저, 말암저, 이추룩 헛주게.

@1 예, 새송애기.

(중간 생략)

### 잠대 부분 명칭

@1 아까 우리 삼춘한테 헛는데 튼내지 못한 거 잊어예. 삼춘, 밧 하영 갈아놔지양?

#3 예.

@1 예. 이, 여기 이거 저기, 잠대 그린 거주마씨.

#1 잠대덜.

@1 여기는 뭐렌 험니까? 여기, 손잡이?

#3 양중머리.

@1 다시 한 번예.

#3 양중머리.

@1 양중머리. 그다음 여기 길게 똬 낱은?

#3 아이고 거 똬엔.

@1 아까 성에렌 곱아수다.

#3 아, 성에, 성에.

@1 성에.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요렇게 하는 거는? 이 동네가 밧을 오래 전에 안 간 모 양이라. 농사가 하지 안 헛던 거 같긴 헤.

#3 아, 나도 흔 똬갯진 밧 갈아놔어요.

@1 아, 똬로마씨?

#3 쉼로.

@1 흔 똬 전까지?

#3 흔 똬, 흔 똬.

@1 아.

#3 삼십일은.

@1 삼십, 아.

#3 밧 갈 적에는.

@1 밧 갈 적에는예? 여긴 설칫. 이 이름들 한 번 곱아줘 뵙서, 여기. 이런 데?

#3 여긴 똬.

#1 몽쿨?

@1 몽쿨.

#3 그다음 똬, 보섭.

@1 예, 벳.

#3 벳, 으, 벳.

@1 튼내질 잘 못헛.

#1 장기성에는 우에 것이 장기성에엔 허지 안험니까?

@1 여기, 장깃성에.

#3 어, 건 성에.

@1 예, 그다음에 몽쿨. 다 나온 거 뵙수다. 이거 험 때 그 솔피낭으로 만들엇덴 허명예? 장기덜 이런 거.

#3 으, 솔피낭.

@1 솔피낭. 솔피낭은 장기 만드는 거 말고 다른 거 만드는 데도 써마씨?  
 #3 다른 것도 솔피낭이 깨지지도 않고 아주 질겨.  
 @1 으.  
 #1 제일 많이 만들었던 거는 거 산태.  
 @1 예.  
 #1 산태 허민 찢기고 휘어지질 안하고.  
 @1 아.  
 #1 것이 굉장히 찢긴 낭이우다게, 솔피낭이.  
 @1 솔피낭이.  
 #1 예, 장깃성이나 장기몽쿨 같은 거는 없으면은 다른 나무로라도 허긴 허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런 나무 허면은 거 잘 닳아지지 아녀니까.  
 @1 예.  
 #1 \*\*\* 닳아지지 아녀니깐 그런 것들 헛 거지, 꼭 그런 나무로만 헛 거 아니마썸계.  
 @1 예. 게난 장깃성에 말양도 아까 음. 여기는 산태 용도는 뭐라마씨?  
 #4 산태.  
 #3 거름.  
 #1 소거름 낼 때가 쥔.  
 #3 거름 낼 적에.  
 @1 소거름 낼 때예.  
 #1 돼지를 돛통시에.  
 @1 응.  
 #1 저기 돼지거름 낼 때도 산태로 허면은.  
 @1 예.  
 #1 양 둘이가 앞이 들곡 두에 들곡 허면은 많이 담아서도 좀 계법계.  
 @1 응.  
 #3 견디 돼지거름 낼 적에는 보통 굴체로 내고.  
 @1 예.  
 #3 거기는 이 족아놓니까[노니까] 담 영 허영 텅기명 아주 참 굿어예.  
 @1 예.  
 #3 그 돛통이라고 행은에 담으로 톱글랑허게 다근에 헐 때 그 커근에 영 뭐 허니깐 산태로 영 날르젠 허면은.  
 @1 예.  
 #3 담 넘어갈 적에가 쥔, 그 또한 그 안네 가도 산태 놔 버리믄 걸름 트기도 굿고 허니깐 주로 굴체 사용을 많이 헛고.  
 @1 예.  
 #3 이 소거름 ㄱ든 거나 이런 거 돌역쉬에도 헐 적에도 산태를 이용헤근에 이제 그 돌 그레 둥그렁 놔근에 들러다근에 영 비우면서 그 저 비왕 담 다우고 이추룩도 해나고.  
 @1 예, 게믄 굴체는 뭘로 만들어서마씨? 여기서.

#3 대로, 대로.

@1 여기는 대로.

#3 응.

@1 그냥 다 헛구나. 그거 꼭 해당 이렇게는 안 해고예?

#3 아이, 끄은.

@1 그 산태 부출 허면 이렇게 생겼잖아예? 이렇게 길게.

#3 예.

@1 이 손잡이 여기가 저기 아까 솔피낭으로.

#3 으.

@1 불출? 부출.

#3 부출, 부출.

@1 부출예, 솔피낭으로 허고, 이 안에는 무신 낭으로 험니까? 여기는.

#3 쌀엔.

@1 쌀?

#3 으.

@1 산태쌀이잖아예?

#3 것도 솔피낭 같은 거 그런 걸로.

@1 아, 깨어 갖고.

#3 응.

@1 작게 해 갖고.

#3 깎는 거.

@1 깎는 거 해당.

#3 어.

@1 아, 전체적으로 솔피낭으로, 솔피낭이 막 질긴 낭이구나?

#3 어, 막 질겨예.

### 질메

@1 아, 예,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쟁기하고예. 그 질메 이렇게 헐 때.

#3 으.

@1 질메 요런 식으로 허면 멘들지 않읍니까예? 여기 허면. 질메, 쉼질멧가지.

#3 으.

@1 그 질메에는 그 이름들 잇는 것들, 여기 옛날에 보면 질멧고망 이런 말도 허잖아예? 질멧굼기 험니까? 고망 험니까? 여기. 영 낭 두 개 질메와 질메 영 연결허는.

#1 그 사이예?

@1 예.

#3 아이고, 그.

#1 그 사이, 여끄는 거.

@1 으.



#1 사이 나무 부뜨게.  
 @1 예, 그거 혹시 이름 알아지쿠과?  
 #3 이름은 모르고예.  
 @1 으.  
 #3 질메 허면 ㄴ치 그자 다 그 안네 들어가는 따문에 질메, 쉼질메.  
 @1 쉼질메. 그다음에 물은 물질메. 물도 질메 잇잖아예?  
 #3 물, 물은 이 질메를 안 허고 질메 허면은 물은 등, 등따리가.  
 @1 예.  
 #3 이 납작, ㅎ썰 헤 보니까 그 맞질 아녀양.  
 @1 으.  
 #3 물은.  
 @1 응.  
 #3 게난 소는 질메 허여근에 출을 시끄는데. 그때 출 허면은 처음에 ㄴ답 단씩 양쪽에 헤 근에 이제 가로 영 무꺼 낭 또 시꺼 놓나, ㅎ 쪽에 열닷 단씩 헤근에 서른 단을 ㅎ 번 시꺼 왕 출밧디 가근에.  
 @1 예.  
 #3 집에 시꺼당 겨울에 그 출을 사료로 영 썩 헤다근에 이제 소로.  
 @1 응.  
 #3 등, 그 등에다가 놓면서 시꺼단에 눌엇다근에 겨울에 소 먹이로 사용헷주.  
 @1 게난 그거 허면은 ㅎ루에 몇 번을 이거 실러야.  
 #3 예.  
 @1 출 헤시커라예, 서른 단씩 허민.  
 #1 ㅎ 머리씩 시끄는 것이 아니고, ㅎ 일곱, 대여섯 머리도 시끌 수도 잇고.  
 @1 아, 집에.  
 #1 앞의 쉼 출 시끄면은.  
 @1 예.  
 #1 그 소가 집을 알아서 집을 찾아간다니까요.  
 @1 아, 짐만 딱 시끄민.  
 #1 예. 짐만 시경 허면은.  
 @1 으.  
 #1 예 골목 기니깐 어떻게 어떻게 집이 찾아오는 거야. (웃음)  
 @1 예.  
 #1 예, 꼭 한 머리씩 이렇게 끌고 다니지 안 헤도 알아서 찾아온다.  
 @1 음. 웨냐면 다른 동넨 가면 쉼가 ㅎ 집에 ㅎ 머리 정도, ㅎ두 머리벧기 없는데 수망은 쉼들을 하영 질루니까.  
 #3 예.  
 #1 예.  
 @1 쉼마다 다 짐을 지왔구나?

#1 예, 예, 예. 짐은 그냥 밖에 내 불민 어느 정도 집이까지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집이까지 어느 정도는 자기 집 찾아와.

@1 예, 계민 옛날 그 질매 써난 질매들 집에 이신 사람 이시카마씨?

#1 어.

#3 계매.

#1 지, 지금. 지금 수망리 사름덜 쉼 그 출을 시켜 본 사름덜 그렇게 많지는 았을 겁니다.

@1 예.

#1 우리, 우리도 쪼끔, 쪼끔 뭐 해보진 안해도 같이 이렇게 같이.

@1 같이 도와.

#1 도와서.

@1 음.

#1 시켜보긴 허니까 허는 거지.

@1 예.

#1 그렇게 많진 안허여.

#3 영 실러근에.

@1 으.

#3 실러근에 흔 쪽에 트라지면은.

@1 예.

#3 돌담 해근에.

#1 (웃음) 돌 하나 이렇게 찢러근에.

#3 발르게 안 허면은 그것이 씨러져 불어.

@1 예.

#3 그러면은 돌담으로 해근에 그거 발르게시리 영 해근에 그레 접정은에.

@1 으.

#3 (웃음)

@1 그게 지혜 아니라예? 우리 어른들이.

#4 아, 그축룩 헛구나.

@1 아, 그치룩 헛구나. 나한테 고맙수덴 헛서예.

#4 아, 우린 라면 세대 아니파게?

@1 라면 세대. (웃음)

#4 몰라마씨.

## 멍에

@1 계난 또 멍에예, 삼춘. 그 어쨌든 밧갈젠 허면 장기도 잇어야 허고, 멍에 잇잖우파예? 멍에 허게 되면 이 멍에는 무신 낭으로 멘들어마씨?

#3 으, 멍, 멍에도 솔피낭.

#1 아니, 머귀낭으로 많이 헛수다.

#3 도 허고.

#1 부드러워야 돼니까. 피부에 와서 닿으니까.  
 @1 예.  
 #1 좀 딱딱하지 않은 남으로.  
 @1 머귀낭.  
 #1 으.  
 @1 머귀낭이 거부우니까 이제 머귀낭 허고. 그다음에 좁게는마씨?  
 #3 좁게는 솔피낭이.  
 #1 으, 솔피낭이 첩고.  
 #3 최고고.  
 @1 아, 그럼니까?  
 #1 솔피낭이 딱딱헌 이레 목에 이렇게 메는 거난.  
 @1 예. 근데 다른 딴 가니까, 윤노리좁게.  
 #3 아, 윤노리도 허는데.  
 #1 윤노리도 좋아요.  
 #3 으, 윤노리도 이 질겨근에 그 윤노리도 허는데, 그 그것보다는 솔피낭이.  
 @1 음, 게난 이 수망리에서는 솔피낭을 주로 이런 농기구 사용하는 데 헌 거다예?  
 #3 예, 솔피낭이 왜 그러냐면은 끊어 비어나든 순나는데.  
 @1 응.  
 #3 그 굽텡이예가 이렇게 영 딱 뒤희면은 허여근에 구멍을 뚫랑 영 놔도, 허고 이 윤노리 낭은 그렇게 낭이 좀 휘축허게 올라가주게.  
 @1 으.  
 #3 윤노리낭은.  
 @1 휘차게예.  
 #3 예.  
 @1 예.  
 #3 그런 뭐가 잇언 허니깐 그 굽텡이 영 얹어나면은 끊어근에 영 허는데 그 솔피낭이 젤 사용을 많이 헤수다. 또한 이 도리깨 만드는 데도 그런 거 헤근에 기자 그 솔피낭이 있으면 은 그 영 불에 구웁 영 데우면은.  
 @1 데와정.  
 #3 잘 데와지고.  
 @1 아, 솔피낭을 하영 허고. 그다음에 그 줄대?  
 #3 줄대, 예.  
 @1 예, 멩에 줄대 잇잖우파예?  
 #3 예.  
 @1 그 줄대는 무신걸로 만들라마씨?  
 #3 건 드레, 드레, 드렛꿀, 줄[쥘].  
 @1 드렛줄.  
 #3 으.

@1 아, 드랫줄로 이제.  
 #3 예, 예.  
 @1 두드령, 예.  
 #1 벗겨 갖고 이, 이렇게.  
 #3 거.  
 #1 꼬아서.  
 #3 데, 데우면은.  
 @1 아, 예.  
 #3 것이 영 두드리면서 데우면은 뭐 해근에 걸로 이 꼬아서 거 베 만들어서 이제 그 줄덜  
 허는 거주.  
 #1 것이.  
 @1 예.  
 #1 다랫줄로 만들면은 다랫줄이 뽀뽀하니까.  
 @1 예.  
 #1 이렇게 쉼 돌아갈 때도 엉키지 않고.  
 @1 음.  
 #1 그냥 쉼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꾸부러지니까.  
 @1 으.  
 #1 그 엉키는 것이 없어요. 다른 뭘로 허민은.  
 @1 으.  
 #1 말랑말랑하면 것이 엉켜 갖고 안 뒹.  
 @1 아.  
 #1 다랫줄이 최고, 거는.  
 @1 아, 다랫줄, 여기도 다랫줄이 많구나? 그럼 다랫줄을 그 불로 이렇게 헤 가면 애가.  
 #1 아니, 아니.  
 @1 그대로?  
 #1 꺾데기만, 꺾데기만.  
 @1 꺾데기만 벗겨 해마씨?  
 #3 꺾데기만 벗겨 버리면은.  
 #1 꼬아서.  
 @1 음.  
 #1 이렇게 저, 옛날 그 초가집 줄 놓듯이.  
 @1 예.  
 #1 이렇게 굵게, 굵게 꼬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죠.  
 @1 예, 그 꼬을 때는 무신걸로 꼬았수과?  
 #3 아니 그, 그대로 데왕은예.  
 @1 데왕.  
 #3 으.

@1 으.

#1 거 데우는 건 손으로 하지 않고 거, 뭐 호랭이우짜?

@1 호랭이로.

#1 (웃음)

@1 호랭이로 해 갖고.

#1 그런 것이 있수다, 아무튼.

@1 아. 계난 여기는 줄대는 ㄷ랫줄로 하고.

#3 예.

@1 쉼석 ㄱ튼 것은 뭘로 해마씨?

#3 쉼석은.

@1 녹대 이런 거.

#3 이 꼭, 꼭 해근에.

@1 으.

#3 꼭 해근에 빠져근에 걸 물에 빨아서 영 해근에 걸.

@1 으.

#3 또 꼬아근에 베 만들어근에 사용했지.

@1 베 만들어근엥 하고예.

#1 옛날에는 거는 신사라가 쥔 좋앗었는데.

@1 아.

#1 질기곡. 이렇게 쉼 이렇게 돌아갈 때는 농민 이렇게 돌아갈 때는.

@1 예.

#1 흔쪽은 그냥 내 버리면 밭 걸리지 아녘니까. 이렇게.

@1 예, 예.

#1 손에 말아서 이렇게 흔쪽으로론 들고.

@1 예

#1 흔쪽엔 이렇게 잡아당기게끔.

@1 응.

#1 그, 그렇게 하니까 말랑말랑한 것이 좋고.

@1 예.

#1 줄대는.

@1 음.

#1 뽳뽳해야.

@1 뽳뽳해야 좋고.

#1 으.

@1 계난 이렇게 부림페.

#1 예, 예.

@1 같은 경우는.

#1 예, 부림페. 말랑말랑해야 신사라 같은 것이 막 이렇게 두들켜서 안에 그 실 같은 것이

있지.

@1 옛날에 보면, 밧 갈 때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허면 동글랑허게예? 아까 부림페.

#3 예.

@1 동글랑허게 영 손잡이.

#1 예, 예.

@1 그 하는 것도 잊잖우파예?

#1 예.

@1 그건 뭐렌 험니까? 그 이름을 모르겠네.

#1 모르겠습니다, 거는.

#3 그 뭐 나도 몰라. (웃음)

@1 것도.

#1 부림페 이 손 잡게끔.

@1 예.

#1 손 잡게끔.

#3 동글랑허게 해근에.

@1 낭으로 해영.

#1 양쪽에 영. 쉴 때는 양주머리에 딱허게, 두 개 이렇게. (웃음)

@1 예, 예, 예.

#1 예.

@1 것도 낭으로 영, 저기 꼬양은예.

#3 득, 득, 득, 득랫줄.

@1 것도 도랫줄 해 갖고?

#3 음.

@1 아.

#1 쉼 코 꿰 때도 득랫줄로 허지 안헤수과?

#3 으.

#1 거의 다랫줄이라, 다랫줄이 좀 말랑말랑합니다.

@1 말랑말랑예. 그 멍에 보면 이 베로 이렇게 저기 쉼 영 해야 뒤잖아예? 거기는 뭐렌 험니까? 그 부분은. 뒤에 꼬리 잇는 데도 이렇게 나무도 잇고, 배에 여기 등켄가 여기 허는 것도 잇고.

#1 오랑?

@1 오리목, 오랑.

#1 오랑?

@1 오랑.

#3 오, 오리목은.

@1 예.

#3 뒤에 영 허는 것 ㄴ라 오리목이엔 허고.

#1 오랑에.

@1 예.  
 #1 허면 마차혈 때.  
 #3 저.  
 #1 마차혈 때도 이렇게.  
 #3 배에 끈 메는 건 오랑.  
 @1 뱃대끈이 이제 오랑이고.  
 #3 응.  
 @1 뒤엿 거 그 나무예, 꼬리 못 현 거는 오리목.  
 #3 오리목.  
 @1 응, 오리목 허고. 그 뒤에 그 들벥이뿔이우파? 여기.  
 #3 예, 들벥이뿔이엔 그치록 곤주게.  
 @1 이렇게 무끄는 거예?  
 #3 예.  
 @1 이게 오리목이고.  
 #3 예, 오리목에 영 해근에 그 잠대에 무끄는 거.  
 @1 예.  
 #3 건.  
 @1 그다음에 그 오리목 연결하는 낭 잇잖우파?  
 #3 예, 잠대.  
 @1 아니, 아니. 그 저, 여기 꼬리 쪽예.  
 #3 어.  
 @1 영 나무 요만큼현.  
 #1 것보고 뭐엔 허지? 저 줄대, 줄대가.  
 @1 예.  
 #1 영 벌어지게 허는.  
 @1 벌어지게.  
 #1 응.  
 @1 맞수다.  
 #1 벌어지게 허는 그런 역할 허는 건데.  
 #3 그것이 오리목엔 그 나무보고.  
 @1 아니, 오리목은 그 줄이고. 나무, 다른 딴 가난 벼을레 이런 말 헨게만은.  
 #1 거 잠대 끄트머리 보면은.  
 #3 으.  
 #1 요렇게, 요렇게.  
 @1 예, 예, 예.  
 #1 그 허는 거 잊어요. 것도 중간에도 흐뎜 긴 거 이렇게 허는 거 잇고.  
 @1 응.  
 #3 아니 그 잠대 끝엿걸로 아녀고. 그 오리목 영 현 데 그 저 줄대허곡 뒤에 영 잇는 거.

@1 연결, 연결되는 디.

#1 잇어.

### 목장 관리

@1 예, 연결돼는디, 그거예. 놔의 동네는 가난 버을레엔 곱읍디다. 벌레. 거는 튼내지 못  
허고예, 예, 알아수다. 거는 나중에 또 튼냄시믄예, 저 곱아줍서예. 자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목장들 목장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3 옛날에는 이 다 집집마다 영 쉼을 질라 놓니깐. 번기[번끼]엔 해근예.

@1 예.

#3 그 번기엔 해근예 이제 오늘 내가 당번이면은 가근예 쪽.

@1 응.

#3 돌면서 담 커젓으면은 거 댜 담 보수행 다고.

@1 예.

#3 또 정 그튼 디 영 다면서 내가 돌았다는 표시로 고사리나 낭썽 해근예 그 담 우에 톱  
낭은예 돌 지돌르고.

@1 예.

#3 이추록 허면서 이제는 해영 또 내일 그 돌 사름한티 냉겨줘근앵 허면은.

@1 으.

#3 이제 그 사름이 돌양은예 영 또 냉기고 이추록 헛는데. 그때는 종이도 없어 놓니깐 이  
비료푸대 종이가 쥔 질기고.

@1 으.

#3 그런 것이 었으면은 종이가 막 질기곡 뭐 허니깐 그런 종이에 해영 썸 기자 돌명 뒹헤  
낫주게.

@1 예. 계난 그 번기라는 말이 그 번 서는 거 기록해 놓은 거를 말하는 겨우파? 아니면  
번기가 뭐?

#1 당번.

#3 당번.

@1 당번을.

#1 당번을 적어놓는.

@1 응.

#3 순번, 순번을 적어놓은 거.

#1 순번을 적어놓는 거.

@1 예.

#1 당번, 순번을 적어놓은.

@1 적어놓은 그 기록이잖아예?

#3 어, 예.

@1 오늘은 김○○.

#3 예.



@1 오늘은 누게 허고.

#3 예.

@1 그 번기 옛날 써난 그 자료가 이시카마씨?

#3 아이고, 자료 엇주, 그거.

@1 그 자료 잇었으면은 정말 좋은 저긴데. 목장장님 그거 어디 강 좇아 봅서.

#4 (웃음)

#3 아이, 번기[번끼] 해난 거 엇어.

#4 시가지 맙서, 나랑.

@1 (웃음) 거 문화재 댜 거라.

#3 우리, 그 저, 사삼사건 전에 자료엔 현 거는 부락에 흐나 잇어난 우리 그 \*\* 목장 소  
송허젠 허니깐 그 수령산 아이, 목, 무슨 궤?

@1 응.

#3 그치록 헨에 그 총 죽이 만들어진 게 잇언에 그걸 이용헨에.

@1 예.

#3 목장 소송을 헨에 처음에 그 우리 \*\* 목장을 좇았는디.

@1 으.

#3 그 자료에 보면은 사삼사건 전에 해난 것이 목장에 이젠 관한 누구네 밧을 샷다 현 증  
서도 잇고 또 이제 그 돈이 좀 그때도 잇으니까 멧 십 원 놉 꾸어준 뉘도 잇는데, 그 사름덜  
이 다 죽어 버리난 준 건 모르고, 그 단지 쥔 유용헌 것은 우리가 그제 그 궤축을 가져근에  
그 소송혈 적에 헨에 저게 그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영아리 중심으로 사방 우리 돌담을 허면  
은 이제 그 석축을 만들언에 서류를 뉘다는 걸 그런 기록이 잇어예.

@1 예.

#3 그걸 영 가전에 그 뉘헛고, 단지 그 당시에 뉘 헛던 거는 그, 그 칠십삼 인이 조합원이  
잇었다는 명이가 다 그 사름들 명이에 잇으니까 그 목장은 문딱 다 풀아버린 우리가.

@1 응.

#3 지금도 그 더○○○ 그 골프장 허는 단디, 그 목장은 우리가 툴려 버리고.

@1 예.

#3 그 명의 잇으니까 후손덜이 문 풀아먹어 버리니까.

@1 예, 예, 예.

#3 으, 경허고 그 웨로는 우리 부락에서 지금 뉘, 뉘엔 잇고. 그 서류 흐나 중예가 산 삼  
십사 번지엔 현 것이 이제 그, 플레 왓으니까 그 좇안 이젠 그 목장에 우리 하르버지 거니  
까, 아, 우리 부친 거니까 이젠 내가 이전헤야 쓰겟다고 헨에 그 태흥리 분인데 김○○이 면  
장도 해나고 현 분인데, 처음 왓으니까 이젠 그 문세를 보관허면 잇다가 이제 그걸 앗단  
베우니까 그 부친이 수망리에 그 풀앗다는.

@1 으.

#1 문세가 잇으니까 그 목장을 지금 좇아놓[노]니까.

@1 응.

#1 이제는 그 뉘허는 것도.

@1 계난 그런 기록이 중요한 거라.

#3 예, 그런 기록 없었으면은 그 목장도 우리 명종이털도 완전 저 냉겨줘 버릴 거, 그 ○  
○ 면장한티.

@1 응, 팔앗다라는 문서가 있으니까.

#3 으, 문서가 지금도 그 문서는 난 그 계속 잘 보존행 놔두라고 허니까 지금 우리 부락  
에 지금 짓도.

@1 거는 마을에서 문서 보관합니까?

#3 예.

@1 으, 짓도 나중에 이제 기뻐 뉘든 한 번 봐보고예. 쟁 그러면 목장을 그런 식으로 관리  
를 하는데 쉼은 언제 올리고 어떻게 해마씨?

#3 쉼은 보통 그 그때는 이 청명일 뉘야 그 풀이 나근에 좀 푸릇푸릇해야 쉼을 놓아근에.

@1 응.

#3 뭐허고 짓도 또 겨울 들어가면은[겨울 뜨러가며는] 보통 혼 시월 말 우리가 그 고구마  
팔 적에도 다 판 다음에 수확헌 담에도 보통 강 목장에 강 내리와다근에 영 해근에 기자 집  
에 메곡 이추룩 헛주예.

@1 계난 청명부떠 해서.

#3 예, 예.

@1 아까 이제 시월 말, 십일월 이런 식으로 해근에 내려오고예. 아까 이제 우리 삼춘도  
이야기헛지만 차근차근 하잣부떠 차근차근 이렇게 맥여간덴 허명예?

#3 계난.

@1 쉼 놓을 때.

#3 그 웨 그건 그렇게 허느냐면은예, 이 막 흥나에 이제 그 풀어놔 버리면은 쉼 돌아봄이  
나 관리허기가 힘들기 때문에.

@1 으.

#3 그 하잣 첫체 해근에 그 안네 농곡 그다음에는 또 여름철 뉘가든 중잣드레 올리고 이  
추룩 헛주.

@1 아, 계난 봄에는 하잣 먼저.

#3 예.

@1 여름은.

#3 중잣드레 올리고.

@1 중잣. 그 맨마지막에 가을 들어가면 상잣.

#3 상잣은 지나근에는 그 이 곳췌엔 해근에 그 저, 밀림에 여름철에양, 그디 살아난 소는  
벋깃딴 가근에 그 낭 아래 살명 기자 뭐허기 때문에 경허기 때문에 침 겨울 들어가든 이  
눈 와가면은 올라가근에 췌 뎡겨난 디 자국 좇아근에 행 내려와오고, 또 여름에는 이제 그  
물 이신 디만 알아근에 영 허면은 췌덜이 뎡겨보면은 물 먹어난 걸 자국을.

@1 으.

#3 봐근에 췌 뎡겨났으면은 거기 가근에 뉘날 강 이제 영 보다 보면은 췌가 왕, 물 먹으  
러 왔으면 췌 확인을 허고 이추룩 허여난 이젠. 산에 올리는 거는.

@1 예, 거난 물이.

#3 예.

@1 켜장히 중요헌 거라예?

#3 예.

@1 그 목장 쉼 돌아보는 거는 한 저기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쉼 올려난 다음에는.

#3 건 뒤편 뜰나면은.

@1 으.

#3 뜰나면은 그자 몇 번이라 정해지지 아녜 그자 뒤편 촌 수시로 그 시간 나면은, 바쁘지 안헛곡 허면은 가곡.

@1 게문 그때는 뒤편 동아리 행은에 가마씨? 아니면은 개인으로?

#3 개인 뒤편, 개인.

#1 그때는, 이, 그때는 이 고지 놓는, 곳.

@1 예.

#1 치림, 밀림 안네 놓는 소는 이렇게 갓던 그, 그 소 임자들을 혼 몇 사람이 해서 야, 우리 고지, 고지 그 쉼나 강 혼번 좇아보게, 이렇게 몇 사람씩 영 어울려서 가기도 헛습니다 게.

@1 예.

#1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예.

@1 그러니까.

#1 혼자, 혼자 다니기는 뒤편하니까 그냥 여러 사람이, 혼 몇 사람 서너 사람씩 모여 갖고 가기도 헛고.

@1 예.

### 백중제

@1 그, 쉼 헛을 때 옛날 백중제예.

#3 으.

@1 삼춘네는 백중제를 어떤 식으로 지냈수과?

#3 그 백중은 계속 해낫주예.

@1 예.

#3 뒤편 그 열나, 열나흘날 밤에.

@1 음.

#3 밤에 그자 한 열 시에 영 해근에 그 장소는 아주 그 곱닥헌 동산.

@1 예.

#3 그런 데 정해근에 그자 강 뒤편 해낫주.

@1 게난 것도 다 사람마다 트나덴 허명예? 이렇게.

#3 예, 예.

@1 개인도 하기도 하고, 그 아까 우리 삼춘은 두 번을 헌덴 헛게마는.

#3 그 뒤편날에 헌 거는 그다음에 막 이, 후에.

@1 으.

#3 초지 조성하고 공동으로 영 헨에 뭐, 시작헌 후제는, 백중제 그 우리 옛날에는 뒷날  
하는 거는 들백중이엔 헛어, 들백중엔.

@1 아.

#3 겐디 지금은 그, 그날을 해근에, 부락 전체적으로 그 저, 목장조합 전체적으로 백중을  
하고 있는데.

@1 게문 요즘 백중제는 목장장님이 초헌관하는 식으로 해서 됩니까? 아니면은 옛날 방식  
으로 됩니까?

#3 옛날 방식. 그대로 기자 영 해근에, 메만.

@1 으.

#3 영 낮다근엔에, 영 이치록 올렛당은에.

@1 으.

#3 절도 안 하고.

@1 으.

#3 경 이제 그, 잡식해근에 케우령은에 해된, 그자 술 혼 잔 먹곡 영 거기서 그자 뭐.

@1 경해도 말명은 헌텐 헛디다. 그 저 제헛 때 뉘렌 뉘렌 허명은에. 뉘렌 곶으멍 제지넙  
니까?

#3 아이, 무신. (웃음) 그런 거 엇엇어.

#1 겐디 이 백중하면서이.

@1 예.

#1 그런 거는 잇엇일 거. 말은 안 해주마는 마음속으로는.

@1 @2 (웃음)

#1 어, 아, 우리 쉼 좀 잘 봐 줘서 뭐 이런, 이런 기도 식으로 하는 거는 잇엇을 겨우다  
게.

@1 게난 그건 누게안티 잘 봐 주렌 곶읍니까?

#1 어?

@1 누게안티?

#3 백중이렌 혼 것이.

#1 아, 제지내면서.

@1 으.

#1 아, 우리 쉼 이렇게.

#3 그.

#1 제도 지내니까.

@1 으.

#1 우리 쉼 좀 아프지만 말게 좀 마음속으로.

@1 예, 기원, 기원.

#1 마음속으로 그런 것도 사름마다는 다 틀리겠지만은 경 헛지 않은가? 조합장.

#4 맞수다. 아, 우리는 나는 그 그때.

@1 예.  
 #4 그 물영아리.  
 @1 으.  
 #4 수령산 쪽으로 흐니까 그디 산신령님헌티 허는 거.  
 @1 아, 산신령님한테.  
 #4 잘 봐 주십센.  
 @1 거긴 무슨 산마씨?  
 #4 옛날 수령산, 수령산 해수계.  
 @1 물영아리를 수경산이렌?  
 #4 수령.  
 #3 수령.  
 @1 수령산.  
 #4 수령악, 수령악 헛단 수령산도 여긴.  
 @1 응.  
 #4 곁아났고, 허고.  
 @1 음, 수령악 허니깐 물영아리.  
 #4 물영아리, 옛날 저, 산신령 살아났덴 험수다게.  
 @1 아.  
 #4 수령산이렌도 곤곡, 수령악이렌도 곤곡.  
 @1 음.  
 #4 지금 왕 물영아리엔 곤는 거 아니우파? (웃음)  
 #3 그 옛날에는 그.  
 @1 백중.  
 #3 수령산에 가근에 막 웨어 가면은 막 갑자기 안개가 끼는 때문에 웨지 말렌 곁아났어.  
 그디 가문.  
 @1 음.  
 #1 거 옛날 어른들이.  
 @1 예.  
 #1 산에 가민 조심허라는 그 뜻으로.  
 @1 으.  
 #1 거기 가민 실지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산에 가면은 조용히 다녀야 된다.  
 @1 음.  
 #1 이거 뭐 큰소리치거나 뭐 흐면은 안개 끼서 길 잃는다, 뭐.  
 @1 음.  
 #1 그 그런, 그런 뭐가 잇는 거. 실지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르쿠다마는.  
 #4 요새도 경헤마씨.  
 #1 (웃음)  
 @1 아, 요즘도예?

#4 예.

#1 그때는 물이 엄청나게 또 물영아리는.

#4 꼭 그런 날만 가는 거주. (웃음)

#1 물영아리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진짜 뗏목해서 무서웠습시다게.

@1 예.

#1 실지는 소도 빠져 죽고 말도 빠져 죽는 것도 있어나고.

@1 음.

#3 그, 그전에는.

#1 그, 엄청나게 기쁘고예.

#3 이 소가 막 울렁 내 불면은 막 그 물을 다려 놓니까.

@1 예.

#3 다려 놓니까 이제는 물이 번번하게 헛는데. 이제는 그 소털이 그레 안 올라가근에 뭐 헛기 때문에 물이 고이고 고이고 영 허영 뭐해도 그.

@1 빠져 버려.

#3 습지, 으, 흑 뭐 쫄레쫄레 흑 그 모양으로 영 기자 폭 들어가든 발 영 불르민 빠내지 못 행은에 흐는 식으로 습지 영 헤 부니까 물이 얼마 없어, 지금.

@1 그러니깐 옛날엔 다 다려 주니까예? 고인 거예. 음.

#3 예, 물이 고여서 막 뭐 해놔는데. 지금은 그렇질 안해.

@1 그 백종이렌 흐 말은 무사 백종이우파? 아까 곧당은예.

#3 으, 백종은 그 옛날 어른덜이 그 테우리 이름이라는 거쥬, 백종이.

@1 예.

#3 테우리. 경 허니까 그 사람이 그 축산하는 사름덜은 백종을 위해야 댜텐 허여근에 그 백종을 허는 거. 경 헤 놓니까 이제는 그 절도 안 허곡.

@1 음, 계난 그 백종은 이제 테우리 허는 저긴데 그 인간보단은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헛다는 거지예?

#3 예.

@1 으, 그 제는 거기에 제물들은 뭐 올림수과?

#3 득, 득 흐 머리 솟앙 강 허곡, 빵.

@1 으.

#3 쟁 옛날에는 밀궤루빵 밀궤루 그.

@1 상웨.

#3 으, 상웨떡이나 이런 거 뭐 행은에 그자 영 뭐 흐곡.

@1 그 득 혈 때 암퇘해마씨? 장득해마씨?

#1 장득입주게.

@1 장득.

#1 예. 암퇘은 잘 안 씹니다.

@1 아.

#1 (웃음) 장득 없으면은.

@1 아까 못 물어봤, 이제. 어, 꼭 여기는 그 덕 숯양 간텐 허명예?

#3 응. 덕.

@1 장독으로. 게문 쫓나면 모인 사람끼리 이제.

#3 어, 경 술 혼 잔 먹곡 기자 거기서 그걸로 영 행은에.

@1 예. 메는 무슨 곤밥합니까?

#3 곤밥게, 으.

## 넉인

@1 곤밥하고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전 삼춘도 그 넉인 해 봐마씨?

#3 아, 넉인 해 봐.

@1 넉인은 어떤 형식으로 해수과? 할 때.

#3 넉인은 우리가 그 정 자, 곰배 정 자나 뭐 이런 거 뭐 무신 이, 예를 들면 그런 뭐 해 근에.

@1 으.

#3 이 금승, 으, 두 술 난 때.

@1 다간 때.

#3 으, 다간 뒤편은 목장더레 농젠[첸] 흐면은 이제는 그 소를 녹저근에 불에 그 췌를 귀 근에.

@1 음.

#3 그걸로 영 흐면은 그 털이 싹 녹아근에 그것이 이제 목장에 놔도 아, 요거는 영 보면 은 그 넉인으로 해근에 내 췌다 뭐 현 걸 좇았지.

@1 음. 게문 삼춘네는 곰배 정 자 넉인 찍어수과?

#1 아니.

#3 아니 우리는.

#1 새 을 제우파?

#3 새 을 제.

#1 어, 새 을 제.

@1 으, 새 을 제.

#1 저긴 멧 산 자.

#4 아니, 아니, 우린 아버지 혈 땀 으뜸 원 자.

#1 어?

#4 원 자, 원.

@1 원 자, 우리 삼춘네도 원 자엿는데.

#4 우린 원 자.

#1 아, 우린 멧 산 자.

@1 아, 멧 산 자우파? 아까 현 거는.

#4 우린 원 자 그게 나 어린 땀가 스무 설 넘어도 봤어예. 그 담고망에 영 찢러진 거 봐 에 이거 무시거파? 허난 넉인이렌 곱읍디다. 기억나마씨. 원 자.

@1 원.  
#1 넥인 없어진 이유가.  
@1 예.  
#1 그 뉘엔 허나 우적.  
#3 으.  
@1 으.  
#1 우적이 생기면서 넥인이 없어졌어요. 넥인 혈 필요가 없으니까 우적.  
@1 으.  
#1 소에 이렇게 딱 딱지 박는 거예.  
@1 예, 예.  
#1 옛날엔 그 경 그 으.  
#4 은색 나는 거. 이런 은색 나는.  
@1 귀표, 귀표.  
#4 귀표 딱 허영 잇거든마씨.  
@1 예.  
#4 지금 그 쉼들은 다 죽었주.  
#1 다 죽었지게.  
@1 다 죽언.  
#4 (웃음)  
#1 살아 이신 디도 잇나?  
#3 넥인, 넥인 허영.  
#1 아니, 아니, 저 우적.  
@1 저, 귀표, 귀표 허는.  
#3 우적 허는 거?  
#4 옛날에 잇잖우파. 이런 거 은색 나는 거.  
#1 요런 거 길쭉헌 거 딱 박아진 거.  
#4 접제기 닳은 거로 톡 허게 찍은 거.  
#3 게난 그것이 저 이 넥연 찍은 후제 영 헨에 흐고, 이제는 그 목장조합 운영흐민 흐 들  
에 흐 번씩 뉘 흐주마는 그전에야 그렇게 계속 그 진두기 약도 허질 못했주게.  
@1 예.  
#1 아이, 난예, 그 소 흐면서 쉼 못 건딘 것이 진두기 약 흐 때는 우린 그때는 분무기가  
엇엇주게.  
@1 음.  
#4 (웃음) 으.  
#1 게난 이 형겅에 무청은에 소를 다 다까쫓어.  
@1 음.  
#4 (웃음)  
#1 다들.



#3 어.  
 @1 예.  
 #1 그렇게 그렇게 허니까 손에도 이거 뭐 하얗게 막 묻꼭 그때는 장갑 없었습니다.  
 @1 예.  
 #1 고무장갑이 없어, 없을 때니까.  
 #3 장갑이 안 나왔주. 나와도 우리가 사실 못했거든.  
 #1 어.  
 #3 돈이 없으니까.  
 #1 아니, 어디 서울 같은 디는 나와실 거우다마는예.  
 @1 음.  
 #1 우리, 우리, 우리 수망리는 없었어. 켜 다 이렇게 소 메어 갖고 이렇게 그 팬손에 이렇게 해서 형집에 허민 그 약도 좀 독헌 약이.  
 @1 으.  
 #1 손도 좀 아프고예.  
 @1 예.  
 #1 그, 그러다가 이런 분무기 나오니까 어떻사 편헌지. 근데 ㅁ을마다 그런 거 다 집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1 예.  
 #1 아, 그거 흔 번 빌어 쓸려면 얼마나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허고. (웃음)  
 #3 (웃음)  
 @1 계난 그 저기 할 때 우리 진, 진드기를 여기 수망리서는 뭐렌 곱읍니까?  
 #1 진독.  
 @1 진독.  
 #3 진독, 진독.  
 @1 진독도 있고.  
 #3 부구리.  
 @1 부구리.  
 #1 부구리도 잇꼭.  
 @1 그다음에 막.  
 #1 서미역, 서미역도 있고.  
 @1 서미역. 준준흔 거예?  
 #1 으, 서미역.  
 @1 서미역 잇고.  
 #3 진드기보고 서미역이엔 ㅎ는 거고.  
 @1 예.  
 #3 그다음에는 그 부구리는 큰 것이 부구리엔.  
 @1 으, 하고.  
 #3 예.

@1 계난 그 피 빨아 먹으면 이만큼 막 커지는 거 아니라예? 부구리예?

#3 응. 피 빨아먹으면 허면은 그처럼 커정은에 허면은.

@1 계난 옛날 부구리체로 이렇게 허진 안헤수과?

#3 아, 그 이 저 톱.

@1 으.

#3 님은 거 톱글랑흔 걸로 헤근에.

#4 응.

#3 그 막 굶어근에.

#1 그 무시거렌 헛지?

#4 무시거?

#1 부구리 굶어주는 거?

@1 그 굶어주는 거 뭐렌 헤수과?

#3 하, 뭐렌사 헤신디 뭐. (웃음)

### 불까기

@1 으, 아까 튼내지 못헛. 튼내지카 부텐 헤신디 안 뵈네. (웃음) 이제 그런 식으로. 혹시 여기 그 쉼들 밧갈췌 허젠 허면 불도 즐릅니까? 불 까부는 거.

#3 불까 불어야 뵈주예?

@1 예. 그건 어떤 식으로 헤마씨? 그거 헛 때 막 췌가 못 견뎌 헛헛 헤명 헛게.

#3 아니 녹정은에 윈 그, 저, 뵈지 불까듯이 까는 거주게.

@1 음. 그렇게 불까 분 췌는 뭐렌 굴아마씨?

#3 뵈엔 곤느니? 그 불 이신 건 부랭이렌 헛는디 말이.

@1 예, 튼, 튼내. 아고, 이치록 허민 내가 곤지 말아야 뵈는데. (웃음) 튼내. 뵈우파? 중, 중성기.

#1 불까 분 췌 보고 뵈엔 허나?

@1 여긴 중성기렌 안 헤?

#1 중성, 뵈?

@1 중성기.

#1 중성기.

@1 예.

#1 중성기.

@1 예. 밧 갈젠 헛민 꼭 그걸 헤야잖아예? 으.

#1 예, 중성기. 그 소는.

@1 으.

#1 어, 어른덜이 이렇게 얘기헛는 거 들으면은.

@1 응.

#1 말 안 들어서 밧 갈당도 그냥 그 몽니로 그냥 들어눅곡 허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췌 베 불어도 어떻 안 헤.

@1 아.  
 #1 (웃음)  
 #3 건 바로 그 자리에서 경 베진 못하고.  
 #1 아니, 젤 쉬웁기는 쉬운 모양이라.  
 @1 으. 그난 그냥 즐라 부는 거구나. 건 딱 해 갖고.  
 #1 으, 소는 이렇게 혀로 핥아 버리기 때문에.  
 @1 예.  
 #1 농 ㄱ튼 것도 잘 안 앓고.  
 @1 아.  
 #1 사름도 뭐, 상처 나쁜.  
 @1 예, 예.  
 #1 이렇게 침 바르고 혀지 않습니까?  
 @1 예, 예.  
 #1 소, 소도, 그런 뭐 개나 그런 것도예?  
 @1 예.  
 #1 거 잘 안 걸립니다게, 잘 아물니다게.  
 #3 아, 게른 뭐 베어나근에 무신 약이 이시카 뭐 헨 소금 기자 싹 담아 부리른 걸로 꺾이  
 라.  
 #1 (웃음)  
 @1 아.  
 #1 게난 아주 쉬웠어.  
 #4 도새기 불베듯이.  
 @1 불베듯이.  
 #1 으.  
 @1 행은에 소금을 담아예?  
 #3 음.  
 #4 소금을 팍 담양 내불지, 미신.  
 #3 워.  
 @1 그 불에.  
 #4 예.  
 @1 아.  
 #4 젠디 아팡 막 죽어져마썸, 도새긴.  
 @1 음.  
 #1 돼지 같은 거는 거 아녀른 돼지는 이렇게 핥으 뭐, 혀로 이렇게.  
 @1 못하니깐.  
 #1 뭐, 못허주마는 소나예.  
 @1 예.  
 #1 개 같은 거는예, 잘 농 잘 아니 앓입니다. 아주 쉽게.

@1 아.

#3 계난 부랭이덜 웨 밧 갈당이라도 암쉐 지나가면은 그대로 그자 내삐어근에 밧 갈당이라도 내삐영.

@1 예.

#3 돌아나기 때문에 그냥 불을 까 불어야 돼주게.

@1 아.

#1 (웃음)

@1 계니까 그런 말들 나오는 거라예?

#1 예.

@1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막 그 쉼 좇이레 가거나, 이렇게 쫓췌 행은예, 우리 누가 잊어 불지, 재미난 거엔 안 허고, 잊어 불지 못하는 일. (웃음) 잊어 불지 못하는 일. 췌 질 루당 뭘 췌 새끼나니까 너무 기분 좋다든가, 잊어 불지 못하는 이런 일들 하지양?

#3 제일 추억에 남는 거는 가을에 그 뭘 췌 질루면서, 찰 췌 앞이 강 술 혼 사이다 아정 가근에 혼 잔 먹으면서 그 북북 출 뜯어먹는 거 보든 찰, 그것처럼 말여 행복하곡 즐겁게 보일 수가 없어.

@1 아, 삼춘은 사이다 혼 잔, 술 혼 잔 먹곡.

#3 예.

@1 췌는.

#3 으, 출 먹으면서 그 앞이서 영 해근에, 옛날은 차도 엇고게 해여 놓니까. 찰 걸어 아정 가근에 해영 해 저 갈 적에 혼 영 해근에 그 더운 때 영 해근에, 찰 그 췌 출 뜯어먹는 거 영 보면서 술 한 잔 먹는 것이 이것이 아주 그 찰 기가 막히게.

@1 예.

#1 나도 그 추억담을 하나 얘기하겠는데.

@1 예.

#1 옛날에는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1 예.

#1 이 중산간, 중산간 이 지역에도 버스가 잘 안 다녔습시다예.

@1 예, 예.

#1 잘 아녀민, 저 남원이나 일주도로나 이렇게 나가고 저 북군 사람들이 수망리 그 물영아리 쪽으로 췌 좇으레 오민은.

@1 예.

#1 많이 넘어왔습시다예. 계민 날이 어둡으면 잠잘 디가 없어마썸게.

@1 예.

#1 어떻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잘 디 엇으면은. 계민 민가로 내려와서.

@1 음.

#1 혼면은 그 사름덜토 정보가 잊어 갖고, 어디 가면은 뭘 소나 말이나 어디 가면 그 사름덜 많이 허니까 정보는 얻을 수 있다, 그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해마썸.

@1 예.

#1 켜, 이 날이, 날이 어둡어 저녁 때 뒤편은예, 그 모르는 사람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재워주고 밥도 주고.

@1 음.

#1 켜 해뒀 하다가 또 이튿날이면은 또 가서 뭐 이런 소, 소나 말이나 찾다가, 으, 집으로 돌아오고. 그런 사람들이 켜장히 많았습니다게. 게 인심이 그 저, 지금이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남의 집에 가서.

@1 예.

#1 그렇게 안 하면은 돌아갈 수도 없어요.

@1 음.

#1 그때 뭐 집이 별로 산쪽에는 집이 별로 었었으니까예.

@1 예.

#1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 옛날에는 이 우시장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산에 소 좇으려 다니면서 아, 누구네 집이 뭐 소 팔 것도 잇다 하면은.

@1 음.

#1 사기도 하고, 서로가.

@1 예.

#1 야, 우리도 팔 거여 하면은 뭐 집의 가서 소 보게, 영 하면은 하나 사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켜장히 까다로와 갖고예.

@1 음.

#1 소 파는 것도 장난이 아닙디다.

@1 예. 게난 이런 식으로 그 추억담들도 많고. 아까 이제 그 쉼 보레 번기 해 갖고 이렇게 쉼 보레덜 행은에 다녔잖아예? 그때 도시락들 썩 가지양?

#3 예.

@1 밥. 뒤편에 썩 갑디가?

#3 차반지, 차반지 알아?

@1 차반지, 예.

#3 대로 만든 거.

@1 대로 만든 차반지 해영. 삼춘네도 영 뚜러멩도 가 봄디가?

#3 예.

@1 정은예.

#3 아, 정은 안 다니고.

@1 으, 뚜러멩?

#3 뚜러멩예.

@1 그 뚜러멩 때는 무시거에 뚜러멩 갑디가?

#1 아, 차반지에 영 끈이 달려 잇게끔.

@1 아, 차반지 자체예.

#1 응, 차반지에.

@1 으.

#1 게른 쉼 보면 남으 소 이렇게 ㄱ꾸로 다닐 때도 보면은 나무에 딱 걸어놓고 잇다가.  
 #3 보리밥, 보리밥 해여근에.  
 @1 으.  
 #1 게 공기가 통허니까.  
 @1 예.  
 #1 밥맛도 쟁장히 좋고.  
 @1 음.  
 #1 그 비니루에 싸면은 그거 못 먹읍니다, 그거. (웃음)  
 #3 보리밥에 웬장허민, 웬장도 양념 엇이 그자 웬장 텅어리 쪼끔 영 뇌놓민,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엇어이.  
 @1 게른 밥허고 웬장만 쌍 강?  
 #3 어.  
 @1 쟁 물은 그디 강 쉼 먹는 물 ㄱ치 먹고.  
 #3 응.  
 @1 (웃음)  
 #1 그때는 하천물이 쟁장히 깨끗허고 오염도 안 뵈고 허니까.  
 @1 음.  
 #1 그 물, 젠디 지금도 나도 그 자원조사 다니면서 얘기 했는데, 그 사름이 세수를 흐거나 발을 씻거나 헐, 산에 가민 시원하게.  
 @1 으.  
 #1 그런 물을 좀 더럽힌 물은 딱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서 이 물을 못 먹는단 표시를 딱 해놓습니다예.  
 @1 아.  
 #1 게 그런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담귀 놓는데, 이거는 좀 뭐, 좀 나쁜 물이라 먹지 마라.  
 @1 음.  
 #1 뭐 소야 관계 없주마는 사름. 그때는 뭐 이런 프라스틱 병이 없으니까예, 뭐 뵈에 물을 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3 우리도 목장에 텅기당 막 물 먹고 싶으면은 물 내에 강 보믄은.  
 @1 예.  
 #3 그 통에 영 해근에 좀 잇는데, 막 그 빨경흔 그 저 준쉬 닳은 게 막 뭐 이시믄, 모자 영 행은에 그레 영 들이쳐근에 우로 영 빨앙 먹영 허곡.  
 @1 음.  
 #1 수건 이렇게 덮으면은.  
 #3 손수건은 아정 텅기질 못헛으니까.  
 @1 예, 예. 모자는 썩 텅기니까.  
 #3 응. (웃음)  
 @1 으, 게난 이런 식으로 허멍 먹어도 안 아프고.

#3 으. 아, 그것이 약인ㄱ라 먹어도 안 아파.  
 @1 예.  
 #3 계난 저 공사할 적에 태흥목장에 뭐 할 적에 한쪽에는 모육허곡.  
 @1 예.  
 #3 한쪽에는 우쪽으로는 우리가 그 물을 떠다가 영 해근에 밥헝 먹곡.  
 @1 으.  
 #3 그대로 먹곡 헛으니까게.  
 @1 음. 계난 이 잔디 이렇게 흰 디를 테목장(?)이렌 헛니까? 하영, 썬 하영 올린 디를?  
 #3 아니 태흥목장이라는 것은.  
 @1 예.  
 #3 건 예, 육십 년대 말에 그 처음 경운기가 나완에.  
 @1 예.  
 #3 목장에 초지 조성허젠 허니까, 경운기로 밧 갈젠 허니까 그디 간에 이제 그 태흥목장에서 살면서.  
 #4 멧엉.  
 #3 멧엉 살면서 이젠 그 경운기로 밧을 갈아난.  
 @1 예.  
 #3 토지 조성허젠 헛 겠.  
 @1 으음.  
 #3 겡 흘 적에. 그 그런 물을 떠당 먹으멍. 헛 쪽엔 모육허곡 헛 쪽으론 떠당은에 먹고.  
 @1 음. 그러면은 그 테목장(?)은 목지를 조성허는 데를 테목장이렌 헛 거라마씨?  
 #3 아니 우리 원래, 이.  
 @1 지경 이름이우파?  
 #3 으 지경. 저 표선은.  
 @1 으.  
 #3 그 면은 표선면인데.  
 @1 으.  
 #3 태흥리는 남원리 원데 그걸 태흥리 사름덜이 가전 잇언 허니까 태흥목장이렌 영 헛단  
 예.  
 @1 아, 태영목장.  
 #4 태흥.  
 @1 태흥.  
 #3 태흥목장.  
 #4 여기 태흥리.  
 @1 계난 태흥목장예? 어.  
 #3 응. 꼭, 폴아분, 다 폴어 불언 이젠 개인 손에 넘어간. ○○○ 그 골프장 곧 지나면은.  
 @1 예, 예.  
 #3 바로 그 목장이 태흥목장이라낫주게.

@1 음. 태흥목장인데.  
 #3 뭘 팔아 불언.  
 @1 거기 강 사는 거를 몇영 산텐 골아마씨?  
 #3 응, 몇영 살. 으 거기서 몇영 살면서.  
 @1 음. 아, 태흥리에 거기서 몇영은에 살명은에.  
 #3 모, 목장, 그 목장에 몇영.  
 @1 예, 예, 예.  
 #4 신물 먹어수과?  
 @1 으.  
 #4 신물?  
 #3 아니, 아니 그.  
 @1 몇다, 몇다.  
 #4 신물 말고?  
 #3 그 ○○○ 바로 동네편이 그 동알력펜이 보면은 물이 있어.  
 #1 원래 태흥리 사름덜이.  
 @1 예.  
 #4 또 이수과? 신물 말고이.  
 @1 예, 계난 그 동네 살명은에 이제 저기.  
 #1 지역, 지역은 가시리, 저 표선면 지역인데.

## 물 질루기

@1 예, 예. 그렇게 허멍 이제 목장 하고예. 물은 어떻 질러수과?  
 #3 물은 이 목장에 놓아 버리면은, 이 소영 ㄱ치 놓면은 새뿌리까지 기자 막 판씩허게 먹어 불기 때문에 그 따로 행근에 같이 서경 질루지 못하게 헛어예.  
 @1 예.  
 #3 우리가 그 커 올 적에는.  
 @1 으.  
 #3 거기 해영 허민 물이 ㄱ치 놔 버리면은 진짜 아주 풀엔 흐 거는 그 싹 잔디 뭐 행은에 그 물 먹어난 디는 잔디도 아주 곱게 나곡 영 흐는디.  
 @1 으.  
 #3 게여 부는 때문에 그 소들이 먹을 것이 뭐 헌텐 허멍 따로 길루로렌 허는데 물은 기자 목장에 올령 내 부리면은 막 눈 와도.  
 @1 음.  
 #3 출이나 좀 영 해영 기자 가정 강 췌 내버리면은 거기서 어디 낭쌔이라도 먹곡 이치록 허면서.  
 @1 음.  
 #3 것도 집에 와근에 그 메질 아녜어예.  
 @1 예. 경행 뭐 밧 불리거나 흐면은 물앙 내려오고예.



#3 예, 예, 예.

### 돌 종류

@1 예, 그 돌 종류도 으라 가지 잊지예? 돌 종류는 알아진 거 어떤 거 알아지쿠가?

#3 무신 적다여, 가라여, 무신, 일 가라 뭐 행 많이 잇주마는 무신 알아지커라.

@1 돌 이름은 잘 모르고, 일 가라.

#3 이 가라, 적다.

#1 청충이여.

@1 청충매, 아까?

#1 월라물예.

#3 월라물.

#1 뭐, 고라물도 잇고, 유마물도 잇고. 뭐 갖다 부찌믄.

@1 예, 예.

#1 갖다 부찌기 나름이예요.

@1 예, 고라, 가라, 유마, 그다음예?

#1 백매도 잇고.

@1 백매.

#3 백매, 으.

@1 백매도 잇고. 계난 삼춘네 물들은 어떤 물들이라나수과?

#3 아. 우린 돌 안 질뤄서.

@1 아, 삼춘은 돌 안 질루고, 삼춘네는 오십.

#3 여기는 질뤄나도.

@1 예. 하영 흘 땀 오십 두까지 헛텐마씨.

#3 응, 여기 부친이 돌 질뤄주.

@1 예. 그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그 물은 이용할 때 저기 어떻 그 어렸을 삼춘이 흐꿈 더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 그 물들은 어떻 이용헐디가? 뭐에 쓸디까?

#3 아니, 밧, 밧 불릴 적예.

@1 예.

#3 밧 불리젠 흐면은 그 조, 조 갈 적에는 막 다려줘야 뉘잖아.

@1 예.

#3 계난 뭐 그 후에는 그 남테엔 헐에 그걸로도 영 흐고 헛주마는 허는데, 돌 흐면은 우선 그 밧 불리는 데 사용을 많이 헛어예.

@1 예.

#3 경허고 주로 기자 그런 뉘고. 또 타는돌. 영 해근에 그 타젠.

@1 타는돌?

#3 조금 잘, 잘사는 사름덜은 영 해근에 그 타는돌을 행 집에서 메면서 어디 갈 적에 영 타고.

@1 예.

#3 그치록 뭐 헛 헛는데. 우린 주로 기자 그 밧 불리젠 헛면은 빌어다가.  
 @1 예. 빌어다가.  
 #3 빌어다가 그치록 해근에 이제 그 밧 불려나근에 뭐 허곡.  
 @1 게믄 그 밧 불릴 때 이제 빌영은에 허잖아예. 헛 번 밧 불리면 그 대가는 어떤 식으로 해수과?  
 #3 대가는 가근에 검질을 뭐 헛루나 이틀 영 메주고.  
 @1 음.  
 #3 또 그 뭇 임자한테는 테우리렌 해근에 아주 그 곤밥헛고 달걀 보곤 것이 췌고. 그때 고급이랏어예.  
 @1 예, 달걀도 보깡은에.  
 #3 예. 그거 해근에 헛는디 우리는 안 헛곡, 그 테우리만 곤밥을 해당 줘 버리면은 기자.  
 #4 (웃음)  
 #3 막 먹고 싶어도 우린 못 먹어. (웃음)  
 @1 삼춘넌 게믄 무슨 밥 먹언?  
 #3 (웃음) 아, 보리밥.  
 @1 삼춘 보리밥. (웃음) 게믄 얼마나 을큰홀 거라예?  
 #3 으.  
 #4 (웃음)  
 @1 어머니가 영 행은에 헛데. 삼춘은 아까 곤밥헛고 또 생선 저기 헛텐 헛명예?  
 #1 아, 예.  
 #3 생선이 잘 엇엇주게. 그디 강 바당에 강 고기 사오도 못 헛곡, 갈치를 사근에 이제 끌럭지 해근에 막 돌아멩 오래 놔두면은 막 갈치가 누렇게.  
 @1 음.  
 #3 기름 피영 헛 때깻지 그걸 영 해영 돌아멩 놔두고, 고기가 그렇게 혼헛질 안헛어.  
 @1 웃드르, 웃드리니까.  
 #3 응.  
 @1 예.  
 #1 그건 그때도 췌 그 혼헛 반찬이 뭐냐 허면은.  
 @1 예.  
 #1 계란에 밀꺾루 서끈 거. (웃음)  
 @1 아, 밀가루 서끈 거.  
 #1 경 행 노랑게 뒤요.  
 @1 예.  
 #1 노랑게 뒤. 계란만은 헛면은 양이 너무 작으니까.  
 @1 그렇지, 그렇지.  
 #1 으, 저, 밀가루 헛꿈 서경은에. (웃음)  
 #3 밀가루, 밀가루도 그거 이신 소리 헛지 말아. (웃음) 밀가루가 어디 셔 말인가. 그 밀가루가 없엇주. (웃음)

#1 계란 계란 맛이 좀 납니다게.  
 @1 예. 계란 젤 흔한 반찬이 그거고.  
 #1 응.  
 @1 잘 허는 데는 생선은 무신 생선 흡디가?  
 #1 생선은 그때는 그 시절에는 생선이 이렇게 껴미로 풀었습니다게.  
 @1 예, 예.  
 #1 한 멧 개, 흔 멧 개 해서. 요 얼마에치다.  
 @1 음.  
 #1 뭐 헨.  
 #3 그거 나중에 조기, 조기를 해근에 그치록 껴미로 해근에.  
 #4 조기.  
 @1 조기.  
 #1 다 껴미. 그때는 거의 껴미로 풀았는데. 음.  
 #3 게고 지는 마농지 기자 영 허면은 그 대산이로 만든 거.  
 @1 예. 대산이.  
 #3 그거 흥나 춤 반찬이 그거주.  
 @1 예.  
 #1 밧 불릴 때 정도 돼면은예.  
 @1 예.  
 #1 주인이 안 해도.  
 @1 으.  
 #1 뭐, 흥 열두 시 정도 돼면은 우리 밧이 올 거다 허민. 주인이 알아서 다 차리는 겨우  
 다.  
 @1 예, 딱 차려.  
 #1 미리미리 준비.  
 @1 예.  
 #1 뭐 제사 준비허듯이 미리 행은예.  
 @1 예. 계난 잘 대접해야 밧도 잘 다려주는구나?  
 #1 예, 예. 농사도 잘, 거 틀림엇이.  
 @1 으.  
 #1 옛날에는 소를 잊어 버리거나 아니면 말 잊어 버리면은 어디다 좇아가, 좇는 지 아십  
 니까?  
 @1 예.  
 #1 심방흔티 가서 물어보면은 다 알아.  
 @1 아.  
 #1 아, 그거, 그거 뭐 동쪽 어느, 어느 만이 가면은 틀림엇이 잘 잊고.  
 @1 으.  
 #1 뭐 메칠 후면은 찾을 거다. 심방 몰르는 거 잊수다게.

#4 (웃음)

@1 그때 심방은 이 동네 심방 잇어나수과?

#1 아이. (웃음) 심방 그때는 심방이 많앗수다게.

@1 아.

#1 계난 아파도.

#3 이 동네는 없고.

@1 예.

#3 이 태.

#4 토산.

#3 토산 잇고 저 신흥리 저 산것(?)엔 행은에 그 신흥리도 잇고, 태흥리도 잇고.

@1 음.

#1 그땐 병원도 엇으니까.

#3 수망리 사름도 잇긴 잇어도, 이 수망리도 잇어났구나. 이 저 ○○이.

#4 으, 반백.

#3 그 큰하르방.

#4 예.

@1 계니까 이제 모르면 그 당시에는 다 심방한티 강 듣는구나예?

#1 그때는 병원도 엇고 허니까.

@1 예.

#1 병원에 가기 전에 우선 심방한티 물어보고, 병원엘 가는 걸로. 심방이 7만 내 불어도 낫으켄 허민 낫고.

@1 예.

#1 아, 이거 병원에, 가이 어떤 동티났저.

@1 음.

#1 어디 가서 뱀 죽은 걸 보거나 어떻 뭐 이상한 거 봐서 난 병이다 하면은, 거기에다 강 좀 정성을 드령은엔예, 제물도 하고 경 행은에 심방 빌어당 뭐 어떻게 경 코시하고 어떻게 하면은 기냥 낫아 불른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더 좋주.

## 뭍 나이

@1 예. 그런 식으로 쉼 잃어 먹어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아까 뭍 하는 거는 삼춘은 그 금승? 일, 쉼 때. 한 술, 두 술 할 때?

#3 이수, 삼수.

@1 으.

#3 이수는 두 술.

@1 예.

#3 금승, 이수, 삼수, 스수 그렇게 해근에 나이를 세는 거.

@1 몇 수까지 셉디가?

#3 아니, 뭐 그다음에는 몰라.

@1 예, 그다음은 몰라.

#3 으.

@1 삼춘네는 몇 살까지 세언?

#1 나도 모릅니다게. (웃음)

### 밧 불리기

@1 (웃음) 제난 어쨌든 이제 밧 불리는 이런 거는 삼춘네는 빌어당 하는 입장이었고, 삼춘은 그치 아버지영 밧 불리레 가는 입장이었네예?

#1 아, 혼자만도 다니고.

@1 아, 혼자만도 밧 불리레예?

#1 예, 혼자만도 다닙니다. 아버지 못 가든 혼자만이라도 해야지 어떻 됩니까?

@1 예, 제난 그거는 밧 불리는 사람. 아까 그 저기 이걸 아까 뭐라 했지? 남테. 여기도 남테들을 씻수과?

#3 으. 남테 그 후에.

@1 후에.

#1 으, 남테.

@1 남테.

#1 거 끌고 다니면서 하는 거?

@1 응.

#1 거 뭐 해변 사름덜이 그 주로예.

@1 예.

#1 좀 밧 불리는 사름 구하기 힘들 때는양, 말 하나를 끌고 다니면서.

@1 음.

#1 그 이게 똥그렁잖습니까예, 똥그렁.

@1 예.

#1 저 뭐냐 뭐 나무 이렇게 거기 해 갖고.

### 먹이

@1 음, 경 행은에 이제 하고. 그 삼춘, 그 쉼나 들 먹는예, 먹이. 뭐를 져 잘 먹읍니까? 여기선.

#3 이 먹이 꼭줄 그든 거.

@1 으.

#1 제완지출 잘 먹읍니다.

#3 응. 제완지출하고.

@1 음.

#1 (웃음) 제완지출하고예.

@1 예.

#3 뭐, 늘 거, 것도.

@1 놀, 놀 거. 으, 게난 그 놀 거. 그런 퍼령헌 거 청출이렌도 흡니까? 여기서.

#3 응. 청출이지예.

@1 청출하고, 그다음에 건초는 익은출 이런 말도 해마씨?

#3 예. 젠디 뭐 청출여 무신거여 흐는 거는 요 근래 와서 곱은 말이고.

@1 예.

#3 옛날에는 뭐 톨류운 거, 그자 놀 거.

@1 놀 거.

#3 으.

@1 놀 거예?

#3 으.

@1 그런 놀 거가 제완지든.

#3 으.

@1 꼭줄이든 이렇게 허는 거잖아예, 예. 삼춘네도 게문 그 출 아까 자골 헌텐 헛는데? 삼춘네는 자골 들여 봄디가?

#3 자골 안 들여 보고.

@1 으.

#3 이 출 비레는 낮으로 헨에 출 비레는 놈의 거 드러 뎡겨난.

@1 응. 놈의 거?

#3 예.

@1 삼춘은 게문 하루 가문 멧 바리 비언?

#3 예, 열 바리. 열 바리면은 삼백 단인다.

@1 예.

#1 삼백 단은 줌.

#4 (웃음)

#3 이 잘 비는 사름은 그 이상 비어도, 못 비는 사름은 열 바리 못 비어예.

@1 예.

#3 게난 우리는 당초 꽃테 사근에 흐당 보면은 흐 일곱 바리로 흐 으둑 바리 정도주.

#1 그 정도가 쥔 많이 빈 거주.

@1 게난 그 출 비레는 이 동네만 갑니까? 아니면 따른 동네까지 갑니까?

#3 판 동네도 저 가났주.

@1 아, 출은 하영 비엿구나예?

#3 예.

@1 게민 출 빌 때, 그 하루 출 비면 얼마 받아난마씨?

#3 그 받아난 거 알아지크라. 기자 그때는 이 걸름 내도 이 무신거 흐민 돈 안 쥔 해도 술이나 주민 그자 다 공짜로 일 해영은예.

#4 (웃음)

#3 술이나. (웃음) 흐 보시, 짓도 보시로 영 해근에 흐나 흐면은 나쁘면은 그자 또 흐 보시 더 먹으면 하루 일당도 뭐 받으나마나 행 넘어가 버리고.

#1 그땐 전도금도 많이 풀렸잖여. 출 비레 땡기면.  
 @1 으.  
 #3 전도금은 허면 아시날 화투 처근에 다 잃어 불곡.  
 @1 (웃음)  
 #4 (웃음) 화투 청.  
 #1 추렴 행은에 없어지거나 무신 저 도새기 잡아근앵이 그디 전도금 흔 겔로 영 해근앵이  
 겐 잘 먹곡.  
 @1 계난 삼춘네는 쉼 하영 질루니까 전도금 췌텐예, 계믄 거 추렴행 다 먹어 분덴마씨.  
 (웃음) 계난 삼춘.  
 #1 아이, 도새기는 잡았지.  
 @1 예.  
 #1 돈은 없어서 살 돈이 없지 전도금이라도 써서.  
 @1 예.  
 #1 사서, 사서 먹어야 쥔 거 아니우파?  
 @1 예, 예. 미리 먹어놓곡 일허고.  
 #1 어.  
 @1 예. 계난 이런 그 출 비는 낫예, 옛날은 낫으로들 다 해 갖고.  
 #3 예.  
 @1 계믄 무꿀 때는 옛날 줌호미 현 거 하고 낫으로 하게 뒤 낫이 큰 모양이라예?  
 #3 예.  
 @1 서른 단이 흔 바리인 거 보민.  
 #3 예, 예.  
 @1 음.  
 #3 낫은 영 해근에 출을 해근에 싹 뒤사 놓면은 편하게 감아당은예.  
 @1 응.  
 #3 이 다리로 싹 접저근에 영 행 끈 만들영은에 영 무끄고.  
 @1 예.  
 #3 줌호미로 흔 거는 기자 ㄴ칭허게 영 비어 낱 허면 해뒤 그겔로 또 영 무끄고, 그.  
 @1 예.  
 #1 줌호미로 흔 건 마흔 단이 흔 바리? 줌호미로 흔 거는? 낫으로 흔 거는 서른 단이 흔  
 바리주만은.  
 @1 예.  
 #1 줌호미로 흔 거는 사십 단.  
 @1 예, 저쪽 서쪽에는 가면 우리 동네는예, 마흔 단이 흔 바리거든마씨.  
 #1 어.  
 @1 여기는 낫으로 비질 안 허여.  
 #1 어, 줌호미라.  
 @1 예.

#1 서쪽은 다 줌호미이.

@1 예. 계난 이쪽도.

#1 동쪽도 다 줌호미. 계문 이, 이 지역 남원.

@1 예, 예.

#1 이 표선, 남원.

@1 여기는.

#1 위미 근방만 이렇게 낮으로 허고.

@1 계난 여기가 이제 옛날 이런 출왓들이 널렸던 거라예?

#1 예.

@1 밧 갈아 먹는 데는 족아도. 그다음에 허고, 그 밧마다 그 출들예, 이렇게 허게 뒤편  
출 드리는 어느 시기에는 출 먹고, 어느 시기에는 출 먹지 말고 흐는 시기가 이실 거라예?  
영 쉼 낳은에 헐 때. 변쉼 해당은에.

#3 아, 쉼 들에 논 때?

@1 예, 예. 출 비젠 허면 언제까지만 맥입니까? 출왓되서는.

#3 아, 출왓된 그 출 비어와근에 흐면은 그 밧갈쉼 그튼 거는.

@1 예.

#3 그 비어난 에염에 그디 놓젠 흐면은 뭐 허곡. 쉼도 그때 목장에서 안 내령와근에.

@1 응.

#3 쉼도 목장에 와 잇을 때.

### 출 운반

@1 와 이신 때예? 예. 계난 그 출 운반들은 어떤 식으로 헤수과?

#3 쉼 첨엔 쉼로 허단 그다음은 구루마엔 해근에 그 마차.

@1 으.

#3 그걸로 허단에.

@1 음.

#3 경운기 나오난 또 경운기 잇는 사름은 또 일부 그걸로 흐고.

@1 으.

#3 그다음 이제는 뭐 다 차.

@1 그다음에 이제는 저 꼭 다.

#1 예.

@1 방법이 트납디다예.

#3 방법.

@1 등짐으로는 안 저나수과?

#3 아이.

@1 등짐으로 안 내쳐?

#3 등짐으로 나 우리 남자들은 안 흐고, 여자덜은 기자 이 검질이렌 행은에.

@1 예.



#3 밥해 먹을 거 행은에 출왓디 강 오당 똑 그 밥해 먹을걸 저근에 왕도 히고 해낫주.

@1 응.

#3 등짐으로.

@1 등짐으로논예. 출을 뭐 저기 등짐으로는 해보지는.

#3 예.

## 여물

@1 안 히고. 여기들은 마차로 다 한 거고. 그 쉼 힐 때 여물 행 뵈여 뵈디가?

#3 여물은 이, 이 저 콩 그튼 거 해영은에 막 숲아근에.

@1 예.

#1 졸레, 거.

@1 졸레.

#3 졸레 해영 막 숲아근에 갹 여물 행 뵈이는 거 그거고. 물은 물 나도 그 마차 히는 거 질와낫는다.

@1 으.

#3 그거는 이제 그 독에 막 참기름에.

@1 예.

#3 해근에 막 삐저근에.

@1 음.

#3 그 보약식으로 그대로 생차 해근에 뵈 뵈여 보고.

@1 아, 생차 해예?

#3 생차 막, 그레 그 저.

#1 방에혹에.

#3 방에혹에 낱 막 삐저근에. 경 해근에 손으로 영 해근에 뵈 경 해근에 갓도 뵈여 보고.

@1 음. 계난 그 독을 뵈엿텐 히긴 흠디다게. 독 저기.

#3 응. 독 여기.

@1 생채 행 뵈이는구나.

#3 응. 생채.

@1 그 고기 그 독 말고 다른 저 기름들 이런 것들은 안 뵈여마씨?

#3 응. 그런 거 안 히고, 그자 독 해근에 참기름에 영 해근에 막 삐저근에, 해영.

@1 마차 그 힘 좋게예, 보신으로예, 예.

#3 예, 예.

@1 계몬 삼춘도 물은 안 질론 건 아니네?

#3 아, 물은 마차 히는 건 질환.

@1 예, 말은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출 비레 탱기명 그 출왓디서 줌자거나 영은 안 해뵈디가?

#3 아휴, 무사, 낮에게 점심시간 히면은.

@1 으.

#3 아시날 화투 처근에 돈 잃으곡. (웃음)

#1 거는 아니 이 남원 지역이나 이 해안가에 사는 사름들은 이 출밭이 크고 흐면은 거기 이렇게 저 담다와 갖고 엄막 식으로 해서 남원리 갓다와다흐는 시간이 걸어서 다니니까.

@1 옛날은예.

#1 얼마나 멀겿습니까게.

@1 예, 예.

#1 게, 아침이 일찍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할 수 잇으니까, 이렇게 밧 담 한, 한 두세 개는 이렇게 그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엄막 저서 살아난 것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게.

@1 예, 예.

#1 이곳 수망리서야 뭐 가까우니까 허주만은.

@1 예, 예.

#1 남원이나 어디 해안가에서 올라오젠 흐민예, 올라오고 내려가젠 흐면, 그때 버스 기다리는 것도 켜장히 힘들고, 버스 안 타면은예 막 힘듭니다게. 그래서.

@1 그럼 해안 사름들 그런 출와되서?

#1 예, 예.

@1 밥해 먹고 자명은예 헛헛 허드라고예?

#1 또 수망, 수망리도 어 목장에서 출, 출털을 해 갖고 \*\* 없는 사름덜 많이 팔기도 헛헛니다예.

@1 으.

#1 목장, 저 수망리 땅에. 마을회 땅에.

#3 그건 요 근래 와서 쫓 거고.

#1 우리도 거기 소들이 목장 소들이 그 출와되 못 들어가게 당변을 지어 갖고.

@1 예.

#1 나도 그 목장에 잠자면서 거 해봤습니다.

@1 음.

#1 그 흐 바퀴 돌곡.

@1 예.

#1 흐 바퀴 돌고 담 커지면은 소덜이 그 에 넘어가니까.

@1 으.

#1 그래서 부락에서 갓을 경매 가찌, 가찌 해서 부찌는 거라예.

@1 예.

#1 그래서 해변 사름덜안티도 팔아주고, 동네 사름들 앞에, 거 영아리 앞에 거기 다 그거 아냐.

#4 으.

#1 돌머들 앞으로.

#4 원래.

#3 그 중갓 밑에는.

#4 원래.

#3 큰담밭 스방이 다 그거라, 지금 부영.

#4 큰담밭.

#1 나도 거기에 잠자면서예. 저 ○○난 ○○이 아버지하고 같이, 어른들이.

@1 거난 출을 직힌 거라예?

#1 예. 출을 직히는 거.

@1 음.

#1 그래야 소가 혼번 넘어가서 먹으면 먹어 버리면 그만이 양이 적어지니까.

@1 예.

#1 그 마을회 땅은 그렇게 해서.

### 방에

@1 으, 그다음에 그 옛날 출들 진드기도 없애고 이렇게. 또 출도 곱게 자라젠 흥면, 여기 방에들도 낫덴 흥명예?

#3 방에로 주로 일 년에 흥 번 늘 방엿불 불 부졌주.

@1 일 년에 흥 번예. 그 방엿불 흥 때 추억은 엿수가?

#3 아이, 추억, 무사. (웃음) 그 젤 불이 크게 난 것이 칠십팔 년도엔디.

@1 예.

#3 그때가 이 도깨비불이엔 헨에 저 영아리, 그 물영아리 쫓 그 앞으로 영허난 동으로부터 영 율경 그자 우리가 올라가는 사이에 헨에 이디 완 이꺼지 내려완에 생기리, 그 어웁 저 그 교래리ㄱ지 문 가면서 저 서광ㄱ지 가면서 어웁 해단에 발 생기리 물리려고 발 짚에 전 부 문 헛단에 이까지 불이 문 내려와 비연에 다 캐와 비연에 해난 거예.

@1 예.

#3 기억이 나주.

@1 그제 방에 부친 그 불이.

#3 으. 이까지 막 내려완.

@1 그때 무사 도깨비불이렌 해수과?

#3 아니.

@1 도체비.

#3 흥 밧디만 경 뭐 헛으면 흥 건디, 그덜로 헤영 그레 끌어가당 보민 판 딜로 또 불이 또 나 버리는 거라.

#4 (웃음)

@1 응. 계난 사람들을 저 방화선.

#3 예.

@1 방화선을 잘 안 헛구나.

#3 방화선 허여도 그때 경헌 뭐 바람이 뭉니까 팍팍 넘어와 버려.

@1 예.

#1 방화선은 저 뭐냐 이 조립흥 디만 이렇게 방화선 흥고.

@1 아.

#1 다른 덴 방화선.

@1 안 허니까예. 브름 붙어 불면 어웁씨로도 놀랑은예.

#1 도로, 도로도 건너 가서 먹어 불고.

@1 아.

#1 아우, 숙대나무에 불 부트면은예 감당하지 못합니다.

#3 경허난 우리가 뭐 하는 것이 그 영아리오름을.

@1 응.

#3 조림, 그 우리 부락에서가 된 조림을 하고 헛는데. 우선 산불이 나면은.

@1 예.

#3 그 오름을 살릴려고.

@1 예.

#3 우선 거길 영아리를 가는 거라.

@1 아.

#3 경허당 보든 그 불이 막 내려왕 여기 부락 조림이나 뭐 여깃 건 된 타 붙어도, 그 오름 하난 살릴려고 기자 우선 영아리를.

@1 영아리를 지키는, 예.

#3 응, 듣는 거라.

@1 거는 무사라마씨?

#3 거 오름을.

@1 낭 살리젠?

#3 낭 살리젠. 우리가 조림하고 또 영 뭐 해 놓니까.

@1 음.

#1 우리 방엿불 부졌젠 허민은예,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멍석 이렇게 깔아 놓고 불이 날라와서 부뜰까 봐.

@1 예.

#1 막 물도 뿌리곡 벨짓 다 해수다게.

@1 음. 집에, 옛날엔 다 초집들이니까.

#1 어, 어. 초집덜이난.

@1 쟁은예 멍석에 물을 일단은 다 행 낮당.

#1 예, 예, 예.

@1 불 부뜨민 이렇게 허겠다 헐려고.

#1 으, 으.

## 바령

@1 아. 그렇게 하고. 삼춘, 바령도 해봣디가? 삼춘도?

#3 바령. 우리 그 나가 허진 안하고 우리 그 하, 하르부지네 허는 걸 봤는다.

@1 으.

#3 계난 이제 그 요 밧도 지금도 잇어 불질 아녀. 그 밧을 헨에 소, 소덜 전부 해단에 그,

다 흐룻즈낙 가뮐에.

@1 음.

#3 이젠 거기서 그 오줌 싸고 똥 싸고 흐 것들 헨에, 거름 삼안에 그 농사를 저난 거.

@1 음. 계난 여기는 땅이 나쁘니까 다털 바령들은.

#3 예.

@1 이런 식으로 좀 하긴 좀 헛구나예?

#1 응. 옛날엔 바령.

### 목장 지명

@1 예. 그다음에 삼춘, 그 목장 지대에 지명들이 많잖아. 아까도 지명 많이 곁아신디, 아  
까도 보난 큰담밭도 나오고, 예? 이름, 이런 그 목장에 우리 그 지명들, 그다음에 목장에 물  
이름. 이런 거 한 번씩 뜬내 줘서. 지명들은 어떤 지명들 이수과? 이디.

#1 저 동쪽으로 흐번 얘기해봅서.

@1 예.

#1 수굿도[또]부떠. 큰담밭.

#3 (웃음)

#1 수굿도 아래 큰담밭.

#3 허튼 수굿도엔 흐면은 우리가 산 일 번지가 수굿돈디.

@1 수굿도예? 예.

#3 그건 우리가 그 칠십이 년도에 영 이, 우리가 전기를 시설흐젠 흐니까, 그것이 이십  
원, 평당 이십 원씩 해연 풀안에, 전기 시설을 수망리에 땡겨단에.

@1 예.

#3 이젠 뭐 흐 거라양.

@1 예.

#2 그 용자 흐 집이 백 원씩 용잘 안 받안에.

@1 예.

#3 자체 부담으로 그걸로 영 헤영 이젠 그 전기 시설을 헨에 칠십사 년도 정월 초흐를날  
영 헨에 그 점화식을 헛는다.

@1 아.

#3 겐 이젠 그때 흐젠 흐니까 그 수굿도가 거기고. 큰담밭이엔 흐 거는 글로 남쪽으로 내  
려오면 빛이 막 커.

@1 음.

#3 빛이 막 큰 빛 신 디 이제 그 빛 보고 큰담밭엔 흐고. 글로 내려오면 조족물.

#1 조족물.

#3 조족물 뭐 그다음 뒷술.

@1 뒷술.

#3 머흔ㄴ루.

@1 먼ㄴ루?

#3 머흔ㄴ루.  
 @1 머흔ㄴ루.  
 #3 또 모새왓툼.  
 @1 모새.  
 #3 왓툼.  
 @1 왓툼?  
 #1 톼.  
 @1 톼.  
 #3 톼.  
 @1 모새왓툼.  
 #3 으.  
 #1 갈남밧툼 잇잖우파?  
 #3 갈남밧툼도 잇고.  
 @1 예. 갈남밧툼.  
 #1 장수물도 잇고.  
 @1 장수물.  
 #3 으. 예, 먼물을 저기 그 영아리 동알녁팬이 돌머들.  
 @1 돌머들.  
 #3 돌머들. 또 이레 나오면.  
 #1 이제, 이제 많이 잇어 불엇다.  
 #3 응.  
 #1 그 밑에는.  
 #3 멍중이털.  
 @1 멍중이털.  
 #3 이젠 사용 안 헤나난예. (웃음)  
 @1 예.  
 #3 다 잇어 불언. 사리물.  
 @1 사리물.  
 #3 예, 그레 가민 사리물 가면 작지궤도 잇고.  
 @1 작지궤.  
 #3 아니문죽은궤.  
 @1 (웃음)  
 #3 (웃음)  
 @1 아니.  
 #3 문죽은궤.  
 @1 아니문주근궤. (웃음)  
 #1 아이, 아이문죽은궤.  
 #3 (웃음)

@1 아이몬죽은궤. 그니까 거기 궤가 좀 저기를 흔 모양이다예.  
 #1 그디 올라가면은.  
 #3 그 궤가 사삼 때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예.  
 @1 그래서 아이몬죽은궤, 아니몬죽은궤 해 갖고.  
 #3 아니 그 전부떠도 그 지명이.  
 #1 아이몬죽은궤. 아이가 다 죽었다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몬죽은궤 아니면.  
 #3 그 전부떠도 것이 지명 이름이 잇엇는다.  
 @1 예.  
 #3 계연 그디가 그 사삼 때 춤 많이 죽언 해도 그 전일부터 아니몬죽은궤여 뭐 사릿물궤  
 여 그.  
 #1 것이.  
 #3 궤 하날 낳은에 두 가지로 얘길 해서.  
 @1 아, 사릿물궤엔도 흐고 아이몬죽은궤엔도 흐는 거예. 예.  
 #3 으.  
 @1 그다음엔.  
 #3 죽은꿈.  
 @1 예?  
 #3 죽은꿈.  
 @1 죽은꿈.  
 #3 으, 또 황칠남도궤야.  
 @1 황칠.  
 #3 황칠남도.  
 @1 황칠남도궤야.  
 #1 건 궤 이름이고 그냥 황칠남도 뭐 이렇게.  
 @1 예. 황칠남도.  
 #1 도, 도, 도.  
 @1 입도, 쉼 올릴 때는 도예. 예 예.  
 #1 응. 거 도우다.  
 @1 예. 궤를 궤야엔도 험구나? 여기서.  
 #3 응. 작, 작지궤도 잇고.  
 @1 작.  
 #3 작지궤.  
 @1 작지궤. 거기 돌들 한 모양이다예. 작지궤.  
 #3 (웃음) 반오름, 드레오름.  
 @1 예?  
 #3 거 물영아리오름이.  
 @1 으.  
 #3 그 두 개주게. 하나. 걸 그레 조끌락흔 거ㄴ라 드레오름이엔 해.

@1 아. 물영아리 죽은 거를 드레오름예? 예.  
 #3 응.  
 @1 드레 모냥 해신가?  
 #3 퐁글랑퐁글랑허연.  
 @1 퐁글랑헙니까? 예, 그다음에. 드레오름 잇고. 또 뜬내 보셔.  
 #4 (웃음)  
 #1 거기 가믄 올리튼물도.  
 @1 무신?  
 #3 올리튼물.  
 @1 아, 올리튼물. 아까 나왔던 거.  
 #1 올리튼물이 쟁쟁히 중요헛어요. 거기가.  
 @1 이 올리튼물.  
 #1 글로 쪽 알더레 내려오면은 칼등ㄴ루도 잇고.  
 @1 무신?  
 #3 칼등ㄴ루.  
 #1 칼등ㄴ루. 칼로, 칼등ㄴ치 생겼어요.  
 @1 예, 칼등ㄴ루.  
 @2 칼등ㄴ루.  
 #3 새물통.  
 @1 새물통.  
 #1 글로 알더레 오면은 문죽은, 아이주근까지 헛지. 그 알더레 내려오민.  
 @1 예.  
 #3 저 어디니, 그 사농동산.  
 @1 사농동산, 으, 아까 나온.  
 #3 그 동네편이 동산 무신 동산이니? 그 저 ○○이네 ㄴ루. ㄴ루왓, ㄴ루왓.  
 @1 ㄴ루왓. 거기 동산치록 뵈구나예?  
 #3 으, 으. ㄴ루왓.  
 @1 예, ㄴ루왓.  
 #3 승이왓.  
 @1 승이왓?  
 #3 으, 승이왓ㄴ지 그.  
 @1 승이왓.  
 #3 그 승이왓 우로부떠가 하잖이라낫주, 예. 옛날에예.  
 @1 예.  
 #3 켜에 저 또.  
 #1 검은오름도 잇고.  
 @1 여기도 검은오름 잇수과?  
 #3 예, 검은오름.



#1 검은오름 뒤에가 거기 무슨 뽕이. 무슨 아 거기가 \*\*. 검은오름 뒤에가.  
 #3 그, 무신거니 저.  
 #4 백두왓.  
 #3 백두왓. 아이고, 그디ㄴ라 뽕엔 혼다마는.  
 @1 백두왓?  
 #1 아니, 아니.  
 @1 아니고.  
 #1 사름 이름이.  
 @1 아, 아. (웃음)  
 #3 아니 그 뽕 이름이.  
 #1 아이고, 곧젠 허난 잊어 불었저.  
 #3 그, 저 느네 아시 초기 흐는 전에 그 무신.  
 #1 도. 거기도 잊어 불었어.  
 @1 거기도 도?  
 #3 거기도 무신 도여마는. 그디 기젯도[또].  
 #1 기젯도.  
 @1 기젯도.  
 #4 (웃음)  
 #1 그 거 서넉편이?  
 #3 바젯도, 바젯도.  
 #1 아, 바젯도도 있고. 아이 저 서넉편이 젤 오케이 목장 바로 넘언 도 흐나 이수다.  
 @1 바젯도. 기젯도.  
 #1 우리, 우리 출왓 이신 디도 이젠 잊어 불었저.  
 @1 (웃음)  
 #1 자꾸 안 곁아나난 잊어 불었어.  
 #3 자, 자, 자귀낭 이신디.  
 #1 아, 자귀낭도.  
 #3 자귀낭뽕뒤.  
 #1 자귀낭도.  
 @1 예. 자귀낭도 있는데, 거기 이름이 또 자귀낭뽕뒤라예?  
 #3 예.  
 @1 거기가 좀 너른 모양이우다예? 자귀낭뽕뒤. 또 이수과?  
 #3 하긴 핫는디 뽕 튼내지커라.  
 #1 갑자기 흐젠 흐니까.  
 @1 아니. 경 헤도예, 슷굿도부터 자귀낭도까지 흐난 스물일곱 개 곁아수다 지금. 이런 지명 이름들이 켜장히 귀한데. 우리 저기 목장장님이 이거 다 베왕은에 나중예 곁아줘야 뽕는디. 그 삼춘, 아까 모새왓툼, 곁남뽕툼.  
 #4 아예 기대흐지 말아.

@1 갈남빳툼 헤신디.  
 #4 흘 일도 한한헤신디.  
 @1 톼이 무신 말이우꽈? 아까 모새왓툼, 갈남빳툼 헛잖아예? 그 톼은 무신 말이우꽈?  
 #4 톼새 얘기히는 거라.  
 #1 그 사이엔 현.  
 #3 사이, 사이에.  
 @1 예.  
 #1 저 어디 가면은 즈지넛툼도 잇습니다예. 즈지넛툼 허면은.  
 @1 예.  
 #1 내가 자주 지는.  
 #4 아.  
 #1 지는 그 뭐 거기는 내가 쟁장히 쪼끔만 비가 왔다 흐면 내치는다.  
 @1 예.  
 #1 그 톼이라는 말은 그, 그걸 겨우다. 양쪽에.  
 #3 작, 작은 작은 빳 사이에 톼이라 기자.  
 @1 아.  
 #3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주, 그건예.  
 @1 예. 그냥 그거를 그냥 트명을 톼이렌 이렇게 허는구나예?  
 #3 어, 어.  
 @1 어디와 어디에 톼.  
 #3 응. 톼, 그런 사이에.  
 @1 예.  
 #3 기자 톼.  
 @1 예. 그럼 모새왓이렌 흐 디도 이수과?  
 #3 그거 양쪽에는 큰 빳이 잇으니까. 그.  
 #4 톼 사이.  
 #3 응.  
 @1 그 톼 사이를 모새왓툼이렌도 흐고, 갈남이 잇으니까 갈남빳툼 이렇게 흐 모양이다예.  
 #3 으.  
 @1 그다음에 멩종이털은 뭐우꽈?  
 #3 멩종이털은 그, 예, 젓도 지명 이름인디, 그 거기 장수물이나 뭐가 다 부편 잇는다.  
 @1 예.  
 #3 그 뭇 농곡 멩종이털이라 헛는지는 모르겄는다.  
 @1 예.  
 #3 그것이 우리 그 옛날 사삼사건 전에 그 문세에 잇단에 찻은 빳이 바로 그 멩종이털이  
 란 빳인디.  
 @1 아, 멩종이털.  
 #3 주인이 찻은켄 헨 완에 이젠 옛날 구문세 내넌에 흐 것이.

@1 계난 여기에 그 지명들 중에서도 이런 궤 같은 것들이 좀 몇 개 이신 모양이다예?

#3 예.

@1 아까 궤야 이제 황칠낭도는 황칠낭이 이신 거 같고, 거기 도예, 입구. 거기도 쉼 이렇 게 왔다갔다 하는 거기 궤야도 있고. 그다음에 작지궤도 있고. 음, 뒷술 현 디는 낭들이 좀 있는 데우꽈? 아까 수울처럼?

#3 이, 우리 수망리는 뒷술이엔 현 디가 엇고.

@1 예.

#3 뒷술은 의귀리 지경에.

@1 아, 이거는 의귀리 지경에.

#3 응, 뒷술이 있고.

@1 예. 아까 조족물 현 디는 물들이 이신 디고.

#3 예, 예. 물들.

@1 물들. 갱 물들이 다 하신게예. 장수물. 이렇게 하고. 사농동산 하는 건 거기서 옛날에 사냥털 허니까.

#3 예. 저 사농힐 적에 영 망 봐난 동산.

@1 아, 망 봐난 동산을 사농동산예?

#1 거기가 현 증жат 정도. 아, 증жат 아니. 그 사이에 잇는 거구나.

#4 하жат, 하жат.

@1 계난 그때 사농힐 때는 무슨 사농들 보통 헨마씨?

#3 꿩비에기.

@1 꿩비에기 사냥하는 거.

#3 그때는 불 부쳐 버리고 나무가 원 없으니까 그런 동산하고 저 머흔믄루 또한 그런 데 영 뭐 해근에 개야 가근에 영 땡겨가민 꿩이 놀면은.

@1 예.

#3 비에기털이 놀면은 어디 강 앓인 걸 망 보는 사름이 헨 앓앗저 막 웨면은 그디 강 이 제 개가 내 해근에 걸 잡아났주.

@1 여기는 사농동산. 놈의 동넨 가문 그런 걸 망동산이렌 험디다마는.

#3 여기 한남리도 망동산 잇는데, 우리는 사농동산.

### 반작쉐

@1 사농동산예. 예. 계난 이거 하나도 지역마다 또 딱나고. 이렇게 하고예. 삼춘, 마지막으로 그, 그 옛날에 땡쉐? 놈의 거 반작쉐 아까 헛잖아예?

#3 예, 예.

@1 삼춘도 반작쉐 해봄디가?

#3 예, 예.

@1 그 반작쉐 해난 말 좀 곱아 줍서.

#3 우린 그, 그걸 이제 쉼 쥔 그 사삼사건 막 후에 재건헨 와서 허는디. 암쉐를 영 현 나 헛다가. 이젠 그 처음 난 송에기는 주인을 드렌 헨 이제 주인 헨 앓고, 두 번짜는 나가

영 해근에 이젠 송아진 나면 나가 앓을 거로 하다가, 그 쉼이 마침 그 죽어 버렸어, 그 저 영 뭐 했단.

@1 예.

#3 술에 이 놓니까 그 막, 즉 말허민 영양실조지. 그 먹지 못한 출 겨울에 간 이젠 셋브름 비 맞아 한 메칠 비완에 그.

@1 음.

#3 비 맞앙 뭐하니까 이제는 죽어 불언에 한동안 안 했다가 또 쉼을 병작헨에 이젠, 허연 그 그때는 처음에 나는 거는 나 갓곡.

@1 음.

#3 두 번째는 영 임젤 영 주기로 영 했는데. 그것도 허단 오래 안 간에 화투치레 텅기고 뭐 하다 보니까. (웃음) 쉼 임제가 좇아 불언.

@1 음. 잘 안 맥이고 헛덴 헛구나게.

#3 (웃음) 아이 저 좀 해태헛다는 거지, 즉 말하믄게.

@1 예. 예.

#3 경헨 이젠 하단 무시거 헨에 그다음에 송아지 하나를 어떤 하르부지가 사쥔 하니까, 그걸로 기자 해여 텅기단, 뭐 결과적으로는 그 용자 빗전에 우리가 산 거 축산단지 흘 적에.

@1 예.

#3 그걸로 헨에 쉼을 삼 시작하난 거는 좀 멍심허연에 혼 열 머리 영 헛단에. 그때 세 머린가 산에.

@1 음.

#3 헛단 깎 안 가니까 이젠 나중에는 오백만 원에 영 전부 다 풀아 버려 이젠.

### 추억담

@1 그런저런 이렇게 이제 하고예. 혹시 마지막으로 쉼을 질루든 이런 그 헛던 것 중에 아이고, 으런 말을 좀 헤시믄 좋으켜 허는 말, 우리 들어보지 못흔 말 이신 거 이시믄 곁아 줘서.

#3 무신거 그런 말이 있어? 뭐.

@1 무사마씨게.

#3 이젠 뭐 쉼 질루는 것도 다 현대화돼어 놓니까. 아주 춤 이 축사 그튼 거 그런 거도 아무디나 쉼을 못 질루고 하니까. 죽영 질왕 방은 뭐 필요도 없는 거고.

@1 예.

#3 지금도 혼 아무디라고 영 소를 뭘 수 잇곡 하민 혼 네 머리 정도만 행은에 취미 삼아 산에 영 다니곡 또 소 보레 다니고 싶어도 아무디나 질루지 못하게 해 놓으니까 못 질룬다 말이지.

@1 예. 저기 여기 공동목장 회원은 회원이우파?

#3 아니 탈퇴해도.

@1 탈퇴, 탈퇴해 불엇구나예.

#3 탈퇴 해도 이제 쉼을 질왕 하민 가입을 해영은에.

@1 아.

#4 아, 우리 마을 회, 마을회 회원은 전부 공동목장을 쓸 수 있도록.

@1 아.

#3 응, 저, 저 땅이 우리 마을회.

@1 마을회 거니깐.

#4 탈퇴가 아니고 그냥 아무 때라도.

@1 게문 육지에서 이렇게 이사 오잖아예.

#4 그분들은 안 돼고.

@1 안 돼고. 원래 이 토박이만.

#4 원래 마을회 회원.

@1 회원들.

#4 백 명만.

@1 백 명만. 게문 거기는 이제 보통 여기 조합원 하게 되면 장자 상속 뭐 이런 식으로  
흡니까? 아니면 누구나 상, 흔 집에 두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까?

#4 아니, 아니.

@1 아니. 흔 집에 무조건 흔 사람.

#4 근디 그 집에 소 두 마리, 두 사람이 키운다면 두 마리가 같이.

@1 다 같이.

#4 쓸 수 있으니까마씨.

@1 예.

#4 육지 분들까지가 아직은 혜택은 있어.

@1 아직은. 워낙하면.

#4 재산적인 문제가.

@1 터전이잖아예.

#4 재산적인 문제가 있어 불어마씨.

@1 계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애예. 마을 갈등 문제들도 그렇덴 헨게마는. 아이고,  
어쨌든 삼춘이랑 이렇게 둘이 ㄴ치 헨니까 아까 안 나온 것도 나오고예.

#3 (웃음)

@1 또 새로운 재미 있는 말도 나오고. 이제 하나 딱 남아수다.

#3 무시거?

@1 밧 불리는 노래. 삼춘 잘 헨덴 해신디.(박수)

#1 거, 거는 못 해. 거 잘헨는 사람.

#3 테우리, 테우리 해나난 그거 느가 헨여.

#4 허, 감사합니다.

#1 거는 아니고, 그거는 누구 알아봐서 누게 허는 사람이.

@1 예.

#1 거는 또.

#4 누게가 잘 헨니까?

#1 저.

#4 ○○이 어멍.

#1 ○○이 어머니가 잘 해나신디. ○○이 어멍 정도는 훔 지도 몰라.

@1 음. 밧 킬릴 때, 아, 여자 삼춘도 그 노래를 부르는구나?

#1 아, 예. 여자들도 많이 훔니다.

@1 아. 계난 꼭 선쉐, 선뎡 훔 사람이 아니고.

#1 예.

@1 그냥 같이?

#1 거는 혼자 허는 소립니다게.

@1 예, 예. 혼자 흐니까. 아, 나는.

#1 혼자. 뎡, 뎡은 뒤에서 뎡곡.

@1 예.

#1 앞이 사름은 안 허고. 앞이 사름이나 뒤에 사름이나 다 헤도 뎡는데.

@1 예.

#1 뒤에서 모는 사름이 잘 헤야 이 소뎡이 이, 이, 저 뎡냐 이 말이 말뎡토 이 뎡소리 좋은 사름을 알아봐서 이렇게 춤 순해지고.

#3 훔어지질 안헤근예.

@1 으.

#3 뒤에서 영 바썩 흐민 뎡이 뎡쳐저근예 영 뎡곡 흐민 뎡흐는 흐디, 경 안흐곡 흐면은 훔어져 버리면은 잘 킬리질 못헤.

@1 계난 월월 허든 다 이렇게 잘 모아진뎡 허멍예?

#1 어려 어려 흐멍 뎡 흐면은 다.

@1 어려 어려.

#1 응.

@1 응 어려어려어려 이렇게 가는구나? (웃음)

#4 여긴 어려어려.

@1 아, 여긴 어려어려예. 예.

#3 어떤 디는 월월 흐는 디도 잇는데.

@1 선훔 가난 월월 훔디다게.

#1 응, 저 동쪽에 가도.

@1 예. 여긴 어려어려어려 예.

#1 쟈디 우리가.

@1 이, 저기 뎡 노래 이거 흐는 저기 한 번 알아봐 줍서.

#1 예.

@1 예?

#1 언제 오시게 뎡면은.

@1 예. 저기 한번 미리 저기에, 곶앙 뎡두고.

#1 뎡을 헤야.

@1 어려워 어려워려 한번 들어야 녹음을 이제 해야 될 거난.  
 @3오늘도 들어 봐야 될 건디.  
 @1예.  
 #4저기 ○○이 어멍 알 거라, ○○이 어멍.  
 @1예. ○○이 어머니. (웃음)  
 @3그 사람을 놓칠세라.  
 #1거기가 나이가 젤. 그 우.  
 #3팔십으섯.  
 @1아, 옛날 조 불러난 어른들은예.  
 #3팔십으섯, 팔십일곱.  
 @1아.  
 #1것도 용감한 사름이 헝지.  
 @1예.  
 #1용감해. 목소리도 잇어야 돼고.  
 @1그 출 빌 때 낫질 허명도 노래 부르지 안헤수과? 흥에기.  
 #3낫질도 헤낫주, 저 소리헤낫주.  
 @1예. 그, 그건 삼춘 불르명 헤수과?  
 #3아니, 난 늬 부르면 후렴만.  
 @1후렴만. ○○이 어머니 또 이것도 헐 건가?  
 #4헐 수도 잇주.  
 @1출흥에기, 여기는 뭇렌 험니까? 출 빌 때 불르는 노래?  
 @3출 비는 소리.  
 #1출 비는 소리나벳긴, 다른 뭇. 그거는 ○○ 아버지 읍장 아버지네가 좀 헝지 았으까?  
 #3소리 안 허여.  
 #4안 허여.  
 #1안 해?  
 #4(웃음) 안 허젠 험구나?  
 #1누구, 누구? ○○이 아버지도 좀 그디 목소리도 좋고 헝드라이.  
 #4그디 노래 잘 헤마씨.  
 #1응. 노래 잘 헐 거라이?  
 @1○○이 아버지는 뭇 살이우파?  
 #1거기가 최고 고평인디.  
 #3일흔아홉.  
 @1아.  
 #1아, 목소리도 좋고.  
 #3아, 여든아홉, 여든아홉.  
 @1여든아홉. 목소리 좋고예?  
 #1응.

@1 계난 이런 노래 했던 어른들이 다 팔십 넘은 어른들이라예? 옛날 식으로.  
 #4 ○○ 삼춘은 못 헛지예?  
 #3 누게?  
 #4 ○○ 삼춘.  
 #1 아니, 거기는 노래하는 거 잘 못 봤어. 젠디 ○○이 아부진 헛드라고.  
 #3 이 제일 밧 불리는 소리나 모든 거는 출 비는 소리 잘 허믄이 ○○이 아방하고 그.  
 #1 으.  
 #4 돌아가신.  
 #3 저 ○○ 아방하고가 최고로 잘 헤난.  
 #1 아, ○○이가 여기. 여기 ○○이, ○○이 아버지를 한번 모시는 걸로 이렇게.  
 @1 ○○이 아버지 계시파?  
 #3 아니, 아니.  
 #1 아니, 여기 ○○이렌 혼 사름 잇는 거 같은디. (웃음)  
 @1 여기 ○○이.  
 #1 나도 나도 눈치는 좀 잇는 사름인디.  
 @3 아니, 눈치 정말 빠르시다.  
 #4 소리 잘 헤낫구나예.  
 @1 아, ○○이 아부지.  
 #3 그 소리 들어가믄이 낫질 헤가믄 스르릉스르릉허게 올케 그 춤.  
 @1 아니, 이거 저기 톱질힐 때 스르릉 안 허고 낫질힐 때 스르릉.  
 #3 낫질힐 때 스르릉 출 먹는 소리가.  
 @1 스르릉스르릉.  
 #3 어. 뭐 자골 캐는 소리 와다다닥닥 험저 뭐 험저 헤가믄 침. (이하 생략)



## 6.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 목축 문화 구술

- 조사 일시: 2020. 11. 16.
- 조사 장소: 조천읍 선흘1리 사무소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부영심 @4 오경임
- 제보자: #1 고경수 #2 고성찬 #3 양중옥 #4 고병문

- .....
- 조사 일시: 2020. 12. 18.
  - 조사 장소: 조천읍 선흘1리 고경수 집 자택, 뜰막 등
  - 조사자: @1 김순자 @2 김미진 @3 부영심 @4 오경임 @5 김영란
  - 제보자: #1 고경수

### 쉐 질루기

@1 계문 이제 들어보카마씨?

#1 예, 들어 봅시다, 뉘.

@1 예. 쉐 어떻 질릅니까?

#1 쉐 어떻 질랴? 뉘 쉐. 쉐 거 저 산에 건초 비여당은엔에 주고 그냥 마귀에, 마귀에서 질루고 으름엔 산에 농곡. 쉐 질루는 거, 뉘 질루는 거 막 쉬와.

@1 쉬와마씨? 여기서 산에는 언제 산에 내보내마씨?

# 산에 내보내는 거예, 예, 일 년에 석, 일 년에 예, 스 절긴디. 봄, 으름, 가을, 겨울 행 스절인디 말이지. 봄이 정월, 이월, 삼월. 삼월 구물엿 스월 나면은 산에 놓기 시작해 가지고 서는 이제는 입동.

@1 예.

#1 입동 동짓들 시월 말일 뉘도록 산에 살리당 겨울엔 집이 오라근엿에 혼 녀 들 살령. 경 허당 또, 또 돌아오민 산에 풀어 농곡.

@1 계난 그 산에 놓는 거는 어느 지경에 낫수과? 여기서는. 어느 목장에?

#1 예, 선흘. 어, 선흘엔 저 어디 우리 마장이라는 데, 선흘마장이라는 데 있어서예, 마장.

@1 마장, 예.

#1 마장. 이 선흘마장. 선흘일동에 마장. 마장에도 농곡 저 보믄루도 농곡.

#2 바메기.

@1 바메기.

#2 우린 바메기가 그때는 나무가 없어 가지고.

#1 응.

#2 어, 이제 불이 부뜨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 그 수눌어 가지고.

@1 예.

#2 이제. 경 해서 어, 돌아가면서 보면서 물을 우린 반물 맥이고. 우리 선흘은 그런다고

합니다. 이수장도 가지만 이수장털은 가끔 물을.

#1 아, 그거.

#2 말털이나 아, 갓고. 소털은 전부 바메기, 아까 우리 삼촌 얘기하던 이런 우리 웃산전 안직 선흘꽃 그 과정은 그자 어, 실픈 사름털 올케 해 가지고.

@1 으.

#2 그래서 가끔 해서, 어, 가도 거기는 우리가 주로 땔감. 검질 비는 우리 허민 마장에 검질 비는 곳이지요.

@1 예.

#2 예, 우리 삼촌은 소를 허는데.

#1 그.

#2 소는 나가 혈 때 보면은 예, 또 바메기에서 우리 알바메기, 이 바메기.

#1 게난, 이, 고 이장이 구체적인. 좋은 아주 좋은 설명을 했는디 저 바메기오름.

@1 예.

#1 저 오름. 밤오름, 밤오름이라, 밤오름이?

@1 예. 밤오름.

#1 밤악이라이.

@1 예.

#1 일 년에, 일 년에 지금 저, 뒤편이 일 년에 혼 번은, 혼 번은 꼭이, 일부러 말이지 그디 방화.

@1 예.

#1 요즘 들불축제 허지?

@1 예.

#1 들불축제가 근본 원인은 말이지, 목축 기르는 데 말이지, 그런 데서 비롯된 거라이.

@1 예.

#1 일 년에 혼 번 저기 바마기를 불 부껴이. 아까 뒤편 해여, 불 부껴 가지고서 깨끗이 불 타면은 말이지. 예, 거기 그냥 으름에 이젠 물도 놓고 쉼도 농곡 허는디. 다시 여기로 바마기를 불 태울 때 깨끗이 잘 타면은, 깨끗이 잘 타면은.

@1 예.

#1 야, 선흘 풍년 들켜.

@1 아.

#1 어른들이 영 곶으멍 불을 부껴 가지고서 쉼물을 길렀단 거라이.

@1 예, 게난 그 불 부칠 때 건 어느 철에 부칩디가?

#1 무시거?

@1 불 부칠 땐 언제 불 놔?

#1 불을 어느제 부찌느냐 허면은 말이지, 지금으로 양력이니까 정월 이월 허는디이.

@1 예.

#1 정월 이, 이월 하순쯤에 불 부껴야 딱 좋아이.

@1 예.

#1 웨 그러니까니 겨울에 쉼나 물이나 건초라도 먹어근에 뜯어 먹영 살아야 될 거니까 정월 이월까지지는 먹영 살아야 될 거니까 드르에서 살아야 될 거니까, 안 부젓당 이월 하순쯤에 불 부젓 이제 혼 들썹 시면은 새 풀이.

@1 예.

#1 새 풀이 올라오면은, 뭐.

@1 아, 기구나예.

#1 으. 제난 요즘 들불축제도 말이지 이월 하순이나 삼월 초순, 삼월 초순에 허더라고.

@1 예, 정월대보름에.

#1 거 정월대보름에 그렇게 허더라고.

### 쉐 종류

@1 예. 예전에 보면 쉼 질랐던 종류들 잊지양?

#1 응?

@1 쉼 종류.

#2 쉼 종류.

@1 예. 쉼 종류, 어떤 거 질러수과?

#1 쉼 종류?

@1 으, 어떤 거?

#1 옛날엔 뭐, 토종쉐 우리 한우.

#3 색깔로 우리 얘기 협서.

#1 토종이.

@1 예.

#1 으.

@1 색깔에 따라 이름은 어떻 트나?

#1 무시거?

@1 색깔.

#2 색깔, 색깔.

#1 색깔? 쉼 색깔 뭐 여러 가지지. 꺼먼쉐, 노랑쉐 말이지 무신.

#3 식쉐.

#1 식, 식쉐, 신쉐, 뭐, 무시거 색깔 으라 가지, 그거.

#4 빨근쉐, 작박뿌리.

#2 말은 색깔로 얘기하는데 소는 크게 허민 뭐 검은소.

@1 예.

#2 황소 요령곰.

@1 예.

#1 우리가 첫째에 나온 그대로.

@1 예. 삼춘, 아까 신쉐 헛다예? 신쉐는 뭐우파?

#1 응? 식쉐.

@1 식췌 말고 신췌.  
 #1 에이, 식췌, 식.  
 @1 신췌는 엇어?  
 #1 예, 신췌라고 부르는 췌가 벨로 엇엇고.  
 @1 희뚜룩헌 거?  
 #1 어?  
 @1 희뚜룩헌 거, 털 색깔 희뚜룩헌 거 무신거렌 곶아마씨?  
 #1 그런 것도 흰췌라고 불르고, 췌 놓고 흰췌라고, 물은 백마라고 해엇지만은.  
 @1 응.  
 #1 췌 놓고 말이지, 희다 검다고 헛지만은 희다고 허는 소리는 아니 헛어.  
 @1 예. 아까 신췌가 딱 나왔는데, 예, 알아수다.  
 #2 신췌, 신췌.  
 @1 그리고 여기 영, 점 이신 췌도 잇지예?  
 #4 응, 태상백이.  
 #1 태상백이.  
 @1 췌도 태상백이렌 헉니까?  
 #1 대성, 대성.  
 @1 대성?  
 #1 으.  
 @1 뭇, 발도 희고 총지도 희고 현 건?  
 #1 으, 그런 거 잇지, 뭇.  
 @1 그런 건 뭇렌 불러마씨?  
 #3 얼룩소 아니? 얼룩.  
 #1 족발이.  
 @1 족발이.  
 #4 족백이.  
 #1 족백이.  
 @1 족백이, 족백이, 으.  
 #3 췌도 족백이엔도 경 헉니까?  
 #1 응, 벨로.  
 @1 벨로예?  
 #2 췌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엇어.

### **뽕 이름**

@1 췌는 뽕 모양에 파랑은에 이름이 트나지 아넵니까?  
 #1 응?  
 @1 뽕, 뽕.  
 #2 뽕에.

#1 그런 건 벨로.  
 @1 뽕 이름.  
 #1 뽕 이름 있어.  
 @1 응.  
 #1 뭐 잣박도리, 잣박도리 허는 거.  
 #3 천지각.  
 @1 으, 잣박도리는 어떤 걸 잣박도리엔 험니까?  
 #3 두이로 잣혀진 거.  
 #1 영 뒤로 잣혀진 거이.  
 @1 예.  
 #1 그런 것ㄴ라 잣박.  
 #3 천지각.  
 @1 천지각은 뭐우꽈?  
 #3 하늘광 땅더레 뽕이.  
 @1 아, 뽕이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밑으론 간 것도 있어예?  
 #3 땅으로 천지각.  
 @1 천지각. 으, 그다음 또 이시카마씨?  
 #3 요강도리.  
 #1 (웃음)  
 @1 요강도리?  
 #3 영 오그라든 거.  
 @1 아, 영 댜 거? 오강? 오강도리?  
 #1 요강, 요강.  
 @1 요강도리, 아.  
 #1 오그라젓단 말이라. 뽕 오그라젓단 말, 오그라젓다.  
 @1 아, 오그라젓다, 오강도리 험니까?  
 #4 잣박도리 제 가눔 몰라근에 찢름질 헐 때 싸움헌덴 허주.  
 #1 어.  
 @1 무시거마씨?  
 #2 잣박도리, 잣박도리.  
 #4 (웃음)  
 #2 요룽곰 앞으로 헤 가지고.  
 #4 아이.  
 #2 요것이 서로 부닥치민 뽕이 잘 번는 거니까, 제 생각 안 헤 가지고 주로 싸운다 현 말 이주. 속담.  
 @1 잠깐만예. 삼춘이 곶아봍서. 아까 잣박도리 어떻?  
 #4 제 가눔 몰라근에 찢레질 헌덴.  
 @1 아. 제 가눔을 몰랑 찢레질 한다. 제 간. 가눔헐 줄 몰랑예?

#2 요거 서로 부닥쳐 가지고 싸우민 똑 혼 놈이 꼭 뽕이 벗어.  
 @1 예.  
 #2 그런 말이 그 허니까 그런 말로 제 가늠 생각 안 허영 싸움헌다는 말이.  
 @1 잣박부리가예? 뒤로 이렇게 가 버리니까.  
 #2 잘, 잘 벗어지는 거.  
 @1 예.  
 #1 뽕 놓고 딱시 하나는 뽕 생김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혼나 이상헌 말로이.  
 @1 예.  
 #1 동지선들 막 추운 때 정월보름살이?  
 @1 예. 정이월보름살.  
 #1 정월보름, 정월 하늬보름살은이 검은암췌 뽕 오그라진다 헛어이.  
 @1 예.  
 #2 추우니까.  
 #1 건 댜 말이나 허믄.  
 @1 너무 춥다는.  
 #1 너무 추우니까 보름살 영헛. 보름 막 추윈, 우리가 물 뽕이레 지금은 저 무시거 수돗물 뽕이레 무시거 허주마는 옛날은 겨울에 물 저 봉천, 저 연못데 물 뽕이레 가이?  
 @1 예.  
 #2 반뽕 강.  
 @1 반뽕 저쪽에.  
 #1 예, 물 뽕이레 가는데 막 그 하늬보름 막 췌믄 췌가 이처름 해서, 이처름 해서.  
 #2 눈보라 쳐 가지고.  
 #1 췌가 이렇게 해서 걷는다 말이지.  
 @1 예, 예.  
 #1 그런 걸 놓고 으 하늬.  
 @1 정이월.  
 #1 으, 정이월 보름살에 말이지.  
 #2 검은암췌 뽕 오그라진다.  
 #1 검은암췌, 검은암췌 뽕 오그라진다. (웃음)  
 @1 예. 게난 그 정이월 때가 췌 언 모양이라예?  
 #1 췌 춥다 말이어.  
 @1 예. 정이월 보름살에 검은암췌 뽕 오그라진다. 맞수다, 예.  
 #1 (웃음)  
 @1 그거 말앙 또 뽕 관련 행은에 이시카마씨?  
 #1 엇어, 몰르커라.  
 @1 몰르커라예?  
 #1 으.

## 쉐 이용

@1 그 계난 쉼은 무사 질랏수과? 옛날에.

#1 쉼 길루왕은에.

#2 아이고.

#1 쉼 질랑은에 밧 갈고 짐 시끄고 쉼 질라근에 풀앙 돈 하영 반앙은에게.

#2 일꾼이지.

#4 쉼가 대목.

#1 그걸로 그걸로 살고.

#2 찻짜는 일꾼이고 돈 버는 것보다 일꾼.

@1 예. 밧 가는 거.

#2 밧 갈고, 농사짓곡 또 그런 기구주, 진짜.

#4 짐 실러 날르고.

@1 짐 실러 날르고.

#2 말보다 소가 더 그 친근성도 있고. 이제 아까 헛지만은 말은 집에 들어오는 식이 별로  
엇곡. 바깥되서만 살려도 살 수 잇곡. 소는 겨울 살이를 똑 해야 허니까 그 아까 우리 삼춘  
이 사 개월 동안 어떻든 내가 볼 때 한 오 개월이여.

@1 으.

#2 오 개월은 마방에서 멕이다가 이제 판, 이제 개수는 이제 나가서 들에서 사는 그런 식  
이주게.

@1 예. 계난 이 선흘도 옛날 밧 갈 때는 쉼로 밧 갈아수과?

#2 예.

#1 쉼로 밧 갈았주.

#2 쉼로도 밧 갈고.

@1 아, 물로는 안 갈안? 이 동넨.

#2 이 동네는.

@1 아니?

#3 돌팓 때문에.

#2 돌팓 때문에 진짜 물로는 흙치 감당을 못 해.

#4 그 쉼도 사름 끄세헤여.

#2 지프지 않은 사람은.

#4 나 그튼 사람은 갈당은 그냥, 그냥 돌아상은에 기냥.

#2 (웃음)

#4 찢러 불켄 허여.

#2 아닌게 아니라 우리 선흘서 그리친 쉼은.

@1 예.

#2 어딜 가도 일을 못 현다는 말을 안 듣는다는 이런. 계난 척박하다는 돌이 썰고 땅이  
판판해 가지고. 경허난 그런 우리 놀레가 있어. 우리 선흘 소는 일소는 어디에 가도 제주도  
안네 가서 일 못 현다는 소리를 안 들어.

@1 예, 게른 부릉이, 여기는 부렁이가 합니까? 암쇄가 합니까?

#1 암소.

#2 게난 부릉이 잇는 사람은 올케 전문 과정으로 밧을 갈젠 허른 부릉이를 가져야 뉘고.

@1 예.

#2 자기 냥으로 허는 건 다 암소로 허여 가지고, 자기 소 허여서 자기대로 갈고 이제 그 령고름 허고. 나도 나대로 내와 가지고 가리쳐 가지고 밧 골단.

@1 응.

#2 열으답 슬꺄지 키와 가지고 내가 풀아 먹은 사름인데. (웃음)

@1 아, 게난 이 동네 이 동쪽에는 보난예, 부렁이보다 밧 가는 쉼가 암쇄가 하영 간텐예?

#1 으.

#2 암쇄가 많이 허지.

@1 이 동네도 암쇄가 많이 허는구나?

#1 암쇄가.

#2 암쇄는 아까 나가 허민, 밧 갈단 보민 전문적으로. 밧만 갈아서 돈을 벌젠 허는 사람은 밧갈쇄 슛놈으로 밧을 갈아야 뉘고.

@1 예.

#2 자기적으로 농사혈 거는 다 암놈으로 헤 가지고.

@1 아, 게난 부렁이 가진 사람은 놈의 밧도 갈아주고.

#2 놈의 밧도 갈아 주고. 전문적이지, 거.

@1 예. 게른 여기도 밧갈아치렌 말을 합니까?

#1 응?

@1 밧 갈아주는 사람 ㄹ라.

#2 아이고, 겨난.

@1 응. 밧갈아치.

#2 예, 밧갈아치 그런 이름은 엇고 게난.

#4 밧갈에치 사삼 때꺄장 저 남자덜 엇언, 우리도 \*\*\*.

#1 밧갈와치?

#2 밧갈아치가 옛날.

@1 예.

#2 겨난 옛날도 보면은 그 흘어머니들.

@1 예.

#2 쟁 농사, 게난 또 양반이 하르버지 뉘어 가지고 일 못허는 이런 어른은 아까 땅이 가 쟁 허면은 놈 빌어 가지고 가는 거쥬.

@1 예.

#2 품삯을 주고.

@1 그런 사람을? (잡담) 예. 빵도 드시명.

#2 아니, 우리 췌근에 오면은 사삼사건 후에는 돌아가섯지만, 예, 우리 에 칠촌님은 그 저 선흘서 밧 가는 것이 저 표션꺄지 가 가지고.



@1 예.  
 #2 계난 쉼을 솟놈을 두 개 해 가지고 장남 차곡 해서 둘이 가서 밭 갈아 가지고 해서.  
 경 해서 진짜 밭도 사고.  
 @1 아, 전문적으로.  
 #2 전문적으로.  
 @1 가는 사람이 잇었구나예?  
 #2 예, 그것을 이런 농사짓기 위해서 떼밭.  
 @1 예.  
 #2 이제 그.  
 @1 화전 일구는.  
 #2 예, 화전 일구는 그런 데 가 가지고.  
 @1 으.  
 #2 어, 우리 삼촌님은 혼 이십일 동안 표선 난산리레 가서 한 이십 년 동안 밭 갈았어.  
 @1 아, 밭만 갈안.  
 #2 예.  
 #1 여기 선흘도 혼 사름 고평오 씨라고 말이지.  
 @1 고평오.  
 #1 저 아까 얘기 헐 그 말이지?  
 #2 예.  
 #1 고평오 씨라고 말이지, 쉼 쉼, 수, 부릉이.  
 @1 부릉이.  
 #1 쉼 쉼을 길러 가지고서.  
 @1 예.  
 #1 놈의 밭, 테역밭.  
 @1 예.  
 #1 테역밭은 잔디밭에 저, 잔디밭이 떼밭.  
 @1 떼밭.  
 #1 떼밭도 그냥 그 쉼로.  
 @1 여기서저는 저릿쉼은 안 해봐수과? 게믄.  
 #2 그거 저릿쉼주, 진짜. 저릿쉼.  
 #1 저릿쉼 아녀 밭어.  
 @1 저릿쉼, 쉼 두 개 메왕 허는 건 안 허고?  
 #1 어.  
 @1 부릉이로 해 갖고예, 떼밭 허고예.  
 #2 선흘도 게니까.  
 #1 뭐.  
 #2 이 삼촌네 그 전에는, 우리도 저릿쉼.  
 #1 조사 안 해도 더 잘 알암신게, 뭐. 저릿쉼도 알고 뭐.

#2 계난 그런 거 전문이 아닙니까덜.

@1 (웃음)

#1 그런 거 잘 알명 말이지.

@1 아니, 선홀 거는 몰라부난마씨.

#1 응?

@1 선홀 거 몰라부난.

#2 더 조사하는 거 아니꽈?

@1 예.

#2 헤 가지고, 자세헌 것은 이애길 허다 보면은 아니 현 이야기다 다시 나오니까.

@1 맞수다게.

#2 그게 새로운 거 발견허고.

@1 예.

(잡담)

### 쉐 ㄹ르치기

@1 계난 쉼 질들이젠 허믄 어떻 들엿수과?

#1 어?

@1 쉼 질들일 때, ㄹ르칠 때.

#1 ㄹ르치는 거?

@1 예게.

#1 ㄹ르치는 거 들어봔자 그거, 들어보나마나 말이지, 쉼 ㄹ르치는 거 뭐 새쉼 흐민 코 꿔야 뉘고이.

@1 예.

#1 앞에서 한 사람 이껴야 뉘고이.

@1 으.

#1 이끄는 사람이 잘 이껴야 뉘여. 가는 사름보다.

@1 아.

#1 앞에 사람이 잘 이껴, 바르게 잘 이껴 주고.

@1 아.

#1 든든허게 잘 이껴 주고, 이껴 줘야 가는 사름.

@1 응.

#1 경해서 어디 강 돌리는 데도 말이지, 뭇니까 제라허게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게서 ㄹ르치는데 말이지, 십오일 동안 명예를 썩와야 쉼이 숙쉼 뉘다고 그러더라고.

@1 으.

#2 일소가 이제는 그때는 말을 좀 들어 가지고.

#1 으, 열다섯 번.

@1 예.

#1 열다섯 번 명예를 썩와야 그 쉼이 말이지 숙쉼 뉘다고.

#4 나 어린 땐.  
 @1 숙쉐렌 험니까?  
 #1 으.  
 @1 익, 익은쉐.  
 #1 어, 길들은 거.  
 @1 길들인 쉼을 숙쉐렌예?  
 #4 나 어린 땐 쉼 이끄렌 허민.  
 #1 으.  
 #4 앞으로 가다근에 어떤 땐 줄아. (웃음)  
 #2 우리 삼춘네 곁아도 새쉐 ㄹ리쳐 보면은.  
 @1 예.  
 #2 하이튼 일 년은 새쉐라.  
 @1 일 년.  
 #2 일 년 내내 요걸 꺼꺼 가지고 봄팻 같고 가을팻ㄹ지 갈아 가지고 자기대로 허면, 다음 해부떠는 처음 갈 때는 새쉐가 뒤었다가.  
 @1 예.  
 #2 혼 이틀 갈면 그땐 들썩들썩 해 가지고 소가 장남 앞이 저 가지고 말을 잘 들어. 그런 현상으로 해서 이년 차는 뒤면은 진짜 숙소가 뒤는.  
 @1 으, 게믄 쉼 ㄹ르칠 때는 뭘, 땃 설에 가르칩니까?  
 #2 쉼는 보편적으로.  
 #1 세 설, 세 설, 세 설.  
 @1 사릅에.  
 #2 예.  
 #1 사릅.  
 #2 그 뭘 허면은 몸이 죽으민 이제 네 설도 허고.  
 #1 쉼 나이도 잘 알고.  
 #2 또.  
 #4 (웃음) 나이도 알고.  
 #2 다른 숙성헌 놈들은게.  
 #1 쉼는 사릅, 뒤은 이수.  
 @1 으.  
 #1 쉼 사릅.  
 @1 뒤 ㄹ르칠 때는 이수예 ㄹ리치고?  
 #1 뒤은 아니.  
 #3 삼수, 삼수, 뒤 더.  
 @1 예, 거 나중에 들어보쿠다, 거는.  
 #4 (웃음)  
 @1 게난 그 쉼 고르칠 때 아까는 멍에 씨왕은예 ㄹ르치잖아예? 게믄 뒤에는 잠댄 뭇 메

올 거 아니마씨?

#3 낭토막 꺾이나 돌 꺾이나.

#4 아이 저.

#2 직접, 직접. 이젠 그후로는 올케.

@1 응.

#2 난 옛날에 나무토막 꺾고 그렇곰만 허지 않고.

@1 예.

#2 직접적으로 현 걸로 압니다.

@1 아.

#2 건테 우리 옥을 때는 꺾이 우리가 잇으니까. 그거 허니까 잘 질 안 드니까. 길에는 길도 넘곡 허니까.

@1 예.

#2 이제 그 낭토막도 꺾어 가지고 계난 밧 허면은 잘 이기지 못허니까 쉽게 헤 가지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운동 식으로 해서 허는 방법이고. 옛날에 그런 거. 뭐 우리 질도 보면은 질메 허면은 우리 삼춘은 그런 길을 밧주마는 우리는 그런 길을.

@1 안 보고예?

#2 예. 췌가 딱허게 걸리면은 거기 서라. 어, 우리 집 췌 넘어나결랑 넘어오라 영 현 질들이니까. (웃음)

@1 응.

#2 질메로 허여 가지고.

#1 이제는 이제는, 옛날에 그런 게 들어보나마나 이제는 그런 걸 활용 아녀니까. 그런 말 뭐 들어보지 마는 게 좋아예.

@1 아니마씨, 옛날.

#2 옛 거니까마씨.

@1 옛날 삼춘네 해난예.

#2 우리가 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르버지.

@1 기록이난.

#2 산 얘길 듣고젠 현 얘깁니다게. 우리안티 \*\*\* 는.

#1 (웃음)

@1 거난.

#1 아이고.

@1 이 선홀에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될 뻔니까 우리가 기록을 해 볼려고.

#1 다시 옛소리 옛소리 해봤자 말이지. 요즘 사들덜 말이지, 요즘 사름덜.

@1 예.

#1 뭐 그, 그런 거 무시거 필요엇어 이렇게 허더라고, 이렇게 허더라고.

@1 아니마썸. 여기 선생님들 다, 다 필요허니까 왓수게.

#1 이, 이분덜은 그런 거 조사허는 분들이니까 허지. 이 사회 사름덜.

@2 (웃음)

#1 이 동네 사름덜 옛날 소리 뭐 햄수과? 영 곶아 붙어이.

@1 건 예.

@2 모르는 사람.

@1 몰라 부난 허고 이게 막 중요한 거.

#2 웨, 웨 허느냐 필요허니까 이런 기관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1 예.

#2 또 이제 허는 거지.

#1 게난 그런 말 허면은 말이지 막 부에나.

@1 무사마씨?

#2 (웃음)

#1 옛날은 이렇게 어렵게도 살고, 어렵게도 살고 헛는데 말이지, 요즘 사름덜은 말이지 이런 거나 마시고 말이지, 무신 빵이나 먹고. 이거 그런 생각허면은 말이지 막 부에난다고.

@1 예.

#1 이거 영 조사 허는 사름덜 고마와.

## 마소 나이

@1 아이고, 고맙수다. (웃음) 왜냐면 저희들도 다 부모님들이예, 이런 일들을 해냈고 하니깐. 게난 어떤, 썬 이제 질들영은예, 예, 해신디. 아까 썬 나이는 혼 설은 무시겨우짜?

#1 나이?

@1 예.

#1 거, 나이 나 곶아주주. 썬 톨 잇는디, 썬 톨 잇는디.

@1 예.

#1 썬 나이를 이렇게 지프더라고, 옛날 어른덜이. 썬 스물 톨 서른.

@1 어.

#1 썬 수명을, 수명을.

@1 예.

#1 그렇게 지퍼.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새끼 잘 나고 말이지 건강허곡. 썬은 스물 톨은 서른.

@1 예.

#2 그때까지는 새끼 낳고 자기가 부려 먹을 수 있으니까.

#1 썬 스물 톨 서른.

@1 톨 서른. 경 해도 그것보다 더 산텐 허명예? 톨도.

#1 으. 게니까 더 살 수도 있고.

@1 으, 톨 살 수도 있고. 아, 톨 스물 썬 서른?

@2 아니. 아니, 썬 스물.

@1 썬 스물 톨 서른.

#1 으.

@1 톨이 오래 사니까.

#2 응, 물이 오래 살고.

@1 게문 흔 설은 무시거마씨, 췌?

#1 무시거?

@1 췌.

#1 금싱.

@1 금싱.

#1 금생.

@1 금생.

#1 췌 다간, 사릅, 나릅, 다습, 으습. 으습꺼지엔 허고 물은 으습꺼지 허고 무슨거 아녜어, 췌. 물은, 물은 금싱, 이수, 사릅, 아, 삼수, 스수, 오수, 육수, 칠수, 팔수, 구수, 십수 영 헛주.

@1 으, 게난 췌는 으습까지만 췌 그다음은 일곱 술, 여덟 술 영 혜수과?

#1 응?

@1 췌는 췌 때.

#2 아니, 거난 그후론 안 세고 올케.

@1 으습까지만 세고 일곱 술, 여덟 술 영 세연?

#1 어, 어.

@1 게문 저기 물 열흔 설은?

#1 물은?

@1 물 열흔 설.

@1 십수, 십수 지나른 무시거우파? 물 십수 지낭은에 열흔 설.(전화 소리)

#1 게민 건 몰라.

#2 (웃음)

@1 십수까지만 세연난, 삼춘은?

#2 으, 십수까지만.

### 잠대 부분 명칭

@1 알아수다. 혹시 옛날 밧갈 때, 밧갈 때 여기도 췌기는 잠대렌 곱읍니까?

#1 어, 잠대.

@1 잠대 그 명칭, 저기 곱아줘 봄서, 이렇게 영 헤면.

#2 몽클.

#1 나 곱아주주. 췌기도 잘 그림신게.

#2 (웃음)

@2 눈도 안 어두와신게, 삼춘. (웃음)

@1 삼춘 눈 안 어두워. 영 행은에 이제 뵈 거고예?

#1 이거 양주머리.

@1 이거는.

#2 손잡이.

@1 예, 손잡이는 양주머리.  
 #1 예.  
 @1 예, 여기 긴 낭은?  
 #1 그거, 성, 뭐인가, 저, 설, 무시것고?  
 #3 성에.  
 @1 성에.  
 #1 성에, 성에  
 @1 (웃음) 성에. 이렇게 영.  
 #1 그건 몽클.  
 @1 예, 몽클.  
 #1 어.  
 @1 여, 요기는?  
 #1 건 설칫.  
 @1 설칫. 설칫에 이 고망에도 영 잇잖우파?  
 #1 어, 그래 잇어, 설칫고망 잇어, 그거.  
 @1 이거 뒤편 험니까?  
 #1 설칫세역.  
 @1 아, 설칫세역.  
 #1 어.  
 @1 뜸엔 안 하고 여긴 세역 허는구나예, 세역. 이렇게 올렛당 밧 깊이 갈곡 저기 노지 갈고 허는 거예?  
 #1 어.  
 @1 게민 여기에 뭘 메웁니까? 밧 갈젠 허믈?  
 #1 보섭.  
 @1 보섭.  
 #2 뱃.  
 #1 뱃.  
 @1 뱃.  
 #1 어.  
 #4 뱃에도 뱃칼이 잇어사 고정 시겨주는 거.  
 #2 (웃음)  
 @1 예, 뱃칼 잇엉은예.  
 #2 다 거.  
 @1 으, 고정 시키고. 뱃칼 말고 여기 긴 낭도 잇잖우파? 영.  
 #1 아, 그거, 그거 벌렛대.  
 @1 벌렛대?  
 #1 어.  
 @1 그 저, 뱃에?

#1 으. 영 허는 거이?  
 @1 예. 긴, 한 요 정도 허는 거 냥.  
 #1 알아져, 잘도 알아.  
 #3 저, 오리목 무끄는 건 들벙이뿔.  
 @1 요긴 들벙이뿔.  
 #1 건 오리목 무끄는 거, 그건.  
 @1 예. 오리목 무끄는 건 들벙이뿔.  
 #3 툇 찌르는 거.  
 @1 그다음에 이거는, 게문 저 다 꾀난 겨우짜? 벅도 앞뒤에 뒤에 고망도 잇잖우짜? 벅,  
 벅에.  
 #1 벅에?  
 @1 응. 앞뒤, 이름?  
 #3 고정 시키는 그 저. 고정 시키는 거.  
 #1 앞뒤 이름은.  
 (잡음)  
 @1 예, 예, 예, 예. 나중엘랑. 벅 뒤에 고망 무사 뒤에 보민 고망 이렇게 해서.  
 #3 두 개.  
 @1 두 개 잇잖우짜? 이렇게 뿔 거.  
 #1 어, 어, 어.  
 @1 건 뿔렌 불릅니까?  
 #1 고망은 몰르고 벅친. 벅친, 친.  
 @1 예, 벅친.  
 #1 벅친.  
 @1 예, 벅친으로 헤영 무끄는 거라예? 그거예. 벅친.  
 #1 으.  
 @1 그다음에 멩에, 아, 삼춘, 경허곡 여기 그 선흘꾀디는 냥 하난예?  
 #1 으.  
 @1 이 성에는 무신 냥을 써신고예?  
 #1 춤가시냥.  
 @1 아, 춤가시냥, 예. 그다음에 양주머리는?  
 #1 양주머리, 양주머리도 좀 췌냥 해야 뿔게, 꾀도.  
 @1 이것도 췌냥예?  
 #1 으.  
 @1 게문 뿔 가시냥이나 이런 췌냥 헤수과?  
 #1 으.  
 @1 설꾀은?  
 #1 무시거?  
 @1 설꾀.



#1 설치는 올케 쉰냥 해야 되고.  
 @1 예.  
 #1 으, 설치.  
 #2 다 춤가시낭으로.  
 #1 어.  
 @1 다 춤가시낭으로.  
 #1 어, 그건.  
 @1 들벙이뿔은?  
 #1 어, 것도.  
 @1 몽클은 어떻 해수과?  
 #2 몽클은 올케 젤 좋은 걸로. 경 안 \*\*\* 췌나무로.  
 @1 어.  
 #2 우리 그것이 일등인디 그런 낭으로.  
 @1 어.  
 #2 켄디 것도 우리 가시낭으로. 우리는 가시나무가 춤가시나무가 우리 선흘꽃이 좋니까.  
 @1 예.  
 #2 보편적으로 우린 가시나무로 써수다.  
 @1 게든 몽클은 췌낭으로 해수과?  
 #2 예, 췌낭 그런 아주.  
 @1 췌낭.  
 #2 예.  
 @1 그거 쉰잡아예?  
 #2 예, 쉰서.  
 #1 옛날 췌낭으로 헛는디, 췌낭. 그 막 어려운 낭이라 췌낭, 그런 몽클 허젠 허민이.  
 @1 예.  
 #1 막 어려운 낭, 몽클 거 춤가시낭이 젤. 췌낭, 췌낭은 막 그 아주.  
 @1 가시도 잇고.  
 #1 막 그 저 쉰, 쉰텐 해근에 췌낭덜 허는디, 췌낭은 무신 벵, 벵 사름에 벵 사름에 흐나  
 두 개 허나마나.  
 #2 (웃음)  
 @1 아.  
 #4 경 그거 쉰냥으로 허민 보섭 잘 나간텐 허주. 착 허민.  
 #1 그래, 보섭 잘 나가.  
 @1 아, 보섭 잘 나가. 게민 밧 잘 간텐 허는 소리구나예?  
 #4 아이.  
 #2 우리 선흘.  
 @1 아, 보섭이 잘 뿌러져 불어?  
 #4 선흘은 경.

#2 우리 선홀 경우는 다 가시나무로, 춤가시나무로 허는다.

### 명에 부분 명칭

@1 춤가시낭으로예? 예. 돌 하 부니까. 경허고 이제 명에가 이실 거 아니라예? 이렇게 명에 이시면.

#4 접게.

#2 접게, 접게는 윤누리로 올케. (웃음)

#4 한줄. (웃음)

@1 영, 이거는?

#2 어, 명에.

@1 명에.

#1 명에

@1 여기는?

#2 접게.

#3 접게.

@1 접게, 요 옆에 그 굽은?

#2 한줄.

#1 한줄.

@1 이걸 한줄, 여기는?

#3 등테.

@1 이걸 등테? 예.

#1 등테.

@1 아, 등테예? 등테. 그다음에 여기 영.

#1 버을랫대.

@1 버을랫대. 여기에 이젠 요건 뭐우파? 여기?

#1 그건 뭇엔 허는고?

@1 오리목?

#2 오리목.

#1 오리목.

#3 들벥이뿔에 영 고정 시키는 거.

@1 예.

#1 오리목?

@1 예, 오리목예?

#4 저것도 겔 충 몰르민 못 갠텐 헤영 혹 데끼민 개여진텐 헛어.

@1 아, 명에, 명에 겔 때마씨?

#4 어.

@1 영, 꼬아져 부니까? 게문.

#2 처음, 처음 가는 그 장남들은 그 개니까 이것이 못 개진, 오래니까.

@1 예.

#2 항상 개어도 개지 못하니까 하도 부에나 갖고 혹 데끼니까 그게 항상 해난 거니까 그 대로 툭 허게 허엿다 해 가지고 못 개걸랑 데껴 불라.

@1 응.

#2 이런 우리 속담도 있어.

@1 으. 게민 명에는 무신 낭으로 멘들아마씨?

#1 명에는, 명에는.

#4 명에낭.

#1 무시저.

#3 가볍고 부드러운 낭으로.

#1 부드러운 낭으로 해야 돼, 직접.

#2 이래서 뜨겁게 허니깐, 마찰시키니까.

@1 머귀낭예?

#2 머귀낭, 뭘, 자귀낭.

@1 자귀낭?

#1 머귀, 명에는 저 무신 낭, 그, 자, 자귀낭, 즈귀낭 이런 낭으로 많이 헨 걸로 알아.

@1 아.

#4 머구낭일 겨우다, 머구낭.

@1 머구낭이나 자귀낭?

#4 머귀낭 해야 그것이 부드럽고 가볍고 저.

#2 그걸 허면은 이, 저.

#4 고개가 안 벗어지낭.

#2 봄에.

@1 예.

#2 봄에 해서 깔 벗일 때.

#1 아니 정도 허겟는디, ○○이도 많이 써 본 사름인디, 머구낭, 저 머구낭은 그 요마니헨 부루기 이제 머귀낭은 허면은 가운데 구멍 두 개 뚫루고, 약헌 낭이라이.

@1 예, 예. 속에 구렷잖아예?

#1 그보단 흐뭇 썬낭이 말이지, 자구낭 이런 낭이, 그런 낭이라야 돼어.

@1 자구낭?

#1 어.

@1 예.

#1 머구낭 허민 그 발 \*\* 다 벌어진다 말이지.

@1 예, 속 구려 부니까.

#1 난 그런 낭으로 아녀고 난 자구낭으로 헤봤는디이.

@1 예. 삼춘은 자귀낭 허고.

#1 어.

@1 즈게는?

#1 미시거?  
 #2 좁게는 윤누리, 윤누리.  
 @1 윤누리, 좁게.  
 #1 좁게?  
 @1 으.  
 #2 우리 윤노리는 겨니까 아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이 스시서 그걸.  
 #1 좁게 윤누리.  
 #2 스시 사름덜 우리 쪽으로.  
 @1 윤누리허레?  
 #2 윤누리도 우리 윤누리가 제일 질기고.  
 @1 어, 선흘꽃에?  
 #2 우리. 도깨 허는 데도 이 구좌나 우리 조천읍에 전부 우리 이 지역에 와 가지고.  
 @1 예.  
 #2 윤누리를 헤요. 같은 윤누리라도 판 딛 것덜은 비저기(?) 이는데 우린 허민 뭐 혼 멧  
 년 쓴다는.  
 @1 응.  
 #2 상당히 질겨. 또 춤가시나무도 한라산에도 있지만 한라산 거는 우리 거에 비하면은 이  
 건 판 나무의 아주 푸석진 나무가 되고.  
 @1 으.  
 #2 우리 나무는 상당히 이 그 농기구 허기 아주 좋고.  
 #1 좁게 윤노리, 윤노리에 질 썬 낭이 질긴 낭이 윤노린디이.  
 @1 예.  
 #1 상동낭도 많이 허더라고.  
 @1 아, 상동낭도 허고예? 예.  
 #1 어, 상동낭. 나도 상동낭 많이 써봤는디.  
 @1 윤노리가 좁니까, 상동낭이 좋읍디가?  
 #1 갱, 윤노리가 질긴 낭인디, 질긴 낭인디이.  
 @1 예.  
 #1 상동낭도 질긴 낭이라.  
 @1 상동낭도.  
 #4 상동낭은 이렇게 저 불 헤영 데와도 팽차녀고, 다른 낭덜은 잘 깨져.  
 #2 상동낭은 허면은 그것이 이, 눈이.  
 @1 예.  
 #2 까시가 톱 허여 가지고 전부 다 허니까.  
 @1 아.  
 #2 잘 깨어지고 윤누리만이 절대 거는. 질림이 엇지. 상동낭도 질긴다 허지만은 윤누리에  
 델 수가 엇어요, 우리 지역에선.  
 @1 게문 이 동네는 여기 선흘꽃디 왕 그런 윤누리나 춤가시낭 헤영 풀기도 허엿수가?

#2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잇었주. 밧 풀고 헤 가지고 노는.  
 #4 거, 선흘곳이 저 \*\*\* 생활하는 디.  
 #2 노는 어른들 나이 들고 허면은 하르부지 헤 가지고.  
 #3 요구히는 거 다 거기 강 잇어.  
 @1 예. 요구히는 건예? 여기 종류도 많고.  
 #2 밧엿 사람덜 이제 베 허는 사람덜.  
 @1 예.  
 #1 우리 벧뚫대 헤 가지고. 그런 질긴 낭 사용헌 사람덜은 우리 선흘곳 많이, 이 어디서.  
 우리가 경해서 우리가 그 관리도 헛고.  
 @1 예.  
 #2 보존도 헌 과정이 그런 것이 잇어.  
 @1 예.  
 #2 타인들이 항상 이제 끊어 가니까.  
 @1 으.  
 #2 과거에도 그랬고 현실도 해서.  
 @1 삼춘, 한줄은 무시걸로 험수과? 한줄.  
 #2 줄, 한줄은 올케 한라산에 가 가지고.  
 #1 무신줄.  
 @1 한줄.  
 #1 한줄, 너딩.  
 @1 너딩.  
 #2 너딩, 응, 명줄이주, 명줄. 명줄이나 저 이제 으름줄.  
 #4 아니, 아니, 아니.  
 #1 너딩이엔만 헤.  
 #4 너닝. 너딩.  
 @1 너딩, 오미자줄?  
 #2 으, 오미자줄.  
 @1 예.  
 #2 너딩예? 계난 이 동네에 너딩구덕들도 멘들엇수과? 응, 계난 한줄은 너딩으로 영 드러  
 갖고. 오리목은 무시걸로 헤? 버을레, 아.  
 #4 그런 것 다.  
 #2 오리목은 아무 낭이라도 뒤는디.  
 #1 오리목도 거 질긴 거, 그거.  
 #2 오리목은 또 마찬가지로 한줄 같이 영.  
 #1 아까 너딩, 무시거 오미자줄ㄱ라 너딩이엔 헤신가?  
 @1 예.  
 #1 다시 이런 유름줄은 그 헤낫어이. 유름줄.  
 @1 그 유름줄은 뽈, 뽈리로 허영 헌텐 헛디다예? 뽈리도 질기텐. 유름줄, 드렛줄인가?

#2 유름줄 놓면은.

#1 응.

#2 우터레도 올르지만 이레 이렇곰 칙거치록 녁쿨 놓으니까 알려레 쪽 번는 말해주게.

@1 아.

#2 뽀리로 허는 데 뽀리가 아니고 이견.

#4 다른 건 질기지 못허여.

#2 칙거추룩.

@1 칙거치록.

#4 다른 것은 저기 저 질기지 못허여, 켜디 너덩줄은 너덩이엔 해근에 그 질긴.

#2 질긴 것이 유름줄이라고.

@1 유름줄이 질기구나예?

#4 그 타잔도 아마 그 너덩줄로 탄 돌아뎡겨실 거라.

### 질메

@1 아, 타잔도? (웃음) 예전에는 구루마 엇일 때는 그 저기 뭐 질메로도 하영 헛잖아예?  
질메, 질메.

#1 질메.

@1 이 질메 허게 뉘면 이런 디도 영 잊지예? 여기 줄도 있고, 이런 거는 뉘렌 헛니까? 질  
메.

#1 질멧가지게.

@1 질멧가지. 질멧가지도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허지예?

#1 아, 앞가지, 뒷가지.

@1 어딴 게 앞가지렌 헛니까?

#1 앞이 흐끔 좁은 게 앞가지.

@1 좁은 게 앞가지, 예.

#1 너른 게 뒷가지.

@1 게난 이 등에 앞으로 앞에.

#1 응.

@1 목 앞쪽에 온 게 앞가지라예?

#1 어.

@1 앞가지, 뒷가지. 질메는 무신걸로 멘듭니까?

#1 으?

@1 질메는 무신걸로, 무신 낭으로 멘들아?

#1 질메 무신낭. 그거 뭐 그거.

#4 그런 것이 자구낭 ㄱ튼 거.

#2 하여튼.

#1 자귀, 자귀낭.

#2 가부운 나무가 좋은 가쟁이주.

#1 가벼운 낭이라도 좀 질긴 낭이라야 돼, 자귀낭 정도 써신가? 뭐.  
 @1 예, 자귀낭 써수다.  
 #2 그거 가지고.  
 @1 계믄 질멧가지 허고.  
 #2 만들민 뒸는 거. 오그라든 형태 영.  
 @1 이쪽에 영허면 그 고망에 영 끼우는 것도 잇잖아예? 앞가지하고 뒸가지 연결힐 때.  
 #1 어.  
 @1 그거 무시거?  
 #1 소용이, 소용이.  
 @1 소용이.  
 #1 으.  
 @1 응, 질멧소용.  
 #1 어, 소용.  
 @1 허는 거지예?  
 #1 어.  
 @1 예, 소용, 소용이.  
 #1 어.  
 @1 그거는 무신 낭 해?  
 #1 그거 머시거 그거 썸낭, 질긴 낭 ㄴ는 거이.  
 @1 예.  
 #1 ㄴ는 거, 질긴 낭 그런 거, 질긴 낭 해야 뒸어.  
 #4 춤가시낭 그런 것도 핫어.(웃음)  
 @1 춤가시낭예? 예.  
 #1 질긴 낭.  
 #4 (웃음) 경해야 껴끼지지 안허난예?  
 #1 응.  
 @1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그 저 짐 시끌 때 무사, 그.  
 #2 오랑.  
 #4 등바대?  
 @1 등바대?  
 #4 어.  
 @1 오, 오랑은 뒸우파?  
 #2 오랑은 베에 영 무끄는 거.  
 @1 아.  
 #4 질메 벗겨지지 아녀게.  
 @1 이렇게 해 갖고? 예.  
 #2 알, 알로 무끄는 거.  
 @1 알로 무끄는 베로 허는 오랑.

#2 응.

@1 그다음에 아까 그다음에 등 아프니까 놔주는 것들 잇잖우과?

#2 등테.

#1 도곰.

@1 아, 도곰.

#2 도곰, 도곰이지, 만든 것이.

@1 삼춘 도곰은 무신 걸로 만듭니까? 주로.

#1 도곰은 뭐, 뭐 맨들어.

#2 산디찜엿지.

#1 저 산디찌허고.

#4 산디찜도 허고 물에 풀에 저, 물에 나는 그 뿔고, 그 저.

#2 여뀌, 여뀌. 그것보고 여뀌엔 허지.

@1 여뀌로도 헐 수 잇어마씨? 그 풀 닳은 거?

#2 우리가 풀 허면은.

@1 분홍색 꽃 피고 허는 거.

#2 삼각형으로 해서.

#1 무시거? 무시거?

#4 그 물에 나는 물새 닳은 거엔, 저, 질긴 거 잇자녀파?

#1 아, 그걸로 도곰도 이렇게 짜는 건디.

@1 예.

#1 짜는 거, 짜는 건 그런 게, 그런 거는 그런 걸로 뿔고 뿔작\*\*, 무시거? 그런 걸로 해도 속 담는 건 부드러운 걸로 해야 뉘.

@1 아, 속에 담는 건.

#1 속 담는 건 말이지, 찌이나 경 아니믄 보릿대나 이런 걸로 부드러운 허영 짜야 뉘어. 갱 복삭해야.

@1 예.

#1 해야 뉘 거거든.

@1 게난 복삭 허젠 허면, 마께로 저기.

#1 그 아까게 물에 나는 건 뿔? 뿔, 무시거 것ㄱ라 무시거?

@1 뿔오랑? 아니?

#3 부들 나는 거 아니? 그거.

#1 그, 그렇다고 허고.

@1 예, 그렇다고 허고. (웃음)

#2 (웃음)

#1 거 짜는 거.

@1 예.

#1 그거 영 짜는 거는.

@1 예.



#1 그거 담아서 짜고, 속 담는 거는 부드러운 거.  
 @1 으.  
 #1 부드러운 걸로 해영은에 속 담아근영에 그걸 만들어야 돼, 경 혜사, 저.  
 #2 우리가 보편적으로 허면은.  
 #1 어, 어.  
 #2 산디쪽으로, 산디쪽으로.  
 @1 부드럽게?  
 #1 부드럽게이.  
 #4 으, 산디쪽으로 많이 헛지.  
 @1 산디쪽으로 해영 예.  
 #2 것이 제일 구허기도 좋고.  
 @1 예.  
 #2 우리가 잘 만들고 올케 그것도 곱게 만드는 솜씨꾼 어른들은, 그런 어, 빗물에 나는 그  
 \*\* 참.  
 #4 \*\*벧긔 그거 만들고.  
 #2 해 가지고 잘 만들고.  
 @1 아고게.  
 #1 것ㄱ라 도곰.  
 @1 도곰예?  
 #1 도곰이.  
 @1 으, 계난 그 저기 자오락이렌 현 거는 들어봣다가? 그 물풀이 그건 아닌가마씨?  
 #2 자오락이?  
 @1 예, 자오락. 그런 말은? 뜬 동네 말.  
 #1 미시저?  
 @1 그, 그 물에 나는.  
 #2 자오락기풀이 이신가?  
 @1 자오락, 그건 아니고?  
 #2 그런 말은.  
 @1 이름 아까 물새 닮은 거예?  
 #1 으, 으.  
 #2 계난 우리 짜는 거는 그 물새 닮은 거 너팔너팔헿 뭐, 우리가 머리 곱는. 그, 뭐 그런  
 풀이 아니고.  
 @1 예, 예, 예, 얇은.  
 #2 \*\*\*\*\* 그 풀인데, 그.  
 @1 세우리추룩 현 건데.  
 #1 이장은 알 거라. 이장 이레 가까이 와봐. 이장 이레 가까이 와봐. 저 우리 민물밭디,  
 민물예.  
 #5 예.

#1 민물예이, 민물에 그 무시거 이만큼 나는 무시거, 무시거 그 무시것고? 풀 나는 풀, 새처럼 영 올라오는.

#4 게메 부들, 부들도 있고, 게. 예, 거기에.

#2 예, 부들이엔도 허지.

#1 나 이제 혼 시간 이시믄 알아져.

## 목장 관리

@1 (웃음) 아, 예 알아수다, 이땅 혼, 혼 시간 잊이믄 이땅 헤보게예. 게고 삼춘 여기는 목장이 옛날 이소장이 잊어났텐 허명예? 국장, 국마장, 이소장.

#1 으.

#2 아니, 게난 이소장이 잊곡 국마장은 올케 허민 우리 국장.

@1 국장.

#2 예, 이름 허면은 이○○이한테 게난 바메기오름.

#4 여기 일소장 이소장 삼소장 스장 뺑, 십소장ㄱ지 시난.

#1 국장. 국장을 어떻게고?

@1 게난 여기 목장 관리는 어떻 헤여수과?

#1 목장 관리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예, 공동목장에 놀 땐 말이지, 그자 거기서 누구 뻐 사람 중에 혼 사람 책임져 가지고서 허고 말이지.

#4 옛날엔 이소장 많이 저기 헤수다.

@1 게난 그때 그, 목장 관리허는 사람을 뭇렌 불릅니까? 목장 관리허는 사람.

#1 응?

#2 목감?

#1 그 무시거 목장 계장 헤신가?

@1 목감.

#2 계장 헛수과?

@1 이 동네에.

#1 계장헛주, 으.

#2 우리 때는 계장이주만은.

@1 으.

#4 그전에.

#2 그전에 허면은.

@1 여기도 마을공동목장이 이수과?

#4 으.

@1 이 동네.

#2 예, 게난 아까 하면은 요.

@1 아까 옷바메기허곡 알바메기 그 사이?

#2 아니, 아니.

#4 건 국장이고.

@1 건 국장.  
 #4 건 국가에서 예, 저, 관리하는.  
 #2 우리 허면은 마장이엔 허면은 아까 허면은 우리 동백동산 우쪽 별판 지대 끝에. 아니  
 이젠 다 숲 같이 돼 불었주만은 그 지대가 이제 그 어, 공동목장.  
 @1 그 반못 있는 그쪽이우짜?  
 #2 으, 반못 있는.  
 @1 옛날 솥 귀난, 솥 구워난 그 솥막 있어난디?  
 #4 아이, 그기. 그 저쪽 동쪽 넓은 들판.  
 @1 응.  
 #2 거기 허면, 물도, 물도 있고.  
 #4 그 안기부 저기, 저기.  
 #2 경헌데.  
 #4 그 별판 밑.  
 #2 우리가 생각, 내가 생각할 때는 큰물이.  
 @1 예.  
 #2 그디 허면은 큰물이 있어야 돼는데.  
 @1 예.  
 #2 채근에 우리가 판 그 새물이 강뭇이엔 현 건 강뭇인디, 우리가 파 가지고 소를 저 우  
 리 이 여기에 사삼사건 후에 현 일들이고.  
 @1 으.  
 #2 그 전에는 나가 불 때 전부 우리 목초는 공동으로 현 것은 바마기 불 부떠 가지고 바  
 마기에서 모여서 이제 수눌어 가면서 맥이곡. 음, 어, 이제 그렇곰 현.  
 #4 어, 바메기 불 부떠근에.  
 #2 겨고.  
 #4 테역빳 짝 나민.  
 #2 종사해 가지고 자기가 몰도 하, 소도 하면은 자기 직접.  
 @1 예, 건 직접하고.  
 #2 자기가 직접 관리해 가지고 와서 흐 그런 느낌을 가져봤어.  
 @1 예, 바메기 공동으로 불 놔근에예?  
 #2 예.

### 잊지 못할 기억

@1 예, 예. 그 쉼 질루젠 허면예? 그 잊어 불지 못허는 이런 경험들도 하지예?  
 #1 뭐?  
 @1 쉼 질룰 때, 잊어 불지 못허는 거?  
 #1 잊어 불지.  
 @1 예, 쉼 멧 머리나 질러봤수가, 삼춘?  
 #1 쉼 흐, 흐 오십 마리 넘게도 질러봤어.

@1 삼춘 혼자?  
 #1 어, 혼자지, 뭐.  
 @1 게든 어떻 질루디가? 그 오십 므리 질루젠 흐민 출도 하영 해야 뉘고.  
 #1 목장에 그냥 철, 무시거 담양, 담 다와근에 질렁 내 불민.  
 @1 으.  
 #1 경 행 내 불민 겨울에도 거기서 내 불어.  
 @1 으.  
 #1 출도 안 주곡, 내 불어.  
 @1 겨울에도? 예. 게난 집에 데려온 거는 일허는 것만 데려오는 거구나예?  
 #1 어. 집에서, 집에선 길룰 땐 말이지, 집에서도 쉼막 해근에 흐 다섯 머리 길랐고이.  
 @1 으.  
 #2 대표적으로 많이 허는 사람은 한 열다섯 므리까지는. 예, 나도 한 열다섯 므리, 이 숫자로는.  
 @1 으.  
 #2 마방 간직해 가지고, 잘 해 가지고. 칠십 년도는. 그전에는 진짜 그, 열 머리 이상 질루기도 상당히 힘들었쥬.  
 @1 그러니까, 하나들.  
 #2 마방 덕분에 해서 와서 허면은 큰 소 다섯 개만 메젠 해도 십 평은. 흐 평씩은 츠지허는 과정이니깐.  
 @1 예.  
 #2 소 흐 므리. 그런 식이난 진짜 힘들어.  
 @1 송당은 가난예, 그 쉼마귀가 이만큼 잘도 널롭디다게.  
 #2 예, 아니. 게난.  
 @1 여기도 경 널러신가마썸?  
 #2 아니, 게난, 우리도 많이 가진 사름은 경 널러, 널러주마썸. 경헌데 손당은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것이 출 허는 이제, 그 터가 올케 밋이 너른 밋덜이 많아마썸게.  
 @1 으.  
 #2 목초 지역에는 저, 구좌에서도 손당 지구 \*\*\*.  
 @1 예.  
 #4 그 손당은 그 목축이나, 저 축산이나밋기 판 거는 잘 안 뉘엇어.  
 #2 게난 우영팻까지 목초를 해서 소말을 손당엔 길러고, 또 농사짓는 과정도 그 농사가 우리는 아주 농사가 잘 뉘고.  
 @1 예.  
 #2 손당데레 그 곡식 해여 가지고 산디나 이런 조 같은 것도 우리 쌀 그, 질이.  
 @1 달라예.  
 #2 우리 올케 일등 쌀 나오면은 일등이주만은, 손당은 흐 삼등 쌀 항상 이런 식이쥬.  
 @1 예.  
 #1 경헌 말 곧지 마라, 옛날은게.

#2 지금도 경험주마솜.

#1 드리 손당엔 해 가지고 드리 손당에서, 선홀 사름 드리 손당 사름덜 나무려서이?

@1 예.

#1 손당, 드리손당은 장화 아니믄, 장화 아니믄 못 산덴 해. 장화.

@1 장화? 비 하영 와 부난.

#1 장화 아니믄 못 산덴. 기자 비만 오민 막 벌닥벌닥헛는다. 경 헨 곶앗는디 이젠 손당 사름덜 이 선홀 사름덜 에이구 쪼다덜, 춤.

#2 (웃음)

@1 이제 워낙 거기는 땅이 널런예?

#2 너르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1 경헌디 아까 그 건초 말 헛는다.

@1 예.

#1 건초 말 헛는다.

@1 예.

#1 지금이니까니 장, 기계로 해 가지고서 다 흐를에 그냥 멧 천 평, 멧 천 평, 멧 만 평씩 이렇게 비곡 말이지.

@1 예.

#1 흐를에 무끄곡, 이렇게. 지금 우리 아들도 경 쉽게덜 허는다. 야, 난. 그거 보명 말이지, 이 줌호미로 말이지.

@1 예.

#2 손으로 다 비어.

#1 줌호미로 다 비어야 뉘어이.

#2 비는 건 경 허주만은.

@1 계난 쉼 흐 므리가.

#1 죽을 쉼 먹일 때 제주시예, 제주시예 아지망덜 빌영 오라근영에 일허는 거 보민 어느 학교 선생 각시.

@1 예.

#1 이런 사름덜이 문딱 오라근영에 빔질을, 출을 비주어이.

@1 예.

#1 그렇게도 헨 헛는다. 이젠 그냥 무시거로 기계로 비영은에 흐를에, 흐를에 허영.

## 먹이

@1 계믄예, 삼춘 거 들어보쿠다. 계난 그 쉼나 돌이나 먹젠 허면 쉼, 돌은 뭐 먹영 삼니까?

#1 뭐 먹영 사느냐고?

@1 예, 옛날에.

#1 뭐 출 먹영.

@1 출.

#2 (웃음)

### 출 종류

@1 계난 출 종류도 어떤 종류?

#1 미시거?

@1 출 종류?

#1 출, 출 종류?

@1 예게, 소세도 이실 거고.

#1 아이고, 무시거 먹어. 옛날엔 말이지, 무시거 허면은 쉼 뱉이는 거 자골출 일등. (웃음)

@1 자골출 일등.

#1 자골출 일등.

@1 예.

#1 어.

@1 그다음 이등은?

#1 이등, 이등, 이등은 말이지 무시거, 저 조침도 주곡 산디찜도 주곡 말이지. 콩꼬, 콩 그 런 거 주곡 말이지. 그렇게 길루왔고.

@1 응. 드르에 출은?

#1 으?

@1 드르에 출.

#1 드르에 출은 말이지.

#2 아까.

@1 아까 빈 거, 줌호미로 빈 출은 무슨 출 비엿수과?

#2 자골출, 자골 들엿당 자골출.

#3 새꼴.

#1 어, 어. 거 자골출도 잇고 그거.

#4 모새, 모새출이엔도 허곡.

#3 새꼴.

@1 새꼴.

#4 새꼴

#1 새꼴이엔 허는 건 말이지 이 띠, 띠.

@1 예.

#1 띠 이, 약헌 거, 그런 거 그자.

@1 으, 새꼴도 비고.

#1 경헌디 거기서는 말이지, 그것만이 아니고 막 으라 가지가 서껴져 잇어이.

@1 예.

#1 으라 가지 풀.

@1 예.

#1 으라 가지 풀이 그거 서껴져 잇으니까. 으라 가지 풀, 그런 걸 먹어야 말이지, 쉼도 건

강허곡. 그 췌가 나머지는 말이지 건강허면은 말이지 어, 새끼도 잘 낳곡, 그 췌가 따시 식용으로 갈 때, 고기도 말이지, 맛 존 고기.

@1 으.

#1 으, 그런 고기가 뒤어.

#2 사료예, 사료예.

@1 으.

#1 요즘은 말입니다, 무슨 사료, 무신 사료. 수입 사료, 축협 사료로 이걸로 맥이면은 말이지, 지금 무신, 무신 소가 좋다, 무시거 헛자 말이지. 난 경 골아져. 이 고기가 이 췌고기나 저 췌고기나 똑ㄹ뜨주, 뒤.

@1 예.

#1 먹이에서 몬들아진 거라.

@2 (웃음)

@1 고기 맛은 먹이예?

#1 게. 먹이.

@1 먹이.

#1 예, 먹이에서 뒤 거라고.

@1 계난 이 동네는 자골은 하영 들엿수과? 출 비젠 허민 자골출이 잇잖아. 자골 들연?

#1 자골 들연. 자골출도 경 헛주.

#2 계난 출을 많이 해서 허면은 자기 우영팻디 게서. 농스를 아니 짓는 허곡. 또 그때는 거름이 엇이니까.

@1 예.

#2 예, 놀리는 그런 하작법이 그대로 놀린단 말입니다. 경허면은.

@1 예.

#1 그 자골을 갈아 가지고 땅을 부유허게 혼번 콩 가는 식으로.

@1 예.

#2 영 거름을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자골을 갈앗주마썸.

@1 아.

#1 경 허다가, 게, 보리농사가 이제 생기니까, 그걸 보리로 가니까 이젠 이 자골 가는 식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지고 우리 때는 별로 자골을 가는 사람은 우리 마을에 혼 서너댓 사람씩 정도로만 이제 허다가 뒤 한 칠십 년돈 허니까 아주 이젠 딱 끊어졌췌.

@1 아.

#2 그런, 그런 거 아니라도 뒤 걸로 수입해서 뒤 배추 갈고 수박 갈고.

#4 경 헤 부난 지금 췌똥은 냄새도 더러와.

#1 경 현 말은 들어난?

@2 예.

#1 아, 들어난.

@1 계난 다른 동네는 가면 자.

#1 자골.

@1 자골 들이는 게, 출왓디 들이는 게 아니라 일반 밧디 들엿구나예?  
 #2 일반 밧디.  
 @1 농사짓는 디예.  
 #2 농사짓는 디.  
 @1 예.  
 #2 이.  
 #1 자골, 자골해 나면은 말이지 출도 비곡, 자골 갈아나민 말이지 밧도 좋아저이.  
 @1 예.  
 #2 자골들 \*\*\*\*.  
 #1 자골 갈아낭 밧도 좋아지고 자골출 맥이면은 쉼도 좋아지곡.  
 @1 으, 밧도 좋아지고, 쉼도 좋아지고.  
 #1 쉼도 좋아지고.  
 @1 예. 게문 그런 식으로 해?  
 #1 게난 다시 얘기행 쉼도 좋아진다는 말 쪼테는 말이지, 옛날 어른덜 쉼 치레 허지 말앙  
 은에 출 치레허라, 경 헛어.  
 @1 응.  
 #1 쉼, 좋은 쉼, 좋은 쉼만 허지 말고 출을 좋게, 좋은 출을 행 맥이라, 이 말이라.  
 @1 예, 예.  
 #1 예. 쉼 치레 허지 말앙 출 치레 허라.  
 @1 아이구, 이거 완전 멋진 말이우다.  
 #1 어?  
 @1 예.  
 #1 예, 자골 갈아나민 밧도 좋아지곡 자골 맥이면 쉼도 좋아지곡.  
 @1 으.  
 #1 그 쉼, 쉼, 쉼 치레 허지 말앙 출 치레 허는 말이 말이지. 잘 맥이라 말이라. 잘 맥이  
 라 말이라이.  
 @1 출이 좋아야 쉼도.  
 #2 경허니까.  
 #1 그렇주.  
 @1 예.  
 #2 나이그라스 이런 웨국 그 헛 것이, 자골은 순간입니다게. 그 시기적으로 출 헛 시기가  
 어, 열흘 사이에 것이 문딱 해야 뉼.  
 @1 아.  
 #1 잘 맥이라.  
 @1 출이예?  
 #2 코 같이 떼곡 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떼어 불민 시기 놓쳐 불민 출이 상당이 예, 뉼  
 허니까. 그런 거니까, 경 허니까 여건상 해서 진짜 칙녕쿨 다음은 자골이쥬. 우리 허민, 콩.  
 @1 으.



#2 칩냉쿨, 올케 자골 이렇곰. 그 사료, 우리 큰 사료는 뭐, 그, 이 뭐 이 세계가 아주 일 등이주마썸. 경헌데 수확량 적으로 어려움이 허니까 웨국 그라스 같은 거 오니까 장기적으로 기계, 기계가 들어오고 이 넓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1 말만 허지 말고 이거 뽀으로 가져온 거. 가져온 사람들이 먹어봐.

@1 예, 먹읍서. 오분 쉬쿠다예.

## 출 비기

@1 그 아까 이제 먹이 헤신디예, 그 옛날은 그 드르에 그냥 목장에 낵도 허주만은 집에 췌막에서 키우는 것들 헤서, 출 비레 텅기지 안허우꽈? 출, 출 빌 때는 어느 철에 비엇수과?

#1 출?

@1 출비는 거, 예.

#1 출, 출 비는 거 그때, 그때는 지금은 봄에털 말이지 무신 라이그라스가 무신 미국 출 헤여근에 봄에털 막 비는디. 그때는 뭐 언, 언제 비엿는 지가. 예, 저.

@1 팔월멩질.

#1 어, 아니, 팔월, 팔월멩질 전이 백로, 백로 팔월절.

@1 팔월절.

#1 백로 팔월절 들면은 말이지, 출 비는 거.

#2 경헌데.

#1 흔 들 헤야웨, 흔 들.

@1 으.

#2 하늬브름만 올라오면은 햅뽀 앞당겨.

@1 예.

#2 출 비는 것을, 하늬브름이 오면, 브름 오는 것은 신셋브름 허지. 동풍 으, 으, 에서 거 잘 들르는데. 북풍이 젤 준 브름이라마씨. 그 곰팡이, 일찍, 일찍 허는 것이 단점이 으, 곰팡이 핀단 말입니다. 곰팡이.

@1 으.

#2 곰팡이 헤서 우린 구둑 막 나 가지고 일찍 비민 것이 햅이라마씨. 출은 영양가는 일찍 비는 것이 훨씬 낫주마썸계.

@1 예.

#2 영양가로.

@1 근데 하늬브름 올라올 때 출 비는 거?

#2 아니, 겐디 아까 우리 삼춘은.

@1 백로 절, 백로.

#2 계절로.

@1 예.

#2 백로만 뒤편은 이제 출 허젠 헤 가지고 게난. 자골이에. 게서 우리는 허면은 그 출 비는 것을 자골을 겹헤마썸. 자골 허면은 동쪽도 새, 제기 떼는 바티 있고, 서쪽도 제기 떼는 바티 잇어마썸.

#1 아, 아.

#2 게민 그 자골 서꺼진 출은 자골 떼기 전에 어떠튼 자골은 비는 것이 이익이니까 떨어져 불민.

@1 으.

#2 그 콩 문딱 떨어져 부는 거벳기 안 되는 거니까. 경 해서 우리가 앞당기느냐, 흐뎡 뒷당기느냐 그런 것이 잇었주.

#4 하늬브름 올라와가민 자골줄 뎡뎡, 떼 떼카 부덴.

#1 흐 들, 흐 들 걸려.

@1 예.

#2 게난 가물가물해가면 하늬브름 오민 뎡 브름 불엇을 뎡 그것이 안 떼는데.

@1 예, 하늬브름.

#2 하늬브름이 올라오민 것 떼어 불어마썸, 경 허니까.

@1 으.

#2 떼어져 가지고 다 그.

@1 영양가.

#2 쥬이 썰어져 부는 과정이 뉘니까.

@1 예.

#2 경 해서 쥬.

@1 게난 흐 들썸 비엇어예? 흐 사람이 출은 뎡 바리 뵈니까?

#4 두 바리, 두 바리.

#1 뉘?

@1 출빌 때, 뎡 바리 비어? 흐 사람이.

#1 흐 사람이, 거. 출 흐 사람이 흐 바리 비는가? 두 바리 비는가?

#3 두 바리, 두 바리.

#2 두 바리.

@1 두 바리.

#2 두 바리 비민 잘 비엇덴, 하여튼 집에까지.

#4 쥬호미로.

@1 쥬호미로.

#2 이 뎡 수를 세어 보면은 집이갸지 오랑 팔십 뎡, 두 바리민 팔십 뎡인디 흐 바리가 사십 뎡씩 해 가지고, 우리는.

@1 예.

#4 갸도 출 흐뎡 잇어사. 봉그명 비젠 행은.(웃음)

@1 안 뉘어예.

#2 경 혜영 집에갸지 딱 들어왕 허면은 아주 이젠 잘허, 잘헸다. 그것이 안 되는 수가, 게난 출도 허민 출뵈이 좋아야 어, 수확량도 많이 나곡 허지, 갸인 데는 허민 없지.

#1 \*\* 추분, 한로, 상강.

@1 게, 게민 흐, 쉼 흐 뎡리가 겨울 나젠 허면 뎡 바리 먹어마썸? 출, 겨울 나젠 허민.

#2 응, 절, 겨울 나젠 허민 큰 소는 스무 바리 하여튼 이상은 해야주마씨.

@1 으.

#2 계난 서른 바리 허주만은 스무 바리로. 소가 많을수록 그, 그것에 허진 못허주만은 하여튼 하나 델 때는 서른 바리를 해야 델 거고.

@1 예.

#2 열 개를 헛을 때는 스무 바리로 하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세어 가민 뵙니다.

@1 계문 집에 메는 시기가 한 석 들인가마씨?

#1 으.

#2 녁 들, 녁 들.

@1 계문 녁 들. 녁 들에 저기 서른 바리. 으, 한 마리당예. 여기는 그 낫으로는 안 비어 뵙디가? 줍호미로만 허연.

#4 낫으로 허여.

#2 무사, 낫으로 베주게.

#1 어, 어, 내중에는 낫으로도 비여 뵙어, 장낫.

#2 우리가 허면은.

@1 장낫 해 갖고예?

#1 으, 으.

#2 바, 바디가 좋은 디, 넓고.

@1 으.

#2 이제 천 평 이상 밭들, 이제 예, 바디가 좋은 디는 낫으로 허곡, 좁은 디는 이제, 예, 이제 저 줍호미로 허여서 사름들이.

#4 어떤 딴.

@1 예.

#2 계난 우리 허면, 우리 수눌 헛 때는 큰밭도 낫, 낫은 이제 예, 낫질 현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진짜.

@1 거의.

#2 으, 상당히 드물엇고.

@1 예.

#2 이 손당드레는 뭐, 어린아기 요만이 나도 낫질허곡 이 호미질은 아년텐 허는데 허곡.

@1 예, 예.

#2 우리는 낫질은 진짜 어른이나 아주 상군해 가지고 좋은 출밭 가진 사름이나 낫질허지 그 웨에는 다 줍호미.

@1 으.

#2 경 허여서 수눌어 가지고 또 어 허민은 열다섯 사름까지, 계민 혼 동네 전부 동원허는 수 해서 수눌어 가지고. 오닐은 우리 거 허민 널랑 우리 삼춘네 거 허곡 해서. 혼 열다섯 사름이 짜 가지고 수눌음으로 대목 헛주, 수눌음으로.

@1 아. 출 빌 때도 다 수눌음으로 행은예, 예.

#2 예, 수눌음. 예.

@1 예.

#2 뭐, 모든 것이 수눌음. 출 빌 텍부터 수눌음. 검질 메는 거 허고 출 빌 텍분에 수눌음이 이루어지는 거.

#4 경허고 낫으로 비민 좀 적고.

@1 예.

#4 수가. 좀, 좀호미로 비민 좀.

@1 굽으로 박박 비니까예, 예.

#4 예, 예. 거고 낫으로 비젠 허믄 돌이 잇엉은에 그 우틀로 맥여 불주, 또.

@1 으.

#1 저, 누게 저 사름은.

#4 예, 예.

#1 낫으로 많이 비엿지이?

#4 예, 예. 나 그 저.

#1 낫으로 비는 게 출이 불어?

#4 아니.

#1 좀호미가 불어?

#4 예게.

#2 낫으로.

@1 으, 게난 하영 비기는 허지만 저기.

#2 양적으로는 적게.

@1 양적으로는 저길 하는 거라예?

#1 요, 요, 요즘엔 기계로 비는 거. 기계로 비는 것이 더, 더 불어. 출.

#4 예, 예, 예.

#1 싹, 싹 굴져 넣은.

@1 으.

#4 예, 예.

@1 요즘은 옛날처럼 자갈덜도 엇잖아예? 다 좇어 부난예?

#3 로라로 물려 부립니께. 출 갈양 로라로 딱 강.

#1 게난 언제 비느냐, 허는 소리를 헛는데이.

@1 예.

#1 출 비는 거 말이지, 예, 칠월[칠월], 팔월[팔월], 구월[구월]이 이제 가을인디이.

@1 예.

#1 예, 칠월,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이렇게 헤 가지고서 석 들인디, 인디. 백로엔 현 건 팔월이라이. 팔월절이라이.

@1 예, 예.

#1 백로, 팔월절 들어 가지고서 출 비영 허면은 백로, 추분, 한로, 상강. 게난, 겨민 상강 일[일]까지 두 들, 두 들인가? 두 들. 아, 상강에[에]진 허민 [가을]이로구나게.

@1 예.

#1 계난 팔월 혼 들에 혼 들 동안 출을 비어야 뉘어.  
 @1 으. 팔월.  
 #1 계난 구월 혼 들 동안 ㄴ실허고.  
 @1 예. 구월 혼 들은 ㄴ실허고.  
 #1 구월 혼 들 동안 ㄴ실허고. 어.  
 @1 으, 어쨌든 상강 전에 다 ㄴ실은 다 꺾나야 뉘는 거 아니라예?  
 #1 예, 거 상강 넘영도 허주만은. 넘영도 허는 거.  
 #2 경 허니까 상강일이 넘으면은 모든 것이 곡식이.  
 @1 예.  
 #2 그때는 안 여문다는 거라.  
 @1 예.  
 #2 그대로 해서 이제 말라서 허니까, 이제, 예.  
 @1 상강 전이 다 헤.  
 #2 우리 허면은 망종 허면은. 보리는 망종 허면은 눈 곰양 비어 불라.  
 @1 으.  
 #2 거 푸리고 흰 거 저 생각허지 말고 그런 표현이거든요.  
 @1 예, 예.  
 #2 그때는 손실 보니까.  
 #4 출 그거 늦영 비영 현, 물리왕 주민 쉼이 눈꼴허여. (웃음)  
 @1 아, 경 곱읍니까? 쉼 눈꼴 헨다고예, 예.  
 #4 겨고 비 흐끔만 맞아 불민 그.  
 @1 안 먹고.  
 #4 그 으. 안, 안.  
 #2 세어서 풀이 영양가도 떨어져 불 겨고, 세면은 진짜 경 허니까, 웨 세게 좀 비어. 일 못 출려서 허는 과정이고, 늦게 비민 빨리 물립니다게.  
 @1 예.  
 #2 세, 세니까.  
 @1 예.  
 #2 트질 앓아 가지고. 계난 웬만하게 젖인 걸 무꺼도 올라가도 놀 놀어 가지고 해도 트질 얼마 안 허여.  
 @1 아.  
 #2 그때부터 바람이, 하늬브름이 들고 그러니까.  
 @1 예.  
 #2 경 해서 거 영양가로는 상당히 떨어진 거주게.

### 출발 관리

@1 계문 그 출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험수과? 거기. 고사리도 비어야 뉘고. 거기 자왈들도 걷어놔야 뉘고.

#2 아니, 계난 첫짜 허면은 출 비는 밧은 어, 소 놓지 말라이, 우리 경 허민 종 찢러야 되고.

@1 예.

#2 우에 표시를. 이 밧은 출 헌다는 것이 허민. 대나무 해서 종 찢렁 표시, 주인이 허고.

@1 예.

#1 아.

#2 경헌 다음 아까 잘 관리허는 사름은 고사리 제거허곡 까시 제거허곡 아까 그 돌맹이 제거허곡 경 허면서 어, 허여도 그 출밧 전체를 내 가지고 아주 많이 허는 사름은 어, 기계로 허는 사름들은 헛주만은 우리가 노력은 한계가 있는 과정이니까.

@1 예, 예.

#2 으. 항상 그 저 다 허질 못허는 과정이었주마씨.

#1 이제 출 허는 사름덜 정말로 무슨, 아주, 아이고, 찼.

#4 예, 예.

@1 (웃음) 옛날.

#1 삼 일이민, 혼 삼 일이민 비영 이틀 몰라근영에.

@1 싹 쫓나난.

#1 무경 집이 오랑, 데, 데미민.

@1 쫓.

#1 경 해도 막 무신거 목장에 텅기는 것도 차로 행은영에 금방 갓당 오곡.

@1 옛날 계난 출 저기.

#2 나, 나가 거.

#1 이, 고 이장 이 사람아, 나 그전에 막 눈 오는디 목장에 그 축사에서 사니까 말이지, 눈은 막 오는디 집에서 이젠 그 축사엔 가쟁 허민 여기서 어디 목선동까지 그디까지 걸음페 기까지는 차로 가이.

@1 으.

#1 글로 저런 걸영 가는디 얼마 걸으니깐이 걸영 가는디 야튼 혼 어, 우리 축사까지가 혼 칠팔백 메다 뒤어.

@1 으. 목선동에서마씨?

#1 귀가.

@1 예.

#1 귀가 막 얼영근영에 아이고 겨.

#2 축사는 올케, 뼈, 뼈에 든다고이, 동 올케 발로 이거 기어야 뒤니까.

@1 으, 으.

#1 으.

#2 뼈로 헌다고 이렇게 축산허는 사름 부지런 젤.

#1 경허연.

#2 젤 논쟁이라고 뭐 축산헤젠 해서 놀젠 헤 가지고 축산허는 거 보다 젤 진짜 걸음을 놔 보다 빨리 나가 가지고 그 심술궂인 놈, 도둑질허는 놈들이 잇으니까. 일찍 나가 가지고 놔

의 밧데 드는 놈, 올케 예, 말썽 아니 현 때 게으름벙이 안 뒤편은 진짜 그 말썽이 안 나오는데.

@1 으.

#2 그 게으름벙이 뒤편은 놈의 밧디 들어 가지고 영, 어, 손내비와 가지고 값도 내고 올케 해. 상당.

@1 게난 노는 사름ㄴ라 허민 논쟁이렌 곱습니까, 여기?

#1 으.

#2 우리, 우리 제주 사투리로, 으, 논쟁이쥬.

#4 놈팽이.

@1 으, (웃음) 놈팽이, 논쟁이.

#2 놈팽이엔 안 허고, 올케 논쟁이쥬, 우리말로.

@1 논쟁이예?

#2 놈팽이는 어, 표준에 가까우니까.

### 출 운반

@1 게난 옛날에는 출 해 들일 때는 다 저기 물로 시껏수과? 쉼로 시껏수과?

#4 구루마.

@1 구루마로 행?

#1 쉼로영 물로영.

@1 예, 질메 해 갖고 이렇게.

#2 게난 구루말 것이 아년 때는 진짜 질메서 소, 물 다 질메 지와 가지고.

#1 구루마도 나기 전에.

#2 예.

#1 구루마도 나기 전에.

@1 질메 지왕예.

#1 구루마에 쉼로 물로.

@1 으, 쉼로 물로 허영?

#4 그 흐 바리가 그 쉼 한 번 질 수 잇는 그 수정.

@1 예, 서른 못예?

#4 아니.

@1 여기는 마흔 못.

#2 으.

@1 마흔 못 해 갖고 이제 하고. 게문 흐 구루마는 멧 바리 시껴져마씨? 흐 구루마에는.

#1 구루마예?

@1 예.

#1 구루마에, 멧 갠지 몰라. 세지, 모르크라. 얼마나 많이 시껴져 신지.

#4 그때 짐 실렁 텅기젠 허민 질 굿어 부난예.

@1 으.

#4 자꾸 구루마 돼싸 먹곡 허난.  
 #2 돔부, 돔부, 돔부정.  
 @1 (웃음) 으. 돔부정.  
 #2 돔부정.  
 @1 으. 게믄 그 집의 왕.  
 #1 돔부정은에 헨 거 잘 알암신게.  
 #3 예, 돔부정. 구루마  
 #2 게니까.  
 #3 질 곳인 디.  
 #2 진짜로 쉼 바꾸헐 때는 돔부를 많이 젓주. 겐디 겨도 다이야 허니까.  
 @1 으.  
 #4 어, 다이야 허난 흥곰 살앗주.  
 #2 다이야 허면은 돔부져 가민 바람 흥곰 빼 가지고.  
 @1 아.  
 #4 췌구루만 거 자꾸 해싸정, 그냥, 아이구.  
 @1 게난 돔부질 때는 어떤 식으로 허여마씨, 그 짐 다 새로 시꺼얏 거 아니우파?  
 #3 새로 이제 다 풀곡. 들깎지도 넘어납니다, 잘못허민은.  
 @1 아.  
 #2 들깎지도 넘어나곡 말곡. \*\*\* 도 허니까 뒤.

#### 으물

@1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예. 그 혹시 췌허고 출도 그 들도, 여물도 줍니까? 으물.  
 #4 예, 예.  
 @1 콩이나 콩각지나 그런 건 안 허여? 우리, 제주도는.  
 #4 아, 콩각지는.  
 #3 구루마 들은 콩각지 헹 잘 맥여야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콩각지 맥이곡.  
 #2 거 일허는 소는.  
 #3 콩 이제 졸레.  
 @1 예.  
 #3 이제 그 삶아 가지고 이제 산디 그 저 껌데기.  
 @1 예.  
 #3 것에 버무령 줘서 맥이고.  
 @1 아, 아. 우리도 게믄 제주도도 으물 안 맥인 건 아니구나예? 밧 가는 췌들은 다 졸레 이런 것들.  
 #2 우, 우리 삼춘 아까, 아까 헛주만은 또 이제 말 쪽으로 헨데, 말 타는들은 올케 이녁도 안 먹는 돼지배설을 흠기름 허영 다 맥이곡.  
 @1 어.  
 #2 걸 진짜 보기탕을 허는 거주마씨.



@1 아.

#2 경 해사 잘 뛰지, 그 그거 ㄹ추록 아까 ㄹ치록 허영 관리를 허영은 안 뛴는 거주마씨.  
모든 것이.

#1 뭉여야 뛴어, 뭉여야.

@1 예.

#2 예, 아까도 이제 소, 아깁 밧 가는 소, 부릉이 같은 거는 올케 그 주인이 진짜 아까 육  
지 식으로.

@1 으.

#2 꿔려 가지고, 올케.

@1 으물도 주고예.

#2 으물, 으물 항상.

#1 알앗져.

#2 자깁 굶어도 올케, 소는 굶게 아녀는 그런 주인이 잇엇주마씨.

## 번썬

@1 예. 옛날에 그 썬들 이렇게 하면 집집마다 이렇게 헛지만 다 가지 못헛, 여기 번썬 같  
은 것도 헛신가마씨?

#4 예, 예.

#2 번썬을 많이. 아까 헛주만은 번 뭉엇다는 말이.

@1 예.

#2 바뭉기 허멍, 돌아똥기면서 번썬주.

@1 아.

#1 번썬?

@1 예, 번썬에 대헛 곶아줍서.

#1 뽼 번썬 ㄹ지 알아요? 그거.

#2 (웃음)

@1 조사, 조사 허젠 허난 공부헛 거난마씨.

#4 그것도 모판에 영헛근에 이름덜 다 썽은예.

#1 우, 우리보다 더 잘 알멍 우리한테 들어보는 거?

@1 아니, 아니.

#1 우리.

@1 공, 공부헛연.

#1 우리 옛거, 거 곤지 말자.

@1 (웃음) 번썬는 어떤 거주파? 번썬.

#1 뽼, 번썬 허는 거주게. 뽼 번썬.

@1 게난 번썬는?

#1 번썬도. 바령 들이는 말은 아니 들어 뽼서. 바령.

@1 흐뽼 이땅 들어, 들어 보젠.

#2 (웃음)  
#1 바령.  
@1 계난 바령도 뭉 말앙 쉼로도 바령 들어수과?  
#1 쉼로 들어, 바령 들어야지.  
@1 쉼로예?  
#3 저녁에 가똥.  
@1 쉼로예?  
#2 계난.  
#1 뭉로 바령 들어면은 뭉, 뭉 임신똥지, 임신똥 말.  
#2 어린이ㄱ지 볼 수 잇는 것이 사삼.  
@1 예.  
#2 사삼이 해서 우리가 저 안선을, 성에서 좁은 데서 그 산 때, 게 소, 말이 잇으니까 그 때 바령을 올케 해서 들어와야쥬.  
@1 예.  
#2 으, 폭도똥 잡아먹는다 헤 가지고. 어, 어 죽이지 아녀서 전부 자기 뭉허민 헤가지고 똥쥬 허곡 해서 혼 공동 우리, 우리 선홀 소, 뭉이 다 거기 왔어요.  
@1 아, 바령, 바령 헐 때.  
#2 그거 혼.  
#1 그만, 그만. 더 잘 곶아줍신게.  
@1 아니.  
#2 (웃음)  
@1 빨리 삼춘, 똥쥬허고 바령쥬 곶아줍서? 똥쥬.  
#1 똥쥬 어떻 허여.  
#2 똥쥬 해서 그거 이제 얘기헉서.  
@1 계난 똥쥬 어떤 식으로 헛수과?  
#1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  
@1 예.  
#1 아, 영 행 열 사름이 쥬 잇는데 말이지, 게 혼 똥, 혼 사람, 저, 곶로 저 혼, 혼, 혼 사름이 말이지, 영 행 돌아보명 말이지, 돌아보명, 돌아봐근앵에 허는, 그런 거 똥쥬주, 똥 쥬.  
@1 게문 이 선홀에서 여기, 가호가 몇마씨? 이디.  
#1 예?  
@1 쥬 질루는 가호가 똥이라낫수과?  
#1 서른, 삼백 호.  
#2 이디가.  
#1 옛날에 혼 삼백 호.  
@1 삼백 호.  
#2 사삼.

@1 게문 번쉐힐 때는 삼백 호가 다 허는 건 아니잖아예? 골목합니까?  
 #1 보통 췌, 췌.  
 #2 동네, 동네.  
 #1 췌 안 길르는 집도 잇엇고.  
 @1 예. 게문 여기는 멧, 도, 동네가 멧 개라낫수과? 선흘.  
 #2 동별, 동별.  
 #1 뭐라고?  
 @1 이 선흘에 동이 멧 개라난?  
 #2 일 동, 이 동.  
 #1 동?  
 @1 예.  
 #2 낙선동.  
 #1 여섯 동.  
 @1 게문 여섯 동.  
 #1 으.  
 @1 게문 번이 으섯 개.  
 #1 아니, 아니.  
 @1 더 많아?  
 #1 그 중에도 말이지.  
 #2 죽은 동네는 합허는 디도 잇고.  
 #1 흔 열 사름 정도면.  
 #2 큰 동네는. 흔 동네 허는 디도 잇고, 경허여.  
 #1 열 사람쫘, 일곱 사람쫘 헤야 댜.  
 @1 아.  
 #1 번허는 것도 말이지, 흔 사름이 그 가꿀려니깐이 췌 만헌 사름이 말이지, 췌 흔 일고,  
 으답 므리 이신 사람은 말이지, 열 사름 허민은 말이지.  
 @1 칠십 마린 못허니까.  
 #1 게문 버치니까.  
 @1 예.  
 #1 예, 번 허쟁 허민은 흔 췌 서른 므리 정돈.  
 @1 아, 게문 그거 둔? 영 둔 짓는 거.  
 #1 어, 췌 서른 므리 정도 헤야 번.  
 @1 음.  
 #2 게니까, 험 시작허민 그 둔이 잘 댜 가지고.  
 @1 예.  
 #2 판 건 들어오면은 부뜨지도 못허곡 찢러 불어 가지고.  
 @1 아.  
 #2 둔이 허면은 허는 사람끼리 허면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번 수는.

@1 번 수는.  
 #2 게니까 자기네 동허민 반이민 반.  
 #1 응.  
 #2 동이민 동. 요런 식으로 해서.  
 @1 게믄.  
 #4 들은 하영 허여도.  
 #2 나가 얘기헌 거는.  
 #4 쉼는 하영은 못허여.  
 @1 응.  
 #2 우리 낙선동에서 헐 때, 낙선동 허민 사삼 때 해서.  
 @1 예, 예, 예.  
 #2 저기서 헐 때는 우리 혼, 백오십 호 이상 댜 그 헐 때. 그 사삼 지나면서 다 죽었다  
 남은, 이제 소, 몰덜은 그 주인들이 잇는.  
 @1 응.  
 #2 주인들은 이제 관리를 그렇곰 헛주마씨.  
 @1 예.  
 #2 공동적으로 해서 같이 쉼막도 그땐 못허고 올케 허니까.  
 @1 으.  
 #2 우리 헤 가지고 그대로 담양 아춤에 나가고 밤에 헤 가지고 해서. 게난 변췌 허면은  
 그것이.  
 #1 몽클 헤샤? 몽클. 몽클.  
 #2 이제 자기네끼리 허민 자기네끼리 둔이 딱 뵈니다.  
 #1 몽클, 몽클.  
 #2 말 같은 거는 슷눔이어서 관리를 잘헤, 자기 쪽은 자기 쪽 딱허게 해서. 자기가 관리하  
 는 암돌 스무 개민 스무 개는 편으로 해서.  
 @1 으. 게난 이젠 변허게 뵈면 혼 사람만 가마씨? 아니면 두 사람이 짝 헝 가? 번?  
 #2 두 사람도 뵈곡. 두 사람이 대목헛주, 혼 사름이 아니고.  
 @1 예.  
 #2 으, 좀 수정이 많게 허면은 허니까. 웨롭곡 허니까 두 사람이 헤 가지고.  
 @1 으.  
 #2 좀 많인 허민 두 사람이 대목 헛수다.  
 @1 예, 예. 그렇게 이제 번도 허고예.  
 #1 몽클, 몽클.  
 @1 몽클, 췌 저 무시거, 잠대 이렇게 헐 거예? 몽클.  
 #1 그걸 잠대에 허는 게 몽클이고. 잠대 성에 몽클.  
 @1 예.  
 #1 아까 풀, 아까 풀, 몽클, 몽클.  
 @2 풀이름.

@1 아, 풀이름, 이제 기억 난.  
 #2 (웃음)  
 @2 한 시간 이시민 기억 난텐 해신디.  
 #2 아, 몽콜, 몽콜.  
 #1 몽콜. 몽콜.  
 @1 게믄.  
 #1 몽콜이 우리말로 몽콜엔 곱아났어.  
 @1 게믄 소랭이현 거.  
 @2 으.  
 #2 아까 질메 지운 디 현 거.  
 @1 질메힐 때 몽콜예?  
 #1 으.  
 #2 몽콜엔.  
 #1 질메힐 때 그 짜는 것ㄴ라.  
 @1 아.  
 #2 우리, 우리 이름이 몽클이었어.  
 @1 예.  
 #1 몽클, 몽클이엔 해서.  
 @1 몽클예?  
 #1 어.  
 @1 게난 꼭 잠대 몽클허고 똑같이.  
 @2 그러게.

### 진독 구제

@1 삼춘, 진짜 한 시간이니까 튼넷수다. (모두 웃음) 역시, 아이구, 컴퓨터도 아니고. 그리고 옛날 쉼들 허젠 허면 아까 우뚝 쉼는 여기왕 못 질룬텐 헛잖아예? 여기 진드기, 진독들 하부난.  
 #1 으.  
 @1 그 진독허, 저기 떼젠 허믄 어떤 식으로 헛수과?  
 #1 진독이?  
 @1 예.  
 #1 앓따 거 침, 그런 것ㄴ지 다 생각헿 들어보네. 아이구게.  
 @1 (웃음) 나 삼춘네 ㄴ튼 연배마씨. (웃음)  
 #1 진짜이 저 옛날 진독, 진독, 진독 춤말로 구제허는 거 막 어려왔어.  
 @1 예.  
 #1 옛날 어려왔어, 그러다가.  
 @1 그 진독허민 쉼도 막 쭈쭈허곡.  
 #1 어, 진독으로 귀 ㄴ득이믄 송아지 죽어이.

@1 예.

#1 어, 어. 겨난 거 잘 몰르크라. 저 무시거옴, 옛날은 그 구제약도 엇이니까 그 무신 듯 지름 해근옴에 귀에 블라주곡 헛다고.

@1 아, 귀에옴? 듯지름으로.

#1 어, 듯지름 헛 블라주곡. 저 뭇 웬장 블르니까, 웬장 블르니까 말이지 막 붓더라고, 붓 어.

@1 아.

#2 짤 거.

#1 웬장은이 꿈무니 ㄴ똥 디, 꿈무니 ㄴ똥 디 웬장 블라주니까 옴 붓더라고.

@1 으.

#1 경헌디.

#4 잘도 부떠, 잘도 부떠, 진독.

@1 응, 진독. 여기 동네도 하구나?

#2 으, 막 하.

#4 아까 부구리, 부구리도. 막 하.

@1 부구리도 막 하고.

#2 (웃음)

#3 진독 방제로 불을 부찌는 거주, 불을.

@1 예. 화입해 갖고옴.

#2 화입허당.

#1 이젠, 이젠.

@1 게문 그 진독, 젤 어릴 때는 무시거옴 허여?

#3 서미역.

@1 서미역.

@3 서미역?

#1 진독ㄴ라 그, 그, 그건 몰르크라.

@1 으.

#1 그건 몰르는 거라. 서미역이.

#2 종류가 만흔 겨난.

#1 어린 것ㄴ라 서미역이옴 허는 거 옴고.

#2 어린 것이 서미역.

#1 꼬마니까 서미역이옴 곤는다.

#2 쪽으니까.

@1 예.

#1 진독씨가 말이지 진독씨가 새끼 낳, 뭇 무슨 거 허민 서미역인디 뭇인디. 서미역이옴 현 거는 말이지, ㄴ실 들어가면옴.

@1 으.

#1 그거 생기는 것이 진독에서 떨어정 생기는 것이 서미역인디.

@1 예.

#1 그놈의 서미역인가 무시것이 어느제 돼민 큰 저 부구리, 부구리. 저.

@1 부구리.

#1 진독 돼는 줄 몰르크라.

@1 으.

#1 걸, 건 진독 허민 서미역허고. 거 제난 진독이민 진독.

@1 제난 순서가 어느 건지 모르겟다는 거지예? 삼춘예?

#1 어.

#4 서미역은 박색이 올라올 때 그럴 때 서미역.

@1 서미역. 게민 서미역 혈 때는 그 저기 진독혈 때는 물박세기 영 논텐도 험디다, 어디 가난.

#1 예?

@1 쉼 밑에 물박세기 놓면은 그 진독 떨어진텐. 서미역 이런 거.

#4 에이구.

#1 물박세기 놓민?

@1 예.

#3 그런 말은 못 들어봐서.

#1 쉼 밑에 물박세길 논다고?

@1 예. 그런 말은 안 허여.

#4 그 저 쉼들이 물 먹으레 강 물에 팡당팡당 빠정은엥에 영영 해도.

@1 안 떨어져.

#4 안 떨어져.

### 글쟁이

@1 아. 여기 부구리채는 이런 거는 안 헛수과? 부구리채. 영 글쟁이 닮은 거.

#1 으.

@1 글쟁이.

#2 무사 그것사 타는몰 허니까, 우리사.

#1 그걸로 헤낫어, 헤낫는디, 그걸 허.

#4 그걸로 헛 뎌 그거 저 떼어나민 또 그거 막 그냥 거기 상처나근에 소가 ㄱ름넌 허영. 쉼가 못 전딘텐 헤낫어, 저.

#1 쉼가 헛 열 ㄱ리 돼는디, 열 ㄱ리 댜디, 그걸 어떻 감당허.

#2 진짜 관리허는 안 가면은 제가 자기가. (웃음) 헛나 두 개 혈 때 그런 거지.

@1 게민 어떻 장만 허여.

#2 으라 개 허민 그런 거는 허고. 저 예, 구제허는 것은.

@1 디디티 뿌령.

#1 내 불어야 돼어.

#3 비에이치씨.

#4 어, 약 나올 때는.

#2 어, 처음 약 나오니까 디디터 헛고.

@1 예.

#4 계속하고.

#2 그다음 저.

@1 여기는.

#2 진독약 나오니까.

@1 하영 질루난 그런 게 진짜로 하나로 안 뒀는 거지예?

#2 경 허니까 우리 아까 허민 화입을 우리가 맞추는 것이 진두기. 진두기, 경헌디. 진두기는 양반이라고 뭐 정월 초하루 나온다고 허지, 우리 속담에 그런 예, 이야기가 있는데. 경해서 화입을 일찍 헤여. 허면은 진드기를 못 잡고, 정월 나서 화입을 허면 진드기 구제가 잘 뒀 가지고.

@1 예.

#2 진드기가 좀. 이 또 진두기가 많은 것은 별판지대. 돌이, 돌이 잇는, 고망 잇는 돌. 우리는.

@1 예.

#2 그 돌 속에 문딱 진드기가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1 뭐.

#2 게서 화입을 허여도 이놈이 그디 곱을 때는 죽질 앓아 가지고.

@1 예.

#2 게서 나와서 혈 댁에니까. 정월달 허면은 따시 나올 때, 그런 때는 화입이 잘 뒀고.

@1 아. 고망에 살아예.

#2 고망에.

@1 어.

#2 그렇지.

@1 아.

#2 그대로 항상.

#4 돌구멍에 살아, 돌구멍에.

@1 돌고망에.

#2 기생, 기생해 가지고. 진짜 우리 어린 때 난 헤 가지고 나도 출 허젠 헤 가지고 한 스물댓 설, 출 헤 가지고 저 백해동에 가 가지고 천막 천, 흔 거기서 흔 보름 살았주만, 우리 혈 때, 올케 진독 부떠 가지고 부구리 뒀야 알아 가지고.

@1 으.

#2 어, 근지로와 가지고 헨 보니까, 거 밤에 헤 가지고 어, 드르에서만 사니까.

@1 아.

#2 진두기 부떠 가지고.

@1 아, 삼춘 몸에서가 부구리 뒀어 불언?

#2 진두기가 부떠 가지고.



#4 부구리 뒀어.

#2 부구리가 뒀야 알아 가지고 근지러원.

@1 아.

#2 근지러울 정도 뒀면 부구리가 건증 뒀어. 이, 예, 진드기가. 경 해서 진드기 빈혈도 걸려 보지도 않고. 거 난 군대에서덜 해 가지고 죽고 살고 그런 것이 상당히 해도. 하, 나는 여러 번, 여러 번 경 헛어요. 경험을.

@1 아.

#2 부떠 가지고 난 경 부구리 뒀도록 현 적도 있고. (웃음)

@1 게문, 삼춘, 요즘은 무사 야생 진드기 행 사람도 죽는덴 허잖아예?

#4 찌찌가무시병이엔 해 가지고.

#2 아니, 그때도 잇엇주, 겨난 올.

@1 그때도 죽는덴 헛수과?

#4 아니, 아니. 지금 그 진드기 틀려, 틀려.

#2 틀리우짜?

#4 다리가 길어, 다리가.

@1 아.

#4 지금 나는 그 저 찌찌가무즈 그 진드기는.

#2 아니, 나, 나가 볼 때는 나 정도는 재수가 좋은 거주. 겨니까 그런 어떤 감염 아니 똥진두기가 몸에 기생헌 거고. 겨니까 진두기가 문뜩 기생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예.

#1 그 이상케 동물에서 자기가 그 혈청적인 것은 병 걸린 해충을 먹은 그 진드기가 가서 어 그 병을 옮기는 거지. 진두기 전체가 다 경하는 건 아니라고 난 봅니다.

@1 으.

#2 경허민 뭘 찌짜, 이 농촌에 살 수가 없어요.

@1 예.

#1 뭘 아직 우리도 영 허여도 방에 보면은 진두기 기어 땡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 으. 여기는 워낙 이제 소들을 많이 질루난예.

#2 소털이 땡기는 곳에는 예, 우리 허면은 안직 비, 비자림로 안 지켜서 뭘 소똥구리. 아, 소똥구리는 목장 해 가지고 소 많이 땡긴 똥에서 생기는 거, 그런 디 이, 우리 제주도는 그런 땅이 없는 디가 잇수과? 한라산ㄱ지, 백록ㄱ지 난 잇을 건데.

@1 게난 요즘은 쉼들 안 질루니까, 이제.

#2 예. 경 해도 그것이 생기니까 하, 뭘 자연 뭘 허니까. 너무 겨난 현실 사회만 부르짖는 사람, 과거가 어떻게 똥 걸 모르는 친구들이 걸 보니까.

#1 요즘 쉼덜 질루니까 진두기도 먹을 거 없으니까 말이지.

@1 사람도 먹어 불고예. (웃음)

#1 진짜, 진짜로.

@1 진짜로예.

#1 진독이가.

@1 예.

#1 진도기가. 진도기가, 어느 목장에, 어느 목장에. 목축, 저, 어느 목장에 말이지 췌 물 놓는 디 말이지, 오십 일, 스십 일 동안만은 안 놓면은.

@1 예.

#1 안 놓면은 진독이 엇어이.

@1 아. 췌나 물 오십 일만 엇이민.

#1 어, 오십 일 동안만, 오십 일 동안만 안 놓면은 엇어이.

@1 게난 그거는 진독이를.

#1 진독이도, 진독이도 어디.

#2 아니, 경허난.

#1 동물에 부명 뜰영 먹어야 새끼 치지이.

@1 으.

#1 그러니까니 그 중에는 말이지, 뭉고, 췌도 잇고, 췌도 잇고 말이지, 노루도 잇고 그러니까니 그런 걸 허는 말이고. 그것도 전혀 안 먹곡.

#2 예.

#1 전혀 안 먹곡 행 오십 일만, 오십 일만 허면은. 게난 요즘에, 요즘에 진독이 더는 게 이 농약으로 구제도 많, 구제가 큰 거고. 또 목장털 이제 아녀니까, 저 축산 아녀니까이, 목장에 텅겨도 진독이 별로이.

## 물 질루기

@1 음, 경해도 핫덴 허명 막 영 곱읍디다. 삼춘, 이젠 물. 삼춘 전문으로 하영 헛던. 물은 어떻 질릅니까?

#1 물도 췌처럼 질루주.

@1 으.

#1 물처럼, 췌처럼.

@1 게난 물허고 췌허고 허면 어느 게 출은 하영 먹어마씨? 출은?

#1 출 잘 먹느냐?

@ 으.

#1 출 뭇 물 많이 먹는데 헛자, 췌보다 물 똑ㄴ찌 먹어게.

@1 ㄴ찌 먹어.

#1 ㄴ찌 먹어게.

@1 으, 겐디 췌가 더 먹넨 허지 안헛니까?

#1 뭇?

@1 췌가 더 하영 먹지 안허여?

#1 아니.

@1 아니?

#4 물은 물은 ㄴ민이 셔보민, 보면 이십사 시간 계속 먹는 거 닳아. (웃음)

@1 아, 물은.

#2 삼춘, 예, 들은 닛 돼 먹곡 소는 혼 말 먹으니까 어, 반벧긔 안 먹는 거 아니우짜?  
 @1 예, 계난 들 밥이. (웃음)  
 #2 계니까 거. 어, 소는 위가 어, 네 개의 위를 갖고 다 채우는 거고 어, 들은 위 하나.  
 @1 예.  
 #2 우리 사름과 같이 위를 하나 가져 가지고.  
 #1 예.  
 #2 경 허니까 또 임시 먹는 거. 계난 들은 아까 얘기 헛주만은 들은.  
 @1 스물네 시간 먹고.  
 #2 이십사 시간 진짜, 자기가 줌 안 잘 때에는 항상 먹는 짓은 몰이라마씀.  
 @1 예.  
 #2 입, 입을 놀려 가지고.  
 @1 쪼끔씩 쪼끔씩 이렇게 먹고.  
 #2 똑 씹어 가지고 경. 소는 그 자기가 어, 안전한 곳에서 빨리 먹어 가지고.  
 @1 돼새기고.  
 #2 어, 많이 먹어 가지고 돼새김해서 안전한 곳에서 줌 자면서 돼새김질 허는 것이 소고.  
 #4 으, 구루마돌 집이 메는디 줌자당 보민 계속 그 먹는 소리가 나. (웃음)

## **들 종류**

@1 들예, 예. 삼춘, 이제는 들은 종류가 쉼 종류보다 더 하지 안헛니까예?  
 #2 색, 색깔, 색깔.  
 @1 들 종류를 다 곶아줘 봅서, 색깔.  
 #2 색깔.  
 #1 색깔?  
 @1 예, 들.  
 #1 색깔?  
 @1 예. 검은 거?  
 #1 일 가라.  
 @1 일 가라.  
 #1 이 청충, 삼 적다, 스 월라, 오 유마, 육 거을, 칠 고라, 팔 추마, 구 구렁, 십 자할. 열 색깔. (웃음)  
 #1 열 색깔 중에서 지금예, 지금예 허는 거는 말이지, 막 스무 색깔도 돼여이.  
 @1 예.  
 #1 어, 어.  
 @1 가지치기 허니까.  
 #1 어, 어, 막. 보인유마여 무신 유마여, 허민 유마 중에도 경 행 십 색.  
 @1 십 색이렌 허민.  
 #1 크게, 크게 십 색이.  
 @1 예. 잠깐예.

#2 그건 으라 가지.  
 @1 삼춘 그건 나 잘 모르난예.  
 #1 뭘?  
 @1 천천히 끌어줍서. 일, 일 가라.  
 #1 이 청충.  
 @1 이 청충.  
 #1 삼 적다.  
 @1 삼 적다.  
 #1 스 월라.  
 @1 스 월라.  
 #1 오 유마.  
 @1 오 유마.  
 #1 육 거을.  
 @1 육 거을.  
 #1 칠 고라.  
 @1 칠 고라.  
 #1 팔 추마.  
 @1 팔 추마.  
 #1 구 구렁.  
 @1 구 구렁.  
 #1 십 자홀.  
 @1 십 자홀.  
 #2 자할.  
 #1 십이 색갈.  
 @1 예.  
 #2 자할, 자할.  
 @1 갱 가라몰도 또 가지치기.  
 #1 응, 추가라 뭐 헐 시, 추, 추.  
 @1 예.  
 #1 추가라여 무신, 무신.  
 @1 먹가라여.  
 #4 먹가라.  
 #1 먹가라.  
 @1 예. 청충이?  
 #1 게믄, 게, 게 저.  
 #2 아니 겨난.  
 @1 청충이도.  
 #2 청충이는 저 충이니까게.

@1 그대로 가고.  
 #2 \*\* 백색 헤 가지고 청충이면은 흰 것에는 다 흰, 흰나로 말히는 거주.  
 @1 예. 적다도.  
 #2 예, 적다는.  
 @1 가지 갈를 거 아니우파? 적다는.  
 #1 적다 뭐 고치적다여 무신.  
 @1 예.  
 #1 뭐.  
 @1 고치적다영.  
 #2 여러 가지난.  
 #1 그런 거, 그런 거.  
 @1 구렁적다도 잊지 았우파?  
 #2 구렁적다도 잊고.  
 #1 구렁적다도 잊고.  
 @1 예, 구렁적다.  
 #1 구렁적다, 갈옷 님은 거이. (웃음)  
 @1 예. 월라.  
 #1 으?  
 @1 월라도.  
 #2 월라.  
 #1 월라도게, 무시거 다.  
 #2 얼룩얼룩헌 것이 월라 아니우파? 여러 색깔 행.  
 #1 흰.  
 @1 응. 유, 유마도 으라 개 잊지 았우파?  
 #1 \*\* 유마.  
 #2 유마는 핏 색깔헌 것이 유마.  
 @1 보흰유마 잊고.  
 #4 즈류마.  
 @1 즈류마 잊고.  
 #1 으.  
 #2 감은유마허고.  
 @1 어, 감은유마도 잊고. 그다음 거홀도.  
 #1 으.  
 @1 거홀은 어떻 험니까?  
 #1 거홀, 거홀도게, 무신.  
 #2 거홀, 거홀.  
 @1 거홀. 이렇게 허영 헌 거. 거홀.  
 #1 입도 희영허고이 즈개기도 희뜩희뜩헌 거이.

@1 예.  
 #1 그거이 나신디 듣는 것보단도 요즘 무신 저, 무신 책에 잘덜.  
 @1 아이고, 그 책에.  
 @2 (웃음)  
 @1 흐뭇 틀린 것도 이십디다게. (웃음) 자, 그다음에 거흘허고, 고라.  
 #1 고라, 어, 어.  
 @1 으.  
 #1 고라, 뭐 고라도 말이지. 등쌀 노린 것도 잇고 등쌀 꺾은 것도 잇고 말이지.  
 @1 으.  
 #1 어.  
 @1 그 원래 고라는 흐뭇 노르스름헌 겨우파?  
 #1 으?  
 @1 고라 색깔은 어떤 색깔이우파?  
 #1 고라 색깔, 고라 색깔, 고라 색깔.  
 #2 촌흑 비슷한 거.  
 #1 요, 요런 거이.  
 @1 예.  
 #1 요런 거이.  
 #2 촌흑.  
 @1 촌흑, 촌흑 색깔.  
 #1 어?  
 @1 촌흑.  
 #1 으.  
 @1 촌흑 색깔.  
 #1 어.  
 @1 저기 저 낭 색깔.  
 #1 으.  
 @1 저 뒤에.  
 #1 예, 고라.  
 @1 예, 그다음에 추마는?  
 #1 추만 말이지, 추마는 꺾지도 아녀곡 보히롱헌 거 꺾지도 못헌 거이.  
 @1 예.  
 #1 어.  
 @1 추마.  
 #1 어.  
 @1 계난 요즘은 가라가 잘 엇인 거 닥아예. 가라보단 추마가 한 거 닥아, 요즘은.  
 #1 으, 으, 맞아이.  
 @1 예. 백, 꺼멍 허지 안허영.

#1 경허난 추가라믈 허여이.  
 @1 예.  
 #1 추가라믈.  
 @1 추가라. 예.  
 #1 그레이.  
 @1 예. 그다음 구렁은? 삼춘.  
 #1 구렁.  
 @1 구렁은 어떤 색깔?  
 #1 구렁, 구렁은 말이지 무시거 뿔그룽허영, 뿔구룽허여근에이.  
 @1 응.  
 #2 그런 것도 춘흑 닳은.  
 #1 갈옷 닳아신가?  
 @1 고동 색깔, 그 저기, 그 저기 오름 가면 송이 색깔쯤 될 거우파?  
 #1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 그 정도?  
 #1 어. 그 정도.  
 @1 구렁예?  
 #1 으.  
 @1 주황색. 자홀은 어떤 색이우파?  
 #1 으?  
 @1 자홀.  
 #1 자할?  
 @1 예.  
 #1 자할 이디, 이디도 꺼멍, 어디도 꺼멍, 희영, 무시거.  
 #2 별 같이룩 헤 가지고.  
 #1 고양이처럼 이디도 꺾꼭, 꺾꼭이.  
 @1 예.  
 #1 이디도 꺾꼭 저디는 미신 뜬 색 허고.  
 #2 하얀색 허고.  
 #1 어, 하얀색 허고, 그, 자할이.  
 @1 자할. 게난 자할허고 월라허고는 어떻 트나마씨? 검은색이 더 한 게.  
 #1 으, 으. 월라, 월라.  
 #2 월라는.  
 #1 헤영.  
 #2 \*\* 붉게 이만씩 허영 동글동글허게.  
 @1 응.  
 #2 거 멧 개 색깔이 잇는 것이 자할이고, 침.  
 @1 월라고.

#2 월라고. 경허난 적다월라, 뭐. 적, 여러 가지주, 겨난.  
 @1 예.  
 #2 그 색에 짙은 이름을 부찌는 것이 으, 월라는 뭐 혼 다섯 개 색깔 뭐.  
 @1 예.  
 #2 부짚 수 있주.  
 #1 월라는 그런 거고. 월라 또 뭐 멋지게 생긴 노란 돌인데이, 안장 지우민 안장 모양으로 이.  
 @1 예.  
 #1 안장 모양으로, 돌이 안장 지우민 안장 모양으로 월라가 기냥 딱 베겨놓은[논] 돌덜도 있어이.  
 @1 아.  
 #1 예. 그런 돌덜 다.  
 @1 계난, 자할은 아까 이제 월라는 동글동글 해근에 여러 군데 영하고.  
 #1 으, 으.  
 @1 그다음에 자할은 그런 거 비슷하는데.  
 #2 별 식으로. 별 식으로, 건 완전히 별 식으로.  
 @1 건 식 닮은 거우짜?  
 #2 어. 자할은 별 식으로, 별빛 7치록 그.  
 @1 으.  
 #2 이 큰 것이 이 크게 잇는 것이 아니고. 쪽쪽쪽쪽쪽 박아전.  
 @1 아. 별가치록 그냥 쪼끔, 쪼끔씩.  
 #2 자할은.  
 @1 그게 자할예.  
 #2 색깔이 아니고.  
 @1 으. 이거는 색은 열 색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거고.  
 #1 어. 중심으로 허영 허면은 그거 아까 식으로 가라물도 무신 추가라여, 보힌 무시거여 허명이.  
 @1 예, 떡가라여.  
 #1 요즘은 그런 거 막 색제, 색깔덜 막, 막 많이 부찌더라고.  
 @1 예.  
 #4 우리가 잘 아는 건, 화등이나 태상백이나 이런 거벧기, 베, 벧기.  
 @1 예.  
 #4 (웃음)  
 @1 그, 그다음에 여기 점 하나 영 잇는 거는?  
 #1 뭐?  
 #4 태상.  
 @1 여기 점들 찍어진 거.  
 #4 태상.



#1 어, 점 찍어 진 거.  
 @1 태상.  
 #1 어.  
 @1 태상도.  
 #1 어.  
 @1 쪽은 점도 있고 큰 점도 잇잖습니까?  
 #1 태상이.  
 #2 게난 뭐, 큰태상, 작은태상, 이런 거.  
 #1 소태상.  
 #4 코에 잇이민 코피말이.  
 @1 소성.  
 #1 소성, 대성 경 해.  
 @1 예.  
 #2 \*\* 현 거 태상이렌 허고.  
 #1 게난이 이디 영 행 박아지민 그거 태성백이, 태성백이 허는 거. 태성백인 이마에 크게 박아지민 거 태성백이.  
 @1 예.  
 #1 기영 태성이엔 현 건 별, 별 말허는 거라.  
 @1 별예?  
 #1 어.  
 @1 예.  
 #1 게난 작게, 쪼꼬맴게 박아진 건 말이지 소성, 소성.  
 @1 소성백이, 건. 그다음에 영 코 이렇게 올, 내려온 건.  
 #1 간전이, 간전이.  
 @1 간전이.  
 #1 어.  
 #2 코피말이.  
 #3 코에만 부튼 건 코피말이.  
 @1 코피말이허고 삼춘, 코, 코간전이허고 어떻 차이.  
 #1 여기, 여기만 영 여기만, 여기만 흰 거이?  
 @1 예. 건 간전이고. 입, 입 주둥이까지 쪽 현 거는 피말이?  
 #1 으, 피말이.  
 @1 예.  
 #1 으.  
 #1 피말이.  
 @1 피말이.  
 #1 음.  
 @1 그다음에 어 점, 그다음 아까 발 네 개 허면은 사족백.

#1 스족, 스족.  
 @1 두 개만 흰 것도 잇수과?  
 #1 두 개 허는 건.  
 @1 별로 건?  
 #1 두 개 흰 건 있어. 앞이, 앞발 희영 허면은 말이어, 뒷, 뒷발 뒤 후족 흰 거엔 허고.  
 @1 두족 흰 거렌 허고? 그다음에 그 저기 꼴렝지만 꼬리만, 총예? 뭇 총, 총만 흰 거는.  
 #1 그런 말 나 몰르크라.  
 @1 건 몰르쿠과?  
 #1 어. 그런 말 있어. 총만 흰 거.  
 @1 총만 흰 건 엇입니까? 어, 기구나.  
 #1 건 뭇 아니.  
 @2 뭇 아니.  
 @1 건디 삼춘 그 뭇들도 새끼 못 낳는 것들도 잇지예?  
 #1 어?  
 @1 새끼 못 낳는 거.  
 #1 새끼 못 낳는 거.  
 @1 예.  
 #1 새끼 못 낳는 거 어떻 헐 말이라게.  
 @1 그건 뭇렌 헤?  
 #2 지지랭이.  
 #1 새끼 못 낳는 건 지지랭이.  
 #4 지지랭이. (웃음)  
 @1 으, 췌도 지지랭이, 뭇도 지지랭이.  
 #1 어. 지지랭이.  
 @1 어딘 강 보난예, 뭇이영 췌영 쌍둥이도 난텐 헐게만은 것도 봐봣디가?  
 #1 어, 쌍둥이도 나주게.  
 @1 그런 건 뭇렌 곱읍니까?  
 #4 췌 쌍둥이도 나랏주게.  
 #2 췌 쌍둥이는 많이, 많이 보고, 췌근에는.  
 @1 아, 췌 쌍둥이도. 뭇 쌍둥이도 낳아?  
 #2 뭇.  
 #1 음, 뭇 쌍둥이, 우리 뭇은 안 낳는디 쌍둥이 난 우리 친구가 쌍둥이 난 뭇 길루와랏어.  
 @1 아, 게믄 그거 쌍둥이렌 곱읍니까? 뭇도.  
 #1 으, 쌍둥이.  
 @1 그 췌나 뭇이나 연연이 새끼 낳는 것들은 뭇렌 헤마씨?  
 #1 어떻?  
 @1 연연이 새끼 낳는 거.  
 #2 연년생, 연년생.

#1 양년, 양년. 양년치기.  
 #4 예, 양년치기.  
 #2 양년치기.  
 @2 예? 양년치기.  
 #2 양년치기는 흐루, 혼 해 거르는 것이 양년치기 아니?  
 @1 양년치기. 연연이는 뭐우파?  
 #1 거, 연연. 연연 나는 것ㄴ라 연연이.  
 @1 연연이 하고.  
 #1 연년생, 그.  
 @1 연년생은 연연이. 이 년에 혼 번 현 거는? 양년.  
 #2 양년치기.  
 #1 으.  
 @1 양년치기?  
 #1 아니, 아니.  
 @1 아니? 양년치기는 뭐우파? 아까.  
 #1 으. 몰라. 거 해 돌령 나는 거주, 뭐. 해 돌령 나는 거.  
 @1 해 돌령 나는 거.  
 #1 으. 연년생, 연년생이. 양년치기, 그렇게.  
 @1 양년치기 하고 해 돌령예? 이 년에 한 번은 양년치기고. 양년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삼춘 아까 화등이.  
 #3 건 물이 이제 기억.  
 @1 으.  
 #3 기억, 니은 그자.  
 @1 등이 이렇게.  
 #3 까지고.  
 @1 까진 거.  
 #1 이젠 그런 거.  
 #3 우로 나온 건 곱새. 화등인 밑으로 내려간 거.  
 #1 이젠 그런 물 엇어, 이제.  
 #2 화등이 등이 밑으로 내려간 거.  
 #1 게메, 그런 물 엇어.  
 @1 이젠 엇어마씨?  
 #1 으.  
 @1 이젠 다.  
 #4 그전에 혼.  
 @1 이젠 다 우성만 길좌 부니까, 경헌가?  
 #1 허. (웃음)  
 @1 다 좋은 말만 질루난 허는 거 다했어?

#1 이젠 그런 거.

### 물궤기

@1 삼춘, 옛날에도 물궤기들 하영 먹었수과?

#1 으?

@1 물궤기.

#1 물궤기?

@1 으.

#1 으.

@1 하영 먹었수과, 옛날도?

#1 물고기 먹었주.

@1 으. 검은지름이여, 뭐 이런예.

#1 으, 검은지름.

@1 그, 물은 주로 뭐에 이용해수과?

#1 으?

@1 물은 이용하는 게 뭐라마씨? 아까 췌는 밧 가는 디, 짐 시끄는 디고.

#1 근디 물고기 먹었냐는 말끝에. 옛날은이 정마불식, 정구불식 해논 말이 이서이.

@1 정마불식.

#1 정구불식.

@1 정구불식.

#1 경 허난 우리 어린 때 어떤 어른덜이.

@1 예.

#1 정월.

@1 예.

#1 정월에는 물고기 안 먹는다.

@1 예.

#1 정월은 개고기도 안 먹는다 영 흐는 말을 흐더라고.

@1 예.

#1 헛는다.

@1 음.

#1 그 말이 그 말이 맞인 말이 아니고.

@1 예.

#1 정든 물, 정든 물은 정마불식, 정든 물고기는 안 먹는단 말이라이.

@1 음.

#1 자기 탕 뎡기곡.

#2 자기가 타고 다니는 물.

#1 자기 탕 뎡기곡 흐던 물고기는 게난 정마불식 흐난, 정구불식이렌 흐는.

@1 개.

#1 개를 말이지.  
 @1 키우던 개.  
 #1 개 들양은에 사냥 텅기곡 해 가지고서 어, 저, 허연 그런 개들 고기는 안 먹는다, 그런 말 밑에서 그 말이 그 문자가 난 거라이.  
 @1 음.  
 #1 정마불식, 정구불식.  
 @1 그래도 톨고기는 정월에 먹으른 재수 굿텐 이런 말 허잖습니까?  
 #1 으. 아마 그런 때도 그런 때도 그런 말이 생긴 거고.  
 @1 음.  
 #1 아.  
 @1 삼춘 보기에는 정마불식, 정구불식 때에 정든 거다, 이렇게.  
 #1 어, 어.  
 @1 예.  
 #4 그 말들이 제일 저기 저 키우기 어려운 때가 봄철.  
 @1 아.  
 #4 풀 나기 전에, 그때 예, 저 많이들 돌아가셔.  
 @1 아, 말들이예. 먹을 거 엇은에 그렇구나.  
 #1 무시저, 무시저?  
 @1 톨 하영 죽을 때가 봄철에 켈 하영 죽은텐.  
 #1 응?  
 @1 저 풀 나기 전에.  
 #1 응? 뭐렌?  
 @1 톨 죽는 거, 굿영 죽는 거마씨.  
 #1 어.  
 @1 계난 삼춘도 저기 죽여 먹어 뵈마씨? 톨들.  
 #1 톨, 어평, 죽여 먹언?  
 @1 으.  
 #1 어. 뭐, 톨 길루당 보민 죽기도 흥곡 헛는다.  
 @1 (웃음)  
 #1 나는 경 안 헛어이.  
 @1 음.  
 #1 우리 동넛 어른덜, 분들도 잇주마는 나 선배 어른덜이 어, ○○는 말이지 송아지 뭉생 이 나근엥에 윈 죽여보질 안헛저.  
 @1 어.  
 #1 영 곧드라고들.  
 #4 저, 저, 그 저 ○○이 할아버지넨예.  
 #1 으.  
 #4 중앙 그 뿔에서도 와났어, 중앙방송에서도.

@1 음.

#2 거는 그 진두기, 진두기.

#4 그 봄철 그 먹지 못허곡.

#2 진두기 도에서, 그때 우리나라 우리 제주도 전체적으로 죽을 때.

@1 예.

#2 나도 으, 으 늙의 물 마타다가 혼 열 머리 죽었는데, 큰 물들. 진두기충열로이 그때.

@1 아, 진드기로도 경허는구나.

#3 봄장마엔 허주게.

#4 그때 보니까 그 말고기가.

#1 응, 알아서.

#4 죽으면 그 가근엔 그냥, 금방 죽은 거는 강 해오는다. 말고기, 말고기 춤 바꾼덴 말이 잇는다, 그제 말고기가 보니까 시벌경헤영 피라, 경 해부난 그런 얘기가.

@1 아. 물궤기 춤 바꾼덴 험니까?

#1 그 아까 ○○이네 죽언에 그 물.

#4 예.

#1 아, 경 행 뭐 그거 그 뭐 그때가 어느 때냐 지금부터 혼 오십년 전에이.

#4 예, 예, 예. 나 계난 그 하르버지 즈꼳디 살안에 그 ㄱ찌 간에.

#1 으, 으, 그 그 어른.

#4 예, 경 허명.

#2 아 겨난.

#1 그 어른, 그 어른네 경우엔 물 몽땅 죽언. 그 동네 그 어른네 물 스오십 바리 뵈는다.

#4 예.

#1 헛는다. 저 바마기오름 무시거 그때 물 해근에.

#4 예.

#1 물 그거 풀앙 저 바마기 사시민 말이지.

#4 예, 예

#1 그 하르방네영, 뭐.

#4 예, 예.

#1 아녀켄 허명 헛는다.

@1 음.

#1 물 거 겨울에 말이지, 빈혈로 아까 불 불 부뻗지, 불 부뜨니까 먹을 건 전혀 없지.

@1 예.

#1 이젠 그 먹을 거 없으니까 이 빈혈로 말이지 진독이는 물지 말이지. 그냥 빈혈로 자빠 지기 시작허니깐.

#4 예, 그거 그냥.

@1 예.

#4 그 쉼들도 일찍 내치민 먹을 풀 엇영 어귀만 누리당 보민.

@1 아.

#2 나, 나, 뭇 의지 해 가지고 요지 나무 해서 ○○○네 뭇 나 마탕 흘 때 거기서 혼 그 장소에서 운지당(?) 목수 혼 다섯 마리 거기서 죽었어마썸.

### 뭇 이용

@1 음, 삼춘. 뭇은 이 뭇에 쥔 하영 이용헌 겨우짜? 밧 불리는 거.

#1 응?

@1 뭇, 뭇 이용.

#1 뭇?

@1 예. 뭇 이용허는 건?

#1 뭇 길력 필요.

@1 예. 필요헌 거.

#1 으 뭇 길황 풀양은에 지금이니까 헛지, 지금. 옛날은 말이지 뭇들 몽생이 허민은 저 어디 육지 사름들 오랑은에 사가민 구르마 쫓는 뭇 헛지.

#2 이 인력으로 만이 해.

#4 그 대부분 옛날 그 저 곡식 갈민은, 겨울 곡식을 만이 헤시몬 그걸로 이제 밧 불릴, 불려야 뉘. 불리우민.

@1 예.

#4 그때 뉘면은 저기 저 저기 그 여름철에 밧 불리레 자꾸 자꾸 들어 드는 그 할아부지 하는 얘기가 대문 소리만 빅히게 나도 예고 저디 저 좀 굿어.

@1 굿어.

#4 밧 불려도렌 헉카 부덴.

@1 아. 게난 삼춘도 밧 불리레 텅겨뵈마썸?

#1 응. 불려. 불려.

@1 그 밧 불리는 얘기해 줘서. 밧 불리젠 허민 막 저기 곤밥도 행 맥이고 헌덴.

#1 곶아, 곶아 주커라, 아는 한. 아는 한ㄱ지 곶아주주. 들어보민. 들어보진 안 혼 말 헉 나 곶아주는디.

@1 예.

#1 아까 뭇 색깔.

@1 예.

#1 색깔. 십 색 곶아쫓는다. 것ㄱ라 이 십색, 십색이 이, 색깔로 십색인디.

@1 예.

#1 이젠 오세.

### 뭇 지세

@1 음.

#1 오세엔 헌 건 지세.

@1 예.

#1 지세. 뭇 생긴 지세이.

@1 예.  
 #1 지세, 저 다섯 가지를 골아주커라이.  
 @1 예.  
 #1 이어죽.  
 @1 이어죽, 으.  
 #1 전팔.  
 @1 전팔.  
 #1 후공.  
 @1 후공.  
 #1 응. 요단.  
 @1 요단.  
 #1 항장.  
 @1 항장.  
 #1 응. 그 다섯 가진테이. 건 물 지세라이.  
 @1 예.  
 #1 이어죽이엔 혼 건 뵈 말이엔 흐니까.  
 @1 예.  
 #1 이어죽은. 귀.  
 @1 귀.  
 #1 귀이.  
 @1 예.  
 #1 귀, 귀가 말이지, 이 늑신, 늑신 날로 해 가지고서 대막데기, 대이.  
 @1 예.  
 #1 이어죽.  
 @1 예.  
 #1 대를 말이지 착 허게 짤른 것ㄴ치 곤작 해야 뵈단 말이라이.  
 @1 아, 귀 모양이.  
 #1 귀 모양이.  
 @1 예.  
 #1 또 어떤 사름은 어떤 사름은 뵈 호마 귀는, 호마 귀는 어땡 허고 토종 귀는 어땡 허고, 흐는 말이 아니라. 이건 토종이나, 토종이나 호마나 그것 고사 해 놓고 말이지, 옛날 말이지 이 춤 신, 신, 신이 딱 그렇게 정해 논 거라. 이어죽.  
 @1 이어죽, 예.  
 #1 요단. 요단이엔 혼 건.  
 @1 요단.  
 #1 허리 요이.  
 @1 예, 허리.  
 #1 허리는 좀 짤브고.



@1 예.  
 #1 요단, 허리는 졸브단 말이라이.  
 @1 예.  
 #1 항장.  
 @1 으.  
 #1 항장이엔 현 건 항, 모가지는 긴단 말이라이.  
 @1 예.  
 #1 항장.  
 @1 목 항이구나예.  
 #1 어, 목 항이.  
 @1 예.  
 #1 전팔이엔 현 건 앞다리는 앞다리 이 세왕 이, 이, 어깨.  
 #2 앞가슴.  
 @1 으.  
 #1 무시거 허난에, 넙곡.  
 @1 예.  
 #2 앞가슴은 넙곡.  
 @1 전팔.  
 #2 앞다리 사이.  
 #1 넓다. 후공이렌 현 건 뒷다리는 활 공 켜 모양으로 생기곡.  
 @1 예.  
 #1 경. 그걸 말흔 거라이. 경흔 물은, 경흔 물은.  
 #2 일등짜리가 된다.  
 #1 일, 일품이다 말이라. (웃음)  
 @1 일품, 일품.  
 #1 응.  
 @1 거난 이제 그 물 중에 최고로 치는 게.  
 #2 경마, 경마.  
 @1 오세, 다섯 가지 모양을 허는 거구나예.  
 #1 응, 응.  
 @1 전팔, 후공이우파 후궁이우파?  
 #1 후 공, 활 공 자.  
 @1 활 공.  
 #1 활 공.  
 @1 활 공이렌 험니까, 활 궁이렌 험니까?  
 #1 활 궁. 활 궁 자 모양으로 생겼다.  
 @1 예.  
 #4 뒷다리가 확 휘어져야.

#1 새가심은 으답 팔 자처럼 생겨야 돼.

@1 새가슴은, 예.

#1 저 누게고, 저 누게 무신거 수영 선수 누게고.

@1 박태환.

#1 박태환이.

@1 가슴이.

#1 가슴 영 벌어지듯이. (웃음) 그렇게 생겨야 된다 말이여.

@1 예. 전팔 후공.

#1 응, 응. 귀는 곧작 해야 돼고이.

@1 예. 귀는 곧작허민 이어죽.

#1 응.

@1 대나무 딱 짜른 것처럼.

#1 경혼디 예, 경혼디 경혼 돌 보면은 난 말이지 아무튼 말이지 팔십 점, 구십 점이라이.

@1 예.

#1 우리 경마해 봐도이.

### 쉐 일품

@1 예. 삼춘 이거는 돌이고 게문 쉼은 어떤 게 저 일품이우파?

#1 쉼, 쉼 흐면은 말이지. 쉼 일품은 말이지 딱 눈알이 브따야 일품이라.

@1 아, 눈알이 브따야 그 일품. 무산고?

#1 응. 눈알이, 눈알이 길면은 말이지, 눈알이 길면 머긋도 엇고 말이지 쉼 얹아. 눈알이 브땅 주둥이가.

#2 경 해야 술이 잘 부떠.

@1 음, 눈알이 브땅, 여기가 이렇게 짧아야 돼는구나.

#1 그래, 그래, 그래.

@1 으, 그다음 어깨는? 어깨도 여기 목.

#1 몰라.

#2 (웃음)

#1 몰라, 몰라, 쉼 몰라. (웃음)

@1 여기가 부록해야 뭐.

#1 쉼 몰라.

#2 몰라. (웃음)

#4 명예특. (웃음)

### 빳 불리기

@1 몰라마씨? 계난 들은 지세가 그런 거고. 아까 이제 빳 불러봅서.

#1 빳 불러봐?

@1 예. 어떻 불립니까?

#1 어땜 불러?.

@1 밧 불러릴 때.

#1 옛날 밧 불러는 건 그러더라고이. 예, 이젠 밧 불러릴 때 뉘민 밧 불러릴 때 뉘면은, 이제 이 뉘, 어 무시거 흘 거라. 조팍인디 팍 무시거 흘 거라이. 밧 불러는 주연 할망은.

@1 으.

#1 이젠 예, 집, 저 무시거 허여근예, 고스, 고스 지내젠 곤밥 행은예 흔 사발 가지고.

@1 예.

#1 그냥 역꾼들 먹을 거는 보리밥 행 서꺼근예 가지고 강은예, 경 행 가면은 또 경 행 가정 가민은 곤밥은 말이지 거기서도 먹고 고스 지내는 디 뉘이가 다르고, 지석할망이엔 해근 예게.

@1 예.

#1 그 밧 직현 할망이라이. 지석할망.

@1 지석할망.

#1 지석할망. 밧 직혀는 자기. (전화 소리) 아이, 아이고. 예.

#4 바쁜 지도 몰랑 전화 험저. (웃음)

#1 (웃음) 누군지도 모르켜. 경흐난.

@1 전화기 폴아 먹젠. (웃음)

#1 지석할망.

@1 지석할망.

#1 그 지석할망이렌 흔 것이.

@1 예.

#1 곤밥행 가난 다 고사 지내고.

@1 음.

#1 그 밧 불러는 으, 저 테우리들 역꾼, 역꾼이엔 허메이. 역꾼.

@1 예. 역꾼.

#1 역꾼. 밧 불러는 역, 밧 불러는 역꾼.

@1 예.

#1 역꾼들은 그 큰 차룽예 그 보리밥 행 강 다덜 잡수고.

@1 음.

#1 다 낫나면은 이젠 밧 불러야 뉘 거 아니?

@1 예.

#1 (웃음)

@1 쟁 어땜 행 불러니까?

#1 아, 밧 불러젠 허민.

@1 그 지석할망한테 그 곤밥하고 우럭도 쟁은예 저 고사지넌덴 헹게마는.

#1 그럼, 그럼.

#4 데가리 굿인 제숙.

@2 데가리.

@1 머리 꺾인 제숙, 데가리 꺾인 제숙.

#1 그게 그 곤밥행 가면은 고스, 술도, 술도, 술도 혼 펑 가정 가곡 혜사 고스 지낼 거 아니라게.

@1 예.

#2 계난 역꾼 아까 역꾼이엔 허는데 계난 밧을 예, 말이 오십 마리가 한 밧을 불린다 혼면은.

@1 예.

#2 거기서 인원이 보편적으로 뗏 사람이 들어야 펜안하냐. 그 뭇 관리를 해서.

@1 음.

#2 ㄱ만이 영 혼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몰아 가지고 이걸 밧을 불려야 뉘니까. 경해서 그 선장 말이 있어요.

@1 예.

#2 거기 혼면은 소리를 싹 해서 월월 혼면은 그 앞장 서는 뭇이 탁 올케 주인 옆으로 딱 부딪니다, 해 가지고.

@1 예.

#2 경 허민 뒤에서 이제 한 네 사람이 이 뭇을 모는 거라. 게서 막 구구적혼면 잘 돌려야 잘 이 주인이 말을 잘 돌려야 뭇 발 이런 그 담 어염데레 해 가지고 헐 때 이 경 안 해 불민 막 문딱 그 다리 뺏겨지고.

#3 서로 막 밟아 버려, 밟아.

#2 경해서 여기서.

#1 ○○이도 뭇 밧 불려나신가?

#3 아이고, 밧 많이 불렀수다게.

#4 우린 어리난에 뒤에서 뭇 돌아나는 거 막고.

#2 자기만씩.

@1 으.

#4 경허젠 허민 그냥. 어떤 땐 잘 튼는, 잘 걷는 뭇덜 뒤에 강은 줄곡. (웃음)

@1 줄곡.

#2 올케 나가 뭇 혼 때는 저 안직 교래리 우의 간 녹산장 뭇 몰아다가 난 오후부턴 혼 뉘 밧을 불린 적이 있어요.

@1 예.

#2 저 서우봉 일대.

#1 뭇 몰아오는 거는 딱로 뭇 몰아온 후제는 아까 그자 뭇도 밧디 담아놓고 아까 밥 다 먹고.

@1 예.

#1 밧 불리는, 밧 불리는 사람들은 역꾼이엔 헛고이.

@1 예.

#1 이제는.

@1 주인은 테우리.

#1 으? 저.

@1 주인은 뭐렌 험니까? 뭇 임제.

#1 뭇 임제?

#4 역꾼은 그저 그날 밧 불릴 사름 수놓엉.

#3 수놓엉.

#2 오전 흐면은 그다음 누게네 밧 헤 가지고. 이 사름덜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진짜 돈으  
로 밧, 돈으로 밧고 험 때 올케 주인이 그 밧 사름 데령가 가지고도 헛주.

@1 음.

#1 테우리, 테우리 흐는 말을.

@1 예.

#1 테우리 흐는 거는 말 관련 흐는 사름보고 테우리렌 흐는디이.

@1 예. 뭇 관리하는 사름.

#1 근디 뭇 주인은, 뭇 주인은 말이지 마주지. 둔주, 둔주.

@1 둔주.

#1 둔주지이.

@1 예.

#1 테우리흐는 거는 뭇 보는 사름, 뭇 보는 사름.

@1 예. 뭇 관리흐는 사름.

#1 응. 뭇 관리흐는 사름보고 테우리, 테우리 헛다 말이지.

@1 예.

#1 견디, 겨난이 뭇 주인은 둔주.

@1 예.

#1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

#4 옛날에는 뭇 두 개 허영 사젠 허민. 놈의 뭇 사다근에 일년에 밧 개 분양 받아다근에.

@1 음.

#4 저 분양 받아다근에.

#1 무시거 또 물어볼 거?

@1 게난, 그 뭇 아니 이제.

#4 그것이 테우리.

@1 밧 불리는거 잘 안 험, 안 곶아수게, 삼춘이. 이젠 삼춘네 말고 삼춘이 밧 불리는 거  
곶아줍서.

#1 어, 밧 불리는거 어떻 곶아줘?

@1 게난 밧 뒤에. 이젠 밧 고사 지내고.

#1 응.

@1 밥 먹고.

#1 응.

@1 이제 밧 쉼, 저기 뭇도 들여 놓고.

#1 응.

@1 밧을 불려야 훔 거 아니우꽈? 씨를 먼저 뿌리는지.  
 #1 응.  
 @1 밧을 불령 씨를 뿌리는지.  
 #1 으. 거 불리는 거, 밧 불려사 훔 거주게, 밧 불려야 뿔 거난.  
 @1 예.  
 #1 그거.  
 @1 조 불립서.  
 #1 그러니까 실지 밧 불릴 때, 실제 밧의 가근에 밧 불릴 땐 나도 놈만이 헤낫는디이.  
 @1 예.  
 #1 이제 뭐 이런 장소에서. (웃음)  
 @1 계난 삼춘, 우리 조 불리게마썸. 조 불리젠 허면 씨도 뿌리고, 밧부터 먼저 갈아야지 양? 조 불릴 때.  
 #1 으?  
 #2 밧부터 먼저 갈아야주.  
 #1 응?  
 @1 조 불려 봅서.  
 #2 두 불 갈앙.  
 #1 조팻, 조 불릴 때는 밧부터, 씨부터 가느냐?  
 @1 응.  
 #1 씨부터 가느냐 아니 이거 췌로 갈아논 거이.  
 @1 예, 췌 간 거.  
 #1 갈아논 거 이제는 물로 불릴 거다 말이야.  
 @1 예.  
 #1 불리는 데는 말이지이 물로 설룬데 허여이.  
 @1 설룬다.  
 #1 흥썸 골라이.  
 @1 예, 예.  
 #1 흥썸 골라이.  
 @1 예.  
 #1 설룬 다음에는 씨 뿌려이.  
 #2 씨 뿌려.  
 @1 예.  
 #1 씨 뿌령.  
 @1 그다음에?  
 #1 그다음엔 불령.  
 @1 불령.  
 #1 으.  
 @1 계난 세 단계를 하는 거 아니라예?

#1 으.

@1 세 단계. 밧을 갈고, 그다음에 설루고, 씨 뿌리고, 킬리고. 네 단계.

#1 으.

@1 여기는 가볼름이렌 현 말을 안 씁니까?

#2 밧주인은 올케 코사를 하고.

@1 예.

#2 이제 예, 또 아까 현면은 밧을 갈고.

@1 예.

#2 이다음 갈아 논, 갈아 논 후제.

@1 설루고.

#2 아까 삼춘 근 데로 설레.

@1 설룬.

#2 이제 물이 이제 헤 가지고 현 번 뵙아마썸.

@1 예.

#2 게른 고랑더레 메워져 가지고. 근디 그다음은 이젠 마주 올케 마주가 보편적으로 씨를 뿌려마썸 그.

@1 아. 마주가 뿌립니까?

#2 마주가.

#1 아니 마주가 뿌리는 게 아니고 거기 누게 줌.

#4 주인이라게.

#1 아무라도 뿌려.

#2 보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걸로는 마주가, 마주가 뿌려마썸게.

@1 예.

#2 경허른 그 어른이 진짜 씨 뿌리는디 일등짜리 씨 뿌린다는 얘기가 있어. 누구는 진짜 잘 뿌린다 현면 씨를 잘 뿌리면은 예, 올케 일 년 놈역이.

@1 음.

#2 열 사람 땀 거 현 여섯 사람만 메도 이젠 소끔을 허여. 정씨로 세와 놓면은.

@1 으음.

#2 경 해서 또 이익을 본다는 그런 얘기가. 경 해서 어, 그다음은 진짜 밭으는 거주마썸. 땀 헤 가지고 아까가치록 몰아가지. 아까 나 현 네 사람, 다섯 사람허고.

#1 그다음, 그다음은 밧 킬릴 거주기. 근디 나.

#2 예. 소리허명 밧 킬릴.

#1 다 ○○이도 헛고, ○○이는 소리도 좋고.

#2 (웃음)

#1 밧 킬리렌 곶아봐.

@1 아. 밧 킬리는 소리허게.

@2 (웃음)

#1 응. 밧 킬리는 소리허게.

(중간 생략)

### 뱃 불리는 소리

@1 삼춘 이젠 뭘 흐뭇, 아까 뱃 불러 봅서. 누게가 선창을, 노래는 누게가 부릅니까?

#4 예, 예, 못해.

@1 아니, 아니. 노래 부를 땐 선장이 불러니까? 말.

#2 예.

#4 앞에 선 사람이.

@1 예, 한 번, 한 번 해 봅서. 흐뭇만이라도. 누게가 허코? (웃음)

#4 아이.

@3 (웃음)

@1 삼춘네 아버지가 노래 잘 부릅니까?

#2 아니, 내가 월월월 허영 선소리 이제 나가 험서, 형님이 나가 월월 헛으니까.

@1 (웃음) 예.

#4 (웃음)

#2 허여 봅서.

@1 허여 봅서.

#4 예, 예.

@1 아, 이것도 조사해야 돼마씨게. 고○○ 삼춘이 허렌 해시문 해야주게.

#4 거 그 하르방한티 허렌 해, 그.

#2 하르방.

@1 이젠.

#2 삼춘 소리 흐는 건 나가 안 들어봐서. 아무 소리도, 소리는 안 흐는다.

@1 아. 삼춘네 아버님이 그렇게 노래를 잘 헛다면서.

#2 예. 계난 유행가도 우리 형님은 올케 일등을 많이 허는. 우리 동네선 가수라.

@1 겐디 안 흐른 뽕니까게, 우리 네 시까지 지금 뗏 분 안 남으난 허여.

#2 (웃음) 경헌데. 그놈으 뭘 모는 소리가 아주 곡절이 상당히 어려워마썸, 진짜. 나도 흐는데 전에는 나도 꽤 불렀는데 뭘 허영 흘 때는, 이제는 음이 안 나와.

@1 응, 안 흘 겨우짜?

@3 장단을 우리가.

#4 해 불러게.

@1 시작.

#4 해 불러.

#2 아니 곡이, 곡이 불르질 못허커라.

#4 뒤에서 뭘 \*\* 돌아나는 뭘이나 막았지 나는.

#2 \*\*\* 불르른 불리지는다, 소리를 못 허여.

@3 우리 선홀일리 가수분이 해봅서게, 예?

#4 아, 그것도 저 불러나야 알고, 또 허여나야 그 저 여러 가지 그, 그 자꾸, 자꾸 생각이



나야돼.

@1 예, 맞수다.

#4 경 행 허는 거라.

### 잊지 못할 기억

@1 그 삼춘네 그 어쨌든 뭘 허든 쉼을 허든예, 이 가장 잊어 불지 못허는 이런 것들 이신 가마씨?

#2 잊어 불지 못 혼 거는.

#4 아이고, 그런 건 하주게. 뭘, 뭇타당도 그냥 또꼬망 베킴정 그냥.

#2 자기, 자기가 죽음.

@1 예, 삼춘부떠 게른 곶아 볍서.

#2 나가 아직 어, 쉼 그 슬픈 일이 있는데, 게니까 마차를 항상 같이 그 동일 허다가 병이 들어 가지고 손당 목장까지 치료허레 갔다가 거기서 허니까 이거 고치지 못허게 뉘서, 거기서 죽어 가지고 애먼까지 본 그런. 그 슬픔은 진짜.

@1 음. 아까 다섯 머리 그.

#2 그 진짜 부모님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1 음.

#2 그런 슬픔이. 그런 것이 동물이렌 허든 자기가 애착한 것이 죽을 때는 상당히 슬프죠.

@1 예.

#2 자기 새끼 그런. 게니까 아까 동물 \*\* 헛지만은.

@1 정마불식, 정구불식.

#1 자기가 사랑하는 동물은 먹을 수도 엇고 그것이 인간이라면은.

@1 예.

#2 건 사랑하지 않았지. 아니 고양이 학살이니 뭐니 그렇곰 허는 사람들은 그거에 동물에게 사랑을 못 줬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혼 거지 자기가 사랑했다면 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음. 삼춘은 어떤 거 잊어 불지 안 험니까?

#4 아이고, 나 난 항상 뭇이나 쉼나 그냥 그것덜 못 전디카 부텐 예끼당 보민 그것들은 오히려 더 알아근예 그냥 들락거렐 날 그냥 얼뭇여.

#2 (웃음)

#4 경허민 그냥 어떤 땐 그냥 터정 돌아나곡, 돌아나도 막지도 못헤 이눔덜.

@1 응.

#4 겨곡 구루마 허젠 허민 요만한 아이도 허당 나 심으민 그냥, 그냥 군용 부려 불곡.

@1 군용 부려 불곡.

#4 (웃음) 그 쉼도 또 아까도 얘기했주만은 뱃 갈당 보민 그냥 사름 돌아상 질르젠 허곡. 경 허영 난 (웃음) 마음이 독허지 못 허니까.

@1 아, 삼춘은 어떻 헤수과?

#3 우린 쉼도 ㄱ르치곡 뭇도 ㄱ르치곡.

#4 어.

#3 우리꺼지는 이제 쉼돌을 썸돌 심영 답도리도 허곡.

@1 예.

#3 겨연 또 구루마도 이제 그리치는 일을 시키고. 춤 돌은 생, 실게 엇어. 돌 허영 뗏 번  
체와보고.

@1 음.

#3 허당 이젠 돌이 깜짝 놀레민 짐 시끄당 그냥 잡아 뛰어 불면은 하.

#4 나도 여러 번 털어전.

#3 자기대로 강 구루마가 뒤편정 돌도 강 보민 뒤편정도 잇곡, 가면 돌만 또 오랑 벗엿은  
에 그냥 혼자만 도망갈 때고 잇고.

@1 계난 이 선홀에서도 진짜 돌, 이런 게 하영 질렀수다예.

#4 아이고, 집집이.

@1 마차들을 다 헛구나.

#4 쉼하고 돌 엇이면은 그.

#2 이, 이 아시는 올케 그 아버지가 키웁단 것을 자기가 맡아서.

### 뽕작췌·뽕췌

@1 음.

#2 계속헌 과정이니까 해서. 우리는 아버지 엇고 우리가 직접. 나 경우는 놈으 말 해서 뽕  
작, 뽕작이엔 흐른 그디 돌을, 놈으 말을 헤다가 길루면서 새끼난 거, 두 개 새해 나면 하나  
는 나가 갖고 하나는 주인 갖고.

@1 음.

#2 이런 걸 흐면서 우린 말을 난 키웠으니까.

@1 여기는 삼분파 헵니까? 이분파 아니고.

#2 이분파로 난 헤 가지고 허다가 그 진드기 아까 하면 진드기.

@1 (웃음)

#2 흘려 가지고 흐 돌, 흐 열 머리 쓸어지니까 내가 아.

#1 그런 것도 알아?

#2 돌 테우지 안헛다 헤 가지고 이걸 설러 불언.

@1 아.

#2 진짜 돌테우리 설러주마썸, 그때는. 놈으 돌 보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돈 줘서 사 가  
지고.

@1 뽕작, 예.

#2 그렇고.

@1 삼춘.

#2 우리도 이거 사서 나가민 우리는 아버지 계실 때 보면은 돌도 헛고 소도 해서 그 아주  
많이 흐 과정으로 우리는 나오는다. 그거 경 허다가 이제 사삼이 쾀나니까 돌 의새끼가 살았  
는데. 그것도 놈의 동넛 어른 또, 에 부텃는데. 그것마저도 또 우리 아버지 죽어 불고 허니까

어, 주인 없는 뉘엔 해 가지고 선흘청년단에서 올케 잡아먹어 붙언.

@1 음. 사삼 때는 경들 하영 헛덴예, 예.

#2 이 계난 주인이 관리 아녀니까 이쪽 물에 강 부텃당 저쪽 물에 강 부텃당 흐다가 경헨.

@1 음.

#2 그런 거해서 문딱. 흐 계난 소 열다섯 머리에 말 삼십 바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경 헛다고.

@1 예.

#2 그거 하나 없이 해 가지고 경 해서 놈의 소를 뎡쉐에 갖다다가 신흥 우리 할머니 뎡쉐에다가 소 길름 시작해서 나 때는 올케 흐 소 열다섯 머리까지 길렀주. 그 \*\* 몸에.

@1 음.

#2 삼백 바리 나도 삼백 바리까지 해봐서.

@1 아이고, 출을 삼백 바리.

#2 예.

@1 게문 그 뎡쉐 헐 때는 누계가 먼저 가집니까? 주인이 먼저 가집니까 아니면.

#2 아 계난 할머니 거니까 조건을 해서 우리가, 그 우리는 암송아지를 나면은 처음 암송아지는 으, 가질 거고, 숫소 나민 주인이 저 가져가기로 그런 약속을 헛어. 암송아지 나 가지고 이제 할머니 거 해서 경해서 그 소를 석 심어 가지고 계속 길루왓주게.

@1 예.

#1 그런 거 양쪽에다가 뎡작허는 짓은 양쪽에 달렸지.

@1 양쪽에 다.

#1 주인이 먼저 가지느냐 말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가지느냐.

@1 음, 약속허고.

#1 약속을.

### 뱃 불리는 소리

@1 삼춘, 아까 삼춘 강은에예 뱃 불리렌 헛는디 아무도 뱃 안 불런마씨, 노래도 안 허고.

#1 아무도?

@1 예게. 삼춘만 기다림수다.

#1 아이고, 나만 기다린다고.

@1 예.

#1 나 시작헛건 다 잘허여, 잘허여. 다 소리 좋은 사름덜.

@1 경 허니까마씨.

#1 뱃 잘 불리는 사름덜.

@1 삼춘 선소리 안헤부난게.

#1 난 흐여. 이젠 다 밥 다 잡수고 역꾼들 몰들도 거기서 아. 저기 저리 또 이상현, 아니 이상현 몰이 아니고 츠레. 경흐 아침 낮이 아침 낮, 아침허고 낮에는 말이지 그 뱃을 불리는 디도 말이지 사람도 식사헤야 뉼 거니까 몰도 가당 입 노려야 뉼여이.

@1 예.

#1 그러니까 그디그 무시거 짹, 츠레를, 츠레를 순서를 결정하는 분이.

@1 응, 예.

#1 게도 그 예절.

@1 예.

#1 밧 그저 흐뎡 저 테역이라도 잇는 밧은 낮에, 낮이 맞춰줘이, 이.

@1 음.

#1 낮에 맞춰줘. 테역이라도 잇는 밧은. 밧도 불리젠 흐민 물도 입 노려야 될 거 아니?

@1 예, 예.

#1 입 노려야 될 거 아니? 아침이부떠 말이지, 그냥 막 두드려 불려근에게.

@1 굶경 허민 안 뉘난예.

#1 굶경 허민 안 뉘. 그런 밧디 강 이젠 물도 이제는 입 노려야 될 거고. 사름, 사름도 이제 밥 먹어근에 허곡, 정신 차리고 허영 이젠 시작할 거라이.

@1 예.

#1 기침. 아고겨.

(노래)

어어어어어어어어 어꾼님네 예에 저 므쉬덜 어어얼 일로나 돌리라.

오오오렐렐렐렐이여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허어어어어 월월이여.

#2 월월.

#1 어, 월월이여.

#4 월월.(웃음)

#2 월월 흐민 돌아가라 허는 말이라.

#4 그 물이 쾡장히 영리헌 게.

#1 월월 흐민 월월 흐민 앞이 물이 들언 선소리 흐는디 밧이 크면은 밧이 크면은 중간으로 흐고. 경 안흐민 돌아갈 만큼 선소리를 그렇게 불려야돼이.

@1 아.

#1 월월 흐민 돌아오라.

@1 게민 월월 흐민 돌아서 또 시작허곡.

#1 경 허젠 허민은 돌아오면 말이지 역꾼이 말이지 흐쪽에 앞에 이제는 그 돌아오는 디 말이지 돌덜 훈련돼면은 말이지 사람 아니 헤도 말이지 돌덜이 더 잘허여, 착흔 돌덜, 착허여.

@1 착허여예.

#1 (노래)

예예예예예예예예예렐렐이야 어렐렐렐렐렐렐렐렐렐렐 오우오우월월 하랑.

간다 간다 어허 가는 \*\* 나는 멍에로 오호오호간다

예예예예예예예예야

어릴릴릴릴릴릴릴릴릴

오우오우 호호월 하량.

#1 경허민 또 이제 월월 흐곡 말이지. 이 물덜이 말이지 물덜이 이 계난 선소리 흐면 물덜이 경하는 것 닮아뵈어. 물덜이 귀가 졸졸 행은에 선소리하는 걸 막 다 알아들엉.

@1 음.

#1 알아 들엉. 경, 경현 춤말로 경현 느낌이라이.

@1 예.

#1 밧 불리는 게. 경현 소리 흐민 물들이 영하는 물들이 스무 바리 스무다섯 바리 너무 만하는 안 돼고, 스무 바리, 스물다섯 바리로 물떼 하나로 밧을 불리면은이, 물들이 그냥 졸졸졸졸졸. 너무 많이 흐면은 기냥 물덜이 속에 든 물들은 말이지 죽어대여이.

@1 음.

#1 막 물면은 말이지. 뒤엿 물, 앞에 뒤엿 물이 말이지, 앞엿 물 뒷발 뵈아 불민 뒷발 이디가 다 뱃겨져근에이, 뱃겨져근에이. 짓궂라 자갑 찰라진텐, 자갑 찰라진텐 행이.

@1 자갑 찰라진다.

#1 응. 흐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밧 불령은에게 목장에 올리젠 허민이.

@1 예.

#1 조롬, 조롬, 조롬 밀려야 뭘 견지 못하는 물들도 있다고.

#4 지청, 지청.

#1 예.

@1 왜냐면 그 다 조 불리는 시기들이 다 똑궂타 부난예.

#1 어, 어, 어.

@1 예.

#1 저 밧 불리는 소리 흐렌 해봐 ○○이.

#4 아이, 못 험니다게. 아니 해나수게, 원.

#1 워러러러러.

#2 아니 삼춘은 잘 험수다.

#4 잘 험수다게.

#1 우리 경 해영 무시거 흘 때는.

#4 그것도 무시걸 알아서 흐여. (웃음)

@1 근데 어떻 허민 아흔 넘어도 그렇게 목청이 좋고 해집니까?

#1 목청이, 목청이 아니 좋메, 안 좋으메. 전인, 전인, 전인 경 저 누게 우리 아방은 목청이 좋아 영 헛는데이. 겐디 아주, 아주 안 좋고이.

@1 지금도 막 좋수다게.

#1 으, 으, 으, 으.

@1 그추록.

#1 해난 거난 해난 거난.

@1 예.

#1 해난 거난에, 해난 거난.

@1 으, 삼춘, 여기 그 물 넥인 찍고.

#1 으.

### 넥인

@1 귀표도, 물도 귀표합니까? 췌가 귀표허는 거파?

#3 넥인.

@1 넥인, 물은 넥인. 넥인혈 때도.

#2 췌도 넥인, 넥인.

@1 넥인.

#3 귀표는 행정에서 왕 해주는 겨우다.

@1 아. 넥인 허는 거 좀 골아줍서. 넥인은 어떤 식으로 넥인 허는 겨우파?

#1 넥인 어떻 물, 아까 말이지 저 이수장 목장에 담아놓 때 말이지 조천읍에 조천읍에 물 들 문밖 그디 담아놓 거 아니이.

@1 예.

#1 경 행은에 어, 흐면은 말이지, 어떤 물은 말이지 저레도 가고 이레도 가꼭 흐면은 그 걸 넥인 질랏당 자기 물 말이지 구별허기 위해서 허는 거라이.

@1 음.

#1 좇기 위해서이.

@1 예. 삼춘네는 무슨 제 넥인헨?

#1 음, 언문 ㄷ 자 해낫는다. 언문 ㄷ 제. ㄷ 제.

@1 ㄷ 자.

#1 ㄷ 자.

#2 ㄷ, ㄷ.

#1 ㄷ, ㄷ.

#3 디글 자에 꺾 하나.

@1 아. 언문에 ㄷ.

#1 어.

@1 이렇게.

#4 또 한 가지 이서나고.

#1 으, ㄷ.

@1 ㄷ.

#1 가 가 거 겨 ㄷ 죽 그 기 ㄷ.

@1 아.

#1 ㄷ.

@1 ㄷ, 도, ㄷ. 아래아 자 찍어서.

#4 아래아 자 아래.

@1 점 하나만.

#4 점 하나.

@1 예.  
 #1 선, 선, 선  
 #2 다곳에 점.  
 #1 선 선홀엔 혼 가지 동 자를 헤덜 많이 헛고.  
 @1 예.  
 #1 안선홀은 평화 평 자도 허엿고.  
 @1 평안 평 자도 허고.  
 #1 어, 허엿고.  
 #3 우리는 새 을 자.  
 @1 새 을 자. 삼춘네는?  
 #2 난 잇어 불어 가지고.  
 @1 모르고.  
 #2 으, 나이 들어.  
 @1 삼춘은 무사 득? 언문 득 허는 거는 무사 삼춘네는 옛날부터 언문 득.  
 #1 응 득 켜게. 계난 획수는, 획수는 죽고.  
 @1 예.  
 #1 그 들, 생, 잠지에 가근에게 불로 찍는데 말이지.  
 @1 음.  
 #1 획수 많으면 말이지.  
 @1 구별도 안 뉘고.  
 #2 범벅져.  
 #1 범벅져 불곡이.  
 @1 으, 그래서 새 을이나 득 이렇게 헛잖아예. 녁인 줄 때도 그 제 지낸텐 허멍예?  
 #1 으, 으.  
 @1 제 지냉은에 녁인 현텐 험디다.  
 #1 으, 으.  
 @1 녁인탓디 허면은 어떻 험니까? 녁인 홀 때.  
 #1 그렇게 그렇게 험디다.  
 @1 언제 험니까? 녁인은. 멧 슬에?  
 #2 봄에.  
 #1 멧 슬에?  
 @1 예.  
 #1 녁인 금싱 난 금년에 난 거 금년에 스월, 오월 난 건 이제 십이월 뉘엿 내년 봄 삼월 나민.  
 @1 예.  
 #1 그때 험다고.  
 @1 아.  
 #1 이십, 혼 이십, 이십스 개월, 아, 십스 개월 만에.

@1 어, 다간에 허는 거?

#1 으.

#4 넥인 줄 때도 기술 좋은 사들덜 에 잘 벅경 잘 걸리고.

### 총·갈기 비기

#3 총, 갈기 진드기 때문에 총, 갈기 비곡.

@1 예.

#3 갈기도 비곡 총도 비곡.

@1 예. 아. 총 비고 갈기 비는 것도 넥인 지르기 전에?

#3 그자 그날.

#2 그날 뒤편 가지고.

@1 아. 그것도 해 갖고는 어디에 저, 풀기도 허곡.

#3 그땐 총 장시 받으러 탕, 탕 허는.

@1 탕건허는 분들예.

#1 예, 그때 시절에 춤말로 뭇 흥 스무 마리 그 총 갈기 비면은 말이지.

@1 예.

#1 켜차년 뭇 흥나 사져이.

#3 예.

@1 아.

#1 그 총, 갈기 깎이.

@1 예.

#1 켜참은 뭇 흥나 사져.

@1 삼춘 경행은에 총, 갈기 행은에 뭇 저기 불러수과?

#1 (웃음)

@1 아이고야.

#1 경 험, 경 험.

@1 그 넥인제는 어떤 식으로 흥는 거마씨? 그 넥인 고사. 넥인 험 때 고사.

#1 넥인 고사게 미시거 허곡게 무시거 뭇 허곡게, 뭇, 그렇게 특별히 안 허곡.

### 백중제

@1 예, 특별히 안 허고. 백중제는 어떻 허는 거?

#1 백중제?

@1 예. 언제 흥고 백중제 뭇로 험니까?

#1 백중제는 뭇 저. 백중제는 말이지 칠월 십오일날이 백중이다.

@1 예.

#1 십오일날을 새벽을 기해 가지고서 십스일날 저녁에 말이지 가근에 허드, 허드라고 이  
눔이.

@1 응.



#1 십스일날 가근엿에 허민 초어스름에 강은에이 기냥덜.  
 @1 으, 게든 삼춘, 초어스름에 허는데, 백중헐 때 무시거 들렁 갑니까? 무신걸로 허명은에 백중제를 해?  
 #1 제 출리는 거?  
 @1 예.  
 #1 뭐 이거 곤밥허고.  
 @1 으.  
 #1 무신 저 뭐 그때 그러더라고. 저 순메 아년 보리빵헐고.  
 @1 아, 순메 안 현.  
 #1 응, 순메 안 현 보리빵헐고.  
 @1 예.  
 #1 응. 빵헐고. 뭐 해근에 대충 출려근에 갓주.  
 @1 뭐 고기 같은 건 안 가정 가고?  
 #1 응?  
 @1 득고기, 득 이런 거.  
 #2 득, 득도 헐 수 있고, 흐주.  
 @1 아, 득 헐 수 있고. 건 사람마다 트난.  
 #2 으.  
 @1 그 저기 백중제 흘 때는 ㄴ치 안 행 다 따로따로 헌텐 허명예?  
 #2 따로따로 헉주.  
 @1 그때 백중제 흘 때도 삼춘이 허는 거잖아예?  
 #1 응.  
 @1 그 영 불렁 흐젠 흐민 어느 테우리 오라, 누게 테우리 오라, 허명 막 이 말명흐명 흐텐 힙디다?  
 #1 그렇게 안 헛다고. 그렇게 안 현.  
 @1 아, 경 안 해수과?  
 #2 우리는 그냥 다 동네 가지고.  
 #1 어, 그렇게.  
 #2 한 장소에 강, 개인적으로 자기가 흐는 친구도 잇꼭 개인, 자기가 흐는 장소.  
 @1 예.  
 #2 또 뭐 동네 흐면은 동네 진짜 공설운동장 올케 흐면은 그런 우리는 흐민 우리 운동장에 가 가지고 흐 적도 잇어요. 운동장에 가 가지고 동네 전체 해 가지고 잔치 벌엿지, 밤에는.  
 @1 아.  
 #2 경 행 강 거기서 술도 먹고 그 출려간 거 해서, 허면은 산메 쳐 가지고.  
 @1 예.  
 #2 어, 거기 강 제 지낼 때는 무남삼재 해 가지고 우리 가정 간 과일허고.  
 #1 어, 어, 아니, 아니. 고 회장, 고 회장. 산메 말헛어. 산메는 산신제에나이, 산신 경우는

산메는 난 그렇게 아니혔고.

@1 으.

#1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아니 허데.

@1 음.

#1 백중은 큰 제는 아니라 말이지.

@1 응. 테우리.

#2 테우리제로 생각하는데.

#1 산메는 아녀고 우리.

#2 우리는 그런 개념을.

@1 몰랑은에 그냥 큰제 허듯이.

#1 어.

#2 우리, 우린.

#4 계난 절히는 사름도 있고, 안 허는 사람도 있고.

#1 우리 집에서는 경 아녀다고 난 그렇게, 예.

#2 코스만 허는 과정이 좀 잇는데게. 계난 개념 의식을 올케 그걸.

@1 삼춘네는 전체 헤 갖고 큰제 허듯, 여기 포제 허듯이 삼메 청은에 헨 거고. 삼춘 헨 댜 어떻게 헨디가?

#1 아니, 누구네도 그렇게 무슨 전체, 전체 헨 것도 아니주.

@1 예.

#1 전체 헨 건 난 몰라. 전체 헨 거라, 뭐 전체 헨 거.

@1 다 개인이 허는 거고.

#1 응.

#2 아, 계난. 개인이, 개인이 가도 계난 그면은 이 상 별이듯이 다 영 ㅋ짱허게덜.

@1 아.

#2 다 자기 가정 강 벌여 가지고.

#4 자기만씩, 자기만씩.

#2 경 허여서 시간 딱 뒤편 야, 우리 제 보게 허여 가지고. 코스만 허는 사람도 있고 경 아까 허민 절 히는 사람도 있고. 응, 계난 절 히는 사름은 자기 개념 의식으로 절 히는 거고. 어떤 목동 앞에 이것을 사제로 올케 헨다면 그런 개념허민 절 않지.

@1 음.

#2 목동 앞엔 내가 뒤편 주인이 절 허.

#4 구덕에 초석 하나 낳 강.

#2 (웃음)

@1 구덕에 초석 하나 낳 간. 으, 쟁 어디 다른 덴 가난 이제 목동들 막 불른텐예.

#2 아, 계난.

@1 어느 저기서 놀던 목동도 와라, 누게도 와라 허명은예.

#2 아, 겨난 이거는 지역 안직 허면은 지역 목장에.

@1 예.

#2 이제 그 목동이 있지, 거기. 계난 소를 몇 년 계속.  
 @1 으.  
 #2 그 동네에 십년, 이십년 목동으로만 사는 그저 그 동네에서 거두어져 가지고 그 비용은.  
 @1 예.  
 #2 품으로 해서 자기가 목동하는 친구들이 잇었주.  
 @1 예.  
 #2 음, 그런 디는 아직 그런 식으로 으, 으.  
 @1 험 허고. 삼춘네는 또 대대로 허니까 또 어떤 식으로 험디가?  
 #1 뭐?  
 @1 저 백중제 흘 때. 여기는 백중제렌 해수과? 테우리코사렌 해수과? 삼춘네 칠월 열나흘 날.  
 #1 거 백중제도 테우리코스엔 그런 말도 안 험고 그자.  
 #2 테우리코사렌 험 말은 우린 들어보지 못헸어, 백중제 허레. 경해서.  
 #1 어.  
 #2 그래서 쉼, 쉼을 이제 설르니까 나도.  
 @1 으  
 #2 또, 어, 그걸로 쫓나지 않고, 그때는 또 과수원 허니까.  
 @1 음.  
 #2 과수원에 가서 또 제를 좀 허다가.  
 @1 음.  
 #2 가서, 음, 것도 험니까, 어 나이가 좀 험니까 것도 귀찮고.  
 @1 음.  
 #2 게서 지금은 다 설렸는데.  
 @1 음, 삼춘네 게문 돌이나 쉼나 상관없이 저기 백중제 다 험 거?  
 #2 그런 그런 거쥬, 계난. 목축에 관해서는 그, 그 험, 소몰 질루는 사름은 우리 선흘에서는 뭐 채근에는 모르지만은 과거에는 다 헸다고 헸도 과언이 아니.  
 @1 예, 자 이제 삼춘안타. 삼춘이 쥬 오랫동안 쉼영 돌이영 질좌시난예, 삼춘 몇 살 때부터 쉼 질롭디가? 저 조상?  
 #1 몇 살 때부터?  
 @1 예.  
 #2 몇 살 때부터. (웃음)  
 #1 나 나니까, 나 나니까.  
 #2 할아버지.  
 #1 우리 할아버지네 몰 허니까.  
 #2 할아버지 때부터 허니까.  
 #1 나난 그거.  
 @1 나난 그거.

#1 나난 그거.

@1 음.

#1 네 술 때, 다섯 술 때부터 뭉 타난, 뭉 타난.

@1 예.

#1 뭉 타. 으, 뭉 타난 뭉 우의 말이지 올라 앓이민 말이지 요즘 뭉 우의 경 가마귀가, 가마귀가 영, 가마귀가 영 무시거 저, 오, 오 올라앗앙은에 털 뽕앙, 진드기 뽕앙 흐는 식으로 아파 이제도 생각해 보민.

@1 음.

#1 나 다섯 술 때부터 뭉 탄에 동복에 우리 아버지네 밧 불리레 갈 때 말이지 뭉 탄에.

@1 어.

#1 뭉 탄에 동복에 밧 불리레 가났다고.

@1 예.

#2 뱃, 뱃 해 가지고.

#1 다섯 술 때. 계난 우리 집의 착헌 뭉 타근앵에 앞이 동복에서 뭉 몰레 오면은.

@1 음.

#1 그 뭉 이경 가면은 난 탕 가곡, 우리 아버지 두에서 몰아근에 가근앵 이제 그디 간 밧 불령.

@1 계난 다섯 살 때부터 뭉 탕 텅전?

#1 으.

@1 겐 요즘도 뭉 탕 텅겸수과?

#1 요즘도, 요즘은 뭉 탈 필요가 없곡. 요.

#2 진짜 차 엇이면은 지금도 뭉 탐주.

@1 예. 겐 삼춘 뱃 설 때까지 뭉 탕 텅전?

#1 말?

@1 예.

#1 몰르커라, 이제 차, 차 시절이라 부난에 아니 뭉 뱃 살인지.

#2 흐 우리 삼춘 흐면 아메도 흐 예순 뱃 설꺼지는 타는 뭉, 그대도 헤실 거로 아는데.

@1 음.

#2 흐 예순 뱃 설ㄱ지 헛어양? 타는 양. 일흔은 아니고 하여튼 예순 \*\* 살까지는.

#1 예게, 타는 뭉.

@1 아까 제매니 뭉니 허명은에 아까 삼춘이 현 게 경마에도 강 일등도 허엿덴 허는데.

#1 응.

@1 뭉 길르는 요령이 무시 겨우과?

#1 요령?

@1 어떻 허민 좋은 뭉 길좌집니까?

#1 요령?

@1 예.

#1 요령 그거 무신, 저 어떤 요령을, 나 그 발표홀 만헌 그런 특별홀 거 엇어.

@1 어떤 식으로 허난 경 잘협디가?

#1 거 자연히로 흐는 거. 자연히, 자연히.

@1 자연히.

#1 응, 자연히.

@1 음. 그래도 아까 제메 허젠 허면 이제 두 개만 헐 거 아니우파? 다른 건 뛰어야 뛸는디, 제메는 두 발로만 영 간텐 허명마씨? 앞발 ㄱ치 놓고, 뒷발도 ㄱ치 놓곡.

#1 자연히 보면 말이지 그 물은 난 ㅁ음에 든 건 말이지, 이 물은 게문 뒤편 백 점이다 흐는 거 짐작이가이.

@1 음.

#1 짐작이가이.

@1 이렇게 하고, 삼춘 옛날 쉼 길르고 물 길르멍예.

#1 으.

@1 잊어 불지 못허는 일 하신디 두 가지만 곁아 줍서. (웃음) 평생 해실 건디 두 가지만. 아이고, 이거는 꼭 죽아 주라 허는 거. 평생을 물 길랐으니깐.

#1 두 가지.

#2 책에 실르구정 흐 얘기 뒤편 험서.

#1 예, 예. 두 가지만 곁아주곡 뒤편 헐 게 엇언예.

@1 예.

#1 나 특별한 거 엇거든. 나 생각에 특별한 게. 나가 그거 뒤편, 그러, 뒤편 흐는 게 그거니까 말이지.

@1 예.

#1 그러니까 물 길르는, 물이나 쉼나 길르는 디 말이지, 그 동물이니까 말이지, 내가 말이지 그 동물을, 동물은 말이지 내 목, 모가지다 저 무신 나 생명이다 허는 그런 식으로 말이지, 그걸 충실히 봐주는 거.

@1 음.

#1 충실히 봐주는 거. 충실히 봐주는 거. 지금도 시간이 말이지 네 시가 뛸는디, 네 시뛸 말이지 망야지 두 마리 잇는데 일곱 ㅁ리 잇는데 말이지, 그거 지금 저녁 줄 때가 뛸는디 말이지.

@1 예.

#1 우리 족은아들이 줄 거주만은 나가 주기도 흐고, 나가 그걸 꼭 그런 거 하나 흐고, 경허다보니까 사고가 없더라 이거.

@1 음. 내 목숨 같이 허니깐.

#1 응, 사고가 엇어이.

@1 으.

#1 그것에 덩달아 가지고서 또 이 다 동네분이고 말이지 다 유지고 그러는데 말이지, 뒤편 내가 잘헐텐 말은 아녀곡, 못, 못 흐 건 아닌데 말이지, 모든 일에도 나는 말이지 뒤편 아녜다 말이지.

@1 음.

#1 예, 모든 일에도 말이지. 계난 지금도 어떤 문제는 어떻 헤시든 좋쿠다 허는 그런 생각 이 딱 하나가 있는데 말이지, 그것이 에 누구보고도 아까 오명도 이장헌티는 그런 소리를 약간 허명도 오랐는디 말이지, 어느제 이장 만나면은, 므을에 우리 므을에 흑이면은 어떤, 영 살명도 말이지 하나에 미지 뉼 거, 미지 뉼 문제, 충 추리, 저 해, 해.

@1 해결하지 못 헛 거.

#1 해결허지 못 헛 문제. 이런 문제는.

@1 예.

#1 해결허고 넘어가야 뉼 건디 그런 거 헛나 있고.

@1 음, 그래도 이제 아드님이 또 이어 반양 쉼, 저 뉼 질람뉼 헛지양?

#1 으.

@1 그런 거 허면은 보람들도 잇어시커라예.

#1 응?

@1 보람, 보람, 이제까지 내가 뉼 질르고 하면서.

#1 그것ㄴ라.

@1 보람은 뉼우파?

#1 그거, 그거, 으.

#2 죽은놈이 헤지민 좋은 거주.

#1 허 보람이라는 게. 아튼 그놈이 그걸 뉼들 관리헤 주니까 말이지, 그거 착헛 거고, 그 거.

@1 예.

#1 그걸 보람이엔 헛곡대곡 흘 게 엇어, 나 입으로는이.

@1 그냥 늘 생활이니까.

#1 으. 늑이, 늑이 곱아주민 늑이 곱아주민 어떻 헛디. 나냥으로는 뉼렌.

@1 으. 얼굴에 어떻 살아온 거 다 써젼수다. (웃음)

(부분 생략)

### 뉼테우리 고경수

@1 예, 삼촌, 난 보난 할아버지도 뉼 질람십디가?

#1 예.

@1 계난 그 뉼 질룬 건, 언제부터 질랐덴마씨? 삼촌네 집안에서.

#1 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뉼, 우리 아버지는 뉼 젊엇을 때부터 뉼 질랐으니까.

@1 예.

#1 젊엇을 때부터.

@1 아버지 젊엇을 때부터?

#1 어.

@1 게든 할아버지도 뉼 질람?

#1 으.

@1 계난 아버지 뉼 질룰 때는 뉼 므리나 질람 거라마씨?

#1 많이는 안 길워서. 많이 못 길워서이.

@1 예.

#1 저, 일제시대니까 많이 못 길루더라고이. 경허고 집안이 말이지 막 그 풍족헌 집안이 아니라. 어렵게, 어렵게 지나서이, 우리 아버지네 대에도이.

@1 으.

#1 어려와.

@1 경해근에 뗏 므리나 허연. 그때 아버지네도 밧 불리레도 땡기고.

#1 스무, 스무, 혼 스무 므리이.

@1 스무 므리?

#1 어.

@1 갹 게믄 아버지도 그 스무 므리 뭇 질관네 무슨 일 허염십디가?

#1 뭇 허느냐허믄 뭇, 그때 시절도 마찬가지로. 일찍이 얘기허다시피 말이지. 뭇로 헤 가지 고서 무시거 그때도 뭇 길루면은 뭇로 써, 용. 써먹는 것보단도 일전은 뭇 풀, 풀아 가지고 돈받아 가지고서 그런 식이라이.

@1 예.

#1 육지분덜이 와 가지고서 사갓다고.

@1 아.

#1 지금ㄴ짜, 지금ㄴ짜 무슨 경마 이런 거 안허고, 마차.

@1 마차.

#1 마차 끄는 걸로이.

@1 게믄 그 당시에 아버지네 그때가 일제강점기우파?

#1 으.

@1 뭇 질룰 때예?

#1 으.

@1 그 뭇 질룰 때 선흘에서는 뭇 질루는 사람이 몇 사름 정도나 잇어났어마씨?

#1 그때 선흘에는, 선흘에서는이 지금은 함, 함덕이 막 그 썰여서 말이지 뭇 우리 한국에 서도 제일 큰 뭇을 무시거 소리허는데 말이지, 함덕은 아무 것도 아니고 말이지.

@1 으.

#1 함덕보다도 선흘이 그때는 더 썰어서이.

@1 예.

#1 이 어디 운동 경기를 가도 말이지 선흘이 말이지 함덕, 리드헛다고이. 으, 조천 다음은 선흘 그렇게.

@1 조천 다음 선흘.

#1 으.

@1 게난 그때 뭇, 이 동네는 뭇 뗏 므리나, 뗏 집이나 질관?

#1 혼 열 집 질랐어, 열 집.

@1 열 집, 아.

#1 예.

@1 아버지 대예. 열 집, 열 집 질루단.

#1 으.

@1 그 열 집 질렀던 게 쪽 언제까지 이어졌수과?

#1 그것이 아튼, 이 우리가 해방 후에 해방, 그때가 일제시덴디. 해방 지나니까 해방 뉘니까 말이지 예, 해방 뉘니까 좀 사그라져서이. 그 후대덜이이.

@1 예.

#1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뭘 허니까이.

@1 으.

#1 계난 해방 후제는 따시, 이 일제 해방 후제는 따시 이제는 그 분덜이 물을 길루기 시작헌 것이 따시 혼 열 집 돌아가셨는데.

@1 예.

#1 열 집 길워서.

@1 열 집 그냥 계속 이어지다가. 계난 이제는 이 동네 뭘 질루는 사람은 삼춘 혼자?

#1 지금은 요즘 사회에 십 년, 이십 년 후에는 나 혼자.

@1 아.

#1 이십 년 후에는. 이십 년 전에는 몇 사람 잇던데.

@1 예.

#1 이, 이제.

@1 계난 이천이십 년 이후에.

#1 이십 년 이후엔 나 혼자이.

@1 으.

#1 그러니까 지금에 제주경마장 생긴 것이 딱 이제 삼십일 년인디.

@1 예.

#1 삼십일 년인디, 지금 마주, 마주가 말이지 선홀서 나 혼자.

@1 음.

#1 조천, 조천 읍에도 말이지, 함덕도 혼 사람도 엇어이.

@1 으.

#1 조천도 엇어이. 겨니까 와, 저 어디 와홀 두 사람 잇고.

@1 으.

#1 교래, 교래 세 사람 잇고이.

@1 예. 그다음에 삼춘, 게문 조천에서는 여섯 명.

#1 으.

@1 마주가?

#1 으.

@1 음, 경마하는 마주가 여섯 명인 거라예?

#1 예, 조천읍에.

@1 조천읍에.

#1 으.



@1 계난 삼춘네는 지금은 경마 행은에 말들을 허는 거잖아. 말 질탕 풀고 험잖아예? 예전에 그 말 하영 질룰 때, 삼춘 밧도 불리레 뎡겇넌 헛잖아예?

#1 으.

@1 그때는 몇 머리를 질렀수과?

#1 그때는 나가 허영 현 건 스테 후제이.

@1 예.

#1 육이오, 육이오 스변 후젠다이. 난 몰 그렇게 많이 못 길와서. 혼 이십 마리, 스물다섯 마리, 이렇게 길랐지.

@1 으.

#1 스물다섯 마리 길랐지.

@1 스물다섯 마리 정도예?

#1 예.

@1 경 행 밧 불리레 뎡긴 거?

#1 으, 밧 불리레 뎡기고이.

### 밧 불리가·고스

@1 으. 계난 그 밧 불리레 뎡겇넌 얘기 쏘 구체적으로 행 곶아줘 봅서.

#1 밧 불리레 뎡기고, 구체적으로. 나 경우는 말이지, 그때 당시는 말이지 함덕도 막, 몰 길루는 사람털이 잇고.

@1 으.

#1 조천은 벨로 엇엇주만은이 나 경우는 우리 아버지, 아버님이이.

@1 예.

#1 구좌, 동북에 어른하고 친현 어른, 친허니까 말이지.

@1 예.

#1 동북에 연결이 뒤 가지고서 아버지가 경허다 보니까 나도 역시나 그렇게 연결이 뒤 가지고서 동북 밧 불리레 다 갓어요.

@1 으.

#1 조천, 조천.

@1 조천은 안 가고.

#1 어, 조천은 안 가고.

@1 예, 게문 삼춘이 이제 그 몰 이시난 동북 밧 불리레 가고, 또 이 동네 밧 불리고.

#1 으.

@1 그다음에 또 다른 동네도 간?

#1 다른 동네는 어, 경허다 보니 그 밧 불리는 시기가.

@1 으.

#1 유월절이엔 허면은 칠월 혼 칠월, 칠월 초순인다이.

@1 예.

#1 초순인디 그 시기가 거의 열흘이라 말이지.

@1 으. 유월절 그 시기가, 예.  
 #1 어, 그러니까 그디 텅기다 보면은 판 디서는 판 디 돌덜 빌영 밧 불리고이.  
 @1 으, 계난 그 당시 밧 불리레 이제 그 동복 갓잖아예?  
 #1 으.  
 @1 게문 이 밧 불리레 가는 사람한테 대접도 응성헛넌 헛디다.  
 #1 으.  
 @1 융숭허게 행예.  
 #1 으.  
 @1 그 얘기를 쯔 해줍서.  
 #1 음.  
 @1 밧 불리레 텅것을 때.  
 #1 밧 불려, 저번에도 약간 그런 소리허지 안헛던가.  
 @1 허긴 헛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1 어.  
 @1 으.  
 #1 어, 저번에도 헛는디, 그런 소리주, 뭐.  
 @1 으. 가문게 무슨 곤밥도 행주곡 허는 이런 얘기를 쯔 해 봅서.  
 #1 그렇주, 밧 불리레 가면, 밧 불리레 가면은 그디 그 쥐연, 그 쥐연 할망이이, 주인 아  
 주머니가 말이지.  
 @1 으.  
 #1 그 곤밥 행 가는 거, 저 우럭 생선 행 가는 거, 술 받아 가는 거 말이지.  
 @1 예.  
 #1 그 밧디 제석할망엔 해 가지고서 밧을 직헌 할망이 잇다 그래이.  
 @1 예.  
 #1 바로, 하나의 그거 미신인디 직헌 할망 나시.  
 @1 으.  
 #1 곤밥 혼 그릇 행 가곡, 술 허곡, 제숙 허곡 행 가근엥에 경 행.  
 @1 케우리고.  
 #1 고스, 고스 지내곡.  
 @1 예. 계난 그거는 밧 불리기 전에 그 제석할망한테 고사지내잖아예?  
 #1 어.  
 @1 밧 주인이.  
 #1 어 계난.  
 @1 그거는 밧 주인이 허는 거고 삼춘네는 밧 불리젠 허면은 제사를 안 지넵니까? 밧디서는.  
 #1 우리가, 우리?  
 @1 으.  
 #1 몰, 몰, 몰 주인은?  
 @1 으, 예.

#1 뭇 주인은 아니. 거기서는, 거기서는 그러니까 뭇 주인이 그런 고사 지내는 것이고.  
 @1 예.  
 #1 뭇, 뭇 주인이 무신, 뭇에 대해서 고사 지내는 건 엇엇고.  
 @1 아, 엇엇고.  
 #1 어.  
 @1 게문 그, 제서, 제석할망한테 제 지낼 때, 뭇렌 곶으명도 험니까?  
 #1 아니.  
 @1 그냥 그 저 케우리기만 하고.  
 #1 어. 그냥 허더라고.  
 @1 아.  
 #1 어.  
 @1 건 어디에서 허여, 뭇머리에서 험니까, 어디에서 해, 멩에질에서, 뭇도에서? 그 제, 제 석할망 제 지낼 때.  
 #1 그걸 꼭 그렇게 쫓아보면은 말이지 뭇, 여기 말도 어려와이.  
 @1 예.  
 #1 뭇딴 들어가민 옛날 으, 그때는, 지금은 다 개간하고 그러니까니 뭇덜토 다 그 예전이 라고 그래서, 예전엔 현 건 남은 땅.  
 @1 예.  
 #1 그 돌팓. 갈아먹지 아녀는 디.  
 @1 예.  
 #1 아녀는 디가 예전엔 해서 그런 독 잇는 디 뭇이 많더라고.  
 @1 예, 예.  
 #1 만헌디 그런 디서 뭇, 뭇들 출 먹고이.  
 @1 예.  
 #1 뭇덜 출 먹고.  
 @1 예, 예, 으.  
 #1 그런 디 봉근 디 앓앙은앵에 그 어디 들어가서 그런 디서. 뭇 어디 도에서 헐 것도 아니고 안네서 헐 것도 아니고.  
 @1 으.  
 #1 그 아무 디서나 말이지. 그냥 사름덜이 앓앙 밥 먹기 좋은 디.  
 @1 으.  
 #1 그런, 그런 디서 고스 지내곡.  
 @1 예.  
 #1 게서 식사허곡. 게서 고스 지내고 말이지 또 그 역꾼덜.  
 @1 예.  
 #1 뭇, 뭇, 뭇 불리는 사름덜을 역꾼이렌 허여이.  
 @1 예, 역꾼.  
 #1 으. 역꾼들이 또 이제는 보리, 또 그때는 뭇 그냥 밥 먹는 디 뭇, 보리밥, 보리밥 그런

걸로 먹더라고이.

@1 예, 예.

#1 그런 걸로 행.

@1 근데 톨 임제한티 테우리 밧 불리는 사람한티는 곤밥에 우럭에.

#1 응, 그렇게.

@1 예, 갱 혹시 그렇게 준 거를 다 안 먹었은에 받아오기도 해놔수과? 가정 오지는 안 허여?

#1 가정 오지는 아녀고.

@1 예.

#1 가정 오지는 아녀고.

@1 예. 계난 삼춘, 밧 불리레 땡기명 젤 대접 잘 받아본 거는 무시겨? 그래도 가는 집마다 다 톨 ㄱ트진 아넬 거 아니우파예?

#1 응.

@1 예, 잊어 불지 못허게 젤.

#1 특별히 그런 것도 엇고게.

@1 예.

#1 뭐 특별히 그런 것도 엇고. 나, 나, 나, 나가 옥아서 내가 마주, 마주 뒤편서.

@1 예.

#1 둔, 둔주.

@1 예.

#1 둔주 뒤편 가지고서.

@1 예.

#1 둔주 뒤편 밧 불리레 갈 때는.

@1 으.

#1 그런 게 엇엇고. 아까 얘기 시초에 동북에 나가, 우리 아버지가 밧 불리레 헐 때는 내가, 내가 다섯 살부떠 갈 땐디.

@1 예, 예, 그때 경 골앗잖아예, 예.

#1 그때는 말이지, 아, 거 거기서 먹단 우럭, 우럭 먹단 것도 나오면은 싸고이.

@1 예.

#1 경허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경해서 밧 불리는 거 흔 일주일 밧 불리면 말이지, 해서 돌아올 때는 말이지 흔 포파리 집이로 가정 오고이.

@1 으.

#1 그렇게.

@1 계문 그 밧 불리레 땡길 때는 그 동네서 살명은에 밧을 불린 거라마씨? 동북.

#1 어, 그디 가면 동북 가면 그디 살명 불린 거주게.

@1 으. 책임정은에 그 동북 거를 이렇게 헐 거로구나.

#1 그디 살명, 살명.

@1 계난 보통 그 밧 불리는 건 조 불리는 거우파? 산디?

#1 조, 조.  
 @1 조. 으.  
 #1 조.  
 @1 유월절에예? 예.  
 #1 유월절.  
 @1 계난 그렇게 밧 불리레 텅겨본 거는 삼춘 몇 술까지 텅건?  
 #1 그때.  
 @1 다섯 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 간.  
 #1 다섯 술부터 텅기단.  
 @1 으.  
 #1 그래 욱으니까, 이제 욱으니까이 뭐 또 이 흑교, 흑교 가기 시작허니까 이젠 흑교 텅겨부니까 못 가고.  
 @1 으.  
 #1 이젠 아, 스삼스건 나니까 말이지 것도 못허고.  
 @1 으.  
 #1 스삼사건 끝나니까 말이지, 이제는 나대로.  
 @1 예.  
 #1 그때는 나대로 말이지, 다시 밧 불리레 갓단 말이지, 나대로.  
 @1 으.  
 #1 나대로.  
 @1 사삼 이후엔예?  
 #1 어, 사삼사건 가니까 나 혼 스물다섯 술부터 밧 불리레 다녔주.  
 @1 음, 계난 그렇게 밧 불령은에 조 불린 거는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헛수과?  
 #1 으 그게, 아튼 욱십, 칠십 년도, 칠십 년도, 욱십, 욱십팔 년, 우리 죽은 아들이 욱십팔 년 생이니까, 혼 욱십팔 년, 칠십 년도ㄷ지 헤서이.  
 @1 칠십 년도까지.  
 #1 으, 으.  
 @1 계난 이제 경운기 나오고 영 허명 또 엇어지기도 허고. 비료 나오명은에 밧들 털 불린 모양이여예?  
 #1 그러더라고. 옛날은 불리지 아녀민 안 웬다고 그래서 꼭 불렀는디이.  
 @1 예.  
 #1 아, 그루후젠 밧 안 불려도 조 갈아도 조도 잘 뒹고이.  
 @1 으.  
 #1 게서, 비료, 그러니까 비료 주니까 말이지 잘 웬다고 이렇게 허는디. 이젠 조도 많이 안 갈고 그러니까이.  
 @1 예. 계난 그추룩 밧 불리레 텅길 때는 둔주 헤 갓고 이제 현 거 아니라예? 그 이후에는 계문 그 들들은 어명 허연? 밧. 칠십 년대 이후에는, 삼춘.  
 #1 칠십 년도 이후에는.

@1 으.

#1 톨털이, 톨값도 하락이라이.

@1 예.

#1 하락이라이. 허니까 그때 칠십 멧 년도엔가 현디, 그 무렵인디 말이지, 톨 톨 이십 멧 리를 십팔만 원에도 팔아서이.

@1 아이고, 스무 멧리를?

#1 으.

@1 게문 그 당시에 십팔만 원이면 어느 정도 돈이우파?

#1 십팔만 원이 어느 정도 돈이,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과수원을 시작할 땐다이.

@1 으.

#1 과수원 시작할 땐디, 십팔만 원이니까 말이지, 과수원 축, 저 미신거, 창고.

@1 예.

#1 창고 하나 짓고 정문, 정문 만들고 헤지더라고.

@1 어, 열여덟 마리 헤신디.

#1 으, 으.

@1 톨 스, 으.

#1 그 십팔만 원, 톨 톨 스무 멧리 톨 돈으로.

@1 으.

#1 과수원 창고 이십 평짜리 창고 하나 짓곡.

@1 예.

#1 정문.

@1 예. 정문허고.

#1 올레 철문, 철문.

@1 예.

#1 그거.

@1 그거허난 끝.

#1 그것벳긔.

@1 아, 게난 그때 게문 쉼 톨, 아니 톨 톨아 부니까.

#1 으.

@1 그때는 다 톨아 톨 거, 그때도 냉경 놔두긴 헛수과?

#1 예, 예. 뭐 톨 톨 하나 좋은 톨은 잇어났어.

@1 어.

#1 그거 잇어서.

@1 게 그거 탕 다니고.

#1 어, 그거. 그걸로 연속헨에, 연속헛고.

### 톨마차

@1 으. 게면 농사에 활용 안 허니까 이 톨로 헤 갖고 삼춘, 마차도 헛수과?

#1 응?  
 @1 마차?  
 #1 마차도 해보고이.  
 @1 으.  
 #1 마차도 해보고이. 제주시에 말이지 무시거 짐 실러가는 것도 실, 실러다근엔에. 그때 당시에는 목, 목, 저 슷, 슷도 제주시에.  
 @1 예.  
 #1 슷 실령 강 풀곡이, 낭 실령 강 풀곡이.  
 @1 으.  
 #1 그때 당시 어욱대.  
 @1 어욱예.  
 #1 어욱대 해근엔에 곱게 무꾼 것들 이, 여깃 어른덜이 해근에 실령 강 풀, 저기 풀레 간 단 말이지.  
 @1 으.  
 #1 그런 거 실러다 주곡. 실러다 주곡.  
 @1 게 삼춘, 그 마차 현 거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허연?  
 #1 마차 현 것이 몇 년, 그 꼭. 짐작이주, 딱 돌르커라.  
 @1 예, 예. 그니까 짐작으로.  
 #1 으, 짐작이주. 몰라, 여.  
 @1 게난 밧 불리레 텅길 때도 마차도 현 거 아니라예?  
 #1 으, 밧 불리레 텅길 땐 많이 마찬 아녀곡 밧 불리레 텅기는 그루 후제.  
 @1 이후예.  
 #1 그루 후에, 그루 후에.  
 @1 으. 그루 후에 해 갖고.  
 #1 으.  
 @1 이제 보통 마차허게 뒤편 낭 풀레, 어욱대 풀레, 그 다음에 슷예?  
 #1 으.  
 @1 게난 여기 사람들이 그 짐을커 허영은에 이렇게 풀면 그거 마차 현 번 왓다갓다허면 얼마 받아마씨?  
 #1 으?  
 @1 마차 현 번 시꺼 주른 얼마 받아마씨, 그거는.  
 #1 어, 맞아이. 그 말이 중허여.  
 @1 예.  
 #1 시에, 시에 현 번 마차 강오면은 말이지.  
 @1 예.  
 #1 지, 지금에는 뭐 이 무시거 식량깁이, 밥 쓸깁이 말이지 찻지.  
 @1 으.  
 #1 그때는 쓸깁은 비싸고이 쓸, 예 쓸 녁 뒤편, 녁 뒤편 현 말엔 헤서이.

@1 예.

#1 전디 쫄 요섯 뉘. 말 반, 말, 말, 말가웃.

@1 말가웃.

#1 어, 쫄 말가웃. 말가웃 깎으로 그런 비율로 가더라고.

@1 예.

#1 예. 지금은 거 뉘 마차 혼 번만 갖다오면은 쫄 뗏 푸대도 살 수 잇는다이.

@1 그러니까.

#1 그때는 쫄은 그렇게 귀중허엿고이.

@1 으.

#1 귀중허엿고.

@1 게난 말가웃허면은 것도 적은 건 아니 아니우파, 그 당시에예?

#1 그 당시에 적은 거 아니주.

@1 적은 거 아니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쫄 혼 푸대 허면은 얼마 헛수과? 그 당시에.

#1 쫄, 쫄 혼 푸대는 현디, 그 쫄 장시를 이 동네 어른덜이 쫄 묻어서 그 쫄 장시를 헛는데.

@1 으.

#1 여기에서 쫄 혼 포를 정 기영, 김녕을 정 가면은이.

@1 으.

#1 정 가면은이 보, 보리, 보리 녀 뉘.

@1 예.

#1 거벧권 못 받았다고.

@1 경 허니까.

#1 예, 거밧게, 쫄을 혼 포 행가면은 말이지.

@1 예.

#1 식량은 그렇게 귀중허엿고.

@1 음.

#1 으, 또.

@1 게난예, 뉘 그 구루마에다 뉘마차 헛 때, 거기에 짐을 어느 정도 시끌 수 잇어마씨? 왜냐 하면 아까 쫄, 보리 녀 뉘, 혼 말밖에 못허는데, 삼춘은 혼 말, 말가웃을 받았잖아예. 품으로.

#1 으.

@1 게문 거기 얼마큼을 시경 가는 거우파?

#1 뉘라고?

@1 그 짐을 시끄젠 허면 어느 정도 시경 가야 그, 다른 사름덜, 쫄는 사람 돈이 안 뉘엄 신게.

#1 아이고, 짐 시끄는 거 말이지, 마차에 시끄면 말이지, 뉘 쫄이면은 말이지, 뉘, 뉘 푸대, 쫄이면은 뉘 가마니 실렀나? 쫄이면은 일곱으답 가마니 실렀나.

@1 으.

#1 낭도 어느, 어 정도 시경 가이.

@1 예.



#1 시썩가면은 거기서는 그 시썩 간 거 전체를 말이지, 얼마 해서 그거를 낭 주인이 알앙  
폴 거고.

@1 예.

#1 깁 받을 거고.

@1 으.

#1 실러간 사람은 실러간 깁만.

@1 받고.

#1 받고.

@1 게난 주인들도 얼마 못 받아시큰게, 돈예.

#1 어, 얼마 못 받았지.

@1 삼춘보다 더 못 받을 거 닢아.

#1 으.

@1 아까 흐, 흐 푸대에, 예?

#1 으.

@1 흐 푸대에 보리 삼춘은 말가웃 해신디, 흐 푸대에 흐 말이난.

#1 음.

@1 그런 식으로 행은에 마차 해영 일하고.

#1 거, 거 그런 식으로 그때는 말이지 어, 그 먹는 것이 그렇게 귀중했주. 귀중해서이.

@1 예.

#1 귀중해서이. 슷 흐 포를 여기서 정 김녕 가근영에 폴았을 때 말이지, 보리를 말이지  
흐 말벳긔 못 받으면 그거 얼마나 애삭혈 거냐, 말이지.

@1 보리썰도 아니고 보리로.

#1 보리, 보리, 보리.

@1 보리로예, 거 까끄른 두 뉘.

#1 으,

@1 예.

#1 으. 그래, 그래.

@1 게난 옛날 어른들 너무 어렵게 살았잖아예?

#1 어렵게 살아서이.

### 마주협회

@1 예. 썩 삼춘, 이제 경마장 영 삼십 몇 년 뉘텐 헛잖아, 삼십일 년예. 게른 처음 생길  
때부터 마주했수과?

#1 게 처음.

@1 게른.

#1 처음 육십, 육십구 명. 지금에는 흐 삼십, 육십구 명 중에 흐 사름이라이, 처음.

@1 처음 할 때.

#1 처음 말이지, 창립, 창립자라이.

@1 예. 그때는 마주협회했수과?  
 #1 으.  
 @1 으, 마주협회 창립이 지금, 육십구 년에 현 거?  
 #1 어.  
 @1 어.  
 #1 육십구 명, 유십구 명으로 마주협회를 창립해서. 그때가 천구백, 천구백구십 년도에이.  
 @1 아, 구십 년도에.  
 #1 지금이 삼십일 년.  
 @1 으.  
 #1 삼십일 년.  
 @1 게니까 그때가 아흔, 예순아홉 명예. 마주.  
 #1 육십 구.  
 @1 육십구 명.  
 #1 으.  
 @1 지금은 몇 명쯤 잇수과?  
 #1 지금은 백칠십 명.  
 @1 아이고. 백칠십 명 뒤흔고예?  
 #1 으.  
 @1 그니까 삼춘 창립할 때부터 우리 경마장 생겨근에 오늘날까지 쪽 왓잖아예?  
 #1 으.  
 @1 계난 삼춘, 옛날 밧 블릴 때하고 경마 마주허면서 하고.  
 #1 으.  
 @1 이 삶이 하늘과 땅 차이 났 거 같아.  
 #1 으.  
 @1 그 얘기 좀 해 줘 봅서. 옛날은 막 늙의 밧 블려도 얼마뻬기 안 나와신디다가 경마허 니까 달라지더라.  
 #1 그거 구별적으로 얘길 어떻게 허느냐, 말이지.  
 @1 그래도 생각은 이실 거 아니? 삼춘이.  
 #1 음, 아니.  
 @1 아니. 경해도 경마, 마주허면서 느낀 거는 잇일 거 아니우파?  
 #1 그 마주허면서 그러니까, 나 그러더라고. 마주. 마주 육십구 명이 말이지, 마주 창립을 했는데이.  
 @1 예.  
 #1 그때 당시, 지금은 마, 만 원씩 인원이지만은. 육십구 명이라도 말이지, 거기서 예, 돈 좀 수익 보는 사람은 말이지 흔, 십, 십오 명, 이십 명이라이.  
 @1 으. 그렇지예. 다 이기는 사람만 돈 뒤흔는 거니까.  
 #1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오 명, 이십 명 중에 흔 사람이라, 나도이.  
 @1 예.

#1 어.

@1 계난 어쨌든.

#1 계난 저거 무시거 헛 거, 저디 뭐 상 대상 경주 상 받은 것도 말이지.

@1 예.

#1 요즘은 늙으니까 말이지, 나대로 못허니까 말이지, 나대로 못허니까 저런 상에 대상경주도 요즘은 뜸해서이.

@1 예.

#1 뭐 그 나대로 헛 땀 말이지, 허민 똬다고 허면은 말이지, 똬더라고.

@1 으.

#1 똬더라고.

### 좋은 뭉

@1 그 말을 그런 경주마 이런 길르는 요령이라든가, 비법이라든가 잇수과, 어뎡 허면 좋은 말을 가질 수 잇어마씨?

#1 으. 비법이라든, 말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뭉씨가 좋아야 똬고이.

@1 예.

#1 뭉씨가 좋아야 똬고. 또 관리를 잘 해야 똬고.

@1 으.

#1 거 관리 잘 헛다는 건 뭉 뿐이 아니고, 뭉 뿐이 아니고 말이지.

@1 사람도 마찬가지.

#1 이 무시거 저 밧데, 똬 밧데 생산허는 말이지, 밀감, 보리 무시것도 마찬가지라이.

@1 예.

#1 보리, 조, 아까 허는디, 조, 조 불리는 디. 조 미시거만 씨만 뿌려 가지고서 불령 내 불민 안 똬단 말이지.

@1 으.

#1 딱 이십 일 똬면은 거, 소까야, 손 봐야 똬이, 씨 소까야 똬이, 씨.

@1 예.

#1 예, 이십 일 똬민 손 봐야 똬고. 그런 거 마찬가지로 뭉도 제 시기에 말이지.

(이하 생략)

### 넉인

@1 낙인은 뎡 슬 때 찍어마씨?

#1 두 슬 나면이, 두 슬 날 때이.

@1 예.

#1 경 행 놔두면은 폐적으로이 막 목장에 내 불영 도망가도 말이지 좇아지곡.

@1 음. 계난 두 슬 흘 때 이수예?

#1 으?

@1 이수예 찍는 거? 이수, 두 슬?

#1 응. 두 술 때.  
 @1 으.  
 #1 두 술 봄에이.  
 @1 예.  
 #1 두 술 봄에이. 두 술꺀지, 두 술꺀지는 에미영 부평 젓도 먹고 그 안 도망가는 디이.  
 @1 으.  
 #1 두 술 넘으민 젓도 안 먹곡 허민, 도망도 가고 그럴 때 딱.  
 @1 딱 찍영은에.  
 #1 응.  
 @ 더 이렇게.  
 #1 아이고, 이 직원들 문딱 오랑은에 이거.  
 @1 아니, 이거 낙안을 누게가 보여줍니까? 삼춘이나 이시난 이거 저기 허주.  
 #1 으, 으, 으.  
 @1 박물관에 아니고 다 이렇게 잇는 건 삼춘 것بات기 없잖아.  
 #1 누게 박물관이 드라 해도 ㄱ만 이시라 해서 안 젓어.  
 (동행자 웃음)  
 @1 예. (웃음)  
 #1 박물관에 드렌 해도 안 젓어, 안 젓어이.  
 @1 예. 이 축사는 언제 지으신 겨우짜?  
 #1 이거 뭐 흔 스오십 년 뒤실 거라.  
 @1 어.  
 #1 이거 목장엔 이거 두 개 만이 흔 축사 잇어.  
 @1 예.  
 #1 건 축사가 아니고이.  
 @1 예.  
 #1 지붕만 더끈 거이.  
 @1 예.  
 #1 지붕만 더끈, 지등만 세완이 지붕만 더끈 거.  
 @1 음.  
 #1 계난 거기 뭐 눈 온 때. 거 눈 온 때는 건초나 주곡.  
 @1 예.  
 #1 비 온 때는 들어오곡 헉는 거이.  
 @1 예. 게 이거 두 개 만씩 흔 거, 두 개.  
 #1 응. 이건 오십 평이고 거긴 백 평.  
 @1 예, 예. 계난 그 목장에는 지금 툄 멧 개 잇어?  
 #1 거기 툄, 툄 흔 스무남으 멧이.  
 @1 스무남으. 거기는 차로 가집니까?  
 #1 응?

@1 차로 가져? 걸영 가야 돼여? 차로 가져?

#1 음. 걸영 가야 돼.

@1 걸영 가야 돼.

#1 저런 차 못 가고.

@1 아.

#1 우리 세렉스 가야, 우리.

@1 음.

#1 우리 아들이 흐니까.

@1 예.

#1 난 간 봐난 때도 막 오랬어.

### 몽둥이

@1 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삼춘 그 몰 흘 때 이런 낙인 말고 필요한 도구들은 무시거 이수과?

#1 무시거?

@1 아까처럼 몽, 몽둥이. 이렇게 이거 해야 영 행은에 몰 거 아니예. 어려려 헤 갖고.

#1 으.

@1 이런 몽둥이는 뭐렌 꼴안?

#1 몽둥이, 몽둥이?

@1 으.

#1 뭐, 이거 지평 텅기는 건 지평이고.

@1 예.

#1 올케 무시거 딱리곡 흘 때는 몽둥이.

@1 몽둥이고, 응.

#1 몽둥이. 약한 건 휘초리.

@1 예.

#1 휘초리이. 약한 거 깨는 것ㄴ란 휘초리.

#1 휘초리.

@1 휘초리.

#1 이진 몽둥이 맞아.

@1 몽둥이. 으, 게 삼춘 이렇게 하고. 이, 이, 이거는 무시거우파?

#1 무시거, 뭐라 거. 이진 몰라 뵈산디.

@1 뵈산디.

#1 들르커라, 거.

@1, @2 (웃음)

### 글쟁이

@1 여기도 췌도, 아니 뭇췌빔이렌도 헤여?

#1 으?

@1 쉼벙빔, 뭉벙빔 이런 말도 씹니까? 여기 글쟁이렌 해? 쉼벙빔이렌 곶아? 뭉벙빔이렌 곶아?

#1 글쟁이?

@1 으.

#1 응. 뭉 곶어줄 때 글쟁이.

@1 으.

#1 또 뭉엔 곶아. 아까.

@1 쉼벙빔. 벙빔이렌 흡디다, 저쪽 하원 가난.

#1 아, 아, 아. 벙빔이엔.

@1 예. 삼춘은 뭉엔 곶아난?

#1 우린 뭉 벙빔이엔 안 곶아, 글쟁이엔 곤주.

@2 글쟁이.

@1 그냥 여기는 글쟁이예. 으, 게난 글쟁이도 옛날 글쟁이 흐고 요즘하고 또 특난게예?

#1 이진 우리 족은아들이 누게 쥘. 어디 간.

@1 으.

#1 옛날엔 글쟁이에 무시겄 해여났어, 나.

@1 으.

#1 녀적흔 쉼 해여근에 영 벙헛게 둘렁이, 줄로 특.

@1 으.

#1 특 뎀들앙이.

@1 으, 예.

#1 경 헝 해당. 경허고 톱도 약한 톱 해근에 영 데와근엔에 헝 무경, 그런 게 썰는데. 이제 저런 고 고급으로.

@1 고급으로.

#1 응.

@1 게문 삼춘 쉼 해 갖고 줄로 삼춘이 이렇게 그 노를 뎀든 거라예? 경 허영도 쓰고, 톱을 이렇게 둘렁은에 글쟁이로도 쓰고.

#1 으. 글쟁이로도 쓰고.

@1 그거 썰난 건 엇수과?

#1 엇어. 톱르커라. 쉼도이 삭아 불민이.

@1 예.

#1 삭아 불민 다 어디 강 엇어.

@1 음. 게난 요즘도 이 글쟁이 썰수과? 톱덜 곶어주렌 곶아.

#1 으, 으. 곶어줘야 뉘.

@1 아.

#1 흐끔 뭉 곶어줘야 뉘이.

@1 음.

#1 것ㄴ라 흐쫌 무시거? 순치, 순치 요즘은 순치엔 허데이.

@1 음.

#1 뭇 달래는 거이.

@1 달래는 거. 어.

#1 순치이. 그 순치렌 흐 말이 요즘 술어라이.

@1 예.

#1 순흐게 다시리는 것ㄴ라 순치.

@1 순치, 예.

#1 현디, 옛날은 그런 말도 안 췌고 말이지, 뭇 굶어쥬사 용흐다 영헤영.

@1 음. 아, 뭇이 뭇 굶어쥬야 용흐여예?

#1 응, 굶어쥬야 용흐여.

@1 음. 게난 삼춘 경마 하영 흐는 거는 뭇을 하영 굶어주는 거네, 다른 사름보다.

#1 (웃음) 몰라, 몰라.

@1 (웃음) 으음.

#1 몰라, 몰라.

### 뭇막·정

@1 이렇게 하고. 그 여기 이진 뭇막이렌 험니까? 이진 무시거렌 험니까? 여기, 여기는 축사를 뭇렌 헤? 옛날은.

#1 옛날은 뭇, 옛날은 뭇막, 췌막, 막.

@1 막예. 막 짓엉예 뭇막, 췌막.

#1 응.

@1 게믄 이런 것들은 뭇렌 헤? 이진, 이진, 이거.

#1 정, 정.

@1 정 낫덴 험니까?

#1 으. 정.

@1 그 췌막에 보면 메낭이렌 행은에 허기도 허잖아예?

#1 응?

@1 메낭이렌 들어봍디가? 메낭. 췌 메는 디?

#1 음.

@1 여기서는 메낭이렌 안 곶읍니까? 이 동넨.

#1 뭇르커라, 진.

@1 뭇르커라. 그냥 정 낱 이거 살체기치록 이렇게. 여기는 뭇막.

#1 응. 뭇막, 으.

@1 응. 뭇막. 지금 여기.

#1 정.

@1 정 헤 갖고.

#1 응. 뭇막.

@1 이렇게 딱 흐른 저기 물들은 튀어 나오진 안합니까?  
 #1 뭐 가당 튀어 나오는 것도 있주게, 계란.  
 @1 음.  
 #1 전에 물들 여기 나오민 약흔 거이.  
 @1 예.  
 #1 물 세 마리 나오면 말이지 약흔 것이 흐나 잇곡 말이지, 썬 거 이시믄 말이지 막 쫓이  
 민 말이지 일로 영 튀어이.  
 @1 으.  
 #1 일로 영 튀어나서. 튀어나서.  
 @1 튀어나.  
 #1 응. 것도게 관리가, 관리가 어떻게 서툴어 잘못흐니까이.  
 @1 예.  
 #1 튀어나기 전에 말이지 그걸 방비를 해야 뉘 건디 말이지.  
 @1 음.  
 #1 그런 거고.  
 @1 그렇게 행은에 하고. 그, 그때 아까 얘기헀던 안장 이런 거는 어디 잇어?  
 #1 그런 거 안장도 엇어. 어디 이젠 다. 아, 안장 어디 막 몽그레기 몰라서.  
 @1 예. 뉘 안장 어디수과? 몽그레기진 거. 건 몽그레기진 거는 삼춘 역사하고 똑ㄴ타.  
 #1 음.  
 @1 예?  
 #1 그거, 그거, 그거, 옛날 거, 옛날 그런 건 엇고.  
 @1 으.  
 #1 요즘에 무시거 그 경마장에서 타는 거 말이지, 못 씨는 거 누가.  
 @1 예.  
 #1 그거 필요 엇고.

### 쉐질메

@1 으. 그건 어디 잇어? 것도 필요흔디.  
 #1 으?  
 @1 것도 필요허여.  
 #1 어디 저디 어디 엇인가? 거 쉘질메에이.  
 @1 예.  
 #1 문저 무시거 안 헛어이.  
 @1 쉘질메.  
 #1 쉘질메 그제.  
 @1 삼춘 여기 어디 강 앞이카?  
 #1 내 불라, 내 불라.  
 @1 뭐.



#1 무신거 아년 거 그냥 헉나 두 갠다이.  
 @1 예. 골아 줍서.  
 #1 쉼질메 지우민 말이지.  
 @1 예.  
 #1 질메가, 질메가 어디. 길 영 좁은 디 텅길 때는 앞더레 넘어나지이.  
 @1 예, 예.  
 #1 그러니까 으, 넘어나니까 뒤에 안 넘어나게 고들개.  
 @1 아, 고들개예.  
 #1 고들개 해야 돼여이.  
 @1 예.  
 #1 뒤, 뒷 저 조름에 풀리 밑으로이, 고들개, 고들개 헉영 질메레 헤사. 경 해근에 연속 헤사 말이지이 앞더레 질메가 안 도망갈 거 아니.  
 @1 예.  
 #1 이? 그거 몬저도 안 골안.  
 @1 안. 고들개, 고들개는 무신 낭으로 허는 거?  
 #1 고들개 해 가지고서, 낭으로, 낭으로 그것도 무신 낭으로 헉 고들개 요만이 헉 거영 쉼 조름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이.  
 @1 예.  
 #1 또 그것에 텅달아 가지고서 새썰들은.  
 @1 응.  
 #1 새썰들은 막 들럭퀴민 그것도 올라가 붙어이.  
 @1 예, 예.  
 #1 게니까 요 중간으로 헉, 이 저 다리 양 새 트명으로 헉은에 샷궤, 샷궤엔 헉은에이.  
 @1 예.  
 #1 그것이 고들개에 무껴근영 어디 강 무끄느냐 헉니까 오랑, 오랑.  
 @1 오랑.  
 #1 오랑에 강 무껴이.  
 @1 예. 베에.  
 #1 경 허민 고들개 올라가지 아녀지.  
 @1 예. 아, 그니까 샷 잇는 디로 헤니까 샷궤구나, 예?  
 #1 응. 경 헉.  
 @1 조름에, 으.  
 #1 고들개, 고들개 영 무껍, 오랑더레 무껍 헉민 고들개 올라가지 아녀이.  
 @1 예.  
 #1 새썰들은 경 해야 돼. 옥은썰들은 고들개 7만이 헉면은 어떻 아녀는디이.  
 @1 예.  
 #1 그거고.  
 @1 음.

#1 요 질매, 질매 흐 디 뭐 헛는디 그때 헛는데, 누구도 그 저 소용이 앞가지 뒷가지 헤 가지고서.

@1 예. 소용예.

#1 소용이에만, 만 헛는디이.

@1 예.

#1 소용이 앞가지 흐고 뒷가지 흐고이.

@1 으.

#1 그것이 고정시켜야 될 건다이.

@1 예.

#1 고정시키는 고정틀이 말이지.

@1 예.

#1 고정틀이 있어야 돼이.

@1 예.

#1 음.

@1 고정틀.

#1 앞가지 흐고 뒷가지 흐고 헤 가지고서, 소용이 하나만 이렇게 꼽으면은 말이지, 흥글렁 얹은 낭 무시겨 질긴 낭으로 행은예이, 얹게[얹께], 얹게 흐영 그 그것이 앞가지 흐고 뒷가지 흐고 말이지이.

@1 예.

#1 다 거 것이 고정시키는 고정틀이 있어야 돼.

@1 예.

#1 것고라 뭐엔, 고정.

@1 고정틀은 무시겨렌 곶아?

#1 고정틀인가, 고정댄[고정댄]가 그렇게 하지.

@1 아, 고정대.

#1 아.

@1 고정틀. 예, 게난 삼춘 이거잖아. 앞가지 흐고 뒷가지 이렇게 잇으면.

#1 응.

@1 여기에 이렇게 낭.

#1 응.

@1 이게, 이게 소용 아니?

#1 그래.

@1 이, 이, 이거 영 뒸는 거.

#1 응.

@1 이게, 이게 소용.

#1 으.

@1 그다음에 이거를 고정흐는 요렇게 뒸 겨우파? 이 고정대는 어, 어떻게 생겼?

#1 이거 이것이 이렇게 헤 가지고서 이것이.

@1 앞가지고.  
 #1 이거, 이거 해서 영 앞가지고이.  
 @1 예.  
 #1 이렇게 그거나 마찬가지로. 앞가지고.  
 @1 앞가지고.  
 #1 뒷가지고 헛면은 말이지.  
 @1 예.  
 #1 이것이, 이것이.  
 @1 으.  
 #1 이, 이, 이것이 고정돼야 질메가 될 건다이.  
 @1 예. 예.  
 #1 그거 아녀면은 그것이 엇이면은 이것도 움직이고 이것도 움직이면은.  
 @1 응.  
 #1 안 돼지이.  
 @1 예.  
 #1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움직이지 아녀게 해 가지고서.  
 @1 으.  
 #1 안 밑으로.  
 @1 으. 밑으로.  
 #1 밑으로 그 도곶 우로 밑으로 말이지.  
 @1 으.  
 #1 낭을 까까 가지고서 말이지 툇 지와서.  
 @1 아, 툇 지왕은예.  
 #1 툇 지와근엥에 그레 고정 해야 된다 말이야이.  
 @1 예, 예.  
 #1 경해서 내중에 소용이엔 혼 거는 말이지.  
 @1 으.  
 #1 ㄴ는, ㄴ, ㄴ는, ㄴ는.  
 @1 대.  
 #1 ㄴ는, ㄴ는.  
 @1 낭, ㄴ는 낭으로.  
 #1 응. ㄴ는 낭으로 해 가지고서.  
 @1 으.  
 #1 쓰는 거고이.  
 @1 아, 그니까 여기 하고 여기 밑에.  
 #1 그렇지.  
 @1 저기 툇 지왕은예.  
 #1 툇 지와근에.

@1 그걸 고정대 하고.  
 #1 고정대 해 줘야지. 근디 이거하고 이거하고 도망갈 거 아니?  
 @1 음.  
 #1 그걸 꼭 해야 되고이.  
 @1 게난 고정대를 행은에 소용을 이렇게 잘 꽂아 놔야 되는 거구나예?  
 #1 응.  
 @1 예. 예. 예.  
 #1 경해서 그 우로 그 고정대는 그렇게 해서 아, 밑에 도곰.  
 @1 도곰.  
 #1 도곰 우으로, 우으로 갈 거고.  
 @1 예.  
 #1 소용이는 그 우으로 해서 앞가지 하고 뒷가지 하고 연.  
 @1 연결해서.  
 #1 연결해서 그거는 소용인 어떤 때 쓸 거냐니까이 짐 시킬 때 짐페.  
 @1 예.  
 #1 베.  
 @1 베. 예. 베.  
 #1 베, 베. 베 흘 때 말이지. 그 그거를 그것이, 그것이 쓸 거라 말이지. 베 흘 때.  
 @1 음. 게문 짐페는 소용에 걸어집니까? 이 짐페는 어디에 걸어져? 짐 시키는 질메예.  
 #1 짐페, 짐페는 말이지. 소용이가 소용이 영 흐민 말이지 소용이에 짐펠 걸어야 흘 거주.  
 벨 걸어야.  
 @1 소용일. 아. 아.  
 #1 베를 걸어 가지고서 소용이 걸어서. 이젠 짐들 시키는 디 흐쪽에 저 짐 시키는 디 그  
 냥 검질, 검질, 저 출 시킬 땐 말이지, 안도름[안또름].  
 @1 예.  
 #1 안도름.  
 @1 안도름예.  
 #1 앞도름, 뒷도름.  
 @1 으.  
 #1 경해야 돼. 짐페는 그렇게 끝어야 돼.  
 @1 세 군데.  
 #1 세 군데. 아이 그 베 하나면 말이지 그렇게.  
 @1 응.  
 #1 안으로 시꺼근에 딱 등겨 놔근앵예.  
 @1 음.  
 #1 다음에 이제 앞더레 시켜.  
 @1 응.  
 #1 또 등겨근앵예.

@1 응. 뒤에.

#1 무시거 출, 출 저 출로 행은에 고정 시경.

@1 예.

#1 경 행 저펜이 강 시꺼뵤, 시경 다시 이 펜이 오랑은에 뒷도름 시꺼근엥에 경흔디, 바  
깃, 바꺃뵤도 두 못 시경, 베 무경, 경허면 완료.

@1 완료. 쟁은에.

#1 경허는 거고이. 짐 시끄는 거.

@1 제민 여긴 흔 바리가 뻣 못이라난? 여기는.

#1 흔 바리가 마흔 못.

@1 마흔 못예? 으.

### 녹대

@1 그, 잠깐만. 삼춘, 이거 녹대에. 녹대는 뭐 흔는 게 녹대렌 흔는 거우파?

#1 응?

@1 녹대는 무신 게 녹대렌 흔는 거? 녹대 설명을 해 줘서.

#1 녹대. 아구겨, 옛날 것도 아난디 옛날 것도 아난디. 이 나대로 만든 건디. 이거는.

@1 아, 삼춘이 만든 거? 으.

#1 이거 녹대 맨들 때이.

@1 예.

#1 이거 전부가 녹댄디.

@1 예.

#1 요건, 요건 저 무제미 요건. 요건 무제미.

@1 이, 이게 무제미?

#1 이건 무제미. 이건 졸레석.

@1 잠깐만에. 이거는 무제미고.

#1 이건 졸레석.

@1 어느 게?

#1 이거.

@1 아, 이쪽에 게 무제미?

#1 으. 이건 무제미. 이건 졸레석.

@1 아, 잠깐. 왼쪽 게 무제미.

#1 이건 졸레석.

@1 졸레석.

#1 으, 으.

@1 그다음에 이건?

#1 이, 이건 뻣, 뻣줄. 이건 녹대 맨드는 거니까 뻣줄.

@1 뻣줄.

#1 으, 으.

@1 게믄 이 우에 건?  
 #1 이 이 우에 짓고, 이것이 이진, 이거.  
 @1 아, 이게 전체 댕줄?  
 #1 으.  
 @1 이게.  
 @2 이게 댕줄.  
 @1 아까 이거랑 이거 연결. 이 이거 전부.  
 #1 이거, 이거 헉나로.  
 @2 아.  
 @1 헉나로 이렇게 연결뎀 거잖아예?  
 #1 으, 응.  
 @1 이게예?  
 #1 으,  
 @1 으.  
 #1 이진, 이진 신식으로 요즘 나가 연구헀 멘드니까 베 하나로 헀 멘들앗는디이.  
 @1 예.  
 #1 요거 무제미 톡로 멘들아근엥에 졸레석 톡로 멘들앙.  
 @1 응.  
 #1 요 댕줄 하나로 헀은에 못인 거라이.  
 @1 예.  
 #1 옛날은 그렇게 못앗어이.  
 @1 예.  
 #1 이젠 이. 이.  
 @1 따로 따로 헀 갖고.  
 #1 이거 베 하나로 헀에 막 그냥 멘들아서이.  
 @1 음. 삼춘 게믄 이거는 뭘?  
 #1 그건 건 그, 그것이 이거 톡줄, 톡, 톡줄.  
 @1 톡에 이렇게 헉는 거.  
 #1 응, 톡에 톡줄, 톡줄.  
 @1 이거는 톡줄.  
 #1 으, 응.  
 @1 삼춘, 아까 무제미는 옛날 잔치헀레 가면 그 쉼, 하인들이 무제미 심엇뎀 허잖아예?  
 뭘 흘 때.  
 #1 뭘 흘 때?  
 @1 무제미 심엿.  
 #1 으.  
 @1 뭘 이끌 때 무제미 심엿 영 이꼇뎀 헉잖아?  
 #1 응.

@1 무제미는 무신게 무제미파? 뭐 흐는 용, 뭐 흐는 것과? 무제미는.  
 #1 아 이거, 거. 이거 만들 때, 이거 만드는데 이거, 이거 전체의 허이 굳(?) 무시것가.  
 @1 응.  
 #1 이건 무제미고 이건 졸레석이고 이건 특줄이고 흐디.  
 @1 응.  
 #1 이 졸레석이엔 흐 건 사람 무시거흐지. 사람이 저 무시거엔 흐느니? 이 무시거.  
 @1 영 죽을 때. 영 목에 정 흐는 거?  
 #1 죽을 때 아니고.  
 @1 (웃음)  
 #1 그냥 텅길 때. 뭐 넥타이, 넥타이.  
 @1 넥타이. 으.  
 #1 넥타이 식으로 이거이.  
 @1 응.  
 #1 졸레석. 게난 사람 말이지 아니 흐당 어떤 사름 말이지 흐면 졸레석 헛네이.  
 @1 아.  
 #1 넥타이 헛네, 졸레석.  
 @1 게문 이 졸레석은 이런 거 안 행 이런 막 저기 고급으로 영 흐기도 흐켜예?  
 #1 어, 그래, 그래.  
 @1 췌, 저기 툴 좀 치장흐는 거네.  
 #1 음, 음.  
 @1 예?  
 #1 음. 그렇게 허는 거.  
 @1 음. 무, 무제미는?  
 #1 무제민, 무제민.  
 @1 무제미 역할은 무시거?  
 #1 무제미 역할은 녹대에 하나에 하나 일부분, 일부분 그냥 곧듯이.  
 @1 음. 그 다음 삼춘 이거 긴 거는 뭐우파? 여, 여기는.  
 #1 이거, 이거는 돌석.  
 @1 돌석.  
 #1 이건 도르래.  
 @1 잠깐만, 삼춘. 여기, 여기는 지금은 이렇게 헛지만 옛날에 뭘로 만들어수과? 이 도르래는.  
 #1 옛날에 도르래도 안 헛어이.  
 @1 안 허고. 게문 이 저기 무제미흐고 연결, 이 돌석을 연결해?  
 #1 이걸로 그냥 이레 연결헛어, 옛날은이.  
 @1 으.  
 #1 옛날은 그렇게 헛다고. 옛날은.  
 @1 옛날은예?  
 #1 으. 으.

@1 계난 이 어쨌든 물 이쨌 텡기젠 흐면 꼭 이 녹대를 해야될 거 아니라예?  
 #1 응.  
 @1 음. 밧 갈젠 해도 이 녹대 씹니까? 밧 갈 때도 녹대 행예?  
 #1 밧 가는 건 물로 밧 가는 건 엇어.  
 @1 아, 여기는 쉼로 밧 같고.  
 #1 쉼로 밧 같지.  
 @1 아니, 틀리기만 헛구나.  
 #1 응?  
 @1 밧 틀릴 때만 췌구나예? 음.  
 #1 물로 밧 가는 게 아니라. 물은 짐 시끄고 타곡. 타곡.  
 @1 예.  
 #1 쉼론 밧 같고.  
 @1 음.  
 #1 쉼 타는 건, 이젠 쉼도 타이.  
 @1 예.  
 #1 텔레비서. 옛날은 쉼 타면 쉼 타면 귀양다리엔 해. 귀양다리엔 흐 건 말이지.  
 @1 으.  
 #1 어, 어. 어.  
 @1 육지에서.  
 #1 어디 보내 부는 거이.  
 @1 예. 유배 보내는 거.  
 #1 심으쟁이 나쁘니까 어디 보내는 것ㄴ라 귀양다리엔 해이.  
 @1 음.  
 #1 계난 쉼, 쉼은 사람이 타는 거 아니고, 쉼은 짐 시끄는 거, 물은 타는 거.  
 @1 음.  
 #1 쉼 타면 쉼 탄, 쉼 탄 귀양다리엔 헨.  
 @1 쉼 탄 귀양다리. 거난 제대로 안 된 사람이구나예. 음. 계난 이렇게 물석, 물 녹대 이  
 레 또 와 봄서.  
 @2, #1 (웃음)  
 #1 뭐 볼 거냐게.  
 @2 뭐 볼 거냐게.  
 @1 이 줄은 이건 뭐?  
 #1 그거 무시거 아이게. 땃줄.  
 @1 응?  
 #1 그거 무시거 아니라.

### 물석·줄대·말뚝

@1 물석에다가 물 길게 이렇게 흐게 되면 줄대렌 험니까? 뭐, 뭇렌 험니까? 여기서는.



#1 줄. 줄.  
 @1 그냥 줄.  
 #1 으.  
 @1 몰줄.  
 #1 응, 응. 줄대. 줄대.  
 @1 아, 줄대.  
 #1 경 험 땅에 박는 거는 말톡.  
 @1 말톡, 예.  
 #1 줄대. 말톡.  
 @1 그난 옛날에 왜 그 저기 임신한 사람이 몰석 넘으면 그, 그런 말 잊지예?  
 #1 그런 말 잊어이.  
 @1 예, 거 무슨 말 알아 봄서.  
 #1 임신한 사름이 몰, 몰줄, 줄, 줄.  
 @1 넘으믄.  
 #1 넘으민 말이지 무시거 유산똥똥 흐든가. 무시거.  
 @1 뭐 십 개월 저기. 오래도록 저기 임신 오래 흐텐.  
 #1 음. 그렇게 흐텐. 그런 말도 흐곡. 그걸 말 약간 몰 흐면은 몰석 있는데 그냥 가달 넘  
 기민은.  
 @1 응.  
 #1 계난 불랑 넘기면은 좋아이.  
 @1, @2 아.  
 #1 뽕앙.  
 @1, @2 예.  
 #1 석 잇는 디 넘경 뽕앙 넘겨이.  
 @1 예.  
 #1 그냥 툇헛게 냉기지 말고.  
 @2 아.  
 #1 이?  
 @1 음.  
 @2 예.  
 @1 음. 거난 조심헛는 거지예?  
 #1 그래, 그래.  
 @1 말 조심 안 행 흐믈게 둥글어나 볼 수도 잇고. 몰 들력퀴면.  
 #1 응. 계난 뽕앙 넘어예?  
 @1 음.  
 #1 난 어디서 무시거 몰 저 어디 줄 뗏당은에 경 흐 땀 말이지.  
 @1 응.  
 #1 요디 영 무신거 선 굿어진 것도 말이지 가당.

@1 항상 불량.  
 #1 불량 넘어가.  
 @1 예.  
 #1 그런 거라고.  
 @1 음. 그다음에는.  
 #1 불량 넘어가.  
 @1 음. 불량 넘어가고.  
 #1 거 조심한다는 거야.  
 @1 삼춘 이 이 베도 저기 물석이우파?  
 #1 그거 그런 거 들어볼 거 엇저게.  
 @1 아니, 이것도 물석 닳아.  
 #1 뭐라고게?  
 @1 물석.  
 #1 응. 물석, 물석.  
 @1 삼춘, 옛날 물석 허젠 하면 다 드령 췌잖아예?  
 #1 으.  
 @1 멧 갑으로 드령 췌?  
 #1 무시걸로?  
 @1 멧 갑. 무슨 무시걸로 물석은 주로 드렸수과? 만든 거.  
 #1 만든 거 말이지, 산디집으로도 만들고, 미, 미로도 만들고, 칩으로도 만들고, 그거 뭐  
 지는 자기 거 무시거 좋은, 좋은 걸로 행은예.  
 @1 음.  
 #1 질긴 걸로 만들젠 하면 그렇고.  
 @1 음.  
 #1 그런 건 뭐 흔이 없고.  
 @1 예.  
 #1 옛날은.  
 @1 흔이 엇고.  
 #1 옛날은 그냥 산디집으로 꼬양이.  
 @1 예.  
 #1 산디집 막 두드령 산디집으로 꼬양 이제는 저디.  
 @1 음. 글읍서, 이젤랑.

• 연구 참여자

| 구분       | 이름  | 소속               | 연구 역할                    |
|----------|-----|------------------|--------------------------|
| 연구책임     | 김순자 | 제주학연구센터장         | 총괄, 조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
| 공동연구     | 김미진 |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연구책임, 조사, 자료 확인 및 교정, 집필 |
|          | 부영심 | 제주특별자치도문화관광해설사   | 조사, 전사, 집필               |
|          | 김영란 | 시인               | 조사, 전사, 집필               |
|          | 오경임 | 동화작가             | 조사, 전사, 집필               |
| 연구보조     | 현혜림 | 제주학연구센터 위촉연구원    | 사진 및 영상 촬영, 정리           |
|          | 서수빈 |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     | 사진 및 영상 촬영, 정리           |
|          | 현혜경 | 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     | 사진 및 영상 촬영, 정리           |
| 감수<br>위원 | 강영봉 | (사)제주어연구소 이사장    | 자문 및 감수                  |
|          | 강만익 | 제주대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                          |

제주어와 제주 전통 문화 전승과 보전 사업 2 제주 목축 문화 구술 자료

## 뜯은 뚝나게 부리곡 쉼는 세나게 부리라

---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12월 28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전화: (064)726-5623 모사전송: (064)747-6140

누리집: [www.jst.re.kr](http://www.jst.re.kr)

**제작** 도서출판 각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661-01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2020

물은 땀나게 부리꼭  
쉐는 세나게 부리라